學術調査報告 第394册

2017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XXII

145 ~ 153

2019

한국문화재재단

〈일 러 두 기〉

1. 유구도면의 방위는 자북(磁北)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동서로 22.5°범위 내에 해당되면 남-북향, 22.6~67.5°는 북동-남서/북서-남동향, 67.6~90°는 동-서향으로 기준을 적용하였다.
2. GPS 좌표값은 측지기준계 : 세계측지계, 회전타원체 : GRS80, 투영법 : TM, 투영원점은 경도를 기준으로 124~126°는 서부원점, 126~128°는 중부원점, 128~130°는 동부원점, 130~132°는 동해원점을 기준으로 하였다.
3. 도면의 축소비율은 유구는 크기 및 성격에 따라 1/20~1/180을 적용하였으며, 유물은 토기 및 자기 1/3, 기와 1/4~1/6, 철기 · 석기 · 목기 1/2~1/3, 장신구 1/1~1/2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해당도면 하단에 축척을 함께 표기하였다.
4. 유구의 입 · 단면도에 표기한 수치는 해발고도를 의미한다.
5. 유물은 같은 기종이 4점 이상인 경우 표로서 간략하게 기술하였다. 토기류 중 호는 기고 및 동최대경이 45㎝ 이상일 경우 대호로 분류하였다.
6. 유물의 기고는 중심선을 계측하였으며, 片은 잔존상태의 최대치를 기준으로 계측하였다.
7. 유물 기술 중 태토에 함유된 모래 입자의 굵기에 따라 0.1㎝ 미만을 세사립, 0.1~0.2㎝는 사립, 0.3~0.4㎝는 세석립, 0.5㎝ 이상은 석립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8. 토기(기와)는 소성된 상태에 따라 도질(경질), 연질로 구분하였다. 800℃이상의 고온에서 구워 회청색, 회색, 흑회색을 띠며, 경도가 강하여 흡수성이 거의 없고 대체로 자연유로 인해 기면에 유리질의 막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도질(경질)로, 산화염에서 구운 토기로 적갈색계통의 색조를 띠는 것을 연질로 구분하였다.
9. 인화문토기의 문양 중 종장연속문의 시문은 "宮川禎一"(1988,「文様からみた新羅印花文陶器の變遷」,『高井悌三郎先生喜壽記念論叢, 歷史學と考古學』, 高井悌三郎先生喜壽記念事業會)의 문양 시문수법을 참고하여 종방향으로 한번 찍었거나 겹쳐서 찍은 문양은 'A'시문수법, '∧'자 또는 'V'자 형태로 꼭지점의 반대쪽을 벌어지게 찍은 문양은 'B'시문수법, 종방향으로 지그재그로 찍은 문양은 'C'시문수법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10. 기와는 정치한 상태에서 4등분하여 좌측 상 · 하부, 우측 상 · 하부로 구분하고 잔존 및 결실 부위를 기술하였다.
11. 본문 표의 규격 중 (　) 안의 수치는 잔존치를 의미한다.
12. 유구의 토층과 유물의 색조는 "일본농림수산성 농림수산기술회의사무국 감수 · 재단법인 일본색채연구소 색표 감수,『신판 표준토색첩』, 2007" 및 Albert H.Munsell,『MUNSELL SOIL COLOR CHART』, 1994, revised edition을 참고하였다.
13. 본 보고서의 일러두기는 한국문화재재단에서 발굴조사한 유적에만 해당되며, 기타 기관의 일러두기는 별도로 표기하였다.
14. 본 보고서는 172개 유적을 조사완료일 순으로 편집하여 상반기(6월 27일)에 96개 유적을 14권으로, 하반기(12월 23일)에 76개 유적을 11권으로 각각 묶어 인쇄한다. 각 권별 유적 수록 목록은 Ⅱ권부터 보고서 제일 마지막 장에 게재하였다.
15. 학술적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보고서를 공개하는데 동의한다.

목 차

145. 춘천 신매리 111-29번지 외 1필지 유적(한국문화재재단) ····· 145-1
146. 김해 내삼리 794-2번지 유적(한국문화재재단) ····· 146-1
147. 강릉 초당동 330번지 유적(한국문화재재단) ····· 147-1
148. 김해 동상동 538-6번지 유적(한국문화재재단) ····· 148-1
149. 군위 화북리 632번지 유적(한국문화재재단) ····· 149-1
150. 경주 동부동 37번지 유적(신라문화유산연구원) ····· 150-1
151. 제주 삼양2동 2140-6번지 유적(제주고고학연구소) ····· 151-1
152. 대구 불로동 30-14번지 유적(세종문화재연구원) ····· 152-1
153. 춘천 장학리 439-8번지 유적(한국문화재재단) ····· 153-1

145. 춘천 신매리 111-29번지 외 1필지 유적

한국문화재재단

목 차

Ⅰ. 조사개요 ····· 145 - 7

Ⅱ. 유적의 위치와 환경 ····· 145 - 9

Ⅲ. 조사내용 ····· 145-16
〈청동기시대〉····· 145-19
1) 주거지 ····· 145-19
2) 수혈유구 ····· 145-23
〈고려시대〉····· 145-23
1) 주거지 ····· 145-23
〈수습유물〉····· 145-25

Ⅳ. 조사성과 ····· 145-28

〈부록〉
춘천 신매리 111-29번지 발굴조사 AMS분석 ····· 145-45

도 면 목 차

도면 1. 조사대상지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1:25,000) …… 145-10
도면 2. 조사대상지 지형도(1:5,000) …… 145-11
도면 3. 조사대상지 지적도(1:1,000) …… 145-16
도면 4. 발굴조사 유구배치도 …… 145-18
도면 5. 청동기시대 주거지 …… 145-20
도면 6. 청동기시대 주거지 출토유물 …… 145-22
도면 7. 청동기시대 수혈유구 …… 145-23
도면 8. 고려시대 주거지 및 출토유물 …… 145-24
도면 9. 수습유물 …… 145-26

도 판 목 차

도판 1. 발굴조사 대상지 조사전 전경(①원경, ②근경) …… 145-31
도판 2. 발굴조사 대상지(①조사후), 청동기시대 주거지(②조사전) …… 145-32
도판 3. 청동기시대 주거지(①조사중, ②조사후)…… 145-33
도판 4. 청동기시대 주거지(①②토층, ③~⑤노지1, ⑥~⑧노지2)…… 145-34
도판 5. 청동기시대 주거지(①~④수혈, ⑤~⑧주혈1, ⑨~⑪주혈2, ⑫~⑮주혈3,
⑯~⑲주혈4) …… 145-35
도판 6. 청동기시대 주거지(①~④주혈5, ⑤~⑦주혈6, ⑧~⑪주혈7, ⑫~⑮주혈8,
⑯~⑲주혈9, ⑳~㉓주혈10)…… 145-36
도판 7. 청동기시대 주거지(①~③주혈11, ④~⑥유물출토상태, 1~5:출토유물) …… 145-37
도판 8. 청동기시대 수혈유구(①조사전, ②조사중, ③조사후, ④토층) 및
고려시대 주거지(⑤조사전) …… 145-38
도판 9. 고려시대 주거지(①조사중, ②조사후)…… 145-39
도판 10. 고려시대 주거지(①②토층, ③④세부, 6~8:출토유물) …… 145-40
도판 11. 수습유물(9~11) 및 학술자문회의(①)…… 145-41

Ⅰ. 조사개요

본 조사대상지는 강원도 춘천시 서면 신매리 111-29, 111-25번지로, 사업시행자 김윤영씨의 단독주택 신축부지(604㎡)이다. 사업시행자는 주택 신축을 위해 춘천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조사구역은 신매리 유물산포지[1]의 남쪽 끝에 위치하며, 인근에 서상리 유물산포지, 금산리 · 현암리 유물산포지, 상중도 유물산포지, 하중도 유물산포지 등이 분포하고 있어 매장문화재가 분포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여 춘천시에서는 사업시행자의 단독주택 신축부지에 대해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할 경우 매장문화재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의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 시행할 것과 더불어 소규모 국비지원에 해당함을 통보하였다.

이에 사업시행자는 2017년 8월 22일 문화재청 문화재 협업포털을 통해 본 재단에 국비지원 발굴조사를 의뢰(접수번호:2017-0822-03호)하였다. 본 재단에서는 신청부지가 국비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후 10월 25일 발굴조사 세부계획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였으며, 10월 31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실조사일수 17일에 대한 발굴허가(제2017-1383호)를 받았다.

발굴조사는 11월 1일 현장조사에 착수하고 11월 20일 완료하여 실조사일수는 13.5일이 소요되었다. 발굴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주거지 1동 · 수혈유구 1기와 고려시대 주거지 1동이 확인되었으며, 무문토기 호 · 석촉 등 모두 11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조사단에서는 유적의 성격과 향후 처리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조사 말미인 11월 16일 학술자문회의[2]를 개최하였다. 회의 결과 “조사 결과를 기록보존한 후 사업을 시행해도 무방함.”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발굴조사 당시, 조사단 구성은 다음과 같다.

조 사 단 장 : 박 종 섭(조사연구단장)
책임조사원 : 정 훈 진(조사연구2팀 부팀장)
조 사 원 : 김 미 현(조사연구2팀 연구원)
준 조 사 원 : 오 정 영(조사연구2팀 연구원)
보 조 원 : 최 성 수(조사연구2팀 연구원)

*( )는 조사당시 직명임.

발굴조사 후 보고서 작업은 다음과 같이 분담하여 진행하였다.

---

1) 한림대학교박물관, 1994,『춘천시 문화유적 분포지도-춘천시-』.
2) 학술자문위원 : 지현병(강원고고문화연구원 원장), 심재연(한림대학교 한림고고학연구소 교수)

현장에서 작성하고 정리한 유구도면 및 도판은 정훈진(조사연구2팀장)의 책임 하에 최성수가 작성하였다. 유물정리 및 복원, 실측, 도면 일러스트작업은 정홍선(조사연구2팀 부팀장)의 책임하에 김경화 · 김형란 · 임희정 · 기여운(이상 조사연구2팀 연구원)이 작성하였다. 도면 및 도판편집은 최성수 · 박자연(조사연구2팀 연구원)이 담당하였으며, 유물사진은 이순희(시림 아카이브)가 촬영하였다.

원고는 Ⅰ～Ⅲ장 최성수 · 박자연(유물), Ⅳ장 최성수가 작성하였으며, 교정 및 교열과 최종 감수는 정훈진이 하였다.

Ⅱ. 유적의 위치와 환경

조사대상지는 행정구역상 강원도 춘천시 서면 신매리 111-29, 111-25번지이며, 수리적 위치는 북위 37°54′47″, 동경 127°42′38″이다.

조사대상지가 위치한 서면은 춘천의 서쪽에 해당되며, 동쪽은 신북면과 중도, 남쪽은 신동면과 남면, 서쪽은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과 북면, 북쪽은 사북면에 접해 있고, 그 중 신매리는 춘천분지의 북서쪽에 위치한다. 춘천분지의 주변산지로는 오봉산지 · 대룡산지 · 삼악산지 · 봉화산지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이 중 신매리지역은 삼악산지 동쪽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삼악산지 동쪽으로는 저산지가 분포하고 있으며, 대체로 북고남저의 산세를 이루고 있다.

또한 조사대상지 동쪽으로는 북한강의 남동쪽에 형성된 상중도 부근에서 우두평야의 동쪽에서 곡류한 소양강과 합류하여 남서쪽으로 흐른다. 북한강은 서안에 신매리 일대의 충적대지와 위도, 중도 등의 퇴적지형들을 형성하여 소양강에 의해 형성된 천전리-율문리-장학리 일대 및 우두평야의 충적대지와 더불어 대규모 유적이 입지 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였다.

조사대상지는 북한강변의 서쪽에 형성된 충적대지상에 위치하며, 서상리 · 신매리 유물산포지[3]의 분포범위 내 중앙에 위치한다. 북쪽으로는 서상리 유물산포지, 남쪽으로는 금산리 · 현암리 유물산포지 · 상중도 유물산포지 · 하중도 유물산포지 등이 분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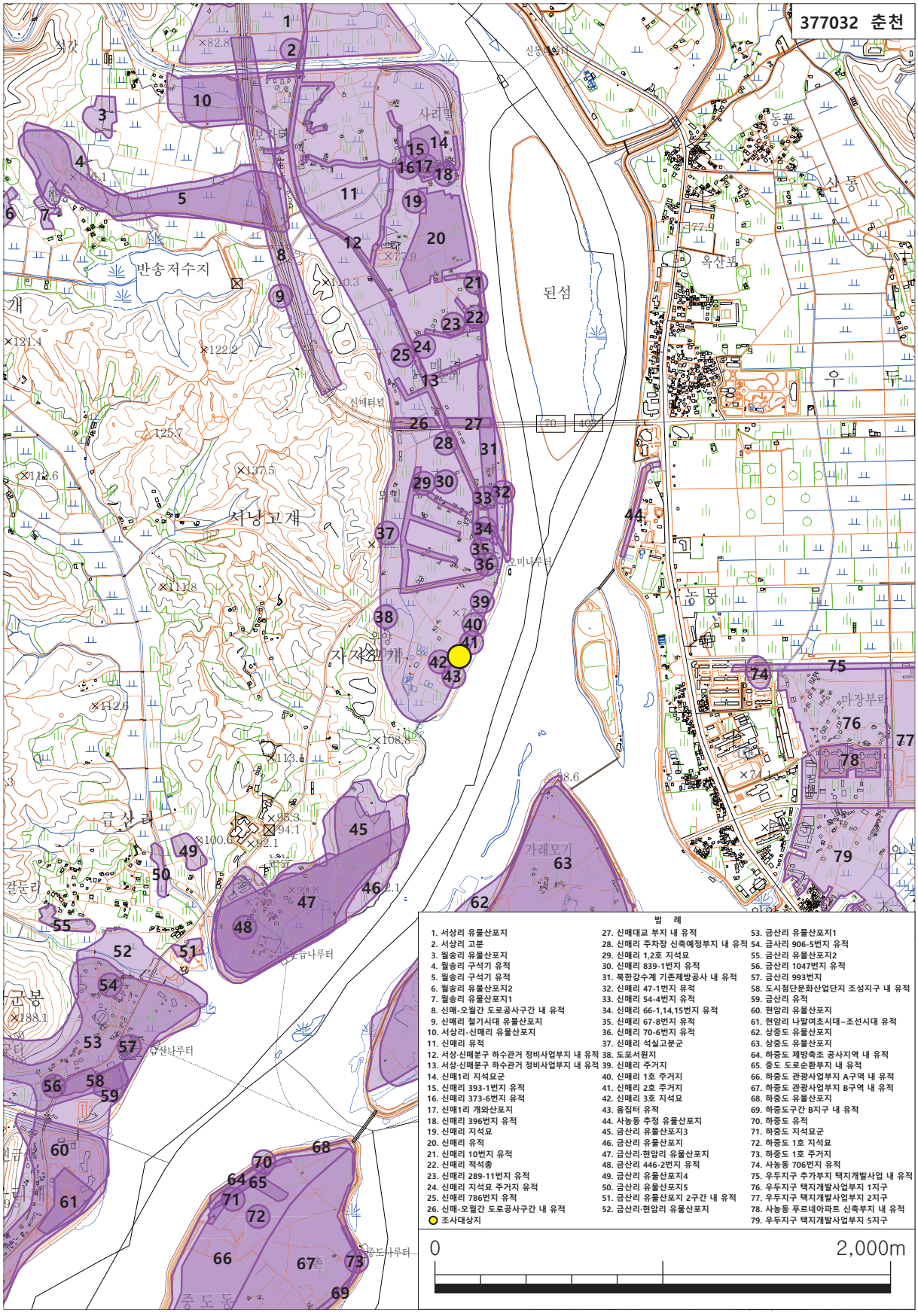
구석기시대 유적은 신매리에서는 조사되지 않았으나, 인근의 월송리[4]에서 구석기유물이 수습되었으며, 금산리 갈둔 구석기유적[5]과 서상리[6]에서 구석기유적이 발굴조사 되었다.

신석기시대 유적은 천전리-동면-신북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간구간내 유적[7] · 춘천 소양5교~소양댐간 도로확포장공사구간 내 유적[8] · 신매리 10 · 47-1번지 유적[9] · 신매리 786번지 유적[10]에서 주거지와 야외노지 등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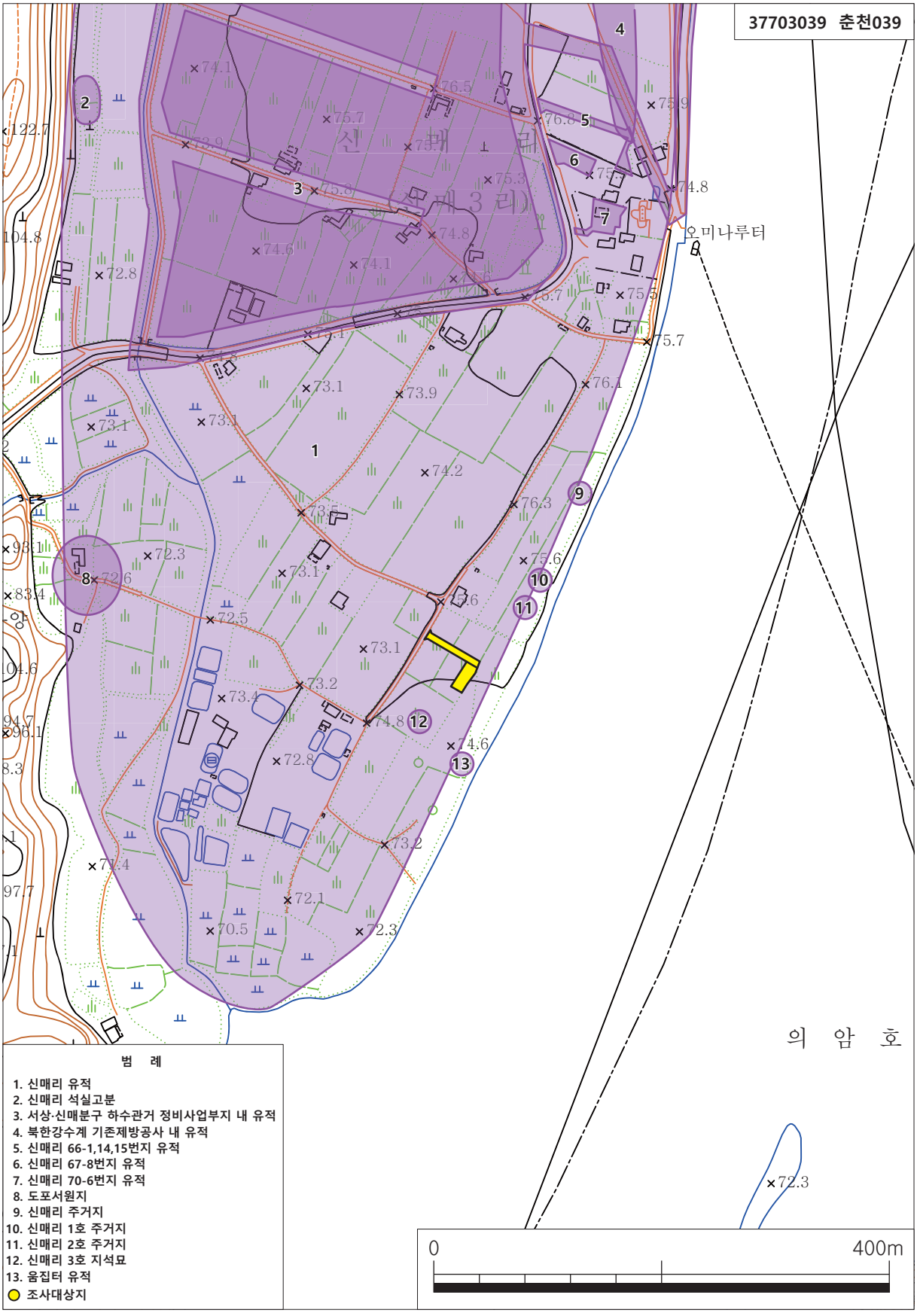
청동기시대 유적은 상대적으로 많이 조사되었는데, 취락유적과 매장유적으로 구분된다. 취락유적은 천전리-동면-신북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간구간내 유적[11] · 소양5교~소양댐간 도로확포장공사구간

---

3) 한림대학교박물관, 1994, 『춘천시 문화유적 분포지도-춘천시』.
4) 노병진 · 심재연, 1997, 「춘천의 선사유적」, 『춘천의 역사와 문화유적』, 한림대학교박물관.
5) 강원문화재연구소, 2008, 『춘천 금산리 갈둔 구석기유적』.
6) 예맥문화재연구원, 2011, 『춘천 서상리유적 -춘천 신매-오월간 도로확포장공사구간 내 B지구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7) 江原文化財硏究所, 2008, 『泉田里 -동면-신북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구간내 遺蹟 發掘調査 報告書』.
8) 예맥문화재연구원, 2016, 『春川 栗文里遺蹟 : 춘천 소양5교~소양댐간 도로확포장부지내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9) 강원문화재연구소, 2007, 『신매리 10 · 47-1번지 유적 -주택신축예정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10) 국토문화재연구원, 2017, 「춘천 서면 신매리(786번지) 단독주택신축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소규모 국비지원) 학술자문회의 자료」.
11) 江原文化財硏究所, 2008, 『泉田里 -동면-신북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구간내 遺蹟 發掘調査 報告書』.



도면 1. 조사대상지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1:25,000)



도면 2. 조사대상지 지형도(1:5,000)

내 유적[12] · 천전리 121-16번지 유적[13] · 율문리 · 천전리 유적[14] · 천전리 90-17 · 23번지 유적[15] · 천전리 97-1번지 유적[16] · 천전리 118-21번지 유적[17] · 율문리 79-3 · 6번지 유적[18] · 율문리 335-4번지 유적[19] · 신매대교부지 유적[20] · 신매리 주차장 신축부지 유적[21] · 신매리 43-2번지 유적[22] · 신매리 54-4번지 유적[23] · 신매리 66-14번지 유적[24] · 신매리 373-6번지 유적[25] · 신매리 839-1번지 유적[26] · 신매리 289-11번지 유적[27] · 신매리 786번지 유적[28] · 신매리 70-6번지 유적[29] 등이 있다. 신매리 매장유적으로는 천전리[30]에서 지석묘와 석관묘가 확인되었고, 율문리에는 지석묘가 조사되었으며[31], 천전리에서는 주구석관묘[32]가 확인되었다. 신매리에서는 지석묘와 주거지유적[33]이 확인되었다.

철기시대 유적은 신매리 신매대교부지 유적[34] · 신매리 10 · 47-1번지 유적 · 신매리 54-4번지 유

---

12) 예맥문화재연구원, 2016,『春川 栗文里遺蹟 : 춘천 소양5교~소양댐간 도로확포장부지내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13) 한림대학교박물관, 2008,『춘천 천전리 121-16번지 유적』.
14) 예맥문화재연구원, 2010,『春川 栗文里 · 泉田里遺蹟 -춘천 신북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관거 건설공사부지내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15) 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13,「8. 춘천 천전리 90-17 · 23번지 유적」,『2011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Ⅱ-경기2 · 강원-」.
16) 韓國文化財財團, 2015,「5. 춘천 천전리 97-1번지 유적」,『2012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Ⅲ-강원3-』.
17) 국강고고학연구소, 2012,「춘천 천전리 118-21번지 근생시설 신축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전문가 검토회의 자료」.
18) 韓國文化財財團, 2015,「4. 춘천 율문리 79-3 · 6번지 유적」,『2012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Ⅲ-강원3-』.
19) 江原文化財硏究所, 2008,『춘천 율문리 335-4번지 유적춘천 율문리 생물산업단지 조성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20) 한림대학교박물관, 2003,『춘천 신매대교부지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21) 강원문화재연구소, 2003,『춘천 신매리 주차장 신축예정부지 유적』.
22) 韓國文化財財團, 2015,「2. 춘천 신매리 432번지 유적」,『2013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Ⅲ-강원-』.
23) 강원문화재연구소, 2005,『신매리 544번지 유적주택신축예정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24) 한국문화재재단, 2018,「1. 춘천 신매리 66-14번지 유적」,『2016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Ⅳ-강원2-』.
25) 강원문화재연구소, 2007,『신매리 373-6번지 유적-주택신축예정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26) 韓國文化財財團, 2015,「2. 춘천 신매리 839-1번지 유적」,『2012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Ⅲ-강원3-』.
27) 한국문화재재단, 2016,「4. 춘천 신매리 289-11번지 유적」.『2014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Ⅵ-강원2-』.
28) 국토문화재연구원, 2017,「춘천 서면 신매리(786번지) 단독주택신축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소규모 국비지원) 학술자문회의 자료」.
29) 국강문화재연구원, 2017,「춘천 서면 신매리(70-9번지) 단독주택신축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소규모 국비지원) 학술자문회의 자료」.
30) 國立博物館, 1967,『韓國支石墓硏究』.
江原文化財硏究所, 2004,「春川 泉田里 支石墓群 發掘調査 報告書」,『春川地域 支石墓群 發掘調査 報告書』.
한림대학교박물관, 2008,『춘천 천전리 121-16번지 유적』.
예맥문화재연구원, 2016,『春川 栗文里遺蹟 : 춘천 소양5교~소양댐간 도로확포장부지내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31) 翰林大學 아시아文化硏究所, 1986,「江原道 遺蹟 遺物 分布 總覽」,『江原道의 先史文化』.
金容伯, 1990,『북한강 유역의 선사문화 연구-춘천일대를 중심으로-』,『江原史學』6, 江原史學會.
盧爀眞 · 張美英 · 沈載淵, 1994,「春川郡의 先史遺蹟」,『春川郡의 歷史와 文化遺蹟』, 翰林大學校博物館.
盧爀眞 · 沈載淵, 1997,「春川의 先史遺蹟」,『春川의 歷史와 文化遺蹟』, 翰林大學校博物館.
鄭然雨, 2001,『北漢江流域 支石墓 硏究』,『史學志』第34輯, 檀國史學會.
32) 江原文化財硏究所, 2008,『泉田里-동면-신북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구간내 遺蹟 發掘調査 報告書』.
33) 한림대학교박물관, 1986,『신매리 지석묘 주거지 발굴보고서』.
34) 한림대학교박물관, 2003,『춘천 신매대교부지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적 · 신매리 66-14번지 유적[35] · 신매리 70-6번지[36] 유적에서 주거유적이 조사되었으며, 율문리[37] · 천전리[38] 등에서 주거지가 조사되었다. 분묘유구는 신매리 적석총[39]이 분포하고 있다.

【표 1】 주변유적 분포 현황

번호	유적명	이격 거리	유적시기 및 성격	참고문헌	비고
1	춘천 신매-오월간 도로공사 구간내 A지구 유적	북쪽 955m	청동기~철기 지석묘, 주거지	예맥문화재연구원, 2009, 『춘천 신매리유적 Ⅰ』	
2	춘천 신매대교 부지 내 유적	북쪽 987m	청동기~철기 주거지	한림대학교박물관, 2003, 『춘천 신매대교부지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3	춘천 신매리 주차장 신축부지 내 유적	북쪽 923m	청동기 주거지	강원문화재연구소, 2003, 『춘천 신매리 주차장 신축예정부지 유적』	
4	신매리 839-1번지 유적	북쪽 715m	청동기 · 조선 수혈, 주거지	韓國文化財財團, 2015, 「2. 춘천 신매리 839-1번지 유적」, 『2012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Ⅲ-강원3-』	
5	신매리 47-1번지 내 유적	북동쪽 695m	청동기~철기 주거지, 수혈	강원문화재연구소, 2007, 『신매리 10,47-1번지 유적 주택신축 예정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6	신매리 70-6번지 유적	북동쪽 380m	청동기 주거지	국강문화재연구원, 2017, 「춘천 서면 신매리(70-6번지 일원) 건물신축부지 내 유적 국비지원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35) 한국문화재재단, 2018, 「1. 춘천 신매리 66-14번지 유적」, 『2016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Ⅳ-강원2-』.
36) 국강문화재연구원, 2017, 「춘천 서면 신매리(70-6번지 일원) 건물신축부지 내 유적 국비지원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37) 江原文化財硏究所, 2008, 『춘천 율문리 335-4번지 -춘천 율문리 생물산업단지 조성부지내 발굴조사 보고서-』.
예맥문화재연구원, 2008, 『春川 栗文里 Ⅰ -춘천 율문리 75-2번지 창고신축부지내 유적 시굴조사보고서-』.
韓國文化財財團, 2015, 「4. 춘천 율문리 79-3 · 6번지 유적」, 『2012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Ⅲ-강원3-』.
38) 江原文化財硏究所, 2008, 『泉田里-동면 신북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구간내 遺蹟 發掘調査』.
예맥문화재연구원, 2010, 『春川 栗里文 · 泉田里遺蹟 -춘천 신북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관거 건설공사부지내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13, 「5. 춘천 천전리 90-17 · 23번지 유적」, 『2011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인천 · 경기 · 강원-』.
韓國文化財財團, 2015, 「5. 춘천 천전리 97-1번지 유적」, 『2012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Ⅲ-강원3-』.
국강고고학연구소, 2012, 「춘천 천전리 118-21번지 근생시설 신축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전문가 검토회의 자료」.
39) 박한설 · 최복규, 1982, 「제1장 중도적석총 발굴보고」, 『중도발굴조사보고』, 중도선사유적발굴조사단.

번호	유적명	이격 거리	유적시기 및 성격	참고문헌	비고
7	신매리 66-14번지 유적	북쪽 420m	청동기 주거지	한국문화재재단, 2018, 「1. 춘천 신매리 66-14번지 유적」, 『2016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Ⅳ-강원2-』	
8	신매리 주거지	북동쪽 254m	청동기 지석묘, 주거지	한림대학교박물관, 1986, 『춘천 신매리 지석묘 주거지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9	신매리 1호 주거지	북동쪽 162m	청동기 주거지	국립중앙박물관, 1981, 『중도-진전보고 2-』	
10	신매리 2호 주거지	북동쪽 133m	청동기 주거지	국립중앙박물관, 1981, 『중도-진전보고 2-』	
11	신매리 3호 지석묘	남서쪽 40m	청동기 지석묘	국립중앙박물관, 1984, 『중도-진전보고 5-』	
12	움집터 유적	남쪽 66m	청동기 주거지	국립중앙박물관, 1984, 『중도-진전보고 5-』	
13	사농동 추정유물 산포지	북동쪽 983m	시대미상	춘천시 · 강원문화재연구소, 2003, 『문화유적 분포지도-춘천시』	
14	금산리 유물 산포지-3	남서쪽 1㎞	시대미상	춘천시 · 강원문화재연구소, 2003, 『문화유적 분포지도-춘천시』	

역사시대 유적은 신매3리 177-14번지 야산 말단부에서 고분 1기가 조사되었다[40]. 이 고분은 발굴조사 결과, 고분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부장유물이 출토되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고구려계통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신매1리 306번지에서는 삼국시대 고분 출토품으로 추정되는 대부삼이부호, 토기호, 토기완, 장경호, 토기병, 고배뚜껑 등이 발견매장문화재로 신고된 바 있다[41]. 또한 천전리의 지석묘 조사과정 중에 신라고분이 확인되기도 하였다[42]. 주거유적은 천전리 등에서 삼국시대에

40) 조유전, 1987, 「춘성군 신매리 고구려식 석실분 일례」, 『삼불 김원룡교수 정년퇴임기념논총 Ⅰ』.
41)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9, 『중요발견매장문화재도록 제1집』. p411.
42) 國立博物館, 1967, 『韓國支石墓研究』.

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주거지가 여러 곳에서 확인되고 있다[43].

고려시대의 유적으로는 신매리 66-14번지 유적에서 수혈유구 및 집석유구가 조사되었으며, 조선시대의 유적으로는 천전리[44], 우두동[45] 등에서 주거지와 건물지가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지가 위치한 서면은 조선시대 서상면과 서하면에 해당된다. 고종 32년 서하면을 서하 일작면과 서하 이작면으로 분할하였고, 1914년 서하 일작면과 서하 이작면의 일부를 통합하여 서하면으로 하고 기존의 서상면을 6개리로 조정하였다. 1934년 서상면의 지암 · 원평 2개리를 병합하여 사북면으로, 신매 · 월송 · 서상 · 오월 4개리를 병합하여 서면으로 개칭하게 되었다. 조사대상지의 지명인 신매리(新梅里)는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외매하리 · 사리 · 반송하리 · 신포리의 각 일부와 오매상리 · 보가대리를 병합하고 신포와 오매의 이름을 따서 신매리라 하였고 1934년 서면에 편입되었다.

43) 江原文化財硏究所, 2008,『泉田里 -동면-신북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구간내 遺蹟 發掘調査 報告書』.
한림대학교박물관, 2008,『춘천 천전리 121-16번지 유적』.
44) 江原文化財硏究所, 2008,『泉田里 -동면-신북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구간내 遺蹟 發掘調査 報告書』.
45) 江原文化財硏究所, 2007,『春川 牛頭洞 롯데인벤스 우두파크 신축부지 內 發掘調査 報告書』.

Ⅲ. 조사내용

조사대상지는 춘천시의 북서쪽 지역에 해당하며, 춘천인형극장 사거리에서 신샘밭로를 따라 서쪽으로 신매대교를 건넌 후 박사로와 만나는 사거리에서 남쪽으로 1㎞ 정도를 진행하면 남쪽으로 이어지는 삼거리가 있다. 그 삼거리에서 북한강 방향으로 310m 진행하면 다시 삼거리가 나타나는데 우측으로 20m 직진하면 동쪽에 위치한다.

조사대상지 동쪽으로는 북한강이 북에서 남으로 흐르고, 고구마섬이 위치하고 있다. 발굴조사 대상지는 북한강과 북배산에서 뻗어 내린 능선 사이에 형성된 충적지상에 위치한다.

조사대상지 일원은 동-서 방향으로 4분할 · 남-북 방향으로 3분할되는 12개의 필지로 구성되는 단독주택 부지에 해당하며, 진입로는 분할된 필지와 연접하는 111-25번지 · 111-26번지에 동-서 방향으로 개설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구역은 12개 필지 중 하나인 111-29번지와 진입로 부지에 해당하는 111-25번지에 해당된다[46].



도면 3. 조사대상지 지적도(1:1,000)

46) 이번 조사구역의 남쪽에 위치한 신매리 111-13번지(한국문화재재단, 2017, 「춘천 신매리 111-13번지 소규모 국비지원 발굴조사 약보고서」)와 111-32번지(한국문화재재단, 2017, 「춘천 신매리 111-32번지 소규모 국비지원 발굴조사 약보고서」)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였는데, 조사결과 유구나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본 조사대상지는 시굴조사가 선행되지 않고 바로 발굴조사로 접수되었다. 따라서 전면 제토 이전에 트렌치를 설정하여 문화층 및 유구의 존재여부 및 층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발굴조사는 진입로 부지에 해당하는 111-25번지부터 진행되었는데, 제토결과 황갈색사질토(7층)에서 청동기시대 및 고려시대 문화층이 확인되었다. 문화층 분포범위의 동쪽과 서쪽으로는 문화층의 하부층인 백색사질토(8층)가 노출되었다. 황갈색사질토는 북쪽 약 15m의 범위까지만 분포되었으며, 그 외의 범위에서는 유구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제토는 유구가 확인된 황갈색사질토까지만 진행하여 문화층의 분포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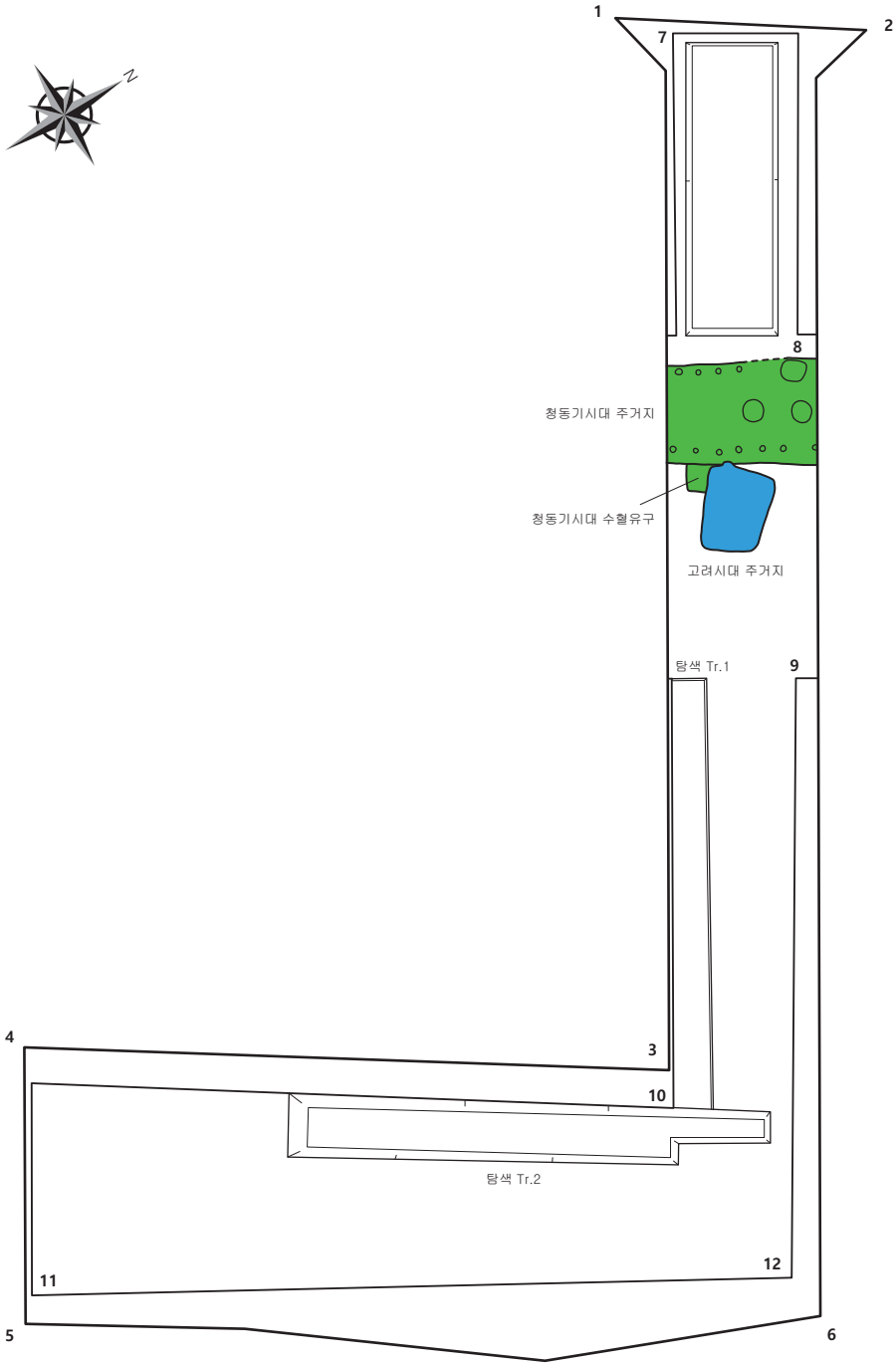
문화층에서 확인된 유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조사구역의 전체 퇴적양상 및 하부의 문화층 잔존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진입로 부지의 남벽과 주택부지 트렌치의 서벽에 접하여 폭 1.5m 정도의 탐색 트렌치를 평면 ㄴ자형으로 설정하여 최대 310㎝ 하강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북한강의 범람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하상퇴적 양상만 확인될 뿐, 유구 및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제토된 깊이가 깊고 토질이 무르기 때문에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사를 이루며 조사를 진행하였다. 토사는 토압에 의한 붕괴를 예방하고자 굴착면에서 약 3m 이상 이격하여 적토하였고, 토사의 높이가 2m를 넘지 않도록 하여 안전사고에 대해 만전을 기하였다.

조사결과 현 지표에서 50~80㎝ 하부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 1동 · 수혈유구 1기, 고려시대 주거지 1동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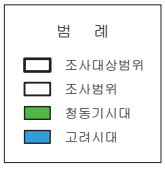
【표 2】 발굴조사 기준 토층

토층	내용	
	1층 : 암갈색사질토	표토층 (두께 약 10㎝)
	2층 : 회갈색사질점토	최근 경작층 (지표 하 10~40㎝)
	3층 : 암갈색사질점토	복토층 (지표 하 40~70㎝)
	4층 : 흑회색사질점토	자연퇴적층 (지표 하 70~200㎝)
	5층 : 황갈색사질점토	
	6층 : 흑갈색사질점토	
	7층 : 황갈색사질토	청동기 · 고려시대 문화층 (지표 하 50~80㎝)
	8층 : 백색사질토	자연퇴적층 (지표 하 200㎝ 이상)



GPS 측정 제원표												
측정	TM 좌표		측정	TM 좌표		측정	TM 좌표		측정	TM 좌표	
GPS1	X	590614.350m	GPS4	X	592811.900m	GPS7	X	592811.580m	GPS10	X	590594.190m
	Y	262489.650m		Y	262514.730m		Y	262490.980m		Y	262529.360m
	Z	75.470m		Z	74.750m		Z	72.500m		Z	72.450m
GPS2	X	590622.360m	GPS5	X	590567.610m	GPS8	X	590613.550m	GPS11	X	590567.940m
	Y	262494.260m		Y	262523.580m		Y	262505.990m		Y	262522.760m
	Z	75.450m		Z	74.740m		Z	74.800m		Z	74.000m
GPS3	X	590594.850m	GPS6	X	590595.290m	GPS9	X	590606.450m	GPS12	X	590595.100m
	Y	262527.940m		Y	262538.820m		Y	262517.390m		Y	262537.350m
	Z	74.920m		Z	75.010m		Z	74.650m		Z	73.700m





도면 4. 발굴조사 유구배치도

토층 퇴적 양상은 진입로 부지의 남벽을 기준으로 상부에서부터 암갈색사질토(1층:표토층) - 회갈색사질점토(2층:최근 경작층) - 암갈색사질점토(3층:복토층) - 흑회색사질점토(4층:자연퇴적층) - 황갈색사질점토(5층:자연퇴적층) - 흑갈색사질점토(6층:자연퇴적층) - 황갈색사질토(7층:청동기 · 고려시대문화층) - 백색사질토(8층:자연퇴적층) 순으로 퇴적되었으며, 8층 아래로 백색사질토와 갈색사질점토가 교대로 퇴적되어 확인되었다.

1층(표토층)은 농업용 폐비닐과 소량의 생활쓰레기가 혼입된 암갈색사질토로 표토하 10㎝ 내외의 두께로 확인된다.

2층(최근 경작층)은 회갈색사질점토로 약 30~40㎝ 정도의 두께로 확인되며, 층의 단면상에서 로터리 흔적이 나타나며, 고추 끈 및 농업용 폐비닐 등이 매몰되어 있어 최근까지 밭으로 사용되었던 층으로 판단된다.

3층(복토층)은 암갈색사질점토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경사진 원지형을 따라 퇴적된 층으로 4층의 상면을 두께 약 30㎝ 정도로 거의 수평에 가깝게 삭평하고 복토하였다. 결국 조사대상지를 경작지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평탄화 작업한 층으로 판단된다.

4~6층(자연퇴적층)은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북한강쪽으로 경사져 내려가는 원지형을 따라 퇴적된 자연퇴적층으로 동쪽으로 갈수록 두텁게 확인되며, 다른 층과는 다르게 약간의 점성이 있다.

7층(청동기 · 고려시대 문화층)은 황갈색사질토로 조사대상지 진입로 부분의 서쪽 경계에서 약 16m 떨어진 지점에서 너비 15m 정도만 잔존하고 있는 층으로 이 층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 및 고려시대 주거지 등이 확인되었다.

8층(자연퇴적층)은 북한강의 영향으로 형성된 백색모래인데, 서쪽의 진입로 부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설정한 트렌치에서 표토하 최대 360㎝까지 확인되었으며, 그 이하는 안전상의 이유로 더 이상 하강하지 못하였다.

〈청동기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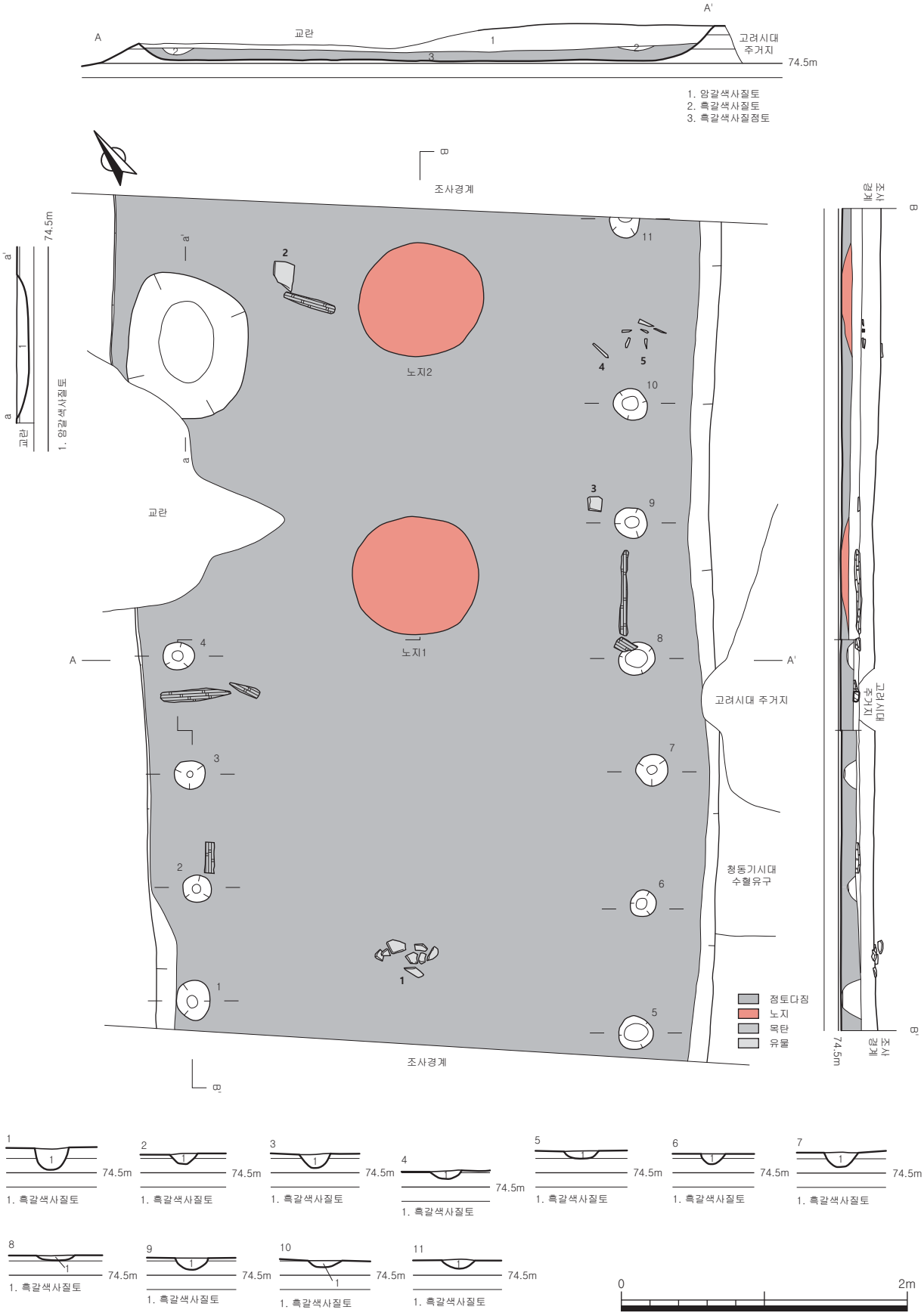
1) 주거지

가. 유구(도면 5, 도판 2-②~7-⑥)

조사대상지 북서쪽에 위치하며, 해발 74.8m 지점에서 확인되었다. 동서의 범위는 확인되었으나 남북은 조사경계 밖으로 연장된다. 동쪽에 선축된 청동기시대 수혈을 파괴하고 조성되었으며, 동벽 일부는 고려시대 주거지의 축조로 인해 파괴되었다.

황갈색사질토를 굴착하고 조성하였으며, 평면형태는 잔존양상으로 보아 장방형으로 추정된다. 노출된 규모는 장축 590㎝ · 단축 400㎝ · 깊이 24㎝이며, 장축방향은 북동-남서(N-31°-E)향이다.

벽면은 약간 비스듬하게 굴착하였으며, 바닥은 평탄하게 정지하여 사용하였다. 내부에는 암갈색사질토 - 흑갈색사질토가 위에서 아래로 퇴적되어 있었다. 바닥은 남동쪽 일부를 제외하고는 평탄하게 정지한 후 흑갈색사질점토를 2~5㎝ 정도 깔아 다짐하여 생활면으로 사용하였다.



도면 5. 청동기시대 주거지

내부시설은 노지 2기와 수혈 1기, 주혈 11개가 확인되었다. 노지는 주거지의 중앙과 북동쪽 조사경계에 인접하여 각각 1개가 확인되었으며, 노지 간 간격은 110㎝이다. 바닥을 원형으로 굴광하여 조성한 무시설식으로 크기는 지름 80~82㎝ · 깊이 6~8㎝이며, 내부에는 갈색사질토가 퇴적되었다. 수혈은 주거지의 북쪽에서 확인되었으며, 교란으로 인해 남서쪽 일부가 파괴되었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에 가깝고, 크기는 너비 104㎝ · 길이 83㎝ · 깊이 8㎝이며, 내부에는 암갈색사질토가 퇴적되었다. 주혈은 주거지의 북서쪽에서 4개 · 남동쪽에서 7개가 각각 확인되었는데 간격은 90~120㎝이다.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크기는 지름 18~24㎝ · 깊이 5~8㎝이며, 내부에는 흑갈색사질토가 퇴적되었다.

유물은 동쪽 모서리에서 석재 2점이 확인되었고 남서쪽에서 무문토기 호 1점이 출토되었으며, 내부조사 중 무문토기편 2점 등 5점이 출토되었다[47].

나. 유물

1. 무문토기 호 구연부편(도면 6-1, 도판 7-1)

구연부만 일부 잔존하고 있다. 태토는 석립이 다량으로 포함된 점토를 이용하였으며, 외면의 상당부분이 박락되었다. 색조는 외면은 명갈색(5YR 5/6), 내면은 갈색(10YR 5/3)을 띠고 있다. 기형은 동체 상단에서 외만기미로 직립하여 구연으로 이어지며 구연부는 살짝 외반한다. 구연단은 편평하게 마무리하였다. 내외면에 물손질흔과 지두압흔이 잔존하고 있다.

잔존기고 13.5㎝, 두께 0.6~1.3㎝

2. 구연부편(도면 6-2, 도판 7-2)

구연부 일부만 잔존하고 있다. 태토는 세석립이 다량으로 포함된 점토를 이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황갈색(7YR 5/4)을 띠고 있다. 기형은 동체는 비스듬히 내만하여 직립하는 구연으로 이어지며 구연단은 편평한 편이다. 내외면에 목리흔과 지두압흔이 확인된다.

잔존기고 6.4㎝, 두께 0.5㎝

3. 무문토기 동체부편(도면 6-3, 도판 7-3)

동체부 일부만 잔존하고 있다. 태토는 세석립이 소량으로 포함된 점토를 이용하였다. 색조는 외면이 적갈색(7.5YR 4/6), 내면은 갈색(10YR 5/3)을 띠고 있다. 동체 내외면에 지두압흔과 물손질흔이 확인된다.

잔존기고 9.6㎝, 두께 0.5㎝

---

47) 11월 16일 개최된 학술자문회의에서는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북벽과 남벽부분이 경계면이어서 이번에 조사되지 않았다. 이 부분도 향후 발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이번 발굴조사에서 완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자문위원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하지만 조사지역 북동쪽(111-20번지)과 남서쪽(111-27번지)의 경우에도 본 조사대상지 내 건축이 완료된 이후 국비발굴이 신청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거지의 양쪽 미조사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필지의 국비발굴 신청이 접수된 이후 순차적으로 조사를 진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이번 조사를 조사대상지 내에서 노출된 부분까지만 진행하였다.

4. 석재(도면 6-4, 도판 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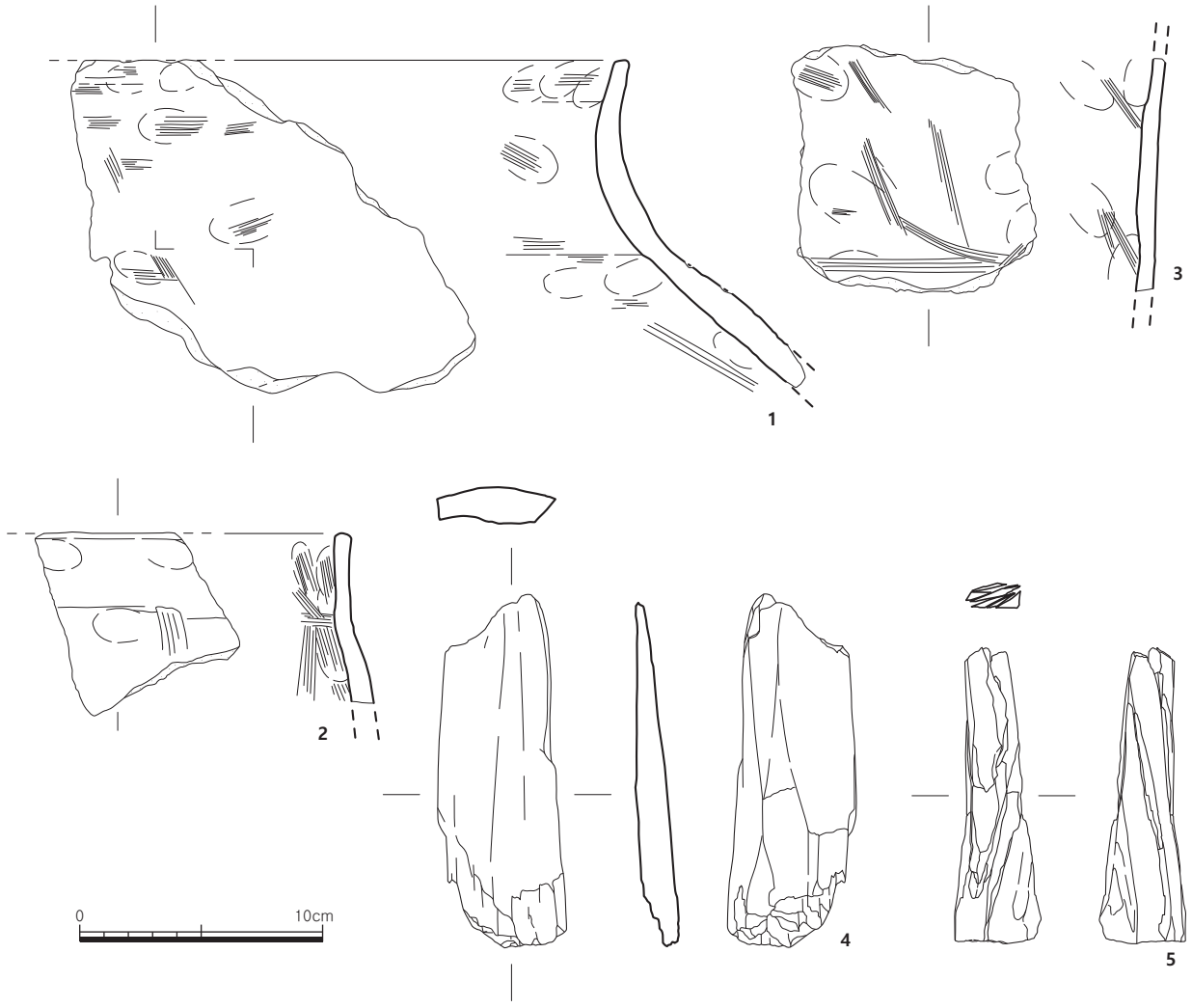
규암제 석재이다.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에 가깝고 단면형태는 장방형에 가까우나 두께는 일정하지 않다. 가공한 흔적은 확인되지 않으며, 석기로 만들기 위한 돌감인 듯 하다.

길이 14.1㎝, 너비 4.9㎝, 두께 0.3㎝

5. 접합석재(도면 6-5, 도판 7-5)

11조각으로 구성된 석재편으로 결합부분이 완전하지 않으나 1개체로 보인다. 평면형태는 긴 삼각형, 단면형태는 장방형에 가깝다. 가공흔은 확인되지 않는다.

길이 12.0㎝, 너비 2.3㎝, 두께 1.0㎝



도면 6. 청동기시대 주거지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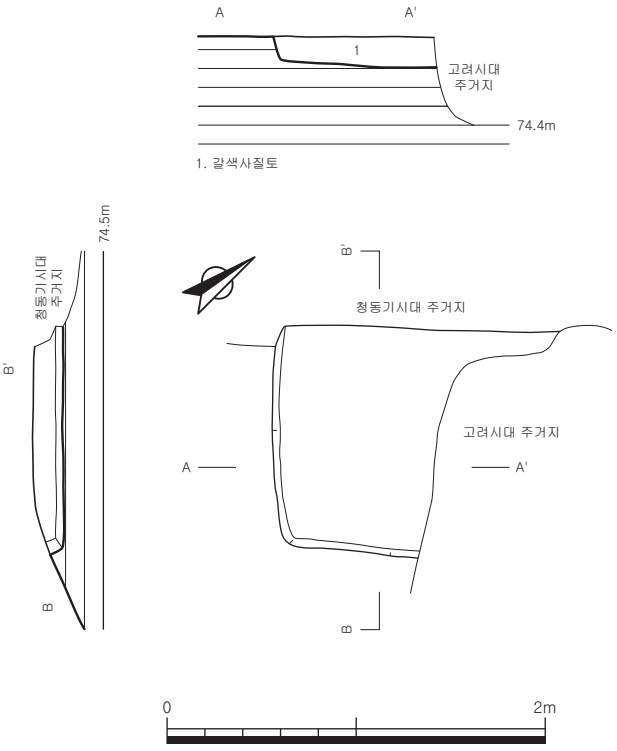
2) 수혈유구

가. 유구(도면 7, 도판 8-①~④)

조사대상지 북서쪽에서 위치하며, 해발 74.8m 지점에서 확인되었다. 북서쪽은 청동기시대 주거지에 의해, 북동쪽은 고려시대 주거지가 조성되는 과정에서 파괴되었다.

황갈색사질토를 굴착하고 조성하였다. 상태가 양호하지 못하여 정확한 평면형태를 알기 어려우나 잔존양상으로 보아 (장)방형으로 추정된다. 벽면은 수직에 가깝게 굴착되었으며, 바닥은 평탄하게 정지하였다. 규모는 길이 99㎝ · 너비 146㎝ · 깊이 8㎝이며, 장축방향은 북서-남동(N-50°-W)향이다. 내부토는 갈색사질토 단일층이다.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도면 7. 청동기시대 수혈유구

〈고려시대〉

1) 주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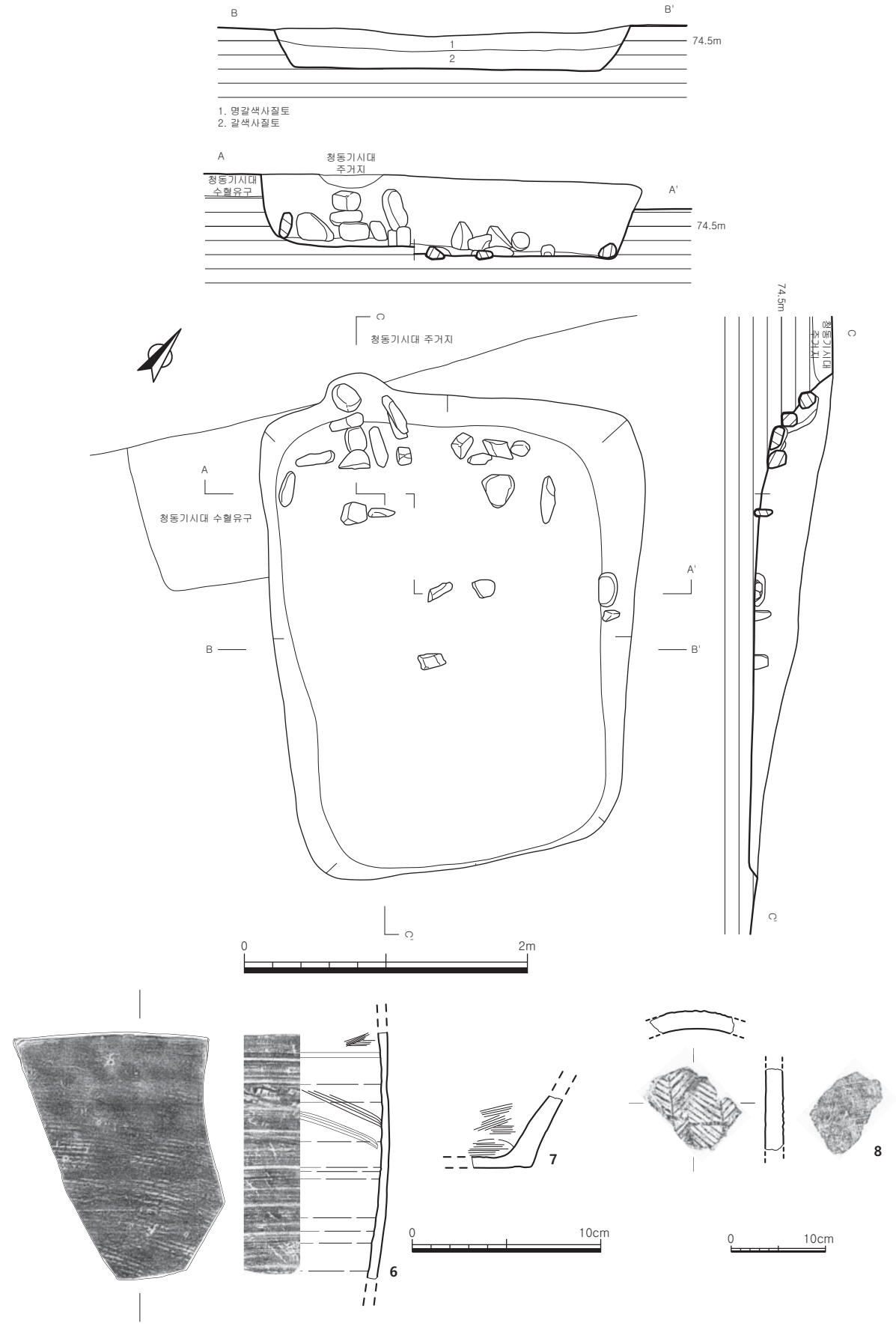
가. 유구(도면 8, 도판 8-⑤~10-④)

조사대상지 북서쪽에 위치하며, 해발 74.8m 지점에서 확인되었다. 북서쪽 모서리와 배연부가 선축된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수혈을 파괴하고 축조되었다.

황갈색사질토를 굴착하고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에 가까우며, 연도 일부가 북서쪽 모서리에 반타원형으로 나타난다. 규모는 길이 355㎝ · 너비 258㎝ · 잔존깊이 45㎝이며, 장축방향은 북서-남동(N-41°-W)향이다. 벽면은 비스듬하게 굴착하였으며, 바닥은 평탄하게 정지하여 사용하였다. 내부에는 명갈색사질토 - 갈색사질토가 위에서 아래로 퇴적되었다.

내부시설은 북서벽에 접하여 구들시설이 확인되었는데, 배연부와 북서쪽 고래열 일부만 잔존할 뿐 나머지 대부분은 유실되었다. 구들은 10~24㎝ 크기의 강돌로 축조하였으며, 규모는 길이 192㎝ · 너비 22㎝이다. 북서쪽 고래열은 북서벽에서 약간 떨어진 지점의 바닥면 위에 강돌을 일렬로 배치하였으며, 양쪽 모서리 부분에서 닫히는 양상이다. 배연부는 북서쪽 고래열의 중앙에서 남동쪽으로 치우친 부분에 축조하였는데, 연도 일부만 잔존하고 있다. 연도는 주거지 벽면을 일부 굴착한 형태이며, 너비는 약 16㎝이다. 아궁이와 굴뚝 등의 다른 시설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유물은 내부 조사 중 갈색사질토에서 토기편 2점과 기와편 1점이 출토되었다.



도면 8. 고려시대 주거지 및 출토유물

나. 유물

6. 동체부편(도면 8-6, 도판 10-6)

경질토기 동체부편으로 태토는 세석립이 소량 포함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표면은 회청색(10YR 6/1)을, 속심은 갈색(5YR 5/3)을 띠고 있다. 외면은 격자타날 후 물손질로 정면하여 타날흔이 일부 잔존하고 있으며 내면에는 물레흔, 격자 박자흔, 물손질 정면흔이 확인된다.

잔존기고 13.0㎝, 두께 0.6㎝

7. 저부편(도면 8-7, 도판 10-7)

저부 일부만 잔존하고 있으며 태토는 세석립이 소량 포함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표면은 회갈색(10YR 6/2), 속심은 회색(10YR 7/1)을 띠고 있다. 저부는 평저이며 동체는 사선방향으로 이어진다. 내외면에 물손질 정면흔, 지두압흔이 확인된다.

잔존기고 3.8㎝, 두께 1.3㎝

8. 암키와편(도면 8-8, 도판 10-8)

신부 일부만 잔존하고 있으며 태토는 세석립이 다량 포함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표면은 회갈색(10YR 6/2), 속심은 회색(10YR 7/1)을 띠고 있다. 외면에 어골문이, 내면에 포목흔이 확인된다.

잔존 길이 8.6㎝, 잔존 너비 8.9㎝, 두께 1.8㎝

〈수습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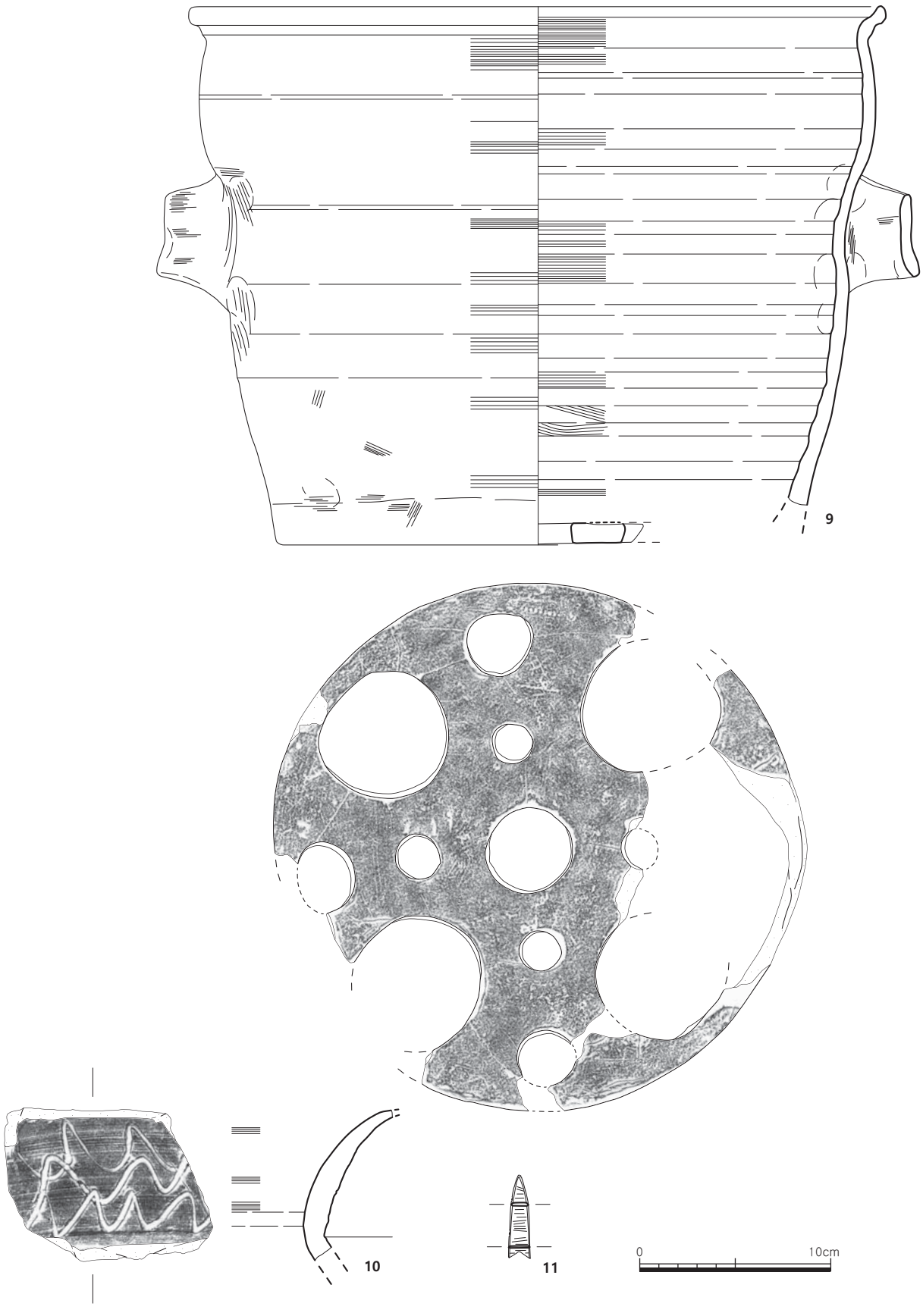
9. 시루(도면 9-9, 도판 11-9)

구연부와 동체부가 일부 결실되어 도상복원하였다. 태토는 세석립이 소량 포함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표면은 회갈색(10YR 6/2), 속심은 회색(10YR 7/1)을 띠고 있다. 저부는 평저이고 동체는 완만하게 올라가며 중상위에 대상파수가 부착되어 있다. 구연부는 외반하다 단부가 짧게 내만하며 구연단은 둥글게 마무리하였다. 저부의 증기공은 6.5㎝ 4개 · 4.5㎝ 1개 · 3.3㎝ 3개 · 2.2㎝ 4개로, 총 12개이다. 전체를 8분할한 다음 중앙에 4.5㎝의 증기공을 배치하고 전후좌우에 십자모양으로 6.5㎝의 증기공을 배치하고 그사이에 2.2㎝와 3.3㎝의 증기공을 일렬로 배치하여 전체 증기공을 형성하였다. 외면은 물손질로 정면하였으며, 대상파수 주변에 지두압흔이 확인된다. 내면은 물레흔과 물손질 정면흔이 뚜렷하게 잔존하고 있다.

기고 28.1㎝, 복원 구경 36.6㎝, 저경 27.6㎝, 두께 0.6~1.1㎝

10. 경부편(도면 9-10, 도판 11-10)

경부 일부만 잔존하고 있으며, 태토는 세석립이 소량 포함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표면은 회청색(10YR 6/1), 속심은 자주색(2.5YR 3/4)을 띠고 있다. 기형은 동체상단에서 경부가 완만하게 외반한 형태이다. 외면에 1치구의 파상문이 3열 확인되며 맨 위의 1열부터 아래로 차례로 그어 파상문



도면 9. 수습유물

이 일부 겹쳐졌다. 내외면에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 기고 8.0㎝, 두께 0.5~1.3㎝

11. 석촉(도면 9-11, 도판 11-11)

신부가 극히 일부 결실되었으나 완형에 가까운 점판암제 석촉이다. 석촉은 인부가 뚜렷하게 잔존하고 있으며, 단면형태는 편육각형이다. 경부는 삼각형으로 만입되어 있는 무경식이며 전면 마연되어 있다.

길이 4.3㎝, 너비 1.1㎝, 두께 0.1㎝

Ⅳ. 조사성과

본 조사대상지는 김윤영씨의 단독주택 신축부지로 행정구역상 강원도 춘천시 서면 신매리 111-29 · 111-25번지에 해당하며, 조사대상면적은 604㎡이다.

조사대상지는 '신매리 유물산포지' 남쪽에 치우쳐 위치한다. 주변에는 청동기 유적과 다수의 주거지 유적이 분포하고 있으며, 조사대상지의 북쪽 인근에는 '신매리 지석묘' · '신매리 66-14번지 유적' · '신매리 70-6번지 유적'이 위치한다. 조사대상지는 북한강의 범람에 의해 형성된 배후습지에서 자연제방으로 연결되는 입지에 조성되었다. 그 후, 강물의 흐름으로 인해 상부 문화층이 침식되고 자연제방에 해당하는 부분만 잔존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대상지는 시굴조사가 선행되지 않고 바로 발굴조사로 접수되었다. 발굴조사는 2017년 11월 1일 착수하여 11월 20일 완료하였으며, 실조사일수는 13.5일이 소요되었다. 조사 말미인 11월 16일 유적의 성격과 향후 처리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학술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발굴조사 결과, 조사된 유구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1동 · 수혈유구 1기와 고려시대 주거지 1동이다.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신매리 일원에서 확인되는 청동기시대 마을의 전형적인 장방형 주거지로, 양 끝부분이 조사경계 바깥쪽으로 연장된다. 주거지 바닥은 일부를 제외하고 점토를 2~5㎝ 정도 다짐하여 생활면으로 사용하였다. 주거지 내부의 중앙과 북동쪽에서 노지 2기가 확인되었는데 '신매리 70-6번지 유적'의 19호 주거지와 같은 무시설식 노지이며, 노지 간 거리는 약 110㎝이다. 수혈은 북벽 근처에서 확인되었는데 저장공으로 추정된다. 주혈은 양쪽 벽에서 대칭되게 확인되었으며, 주혈 간 간격은 90~120㎝이다.

수혈유구는 청동기시대와 고려시대의 주거지에 의해 파괴되어 남쪽 모서리 일부만 확인되었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으나 청동기시대 주거지에 의해 파괴된 것으로 보아 청동기시대로 편년하였다.

고려시대 주거지는 말각장방형으로 북서벽에 인접하여 잔존상태가 불량한 구들이 확인되었다. 구들에서는 고래와 배연부가 확인되었는데, 고래는 북동-남서 방향이고, 배연부는 고래의 중앙에서 남동쪽으로 약간 치우친 지점에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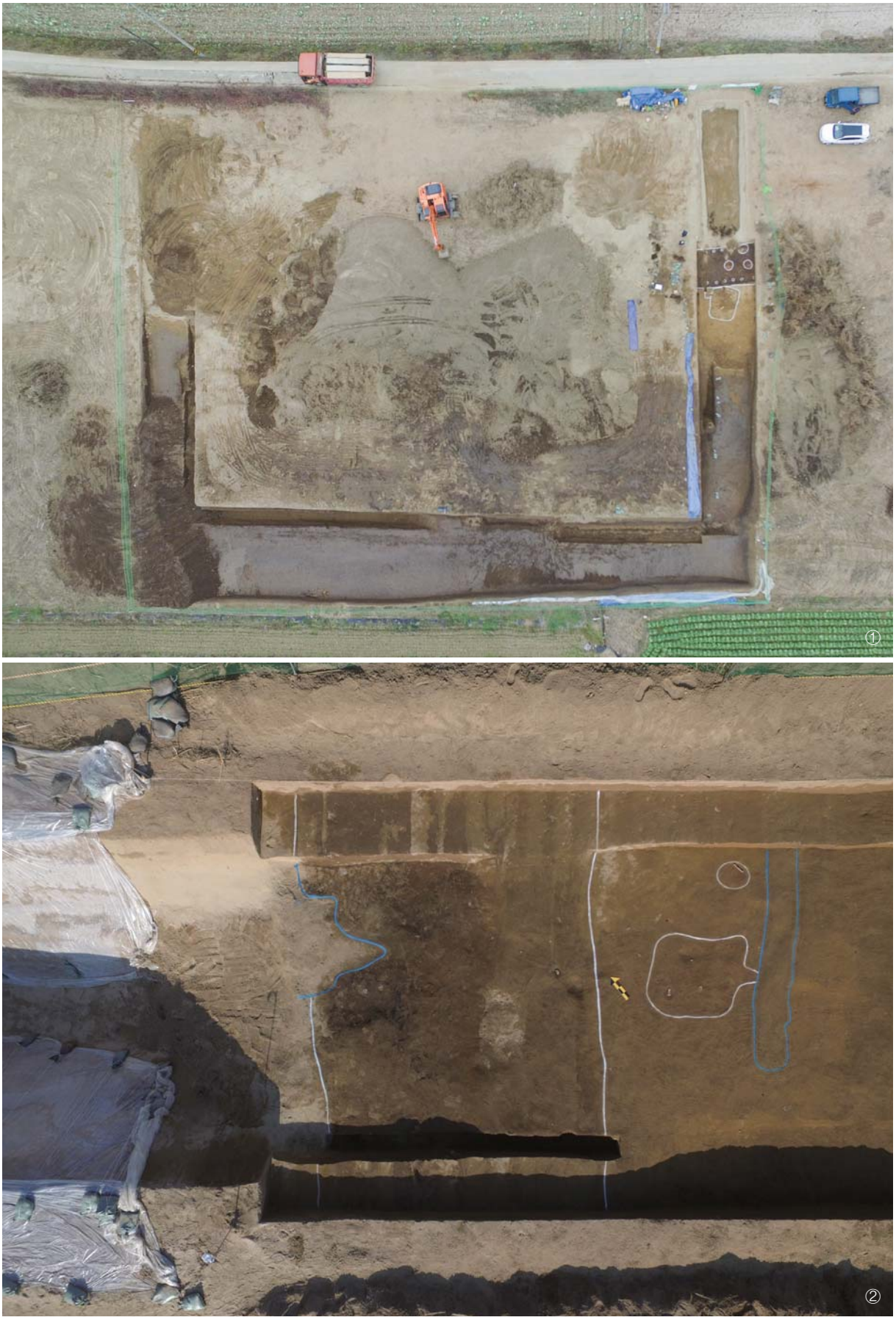
유물은 총 11점으로, 청동기시대에 해당하는 무문토기와 소수의 석제품이 출토되었다. 무문토기는 북쪽에 위치한 '신매리 66-14번지 유적'등 신매리 일원에서 출토되는 무문토기와 유사하다. 석재는 가공한 흔적이 확인되지 않으며 석기로 만들기 위한 돌감을 수집한 것으로 추정된다. 접합 석재는 석촉 등을 제작하기 위해 1개체의 석재를 깨서 결합부분이 빈약하나 11조각으로 구성된다.

이를 종합하면,'신매리 66-14번지 유적' · '신매리 70-6번지 유적'등 인근 유적과 비교하여 유구와 유물을 검토한 결과, 조사대상지는 신매리 일원에서 확인되는 청동기시대 마을의 전형적인 양상을 보인다. 또한, 청동기시대 주거지 바닥에서 채취한 목탄시료를 분석한 결과, 추정 편년이 약 BC 900~BC 800으로 도출되어 유적이 형성된 시대를 뒷받침해주며, 이번 발굴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자료는 청동기시대 취락의 양상을 밝힐 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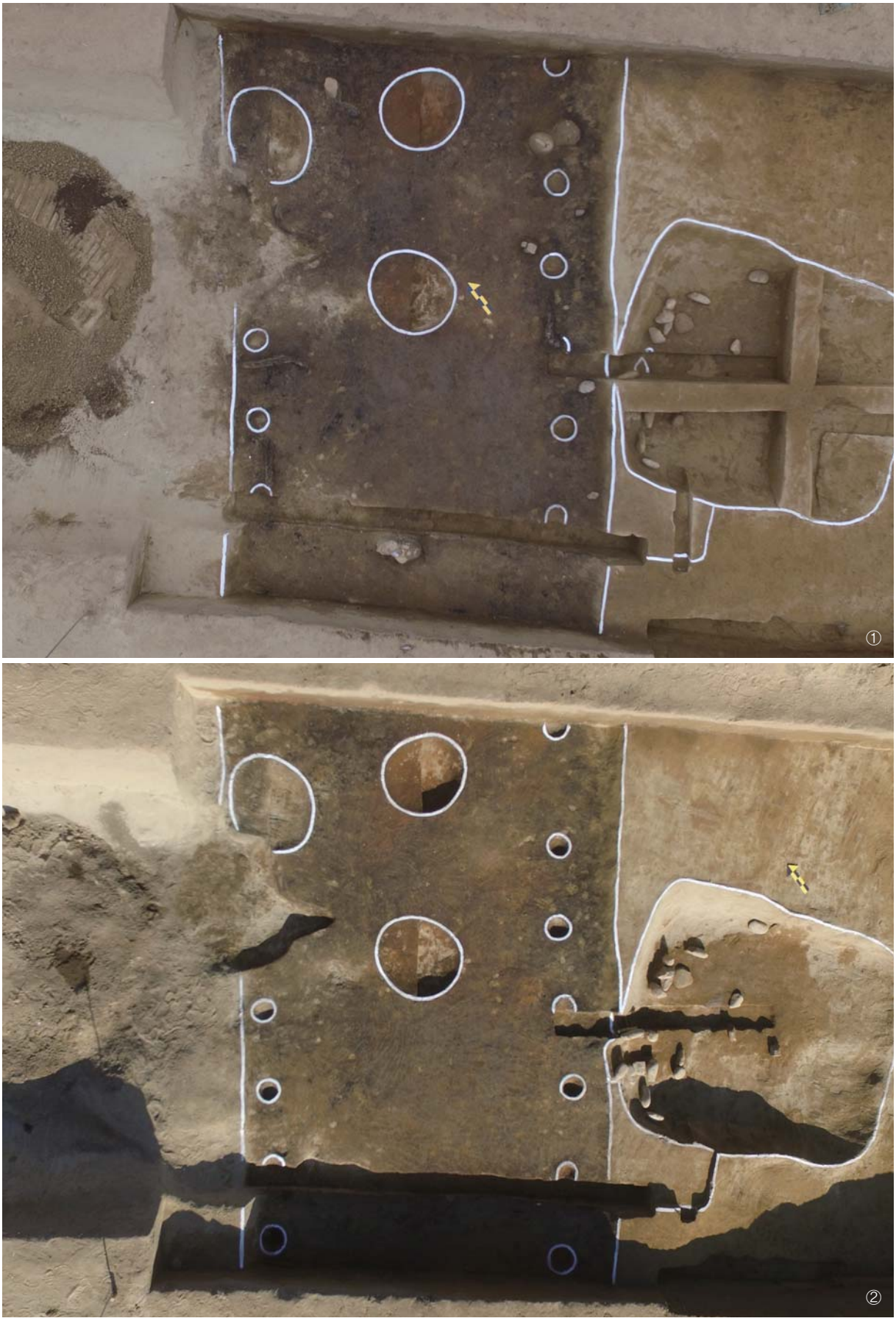
도 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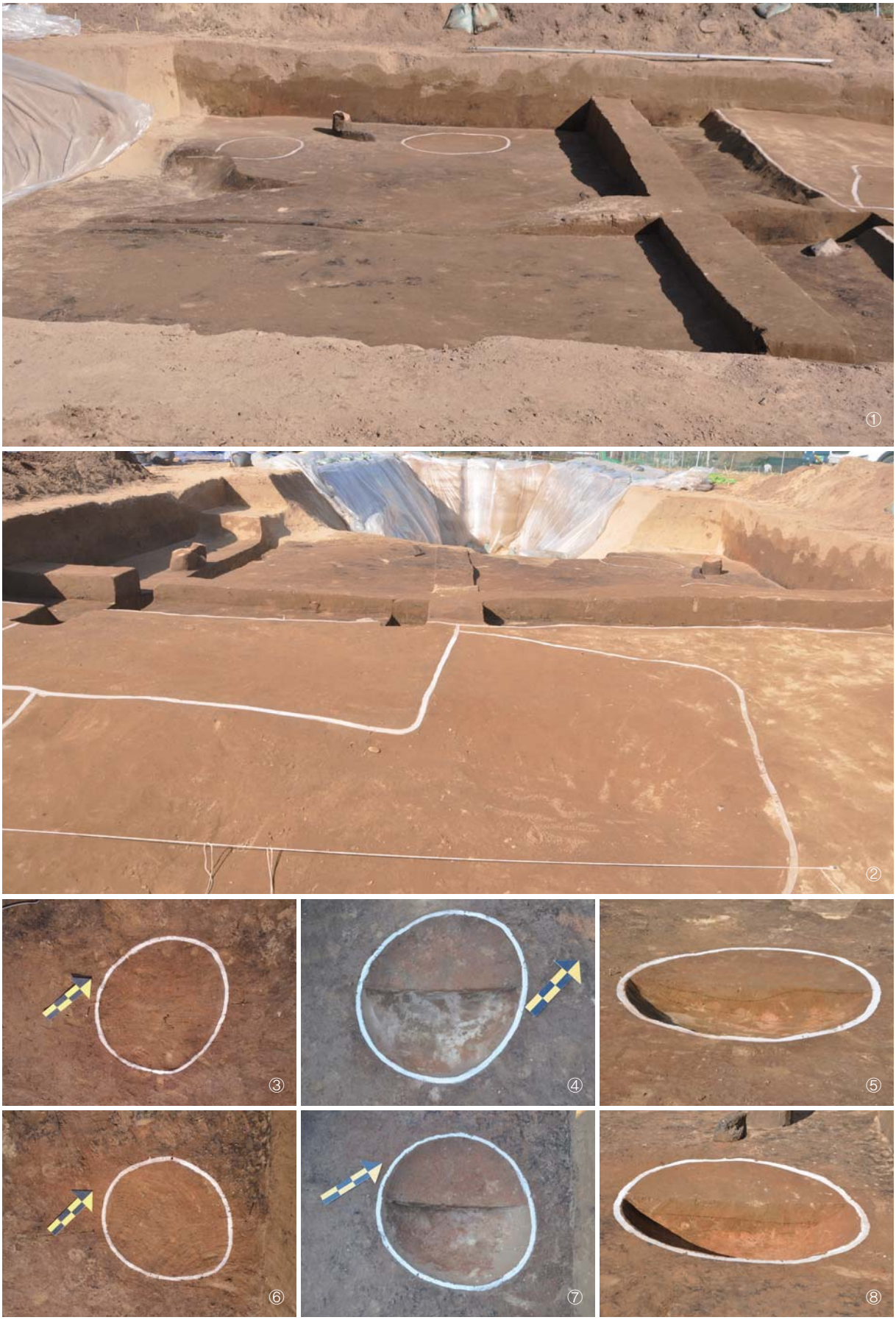
도판 1. 발굴조사 대상지 조사전 전경(①원경, ②근경)



도판 2. 발굴조사 대상지(①조사후), 청동기시대 주거지(②조사전)



도판 3. 청동기시대 주거지(①조사중, ②조사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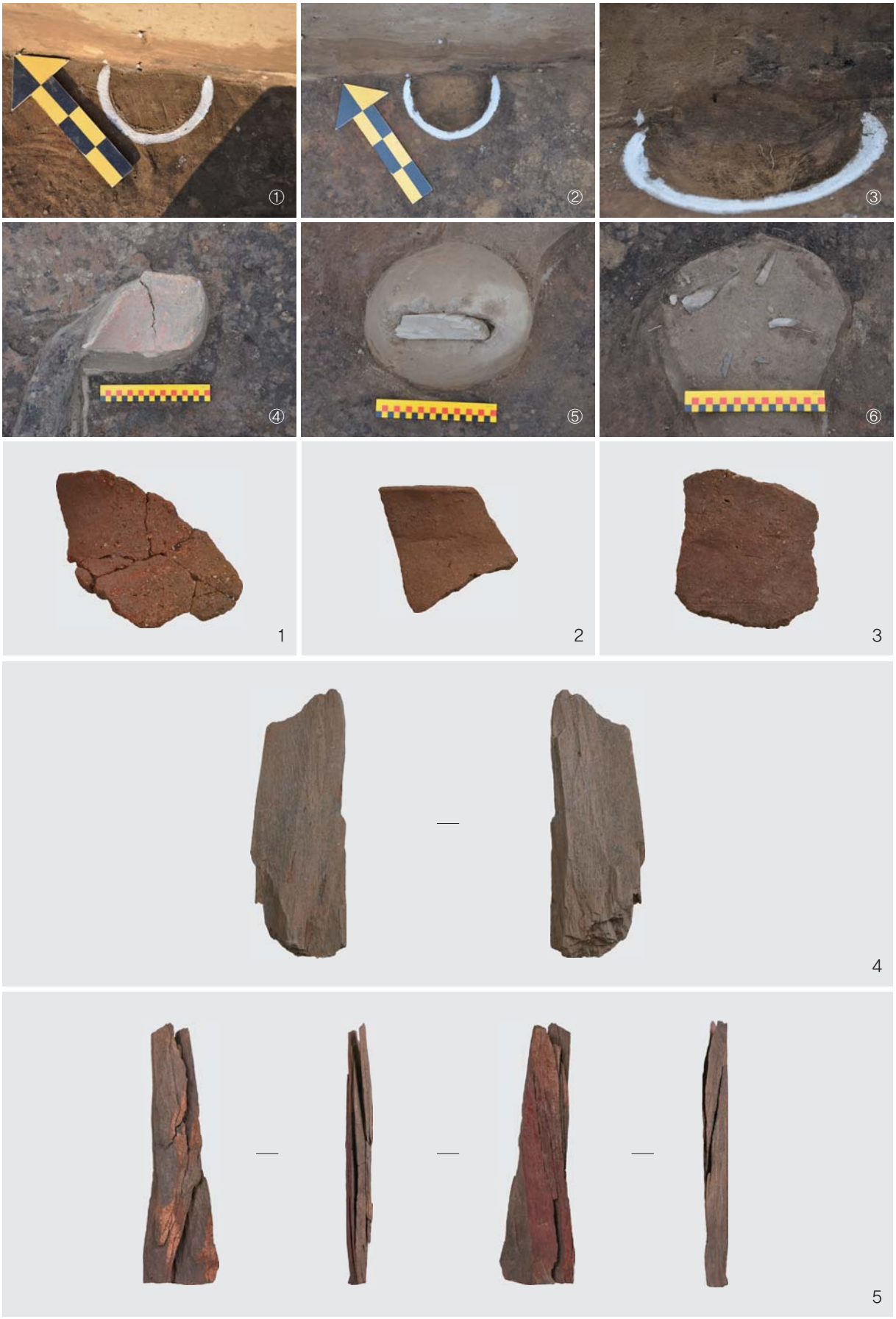
도판 4. 청동기시대 주거지(①②토층, ③~⑤노지1, ⑥~⑧노지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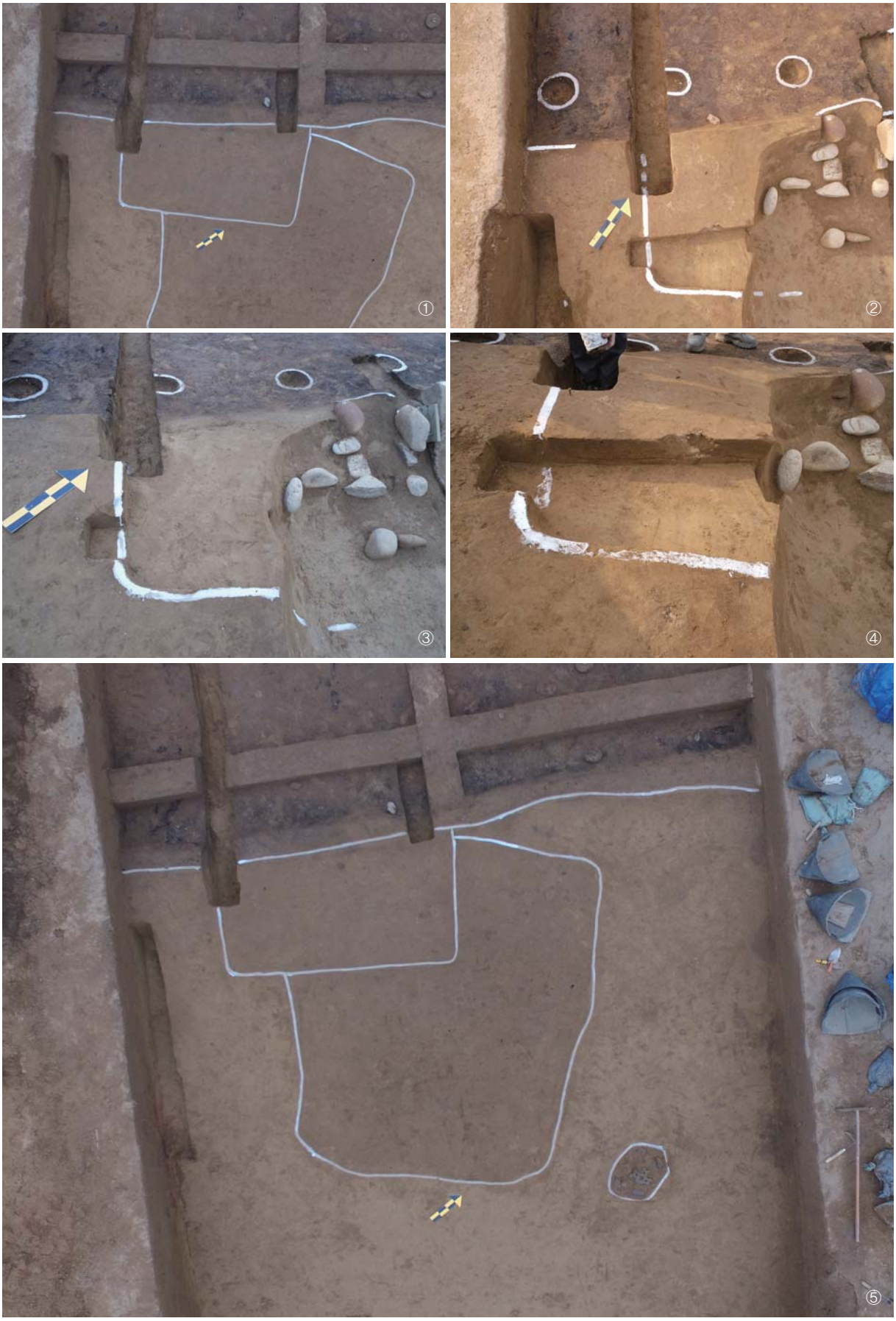
도판 5. 청동기시대 주거지(①~④수혈, ⑤~⑧주혈1, ⑨~⑪주혈2, ⑫~⑮주혈3, ⑯~⑲주혈4)



도판 6. 청동기시대 주거지(①~④주혈5, ⑤~⑦주혈6, ⑧~⑪주혈7, ⑫~⑮주혈8, ⑯~⑲주혈9, ⑳~㉓주혈10)



도판 7. 청동기시대 주거지(①~③주혈11, ④~⑥유물출토상태, 1~5:출토유물)



도판 8. 청동기시대 수혈유구(①조사전, ②조사중, ③조사후, ④토층) 및 고려시대 주거지(⑤조사전)



도판 9. 고려시대 주거지(①조사중, ②조사후)



도판 10. 고려시대 주거지(①②토층, ③④세부, 6~8:출토유물)









도판 11. 수습유물(9~11) 및 학술자문회의(①)

부 록

춘천 신매리 111-29번지 발굴조사 AMS분석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우) 136-791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14길 5 전화 : (02)958-5959 팩스:(02)958-5974

시 험 성 적 서

발급번호	KISTAMS 1800166	접수일자	2018.10.05
의 뢰 자	최성수	전 화	010-6606-8421
소 속	한국문화재재단		
주 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노산2길 3-57 노산리 538번지		
시료명(수량)	1		
시험방법 및 기기	AMS		
시험일자	2018.11.07		
시험결과	별첨 참조		

특이사항

※ 본 시험성적서는 광고, 선전, 홍보 및 법적쟁송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본 시험성적서는 의뢰자가 제공한 시료로부터 얻은 것으로, 유사 대상시료에 적용할 수 없음.

2018 년 11 월 14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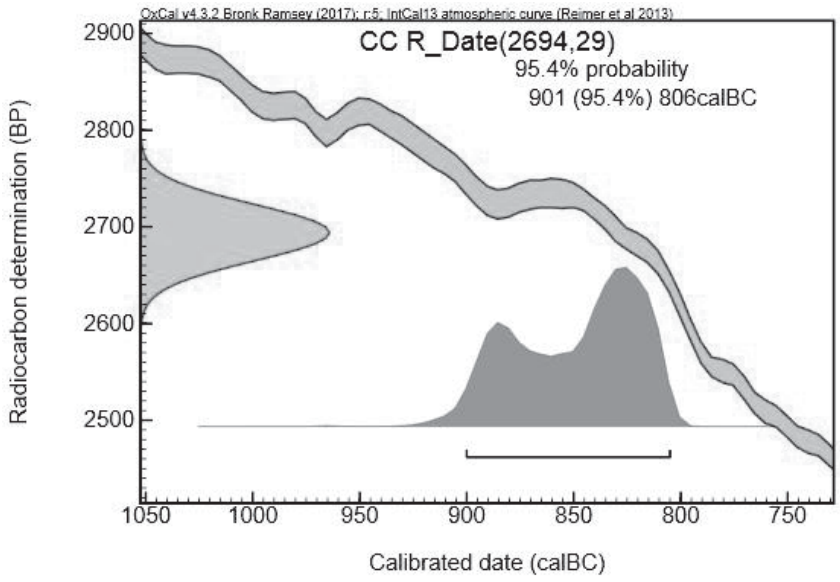
한 국 과 학 기 술 연 구 원
승인자: **특성분석센터장**

발급번호	KISTAMS 1800166

시 험 결 과

시료명	CC	의뢰자	최성수
의뢰일	2018.10.05	소 속	한국문화재재단

Conventional Radiocarbon Age		$\delta^{13}C$ (‰)		pMC
2,694 ± 29		-29.6 ± 0.2		71.51 ± 0.26



95.4 % probability : **901 BC ~ 806 BC**

시료처리 : AAA처리

- Calendar Year Calibration : OxCal v4.2.4

춘천 신매리 111-29번지 외 1필지 유적 유물목록

유물번호	유물명	수량 (점)	출토유구	분류		크기(㎝)			도면번호 도판번호	선별 결과
				재질	시대	기고 (길이)	구경 (폭)	저경 (두께)		
2017-1383 -0001	무문토기 호 구연부편	1	주거지	토도	청동기	(13.5)	-	0.6~1.3	6-1 7-1	Y
2017-1383 -0002	구연부편	1	주거지	토도	청동기	(6.4)	-	0.5	6-2 7-2	Y
2017-1383 -0003	무문토기 동체부편	1	주거지	토도	청동기	(9.6)	-	0.5	6-3 7-3	Y
2017-1383 -0004	석재	1	주거지	옥석 유리	청동기	14.1	4.9	0.3	6-4 7-4	Y
2017-1383 -0005	접합석재	1	주거지	옥석 유리	청동기	12.0	2.3	1.0	6-5 7-5	Y
2017-1383 -0006	동체부편	1	주거지	토도	고려	(13.0)	-	0.6	8-6 10-6	Y
2017-1383 -0007	저부편	1	주거지	토도	고려	(3.8)	-	1.3	8-7 10-7	Y
2017-1383 -0008	암키와편	1	주거지	토도	고려	(8.6)	(8.9)	1.8	8-8 10-8	Y
2017-1383 -0009	시루	1	수습	토도	시대 미상	28.1	36.6	27.6	9-9 11-9	Y
2017-1383 -0010	경부편	1	수습	토도	시대 미상	(8.0)	-	0.5~1.3	9-10 11-10	Y
2017-1383 -0011	석촉	1	수습	옥석 유리	시대 미상	4.3	1.1	0.1	9-11 11-11	Y

146. 김해 내삼리 794-2번지 유적

한국문화재재단

목 차

Ⅰ. 조사개요 …… 146 - 9

Ⅱ. 유적의 위치와 환경 …… 146-11

Ⅲ. 조사내용 …… 146-17
〈삼국시대〉 …… 146-19
1) 수혈유구 …… 146-19
(1) 수혈유구 13호 …… 146-19
(2) 수혈유구 14호 …… 146-21
(3) 수혈유구 20호 …… 146-23
(4) 수혈유구 32호 …… 146-24
(5) 수혈유구 35호 …… 146-24
(6) 수혈유구 41호 …… 146-26
(7) 기타 수혈유구 …… 146-26
2) 구상유구 …… 146-36
3) 주혈 …… 146-36

Ⅳ. 조사성과 …… 146-46

도 면 목 차

도면 1. 조사대상지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1:25,000) …… 146-12
도면 2. 조사대상지 지형도(1:5,000) …… 146-13
도면 3. 조사대상지 지적도(1:1,000)…… 146-16
도면 4. 유구분포도 …… 146-18
도면 5. 수혈유구 13호 및 출토유물 …… 146-20
도면 6. 수혈유구 14호 및 출토유물 …… 146-22
도면 7. 수혈유구 20호 및 출토유물 …… 146-23
도면 8. 수혈유구 32호 …… 146-24
도면 9. 수혈유구 35호 …… 146-25
도면 10. 수혈유구 41호 …… 146-26
도면 11. 수혈유구 1~6호 …… 146-29
도면 12. 수혈유구 7~12호 …… 146-30
도면 13. 수혈유구 15~19호 …… 146-31
도면 14. 수혈유구 21~26호 …… 146-32
도면 15. 수혈유구 27~31 · 33 · 38호 …… 146-33
도면 16. 수혈유구 34 · 36 · 37호 …… 146-34
도면 17. 수혈유구 39 · 40 · 42호 …… 146-35
도면 18. 구상유구 1 · 2호 …… 146-37
도면 19. 주혈 1~12 …… 146-41
도면 20. 주혈 13~29 …… 146-42
도면 21. 주혈 30~44…… 146-43
도면 22. 주혈 45~57…… 146-44
도면 23. 상부 수습유물 …… 146-45

도 판 목 차

도판 1. 전체 사업부지 전경(①항공사진 ▭ : 조사대상지), 조사대상지 조사전 전경(②W→E) ····· 146-49
도판 2. 조사대상지 전경(①조사후(항공사진), ▭ : 확장 조사구간, ②중앙부 및 서쪽 전경(항공사진)) ····· 146-50
도판 3. 수혈유구 1호(①조사전(S→N), ②토층, ③조사후(S→N)), 수혈유구 2호(④조사전(S→N), ⑤토층, ⑥조사후(S→N)), 수혈유구 3호(⑦조사전(S→N), ⑧토층) ····· 146-51
도판 4. 수혈유구 3호 조사후(①S→N), 수혈유구 4호(②조사전(SE→NW), ③토층, ④조사후(SE→NW)), 수혈유구 5호(⑤조사전(N→S), ⑥토층, ⑦조사후(N→S)), 수혈유구 6호 조사전(⑧N→S) ····· 146-52
도판 5. 수혈유구 6호(①토층, ②조사후(N→S)), 수혈유구 7호(③조사전(W→E), ④토층, ⑤조사후(W→E)), 수혈유구 8호(⑥조사전(N→S), ⑦토층, ⑧조사후(N→S)) ····· 146-53
도판 6. 수혈유구 9호(①조사전(NW→SE), ②토층, ③조사후(N→S)), 수혈유구 10호(④조사전(NW→SE), ⑤토층, ⑥조사후(NW→SE)), 수혈유구 11호(⑦조사전(N→S), ⑧토층) ····· 146-54
도판 7. 수혈유구 11호 조사후(①N→S), 수혈유구 12호(②조사전(N→S), ③토층, ④조사후(N→S)), 수혈유구 13호(⑤조사전(NW→SE), ⑥토층) ····· 146-55
도판 8. 수혈유구 13호(①②내부주혈1 토층 및 조사후, ③④내부주혈2 토층 및 조사후, ⑤유물 출토상태, 1:출토유물, ⑥조사후(NW→SE)), 수혈유구 14호(⑦조사전(NW→SE), ⑧조사후(NW→SE)) ····· 146-56
도판 9. 수혈유구 14호(①남-북 토층, ②동-서 토층, ③④내부주혈 토층 및 조사후, ⑤유물 출토상태, 2 · 3:출토유물), 수혈유구 15호(⑥조사전(N→S), ⑦토층) ····· 146-57
도판 10. 수혈유구 15호(①조사후(N→S)), 수혈유구 16호(②조사전(NW→SE), ③토층, ④조사후(NW→SE)), 수혈유구 17호(⑤조사전(W→E), ⑥토층, ⑦조사후(SW→NE)), 수혈유구 18호 조사전(⑧W→E) ····· 146-58
도판 11. 수혈유구 18호(①토층, ②조사후(W→E)), 수혈유구 19~21호(③조사전(NW→SE), ④조사후(NW→SE)) ····· 146-59
도판 12. 수혈유구 19호(①조사전(NW→SE), ②토층, ③조사후(NW→SE)), 수혈유구 20호(④조사전(NW→SE), ⑤토층, ⑥유물 출토상태, ⑦조사후(NW→SE), 4 · 5:출토유물) ····· 146-60
도판 13. 수혈유구 21호(①조사전(NW→SE), ②토층, ③조사후(NW→SE)), 수혈유구 22 · 23호 조사전(④NW→SE), 수혈유구 22호(⑤토층, ⑥조사후(NW→SE)), 수혈유구 23호(⑦토층, ⑧조사후(NW→SE)), 수혈유구 24호 조사전(⑨N→S) ····· 146-61

도판 14. 수혈유구 24호(①토층, ②조사후(N→S)), 수혈유구 25호(③조사전(N→S), ④토층, ⑤조사후(N→S)), 수혈유구 26호(⑥조사전(NE→SW), ⑦토층, ⑧조사후(NE→SW)) …… 146-62
도판 15. 수혈유구 27호(①조사전(N→S), ②토층, ③조사후(N→S)), 수혈유구 28호(④조사전(N→S), ⑤토층, ⑥조사후(N→S)), 수혈유구 29호(⑦조사전(W→E), ⑧토층) … 146-63
도판 16. 수혈유구 29호 조사후(①W→E), 수혈유구 30호(②조사전(W→E), ③토층, ④조사후(W→E)), 수혈유구 31호(⑤조사전(W→E), ⑥토층, ⑦조사후(W→E)), 수혈유구 32호 조사전(⑧N→S) …… 146-64
도판 17. 수혈유구 32호(①토층, ②③내부주혈 토층 및 조사후, ④조사후(N→S)), 수혈유구 33호(⑤조사전(NE→SW), ⑥토층, ⑦조사후(NE→SW)), 수혈유구 34~37호 조사전(⑧W→E) …… 146-65
도판 18. 수혈유구 34~37호 조사후(①W→E), 수혈유구 34호(②조사전(W→E), ③토층, ④조사후(W→E)) …… 146-66
도판 19. 수혈유구 35호(①조사전(N→S), ②토층, ③④내부주혈 토층 및 조사후, ⑤조사후(N→S)), 수혈유구 36호 조사전(⑥NW→SE) …… 146-67
도판 20. 수혈유구 36호(①토층, ②조사후(N→S)), 수혈유구 37호(③조사전(W→E), ④조사후(W→E)) …… 146-68
도판 21. 수혈유구 38호(①조사전(W→E), ②토층, ③조사후(W→E)), 수혈유구 39호(④조사전(W→E), ⑤토층, ⑥조사후(SW→NE)), 수혈유구 40호(⑦조사전(SW→NE), ⑧토층) …… 146-69
도판 22. 수혈유구 40호 조사후(①W→E), 수혈유구 41호(②조사전(W→E), ③토층, ④⑤내부주혈 토층 및 조사후, ⑥조사후(W→E), 수혈유구 42호 조사전(⑦N→S) …… 146-70
도판 23. 수혈유구 42호(①남-북토층, ②조사후(N→S)), 구상유구 1호(③조사전(NE→SW), ④⑤토층) …… 146-71
도판 24. 구상유구 1호 조사후(①NE→SW), 구상유구 2호(②조사전(W→E), ③④토층, ⑤조사후(W-E)) …… 146-72
도판 25. 주혈 2(①조사전(W→E), ②토층, ③조사후(W→E)), 주혈 3(④조사전(W→E), ⑥토층, ⑥조사후(W→E)), 주혈 6(⑦조사전(W→E), ⑧토층, ⑨조사후(W→E)), 주혈 8(⑩조사전(N→S), ⑪토층, ⑫조사후(N→S)), 주혈 10(⑬조사전(NW→SE, ⑭토층, ⑮조사후(NW→SE)), 주혈 12(⑯조사전(W→E), ⑰토층, ⑱조사후(NW→SE)) …… 146-73
도판 26. 주혈 15(①조사전W→E), ②토층, ③조사후(W→E)), 주혈 17(④조사전(W→E), ⑤토층, ⑥조사후(W→E)), 주혈 21(⑦조사전(W→E), ⑧토층, ⑨조사후(W→E)), 주혈 24(⑩조사전(W→E), ⑪토층, ⑫조사후(SW→NE)), 주혈 25(⑬조사전(W→E), ⑭토층, ⑮조사후(W→E)), 주혈 28(⑯조사전(W→E), ⑰토층, ⑱조사후

(W→E)) ····· 146-74
도판 27. 주혈 29(①조사전(W→E), ②토층, ③조사후(W→E)), 주혈 30(④조사전(W→E), ⑤토층, ⑥조사후(NW→SE)), 주혈 32(⑦조사전(S→N), ⑧토층, ⑨조사후(S→N)), 주혈 34(⑩조사전(N→S), ⑪토층, ⑫조사후(N→S)), 주혈 36(⑬조사전(W→E), ⑭토층, ⑮조사후(W→E)), 주혈 38(⑯조사전(W→E), ⑰토층, ⑱조사후(W→E)) ····· 146-75
도판 28. 주혈 40(①조사전(W→E), ②토층, ③조사후(W→E)), 주혈 42(④조사전(W→E), ⑤토층, ⑥조사후(W→E)), 주혈 44(⑦조사전(W→E), ⑧토층,⑨조사후(W→E)), 주혈 46(⑩조사전(W→E), ⑪토층, ⑫조사후(W→E)),주혈 48(⑬조사전(W→E), ⑭토층, ⑮조사후(W→E)), 주혈 50(⑯조사전(W→E),⑰토층, ⑱조사후(W→E)) ··· 146-76
도판 29. 주혈 51(①조사전(W→E), ②토층, ③조사후(W→E)), 주혈 53(④조사전(W→E),⑤토층, ⑥조사후(W→E)), 주혈 55(⑦조사전(W→E), ⑧토층, ⑨조사후(W→E)), 주혈 56(⑩조사전(N→S), ⑪토층, ⑫조사후(N→S)), 상부 수습유물(6 · 7) ····· 146-77

Ⅰ. 조사개요

본 발굴조사 대상지는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내삼리 794-2번지로 김종대씨의 농·어업시설 신축 부지(982㎡)이다. 조사 경위 및 경과는 다음과 같다.

사업시행자는 농가용 창고시설 신축을 위해 김해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김해시는 신청지가 김해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부지 내 유적과 인접하고 있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6조(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사업시행전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되어야 할 사항임을 통보하였다.

이에 사업시행자는 전체 사업부지인 1,686㎡에 대하여 한국문물연구원에 지표조사를 의뢰하였으며, 한국문물연구원에서는 2017년 6월 2일부터 6월 8일까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유구 및 유물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으나, 인접한 김해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구간 내 유적[1]과 연결된 지형으로 유적이 잔존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므로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유구의 유존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2]

이후 사업시행자는 한국문물연구원에 표본조사를 의뢰하였으며, 표본조사는 2017년 7월 20일에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전체 사업부지 중 서쪽에 설치한 트렌치에서는 원지형이 훼손되어 유구 및 문화층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유구는 부지의 동쪽과 중앙부에 설치한 트렌치에서 삼국시대 토기편과 함께 수혈유구 1기 및 주혈 11개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전체면적(1,686㎡) 중 유구가 확인된 부지의 중앙부와 동쪽을 중심으로 982㎡에 대한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3]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본 조사가 국비지원 발굴조사 대상임을 김해시를 통하여 확인하고, 2017년 8월 14일에 문화재청 문화재전자민원 협업포털시스템을 통해 본 재단에 발굴조사를 신청하였다. 정밀발굴조사 세부계획서는 2017년 10월 20일에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였으며, 10월 24일에 현장조사일수 20일에 대한 문화재청 허가(제2017-1355호)를 받았다.

발굴조사는 2017년 11월 7일에 착수하였다. 조사결과, 조사부지 전면에서 삼국시대 수혈유구 42기, 구상유구 2기와 주혈 57개 등 총 101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4]

조사단에서는 확인된 유구에 대하여 기록 보존한 후 2017년 11월 22일(현장조사일수 12일)에 현장조

---

1)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2014, 『金海 內三里 生活遺蹟』.

2) 한국문물연구원, 2017, 「김해시 주촌면 내삼리 794-2번지 창고시설 건립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조사당시, 토사가 매립된 상태로 지표에서는 유구 및 유물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동쪽으로 100m 정도 떨어져 위치하는 김해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구간 내 유적과 같은 입지조건 및 연결된 지형으로 청동기시대 및 삼국시대 생활유구가 잔존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판단하였다.

3) 한국문물연구원, 2017, 「김해시 주촌면 내삼리 794-2번지 창고시설 건립부지 내 문화재 발굴(표본)조사 결과보고」. 트렌치 3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조사결과, 동쪽에 설치한 트렌치에서는 주혈 2개, 중앙부에 설치한 트렌치에서는 수혈유구 1기와 주혈 9개가 확인되었다. 서쪽에 설치한 트렌치에서는 대지조성을 위한 교란층만 확인되었으며, 원지형이 심하게 훼손되어 유구나 유물 등 매장문화재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4) 구상유구 2호가 발굴범위의 서쪽 경계 밖으로 이어져 사업시행자와 협의 후, 서쪽 경계부 밖으로 55㎡ 정도 확장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사를 완료하였다.

발굴조사 당시, 조사단 구성은 다음과 같다.

조 사 단 장 : 박 종 섭(문화재조사연구단장)
책임조사원 : 박 무 식(조사연구1팀 부팀장)
조 사 원 : 권 오 재(조사연구1팀 연구원)
준 조 사 원 : 한 철 민(조사연구1팀 연구원)
보 조 원 : 최 재 성(조사연구1팀 연구원)

*( )는 조사당시 직명임.

발굴조사 후 보고서 작업은 다음과 같이 분담하여 진행하였다.

유물정리 및 복원, 실측, 도면 일러스트작업은 강성귀 책임 하에 하혜진, 김유정, 이영호, 윤영경 등 본 재단 연구원이 분담하여 작성하였다. 도면 및 도판편집은 강성귀, 한철민, 황도담이 담당하였으며, 유물의 사진은 이재영(스카이뷰)이 촬영하였다.

원고는 박무식 책임 하에 Ⅰ～Ⅱ장 권오재, Ⅲ장 권오재(조사내용 및 유구)·하혜진(유물), Ⅳ장 권오재가 작성하였으며, 교정 및 교열은 박강민이 하였다.

Ⅱ. 유적의 위치와 환경[5)]

본 조사대상지는 행정구역상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내삼리 794-2번지에 해당하며, 경 · 위도상 동경 128°49′13.8″, 북위 35°13′34.2″에 위치한다. 주촌면사무소에서 양동리 고분군 방향의 1042번 국도를 따라 3.7km 진행 후, 서부로 1430번길 망덕마을 농소리 방면으로 좌회전 후, 130m 정도 직진 후 좌측에 위치한 농로를 따라 진행하면 우측에 위치한 공지로 최근까지 논 경작지로 사용되고 있었다.

자연 · 지리적으로, 조사대상지는 황새봉(393m)에서 남쪽으로 뻗어내린 매봉산(338m)과 남동쪽으로 뻗어내린 주로봉(272m) 사이에 형성된 곡간평야지대로 해발 9.8~10.1m 정도에 해당한다. 서쪽으로 170m 정도 떨어져 내삼천이 북에서 남으로 흐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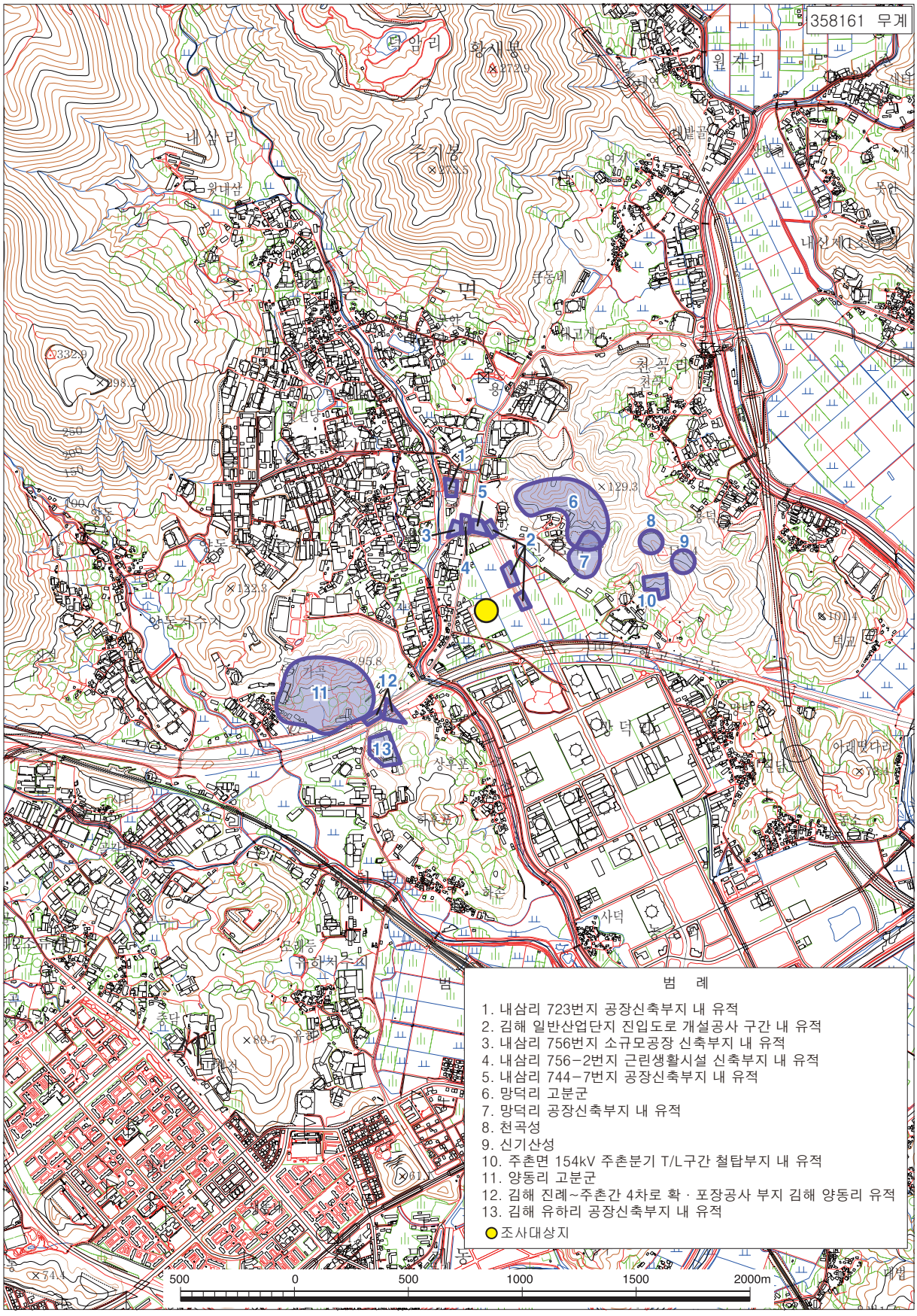
주촌면은 지리적으로 김해시의 중앙에 위치하며, 동쪽으로는 내외동, 서쪽으로는 장유동, 남쪽으로는 칠산 서부동과 접하고 있다. 주촌면은 높은 산은 아니지만 대체로 산지가 많은 지형에 속한다. 하천은 한림면에서 넘어가는 정곡(正谷)에서 시작하는 조만강이 동남쪽으로 흐르다가, 원지리에서 여러 골짜기의 물과 합쳐져 면의 가운데를 흐르면서 분지형 경지를 관개하고 있다. 내삼리 일대는 북서쪽의 황새봉(해발 393m)이 남쪽으로 뻗어내려 서쪽과 동쪽을 감싸고 있으며, 중앙으로는 내삼천이 남류해 조만강에 합류한다. 내삼천 주변으로는 작은 지류와 함께 다수의 연못이 형성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충적대지가 형성되어 논 중심의 경작지가 형성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김해는 가락국이 532년 신라(법흥왕)에 합병되었으며, 정치적, 군사적으로 요충지였던 이곳에 680년(문무왕) 가야군(加耶郡)에 금관소경(金官小京)을 설치하고, 757년(경덕왕)에 김해소경(金海小京)으로 개명하였다. 고려에서는 940년(태조) 김해소경에서 '김해부(金海府)'로 변경되고 다시 임해현(臨海縣)과 임해군(臨海郡)으로 고쳤다. 1271년(원종)에는 김녕도호부(金寧都護府)로 개칭하여 불리다가 1895년(조선고종)에 김해군(金海郡)으로 바뀌었다. 1981년 김해군 김해읍이 시로 승격됨에 따라 김해군과 김해시가 분리되었으며 그 후 1995년 다시 통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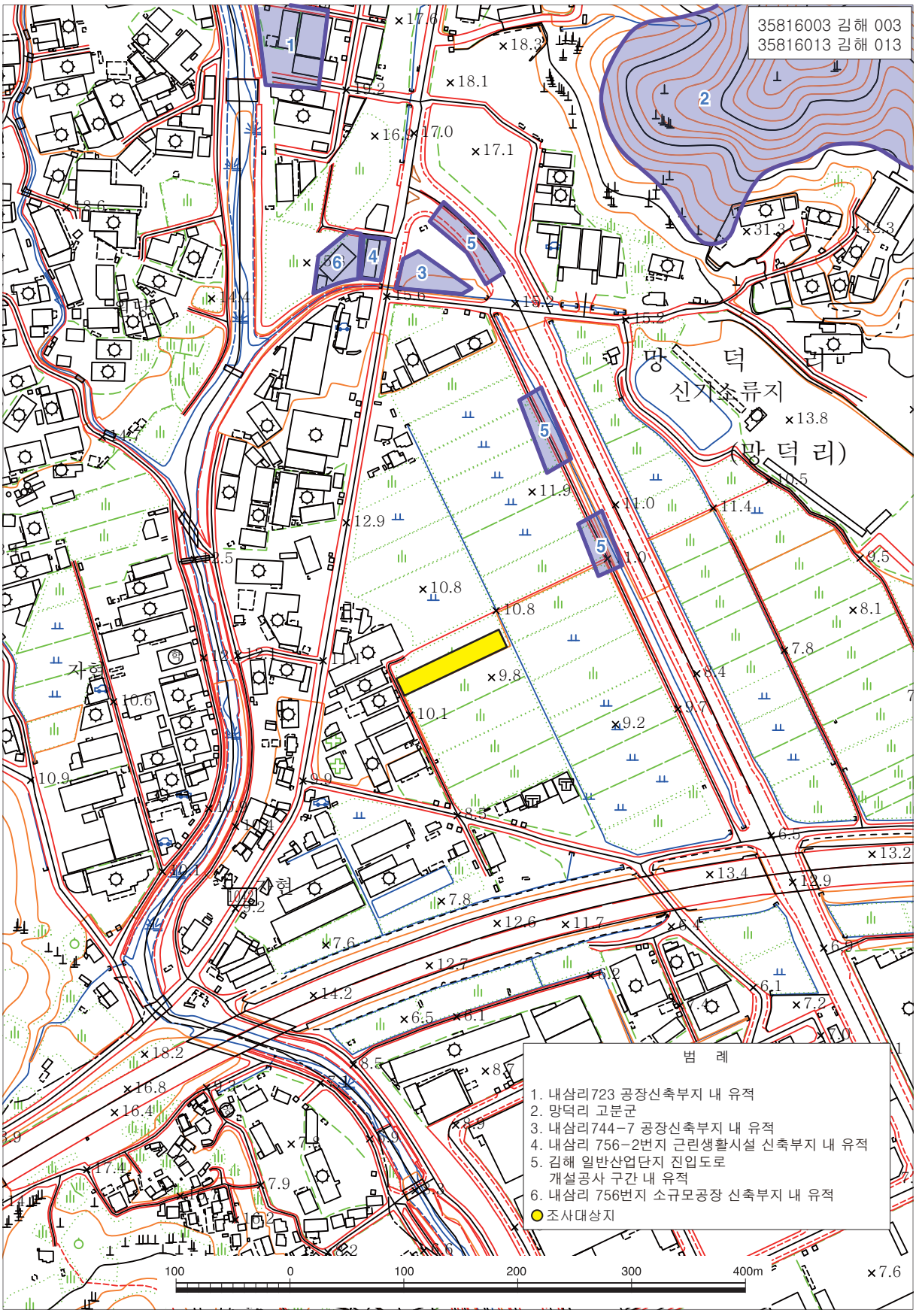
주촌면은 원래 주촌(住村) 또는 주촌(酒村)으로 불리었는데, 1905년 주동면과 주서면으로 분리되었으며, 1910년 분리되었던 2개 면을 병합하여 다시 주촌면으로 개칭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통 · 폐합 조치에 의해 8개리로 되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주촌이라는 지명은 주지봉(住持峯) 또는 주주봉(酒主峯)아래의 마을, 혹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되어 있는 과거에 번성한 포구였던 선지리의 배가 정박하는 곳이었던 "주촌지(酒村池)"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다. 내삼리는 내삼(內三), 원당 2개 마을과 원당에 속하는 자현을 말하며, 내삼 마을은 옛날에 삼내(三川)라고 했다.

---

5) 자연 · 지리적 환경과 역사적 환경은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여 수정 · 가필하였다.
①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2014,『金海 內三里 生活遺蹟』.
② 민긍기, 2005,『김해의 지명』, 김해문화원.



도면 1. 조사대상지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1:25,000)



도면 2. 조사대상지 지형도(1:5,000)

고고학적으로 조사대상지의 주변으로는 삼국~조선시대의 토기편이 다량 확인된 망덕리 신기유물산포지,[6] 양동리 가곡유물산포지[7] 등이 인접해 있다. 발굴조사된 유적으로는 북동쪽으로 청동기시대 주거지, 수혈유구, 삼국시대 주혈 등이 확인된 김해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구간 유적[8]과 김해 내삼리 생활유적[9]이 인접해 있다. 북쪽으로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구상유구, 삼국시대 주혈, 통일신라시대 수로 등이 확인된 김해 내삼리 756번지 유적[10]과 김해 내삼리 756-2번지 유적,[11] 김해 내삼리 744-7번지[12] 등이 위치하고 있다.

주변유적의 자세한 분포현황은 다음【표 1】과 같다.

【표 1】 주변유적 분포현황

연번	유적명	이격 거리	유적시기 및 성격	참고문헌	비고
1	김해 내삼리 723번지 공장 신축부지내 유적	북쪽 520m	청동기시대 구상유구, 수혈유구, 주혈군 등	한국문화재연구원, 2015, 『金海 정기남들 遺蹟 Ⅰ』	
2	김해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구간 내 유적	북동쪽 120~340m	청동기시대 주거지, 수혈유구, 구상유구, 주혈군 등 삼국시대 주혈	경남문화재연구원, 2015, 『김해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구간 내 유적』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2014, 『金海 內三里 生活遺蹟』	
3	김해 내삼리 756번지 소규모 공장 신축부지 내 유적	북쪽 310m	청동기시대 수혈, 구상유구 통일신라시대 수로, 구상유구 등	한국문화재재단, 2016, 『2014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X -울산 · 경남1- 김해 내삼리 756번지 유적』	

6) 동서문물연구원, 2009, 『김해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구간 내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조사결과, 삼국시대 토기편 및 조선시대 도기편 등이 다량 채집되어 삼국~조선시대 유적이 유존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7) 동서문화재연구원, 2006, 『남해고속도로(서김해-사상간) 확장사업구간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논둑 주변으로 다량의 삼국시대 토기편과 고려~조선시대의 토기편이 채집되어서, 구릉사면 중심으로 양동리고분과 성격이 유사한 분묘가 분포할 가능성이 있으며, 경작지주변으로 생활유적이 입지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8) 경남문화재연구원, 2015, 『김해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구간 내 유적』.
발굴조사 1~4구역으로 나누어 실시되었으며, 유구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6동, 삼국시대 주혈 35개, 3구역에서 삼국시대 주혈 4개, 시기미상의 수전 1기 등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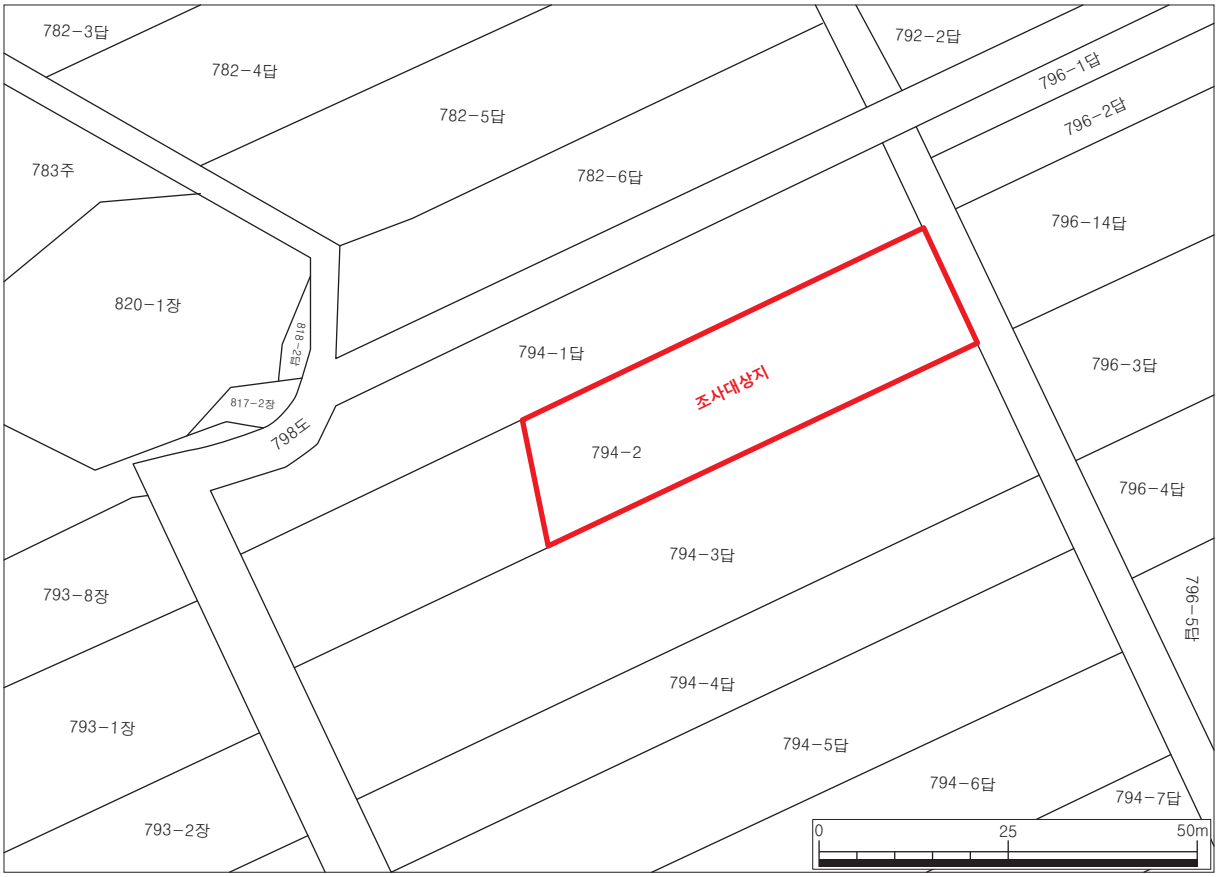
9)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2014, 『金海 內三里 生活遺蹟』.
조사결과, 청동기시대 주거지 1동, 수혈유구 3기, 구상유구 1기, 삼국시대 주혈군 등이 확인되었다.

10) 한국문화재재단, 2016, 『2014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X -울산 · 경남1-김해 내삼리 756번지 유적』.
조사결과, 청동기시대 수혈유구 8기, 구상유구 2기, 통일신라시대 수로 1기, 구상유구 1기, 조선시대 구상유구 1기 및 시기미상 구상유구 5기, 주혈군이 확인되었다.

11) 한국문화재연구원, 2015, 『金海 정기남들 遺蹟 Ⅱ』.
조사결과, 청동기시대 구상 유구 3기가 확인되었다.

12) 한국문화재연구원, 2015, 『金海 정기남들 遺蹟 Ⅲ』.
조사결과, 청동기시대 수혈유구 2기, 주혈 1개소 등이 확인되었다.

연번	유적명	이격 거리	유적시기 및 성격	참고문헌	비고
4	김해 내삼리 756-2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북쪽 320m	청동기시대 구상유구	한국문화재연구원, 2015, 『金海 정기남들 遺蹟 Ⅱ』	
5	김해 내삼리 744-7번지 공장신축부지내 유적	북쪽 340m	청동기시대 수혈, 주혈	한국문화재연구원, 2015, 『金海 정기남들 遺蹟 Ⅲ』	
6	김해 망덕리 고분군	북동쪽 390m	삼국시대 고분	東亞大學校博物館 · 金海市, 1998, 『文化遺蹟分布地圖-金海市-』	
7	김해 망덕리 공장신축부지 내 유적	북동쪽 370m	청동기~ 조선시대 석관 · 곽묘, 목관 · 곽묘, 석실묘, 옹관묘, 토광묘등	東西文物硏究院, 2015, 『김해 망덕리 유적 Ⅰ ~ Ⅴ』	
8	김해 천곡성	북동쪽 700m	삼국시대 성	東亞大學校博物館 · 金海市, 1998, 『文化遺蹟分布地圖-金海市-』	
9	김해 신기산성	북동쪽 780m	선사시대미상 산성	東亞大學校博物館 · 金海市, 1998, 『文化遺蹟分布地圖-金海市-』	
10	김해 주촌면 154kV 주촌분기 T/L구간 철탑부지내 유적	북동쪽 700m	삼국시대 목책성, 석축산성, 수혈유구, 집석유구	두류문화재연구원, 2016, 『김해 부곡동, 봉황토성 -154㎸ 신김해~진영 송전선로 건설공사 부지 내 유적-』	
11	김해 양동리 고분군	남서쪽 570m	원삼국시대 고분	東亞大學校博物館 · 金海市, 1998, 『文化遺蹟分布地圖-金海市-』 東義大學校博物館, 2000, 『金海 良洞里 古墳文化』	사적 제454호
12	김해 진례~주촌간 4차로 확 · 포장공사 부지 김해 양동리 유적	남서쪽 600m	원삼국시대 목관묘 조선시대 토광묘	해동문화재연구원, 2016, 『金海 良洞里 遺蹟-김해 진례~주촌간 4차로 확 · 포장공사 부지내 유적-』	
13	김해 유하리 공장신축 부지내 유적	남서쪽 654m	청동기시대 주거지 삼국시대 목곽묘, 석곽묘 등 고려시대 수혈유구, 주혈	東西文物硏究院, 2012, 『金海 柳下里 後浦古墳群-김해 유하리 공장신축부지내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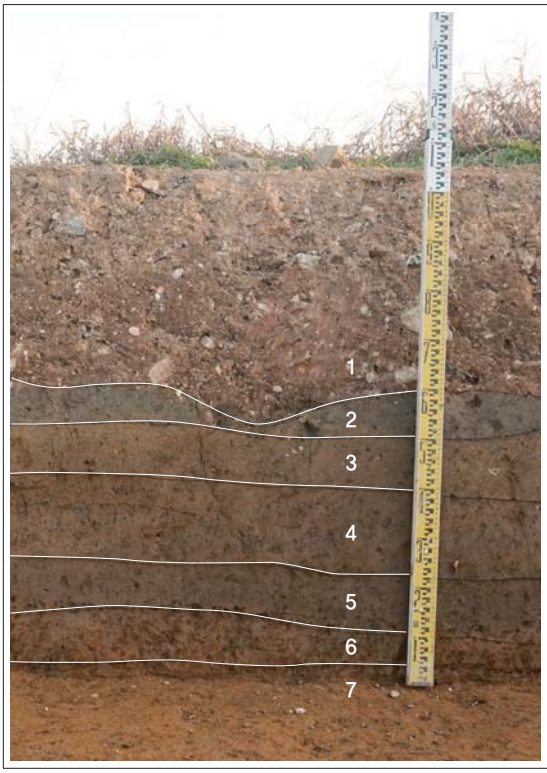
도면 3. 조사대상지 지적도(1:1,000)

Ⅲ. 조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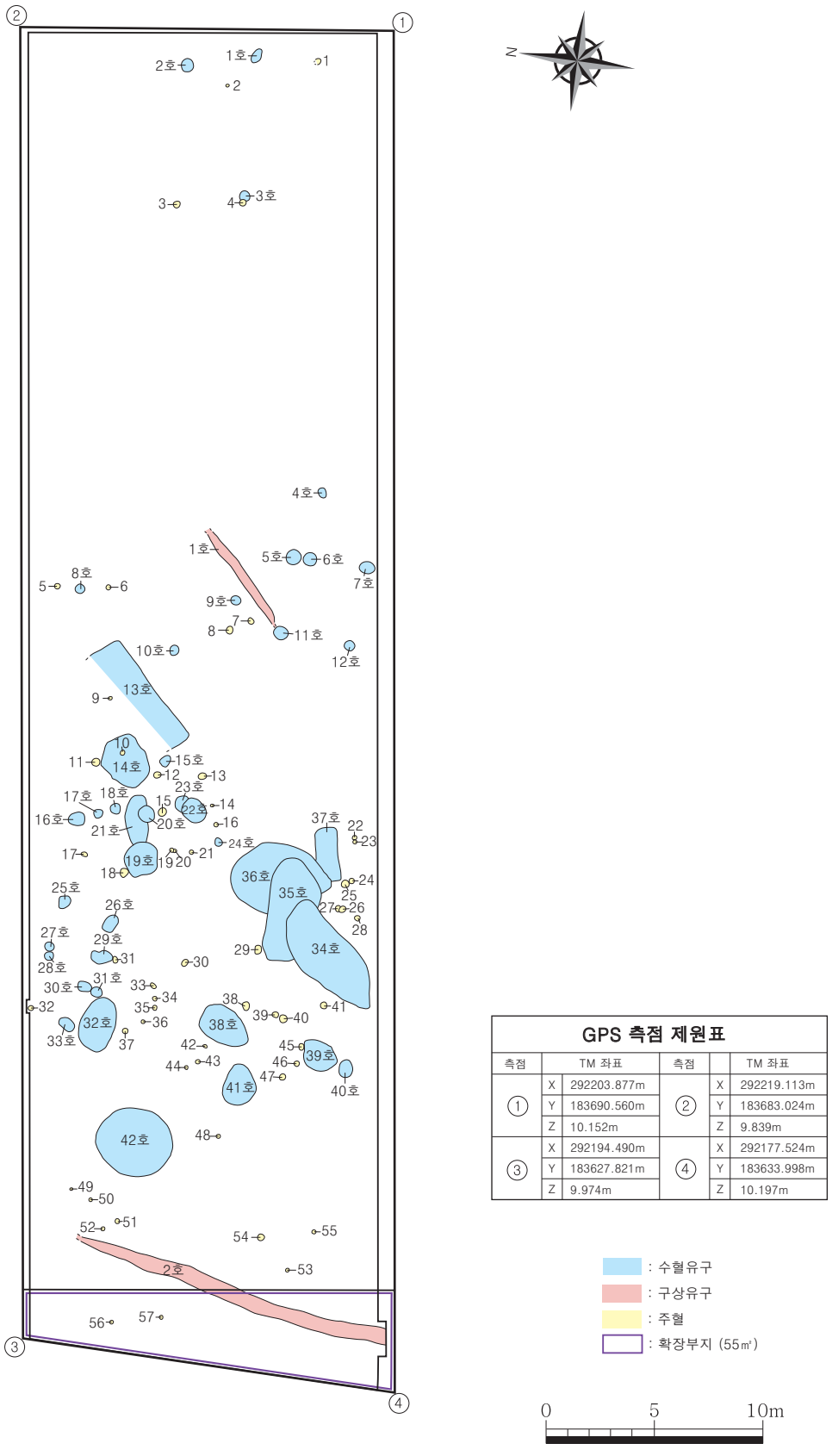
발굴조사를 위한 제토는 표본조사에서 유구가 확인된 표토하 45~110㎝ 정도의 황갈색 사질점토층(생토층)의 상면을 중심으로 기계제토를 실시한 후, 수작업으로 정리하면서 유구 확인 작업을 실시하였다. 제토범위는 조사대상지 남쪽 경계부에 경작지(794-3답)를 분할하는 축대가 높이 80㎝ 정도로 조성되어 있고, 북쪽 경계부는 경작지(794-1답)와 접해 있어 조사경계에서 남쪽은 80㎝, 북쪽은 30㎝ 정도 이격하여 설정하였다. 또한, 구상유구 2호가 발굴범위의 서쪽 경계 밖으로 이어져 사업시행자와 협의 후, 유구의 진행방향에 따라 서쪽 경계부 밖으로 북쪽 230㎝, 남쪽 440㎝ 정도 확장(확장부지 55㎡)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13)]

조사대상지의 전반적인 토층 퇴적양상은 현대 복토층→근 · 현대 경작층→퇴적층→삼국시대 문화층 순으로 확인되었다. 현대 복토층(1층)은 쓰레기와 암반편 다량이 혼입된 명갈색 사질점토층으로 두께는 30~50㎝ 정도이다. 근 · 현대 경작층(2~5층)은 상부에서부터 망간이 혼입된 회황갈색 사질점토층(2층)-갈색 사질점토층(3, 4층)-암갈색 사질점토층(5층) 순으로 확인되었으며, 두께는 50~70㎝ 정도이다. 퇴적층(6층)은 세석립이 소량 혼입된 갈색 사질점토층으로 두께는 10~15㎝ 정도이다. 퇴적층은 조사대상지의 동쪽 일부를 제외한 전면에서 확인되었다. 삼국시대 문화층(7층)은 생토층으로

【표 2】 조사대상지 토층(남벽)

<table>
<tr><td rowspan="7"> 
</td><td>1층 : 명갈색(7.5YR 5/8) 사질점토</td><td>현대 복토층
(두께 30~50㎝ 정도)</td></tr>
<tr><td>2층 : 회황갈색(10YR 3/3) 사질점토
– 망간 소량 혼입. 점성이 강함.
두께 10~30㎝ 정도</td><td rowspan="4">근 · 현대 경작층
(두께 50~70㎝ 정도)</td></tr>
<tr><td>3층 : 갈색(10YR 4/6) 사질점토
– 망간, 세석립 다량 혼입.
두께 10㎝ 정도</td></tr>
<tr><td>4층 : 갈색(10YR 4/4) 사질점토
– 망간 다량 혼입. 세석립 소량
혼입. 두께 15㎝ 정도</td></tr>
<tr><td>5층 : 암갈색(10YR 3/4) 사질점토
– 망간 소량 혼입. 점성이 약함.
두께 10~15㎝ 정도</td></tr>
<tr><td>6층 : 갈색(7.5YR 4/4) 사질점토
– 세석립 소량 혼입.
두께 10~15㎝ 정도</td><td>퇴적층
(표토하 95~100㎝ 정도)</td></tr>
<tr><td>7층 : 황갈색(10YR 5/6) 사질점토</td><td>삼국시대 문화층
(표토하 110㎝ 정도)</td></tr>
</table>

13) 확장부지는 토지소유주가 동일하고 지표조사와 시굴조사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 유구의 진행양상 등을 고려하여 확장조사를 실시하였다.



GPS 측점 제원표

측점		TM 좌표	측점		TM 좌표
①	X	292203.877m	②	X	292219.113m
	Y	183690.560m		Y	183683.024m
	Z	10.152m		Z	9.839m
③	X	292194.490m	④	X	292177.524m
	Y	183627.821m		Y	183633.998m
	Z	9.974m		Z	10.197m

도면 4. 유구분포도

표토하 45~110㎝ 정도에서 확인된 황갈색 사질점토층이며, 삼국시대 수혈유구, 구상유구, 주혈 등이 확인되었다. 원지형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완만하게 낮아지는 양상으로 확인되었다.

발굴조사 결과, 해발 9.2~9.7m에서 확인되는 생토층인 황갈색 사질점토층에서 삼국시대 수혈유구 42기, 구상유구 2기와 주혈 57개가 확인되었다.

〈삼국시대〉

1) 수혈유구[14)]

42기가 확인되었으며, 특히 중앙부에서 서쪽으로 치우쳐 밀집 분포하고 있다. 수혈유구 19~21호, 22 · 23호, 34~37호는 중복된 양상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34~37호의 중복양상은 유구의 평면형태 및 토층양상으로 볼 때 유구의 조성순서는 37호(선축)→36호→35호→34호(후축) 순으로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원형(16기), 타원형(12기), 부정형(12기), 장방형(1기) 등으로 다양하게 확인되었다. 벽면은 비스듬히 굴착하여 조성하였으며, 바닥은 평평하거나(27기), 중앙부로 가면서 완만히 깊어지는 것(15기)이 확인되었다. 내부에는 암갈색 사질점토, 갈색 점질사토, 흑갈색 점질사토, 회황갈색 점질사토, 명갈색 점질사토가 퇴적되어 있었다. 내부시설로 주혈이 확인된 유구는 5기(13호, 14호, 32호, 35호, 41호)이며, 평면형태는 원형, 타원형이다. 주혈 내부에 흑갈색 점질사토와 암갈색 점질사토가 퇴적되어 있었다.

유물은 13호에서 호편 1점, 14호에서 단경호편 1점과 대호편 1점, 20호에서 완 2점이 출토되었으며, 완 2점은 완형으로 출토되었다.

유물이 출토된 유구와 내부에 주혈이 확인된 유구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이외의 유구는 【표 3】으로 간략히 정리하였다.

(1) 수혈유구 1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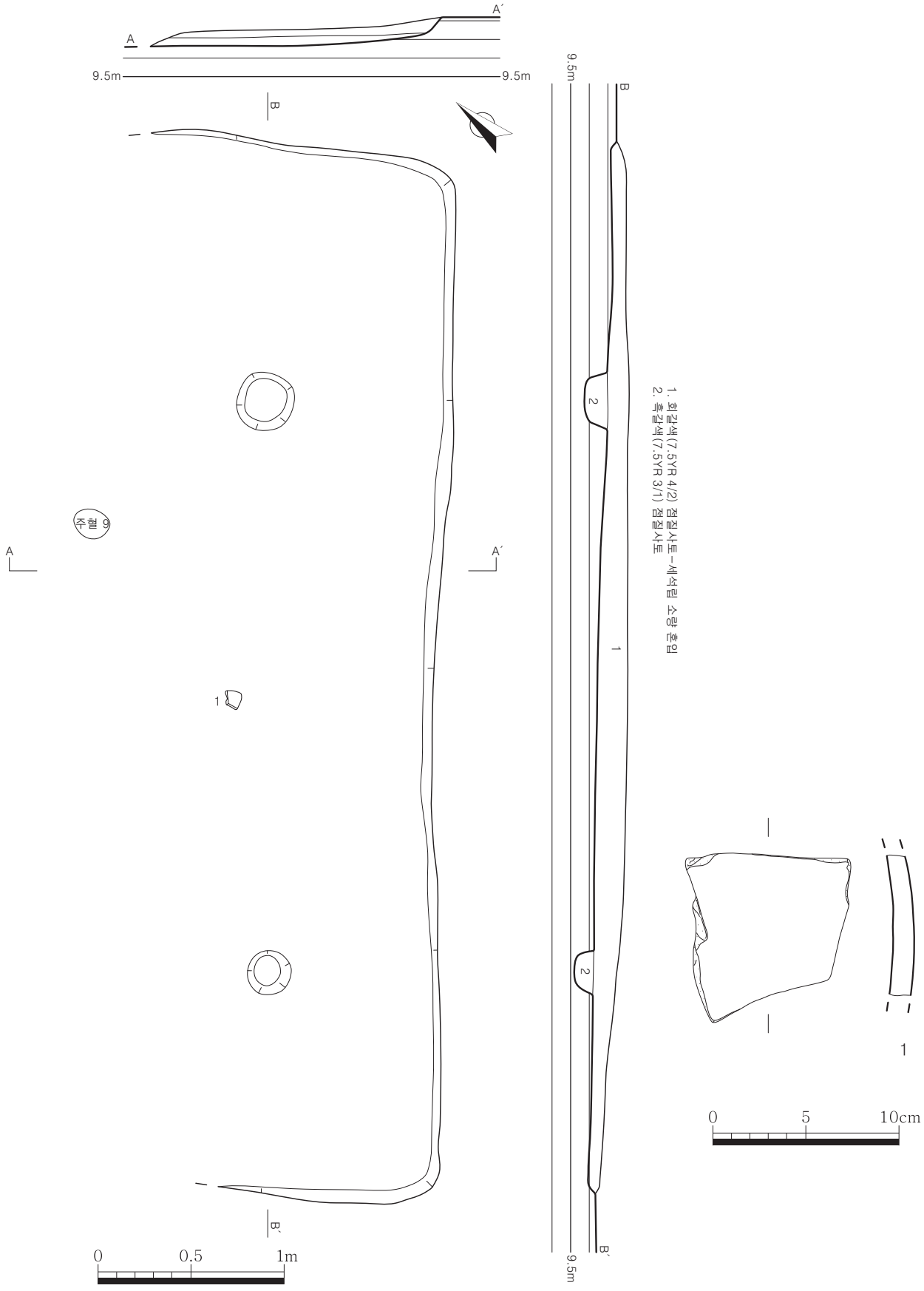
가. 유구(도면 5, 도판 7 · 8)

조사대상지 중앙부, 해발 9.7m 정도에서 확인되었다. 서쪽으로 수혈유구 14호, 동쪽으로 수혈유구 10호가 인접해 있다. 유구의 북서쪽이 유실되어 정확한 평면형태는 알 수 없다.

확인된 규모는 길이 580㎝, 너비 160㎝, 깊이 10㎝ 정도이다. 벽면은 비스듬하게 굴착하여 조성하였으며, 바닥은 평평하다. 내부에는 세석립이 소량 혼입된 회갈색 점질사토가 퇴적되어 있었다.

내부시설로는 바닥면에서 주혈 2개가 남벽에 치우쳐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규모는 직경 25~30㎝, 깊이 10~14㎝ 정도이다. 주혈간 간격은 310㎝ 정도이다. 내부에는 흑갈색 점질사토가

14) 인접한 유적의 주혈의 크기가 직경 15~40㎝ 정도이므로, 평면형태가 (타)원형인 유구 중 수혈유구와 주혈의 구분은 직경 40㎝를 기준으로 이상이면 수혈유구 이하면 주혈로 하였다.



도면 5. 수혈유구 13호 및 출토유물

퇴적되어 있었다.

유물은 중앙부 바닥면에서 호편 1점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1. 호편(도면 5-1, 도판 8-1)

동체부 일부만 잔존한다. 와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황회색(2.5Y 6/1)이다. 내외면은 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7.5㎝

(2) 수혈유구 14호

가. 유구(도면 6, 도판 8 · 9)

조사대상지 중앙부 북쪽, 해발 9.6m 정도에서 확인되었다. 동쪽으로 수혈유구 13호, 서쪽으로 수혈유구 20호가 인접해 있으며, 바닥 일부는 주혈 10에 의해 파괴되었다.

평면형태 부정형이며, 규모는 길이 242㎝, 너비 190㎝, 깊이 11㎝ 정도이다. 벽면은 비스듬하게 굴착하여 조성하였으며, 바닥은 평평하다. 내부에는 세석립 소량 혼입된 회갈색 점질사토가 퇴적되어 있었다.

내부에서는 주혈 1기가 남쪽 벽면에서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규모는 직경 20㎝, 깊이 7㎝ 정도이다. 내부에는 세석립이 소량 혼입된 흑갈색 점질사토가 퇴적되어 있었다.

유물은 내부 조사과정에서 단경호 1점과 대호편 1점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2. 단경호(도면 6-2, 도판 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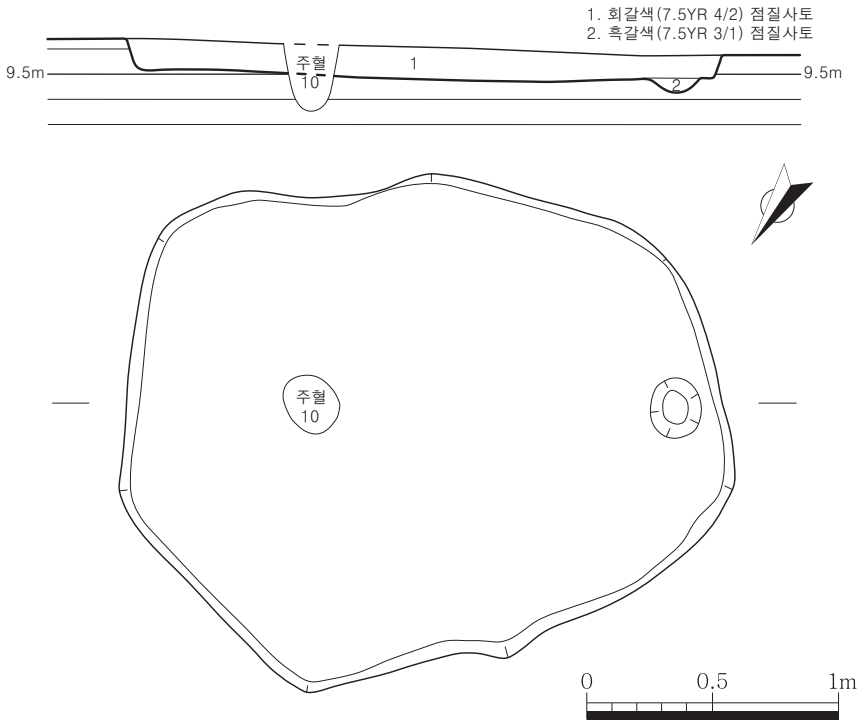
구경부 및 동체부 일부가 분리되어 잔존하는 것을 도면 복원하였다. 와질토기로 소성상태는 보통이며, 태토는 세사립과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황회색(2.5Y 6/1), 속심은 회백색(2.5Y 8/2)이다. 내면은 물손질 정면하였으며, 지두흔이 확인된다. 외면에서 격자문 타날흔이 희미하게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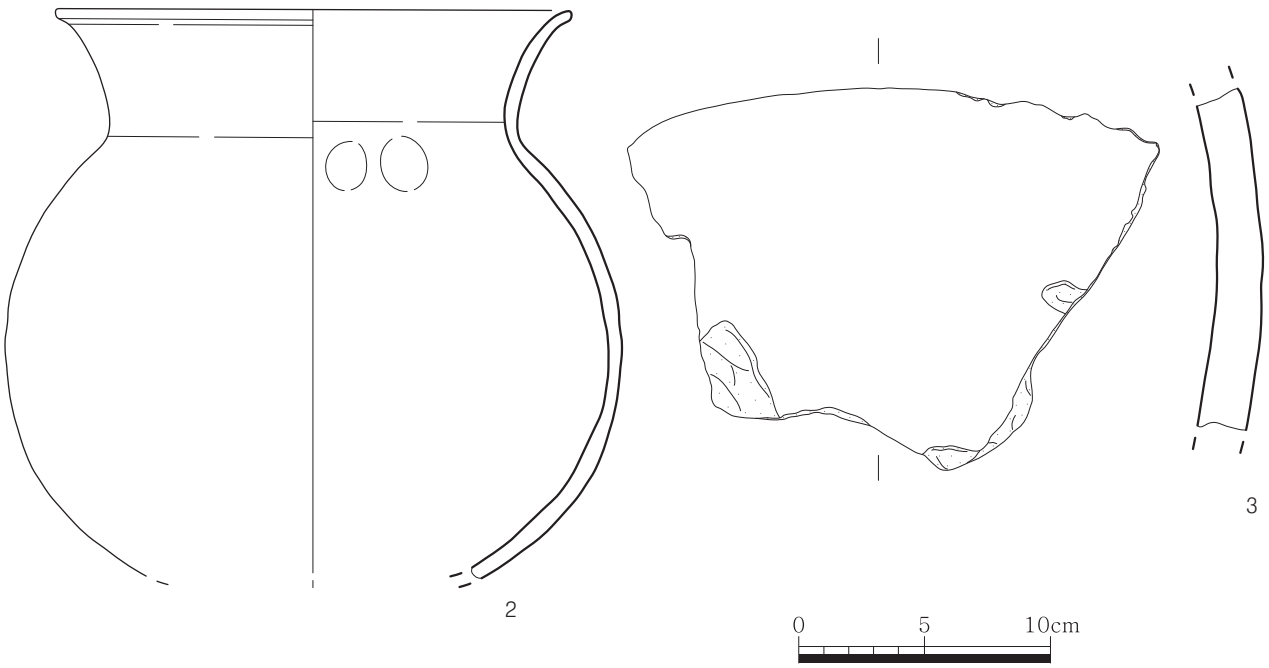
잔존기고 22.5㎝, 복원구경 20.2㎝

3. 대호편(도면 6-3, 도판 9-3)

동체부 일부만 잔존한다. 와질토기로 소성상태는 보통이며, 태토는 세사립과 세석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회색(N 5/), 속심은 회백색(2.5Y 7/1)이다. 내외면은 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길이 13.5㎝





도면 6. 수혈유구 14호 및 출토유물

(3) 수혈유구 20호

가. 유구(도면 7, 도판 11 · 12)

조사대상지 중앙부, 해발 9.5m 정도에서 확인되었다. 유구는 수혈유구 21호의 남벽 일부를 파괴하고 조성하였으며, 동쪽으로 수혈유구 14호, 서쪽으로 수혈유구 19호가 인접해 있다.

평면형태는 원형에 가까우며, 규모는 직경 75㎝, 깊이 9㎝ 정도이다. 벽면은 비스듬하게 굴착하여 조성하였으며, 바닥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양상이다. 내부에는 점성이 강한 흑갈색 점질사토가 퇴적되어 있었다.

유물은 바닥에서 5㎝ 정도 떠서 완 2점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4. 완(도면 7-4, 도판 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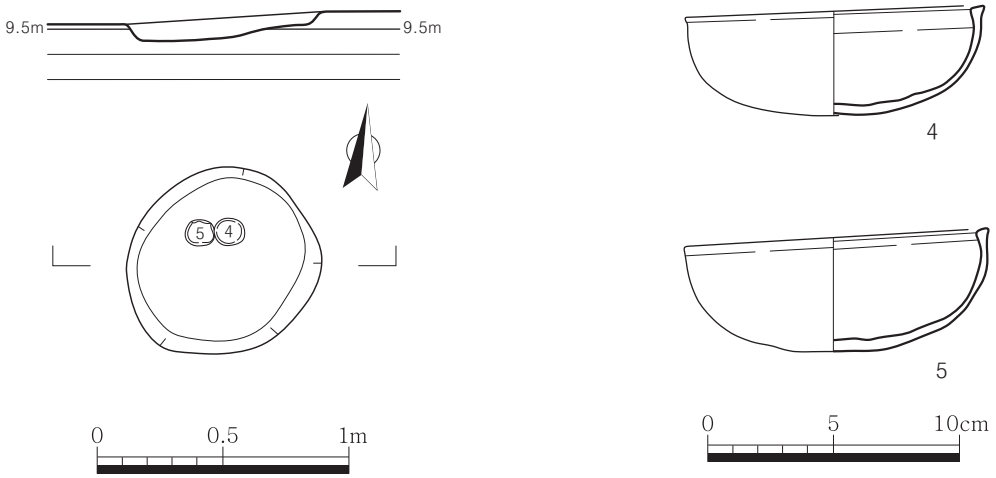
완형이다. 연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내외면의 색조는 등색(7.5YR 6/6)을 띤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기고 4.1㎝, 구경 11.8㎝

5. 완(도면 7-5, 도판 12-5)

신부의 일부가 결실되었다. 연질토기로 소성상태는 보통이며, 태토는 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내외면의 색조는 명적갈색(5YR 5/8)을 띤다. 내외면은 물손질 정면하였다.

기고 4.5㎝, 구경 12.0㎝



도면 7. 수혈유구 20호 및 출토유물

(4) 수혈유구 3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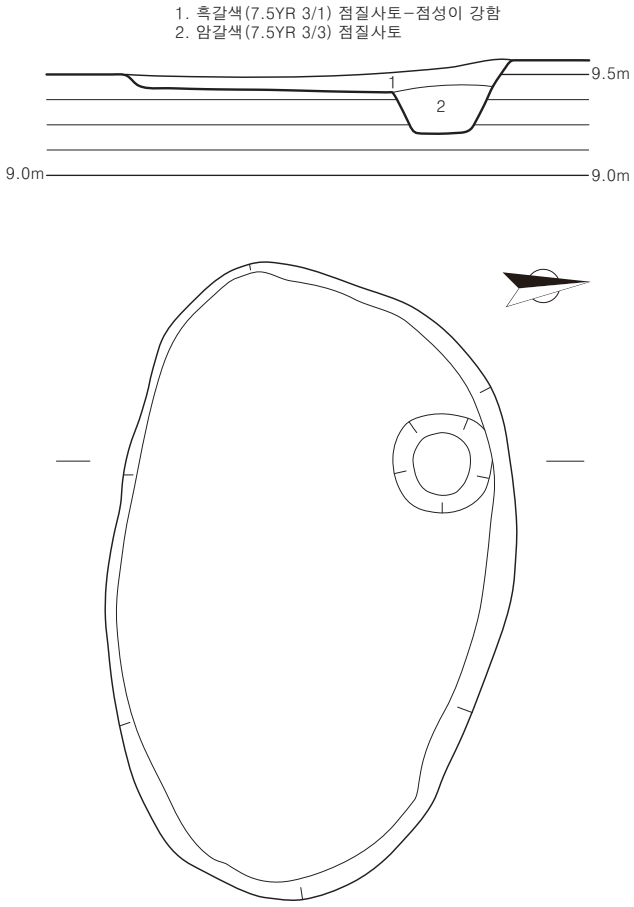
가. 유구(도면 8, 도판 16 · 17)

조사대상지 북서쪽, 해발 9.5m 정도에서 확인되었다. 북쪽으로 수혈유구 33호, 동쪽으로 수혈유구 30 · 31호가 인접해 있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에 가까우며, 규모는 길이 268㎝, 너비 162㎝, 깊이 6㎝ 정도이다. 벽면은 비스듬하게 굴착하여 조성하였으며, 바닥은 평평하다. 내부에는 점성이 강한 흑갈색 점질사토가 퇴적되어 있었다.

내부에서는 주혈 1기가 북쪽 벽면에서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규모는 직경 38㎝, 깊이 14㎝ 정도이다. 내부에는 암갈색 점질사토가 퇴적되어 있었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도면 8. 수혈유구 32호

(5) 수혈유구 3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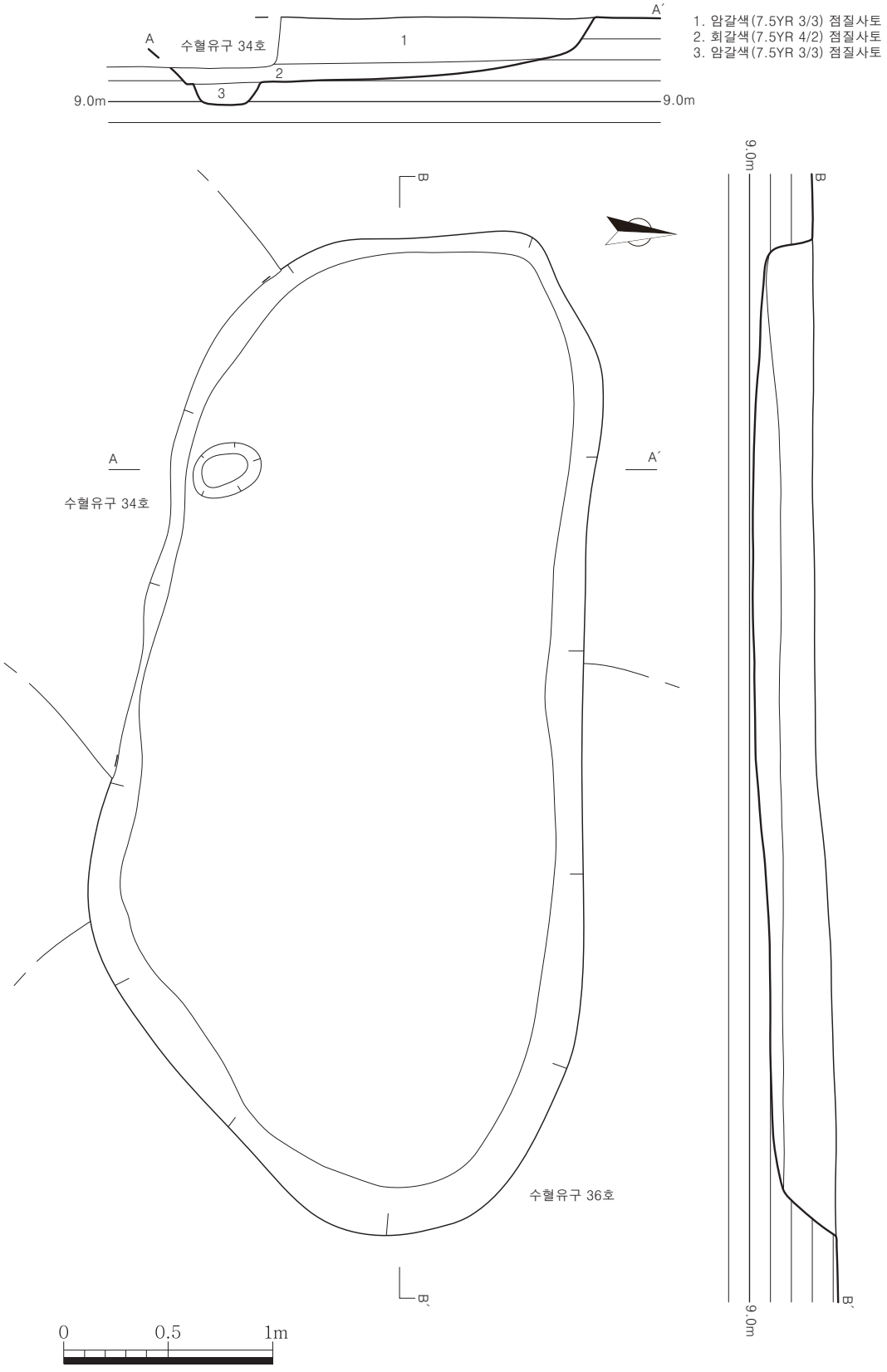
가. 유구(도면 9, 도판 17~19)

조사대상지 남동쪽, 해발 9.4m 정도에서 확인되었다. 유구는 수혈유구 36호의 서쪽을 파괴하고 조성하였으며, 남벽과 서벽 일부는 수혈유구 34호에 의해 상부가 파괴되었다.

평면형태는 부정형이며, 규모는 길이 475㎝, 너비 224㎝, 깊이 19㎝ 정도이다. 벽면은 비스듬하게 굴착하여 조성하였으며, 바닥은 평평하다. 내부에는 점성이 강한 암갈색 점질사토와 회갈색 점질사토가 퇴적되어 있었다.

내부에서는 주혈 1기가 남서쪽에서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규모는 길이 32㎝, 너비 25㎝, 깊이 10㎝ 정도이다. 내부에는 암갈색 점질사토가 퇴적되어 있었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A
A´
수혈유구 34호
1
2
3
9.0m
9.0m
1. 암갈색(7.5YR 3/3) 점질사토
2. 회갈색(7.5YR 4/2) 점질사토
3. 암갈색(7.5YR 3/3) 점질사토
B
B´
수혈유구 36호
0
0.5
1m

도면 9. 수혈유구 35호

(6) 수혈유구 4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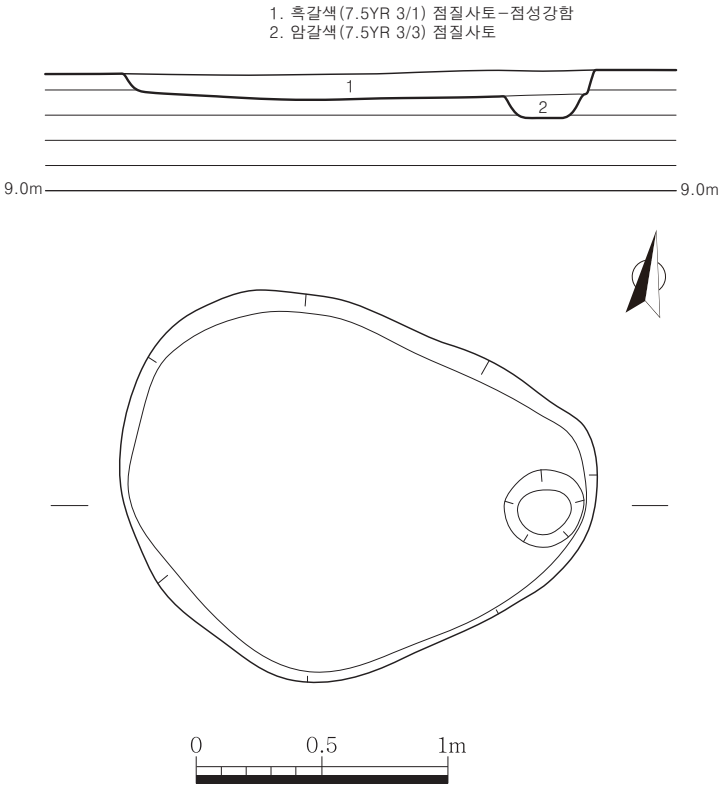
가. 유구(도면 10, 도판 22)

조사대상지 서쪽, 해발 9.4m 정도에서 확인되었다. 동쪽으로 수혈유구 38호, 남쪽으로 수혈유구 39호가 인접해 있다.

평면형태는 부정형이며, 규모는 길이 190㎝, 너비 150㎝, 깊이 10㎝ 정도이다. 벽면은 비스듬하게 굴착하여 조성하였으며, 바닥은 평평하다. 내부에는 점성이 강한 흑갈색 점질사토가 퇴적되어 있었다.

내부에서는 주혈 1기가 동쪽에서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규모는 직경 31㎝, 깊이 9㎝ 정도이다. 내부에는 암갈색 점질사토가 퇴적되어 있었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도면 10. 수혈유구 41호

(7) 기타 수혈유구

가. 유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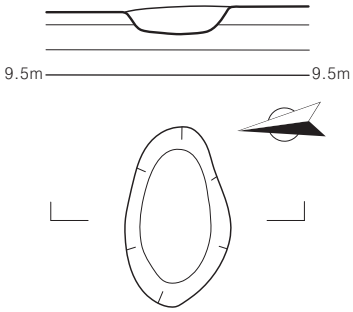
수혈유구 1~12호, 15~19호, 21~31호, 32~34호, 36~40호, 42호는 내부에 별다른 시설이 확인되지 않아 다음【표 3】과 같이 간략하게 기술하였다.

【표 3】 수혈유구 속성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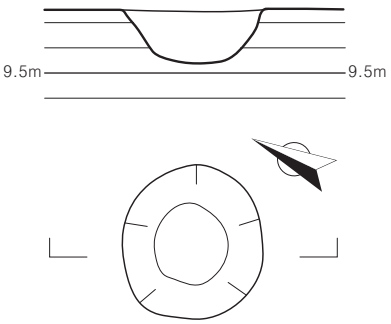
호수	도면 번호	도판 번호	평면 형태	(잔존)규모㎝			내부토	비고
				길이	너비	깊이		
1호	11	3	타원형	72	42	9	암갈색(10YR 3/4) 사질점토	
2호	11	3	원형	60	–	23	암갈색(10YR 3/4) 사질점토	
3호	11	3 · 4	원형	48	–	16	갈색(7.5YR 4/3) 점질사토 – 암반편 소량 혼입	주혈 4 보다 선축

호수	도면 번호	도판 번호	평면 형태	(잔존)규모㎝			내부토	비고
				길이	너비	깊이		
4호	11	4	타원형	50	36	14	갈색(7.5YR 4/3) 점질사토 – 암반편 소량 혼입	
5호	11	4	원형	70	–	33	1. 갈색(7.5YR 4/3) 점질사토 – 암반편 소량 혼입 2. 적갈색(5YR 4/6) 점질사토 3. 갈색(7.5YR 4/4) 점질사토	
6호	11	4 · 5	원형	62	–	26	암갈색(10YR 3/3) 점질사토	
7호	12	5	타원형	72	56	29	갈색(7.5YR 4/3) 점질사토 – 암반편 소량 혼입	
8호	12	5	원형	46	–	4	갈색(7.5YR 4/3) 점질사토 – 암반편 소량 혼입	
9호	12	6	원형	48	–	11	갈색(7.5YR 4/3) 점질사토 – 암반편 소량 혼입	
10호	12	6	원형	46	–	8	갈색(7.5YR 4/3) 점질사토 – 암반편 소량 혼입	
11호	12	6 · 7	원형	68	–	16	갈색(7.5YR 4/3) 점질사토 – 암반편 소량 혼입	
12호	12	7	원형	50	–	12	갈색(7.5YR 4/3) 점질사토 – 암반편 소량 혼입	
15호	13	9 · 10	타원형	56	40	10	1. 회갈색(7.5YR 4/2) 점질사토 2. 흑갈색(7.5YR 4/1) 점질사토 3. 명갈색(7.5YR 5/6) 점질사토	
16호	13	10	타원형	76	60	11	갈회색(7.5YR 4/1) 점질사토	
17호	13	10	원형	42	–	18	갈회색(7.5YR 4/1) 점질사토	
18호	13	10 · 11	원형	48	–	19	갈회색(7.5YR 4/1) 점질사토	
19호	13	11 · 12	부정형	154	152	14	회갈색(7.5YR 4/2) 점질사토 – 점성 강함	수혈유구 21호 보다 후축
21호	14	11 · 13	부정형	(220)	104	10	암갈색(7.5YR 3/3) 점질사토 – 목탄 다량 혼입	수혈유구 19호, 20호 보다 선축
22호	14	13	타원형	118	98	12	회갈색(7.5YR 4/2) 점질사토 – 점성 강함	수혈유구 23호 보다 후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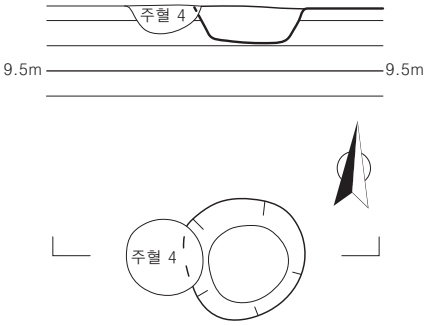
호수	도면 번호	도판 번호	평면 형태	(잔존)규모㎝			내부토	비고
				길이	너비	깊이		
23호	14	13	원형	74	–	6	갈회색(7.5YR 4/1) 점질사토	수혈유구 22호 보다 선축
24호	14	13 · 14	타원형	40	34	8	갈회색(7.5YR 4/1) 점질사토	
25호	14	14	부정형	66	58	15	흑갈색(7.5YR 3/1) 점질사토	
26호	14	14	타원형	86	58	23	흑갈색(7.5YR 3/1) 점질사토	
27호	15	15	원형	42	–	20	흑갈색(7.5YR 3/2) 점질사토	
28호	15	15	원형	42	–	20	흑갈색(7.5YR 3/2) 점질사토	
29호	15	15 · 16	부정형	100	60	20	흑갈색(7.5YR 3/1) 점질사토	
30호	15	16	부정형	64	46	22	흑갈색(7.5YR 3/2) 점질사토	
31호	15	16	원형	54	–	20	흑갈색(7.5YR 3/2) 점질사토	
33호	15	17	타원형	80	50	34	1. 흑갈색(7.5YR 3/2) 점질사토 2. 명갈색(7.5YR 5/6) 점질사토	
34호	16	17 · 18	부정형	570	230	20	갈회색(7.5YR 4/1) 점질사토	수혈유구 35호 보다 후축
36호	16	17~20	부정형	466	(332)	36	1. 암갈색(7.5YR 3/4) 점질사토 2. 갈색(7.5YR 4/4) 점질사토	수혈유구 35호 보다 선축 수혈유구 37호 보다 후축
37호	16	17 · 20	장방형	248	100	8	암갈색(7.5YR 3/3) 점질사토 – 목탄 다량혼입	수혈유구 36호 보다 선축
38호	15	21	부정형	242	160	7	1. 흑갈색(7.5YR 3/1) 점질사토 – 점성 강함 2. 갈회색(7.5YR4/1) 점질사토	
39호	17	21	부정형	176	136	10	암갈색(7.5YR 3/4) 점질사토	
40호	17	21 · 22	타원형	82	64	6	암갈색(7.5YR 3/4) 점질사토	
42호	17	22 · 23	타원형	358	320	11	암갈색(7.5YR 3/4) 점질사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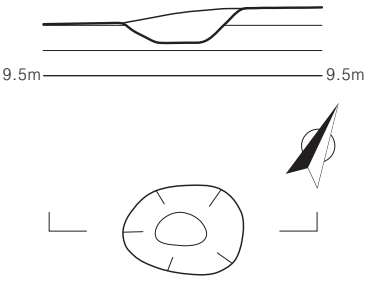
수혈유구 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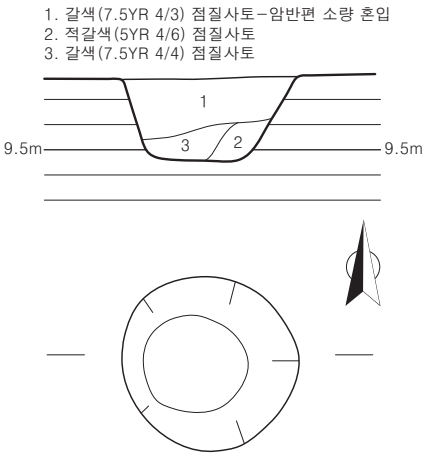
수혈유구 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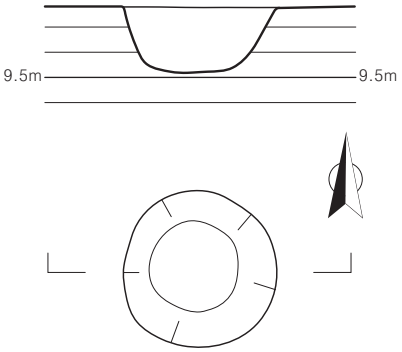
수혈유구 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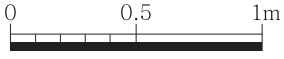
수혈유구 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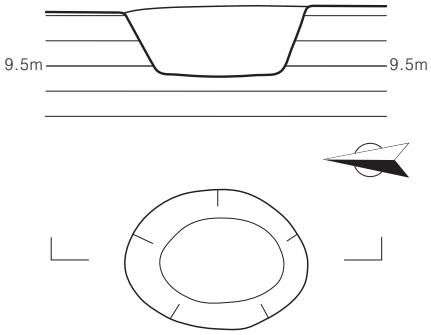
수혈유구 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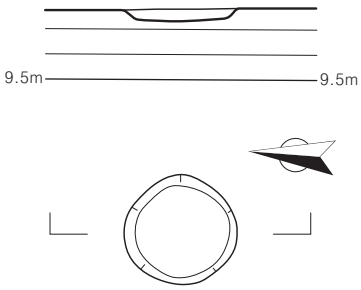
수혈유구 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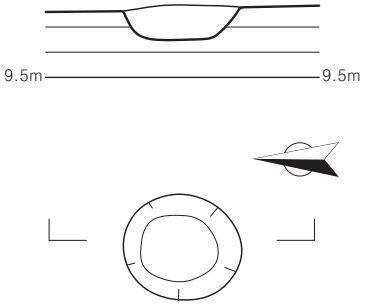
도면 11. 수혈유구 1~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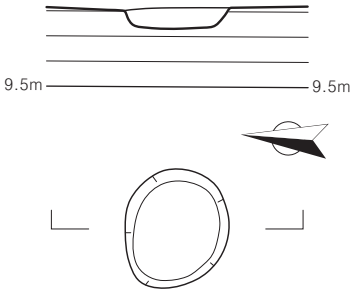
수혈유구 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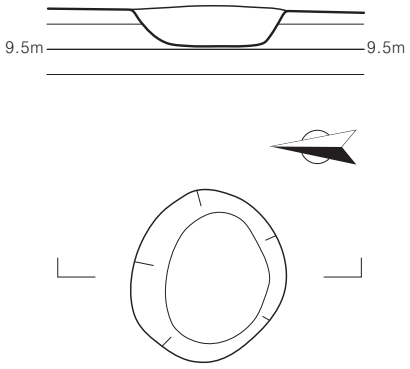
수혈유구 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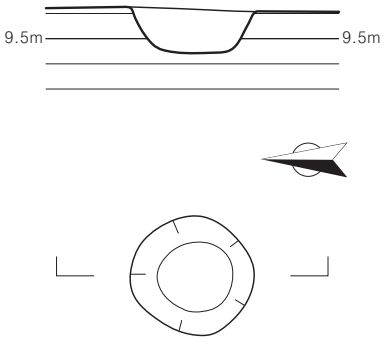
수혈유구 9호



수혈유구 1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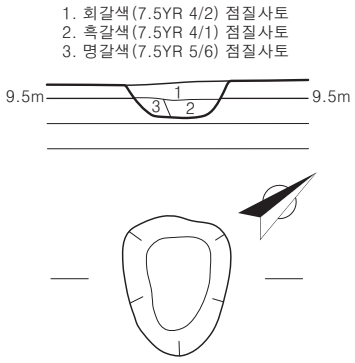
수혈유구 1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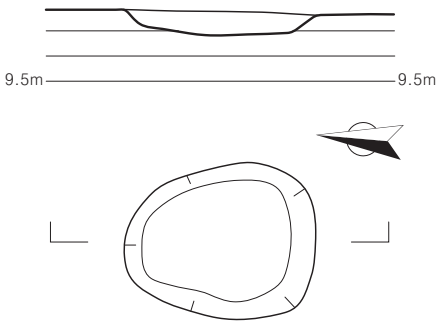
수혈유구 1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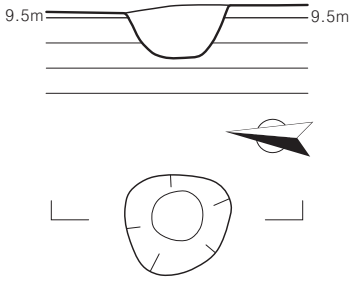
도면 12. 수혈유구 7~1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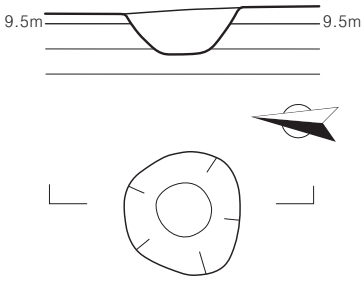
수혈유구 1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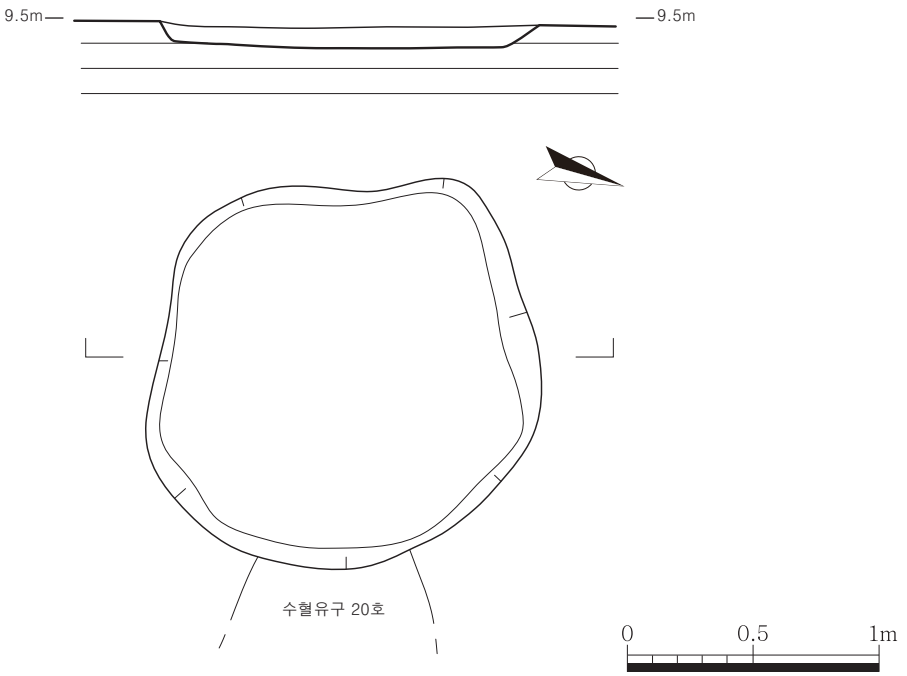
수혈유구 16호



수혈유구 1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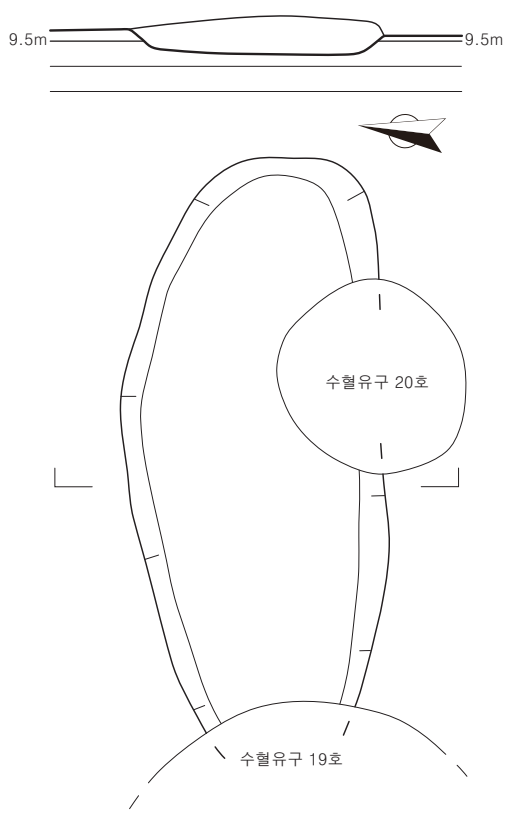


수혈유구 1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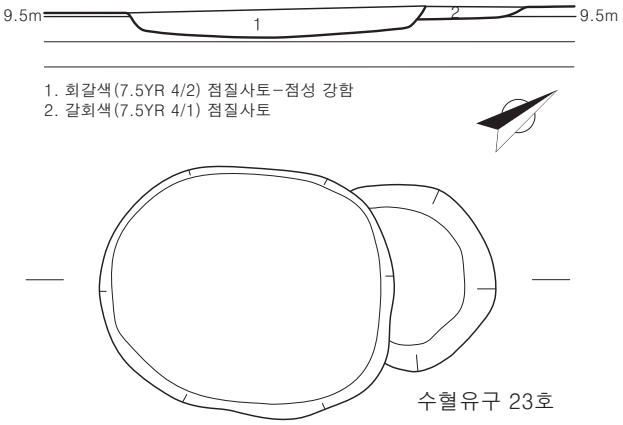


수혈유구 19호

도면 13. 수혈유구 15~1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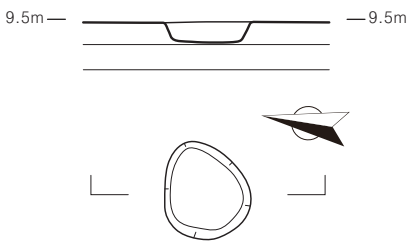


수혈유구 2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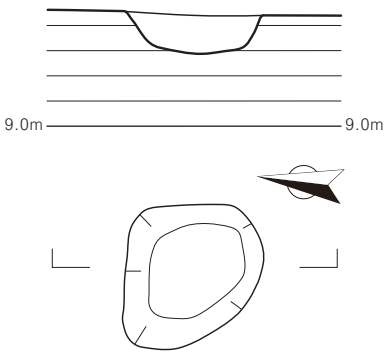


수혈유구 2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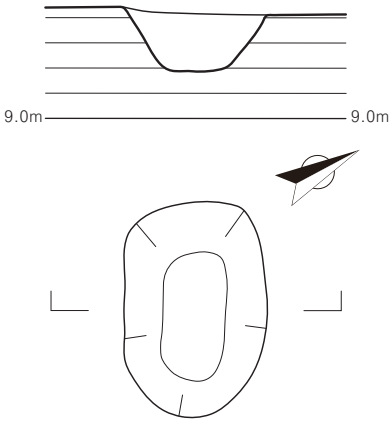
수혈유구 2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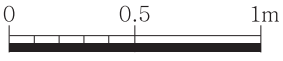
수혈유구 2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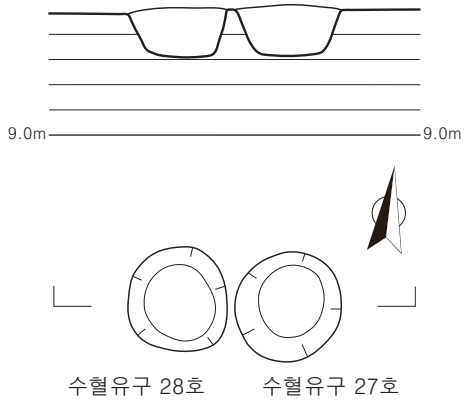
수혈유구 2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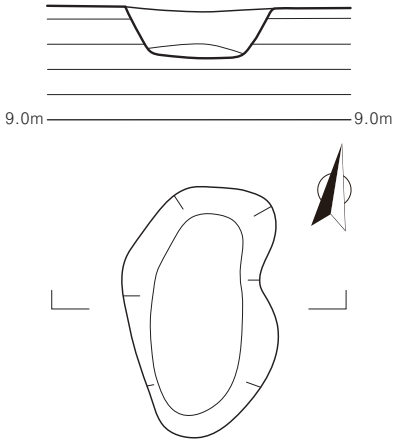
수혈유구 2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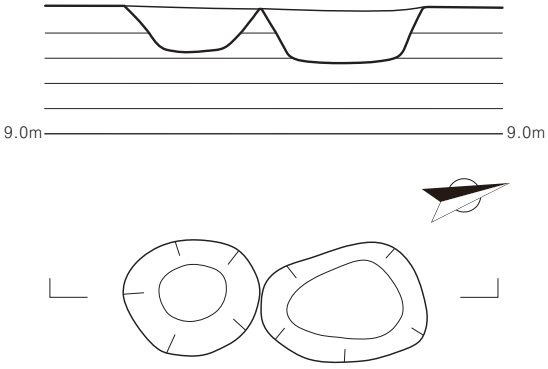
도면 14. 수혈유구 21~2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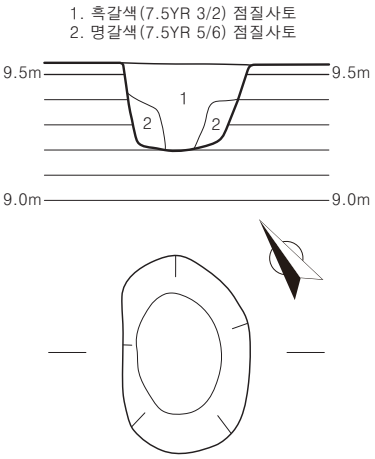
수혈유구 28호 수혈유구 27호



수혈유구 2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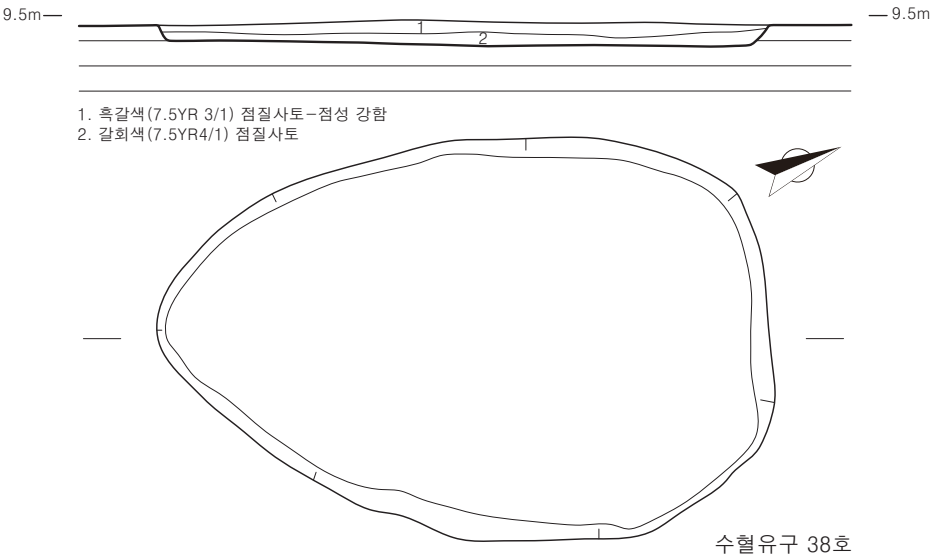


수혈유구 31호 수혈유구 3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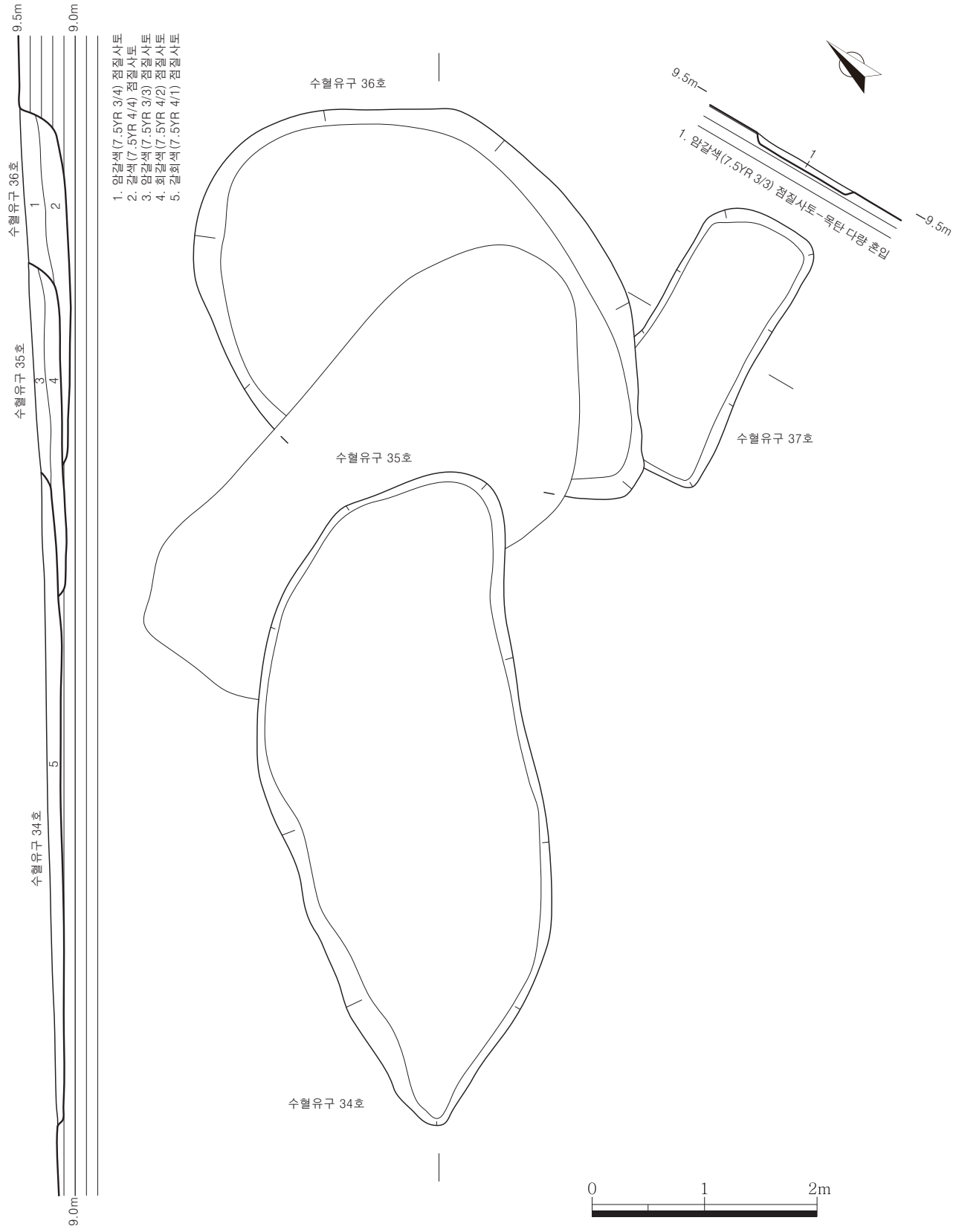
수혈유구 3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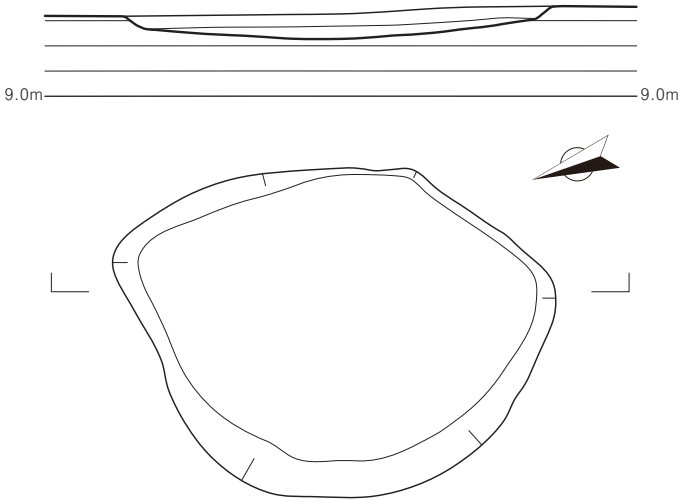


수혈유구 3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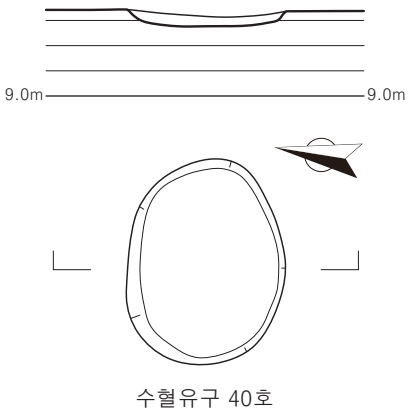
도면 15. 수혈유구 27~31 · 33 · 3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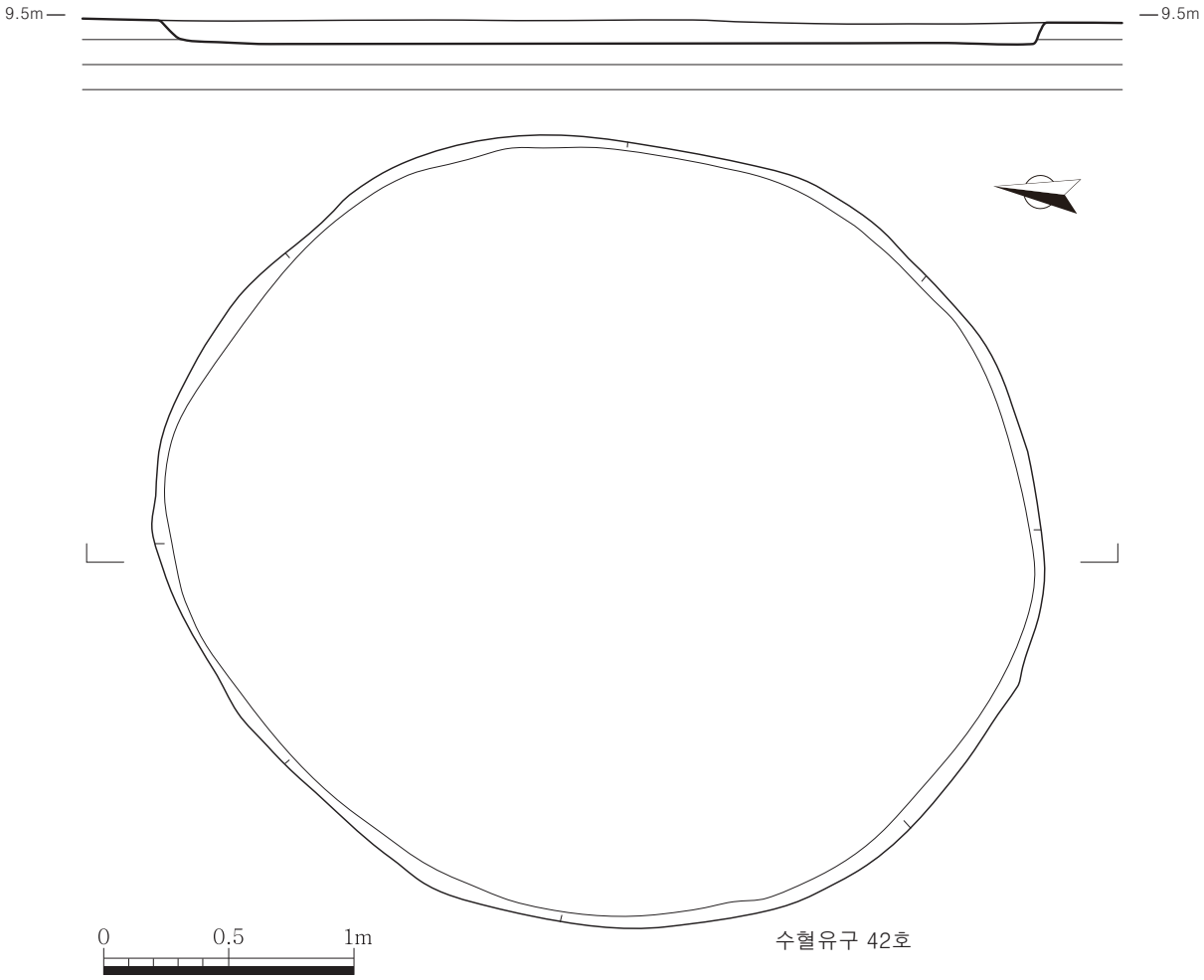
도면 16. 수혈유구 34 · 36 · 37호



수혈유구 39호



수혈유구 40호



수혈유구 42호

도면 17. 수혈유구 39 · 40 · 42호

2) 구상유구

가. 유구(도면 18, 도판 23 · 24)

조사대상지 중앙부(1호)와 서쪽(2호)에서 총 2기가 확인되었다. 2호는 서쪽 경계 밖으로 이어져 사업시행자와 협의 후, 확장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1호와 2호의 평면형태는 '一'자형이며, 벽면은 비스듬하게 굴착하여 조성하였으며, 바닥면은 북쪽에서 남쪽과 서쪽으로 가면서 낮아지는 양상이다. 내부에는 세석립이 소량 혼입된 회갈색 점질사토, 흑갈색 점질사토가 퇴적되어 있었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별다른 특징이 확인되지 않고, 유물도 출토되지 않아【표 4】로 간략히 정리하였다.

【표 4】 구상유구 속성표

호수	진행방향	(잔존)규모㎝			내부토	비고
		길이	너비	깊이		
1호	북동→남서	(531)	42	10	회갈색(7.5YR 4/1) 점질사토	
2호	북→남	(1,480)	78	9	흑갈색(7.5YR 3/1) 점질사토	

3) 주혈

가. 유구(도면 19~22, 도판 25~29)

조사대상지 전면에서 57개가 확인되었으며, 중앙부와 서쪽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주혈간 정형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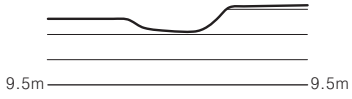
평면형태는 원형(44기), 타원형(13기)이며, 크기는 직경(길이) 16~40㎝, 깊이 3~27㎝ 정도이다. 벽면은 비스듬하게 굴착(51기)하여 조성하거나, 수직에 가깝게 굴착(6기)하여 조성하였으며, 내부에는 암갈색 사질점토, 흑갈색 점질사토, 회황갈색 점질사토가 퇴적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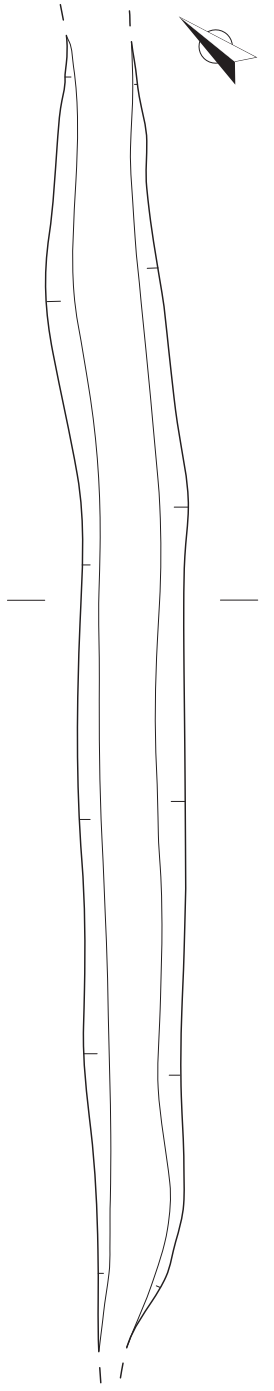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주혈의 개별 속성은 다음【표 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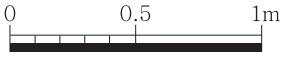
【표 5】 주혈군 속성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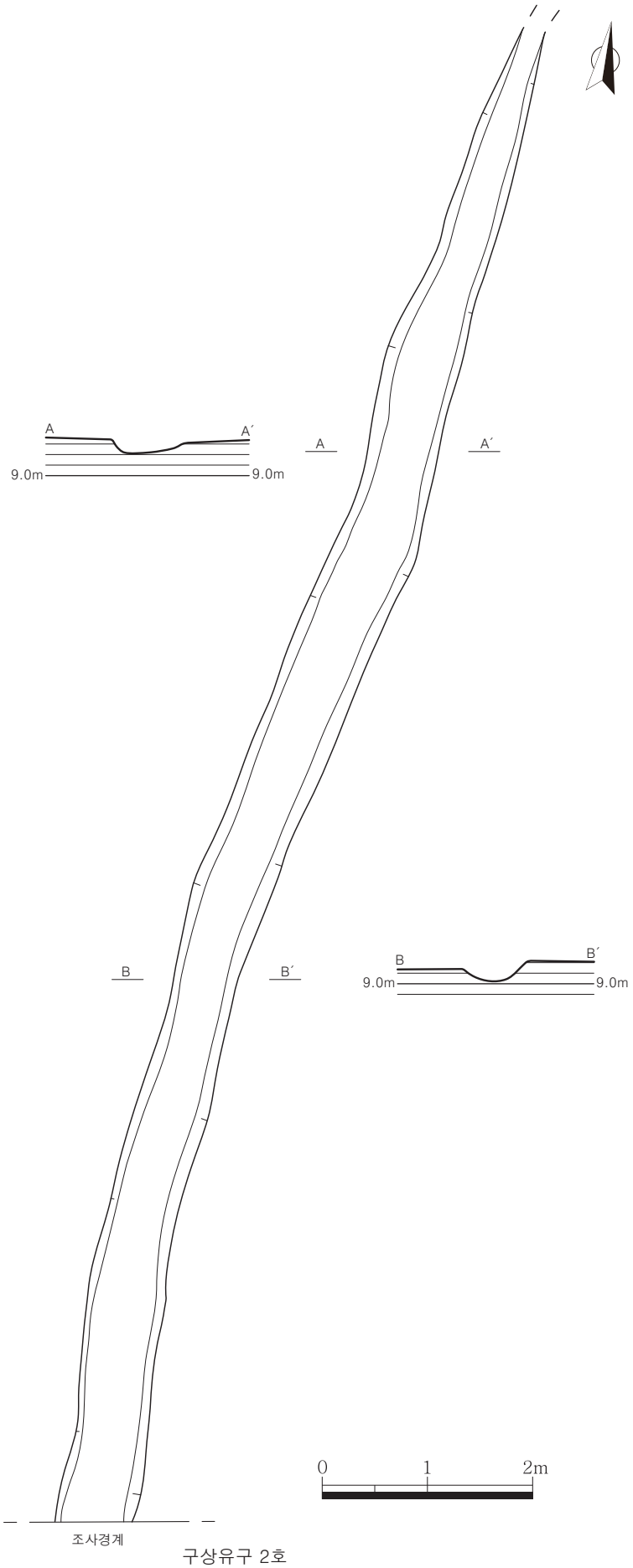
주혈 번호	평면형태	단면형태	(잔존)규모㎝		내부토	비고
			직경(길이)	깊이		
1	원형	'凵'자형	16	3	암갈색(10YR 3/4) 사질점토	
2	원형	'U'자형	24	9	암갈색(10YR 3/4) 사질점토	





구상유구 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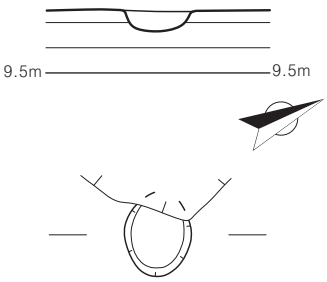
구상유구 2호

도면 18. 구상유구 1 · 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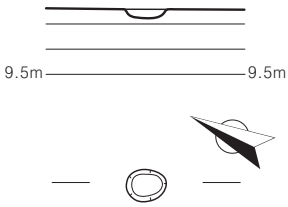
주혈 번호	평면형태	단면형태	(잔존)규모㎝		내부토	비고
			직경(길이)	깊이		
3	원형	‘U’자형	30	7	암갈색(10YR 3/4) 사질점토	
4	원형	‘U’자형	30	12	암갈색(10YR 3/4) 사질점토	수혈유구 3호 보다 후축
5	원형	‘U’자형	26	7	회황갈색(10YR 5/2) 점질사토	
6	원형	‘U’자형	22	6	회황갈색(10YR 5/2) 점질사토	
7	타원형	‘U’자형	32 26	10	회황갈색(10YR 5/2) 점질사토	
8	원형	‘U’자형	32	5	회황갈색(10YR 5/2) 점질사토	
9	원형	‘U’자형	19	3	흑갈색(7.5YR 3/2) 점질사토	
10	원형	‘U’자형	20	12	흑갈색(7.5YR 3/2) 점질사토	수혈유구 14호 보다 후축
11	원형	‘U’자형	38	13	흑갈색(7.5YR 3/2) 점질사토	
12	타원형	‘U’자형	34 28	10	흑갈색(7.5YR 3/2) 점질사토	
13	타원형	‘U’자형	40 28	27	흑갈색(7.5YR 3/2) 점질사토	
14	타원형	‘凵’자형	16 12	5	회황갈색(10YR 5/2) 점질사토	
15	원형	‘U’자형	38	13	회황갈색(10YR 5/2) 점질사토	
16	원형	‘U’자형	20	4	흑갈색(7.5YR 3/2) 점질사토	
17	타원형	‘凵’자형	30 18	6	회황갈색(10YR 5/2) 점질사토	
18	타원형	‘U’자형	40 38	6	회황갈색(10YR 5/2) 점질사토	
19	원형	‘U’자형	20	8	흑갈색(7.5YR 3/2) 점질사토	주혈 20 보다 후축
20	원형	‘U’자형	(18)	5	회황갈색(10YR 5/2) 점질사토	주혈 19 보다 선축
21	원형	‘U’자형	20	9	회황갈색(10YR 5/2) 점질사토	
22	원형	‘U’자형	20	11	암갈색(7.5YR 3/4) 점질사토	

주혈 번호	평면형태	단면형태	(잔존)규모㎝		내부토	비고
			직경(길이)	깊이		
23	원형	‘U’자형	20	6	암갈색(7.5YR 3/4) 점질사토	
24	원형	‘凵’자형	24	6	암갈색(7.5YR 3/4) 점질사토	
25	원형	‘U’자형	36	7	암갈색(7.5YR 3/4) 점질사토	
26	타원형	‘U’자형	36 28	8	암갈색(7.5YR 3/4) 점질사토	주혈 27 보다 후축
27	원형	‘U’자형	24	13	암갈색(7.5YR 3/4) 점질사토	주혈 26 보다 선축
28	원형	‘U’자형	26	6	암갈색(7.5YR 3/4) 점질사토	
29	타원형	‘U’자형	40 30	7	흑갈색(7.5YR 3/2) 점질사토	
30	타원형	‘U’자형	34 24	11	흑갈색(7.5YR 3/2) 점질사토	
31	타원형	‘U’자형	32 22	11	흑갈색(7.5YR 3/2) 점질사토	
32	원형	‘U’자형	26	13	흑갈색(7.5YR 3/2) 점질사토	
33	타원형	‘U’자형	32 20	15	암갈색(7.5YR 3/4) 점질사토	
34	원형	‘U’자형	20	15	흑갈색(7.5YR 3/2) 점질사토	
35	원형	‘U’자형	20	14	흑갈색(7.5YR 3/2) 점질사토	
36	원형	‘U’자형	18	9	흑갈색(7.5YR 3/2) 점질사토	
37	원형	‘U’자형	26	15	흑갈색(7.5YR 3/2) 점질사토	
38	타원형	‘U’자형	40 29	5	흑갈색(7.5YR 3/2) 점질사토	
39	원형	‘U’자형	28	9	회황갈색(10YR 5/2) 점질사토	
40	원형	‘U’자형	38	8	회황갈색(10YR 5/2) 점질사토	
41	원형	‘U’자형	30	5	흑갈색(7.5YR 3/2) 점질사토	
42	타원형	‘凵’자형	24 14	12	암갈색(7.5YR 3/4) 점질사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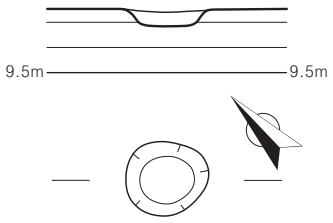
주혈 번호	평면형태	단면형태	(잔존)규모㎝		내부토	비고
			직경(길이)	깊이		
43	원형	'凵'자형	22	4	암갈색(7.5YR 3/4) 점질사토	
44	원형	'U'자형	20	3	암갈색(7.5YR 3/4) 점질사토	
45	타원형	'U'자형	32 22	10	회황갈색(10YR 5/2) 점질사토	
46	원형	'U'자형	24	11	암갈색(7.5YR 3/4) 점질사토	
47	원형	'U'자형	30	22	회황갈색(10YR 5/2) 점질사토	
48	원형	'U'자형	20	16	암갈색(7.5YR 3/4) 점질사토	
49	원형	'U'자형	16	9	흑갈색(7.5YR 3/2) 점질사토	
50	원형	'U'자형	18	8	흑갈색(7.5YR 3/2) 점질사토	
51	원형	'U'자형	24	18	흑갈색(7.5YR 3/2) 점질사토	
52	원형	'U'자형	18	14	흑갈색(7.5YR 3/2) 점질사토	
53	원형	'U'자형	20	9	암갈색(7.5YR 3/4) 점질사토	
54	원형	'U'자형	32	10	암갈색(7.5YR 3/4) 점질사토	
55	원형	'U'자형	18	4	암갈색(7.5YR 3/4) 점질사토	
56	원형	'U'자형	16	17	암갈색(7.5YR 3/4) 점질사토	
57	원형	'U'자형	16	6	암갈색(7.5YR 3/4) 점질사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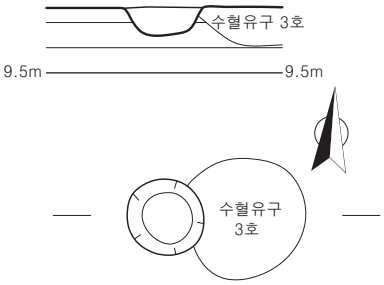
주혈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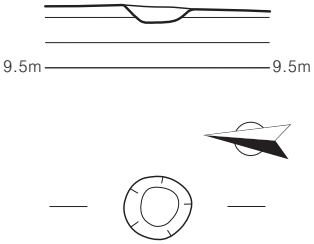
주혈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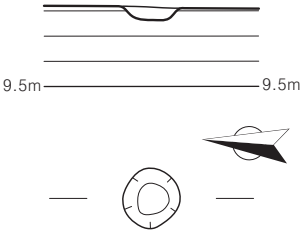
주혈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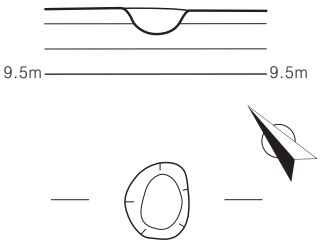
주혈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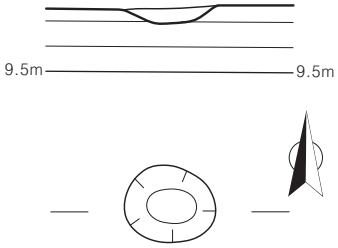
주혈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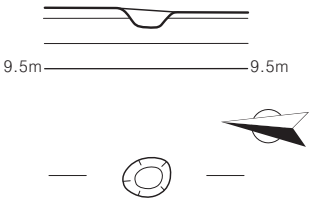
주혈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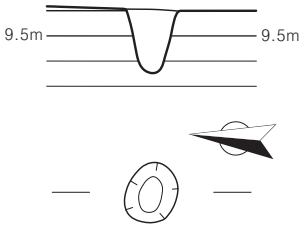
주혈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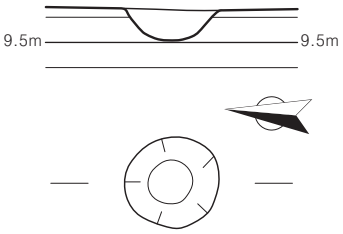
주혈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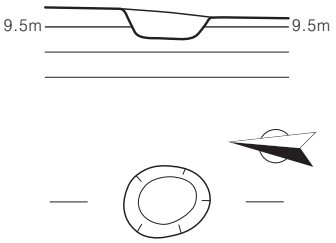
주혈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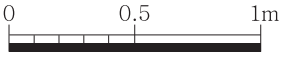
주혈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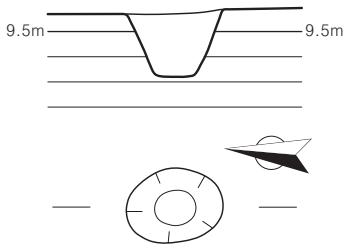
주혈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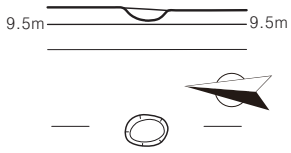
주혈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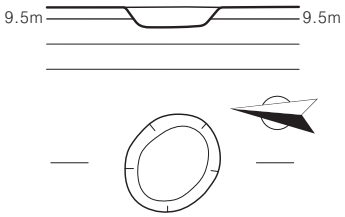
도면 19. 주혈 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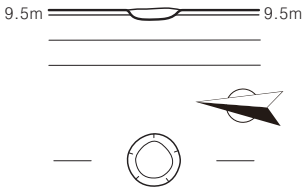
주혈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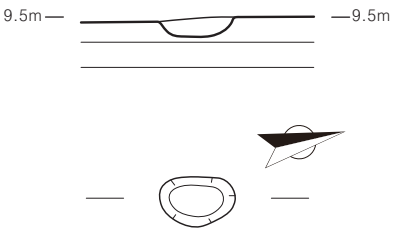
주혈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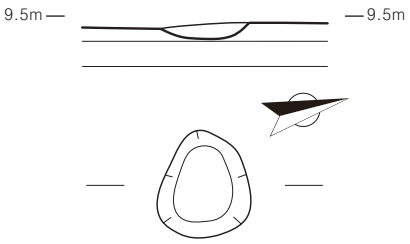
주혈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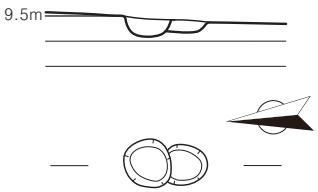
주혈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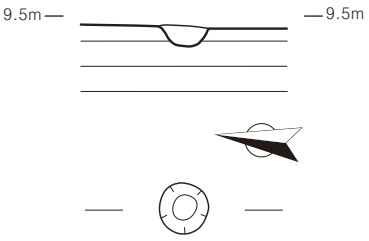
주혈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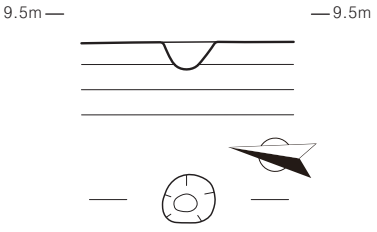
주혈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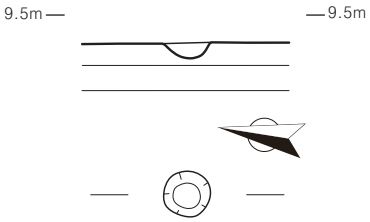
주혈 19 주혈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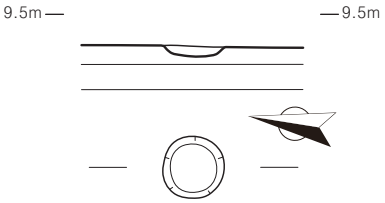
주혈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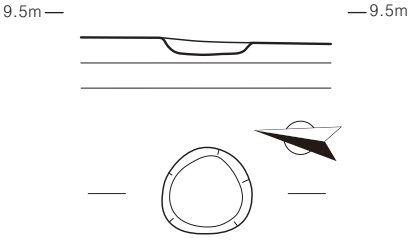
주혈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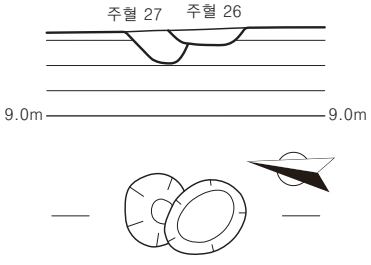
주혈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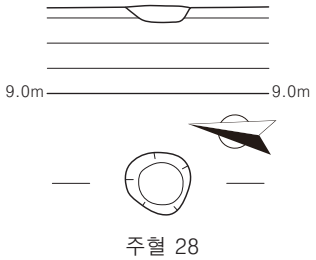
주혈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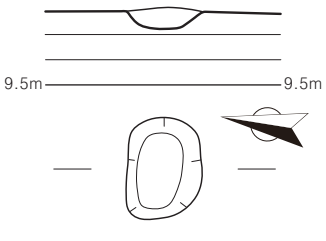
주혈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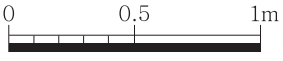
주혈 27 주혈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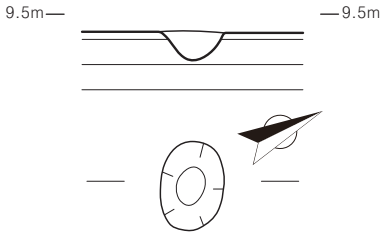
주혈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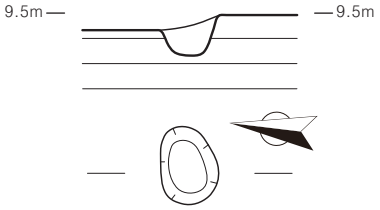
주혈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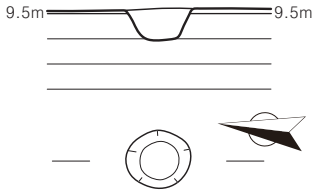
도면 20. 주혈 13~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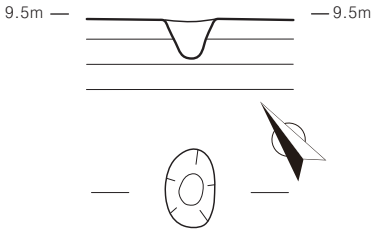
주혈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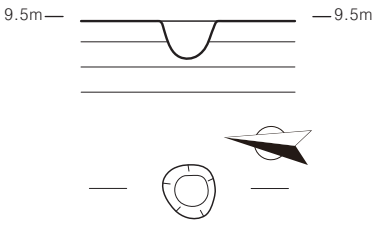
주혈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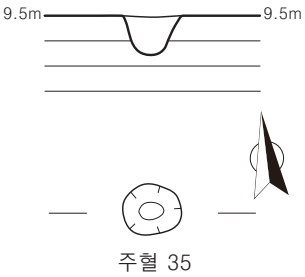
주혈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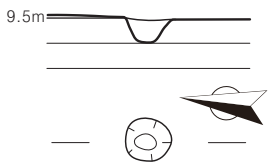
주혈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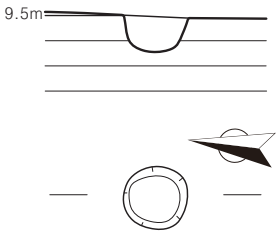
주혈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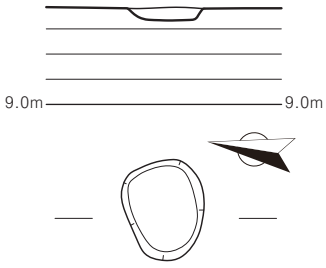
주혈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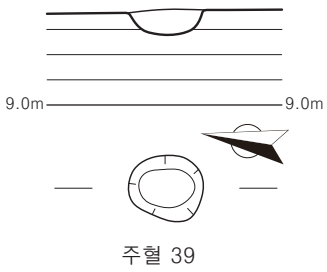
주혈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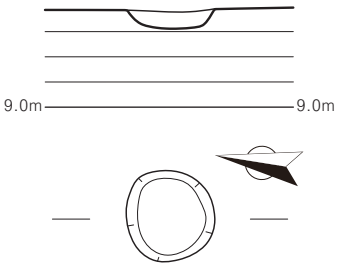
주혈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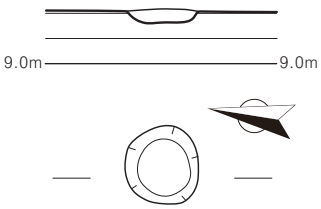
주혈 38



주혈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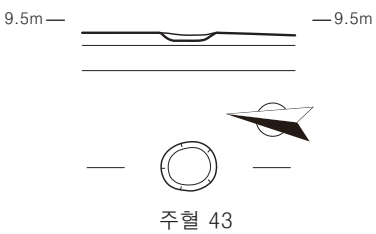
주혈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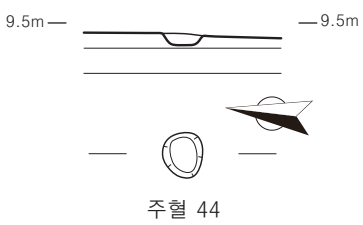
주혈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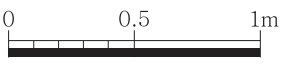
주혈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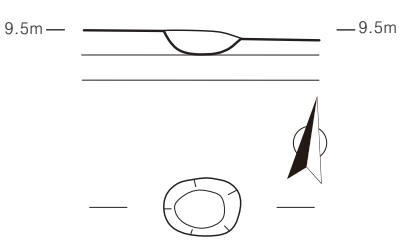
주혈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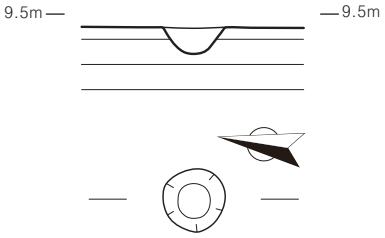
주혈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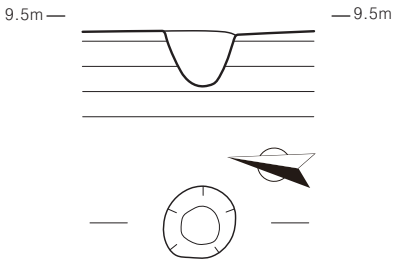
도면 21. 주혈 30~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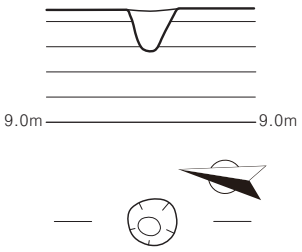
주혈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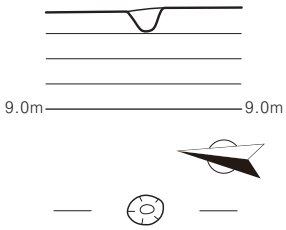
주혈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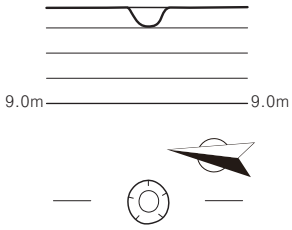
주혈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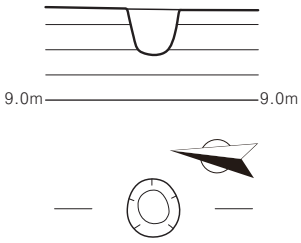
주혈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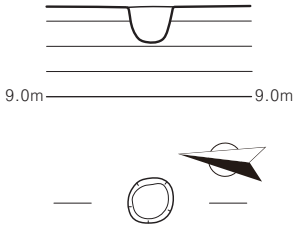
주혈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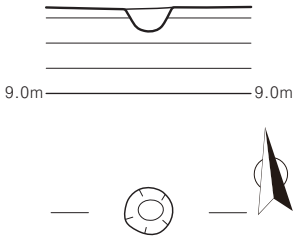
주혈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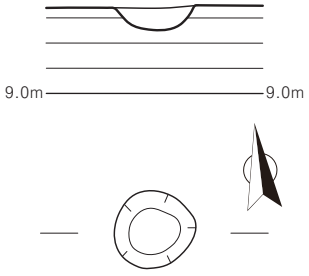
주혈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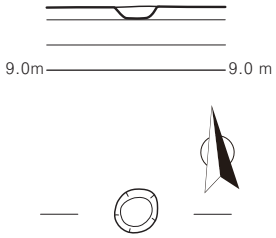
주혈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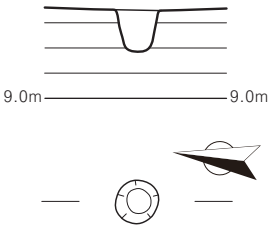
주혈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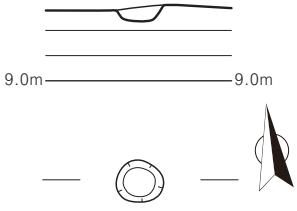
주혈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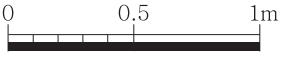
주혈 55



주혈 56



주혈 57



도면 22. 주혈 45~57

〈상부 수습유물〉

표토제거 및 유구 확인 작업 시 장동옹 구연부편 1점과 완 구연부편 1점 등 총 2점을 수습하였다.

6. 장동옹 구연부편(도면 23-6, 도판 2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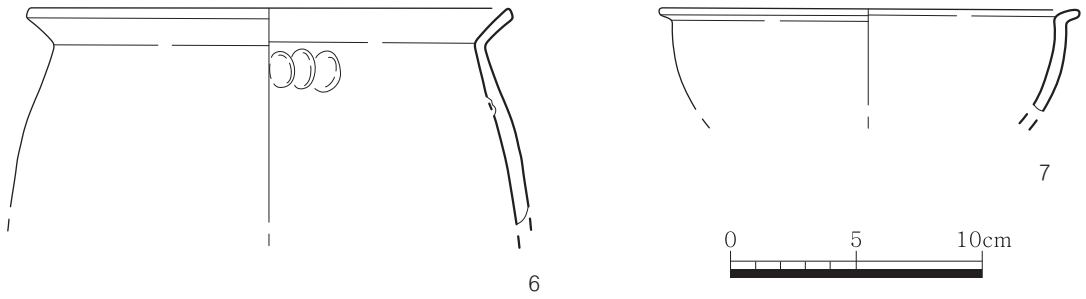
구연부 및 동체 일부만 잔존하는 것을 도면 복원하였다. 연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등색(7.5YR 7/6), 속심은 등색(7.5YR 6/6)이다. 내외면은 물손질 정면하였으며, 동체부 내면에서 지두흔이 확인된다.

잔존기고 9.4㎝, 복원구경 20.4㎝

7. 완 구연부편(도면 23-7, 도판 29-7)

구연부와 신부의 일부만 잔존하는 것을 도면 복원하였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내외면의 색조는 회색(N 6/), 속심의 색조는 회색(N 4/)을 띤다. 내외면은 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4.0㎝, 복원구경 16.5㎝



도면 23. 상부 수습유물

Ⅳ. 조사성과

본 발굴조사는 김해 내삼리 794-2번지 농·어업시설 신축부지에 대하여 소규모 발굴 국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수혈유구 42기·구상유구 2기·주혈 57개 등 총 101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유물은 대호편, 장동옹 구연부편, 호편, 완 등 총 7점이 출토되었다.

수혈유구의 평면형태는 원형, 타원형, 장방형, 부정형 등으로 다양하게 확인되었으며, 일부 수혈유구 내부에 주혈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후대 삭평 등으로 잔존상태가 좋지 않아, 정확한 성격은 확인할 수 없었다. 주혈 역시 다수가 확인되었으나, 진행방향과 간격에 따른 주혈간 정형성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성격은 알 수 없다. 다만, 수혈유구 13호 등 주거용으로 추정되는 평면형태 및 규모가 일부 확인되고 있어 관련한 임시 생활유구로 추정된다.[15)]

출토유물은 빈약하지만, 내부토에 혼입되어 횡침선의 승문 타날 호 동체부편이 확인되고, 적갈색 연질완 등이 출토되어 삼국시대인 4~5세기 정도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인접한 김해 내삼리 유적, 김해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부지 내 유적에서 확인된 주혈의 조성시기를 4세기 이후로 추정하고 있어[16)] 본 유적과 연결선상의 생활유적으로 판단된다.

---

15) 경남문화재연구원, 2015,『김해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구간 내 유적』.
확인된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나 말각장방형이며, 규모가 300~490㎝ 정도이다. 또한 유물의 출토양이 빈약한 것으로 보아 비교적 짧은 시간에 사용되었기 때문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16)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2014,『金海 內三里 生活遺蹟』.
경남문화재연구원, 2015,『김해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구간 내 유적』.
유적은 내삼천의 유로변경과 폐기, 범람 등이 청동기시대 이후 4세기대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확인된 주혈은 자연유로가 매몰되고 난 후 4세기 이후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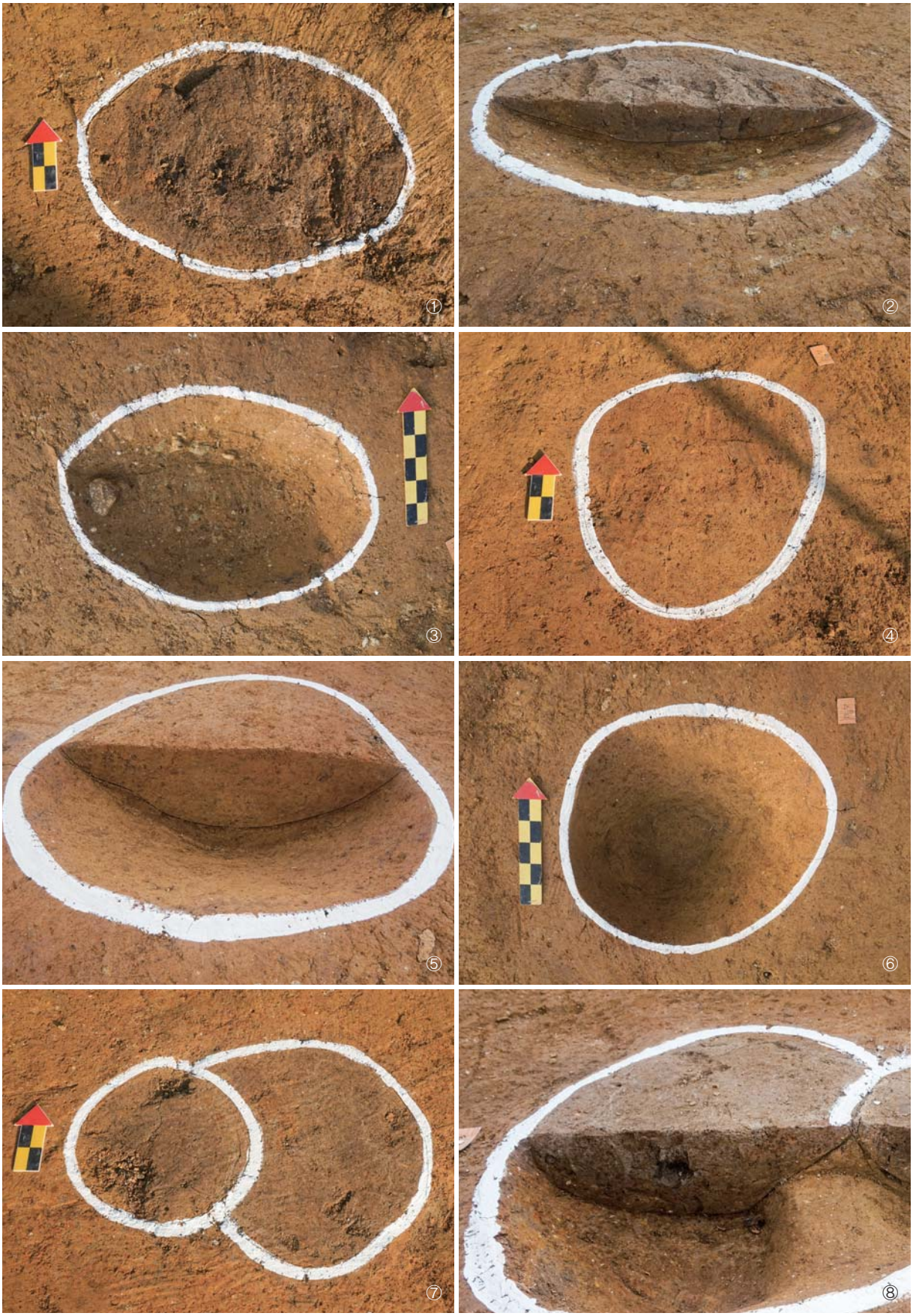
도 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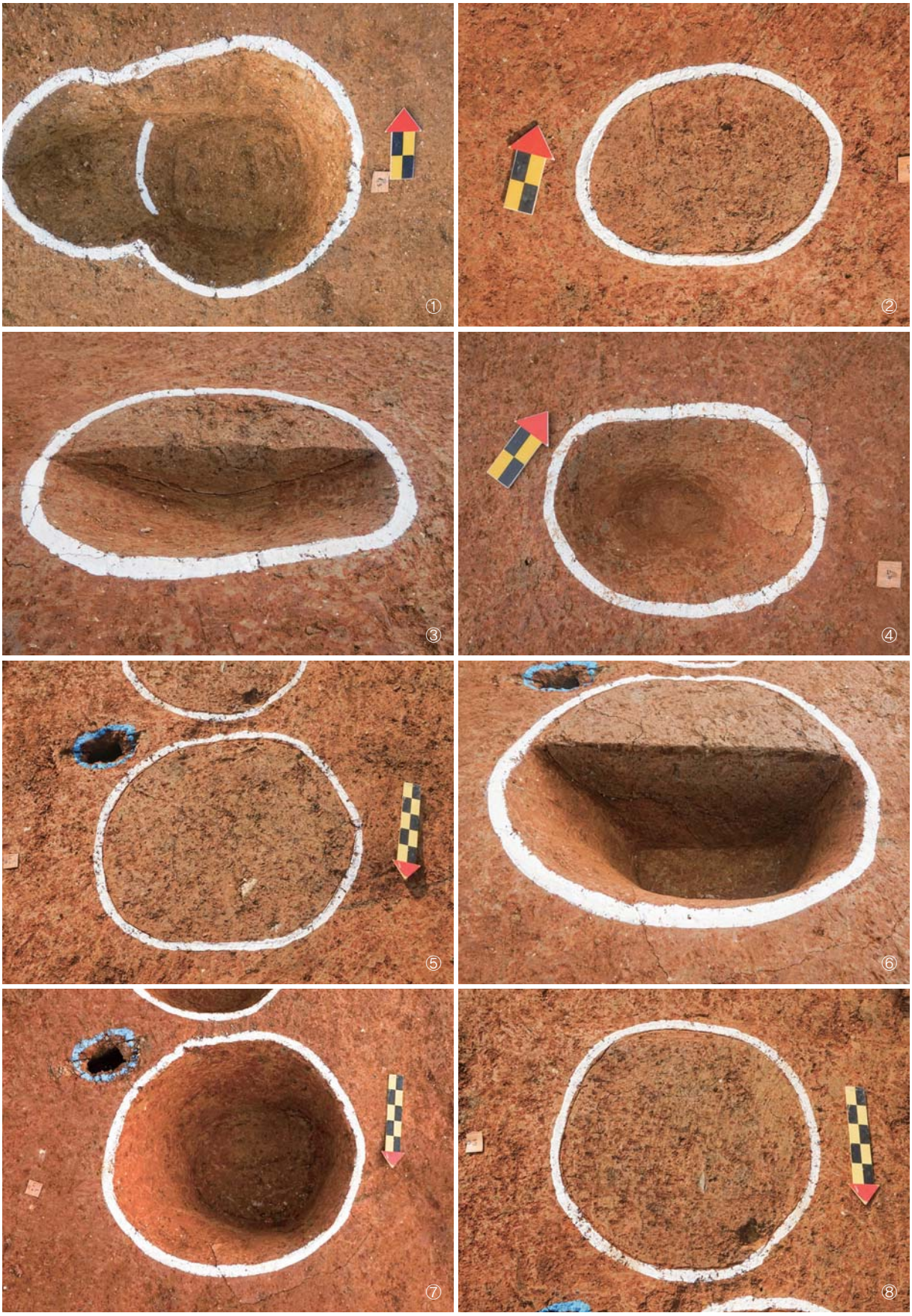
도판 1. 전체 사업부지 전경(①항공사진 ▭ : 조사대상지), 조사대상지 조사전 전경(②W→E)



도판 2. 조사대상지 전경(①조사후(항공사진), ▭ : 확장 조사구간, ②중앙부 및 서쪽 전경(항공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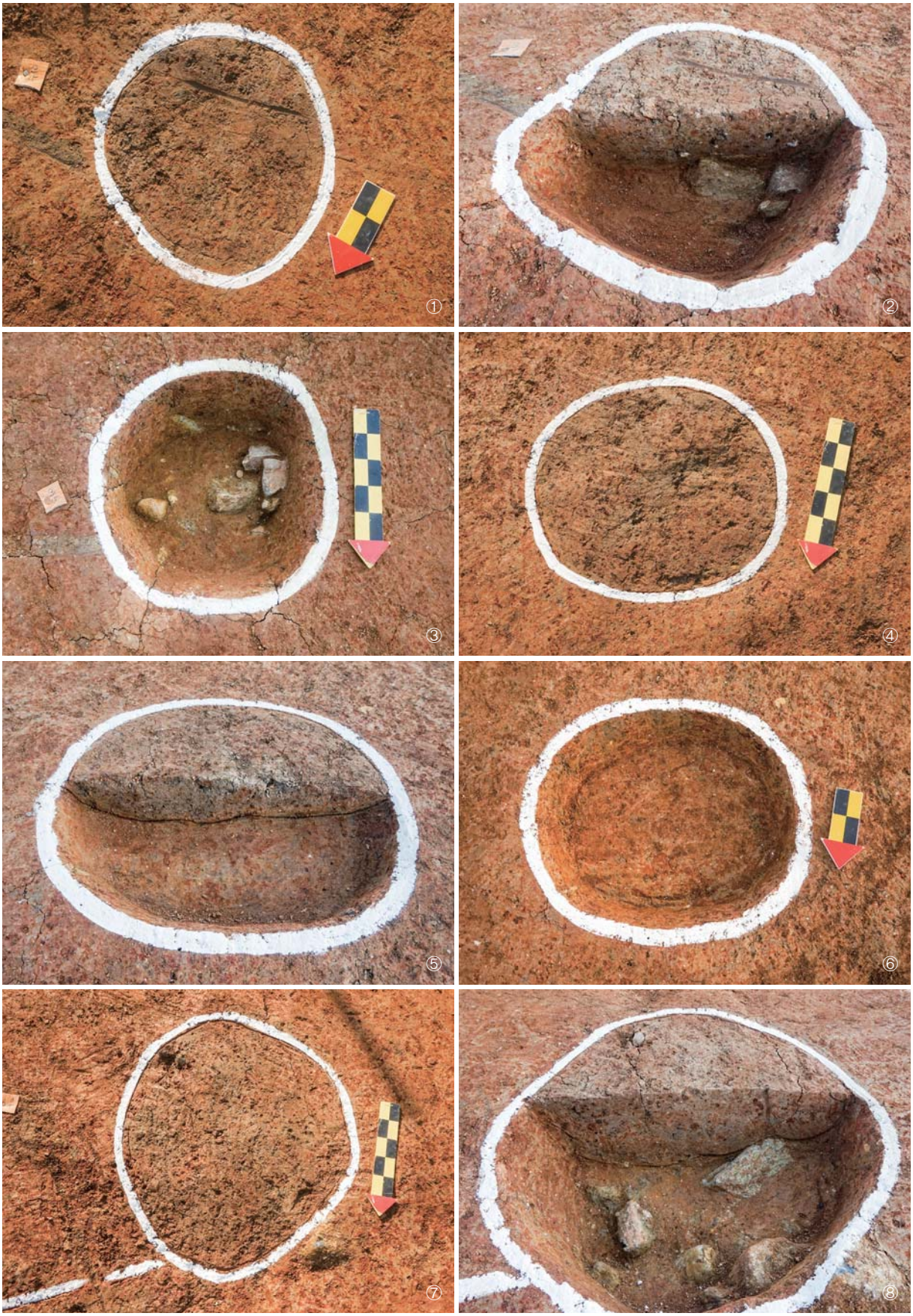
도판 3. 수혈유구 1호(①조사전(S→N), ②토층, ③조사후(S→N)), 수혈유구 2호(④조사전(S→N), ⑤토층, ⑥조사후(S→N)), 수혈유구 3호(⑦조사전(S→N), ⑧토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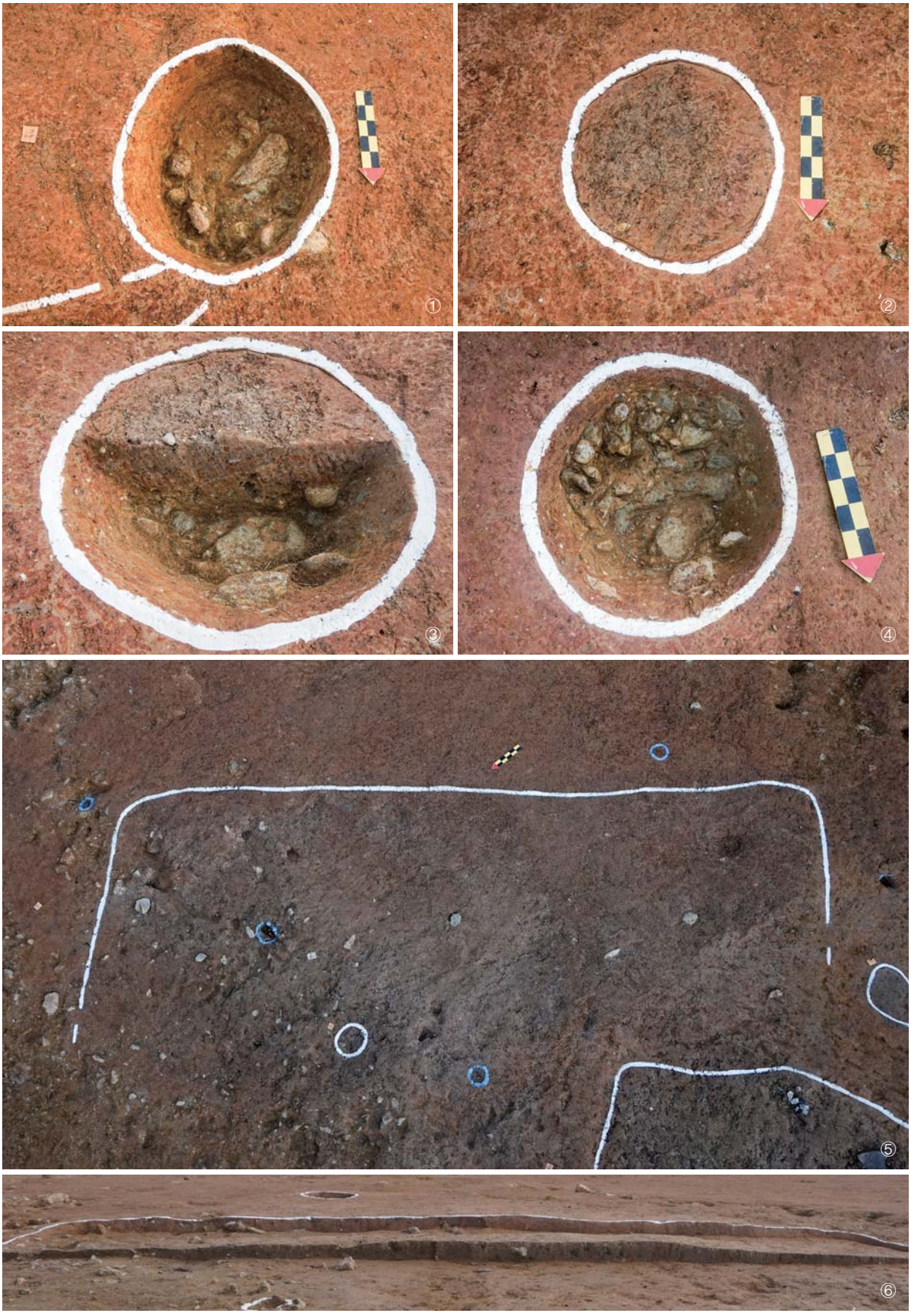
도판 4. 수혈유구 3호 조사후(①S→N), 수혈유구 4호(②조사전(SE→NW), ③토층, ④조사후(SE→NW)), 수혈유구 5호(⑤조사전(N→S), ⑥토층, ⑦조사후(N→S)), 수혈유구 6호 조사전(⑧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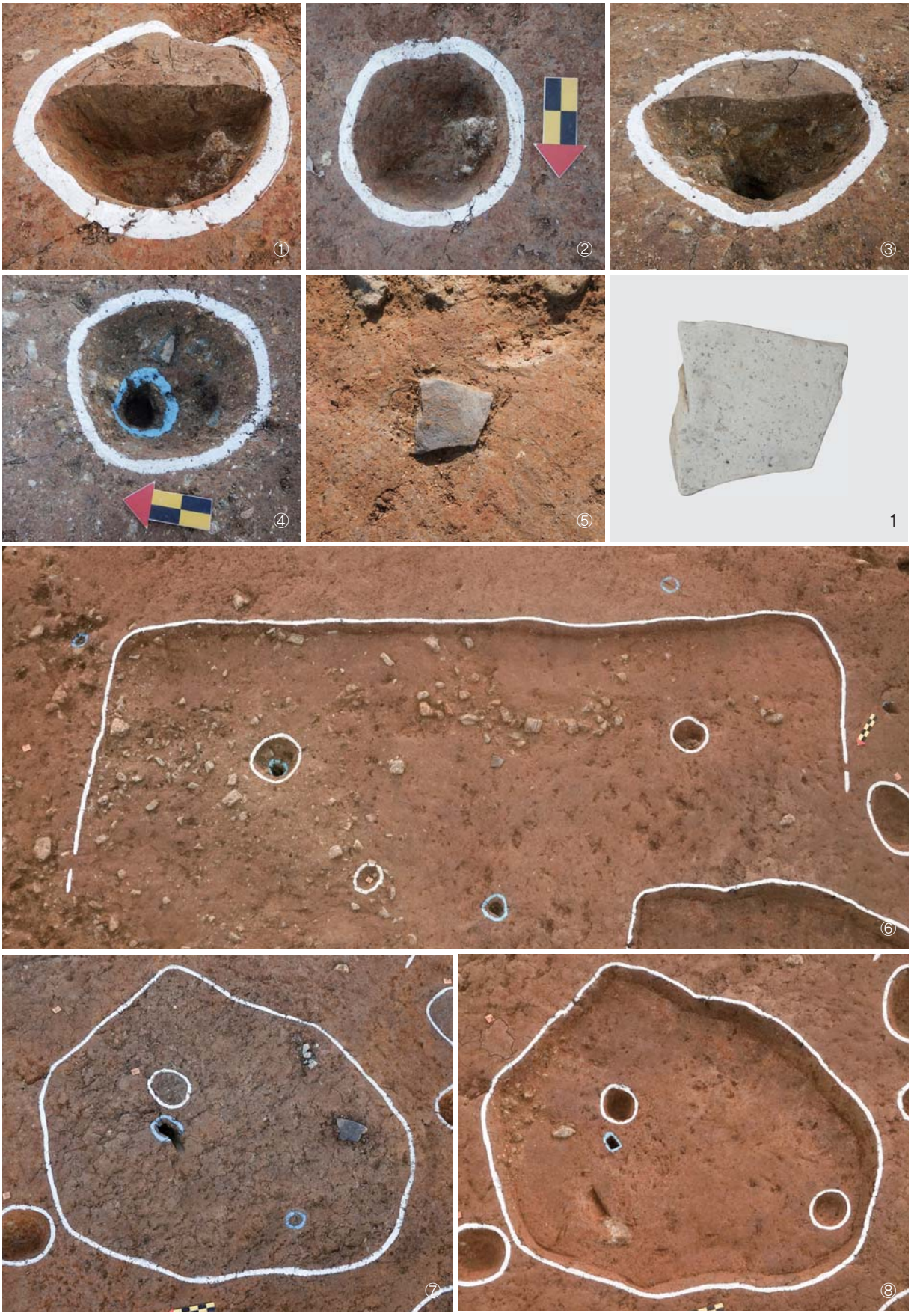
도판 5. 수혈유구 6호(①토층, ②조사후(N→S)), 수혈유구 7호(③조사전(W→E), ④토층, ⑤조사후(W→E)), 수혈유구 8호(⑥조사전(N→S), ⑦토층, ⑧조사후(N→S))



도판 6. 수혈유구 9호(①조사전(NW→SE), ②토층, ③조사후(N→S)), 수혈유구 10호(④조사전(NW→SE), ⑤토층, ⑥조사후(NW→SE)), 수혈유구 11호(⑦조사전(N→S), ⑧토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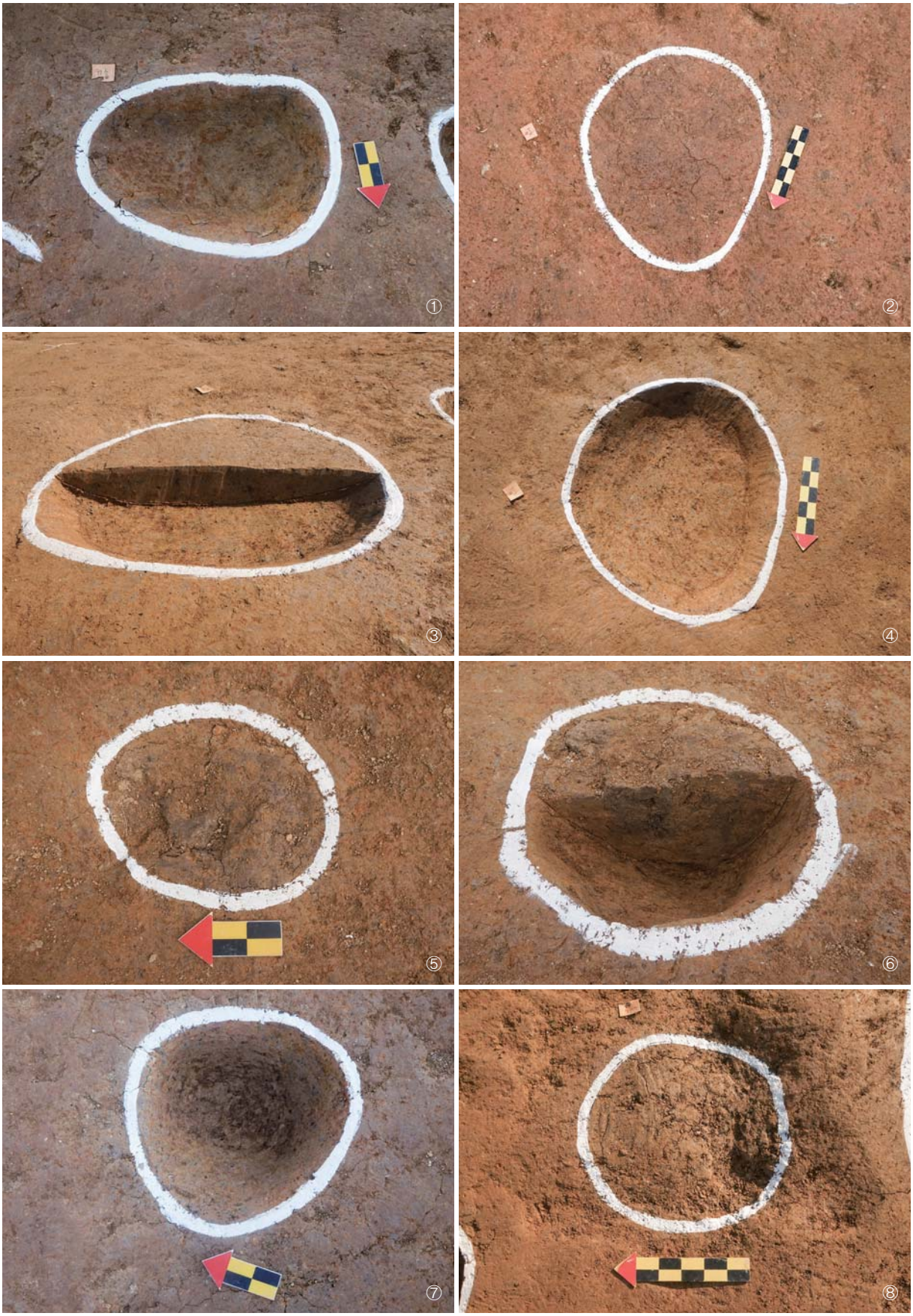
도판 7. 수혈유구 11호 조사후(①N→S), 수혈유구 12호(②조사전(N→S), ③토층, ④조사후(N→S)), 수혈유구 13호(⑤조사전(NW→SE), ⑥토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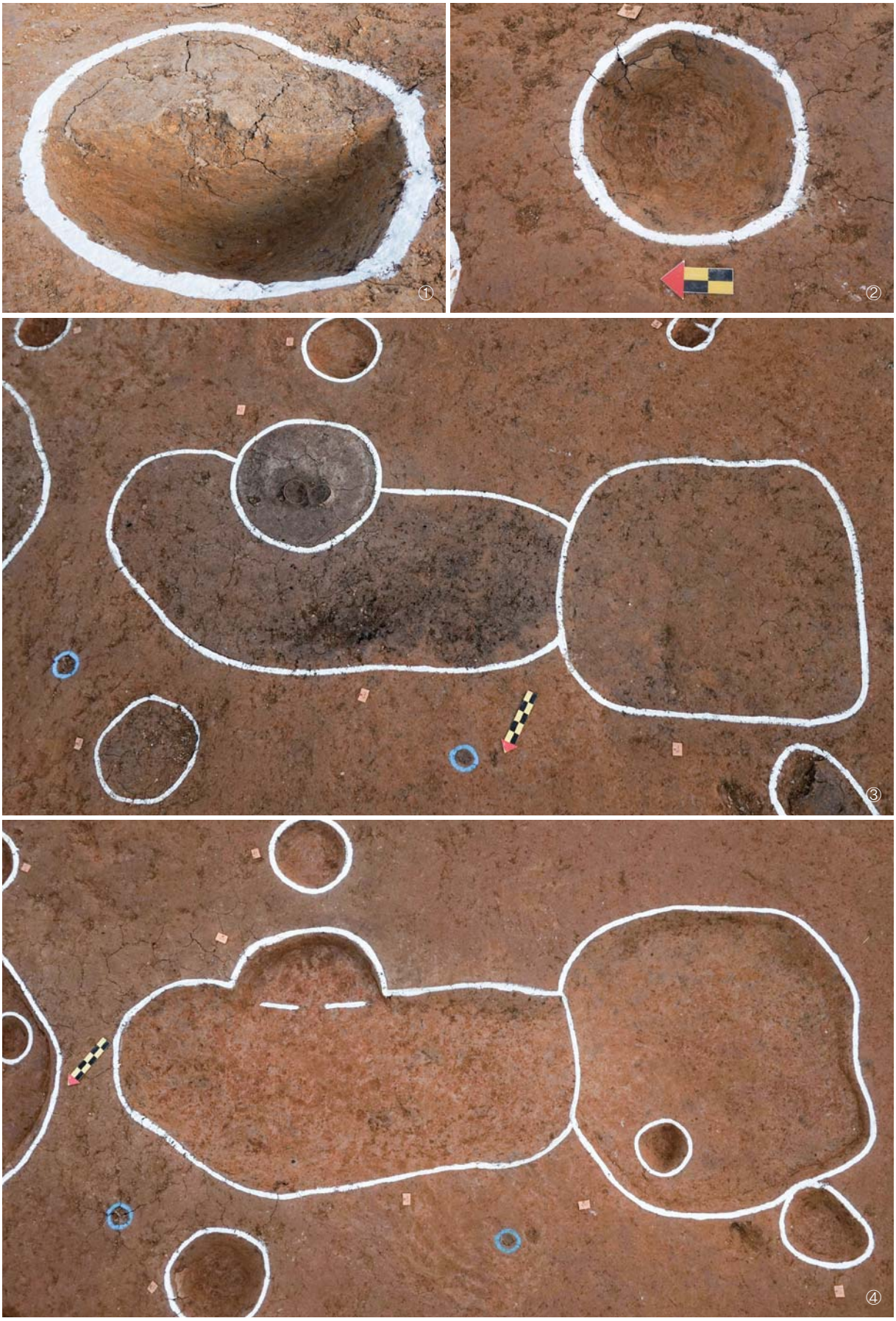
도판 8. 수혈유구 13호(①②내부주혈1 토층 및 조사후, ③④내부주혈2 토층 및 조사후, ⑤유물 출토상태, 1:출토유물, ⑥조사후(NW→SE)), 수혈유구 14호(⑦조사전(NW→SE), ⑧조사후(NW→SE))



도판 9. 수혈유구 14호(①남-북 토층, ②동-서 토층, ③④내부주혈 토층 및 조사후, ⑤유물 출토상태, 2·3:출토유물), 수혈유구 15호(⑥조사전(N→S), ⑦토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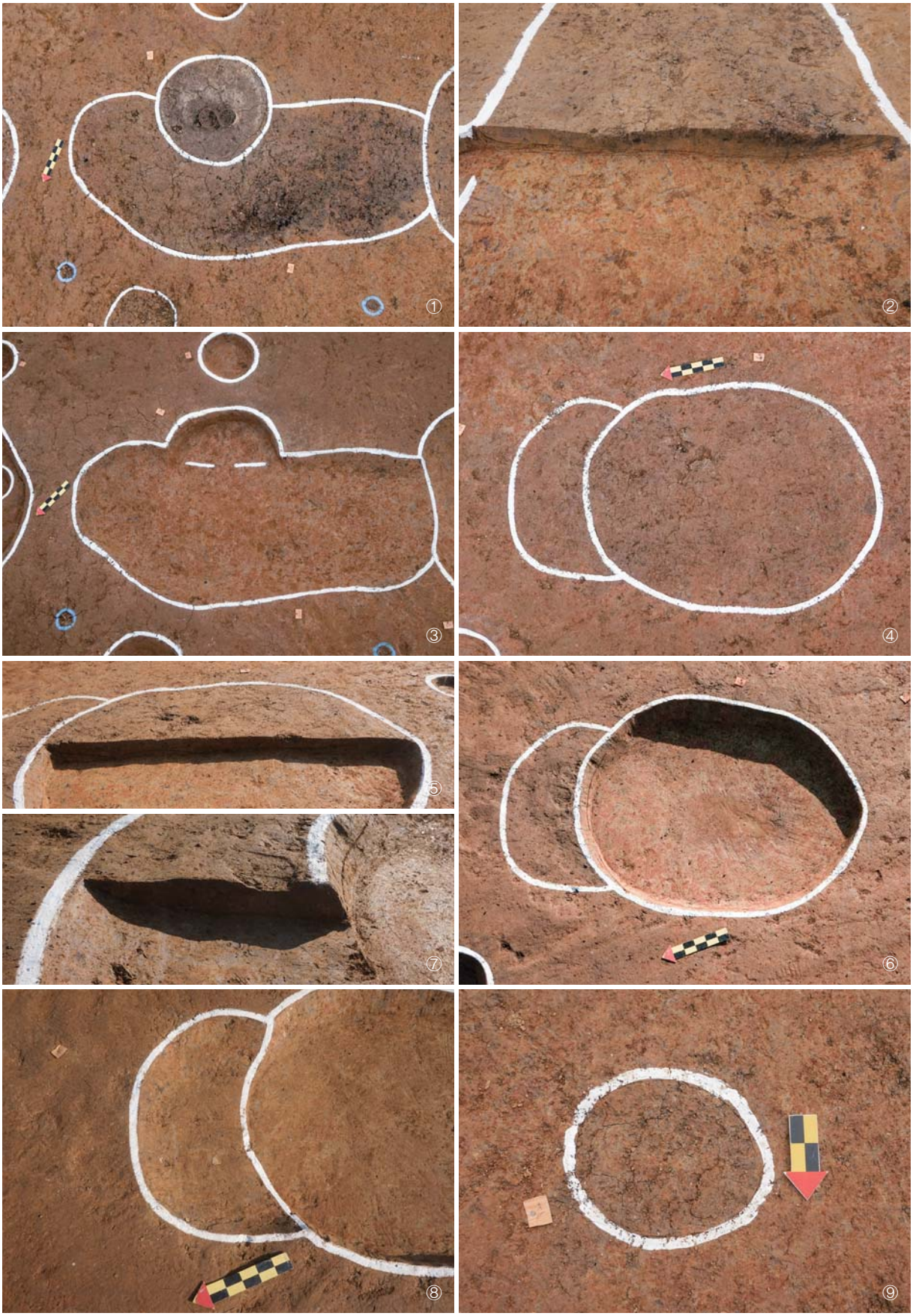
도판 10. 수혈유구 15호 조사후(①N→S), 수혈유구 16호(②조사전(NW→SE), ③토층, ④조사후(NW→SE)), 수혈유구 17호 (⑤조사전(W→E), ⑥토층, ⑦조사후(SW→NE)), 수혈유구 18호 조사전(⑧W→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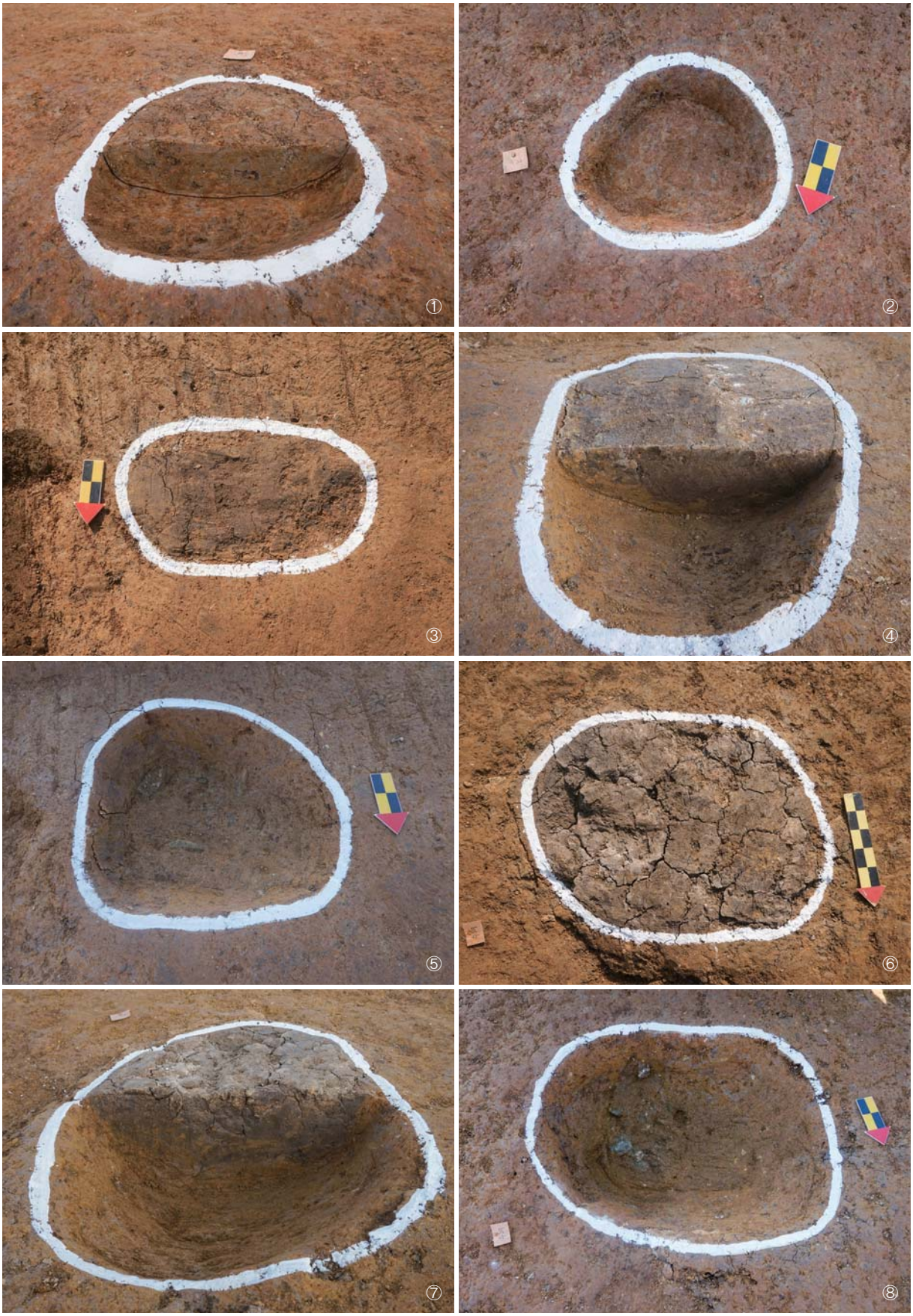
도판 11. 수혈유구 18호(①토층, ②조사후(W→E)), 수혈유구 19~21호(③조사전(NW→SE), ④조사후(NW→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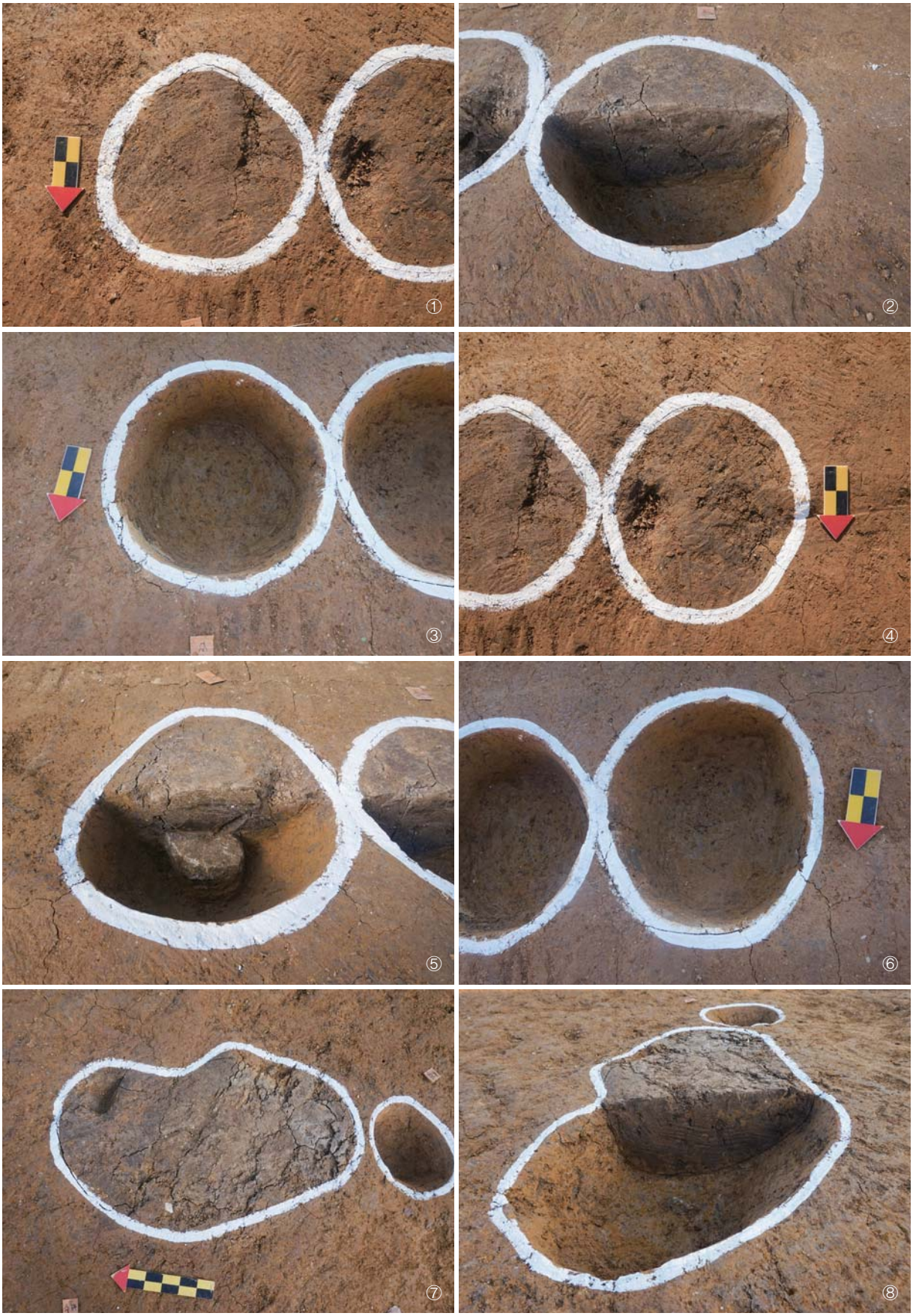
도판 12. 수혈유구 19호(①조사전(NW→SE), ②토층, ③조사후(NW→SE)), 수혈유구 20호(④조사전(NW→SE), ⑤토층, ⑥유물 출토상태, ⑦조사후(NW→SE), 4·5: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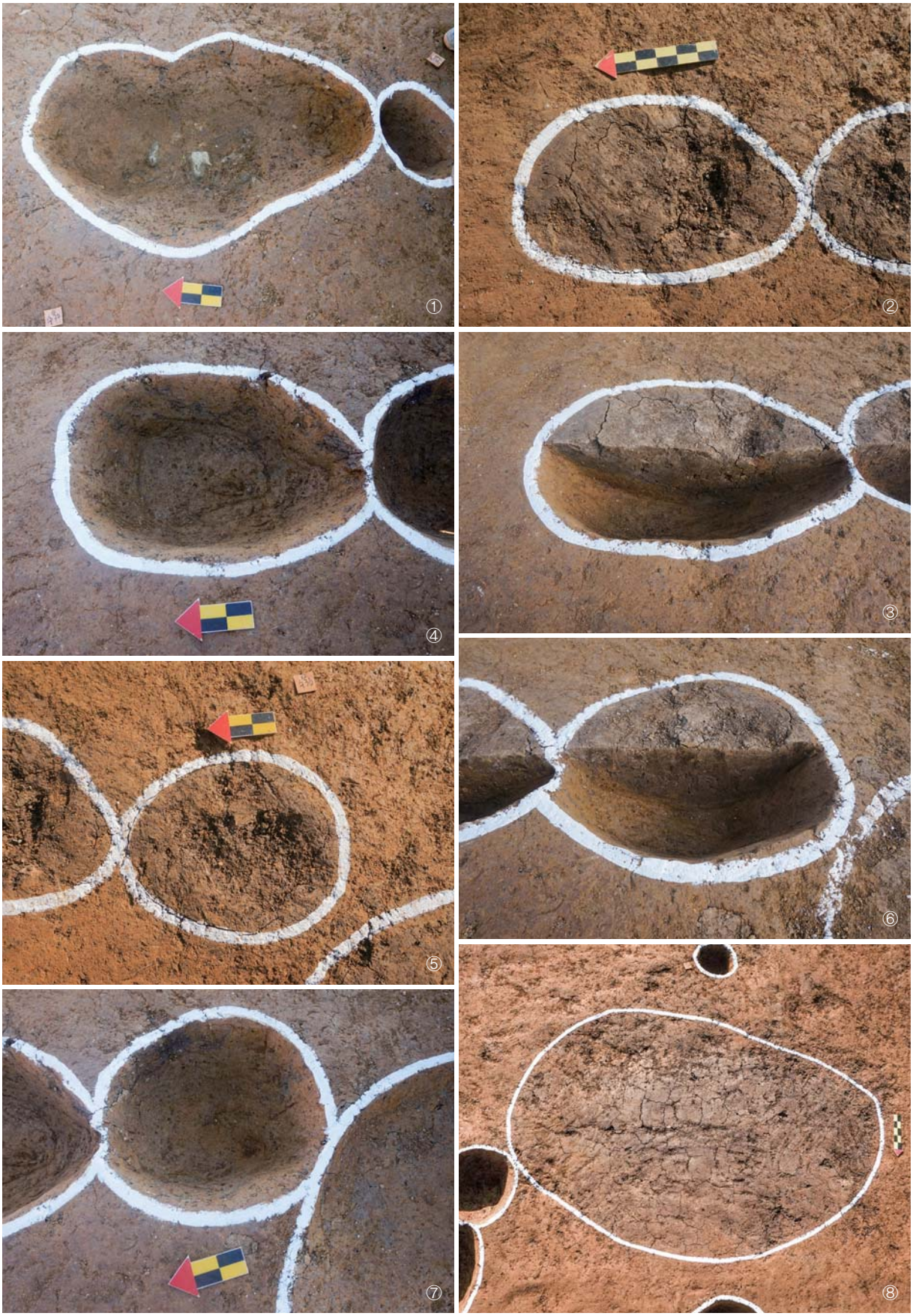
도판 13. 수혈유구 21호(①조사전(NW→SE), ②토층, ③조사후(NW→SE)), 수혈유구 22·23호 조사전(④NW→SE), 수혈유구 22호(⑤토층, ⑥조사후(NW→SE)), 수혈유구 23호(⑦토층, ⑧조사후(NW→SE)), 수혈유구 24호 조사전(⑨N→S)



도판 14. 수혈유구 24호(①토층, ②조사후(N→S)), 수혈유구 25호(③조사전(N→S), ④토층, ⑤조사후(N→S)), 수혈유구 26호(⑥조사전(NE→SW), ⑦토층, ⑧조사후(NE→S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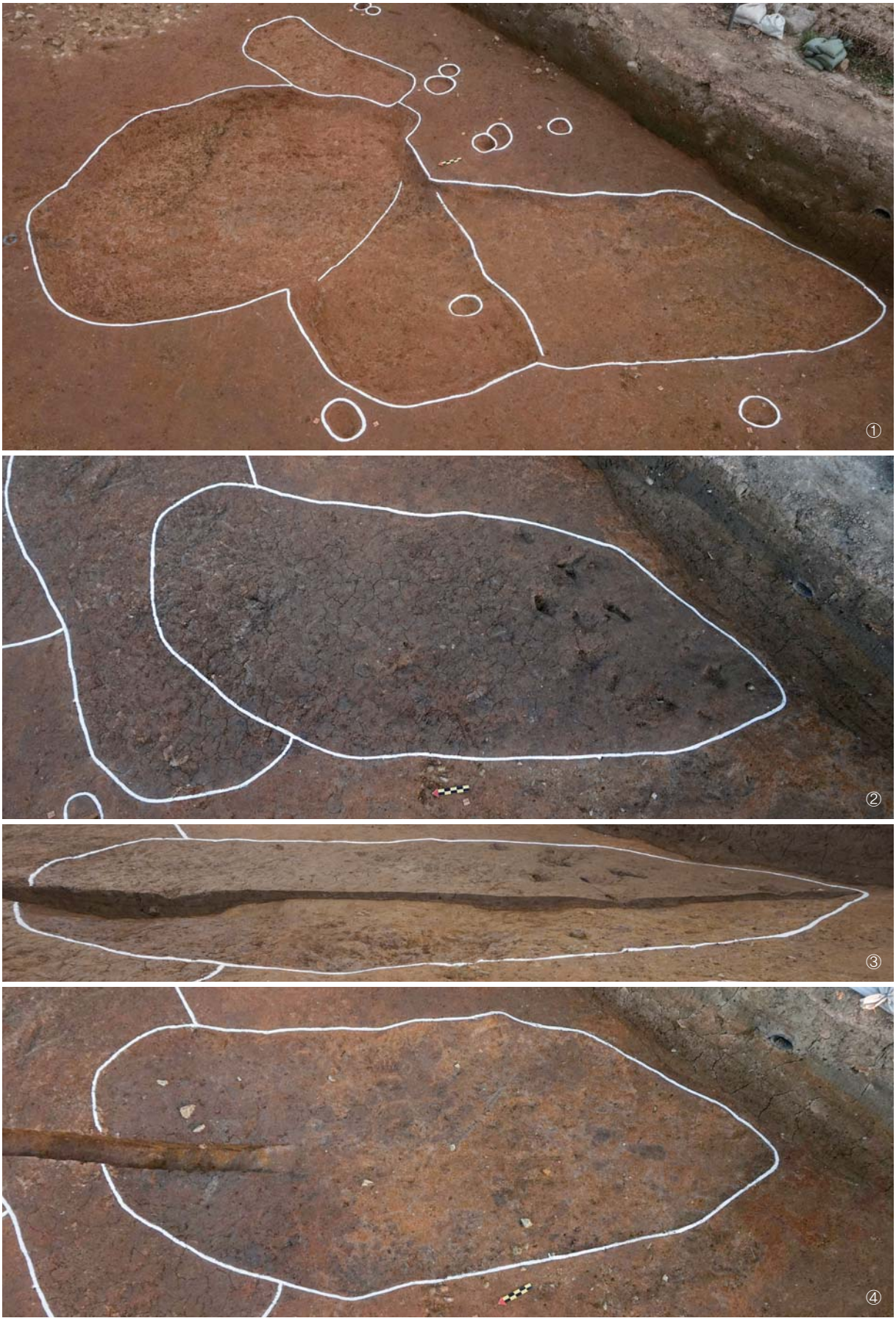
도판 15. 수혈유구 27호(①조사전(N→S), ②토층, ③조사후(N→S)), 수혈유구 28호(④조사전(N→S), ⑤토층, ⑥조사후(N→S)), 수혈유구 29호(⑦조사전(W→E), ⑧토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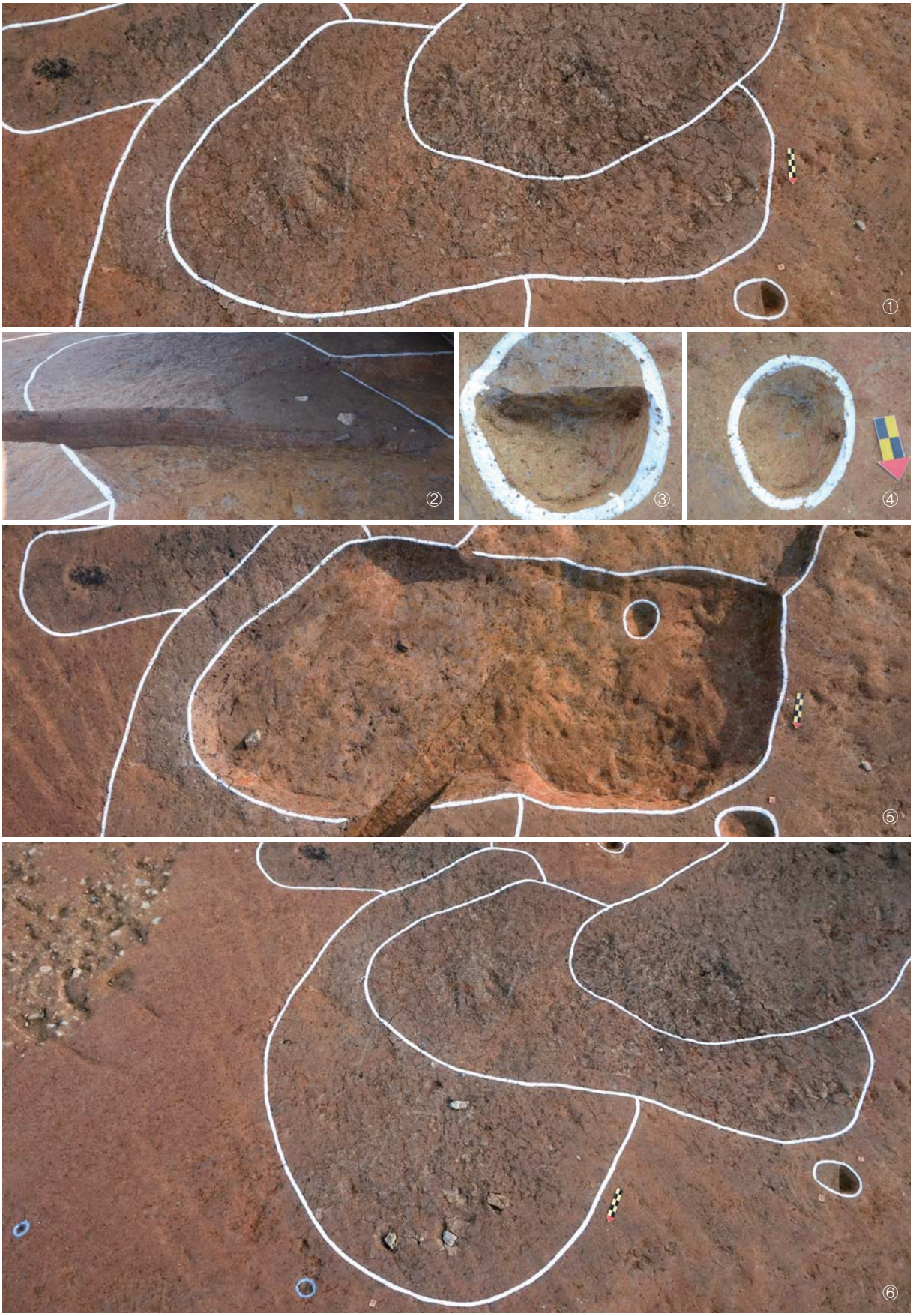
도판 16. 수혈유구 29호 조사후(①W→E), 수혈유구 30호(②조사전(W→E), ③토층, ④조사후(W→E)), 수혈유구 31호(⑤조사전(W→E), ⑥토층, ⑦조사후(W→E)), 수혈유구 32호 조사전(⑧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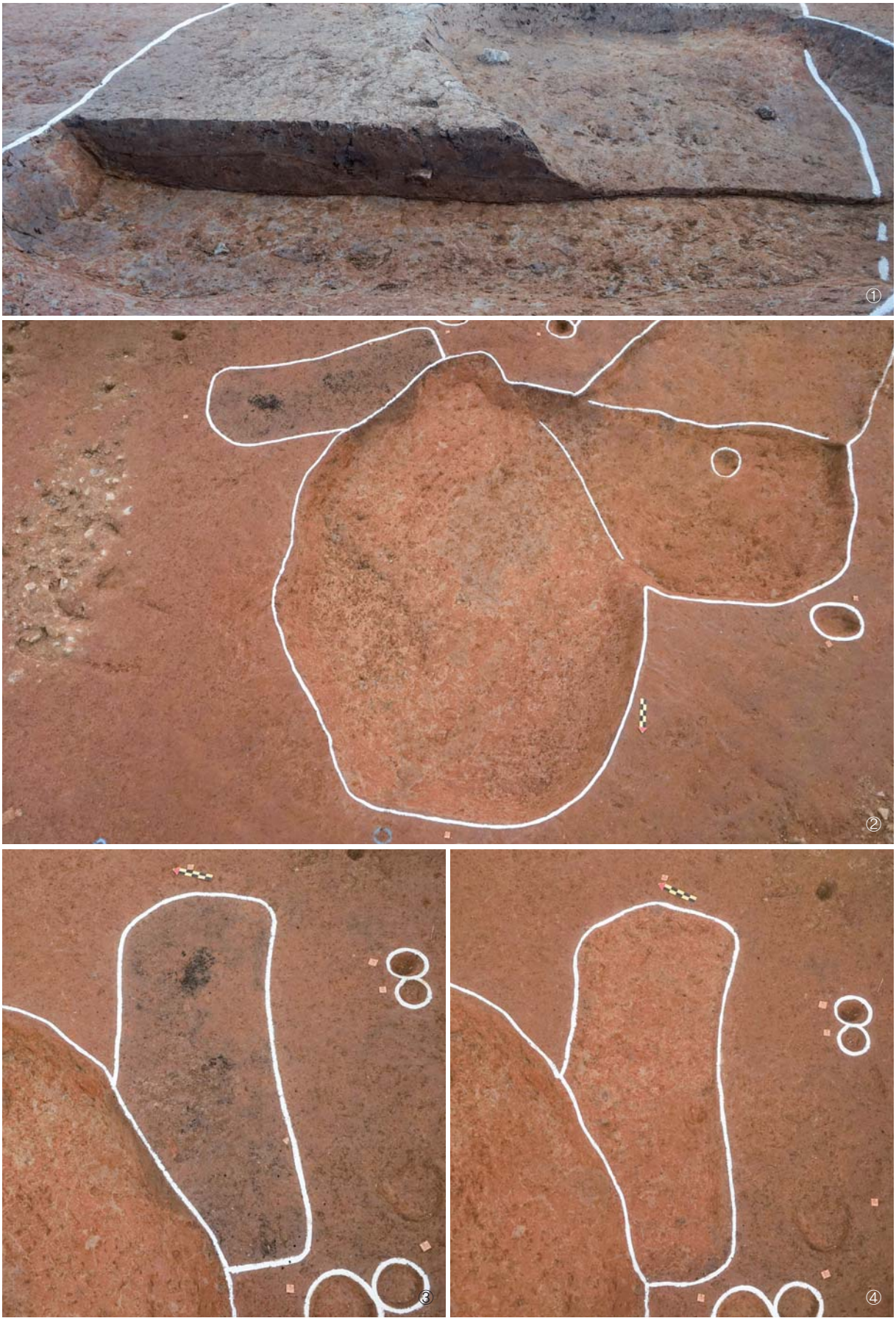
도판 17. 수혈유구 32호(①토층, ②③내부주혈 토층 및 조사후, ④조사후(N→S)), 수혈유구 33호(⑤조사전(NE→SW), ⑥토층, ⑦조사후(NE→SW)), 수혈유구 34~37호 조사전(⑧W→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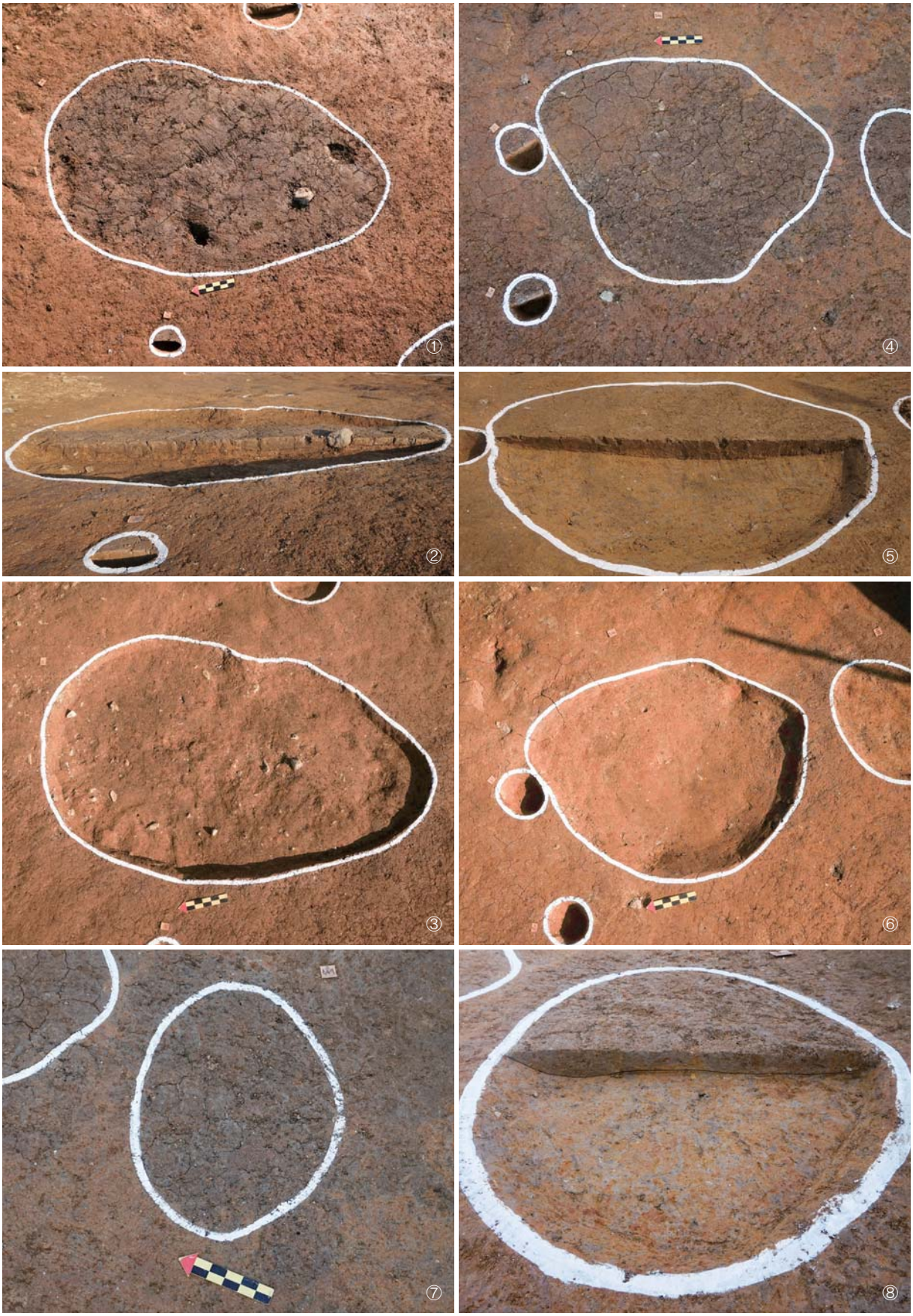
도판 18. 수혈유구 34~37호 조사후(①W→E), 수혈유구 34호(②조사전(W→E), ③토층, ④조사후(W→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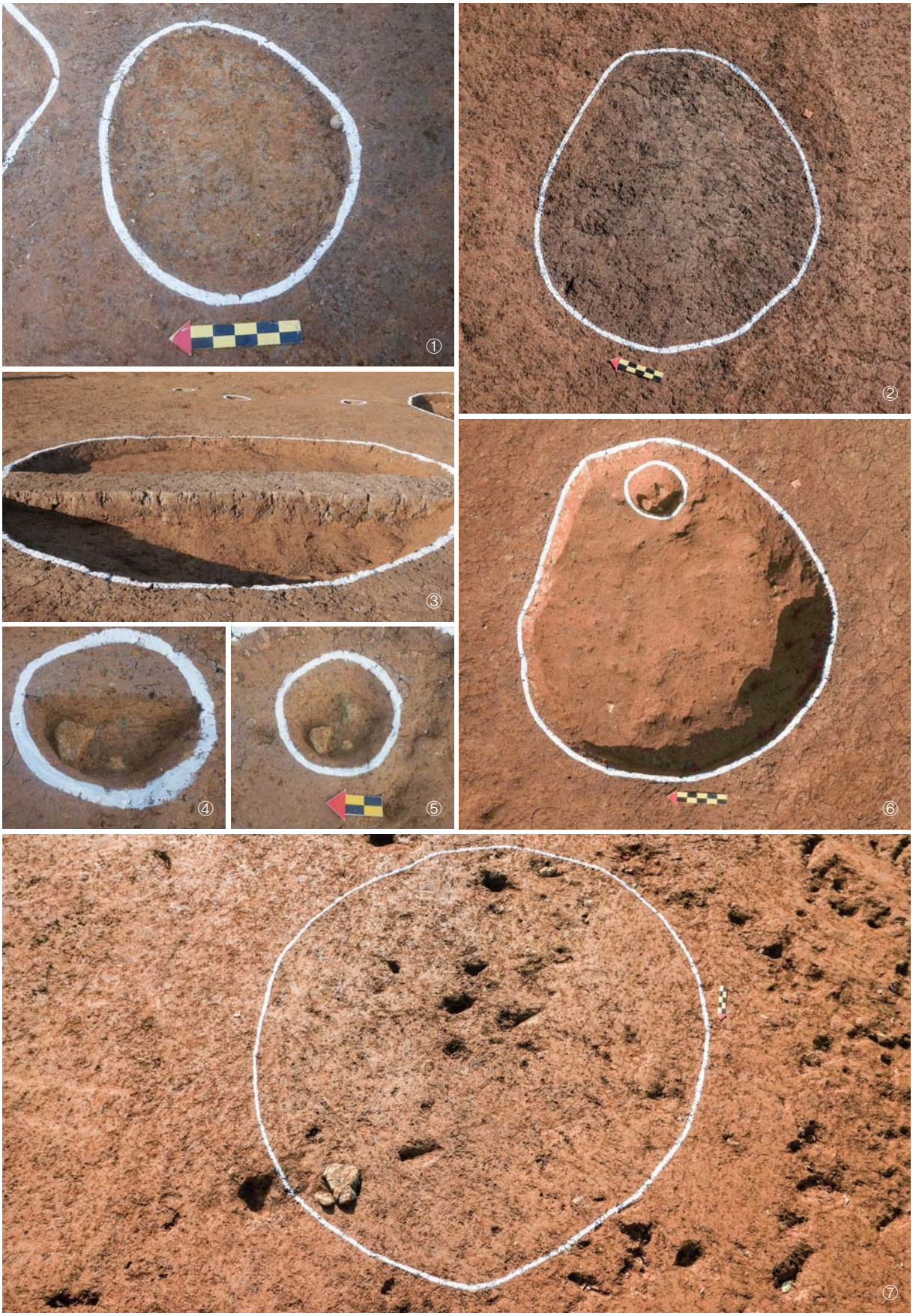
도판 19. 수혈유구 35호(①조사전(N→S), ②토층, ③④내부주혈 토층 및 조사후, ⑤조사후(N→S)), 수혈유구 36호 조사전 (⑥NW→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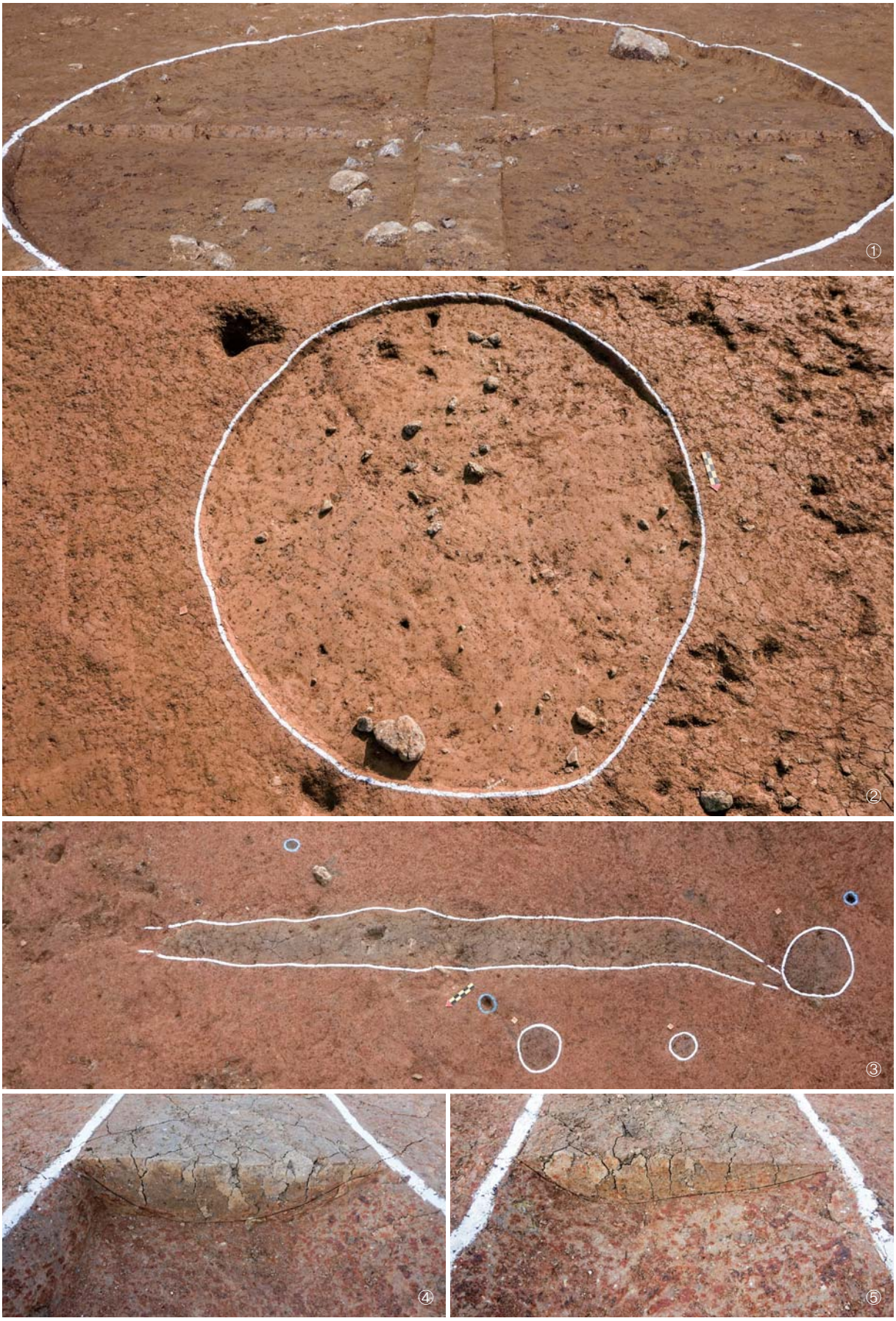
도판 20. 수혈유구 36호(①토층, ②조사후(N→S)), 수혈유구 37호(③조사전(W→E), ④조사후(W→E))



도판 21. 수혈유구 38호(①조사전(W→E), ②토층, ③조사후(W→E)), 수혈유구 39호(④조사전(W→E), ⑤토층, ⑥조사후(SW→NE)), 수혈유구 40호(⑦조사전(SW→NE), ⑧토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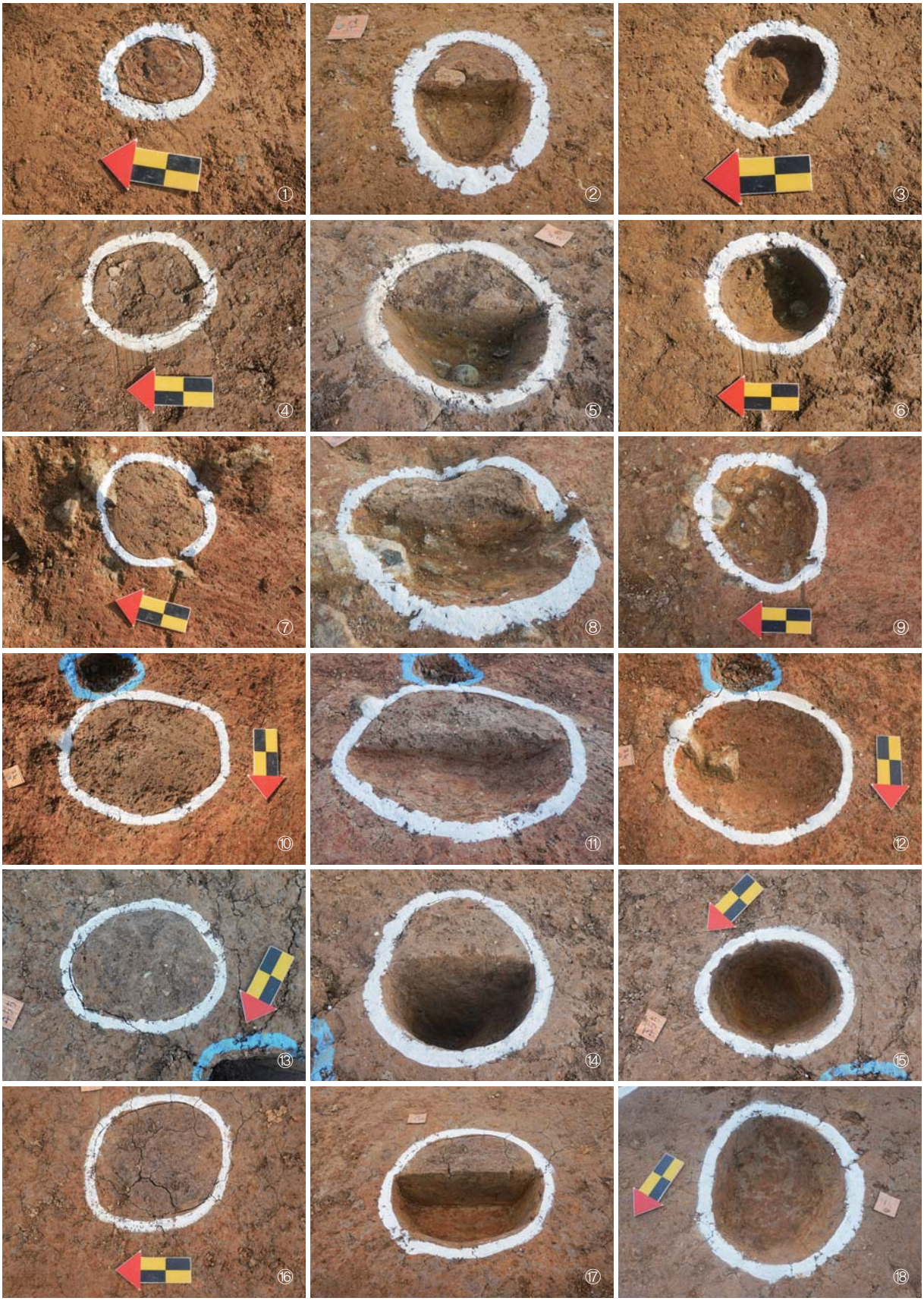
도판 22. 수혈유구 40호 조사후(①W→E), 수혈유구 41호(②조사전(W→E), ③토층, ④⑤내부주혈 토층 및 조사후, ⑥조사후(W→E)), 수혈유구 42호 조사전(⑦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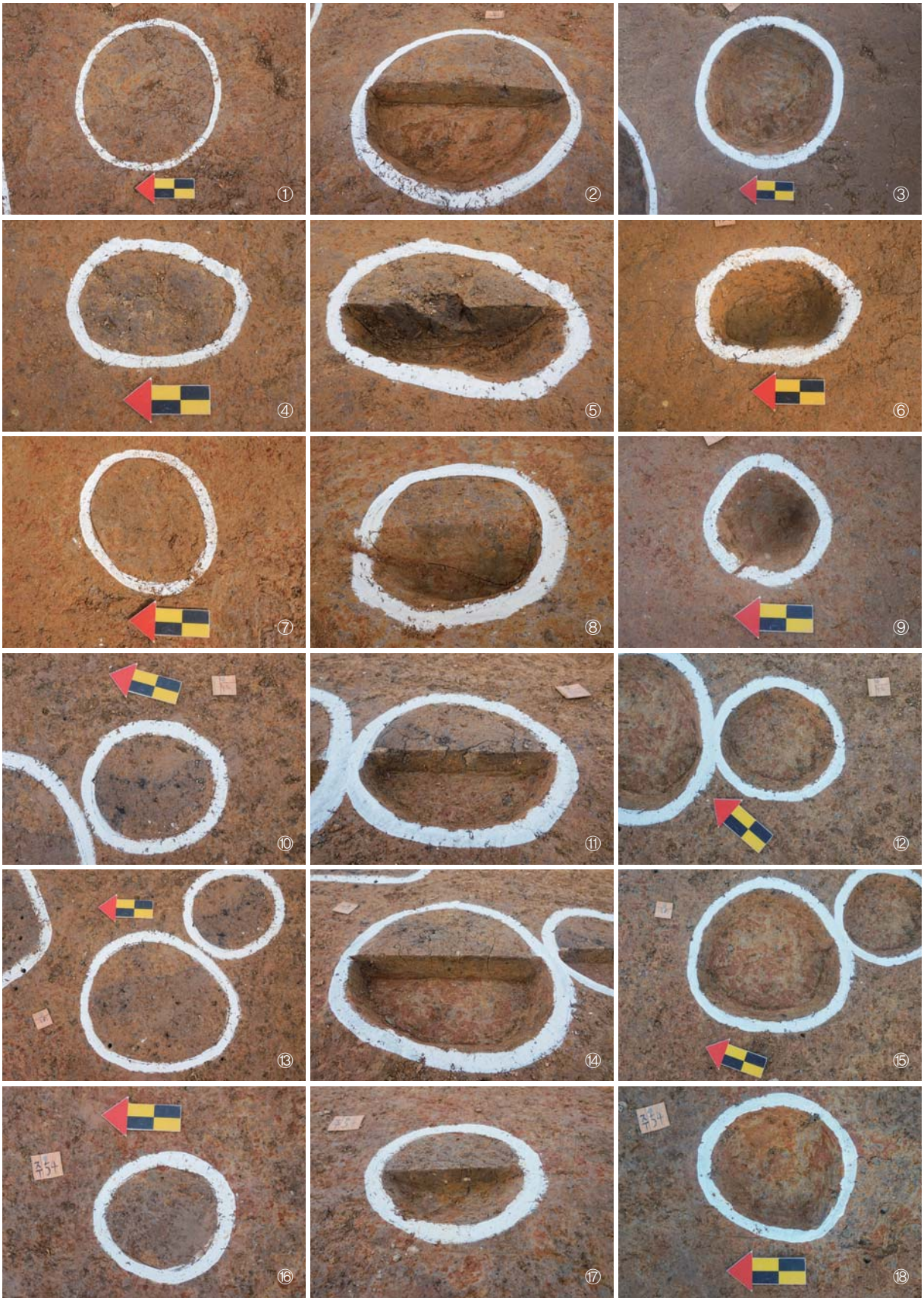
도판 23. 수혈유구 42호(①남-북 토층, ②조사후(N→S)), 구상유구 1호(③조사전(NE→SW), ④⑤토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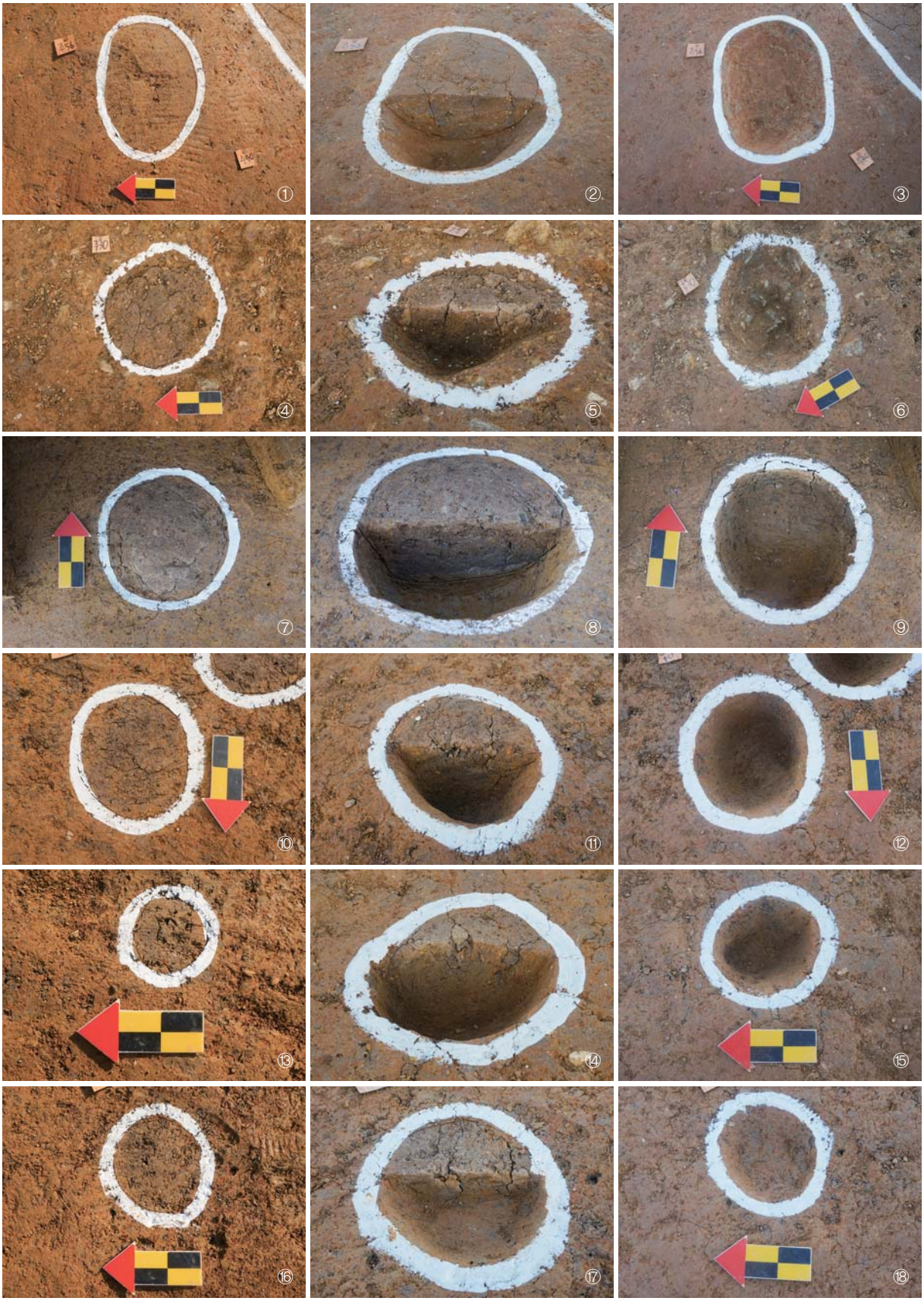
도판 24. 구상유구 1호 조사후(①NE→SW), 구상유구 2호(②조사전(W→E), ③④토층, ⑤조사후(W→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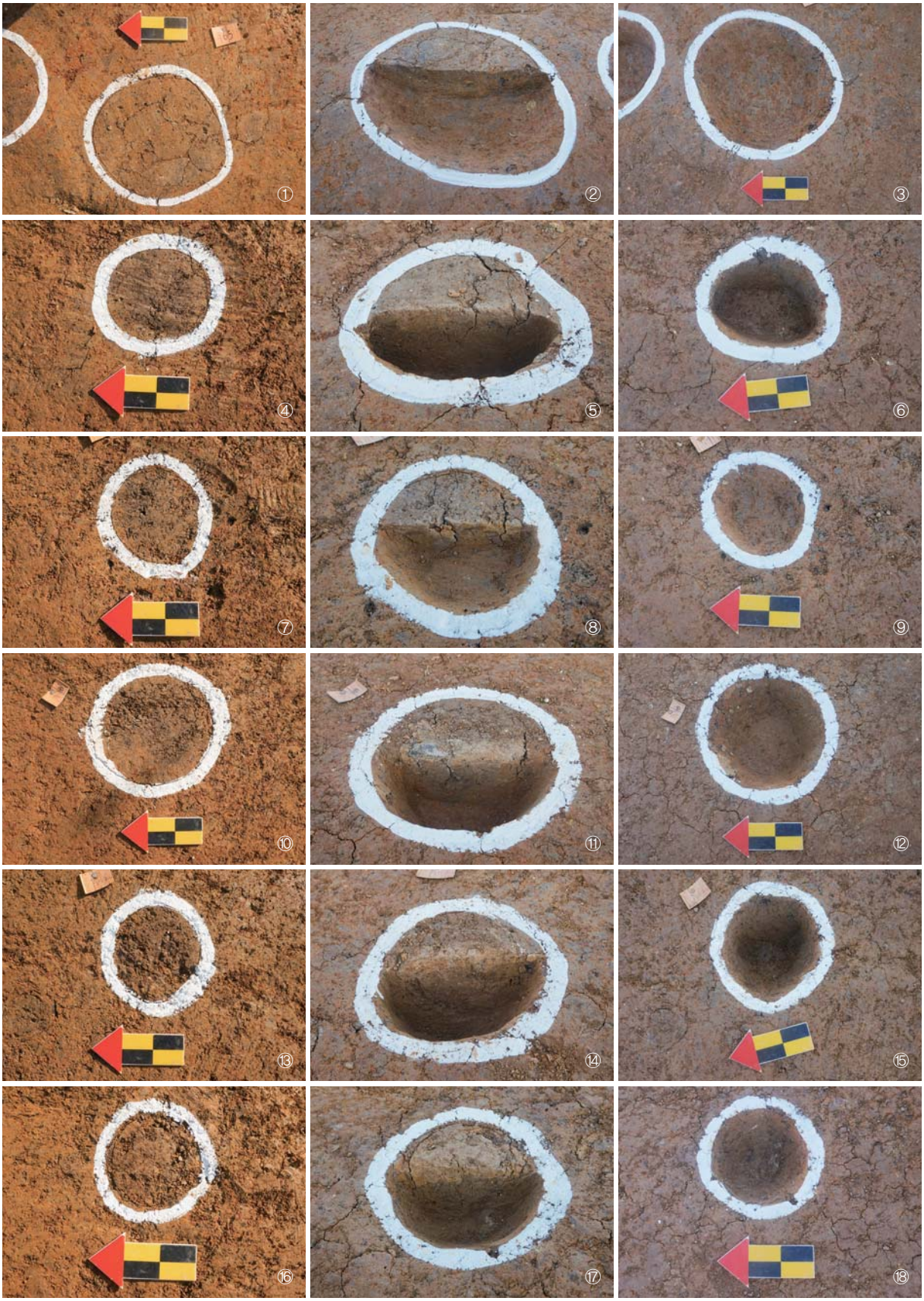
도판 25. 주혈 2(①조사전(W→E), ②토층, ③조사후(W→E)), 주혈 3(④조사전(W→E), ⑤토층, ⑥조사후(W→E)), 주혈 6(⑦조사전(W→E), ⑧토층, ⑨조사후(W→E)), 주혈 8(⑩조사전(N→S), ⑪토층, ⑫조사후(N→S)), 주혈 10(⑬조사전(NW→SE, ⑭토층, ⑮조사후(NW→SE)), 주혈 12(⑯조사전(W→E), ⑰토층, ⑱조사후(NW→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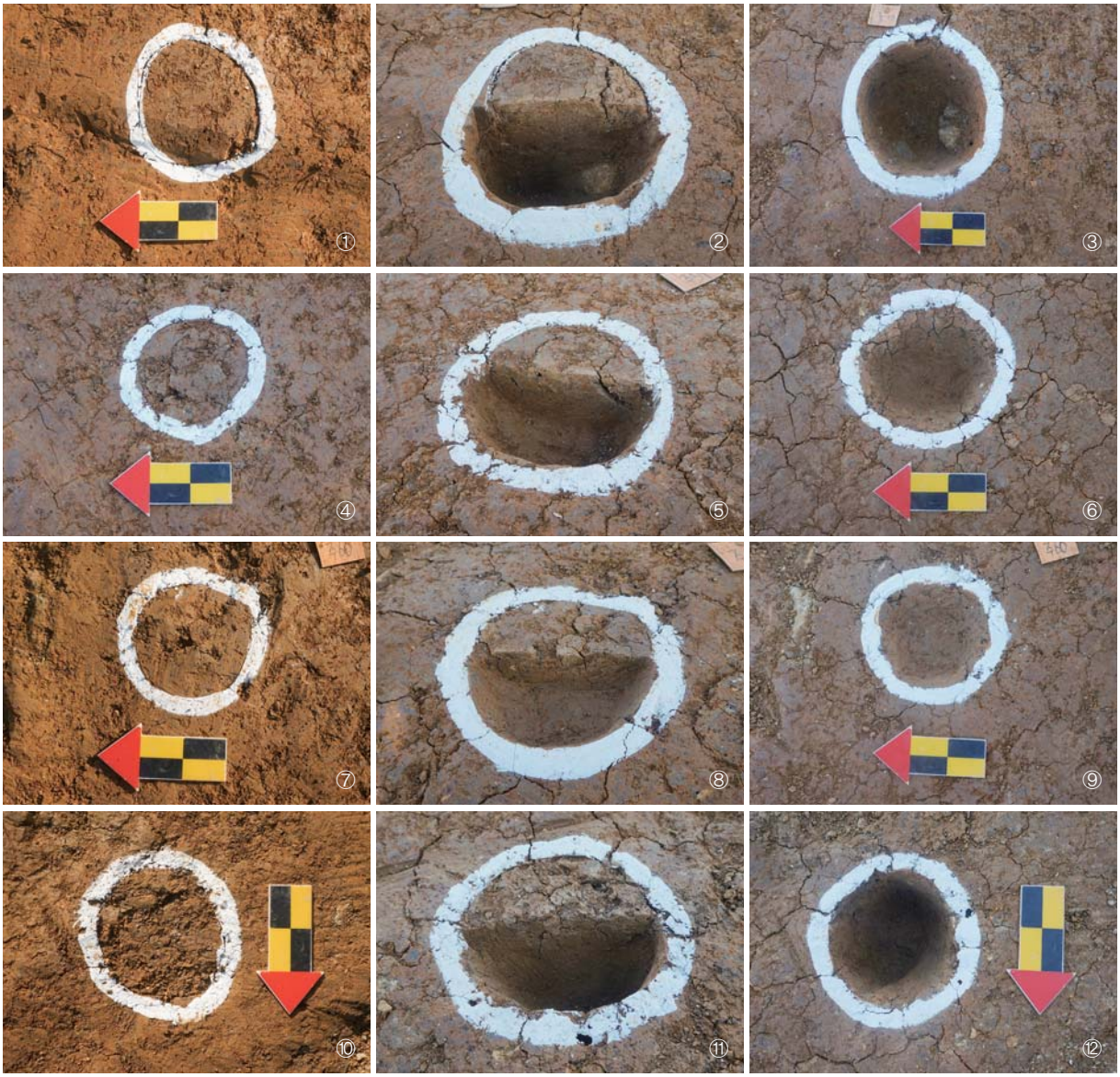
도판 26. 주혈 15(①조사전W→E), ②토층, ③조사후(W→E)), 주혈 17(④조사전(W→E), ⑤토층, ⑥조사후(W→E)), 주혈 21(⑦조사전(W→E), ⑧토층, ⑨조사후(W→E)), 주혈 24(⑩조사전(W→E), ⑪토층, ⑫조사후(SW→NE)), 주혈 25(⑬조사전(W→E), ⑭토층, ⑮조사후(W→E)), 주혈 28(⑯조사전(W→E), ⑰토층, ⑱조사후(W→E))



도판 27. 주혈 29(①조사전(W→E), ②토층, ③조사후(W→E)), 주혈 30(④조사전(W→E), ⑤토층, ⑥조사후(NW→SE)), 주혈 32(⑦조사전(S→N), ⑧토층, ⑨조사후(S→N)), 주혈 34(⑩조사전(N→S), ⑪토층, ⑫조사후(N→S)), 주혈 36(⑬조사전(W→E), ⑭토층, ⑮조사후(W→E)), 주혈 38(⑯조사전(W→E), ⑰토층, ⑱조사후(W→E))



도판 28. 주혈 40(①조사전(W→E), ②토층, ③조사후(W→E)), 주혈 42(④조사전(W→E), ⑤토층, ⑥조사후(W→E)), 주혈 44(⑦조사전(W→E), ⑧토층, ⑨조사후(W→E)), 주혈 46(⑩조사전(W→E), ⑪토층, ⑫조사후(W→E)), 주혈 48(⑬조사전(W→E), ⑭토층, ⑮조사후(W→E)), 주혈 50(⑯조사전(W→E), ⑰토층, ⑱조사후(W→E))







도판 29. 주혈 51(①조사전(W→E), ②토층, ③조사후(W→E)), 주혈 53(④조사전(W→E), ⑤토층, ⑥조사후(W→E)), 주혈 55(⑦조사전(W→E), ⑧토층, ⑨조사후(W→E)), 주혈 56(⑩조사전(N→S), ⑪토층, ⑫조사후(N→S)), 상부 수습유물(6 · 7)

김해 내삼리 794-2번지 유적 유물목록

유물번호	유물명	수량 (점)	출토유구	분류		크기(㎝)			도면번호 도판번호	선별 결과
				재질	시대	기고 (길이)	구경 (폭)	저경 (두께)		
2017-1355-0001	호편	1	수혈유구 13호	토도류	삼국시대	잔존 7.5	0.0	0.0	5-1 8-1	Y
2017-1355-0002	단경호	1	수혈유구 14호	토도류	삼국시대	잔존 22.5	복원 20.2	0.0	6-2 9-2	Y
2017-1355-0003	대호편	1	수혈유구 14호	토도류	삼국시대	잔존 13.5	0.0	0.0	6-3 9-3	Y
2017-1355-0004	완	1	수혈유구 20호	토도류	삼국시대	4.1	11.8	0.0	7-4 12-4	Y
2017-1355-0005	완	1	수혈유구 20호	토도류	삼국시대	4.5	12.0	0.0	7-5 12-5	Y
2017-1355-0006	장동옹 구연부편	1	상부 수습	토도류	삼국시대	잔존 9.4	복원 20.4	0.0	23-6 29-6	Y
2017-1355-0007	완 구연부편	1	상부 수습	토도류	삼국시대	잔존 4.0	복원 16.5	0.0	23-7 29-7	Y

掘調査報告書 抄錄

報告書名	김해 내삼리 794-2번지 유적		發行日	2019年 12月 23日
發行機關	名稱	한국문화재재단		
	住所	(06153)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06		
	TEL	(02)3011-2173	FAX	(02)566-5954
執筆 · 編輯者	박강민, 박무식, 권오재, 한철민, 강성귀, 하혜진			
調査 緣由	농 · 어업시설 신축에 따른 구제조사			
發掘調査者	박종섭, 박무식, 권오재, 한철민, 최재성			
遺蹟調査地番	경상북도 김해시 주촌면 내삼리 794-2번지			
調査面積	982㎡			

遺構種別	時代 및 年代	類型 및 基數	重要遺物	特記事項
수혈유구	삼국시대	42	호편, 단경호편, 대호편, 완	
구상유구		2	-	
주혈		57	-	

掘調査報告書 抄錄

報告書名	춘천 신매리 111-29번지 외 1필지 유적		發行日	2019年 12月 23日
發行機關	名稱	한국문화재재단		
	住所	(06153)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06		
	TEL	(02)3011-2173	FAX	(02)566-5954
執筆 · 編輯者	정훈진 · 최성수 · 정홍선 · 박자연			
調査 緣由	단독주택 신축에 따른 구제조사			
發掘調査者	박종섭 · 정훈진 · 김미현 · 오정영 · 최성수			
遺蹟調査地番	강원도 춘천시 서면 신매리 111-29, 111-25번지			
調査面積	604㎡			

遺構種別	時代 및 年代	類型 및 基數	重要遺物	特記事項
주거지	청동기시대	1동	구연부편 등	
수혈유구	청동기시대	1기	·	
주거지	고려시대	1동	동체부편 등	

147. 강릉 초당동 330번지 유적

한국문화재재단

목 차

Ⅰ. 조사개요 ····· 147- 7

Ⅱ. 유적의 위치와 환경 ····· 147- 9

Ⅲ. 조사내용 ····· 147-22
〈원삼국시대〉 ····· 147-24
1) 주거지 ····· 147-24
〈삼국시대〉 ····· 147-29
1) 석곽묘 ····· 147-29
(1) 석곽묘 1호 ····· 147-29
(2) 석곽묘 2호 ····· 147-34
(3) 석곽묘 3호 ····· 147-37
(4) 석곽묘 4호 ····· 147-49
(5) 석곽묘 5호 ····· 147-52
(6) 석곽묘 6호 ····· 147-56
(7) 석곽묘 7호 ····· 147-63
2) 옹관묘 ····· 147-64
(1) 옹관묘 1호 ····· 147-64
(2) 옹관묘 2호 ····· 147-64
(3) 옹관묘 3호 ····· 147-67
(4) 옹관묘 4호 ····· 147-69

Ⅳ. 조사성과 ····· 147-72

도 면 목 차

도면 1. 조사대상지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1:25,000) …… 147-10
도면 2. 조사대상지 지형도(1:5,000) …… 147-18
도면 3. 조사대상지 지적도(1:1,000)…… 147-21
도면 4. 발굴조사 유구배치도 …… 147-23
도면 5. 원삼국시대 주거지 …… 147-25
도면 6. 원삼국시대 주거지 출토유물1 …… 147-27
도면 7. 원삼국시대 주거지 출토유물2 …… 147-28
도면 8. 삼국시대 석곽묘 1호 …… 147-30
도면 9. 삼국시대 석곽묘 1호 출토유물…… 147-33
도면 10. 삼국시대 석곽묘 2호 …… 147-36
도면 11. 삼국시대 석곽묘 2호 출토유물…… 147-38
도면 12. 삼국시대 석곽묘 3호 …… 147-40
도면 13. 삼국시대 석곽묘 3호 출토유물1 …… 147-42
도면 14. 삼국시대 석곽묘 3호 출토유물2 …… 147-46
도면 15. 삼국시대 석곽묘 3호 출토유물3 …… 147-48
도면 16. 삼국시대 석곽묘 4호 …… 147-50
도면 17. 삼국시대 석곽묘 4호 출토유물 …… 147-51
도면 18. 삼국시대 석곽묘 5호 …… 147-53
도면 19. 삼국시대 석곽묘 5호 출토유물 …… 147-55
도면 20. 삼국시대 석곽묘 6호 …… 147-57
도면 21. 삼국시대 석곽묘 6호 출토유물1 …… 147-60
도면 22. 삼국시대 석곽묘 6호 출토유물2 …… 147-62
도면 23. 삼국시대 석곽묘 7호 …… 147-63
도면 24. 삼국시대 옹관묘 1호 및 출토유물 …… 147-65
도면 25. 삼국시대 옹관묘 2호 및 출토유물 …… 147-66
도면 26. 삼국시대 옹관묘 3호 및 출토유물 …… 147-68
도면 27. 삼국시대 옹관묘 4호 …… 147-69
도면 28. 삼국시대 옹관묘 4호 출토유물 …… 147-70

도 판 목 차

도판 1. 발굴조사 대상지(①조사중, ②조사후) …… 147-79
도판 2. 원삼국시대 주거지(①조사전, ②③조사중, ④조사후)…… 147-80
도판 3. 원삼국시대 주거지 토층(①②동서, ③④남북, ⑤출입구) …… 147-81
도판 4. 원삼국시대 주거지[출입구(①토층), 노지(②조사중, ③토층, ④조사후), ⑤~⑧유물출토상태] …… 147-82
도판 5. 원삼국시대 주거지 출토유물 …… 147-83
도판 6. 삼국시대 석곽묘 1호(①조사전, ②~④조사중)…… 147-84
도판 7. 삼국시대 석곽묘 1호(①조사후, ②남장벽, ③서단벽, ④~⑥토층) …… 147-85
도판 8. 삼국시대 석곽묘 1호 유물출토상태…… 147-86
도판 9. 삼국시대 석곽묘 1호 출토유물…… 147-87
도판 10. 삼국시대 석곽묘 2호(①조사전, ②③조사중, ④조사후)…… 147-88
도판 11. 삼국시대 석곽묘 2호(①북장벽, ②남장벽, ③서단벽, ④토층, ⑤유물출토상태) … 147-89
도판 12. 삼국시대 석곽묘 2호(①~③유물출토상태, 22~26:출토유물) …… 147-90
도판 13. 삼국시대 석곽묘 3호(①조사전, ②③조사중, ④조사후)…… 147-91
도판 14. 삼국시대 석곽묘 3호(①남장벽, ②북장벽, ③동단벽, ④유물출토상태) …… 147-92
도판 15. 삼국시대 석곽묘 3호 유물출토상태 …… 147-93
도판 16. 삼국시대 석곽묘 3호 출토유물1 …… 147-94
도판 17. 삼국시대 석곽묘 3호 출토유물2 …… 147-95
도판 18. 삼국시대 석곽묘 4호(①조사전, ②③조사중, ④조사후)…… 147-96
도판 19. 삼국시대 석곽묘 4호(①북장벽, ②남장벽, ③동단벽, ④서단벽, ⑤⑥유물출토상태, 48 · 49:출토유물) …… 147-97
도판 20. 삼국시대 석곽묘 5호(①조사전, ②③조사중, ④조사후)…… 147-98
도판 21. 삼국시대 석곽묘 5호(①북장벽, ②남장벽, ③서단벽)…… 147-99
도판 22. 삼국시대 석곽묘 5호(①동단벽, ②③유물출토상태, 50~55:출토유물) …… 147-100
도판 23. 삼국시대 석곽묘 6호(①조사전, ②③조사중, ④조사후)…… 147-101
도판 24. 삼국시대 석곽묘 6호(①북장벽, ②남장벽, ③동단벽, ④서단벽, ⑤유물출토상태) …… 147-102
도판 25. 삼국시대 석곽묘 6호 유물출토상태 …… 147-103
도판 26. 삼국시대 석곽묘 6호 출토유물1 …… 147-104
도판 27. 삼국시대 석곽묘 6호 출토유물2 …… 147-105
도판 28. 삼국시대 석곽묘 7호(①②조사중, ③④조사후) 및 옹관묘 1호(⑤조사전, ⑥조사중, ⑦조사후, ⑧토층, 72 · 73:출토유물) …… 147-106

도판 29. 삼국시대 옹관묘 2호(①조사전, ②조사중, ③조사후, ④토층, 74 · 75:출토유물)
및 3호(⑤조사중, ⑥조사후, 76 · 77:출토유물) …… 147-107
도판 30. 삼국시대 옹관묘 4호(①조사전, ②~⑤조사중) …… 147-108
도판 31. 삼국시대 옹관묘 4호(①조사후, ②토층, 78~80:출토유물) …… 147-109

Ⅰ. 조사개요

본 유적은 강원도 강릉시 초당동 330번지로 사업시행자 김경하氏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770㎡)이다. 조사대상지는 강릉 초당동유적(사적 제490호)의 현상변경 허용기준 4구역[1]에 해당하며, 초당동 철기시대 · 신라고분군[2]의 분포범위 내 북서쪽에 치우쳐 위치한다. 조사대상지 북서쪽으로 50m 떨어져 강릉 월성로-허균생가간 도로개설부 내 유적[3]이 있고, 남쪽으로 30m 떨어져서는 초당동 287-14번지 유적[4]이 위치한다.

이에 강릉시에서는 사업시행자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에 대해 공사 이전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4호에 의거하여 입회조사를 실시할 것을 통보하였다.

사업시행자는 2017년 7월 26일 조사대상지에 대한 입회조사[5]를 진행하였다. 입회조사 결과, 트렌치 내 지표하 15㎝에서 삼국(신라)시대 수혈식 석곽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입회조사 대상지(770㎡)에 대해서는 정밀발굴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강릉시에서는 이러한 입회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시행자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할 경우 매장문화재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의 발굴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할 것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하여 국비지원 대상에 해당함을 통보하였다.

강릉시의 조치를 통보받은 사업시행자는 국비를 지원받아 발굴조사를 실시하고자 8월 10일 문화재협업포털을 이용하여 본 재단에 소규모 국비지원 발굴조사를 신청하였다.

이에 본 재단에서는 국비지원 대상여부를 확인한 후 10월 24일 발굴조사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10월 24일 실조사일수 25일에 대한 허가(제2017-1356호)를 받았다. 발굴조사는 11월 7일에 착수하여 12월 6일에 완료하였으며, 실조사일수는 22일이 소요되었다. 발굴조사 결과, 원삼국시대 주거지 1

---

1) [사적 제490호 강릉초당동유적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보존구역		
2구역	○ 심의구역		
3구역	○ 건축물 최고 높이 14m 이하	○ 건축물 최고 높이 18m 이하	
4구역	○ 건축물 최고 높이 17m 이하	○ 건축물 최고 높이 21m 이하	
5구역	○ 건축물 최고 높이 47m 이하	○ 건축물 최고 높이 51m 이하	
6구역	○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준함		
공통사항	○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 · 재축은 허용 ○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은 관계법령에 따라 별도 검토 ○ 지하층 훼손이 수반되는 경작행위 금지(뿌리 깊은 마 경작 등) ○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2) 江陵大學校博物館, 1998, 『文化遺蹟分布地圖 -江陵市-』.

3) 예맥문화재연구원, 2007, 『江陵 草堂洞 遺蹟-월성로~허균 생가간 도로개설 공사구간 발굴조사 보고서-』.

4) 江原文化財硏究所, 2006, 『江陵 草堂洞 遺蹟 Ⅳ』.

5) 입회관 : 고동순(예맥문화재연구원 부원장)

동과 삼국시대 석곽묘 7기 · 옹관묘 4기가 확인되었다. 유물은 원삼국시대 내만구연옹 · 외반구연호 · 지석 · 어망추 등과 삼국시대 (유개)고배 · 대부완 · 호류 · 장란형토기 · 이식 · 뿔모루 · 망치 · 도자 등이 출토되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적의 성격과 처리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학술자문회의[6]를 개최하였다. 회의 결과, 기록 보존 후 공사 시행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발굴조사 당시 조사단 구성은 다음과 같다.

조 사 단 장 : 박 종 섭(조사연구실장)
책임조사원 : 이 창 욱(조사연구2팀 부팀장)
조 사 원 : 허 병 주(조사연구2팀 연구원)
준 조 사 원 : 김 정 민(조사연구2팀 연구원)
최 민 석(조사연구2팀 연구원)
보 조 원 : 박 구 영(조사연구2팀 연구원)

*( )는 조사당시 직명임.

현장에서 작성하고 정리한 유구도면 및 도판은 이건충(조사연구2팀 부팀장) 책임 하에 허병주 · 최민석 · 박구영이 분담하여 작성하였다. 유물정리 및 복원, 실측, 도면 일러스트작업은 정홍선(조사연구2팀 부팀장) 책임 하에 박자연 · 송선숙 · 김형란 · 임희정 · 기여운 · 손지선(이상 조사연구2팀 연구원)이 함께 작성하였다. 도면 및 도판편집은 박자연이 담당하였으며, 유물사진은 이순희(시림 아카이브)가 촬영하였고 금속유물에 대한 보존처리는 윤정현 · 송혜련(조사연구2팀 연구원)이 하였다.

원고는 Ⅰ · Ⅱ장 허병주, Ⅲ장 허병주(조사내용 및 유구) · 박자연(유물), Ⅳ장 허병주가 작성하였고 교정 및 교열은 정훈진(조사연구2팀장)이 하였다.

6) 자문위원 : 지현병(강원고고문화연구원 원장), 홍형우(강릉원주대학교 교수)

Ⅱ. 유적의 위치와 환경

발굴조사 대상지가 위치하는 강릉시는 강원도 동해안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동해, 남쪽으로는 동해시, 서쪽으로는 평창군과 정선군, 북쪽은 양양군과 접하고 있다. 경 · 위도상으로 보면 동경 128° 35′~129° 41′, 북위 37° 27′~37° 54′사이에 위치한다.

강릉은 서편에 평창군과 정선군의 경계를 이루는 태백산맥이 영서와 영동을 나누는 분수계로, 이 분수계를 따라 동대산(1,434m), 노인봉(1,338m), 매봉(1,173m), 화랑봉(1,069m), 석병산(1,055m) 등이 남쪽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처럼 강릉지역의 지세는 태백산맥이 서쪽에 위치한 관계로 서고동저, 남고북저의 지형이 형성되어 있다.

지질은 주문진 및 연곡면 서단에 선캠브리아기의 호상편마암이 분포하고 있으며, 남쪽의 옥계면, 왕산면 일대는 고생대 전기의 조선누층군이 분포하고 있다. 한편 강동면 · 구정면 · 옥계면 · 왕산면 일대는 고생대 후기 평안누층군이 조선누층군을 부정합으로 덮고 있으며, 강릉시 중북부는 중생대의 흑운모화강암이 넓은 지역에 걸쳐 관입되어 있다. 한편 해안에 인접한 하구를 중심으로 신생대 제4기의 충적층이 넓게 분포되어 있다.

강릉지역의 하천은 백두대간 능선을 경계로 동해 사면의 하천과 황해 사면의 하천으로 크게 구분된다. 동해 사면의 북부에는 향호천 · 신리천 · 연곡천 · 구라미천 · 사천 등이 분포하고 있으며, 동해 사면 중부에는 경포천 · 강릉 남대천 · 섬석천 · 시동천 · 군선강 등 동해 사면 남부에는 정동천 · 낙풍천 · 주수천 등이 차례로 분포하고 있다. 한편 황해 사면의 하천들은 서로 만나서 송천과 임계천을 이룬다.

강릉지역의 기후는 태백산맥을 등지고 동해와 접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한랭한 북서계절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푄현상으로 같은 위도의 서해안보다 약 4℃ 정도 높은 기온을 나타내고 있다. 강수량은 다른 지역에 비해 여름은 적고 봄 · 가을 · 겨울은 많은 것이 특징이며, 3계절의 강수량은 영서지방에 비해 2~3배에 이른다.

강릉지역에서 확인된 대부분의 유적들은 1980년대 이후 급속한 개발로 인하여 실시된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되었으며, 주로 해안가 호수나 하천 주변에 형성된 낮은 구릉지나 사구지대에 밀집 분포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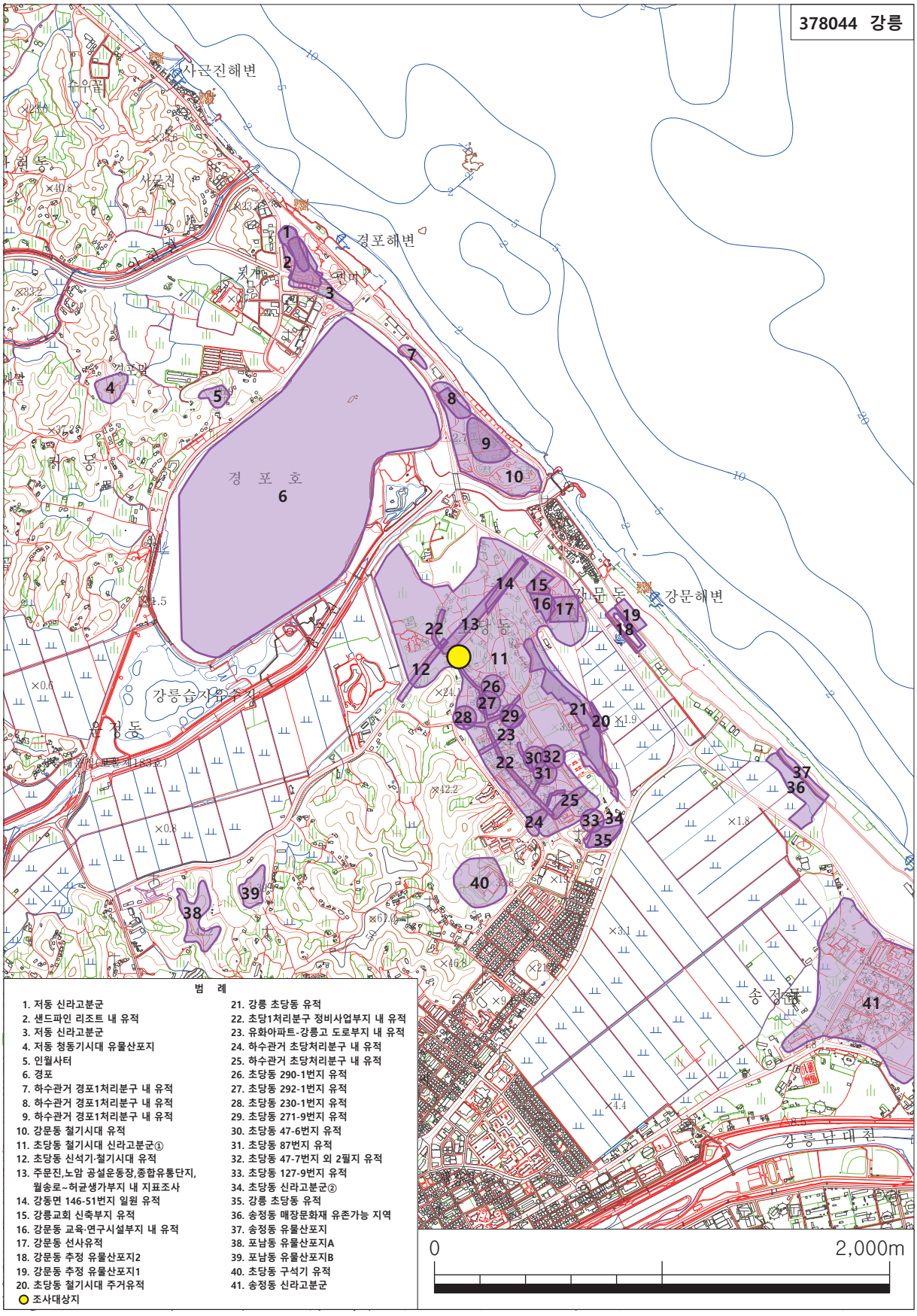
구석기시대 유적은 1980년대에 들어 심곡리유적[7]이 소개되면서 그 존재가 알려지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점차 활발한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초당동[8], 하시동리[9], 담산동[10], 내곡동 ·

---

7) 李鮮馥, 1988,「新發見 舊石器遺蹟 紹介」,『孫寶基博士停年紀念 考古人類學論集』.
이선복, 1989,『동북아시아구석기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서울대학교박물관, 2006,『심곡리 구석기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8) 최승엽 · 홍성학, 2001,「중부동해안 구석기유적의 분포범위 확산을 위한 노력(1)」,『博物館誌』第8號, 江原大學校中央博物館.

9) 최승엽, 2002,「중부동해안 구석기유적의 분포범위 확산을 위한 노력(2)」,『博物館誌』第9號, 江原大學校中央博物館.
예맥문화재연구원, 2011,『江陵 下詩洞里遺蹟 -강릉 하시동 풍호골프장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 시굴조사 보고서-』.



도면 1. 조사대상지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1:25,000)

회산동[11], 홍제동[12], 두산동[13], 안현동[14], 정동진리[15], 남양리[16] · 주수리[17] · 현내리[18] · 천남리[19] · 도직리[20] · 금산리 · 제비리[21], 사천진리[22] 등지에서 유적이 확인되었는데 대부분 해안가를 따라 형성된 단구지형 또는 낮은 구릉지에 입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강릉지역에 다수의 구석기시대 유적이 분포하고 있으나 지표조사에 의하여 발견된 유적이 대부분이고 정식 발굴조사된 유적은 소수에 불과하다. 발굴조사 역시 주택신축부지 등에 한정된 관계로 인하여 각 지점에서 확인되는 구석기시대 유적의 명확한 성격과 분포범위 및 시기는 현재까지 불명확하다고 할 수 있으나 최근 조사된 내곡동유적[23]에서 강릉지역 구석기시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확보되었다. 내곡동유적은 해발 35m 내외의 구릉 평탄면에 위치하며, 3개의 구석기시대 유물층이 확인되었다. 석기의 구성은 몸돌 · 반입 석재 · 격지 등 석기제작 관련 석재 및 부산물이 많은 양을 차지하며, 주먹도끼 · 여러면석기 · 찍개 · 긁개 등의 성형석기가 다수 확인되었는데, 이중 주먹도끼는 5점이 수습되었고, 특히 2 · 3유물층 내에서 여러면석기의 출토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신석기시대 유적은 하천 하구나 호수지역 주변에 형성된 사구지대와 사구지대 주변의 구릉지에서 확인된다. 1915년 강릉토성지[24]에서 처음으로 확인되었고 이후 각종 조사를 통해 지변동[25] · 안현동

---

10) 최승엽, 2002,「중부동해안 구석기유적의 분포범위 확산을 위한 노력(2)」,『博物館誌』第9號, 江原大學校中央博物館.
11) 홍영호 · 김상태, 2000,「동해안지역에서 새로 발견된 구석기유적Ⅱ」,『博物館誌』第7號, 江原大學校博物館.
예맥문화재연구원, 2006,『강릉 회산동 산18번지 근린생활시설부지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예맥문화재연구원, 2012,『江陵 淮山洞遺蹟-강릉 회산동 31-9번지 주택신축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12) 동 지역은 1995년 강릉대학교박물관에 의한 지표조사에서 구석기 및 청동기시대 유적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2006년 예맥문화재연구원의 시굴조사 결과, 갱신세층은 대부분 구릉의 끝단 일부 지역에서만 관찰되며, 소량의 어망추 등이 교란층 내에서 출토되었다. 이미 유적은 대부분 삭평되어 화강암풍화층이 노출된 상태로 구석기 · 청동기시대에 이르는 유구는 확인할 수 없었으며, 근래 민가건물터만 조사되었다.
예맥문화재연구원, 2009,『江陵 洪濟洞 寺址-강릉 과학일반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13) 예맥문화재연구원, 2009,『江陵 斗山洞遺蹟-강릉 두산동 203-2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사업부지내 유적 시굴조사 보고서-』.
14) 예맥문화재연구원, 2011,『江陵 雁峴洞遺蹟-강릉 샌드파인리조트 신축공사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15) 江原文化財硏究所, 2004,「강릉 정동진리 50-89번지 유적 시굴조사 약보고서」.
16) 최승엽, 2002,「중부동해안 구석기유적의 분포범위 확산을 위한 노력(2)」,『博物館誌』第9號, 江原大學校中央博物館.
17) 홍영호 · 김상태, 2000,「동해안지역에서 새로 발견된 구석기유적Ⅱ」,『博物館誌』第7號, 江原大學校博物館.
18) 홍영호 · 김상태, 2000,「동해안지역에서 새로 발견된 구석기유적Ⅱ」,『博物館誌』第7號, 江原大學校博物館.
19) 최승엽 · 홍성학, 2001,「중부동해안 구석기유적의 분포범위 확산을 위한 노력(1)」,『博物館誌』第8號, 江原大學校中央博物館.
20) 최승엽 · 홍성학, 2001,「중부동해안 구석기유적의 분포범위 확산을 위한 노력(1)」,『博物館誌』第8號, 江原大學校中央博物館.
21) 강원고고학연구소, 2006,『원주~강릉 복선전철 건설구간 내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예맥문화재연구원, 2012,『강릉 제비리 236-18번지 일원 체육시설부지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22) 中部考古學硏究所, 2015,『江陵 沙川津里 遺蹟』.
23) 예맥문화재연구원, 2016,『江陵 內谷洞遺蹟-강릉 아이스하키경기장 건립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24) 有光敎一, 1938,「朝鮮 江原道의 先史時代遺蹟」,『考古學雜誌』28-11.
25) 예맥문화재연구원, 2007,『江陵 汕邊洞遺蹟-강릉대학교 주차장 및 도로개설부지 발굴조사 보고서-』.
26) 예맥문화재연구원, 2011,『江陵 雁峴洞遺蹟-강릉 샌드파인리조트 신축공사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26] · 초당동[27] · 하시동리[28] · 방동리 가둔지[29] · 영진리[30] · 안인리[31] · 교동 · 유천동[32] · 금진리[33] · 사천진리[34] 등지에서 많은 유적이 발견되고 있다.

청동기시대 유적은 1938년 아리미쓰 교이치(有光教一)가 당시 강릉중앙소학교(現 강릉초등학교)에 소장 중이던 돌칼, 돌도끼, 반달칼 등을 조사하여 보고한 것[35]이 처음이다. 이후 1963년 강릉시 포남동[36]에서 주거지 1동이 발견되어 학계에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강릉지역 청동기시대 유적은 주거유적과 분묘유적으로 대별되는데 발굴조사된 유적은 주거유적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까지 강릉지역에서 청동기시대 유적의 입지는 바다로 흘러드는 하천 주변의 구릉, 석호 또는 과거 석호였었던 곳의 주변 구릉에 취락이 분포하고 있고 이러한 구릉의 정상부 또는 산기슭에는 지석묘 등 분묘유적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런 주거유적 및 분묘유적의 분포는 여타의 다른 영동지역과 별반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주거유적은 1990년 연곡면 방내리유적[37]이 처음 발굴조사된 후 금진리[38] · 교동[39] · 방동리[40] · 입암동[41] · 방내리[42] · 송림리[43] · 유천동[44] 등지에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유적의 시기는 현재까지의 자료상으로는 전기에서 중기에 이를 것으로 판단되는 공렬토기 단계와 후기의 점토대토기 문화로 나누어진다. 전자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교동, 방내리, 입암동 등지가 있으며, 후자의 유적으로는 방동

---

27) 江原文化財硏究所, 2005,『江陵 草堂洞 遺蹟Ⅰ』.
江原文化財硏究所, 2006,『江陵 草堂洞 新石器 遺蹟』.
江原文化財硏究所, 2006,『江陵 草堂洞 遺蹟Ⅱ』.
江原文化財硏究所, 2007,『江陵 草堂洞 遺蹟Ⅲ』.
예맥문화재연구원, 2007,『江陵 草堂洞 遺蹟Ⅱ-강릉 월송로-허균생가간 도로개설 공사구간 발굴조사 보고서-』.
28) 江原文化財硏究所, 2006,『강릉 하시동 공군관사 부지내 문화유적 시굴조사 보고서』.
29) 任孝宰, 1966,「溟州郡 領津里와 加屯地 櫛文土器遺蹟」,『考古美術』第7卷 第6號, 韓國美術史學會.
江原文化財硏究所, 2007,『江陵 芳洞里 住居址 -강릉 방동리 66-3번지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한강문화재연구원, 2008,「강릉 방동리 가둔지 유적」,『서울 궁동 유적 · 강릉 방동리 가둔지 유적』.
30) 任孝宰, 1966,「溟州郡 領津里와 加屯地 櫛文土器遺蹟」,『考古美術』第7卷 第6號, 韓國美術史學會.
31) 江陵大學校博物館, 1992,「명주군 안인리 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32) 江陵大學校博物館, 1994,『강릉 교동 택지 개발 지구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33) 예맥문화재연구원, 2007,『江陵 草堂洞 遺蹟Ⅰ-강원도교육연수원 주차장시설 예정부지 시굴조사 보고서-』.
34) 中部考古學硏究所, 2015,『江陵 沙川津里 遺蹟』.
35) 有光教一, 1938,「朝鮮江原道の先史時代遺蹟」,『考古學雜誌』28-11.
36) 李蘭映, 1964,「江陵市 浦南洞 出土 先史時代 遺物」,『歷史學報』第二十三輯.
37) 江陵大學校博物館, 1996,『江陵 坊內里 住居址』.
38) 韓國文化財財團, 2015,「1. 강릉 금진리 458, 458-1번지 유적」,『2013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Ⅲ-강원-』.
39) 江陵大學校博物館, 2002,『江陵 校洞 住居址』.
40) 江原文化財硏究所, 2007,『江陵 芳洞里遺蹟 -강릉 과학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지역-』.
41) 江原文化財硏究所, 2007,「강릉 입암동유적 -강릉 입암동 671-3번지 외 3필지 아파트 신축부지 내 유적-」,『江陵地域 文化遺蹟 試 · 發掘調査 報告書Ⅱ』.
42) 江原文化財硏究所, 2010,「강릉 방내리 가축위생처리장 신축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江陵地域 文化遺蹟 發掘調査 報告書』.
43) 한림대학교박물관, 2003,『동해고속도로 확장 · 신설구간(송림리)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江原文化財硏究所, 2007,「강릉 송림리유적 -강릉 송림리 버섯재배사 및 진입도로 부지 내 유적-」,『江陵地域 文化遺蹟 試 · 發掘調査 報告書Ⅱ』.

리, 송림리, 유천동, 입암동유적 등이 해당된다. 특히 방동리에서는 환호와 더불어 다수의 원형점토대토기 주거지가 조사되어 기존에 제시되었던 원형점토대토기인들이 이동성이 강하다는 일반적인 견해와는 달리 점토대토기인들이 장기간 정주생활을 위한 비교적 대규모의 취락을 형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지표조사를 통해 주문진읍 향호리 · 장덕리 · 교항리, 연곡면 송림리 · 방내리 · 동덕리, 사천면 석교리 · 미노리 · 덕실리 · 방동리 · 산대월리, 안현동, 저동, 난곡동, 유천동, 교동, 홍제동, 내곡동, 노암동, 장현동, 강동면 하시동리 · 모전리, 옥계면 현내리 등지에서 유물산포지가 확인되었고 송림리 · 미노리 · 방동리 · 안현동 · 저동 · 난곡동 · 교동 · 장현동 · 입암동 · 하시동리 · 천남리 등지에서 지석묘가 확인되었다[45].

철기시대 유적은 안인리유적[46]이 처음 발굴조사된 이래 강문동[47] · 교항리[48] · 병산동[49] · 초당동[50] · 방동리[51] · 금진리[52] 등지에서 활발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대부분 여(呂)자

---

44) 江原考古文化硏究院, 2010,『江陵 鍮川洞 遺蹟 -강릉 유천 국민임대주택단지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45) 池賢柄, 1991,「地表調査內容」,『江原嶺東地方의 先史文化硏究』, 江陵大學校博物館.
辛虎雄 · 李相洙, 1994,「溟州郡의 考古遺蹟」,『溟州郡의 歷史와 文化遺蹟』, 關東大學校博物館.
백홍기 · 지현병 · 고동순, 1995,「江陵市의 先史考古遺蹟」,『江陵의 歷史와 文化遺蹟』, 江陵大學校博物館.
江陵大學校博物館, 1998,『文化遺蹟 分布地圖 -江陵市-』.

46) 江陵大學校博物館, 1992,「명주군 안인리 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47) 江陵大學校博物館, 1997,「江陵 江門洞 住居址」,『江陵 冬德里 住居址』.
江原文化財硏究所, 2004,『江陵 江門洞 鐵器 · 新羅時代 住居址』.
예맥문화재연구원, 2008,『江陵 江門洞 遺蹟 Ⅰ-강릉 강문동 138-1번지 공장신축부지내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江原考古文化硏究院, 2011,『江陵 江門洞聚落 -강릉 강문동 교육 및 연구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예맥문화재연구원, 2010,『江陵 江門洞 遺蹟Ⅱ-강릉 강문동 126-1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48) 江陵大學校博物館, 1998,『江陵 僑項里 住居址』.
예맥문화재연구원, 2008,「강릉 교항리 29-14번지 유적 발굴조사보고서」,『東海 望祥洞遺蹟 Ⅰ』.

49) 江原文化財硏究所, 2006,『江陵 柄山洞 住居址 -강릉 병산동 320-3번지 내 유적』.
江原考古文化硏究院, 2010,『江陵 柄山洞 聚落 -강릉 병산동 320-13번지 근린생활시설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江陵大學校博物館, 2012,『江陵 柄山洞遺蹟 -강릉 병산동 공항대교 접속도로 건설부지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50) 江原文化財硏究所, 2005,『江陵 草堂洞 遺蹟 Ⅰ』.
江原文化財硏究所, 2005,「강릉고등학교 화장실 증축공사부지내 文化遺蹟 試掘調査 報告書」,『江陵地域 文化遺蹟 試掘調査報告書』.
江原文化財硏究所, 2005,「강릉 초당동 308-12번지 주택신축부지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江陵地域 文化遺蹟 試發掘調査報告書』.
江原文化財硏究所, 2008,『江陵 草堂洞遺蹟Ⅳ-강릉 유화아파트-강릉고등학교간 도로개설부지 발굴조사 보고서』.
예맥문화재연구원, 2007,『江陵 草堂洞遺蹟 Ⅰ-강원도교육연수원 주차장시설 예정부지 문화재 시굴조사보고서』.
예맥문화재연구원, 2008,『江陵 草堂洞遺蹟Ⅲ-강릉 초당동 272-7번지 주택부지내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江原考古文化硏究院, 2010,『江陵 草堂洞 古墳群 -강릉 초당동 300-12번지 유적-』.
예맥문화재연구원, 2017,「강릉 초당동(307-1번지 일원) 근린생활시설부지내 유적 정밀발굴조사 약식보고서」.
예맥문화재연구원, 2017,「강릉 초당동 (248-2번지) 단독주택신축부지내 유적 정밀발굴조사(국비지원) 약식보고서」.

51) 江原文化財硏究所, 2007,『江陵 芳洞里 住居址 -강릉 방동리 66-3번지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52) 예맥문화재연구원, 2008,『江陵 金津里遺蹟 Ⅰ-강릉 금진리 467번지 소규모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예맥문화재연구원, 2008,『江陵 金津里遺蹟Ⅱ-강릉 한국여성수련원 건립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내지는 철(凸)자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경질무문토기를 비롯하여 4세기대로 편년될 수 있는 타날문토기 등이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철기시대에서 삼국시대 초반에 이르는 오랜 기간동안 강릉지역 주거지의 평면형태로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강문동 저습지유적[53]에서는 제사유구로 추정되는 유구와 함께 경질무문토기, 각종 패각류, 동물뼈, 옥, 씨앗류, 복골, 목제그릇 등이 출토되어 당시의 생활상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강릉고등학교 화장실 증축공사부지내 유적(초당동유적)[54]에서는 주거지 내에서 오수전이 출토되어 당시 교역의 한 단면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철기시대 유적의 입지조건은 모두 석호 또는 하천의 하구에 형성된 사구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강릉지역은 삼국의 세력이 미치기 전에 예(濊)의 고국(古國)이었으며[55], 한나라 무제(武帝) 원봉(元封) 2年 장수를 보내어 우거(右渠)를 치고 사군(四郡)을 정할 때에 임둔(臨屯)이라 하였다[56]는 기록이 남아 있다. 예국이 어떠한 성격의 정치·사회집단인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강릉지역에서 예국의 유적으로 판단되는 고고학적 자료가 최근에 활발하게 발굴조사되어 단편적으로나마 이 시기의 사회복원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삼국시대 유적은 일제강점기에 하시동고분이 처음으로 조사된 이후 1990년대부터 본격적인 개발과 더불어 활발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삼국시대 유적은 주거유적과 분묘유적이 함께 확인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주거유적은 영진리[57]·강문동[58]·초당동[59]·송정동[60]·병산동[61]·안현동[62]에서 조사되었고 분묘유적은 주문리[63]·영진리[64]·방내리[65]·강문동[66]·초당동[67]·병산동[68]·입암동[69]·홍제동[70]·

---

53) 江陵大學校博物館, 2012,『江陵 江門洞 低濕地遺蹟 -강릉 강문동 134번지 교회신축부지 발굴조사 보고서-』.

54) 江原文化財硏究所, 2005,「강릉고등학교 화장실 증축공사부지내 文化遺蹟 試掘調査 報告書」,『江陵地域 文化遺蹟 試掘調査報告書』.

55)『三國史記』卷第三十五, 雜志 第四 地理二 溟州條.'溟州…(중략)…賈耽古今郡國志云今新羅北界溟州蓋濊之古國'.

56)『世宗實錄』卷第一百五十三, 地理誌 江陵大都護府條. '本濊之古國〈惑稱鐵國惑稱藥國〉漢武帝元封二年遣將討右渠定四郡時爲臨屯高句麗稱河西良〈一作何瑟羅〉.

57) 江原文化財硏究所, 2005,「강릉시 영진리 아파트 신축부지 내 문화유적 시굴조사 보고서」,『江陵地域 文化遺蹟 試掘調査報告書』.

58) 江原文化財硏究所, 2004,『江陵 江門洞 鐵器·新羅時代 住居址』.

59) 예맥문화재연구원, 2007,『江陵 草堂洞遺蹟Ⅱ-월송로~허균생가간 도로개설 공사구간 발굴조사 보고서-』.
韓國文化財財團, 2015,「1. 강릉 초당동 230-1번지 유적」,『2012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Ⅱ-강원2-』.
예맥문화재연구원, 2017,「강릉 초당동(307-1번지 일원) 근린생활시설부지 내 유적 정밀발굴조사 약식보고서」.

60) 江原文化財硏究所, 2005,「강릉 송정동 주차장 조성부지내 文化遺蹟 試掘調査 報告書」,『江陵地域 文化遺蹟 試發掘調査 報告書』.
예맥문화재연구원, 2008,「강릉 송정동 245-2번지 주택신축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江陵 金津里遺蹟Ⅰ』.

61) 江陵大學校博物館, 2012,『江陵 柄山洞遺蹟 -강릉 병산동 공항대교 접속도로 건설부지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江陵大學校博物館, 2006,『江陵 柄山洞 住居址 -강릉 병산동 320-3번지내 유적-』.
江原考古文化硏究院, 2010,『江陵 柄山洞 聚落 -강릉 병산동 320-13번지 근린생활시설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62) 예맥문화재연구원, 2011,『江陵 雁峴洞遺蹟 -강릉 샌드파인리조트 신축공사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63) 江陵大學校博物館, 1997,「강릉시 주문진 주문리 419번지 조금자氏 주택신축부지내 문화유적 긴급수습조사 약보고서」.

64) 江原文化財硏究所, 2005,「강릉시 영진리 아파트 신축부지 내 문화유적 시굴조사 보고서」,『江陵地域 文化遺蹟 試掘調査報告書』.

금산리[71] · 하시동[72] · 주수리[73] · 안현동[74] 등지에서 조사되었다.

강릉지역에서 삼국시대 유적의 입지조건은 대부분 사구지대와 구릉지대에 위치하고 있는데, 사구지대에는 고분군과 생활유적이, 구릉지대에는 고분군이 분포되어 있음을 수차례의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었다. 특히 안현동유적에서는 영동지역에서 단위유적으로는 가장 많은 수의 목곽묘가 조사되었으며, 출토유물로 볼 때 영동지역에서 조사된 삼국시대 분묘유구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축조된 것으로 판단된다. 안현동유적의 분묘는 5세기 전반에서 6세기 전반에 걸쳐 조영된 것으로 판단되며, 목곽묘와 석곽묘 축조의 시기적인 차이와 병행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초당동유적과 더불어 영동지역 신라고분의 유입양상 및 묘제의 변천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江陵大學校博物館, 2007,『江陵 金津里 古墳群 -江陵-襄陽間 7番國道 擴張工事區間內 · 金津里注油所新築敷地發掘調査 報告書』

65) 江陵大學校博物館, 1996,『江陵 坊內里 住居址』.
江陵大學校博物館, 2007,『江陵 金津里 古墳群 -江陵-襄陽間 7番國道 擴張工事區間內 · 金津里注油所新築敷地發掘調査 報告書』.

66) 江原文化財硏究所, 2007,「강릉 강문동 124-2번지 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江陵 芳洞里 住居址』.

67) 江金秉模, 1971,「江陵 草堂洞 第1號古墳」,『文化財』第5號, 文化財管理局.
白弘基, 1975,「江陵 草堂洞 古墳群에 대하여」,『江陵敎育大學 論文集』第7輯.
池賢柄 · 朴榮九, 1996,「草堂洞 C地區 古墳 緊急 收拾調査 報告」,『江陵 文化遺蹟 發掘調査 報告書』, 江陵大學校博物館.
江原文化財硏究所, 2005,『江陵 草堂洞 遺蹟Ⅰ』.
江原文化財硏究所, 2006,『江陵 草堂洞遺蹟Ⅱ』.
江原文化財硏究所, 2007,『江陵 草堂洞遺蹟Ⅲ』.
江原文化財硏究所, 2008,『江陵 草堂洞遺蹟Ⅳ』.
江原文化財硏究所, 2008,『江陵 草堂洞遺蹟Ⅴ』.
예맥문화재연구원, 2008,『江陵 草堂洞遺蹟Ⅲ -강릉 초당동 272-7번지 주택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예맥문화재연구원, 2008,『江陵 草堂洞遺蹟Ⅳ -강릉 초당동 123-1번지 주택신축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江原考古文化硏究院, 2010,『江陵 草堂洞 古墳群 -강릉 초당동 300-12번지 유적-』.
江陵大學校博物館, 2007,『江陵 草堂洞 古墳群 -江陵 草堂洞 129-5番地 現代아파트 新築敷地 內 發掘調査 報告書』.
韓國文化財財團, 2015,「강릉 초당동 47-6, 47-7, 87번지 유적」,『2012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Ⅱ』.
韓國文化財財團, 2015,「강릉 초당동 290-1번지 유적」,『2012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Ⅱ』.
江原考古文化硏究院, 2015,「강릉 초당동 246-5번지 외 2필지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江陵 沙器幕里古墳』.
예맥문화재연구원, 2017,「강릉 초당동 316번지 단독주택신축부지 내 유적 정밀발굴조사(국비지원) 약식보고서」.
예맥문화재연구원, 2017,「강릉 초당동 (248-2번지) 단독주택신축부지 내 유적 정밀발굴조사(국비지원) 약식보고서」.

68) 江陵大學校博物館, 2012,『江陵 柄山洞遺蹟 -강릉 병산동 공항대교 접속도로 건설부지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江原文化財硏究所, 2003,『柄山洞 古墳群 -강릉 청량-안목간 도로개설공사구역내 유적-』.
江原文化財硏究所, 2007,『江陵 柄山洞 古墳群Ⅱ』.
江陵大學校博物館, 2012,『江陵 柄山洞遺蹟 -강릉 병산동 공항대교 접속도로 건설부지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69) 江原文化財硏究所, 2007,「강릉 입암동 유적」,『江陵地域 文化遺蹟 試 · 發掘調査 報告書Ⅱ』.

70) 예맥문화재연구원, 2009,『江陵 洪濟洞 寺址 -강릉 과학일반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71) 관동대학교박물관, 2008,『江陵 金山里 · 渭村里 · 普光里 遺蹟』.

72) 金正基 · 李鍾哲, 1971,「溟州郡下詩洞古墳調査報告」,『考古美術』110, 韓國美術史學會.
江原文化財硏究所, 2003,『江陵 下詩洞 古墳群 地表調査 報告書』.

73) 江原文化財硏究所, 2005,「강릉시 옥계면 주수리 고분군」,『동해 기곡유적』.

74) 예맥문화재연구원, 2011,『江陵 雁峴洞遺蹟 -강릉 샌드파인리조트 신축공사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이와 더불어 최근 강문동[75]에서 경포호와 바다가 연결되는 지점의 해발 8~26m 사이 구릉지(죽도봉)에 기저부 너비가 약 42m, 외측 기저부에서 내측 성벽 상단까지의 높이가 7~17m에 이르는 판축성벽을 축조한 신라 토성이 조사되었다. 축조 시기는 5세기 말~6세기 초로 추정되며, 성의 규모로 볼 때 대규모 토목공사를 수반한 신라 최대급 토성으로 주변의 강문동 · 초당동 · 안현동 일대의 신라 생활유적 및 분묘유적의 조영 시기와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어 영동지역 고대사연구와 신라 토성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확보된 바 있다.

한편 강릉의 중심지역에서 확인되는 주거지와 고분군에서 출토되는 신라토기는 영남지역의 분묘에서 재지적인 양상의 신라토기가 출토되는 것과는 달리 직접적으로 유입된 경주산(계)에 해당된다. 또한 재지적인 성격을 나타내고 있는 토기의 경우에도 많은 수가 나타나지 않고 경주산(계)으로 볼 수 있는 토기와 더불어 1~2점 정도 아주 드물게 분묘에서 출토되는 양상을 통해서 볼 때 강릉지역에서 신라토기를 직접적으로 제작하였을 가능성은 크게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초당동고분군에서는 경주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금동관 · 금동제 호접형관식 · 조익형 은제관식 · 금제이식 · 금동제 대금구 · 환두대도 등 위세품이 많이 출토되어 이곳이 경주에서 많이 떨어진 곳이지만 신라의 북방진출과 관련하여 신라 중앙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끌었던 사실을 반영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관방유적으로 성지는 예국고성 · 강릉읍성[76] · 명주성[77] · 우계산성 · 방내리성(교허성) · 대공산성(보현산성) · 제왕산성 · 칠봉산성 · 금강산성(아미산성) · 삼한산성 · 괘방산성 · 고려성[78] · 왕현성 · 장안성 · 석교리성 · 향호리성 · 영진리토성 등이, 봉수지는 향호리 · 안인진리 · 심곡리 · 월대산 · 포남동 등지에 남아있는데[79] 이중 강릉읍성의 일부만 발굴조사되었다.

불교유적으로 굴산사지(사적 제448호)[80]와 보현사[81] · 신복사지[82] · 안국사지[83] · 보광리 무일동사지[84] 등이 발굴조사되었으며, 이중 굴산사는 9산선문의 하나인 도굴산문(闍崛山門)의 본산으로 신라 문성왕 13년(851) 범일국사(梵日國師)가 이미 창건되어 있던 굴산사에서 산문을 개산하고 영동지역의 중심적인 사찰이었다.

---

75) 국강고고학연구소, 2015,『강릉 강문동 신라토성』.

76) 江原文化財硏究所, 2006,『강릉 성내동 11-1번지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江原文化財硏究所, 2006,『江陵邑城』.

77) 관동대학교박물관, 2009,『江陵 溟州山城 -地表調査 報告書-』.

78) 江陵大學校博物館, 1998,『江陵 正東津 高麗城址 地表調査 報告書』.

79) 신호웅 · 이상수, 1994,「溟州郡의 關防遺蹟 · 陶窯址」,『溟州郡의 歷史와 文化遺蹟』, 關東大學校博物館.
지현병 · 고동순 · 김흥술, 1995,「江陵市의 關防遺蹟 및 其他」,『江陵의 歷史와 文化遺蹟』, 江陵大學校博物館.
金興術, 1999,「江陵地域의 城郭硏究」, 關東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 請求論文.

80) 白弘基, 1984,「溟州 崛山寺址 發掘調査 略報告書」,『考古美術』161, 韓國美術史學會.
江陵大學校博物館, 1999,『屈山寺址 浮屠 學術調査報告書』.
江原文化財硏究所, 2006,『江陵 屈山寺址 發掘調査 報告書』.

81) 江原文化財硏究所, 2007,『江陵 普賢寺 - 江陵 普賢寺 食堂禪院 新築敷地內 遺蹟』.

82) 江陵大學校博物館, 1996,「神福寺址 試掘調査 報告」,『江陵 文化遺蹟 發掘調査 報告書(試掘 및 緊急 收拾調査)』.
江原文化財硏究所, 2007,『江陵 神福寺址』.

83) 關東大學校博物館, 2010,『江陵 觀音里寺址 -시굴조사 보고서-』.

84) 關東大學校博物館, 2008,『江陵 金山里 · 渭村里 · 普光里 遺蹟』.

이외의 유적으로는 강릉관아지[85]가 발굴조사되었고 보광리 · 남양리 · 사기막리에는 도요지가 남아 있다[86].

삼국시대에 들어와서 강릉지역은 먼저 고구려의 남진세력권에 포함되어 하서랑(何西浪) 또는 하슬라(何瑟羅)로 불리었으나[87] 점차 신라가 영토를 확장함에 따라 이 지역에서 빈번하게 국경충돌사건이 발생하였다. 삼국사기에 다음과 같은 관계기사가 보이고 있다. 4세기 말엽인 내물왕 40년(395)에 말갈이 북쪽 변방에 침입하여 실직벌판에서 크게 패하였고[88] 2년 후인 내물왕 42년(397)에는 하슬라에 가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려 근로와 납세를 면제해 주었으며[89], 5세기 중엽인 눌지왕 34년(450)에 고구려 변장이 실직 벌판에서 사냥하는 것을 하슬라 성주 삼직이 살해하였다[90]는 기록이 보인다.

이후 자비왕 11년(468)에는 고구려와 말갈이 연합하여 실직성을 습격하여 공취하여 이에 신라는 하슬라인을 징발하여 니하성(泥河城)을 축조하였으며[91], 소지왕 3년(481)에는 고구려가 북변을 침입하므로 이에 신라는 백제, 가야와 연합하여 니하(泥河) 서쪽에서 고구려군 천여 명의 목을 참수하였다[92]는 기록이 있다. 이로 미루어 보아 5세기 무렵의 강릉지역은 신라와 고구려의 끊임없는 국경분쟁이 일어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6세기에 들어서 신라는 직접 지방관을 파견하여 영동지역을 통치하였는데 지증왕 6년(505)에는 신라의 지방제도 정비에 따라 삼척에 실직주(悉直州)가 설치되고 이사부를 군주로 삼고 있으며, 실직주 설치 7년 후인 지증왕 13년(512)에 이찬 이사부로 하여금 하슬라주의 군주로 삼았다[93]. 따라서 적어도 하슬라는 지증왕 이전에 신라에 완전히 복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역사적 사건과 관계된 것으로 보이는 고고학적 자료가 최근 영진리 · 병산동 · 초당동 · 안현동 고분군에서 조사되었으며, 특히 초당동과 안현동 고분군에서는 5세기 전반에 해당되는 유물과 금동관, 금동제 호접형 관식, 조익형 은제관식 등이 출토되어 위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또한 최근 강문

---

85) 池賢柄 · 洪淳旭, 1996,「臨瀛館址 試掘調査 報告」,『江陵地域 文化遺蹟 試掘調査 報告書』, 강릉대학교박물관.
江原文化財硏究所, 2005,『江陵 官衙址:부록-강릉 객사문 발굴조사 보고서』.
江原文化財硏究所, 2005,『江陵 官衙址』.
江原文化財硏究所, 2008,『江陵 臨瀛館址 -강릉 임영관지 주변지역 발굴조사 보고서』.
江原考古文化硏究院, 2012,『江陵 臨瀛館址 -강릉 임영관지(사적 제388호) 주변 의운루 건립부지 내 유적-』.

86) 신호웅 · 이상수, 1994,「溟州郡의 關防遺蹟 · 陶窯址」,『溟州郡의 歷史와 文化遺蹟』, 關東大學校博物館.
江陵大學校博物館, 1998,『文化遺蹟分布地圖 -江陵市-』.

87)『三國史記』卷第三十五, 雜志 第四 地理二 溟州條.'溟州本高句麗河西良〈一作何瑟羅〉後屬新羅'.

88)『三國史記』卷第三, 新羅本紀 第三 奈勿尼師今 四十年條. '秋八月 靺鞨侵北邊 出師 大敗之於悉直之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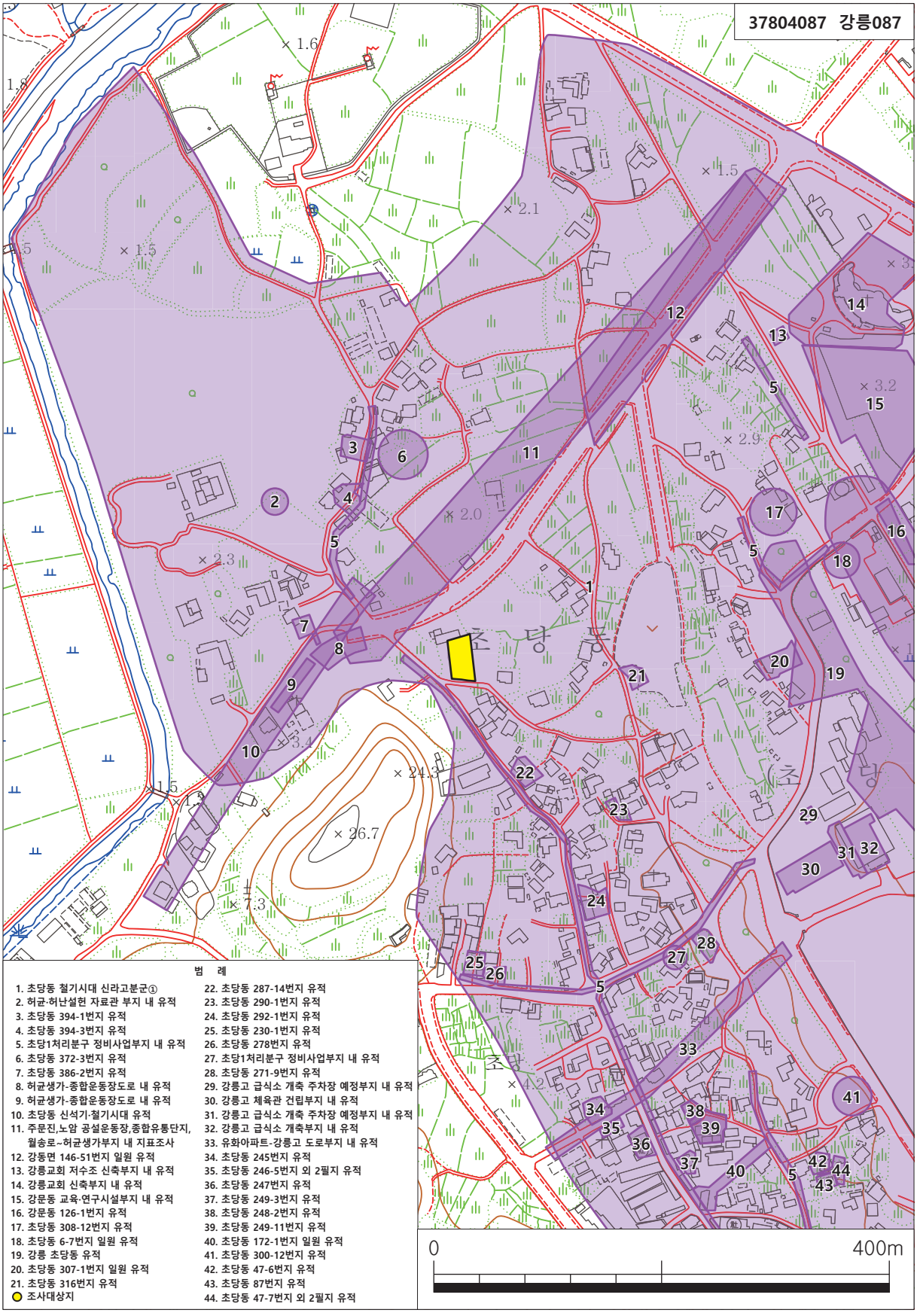
89)『三國史記』卷第三, 新羅本紀 第三 奈勿泥師今 四十二年條. '秋七月 北邊何瑟羅靺鞨 旱蝗年民飢 曲赦囚徒 復一年租調'.

90)『三國史記』卷第三, 新羅本紀 第三 訥紙麻立干三十四年條.'秋七月 高句麗邊將獵悉直之原 河瑟羅城主三直出兵 掩殺之 麗王聞之怒 使來告曰 孤與大王修好至歡也 今出兵殺我邊將 是何義耶 乃與師侵我西邊 王卑辭謝之乃歸'.

91)『三國史記』卷第三, 新羅本紀 第三 慈悲麻立干 十一年條. '春高句麗與靺鞨襲北邊悉直城 秋九月 徵河瑟羅人年十五已上 築城於泥河'.

92)『三國史記』卷第三, 新羅本紀 第三 昭知麻立干 三年條. '三月 高句麗與靺鞨入北邊 取狐鳴等七城 又進軍於彌秩夫 我軍與百濟加耶援兵 分道禦之 賊敗退 追擊破之泥河西 斬首千餘級'.

93)『三國史記』卷第四, 新羅本紀 第四 智證麻立干 十三年條. '夏六月 于山國歸服 歲以土宜爲貢 于山國在溟州正東海島或名鬱陵島 地方一百里 恃不服 伊飡異斯夫爲何瑟羅州軍主 謂于山人愚悍 難以威來 可以計服 乃多造木偶師子 分載戰船 抵其國海岸 告曰 汝若不服 則放此猛獸踏殺之 國人恐懼 則降'.



도면 2. 조사대상지 지형도(1:5,000)

동[94]에서 신라 최대급 토성이 조사되면서 성 내 수혈유구, 집수시설, 작업공간 등과 5세기 말에서 6세기 전반에 해당되는 신라 유물이 다량으로 출토되어 삼국사기의 기록에 부합하고 있음이 확인된 바 있다.

7세기에 들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신라는 선덕왕 8년(639)에 하슬라를 북소경(北小京)으로 삼고 사손 진주(沙飡 眞珠)로 하여금 그곳을 지키게 하였으며[95], 무열왕(武烈王) 5년(658)에는 하슬라 지역이 말갈과 접하여 백성이 편안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소경(小京)을 폐하고 하서주(河西州)로 개편하였다[96]. 삼국이 통일된 뒤에는 신라 9주중의 하나인 하서주가 설치되었으며, 경덕왕 16년(757)에는 명주도독부를 두어 9군(郡) 25현(縣)을 관할하게 되었다[97].

고려의 건국과 함께 추진된 행정개편에 따라 강릉지역은 고려 태조 19년(936) 동원경(東原京)으로 읍호가 승격되었다[98]. 고려 건국과 병행된 행정편제는 다분히 지방호족세력의 역학관계를 고려한 중앙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이후 고려의 중앙집권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강릉의 행정편제도 이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변화하였다. 고려정부는 지방사회의 순역(順逆)에 따라 읍격(邑格)의 승격으로 대처하였고 고려 말엽의 빈번한 행정편제 개편은 왜구의 침임과 중앙권력체계의 변화를 단적으로 반영하는 것이었으며, 공양왕대의 강릉대도호부(江陵大都護府)의 편제는 그 같은 사회변화를 마감하고 중세사회를 재편하는 의미를 갖는다.

공양왕(恭讓王) 때 추진된 지방체제의 개혁은 사실상 조선을 건국한 주체세력의 주도로 추진되었던 것으로 강릉의 대도호부 편제는 자연스럽게 조선시대로 이어졌다. 당시 강릉대도호부는 연곡현(蓮谷縣)과 우계현(羽溪縣)을 영속하는 규모였다. 세조 때 진관체제의 도입에 따라 강릉대도호부에 진(鎭)이 설치되면서 2부, 4군, 2현을 관장하였다.

조선초기의 지방운영체제는 중세사회의 재편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조선 역시 고려와 마찬가지로 지방세력의 순역(順逆)에 따라 읍격(邑格)의 승격정책이 추진되었다. 강릉은 여기에 규정받아 두 차례에 걸쳐 현으로 강등되었다. 정조 14년(1790) 강릉부로 상승되었으며, 이후 강릉부 체제는 근대시대에 이르는 동안 지속되었다.

1985년 강릉부는 관찰사를 두고 강릉군을 비롯한 9군을 관장하였다. 1896년 13도 체제로 개편되면서 강릉군은 강원도에 귀속되었으며, 그 하부조직으로서 면리조직의 내부적인 정비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1955년 강릉읍은 성덕면과 경포면이 통합되어 강릉시로 승격되었으며, 강릉군은 명주군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강릉시와 분리되었다. 1992년 강릉시는 행정동 19개, 법정동 39

---

94) 국강고고학연구소, 2015,『강릉 강문동 신라토성』.

95)『三國史記』卷第五, 新羅本紀 第五 善德王 八年條.'春二月 以何瑟羅州爲北小京 命沙飡眞珠鎭之 秋七月 東海水赤且熱 魚鼈死'.

96)『三國史記』卷第五, 新羅本紀 第五 太宗武烈王 五年條.'三月 王以何瑟羅地連靺鞨 人不能安 罷京爲州 置都督以鎭之 又以悉直爲北鎭'.

97)『三國史記』卷第九, 新羅本紀 第九 景德王 十六年條.'冬十二月, 改沙伐州爲尙州 …(중략)… 河西州爲溟州 領州一郡九 縣二十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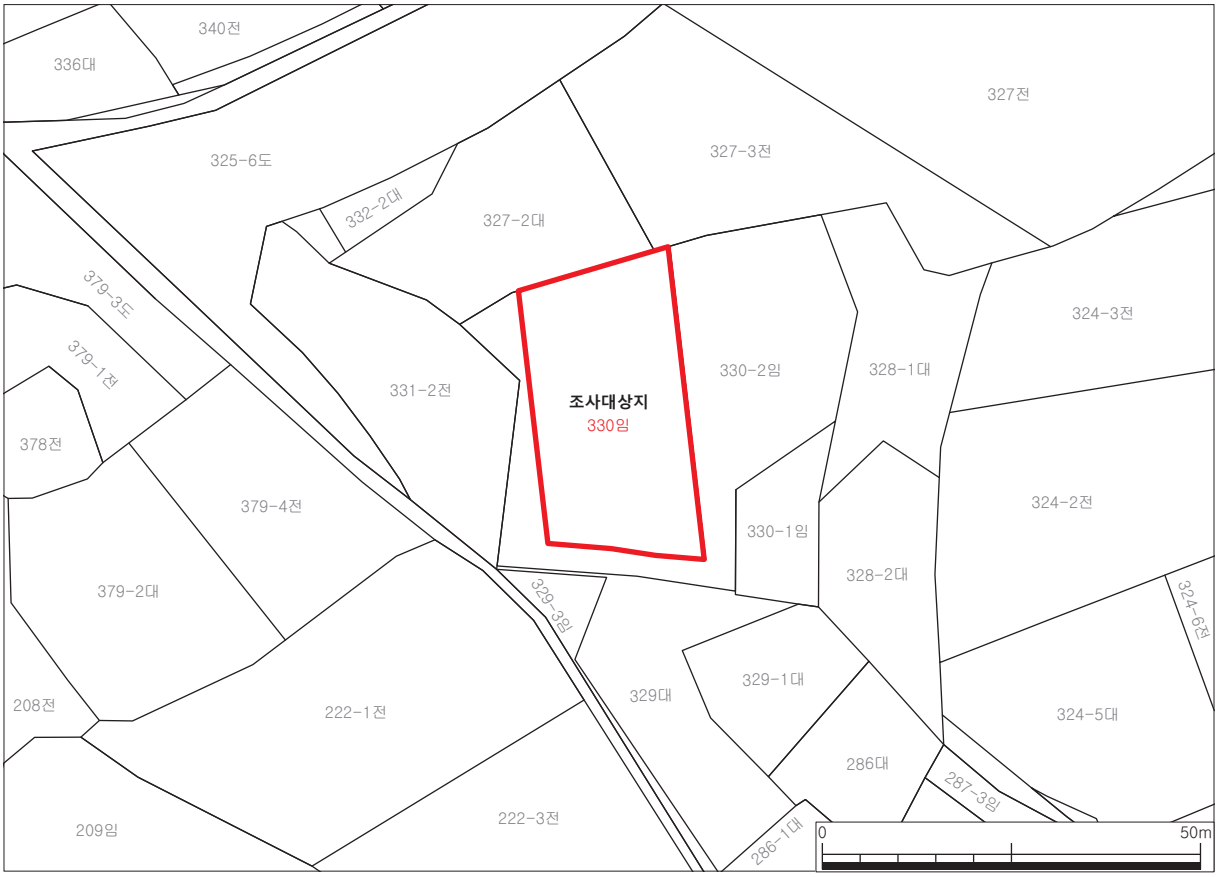
98)『高麗史』卷第五十八, 志第十二 地理三. '溟州…(중략)…太祖十九年號東原京 二十三年又以爲溟州'.

개, 자연촌락 114개의 규모였으며, 1995년에 강릉시와 명주군이 강릉시로 통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주변유적의 자세한 분포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지역 주변유적

번호	유적명	이격 거리	유적시기 및 성격	참고문헌	비고
1	초당동 287-14번지 유적	남쪽 85m	신석기~철기 주거지, 고분	강원문화재연구소, 2006, 『강릉 초당동 유적 II- I지구: 초당동 287-14번지 주택 부지』	
2	초당동 290-1번지 유적	남동쪽 220m	삼국 고분	한국문화재재단, 2015, 「2. 강릉 초당동 290-1번지 유적」, 『2012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Ⅱ -강원2-』	
3	초당동 230-1번지 유적	남쪽 250m	통일신라 주거지	한국문화재재단, 2015, 「1. 강릉 초당동 230-1번지 유적」, 『2012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Ⅱ -강원2-』	
5	초당동 272-7번지 유적	남동쪽 300m	조선 봉수	예맥문화재연구원, 2008, 『강릉 초당동 유적Ⅲ』	
6	강릉 급식소 개축부지 내 유적	남동쪽 350m	철기~삼국 주거지, 고분	예맥문화재연구원, 2014, 『강릉 초당동유적 VI -강릉고 급식소 개축부지내 유적 · 강릉고 급식소 개축 주차장 예정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7	강릉 급식소 주차장 예정부지 내 유적	남동쪽 350m	철기 주거지	예맥문화재연구원, 2014, 『강릉 초당동유적 VI -강릉고 급식소 개축부지내 유적 · 강릉고 급식소 개축 주차장 예정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8	강릉고 체육관 건립부지 내 유적	남동쪽 350m	철기~삼국 유물포함층, 저습지	국강고고학연구소, 2014, 『강릉고 체육관 건립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도면 3. 조사대상지 지적도(1: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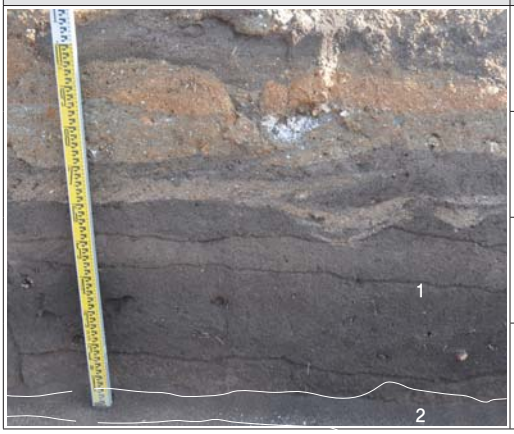
Ⅲ. 조사내용

조사대상지는 행정구역상 강원도 강릉시 초당동 330번지에 해당하며, 경 · 위도상 동경 128° 91′ 22″, 북위 37° 79′ 05″에 위치한다. 조사대상지가 속한 초당동은 강릉시내에서 북쪽으로 이어지는 낮은 구릉성 산지의 동쪽 말단부에 위치하며, 마을이 형성되면서 형질변경되어 현재는 대부분 평탄대지를 이루고 있다. 조사대상지는 허균 · 허난설헌 기념관의 북쪽에 위치하는 주차장에서 난설헌로 193번길을 따라 남동쪽으로 110m 진행하면 초당원길과 이어지는 4차선 도로가 있다. 그 4차선도를 넘어 초당원길을 따라 80m 더 직진하면 좌측으로 이어지는 삼거리가 있고, 그 삼거리에서 20m 진행 후 북쪽에 조사대상지가 위치한다.

발굴조사는 입회조사 시 확인되었던 층위를 기준으로 실시하였으며, 제토 및 유구 확인작업은 입회조사에서 확인된 문화층 상면까지 중장비를 이용하여 제토한 후 수작업으로 유구 확인작업을 진행하였다. 제토 중 발생한 토사는 전체 대지면적 중 이번 발굴조사에서 제외된 동쪽 부근에 임시 적치하였다.

조사대상지 내 퇴적양상은 조사경계 동쪽 벽면을 중심으로 토층의 퇴적양상을 살펴보면, 위에서 아래로 '표토 및 복토층 → 유구확인층 → 생토층'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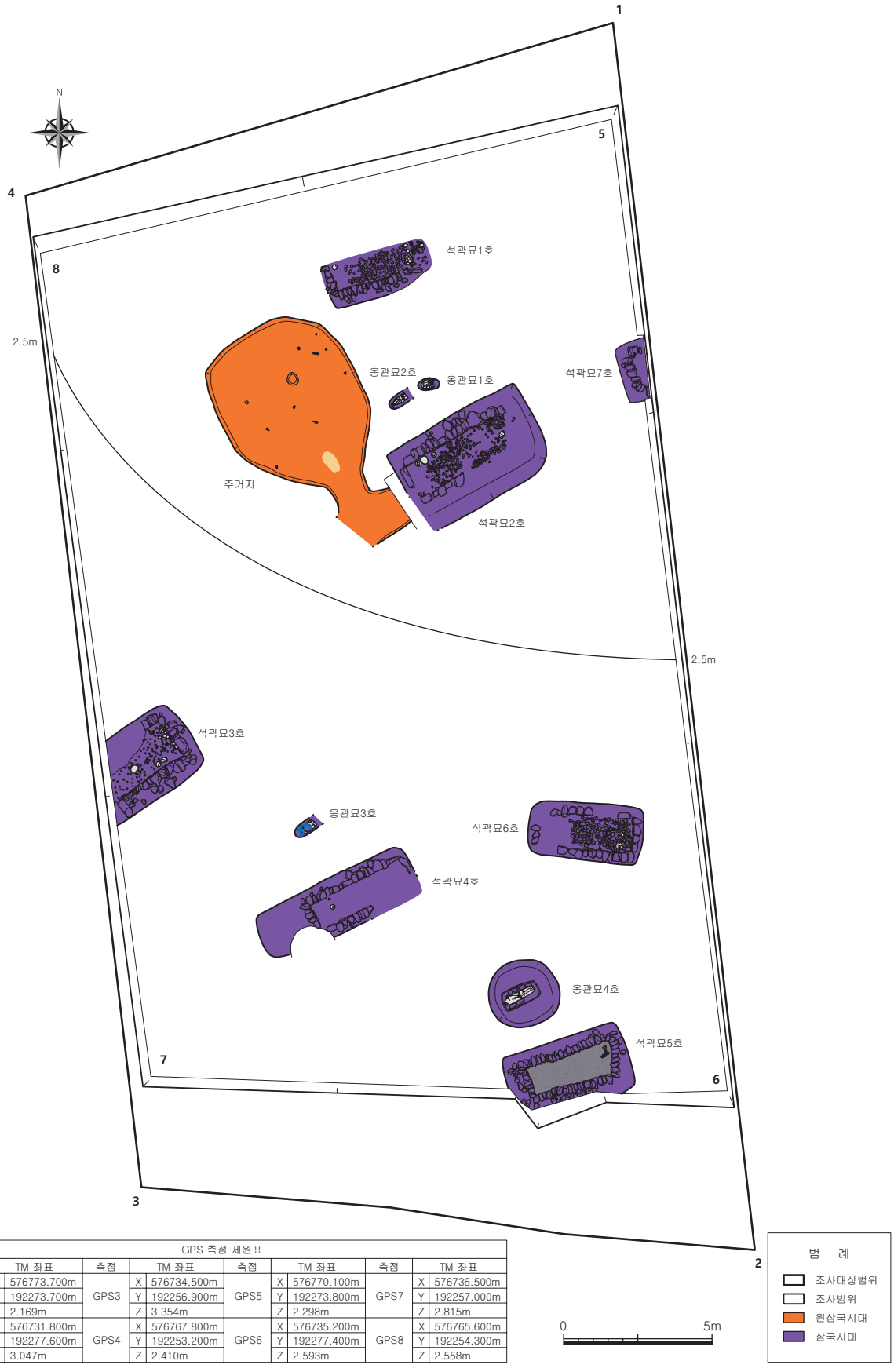
【표 2】 조사대상지 동벽 벽면 토층

토층	내용	
	1층 : 암갈색사질토+황갈색사질토 (생활쓰레기 포함)	표토 및 복토층 (두께 60㎝)
	2층 : 회갈색사질토(생활쓰레기 포함)	
	3층 : 암갈색사질토	유구확인층 (지표 하 60~90㎝)
	4층 : 황갈색사질토	생토층 (지표 하 90㎝ 이상)

1~2층은 표토 및 복토층으로 암갈색사질토와 황갈색사질토가 뒤섞여 있고, 그 아래에 회갈색사질토가 퇴적되어 있었다. 내부에는 생활쓰레기 등이 혼입되어 있었으며, 층의 두께는 60㎝ 정도이다.

3층은 원삼국~삼국시대 유구가 확인된 층으로 암갈색사질토로 이루어져 있으며, 조사구역 전체에 걸쳐 확인되었다. 이 층은 지표 下 60㎝부터 노출되었으며, 약 30㎝ 정도 두께로 퇴적되었다. 부분적으로 소나무 뿌리와 교란 구덩이로 인해 훼손이 심한 편이다.

4층은 생토층으로 황갈색사질토로 이루어져 있으며, 표토 하 90㎝에서 확인되었다.



GPS 측점 제원표												
측점	TM 좌표		측점	TM 좌표		측점	TM 좌표		측점	TM 좌표		
GPS1	X	576773.700m	GPS3	X	576734.500m	GPS5	X	576770.100m	GPS7	X	576736.500m	
	Y	192273.700m		Y	192256.900m		Y	192273.800m		Y	192257.000m	
	Z	2.169m		Z	3.354m		Z	2.298m		Z	2.815m	
GPS2	X	576731.800m	GPS4	X	576767.800m	GPS6	X	576735.200m	GPS8	X	576765.600m	
	Y	192277.600m		Y	192253.200m		Y	192277.400m		Y	192254.300m	
	Z	3.047m		Z	2.410m		Z	2.593m		Z	2.558m	

도면 4. 발굴조사 유구배치도

발굴조사 결과, 지표 하 60㎝에서 원삼국~삼국시대 문화층이 확인되었으며, 문화층 내에서 원삼국시대 주거지 1동, 삼국시대 석곽묘 7기 · 옹관묘 4기 등 12기의 유구가 조사되었다. 유물은 원삼국시대 내만구연옹 · 외반구연호 · 지석 · 어망추 등과 삼국시대 (유개)고배 · 호류 · 대부완 · 장란형토기 · 이식 · 뿔모루 · 도자 등이 출토되었다.

〈원삼국시대〉

1) 주거지

가. 유구(도면 5, 도판 2~4)

조사구역의 중앙부에서 서쪽으로 약간 치우친 해발 2.5m 지점에 위치한다. 동쪽으로 반경 1m 내에 삼국시대 석곽묘 1 · 2호와 옹관묘 1 · 2호가 위치한다.

암갈색사질토를 굴착하고 조성하였는데, 평면형태는 잔존양상으로 보아 주거공간인 큰방과 작은방, 그리고 통로로 구성된 몸자형으로 판단된다. 전체 규모는 잔존 길이 836㎝ · 너비 485㎝ · 깊이 40㎝이며, 장축방향은 북서-남동(N-30°-W)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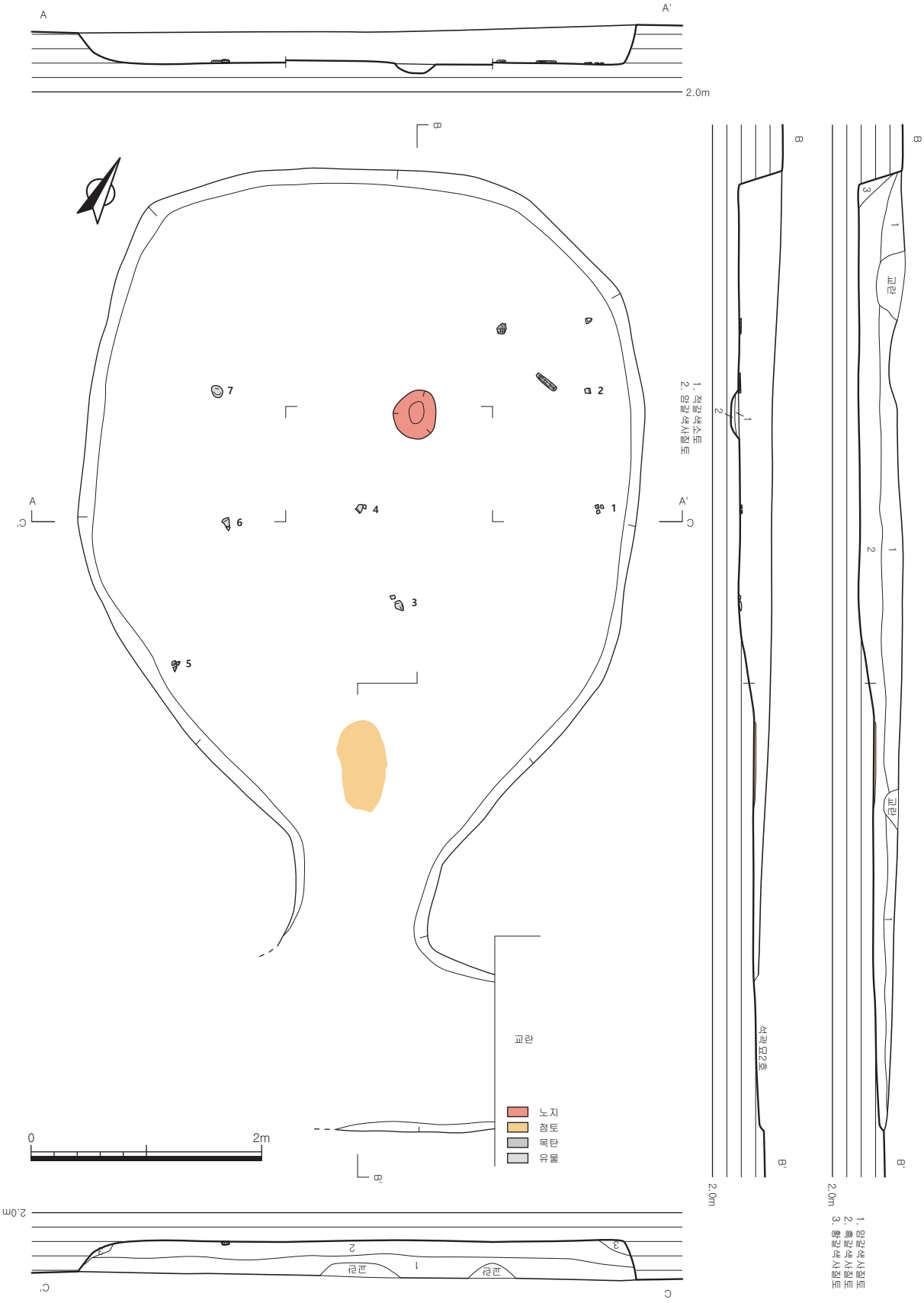
주거공간인 큰방은 북서쪽에 배치하였는데, 평면형태는 출입구와 접한 남동벽의 양 모서리는 둔각이 뚜렷한 반면, 북서벽의 양 모서리는 약간 둥글게 확인되어 전체적으로 오각형으로 추정된다. 규모는 길이 606㎝ · 너비 485㎝ · 깊이 40㎝이다. 벽면은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였으며, 바닥은 생토를 평탄하게 정지한 후 황갈색점토와 암갈색사질토를 혼입하여 생활면을 축조하였다. 내부에는 흑갈색사질토가 퇴적되었으며, 통로 쪽으로 치우쳐 일부에 황갈색점토를 깐 흔적이 확인된다.

내부시설은 주거공간의 중앙에서 북서쪽으로 약간 치우쳐 무시설의 수혈식 노지 1기가 확인되었다. 노지는 생활면 상부를 지름 38~42㎝, 깊이 8㎝정도 크기로 굴착하여 조성하였고, 평면형태는 원형이다. 내부에는 적갈색소토-암갈색사질토의 순으로 퇴적되었으며, 벽면을 따라 적색의 경화 흔적이 확인되었다.

작은방은 남서쪽 일대가 최근 교란으로 상당부분 파괴되었고, 북동쪽은 삼국시대 석곽묘 2호가 후축되면서 벽면과 바닥 일부가 유실되었다. 잔존하는 평면형태로 볼 때 장방형으로 추정되며, 규모는 길이 184㎝ · 너비 147㎝ · 깊이 5㎝이다. 벽면은 완만하고 바닥면은 통로로 가면서 완만한 경사로 이루어져 있다.

통로는 큰방과 작은방의 사이에서 확인되었는데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46㎝ · 너비 120㎝ · 최대깊이 24㎝이다. 거의 바닥만 잔존하고 있으며, 작은방에서 큰방쪽으로 갈수록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다.

유물은 바닥면에서 경질무문토기 내만구연옹 구연부편 3점 · 외반구연호 동체부편 1점 · 저부 2점 · 파수편 1점 등이 출토되었고, 퇴적토 내부에서 공이 1점 · 지석 2점 · 어망추 1점 등 총 11점의 유물이 확인되었다.



도면 5. 원삼국시대 주거지

나. 유물

1. 경질무문토기 내만구연옹 구연부편(도면 6-1, 도판 5-1)

내만구연옹 구연부편으로, 태토는 석립이 포함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흑황색(5YR 4/3)을 띠고 있다. 구연부는 내만하고 있으며 구순은 편평하게 처리하였다. 외면은 물손질로 정면하였으며, 내면은 물손질흔과 지두압흔이 잔존하고 있다.

잔존기고 5.8㎝, 두께 0.8㎝

2. 경질무문토기 내만구연옹 구연부편(도면 6-2, 도판 5-2)

내만구연옹 구연부편으로, 태토는 세석립이 포함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표면은 황갈색(10YR 5/6), 속심은 명적갈색(2.5YR 4/6)을 띠고 있다. 기형은 동최대경에서 점차 내만하여 그대로 구연부로 이어진다. 구순은 편평하게 마무리하였다. 외면은 물손질로 정면하였으며 내면은 지두압흔과 물손질로 마무리하였다.

잔존기고 12.3㎝, 두께 0.7㎝

3. 경질무문토기 내만구연옹 구연부편(도면 6-3, 도판 5-3)

내만구연옹 구연부편으로, 태토는 세석립이 소량 포함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표면은 흑황색(7.5YR 4/3)을, 속심은 흑색(7.5YR 2/1)을 띠고 있다. 기형은 완만하게 내만하여 구연에서 살짝 직립하고 있다. 구순은 편평하게 마무리하였다. 외면은 물손질정면하였으며 내면은 지두압흔과 물손질정면흔이 확인된다.

잔존기고 4.0㎝, 두께 0.5㎝

4. 경질무문토기 외반구연호 동체부편(도면 6-4, 도판 5-4)

외반구연호 동체부편으로, 태토는 석립이 다량 포함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흑갈색(10YR 2/2)을 띠고 있다. 동체는 동최대경에서 점차 내만하여 구연부에 이르고 있다, 외면은 그을음흔이 확인되며 물손질로 정면하였다. 내면은 지두압흔과 물손질흔이 확인되나 면이 고르지 않다.

잔존기고 11.6㎝, 두께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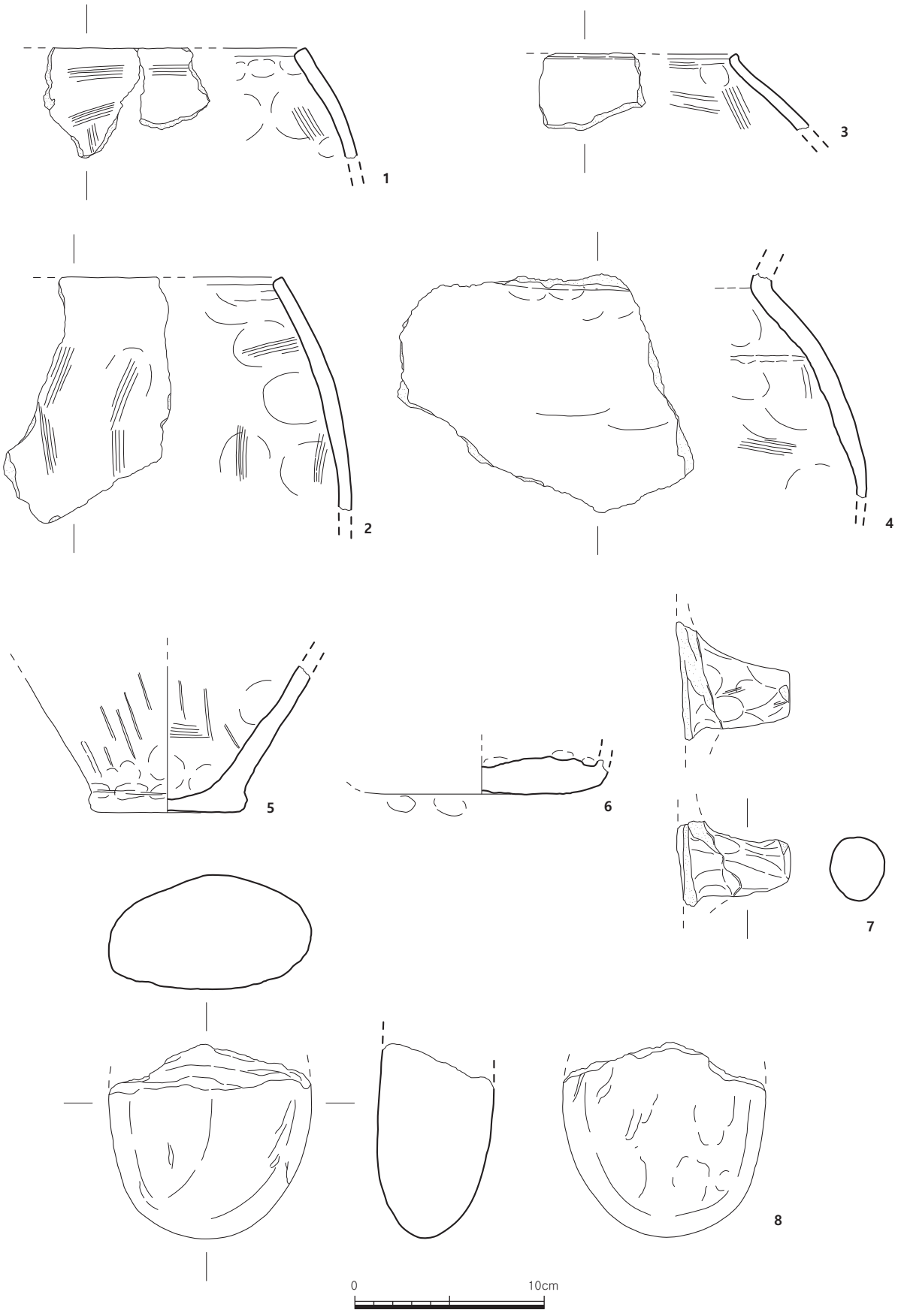
5. 경질무문토기 저부편(도면 6-5, 도판 5-5)

저부가 일부 잔존하고 있으며 태토는 석립이 다량 포함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흑황색(5YR 4/4)을 띠고 있다. 저부는 평저이며 동체는 사선으로 올라가고 있다. 외면 하위에는 돌아가며 누른 지두압흔과 목리흔이 잔존하고 내면에는 목리흔, 지두압흔, 물손질흔이 잔존하고 있다.

잔존기고 7.7㎝, 복원저경 8.4㎝, 두께 1.1㎝

6. 경질무문토기 저부편(도면 6-6 , 도판 5-6)

바닥만 잔존하고 있으며 태토는 석립이 다량으로 포함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흑갈색(5YR



도면 6. 원삼국시대 주거지 출토유물1

4/4)이다. 바닥은 중앙에서 바깥으로 점토띠를 돌려서 만들어 띠 접합부가 일부 잔존하고 있다. 내저면은 전면을 지두로 누른 후 가장자리는 물손질하였으나 전체적으로 거칠게 정면하여 내저면이 고르지 않으며 지두압흔이 다수 확인된다. 외저면에는 지두압흔과 정면흔이 확인된다.

잔존기고 2.0㎝, 두께 0.8㎝

7. 파수편(도면 6-7, 도판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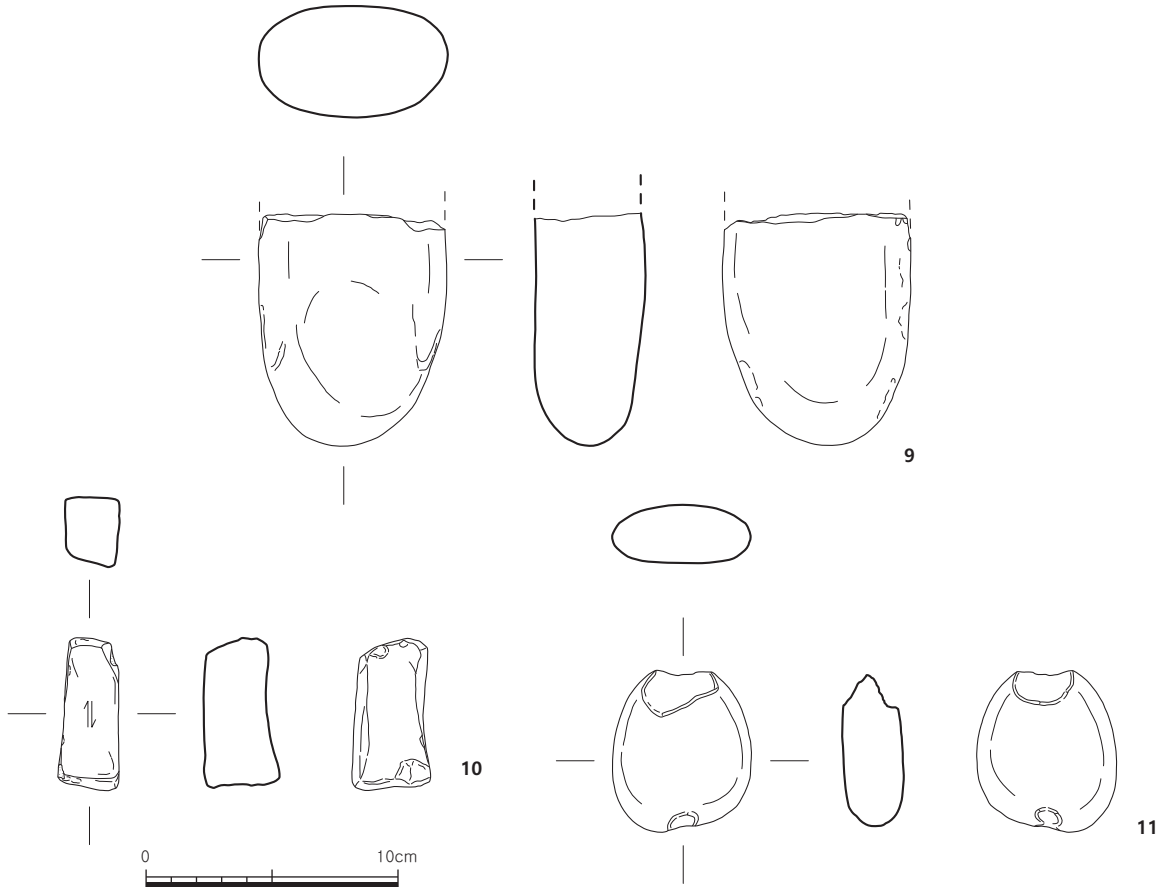
파수부만 잔존하고 있으며 태토는 세석립이 다량 포함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흑회색(10YR 2/2)을 띠고 있다. 기형은 원통형에 가까우며 외면은 지두로 눌러서 마무리한 흔적이 뚜렷하다. 내면은 일부 박리되었으며, 물손질흔이 희미하게 확인된다.

잔존길이 4.4㎝, 잔존너비 6.0㎝, 두께 2.4㎝

8. 공이(도면 6-8, 도판 5-8)

신부 일부만 잔존하고 있는 공이편이다. 석재는 사암이다. 평면형태는 반타원형이며, 단면형태는 장타원형이다. 말단부에 사용흔이 일부 확인된다.

잔존길이 10.3㎝, 너비 10.7㎝, 두께 6.0㎝



도면 7. 원삼국시대 주거지 출토유물2

9. 지석(도면 7-9, 도판 5-9)

신부 일부만 잔존하고 있는 지석이다. 석재는 사암이다. 평면형태는 반타원형이며, 단면형태는 장타원형이다. 양면에 사용흔이 확인된다.

잔존길이 9.2㎝, 너비 7.4㎝, 두께 4.3㎝

10. 지석(도면 7-10, 도판 5-10)

완형의 지석이다. 석재는 사암류이다. 평면형태는 직육면체에 가까우며 단면형태는 방형에 가깝다. 네 면에서 사용흔이 보이나 그 중 한 면이 주로 사용된 듯 면이 중앙이 오목하게 들어갔다.

길이 5.9㎝, 너비 2.1㎝, 두께 2.6㎝

11. 어망추(도면 7-11, 도판 5-11)

어망추로 석재는 규암제이다. 형태는 타원형에 가까우며 단면형태는 장타원형이다. 장축의 양단부에 타격으로 홈이 파여 있는데 한쪽이 다른 한쪽보다 크게 깨어져 있으며, 양쪽 면에서 떼어내어 한쪽 장축이 뾰족하다. 다른 쪽 장축면은 양면에서 떼어낸 흔적만 잔존하고 있다.

길이 6.0㎝, 너비 5.5㎝, 두께 2.3㎝

〈삼국시대〉

1) 석곽묘

(1) 석곽묘 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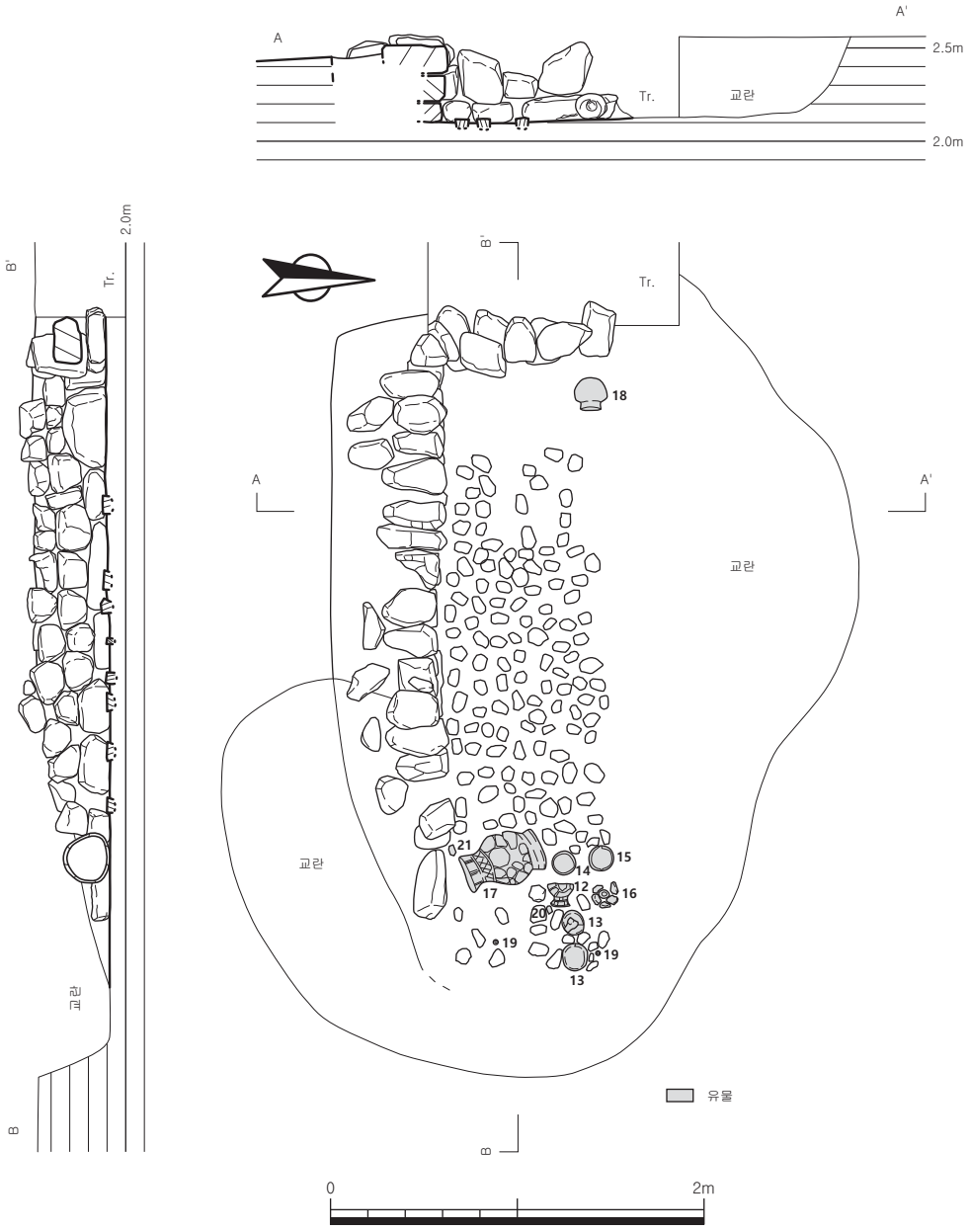
가. 유구(도면 8, 도판 6~8)

조사구역 북쪽의 경계지점에 인접한 해발 2.5m 지점에 위치한다. 석곽묘의 북장벽과 동단벽은 도굴 및 교란 등에 의해 모두 훼손되었다. 남쪽으로 180㎝ 떨어져 옹관묘 1·2호가 있고, 남쪽으로 250㎝ 떨어진 지점에는 석곽묘 2호가 위치한다.

묘광은 암갈색사질토를 평면 세장방형의 형태로 굴착하고 축조하였으며, 잔존 규모는 길이 414㎝·너비 152㎝이다. 벽면은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였다.

묘광 내부에는 천석을 사용하여 곽을 시설하였으며, 벽석과 묘광 사이에는 암갈색사질토를 채워 넣어 보강하였다. 석곽의 잔존 규모는 길이 320㎝·너비 90㎝·높이 45㎝이며, 장단비는 3.6:1이고, 장축방향은 동-서(N-85°-E)향이다.

벽석의 잔존상태가 불량하여 명확한 축조순서는 파악하기가 어렵지만 확인된 남장벽과 서단벽이 서로 맞물려있지 않고 다소 엉성하게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아 서단벽을 가장 마지막에 축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축조방법은 남장벽의 경우 1단은 25~40×20~30㎝의 대형 천석을 가로 눕혀쌓기하였고, 2단부터 최상단까지는 15~30×10~20㎝의 천석을 사용하여 세로 눕혀쌓기하였으며, 서단벽의 경우



도면 8. 삼국시대 석곽묘 1호

20~35×20~30㎝의 천석을 가로 눕혀쌓기하였다.

바닥면에는 잔자갈을 깔아 시상을 설치하였으며, 시상의 규모는 길이 280㎝ · 너비 82㎝이다. 서단벽 부근에는 시상을 설치하지 않았다.

유물은 동단벽 부근에서는 대부장경호 1점 · 유개고배 2점 · 개 3점 · 이식 1쌍 · 도자 2점과 서단벽 부근에서 단경호 1점 등 총 10점을 부장하였는데, 머리치와 발치에 양단 부장하였다. 유물 중 이식의 출토위치로 보아 피장자의 두향은 동쪽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유물

12. 유개고배(도면 9-12, 도판 9-12)

개-드림단이 일부 결실되었으나 완형에 가까운 경질도질 소성의 개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외면은 흑회색(7.5Y 4/1)+적회색(2.5Y 4/2)이고, 내면은 회갈색(7.5YR 6/1), 속심은 회색(7.5YR 7/1)이다. 꼭지는 단추형이며 신부는 한쪽이 납작하나 전체적으로 완만하게 만곡하다 드림부로 이어진다. 드림턱은 둥글게, 드림단은 뾰족하게 처리하였다. 표면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 정면하였으며 내저면에 지두압흔이 확인된다.

고배-배신부가 일부 결실된 이단투창고배이다. 경질소성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표면은 회갈색(7.5Y 5/1), 속심은 회청색(N 6/0)을 띠고 있다. 구연은 내경하며 구연단은 뾰족하게 처리하였다. 뚜껑받이턱은 거의 수평으로 돌출되었으며 배신은 완만하게 만곡하여 대각으로 이어진다. 대각은 '八'자형으로 대각 중위에는 2조의 돌대를 돌려 2단 구획하였고, 각 단에는 장방형 투창 3개씩을 등간격으로 상하교호로 뚫었다. 대각단은 'V'자형으로 처리하였다. 표면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흔이 확인된다.

개 : 기고 4.7㎝, 구경 11.6㎝, 꼭지경 3.5㎝

고배 : 기고 8.2㎝, 구경 10.4㎝, 대각경 7.5㎝

13. 유개고배(도면 9-13, 도판 9-13)

개-신부가 일부 결실되었으나 완형에 가까운 경질 소성의 개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나 부분적으로 기포가 확인된다.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표면은 회갈색(7.5Y 5/1), 속심은 회청색(N 6/)을 띠고 있다. 신부 표면의 일부에는 회황색(2.5Y 6/2)의 자연유가 흡착되었는데 일부는 산화 점상 박리되었다. 꼭지는 접시형이고, 신부는 납작한 반구형을 띠고 있으며 완만하게 드림턱으로 이어진다. 드림턱은 거의 수평에 가깝게 비스듬히 짧게 돌출되었으며, 드림단은 내만하고 있다. 드림턱은 둥글게, 드림단은 뾰족하게 처리하였다. 표면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고배-배신부가 2/3정도 결실되어 도면복원한 일단투창고배이다. 경질 소성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포함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표면은 회갈색(7.5Y 5/1), 속심은 회청색(N 6/)을 띠고 있다. 구연은 내경하며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뚜껑받이턱은 짧게 돌출되어 있으며 신부는 완만하게 만곡하여 대각으로 이어진다. 대각은 '八'자형으로 외면의 일부에는 회황색(2.5Y 6/2)의 자연유가 확인되었다. 대각에는 장방형 투창 3개를 등간격으로 뚫었으며 대각단은 'V'자형으로 처리하였다. 표면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흔이 확인된다.

개 : 기고 3.8㎝, 구경 8.0㎝, 꼭지경 2.8㎝

고배 : 기고 7.9㎝ 복원구경 8.9㎝, 대각경 7.6㎝

14. 개(도면 9-14, 도판 9-14)

신부가 1/2정도 잔존하여 도면복원하였다. 경질소성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표면은 회청색(N 6/), 속심은 회청색(N 5/)을 띠고 있다. 꼭지는 대각도치형이며 신부는 완만하게 만곡하여 드림으로 이어진다. 드림턱은 뚜렷하지 않으며 드림단은 살짝 내만하고 있다. 내면은 물레흔이 확인되며 표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기고 4.8㎝, 구경 9.8㎝, 꼭지경 3.0㎝

15. 개(도면 9-15, 도판 9-15)

구연부가 일부 결실되었으나 완형에 가까운 개다. 경질 소성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표면은 회백색(7.5Y 5/1), 속심은 회청색(N 6/)을 띠고 있다. 내면에 잔기포가 확인된다. 꼭지는 대각도치형이고 신부는 반구형에 가까우며 완만하게 만곡하여 드림으로 이어진다. 드림턱이 짧고 드림단은 내만하고 있다. 드림턱과 드림단은 모두 둥글게 처리하였다. 내면은 물레흔이 확인되며 표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기고 6.6㎝, 구경 12.4㎝, 꼭지경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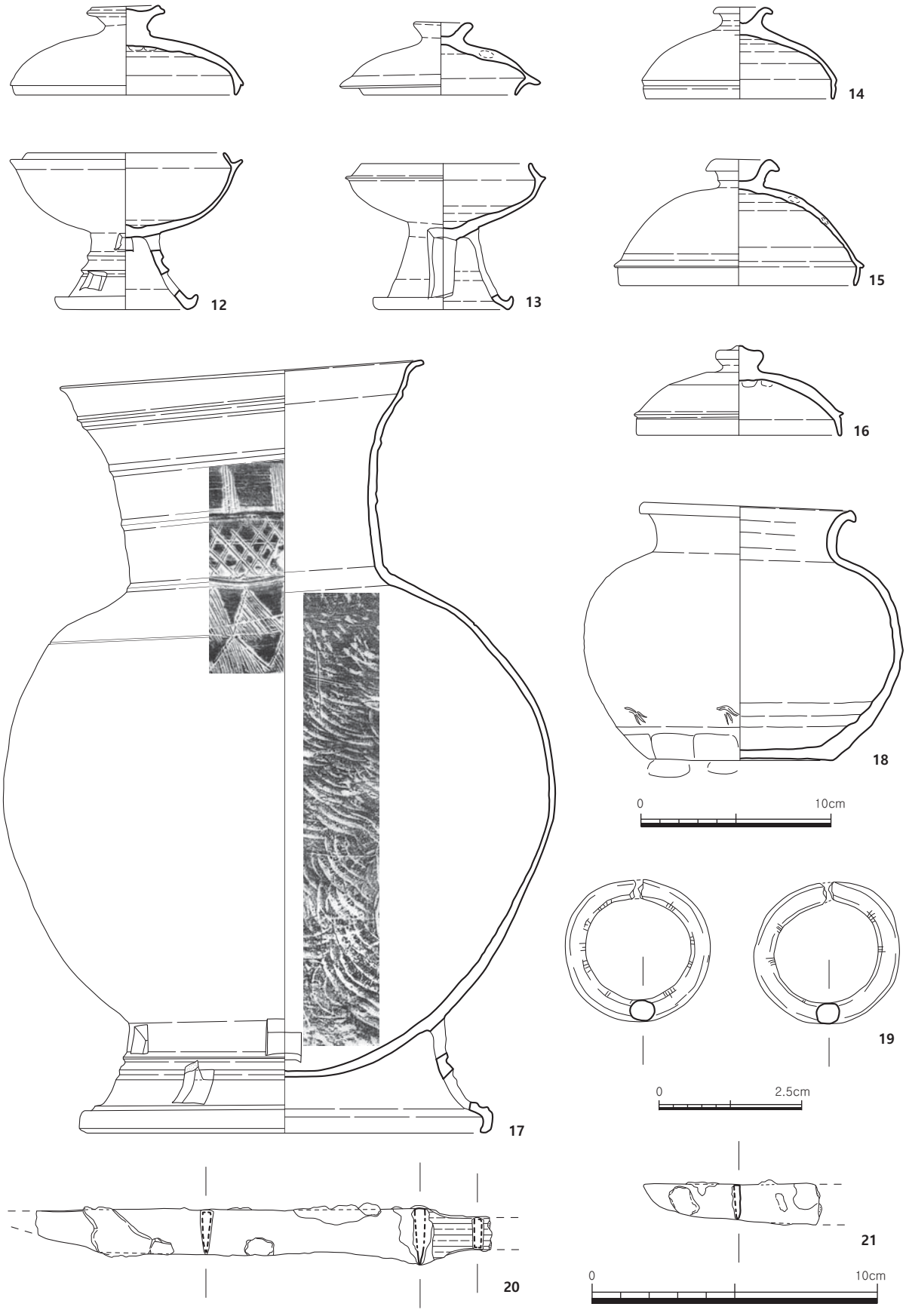
16. 개(도면 9-16, 도판 9-16)

구연부가 일부 결실되었으나 완형에 가까운 개다. 경질 소성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외면은 회백색(7.5Y 5/1), 내면은 회올리브색(2.5Y 5/2), 속심은 회청색(N 6/)을 띠고 있다. 꼭지는 첨정보주형이며, 신부는 납작한 반구형에 가까우며 완만하게 휘어 드림으로 이어진다. 드림턱은 짧게 돌출되었으며 드림단은 수직으로 내려온다. 드림턱은 뾰족하게, 드림단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내면은 물레흔이 확인되며 표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기고 4.7㎝, 구경 10.6㎝, 두께 0.5㎝

17. 대부장경호(도면 9-17, 도판 9-17)

전체적으로 1/3정도가 결실되었으며 도면복원하였다. 경질 소성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나 구경부가 휘었다, 태토는 세사립과 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표면이 황회색(2.5Y 7/1)이고, 속심이 회색(7.5YR 7/1)이다. 동체부 외면의 일부는 암회색(N 4/)을 띤다. 구경부는 외반하고 있으며 2조의 돌대를 돌려 3단 구획하였고, 2단에는 4치구를 이용하여 위에서 아래로 불규칙한 간격으로 그어 집선문 11개를 시문하였다. 3단에는 1치구의 시문구를 이용하여 우상단에서 좌하단으로 사선방향(＼)으로 돌아가며 시문한 후 좌상단에서 우하단으로 사선(／)으로 그어 격자문을 마무리하였다. 구경부와 견부의 경계는 1조의 돌대를 돌려 구분하였고, 견부에는 등간격으로 2조의 침선을 돌려 2단의 삼각집선문을 시문하였다. 삼각형은 우상단에서 좌하단으로 그은 후 다시 좌상단에서 우하단으로 그어 삼각형을 이루었으며 집선문은 좌상단에서 우하단으로 1치구의 시문구로 상단은 7~9개의 선을, 하단은 10개 내외의 선을 불규칙한 간격으로 시문하였으며 부분적으로 집선의 중복이 관



도면 9. 삼국시대 석곽묘 1호 출토유물

찰된다. 중위에서 동최대경을 이룬 후 완만하게 휘어 대각으로 이어진다. 대각은 '八'자형으로 중위에 2조의 돌대를 둘러 상하단으로 나눈 후 상단은 장방형에 가깝고 하단에는 방형에 가까운 투창 6개를 상하교호로 배치하였다. 내면은 경부와 대각은 회전물손질흔. 동체부는 박자흔이 확인된다.

기고 40.3㎝, 구경 19.1㎝, 대각경 21.7㎝

18. 단경호(도면 9-18, 도판 9-18)

완형의 경질 소성 단경호이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표면과 속심 모두 회청색(N 6/)이다. 저부는 평저이며 완만하게 올라가서 동 중위에서 최대경을 이룬 후 내만하여 경부에 이른다. 구경부는 완만하게 외반하나 구연단에서 급격히 외반하고 있다. 저부에 깍기흔이, 외저면에 지두압흔이 보인다. 표면은 물레흔이 뚜렷하며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기고 13.3㎝, 구경 11.5㎝, 저경 9.8㎝

19. 이식(도면 9-19, 도판 9-19)

완형의 이식 1쌍이다. 두께 약 0.4㎝ 정도의 동봉을 얇은 금판으로 감싼 후 양 끝을 구부려 만든 세환이식이다. 금판을 구부릴 때 생긴 주름이 확인되며, 평면형태와 단면형태는 원형이다.

지름 2.5㎝, 두께 0.4㎝, 무게 5.4g

지름 2.5㎝, 두께 0.4㎝, 무게 4.9g

20. 도자(도면 9-20, 도판 9-20)

인부 일부와 병부 일부가 결실된 철제 도자이다. 단조품으로 표면에 녹혹이 다량 발생하였다. 신부는 관부로 갈수록 넓어지며 신부의 단면은 이등변삼각형에 가깝고, 병부의 단면은 장방형이다. 인부의 날은 비교적 날카롭다. 병부에 횡방향의 목질흔이 관찰된다

잔존길이 16.0㎝, 너비 2.0㎝, 두께 0.3~0.4㎝, 무게 31.0g

21. 도자(도면 9-21, 도판 9-21)

신부 일부만 잔존한 철제 도자이다. 단조품으로 표면에 녹혹이 다수 확인되며 신부의 단면은 이등변삼각형이고 인부의 날은 비교적 날카롭다.

잔존길이 6.1㎝, 너비 1.4㎝, 두께 0.3㎝, 무게 7.3g

(2) 석곽묘 2호

가. 유구(도면 10, 도판 10~12-③)

조사구역 중앙부에서 북쪽으로 약간 치우친 해발 2.5m 지점에 위치한다. 석곽묘의 남장벽과 동단벽은 도굴 및 교란 등에 의해 대부분 훼손되었다. 북쪽으로 60㎝ 떨어져 옹관묘 1 · 2호가 있고, 북쪽으로 250㎝ 떨어져서는 석곽묘 1호가 있으며, 동쪽으로 180㎝ 떨어진 지점에는 석곽묘 7호가 위치

한다.

묘광은 암갈색사질토를 평면 장방형의 형태로 굴착하였고, 잔존 규모는 길이 430㎝ · 너비 235㎝이다. 벽면은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였다.

묘광의 내부에는 천석과 할석을 혼용하여 곽을 축조하였다. 잔존 규모는 길이 385㎝ · 너비 115㎝ · 높이 60㎝로 장단비는 3.3:1이며, 장축방향은 동-서(N-75°-E)향이다. 벽석과 묘광 사이에는 황갈색사질토를 채워 넣어 보강하였다.

벽석의 축조방법은 북장벽의 경우 1단은 40×20㎝의 대형 할석과 20×15㎝의 천석을 혼용하여 가로 눕혀쌓기하였고, 2단부터 최상단까지는 15~30×10~20㎝의 천석을 사용하여 가로 · 세로 눕혀쌓기하였으며, 서단벽의 경우에는 45×30㎝의 할석을 가로 세워쌓기하였다.

바닥면에는 잔자갈을 깔아 시상을 설치하였고, 시상의 잔존 규모는 길이 330㎝ · 너비 110㎝이다.

유물은 양단부장하였으며, 동단벽쪽 부근에서 대부장경호 1점 · 이식 1쌍, 북장벽에 면해서 장경호 1점 · 대부장경호 1점 · 호 1점 등 총 5점이 출토되었다. 유물 중 이식의 출토위치로 보아 피장자의 두향은 동쪽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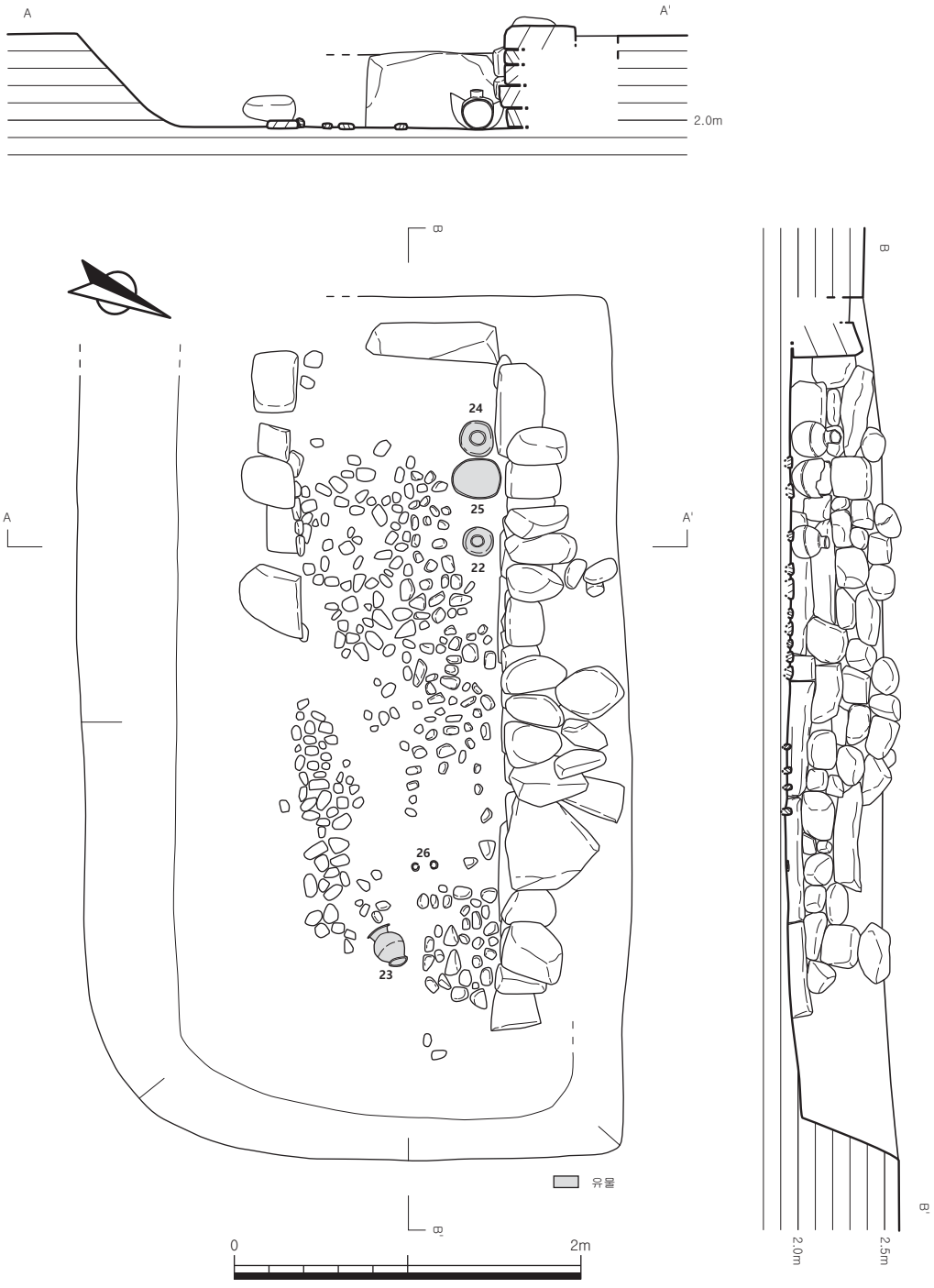
22. 부가구연장경호(도면 11-22, 도판 12-22)

구경부 1/3 및 동체부 일부가 결실되어 도면 복원하였다. 경질 소성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나 동체에 기포가 확인된다. 태토는 세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표면은 회청색(N 6/), 속심은 회백색(N 7/)을 띤다. 구연부는 부가구연으로 처리하였으며 경부는 1조의 돌대를 돌려 2단 구획하였다. 상단에는 단치구로 위에서 아래로 선문(|)을 그은 후 선문 왼쪽에는 좌상단에서 우하단으로 4조의 선(＼)을 불규칙한 간격으로 그어 문양을 완성하고 하단에는 단치구로 위에서 아래로 선문(|)을 그은 후 선문 왼쪽에 좌하단에서 우상단으로 불규칙한 간격으로 4조의 선(／)을 그어 문양을 마무리하였다. 상하단의 각 11개의 문양을 상하교호로 배치하였다. 구경부와 견부의 경계 및 견부와 동체부의 경계는 1조의 돌대를 돌려 구분하였고, 동체는 구형에 가까우며 동최대경은 중위에 자리하고 있다. 저부는 중앙이 오목한 평저이다. 표면은 대체로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는데, 내저면은 박자흔이 뚜렷하게 잔존하고 있다.

기고 24.8㎝, 복원구경 14.8㎝, 저경 8.6㎝, 두께 0.5㎝

23. 대부장경호(도면 11-23, 도판 12-23)

구경부와 동체 일부가 결실된 경질소성의 대부장경호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표면이 회청색(N 6/)이고, 속심이 탁한 적갈색(5YR 3/3)을 띤다. 경부 외면 일부에 회올리브색(7.5Y 4/2)의 자연유가 흡착되어 있다. 경부는 돌대를 돌려 상하단으로 나눈 후 상하단에 각각 1치구로 파상문을 시문하였다. 구경부와 견부의 경계 및 견부와 동체부의 경계는 1조의 돌대를 돌려 구분하였으나 동체의 돌대는 흔적만 확인된다. 동체는 구형에



도면 10. 삼국시대 석곽묘 2호

가까우며 동최대경은 중위에 자리하고 있다. 대각에는 장방형 투창 7개를 등간격으로 뚫었다. 외면에는 동체 돌대의 아래에는 목리흔이, 내면에는 지두압흔과 박자흔이 확인되며 전체적으로 회전 물손질로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22.2㎝, 대각경 13.2㎝, 두께 0.4㎝

24. 대부장경호(도면 11-24, 도판 12-24)

구경부와 대각 일부가 결실된 경질소성의 대부장경호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상부 표면이 회색(N 7/)이고, 하부 표면은 회백색(N 8/),속심은 회청색(N 6/)을 띤다. 경부는 돌대의 하단만 잔존하고 있으며 1치구의 파상문 2줄을 시문하였다. 구경부와 견부의 경계 및 견부와 동체부의 경계는 1조의 돌대를 돌려 구분하였으며 견부는 다시 2조의 돌대를 돌려 상하단으로 나누었다. 견부의 돌대 상단에는 1치구의 파상문 2줄을 시문하였다. 동체는 구형에 가까우며 동최대경은 중상위에 자리하고 있다. 대각에는 하단에 2조의 돌대를 돌렸으며 상단에 장방형 투창 4개를 등간격에 가깝게 뚫었다. 내저면에는 지두압흔과 박자흔이 확인되며 표면은 전체적으로 회전 물손질로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18.6㎝, 대각경 13.9㎝, 두께 0.3㎝

25. 호 저부(도면 11-25, 도판 12-25)

동체 일부와 저부가 잔존하고 있으며 태토는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경질 소성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나 저부에는 기포가 다수 확인된다. 색조는 표면은 주로 회청색(N 6/), 내외저면은 회백색(10YR 8/1), 속심은 탁한 적갈색(5YR 3/3)을 띤다. 저부는 말각평저이며, 완만하게 올라가서 동 중위에서 최대경을 이룬 후 내만한다. 외면 전체에 집선문을 타날하였으며, 저부에는 교차타날로 집선문이 일부 중복되었다. 내면은 박자흔이 뚜렷하다.

잔존기고 19.4㎝, 복원저경 12.0㎝, 두께 0.4㎝

26. 이식(도면 11-26, 도판 12-26)

이식 1쌍이다. 두께 0.4cm 정도의 동봉에 얇은 금판을 감싼 후 양끝을 구부려 만든 세환이식이다. 1점은 금판이 대부분 결실되어 동봉만이 잔존하고 있으며, 다른 1점도 금판이 일부 결실되어 동봉이 노출되었으며 금판을 구부릴 때 생긴 주름이 보인다. 평면형태와 단면형태는 원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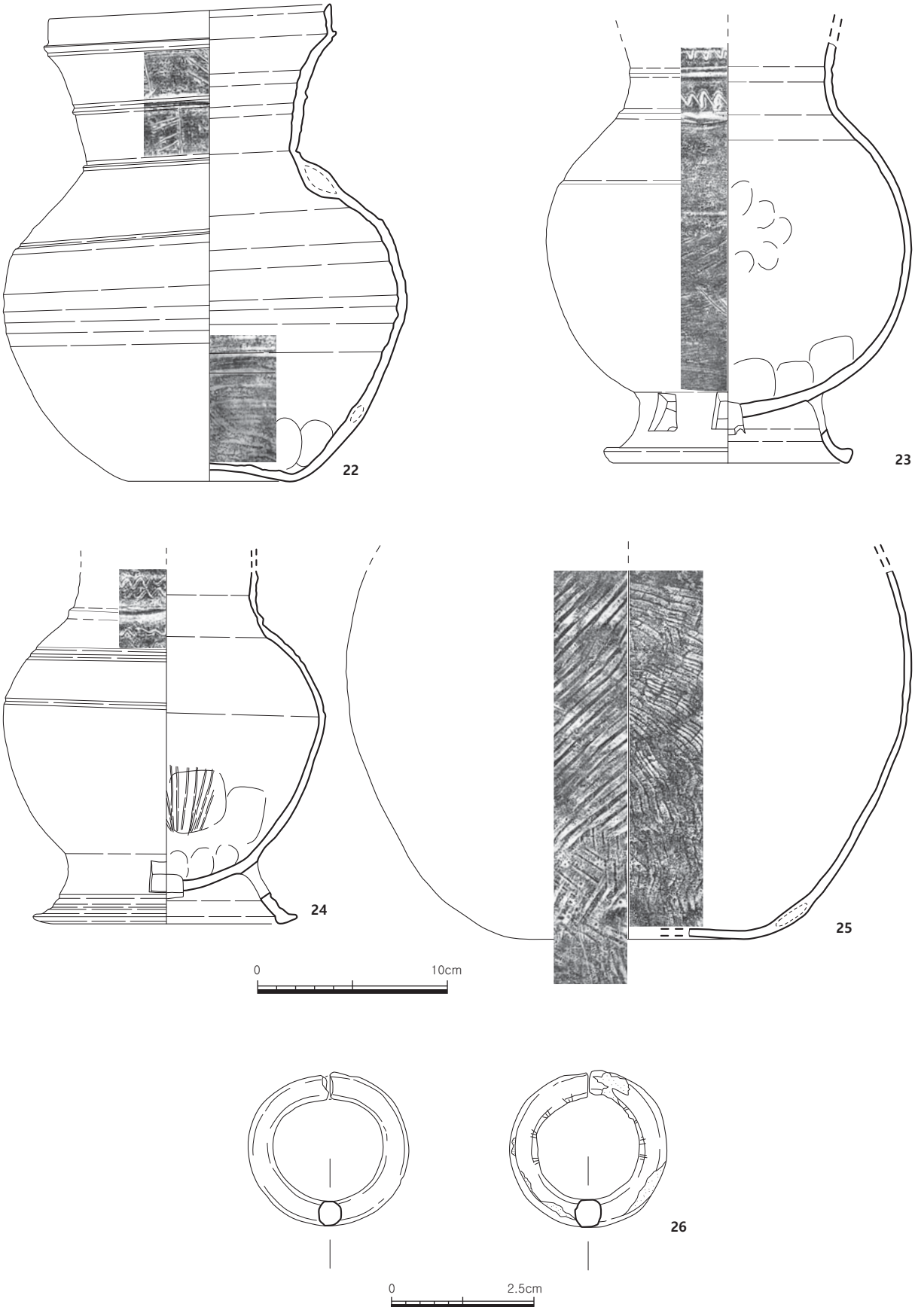
지름 2.7㎝, 두께 0.4㎝, 무게 6.9g

지름 2.7㎝, 두께 0.4㎝, 무게 8.1g

(3) 석곽묘 3호

가. 유구(도면 12, 도판 13~15)

조사구역 서쪽 경계 중앙에서 남쪽으로 약간 치우친 해발 2.5m 지점에 위치하며, 조사구역 서쪽 외곽으로 연장된다. 석곽묘의 북장벽은 도굴 및 교란 등에 의해 대부분 훼손되었다. 남동쪽으로



도면 11. 삼국시대 석곽묘 2호 출토유물

210 · 250㎝ 떨어져 옹관묘 3호와 석곽묘 4호가 각각 위치한다.

묘광은 암갈색사질토를 굴착하였고,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으로 추정된다. 묘광의 벽면은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였는데, 잔존 규모는 길이 347㎝ · 너비 267㎝이다.

묘광 내부에는 천석을 사용하여 벽석을 축조하였다, 벽석과 묘광 사이에는 황갈색사질토를 뒷채움하였다. 석곽의 잔존 규모는 길이 283㎝ · 너비 135㎝ · 높이 60㎝으로 장단비는 2.1:1이며, 장축방향은 동-서(N-75°-E)향이다.

확인된 벽석의 양상으로 보아 남장벽의 경우 1단부터 최상단까지는 15~30×10~20㎝의 천석을 사용하여 가로 · 세로 눕혀쌓기하였으며, 동단벽은 40×25㎝의 대형 할석을 가로 눕혀쌓기하였다. 바닥면에는 잔자갈을 깔아 시상을 설치하였으며, 시상의 잔존 규모는 길이 275㎝ · 너비 130㎝이다.

유물은 동단벽 부근에서 대부직구호 1점 · 대부파수부호 1점 · 대부완 2점 · 유개고배 3점 · 고배 4점 · 개 3점 · 도자 4점 · 이식 1점이 출토되었으며, 석곽 중앙의 내부토에서 대부장경호 1점이 출토되었다. 또한 봉문 내에 매납유물로 추정되는 단경호 1점이 북장벽 부근 교란 범위 제토 과정에서 확인되어 모두 21점이 출토되었다.

출토유물 중 이식의 출토위치로 보아 피장자의 두향은 동향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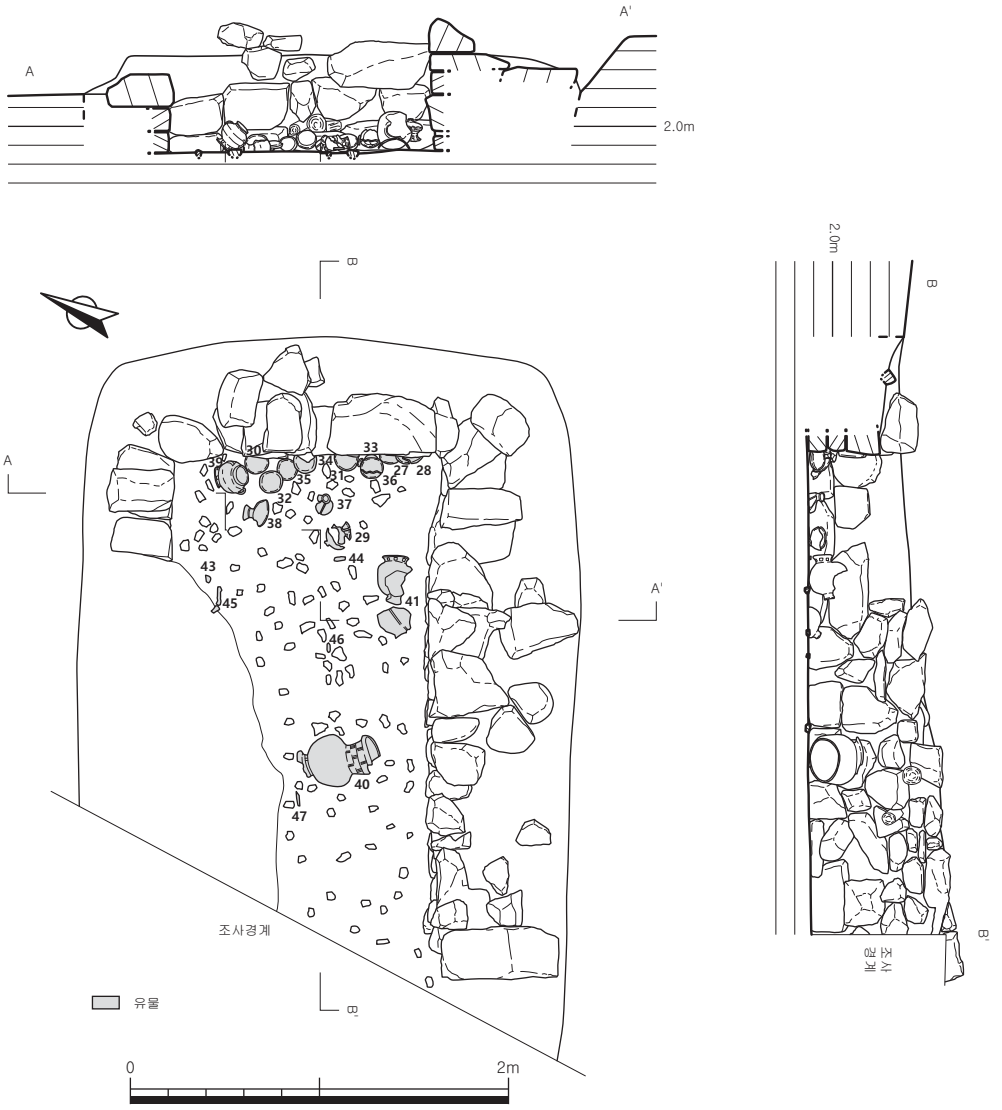
27. 유개고배(도면 13-27, 도판 16-27)

개-신부가 극히 일부 결실되어 완형에 가까운 개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외면은 회백색(N 7/), 내면은 회황색(2.5Y 7/2), 속심은 회색(N 6/)을 띠고 있다. 신부 외면 구연부 일부와 내면의 구연부에 회녹색(7.5Y 5/2)의 자연유가 흡착되어 있다. 꼭지는 대각도치형이고 신부는 반구형으로 완만하게 만곡하여 드림으로 이어진다. 드림턱이 짧게 돌출되었으며 드림단은 내만하고 있다. 드림턱과 드림단은 모두 둥글게 처리하였다. 외면 상단에 2조의 침선을 돌린 후 침선 내에 반시계방향으로 돌아가며 삼각집선문을 불규칙하게 시문하여 일부 문양이 중복되었다. 신부 외면 하위에는 다른 토기편 일부가 부착되어 중첩소성흔이 확인된다. 내면에 지두압흔과 물레흔이 확인되며 표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고배-구연부가 일부 결실된 일단투창고배이다. 경질 소성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나 내저면 기벽이 터져 구멍이 확인되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포함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외면과 속심은 회색(N 6/), 내면은 회황색(2.5Y 6/2)을 띠고 있다. 신부 뚜껑받이턱 일부에 회녹색(7.5Y 5/2)의 자연유가 흡착되어 있다. 구연은 내경하며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뚜껑받이턱은 짧게 돌출되어 있으며 신부는 사선으로 내려가다 완만하게 대각으로 이어진다. 대각은 '八'자형으로 장방형 투창 3개를 등간격으로 뚫었으며 대각단은 둥글게 외반하고 있다. 내저면과 대각 접합부에 지두압흔이, 외면 전체적으로 물레흔이 확인되며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개 : 기고 6.2㎝, 구경 12.4㎝, 꼭지경 3.5㎝, 두께 0.3㎝

고배 : 기고 8.4㎝, 구경 11.5㎝, 대각경 8.8㎝, 두께 0.3㎝



도면 12. 삼국시대 석곽묘 3호

28. 유개고배(도면 13-28, 도판 16-28)

개-완형의 개다. 경질 소성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외면은 회색(N 7/), 내면은 회녹색(7.5Y 6/1)을 띠고 있다. 신부 내면 대부분과 구연부 외면에 회녹색(7.5Y 5/2)의 자연유가 흡착되어 있으며 일부는 산화 박락되었다. 꼭지는 대각도치형이고 신부는 반구형에 가까우며 완만하게 만곡하여 드림으로 이어진다. 드림턱이 짧게 돌출되었으며 드림단은 내만하고 있다. 드림턱과 드림단은 모두 둥글게 처리하였다. 외면 상위에 침선을 돌려 2단 구획 한 후 상단에 삼각집선문을 시문하였다. 꼭지에 초본류흔이 확인되고 내면에 자연유가 부착

된 것으로 보아 도치소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내면은 물레흔이 확인되며 표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고배-구연부가 극히 일부 결실되어 완형에 가까운 이단투창고배이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포함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면은 회갈색(N 6/), 외면은 회청색(N 4/), 속심은 암적회색(5R 4/1)을 띠고 있다. 구연은 직립에 가까우며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뚜껑받이턱은 짧게 돌출되어 있으며 신부는 납작하게 만곡하여 대각으로 이어진다. 대각은 '八'자형으로 중위에 1조의 돌대를 돌려 2단 구획하였으며 상단에는 방형 투창 3개를 등간격으로 뚫었으며 하단에는 장방형 투창 3개를 불규칙한 간격으로 뚫었다. 배신 내저면에 지두압흔이, 대각 내면에 기포가 확인된다. 표면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개 : 기고 6.1㎝, 구경 10.6㎝, 꼭지경 3.5㎝ 두께 0.3㎝

고배 : 기고 6.7㎝, 구경 10.6㎝, 대각경 7.1㎝, 두께 0.4㎝

29. 유개고배(도면 13-29, 도판 16-29)

개-구연부가 일부 결실된 개다. 경질 소성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표면은 회청색(N 5/), 속심은 회청색(N 4/)을 띠고 있다. 꼭지는 단추형이고 신부는 반구형으로 완만하게 만곡하여 드림으로 이어진다. 드림턱이 짧게 돌출되었으며 드림단은 내만하고 있다. 드림턱은 뾰족하게, 드림단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외면에 중하위까지 나선문을 돌렸다. 내면에 물레흔이 확인되며 표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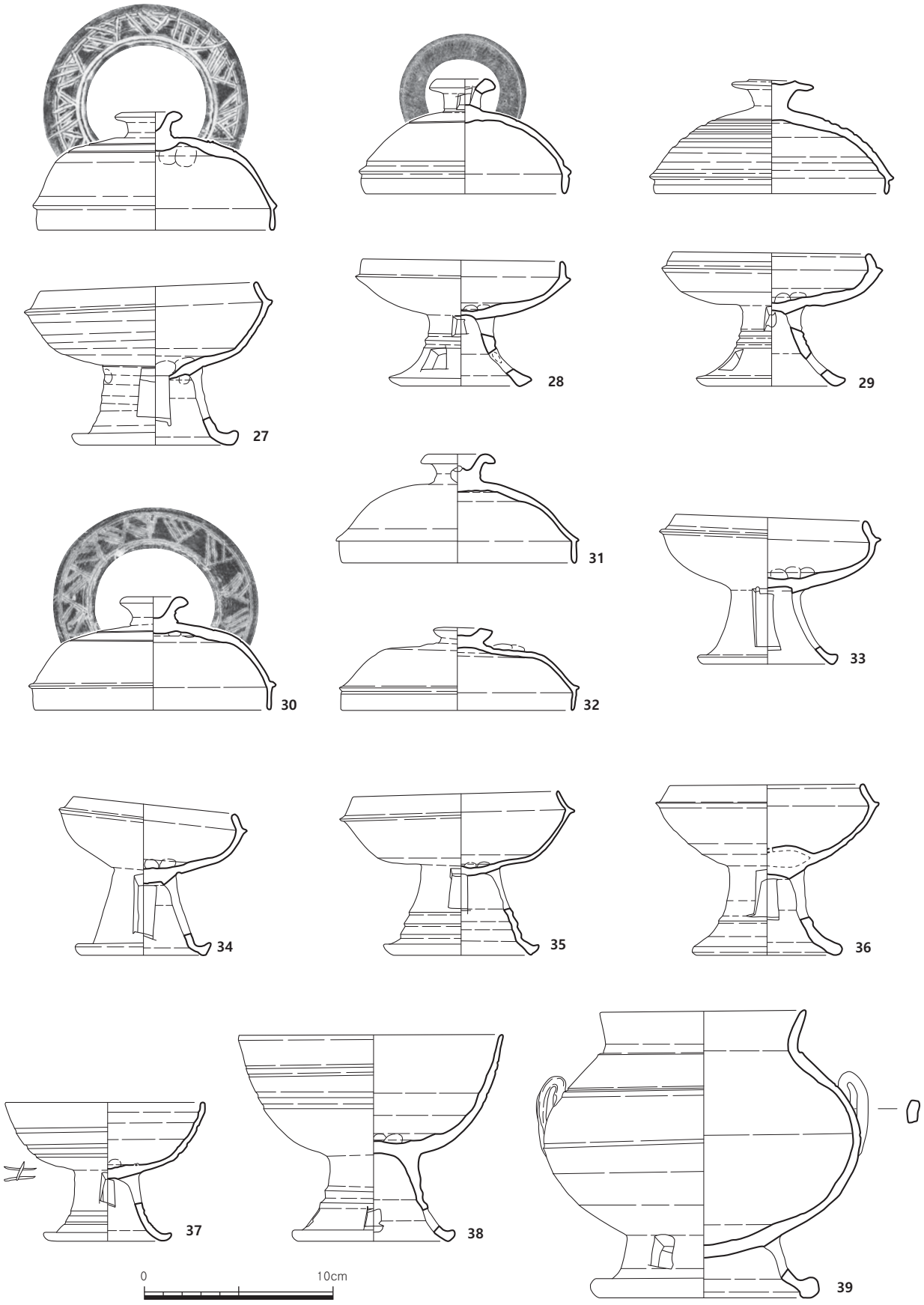
고배-구연부가 일부 결실된 이단투창고배이다. 경질 소성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다량 포함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외면은 흑색(N 2/), 내면과 속심은 암회색(N 4/)을 띠고 있다. 구연은 내경하며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뚜껑받이턱은 짧게 돌출되어 있으며 신부는 납작하게 만곡하며 대각으로 이어진다. 대각은 '八'자형으로 중위에 2조의 돌대를 돌린 후 상하단에 장방형 투창 각 3개를 등간격으로 뚫었으며 상하교호로 배치하였다. 표면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개 : 기고 6.0㎝, 구경 12.2㎝, 꼭지경 4.3㎝, 두께 0.4㎝

고배 : 기고 7.1㎝, 구경 10.4㎝, 대각경 7.8㎝, 두께 0.5㎝

30. 개(도면 13-30, 도판 16-30)

구연부가 극히 일부 결실되었으나 완형에 가까운 개다. 경질 소성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외면은 회색(N 6/), 내면은 회황색(2.5Y 7/2)을 띠고 있다. 신부 외면 구연부 일부와 내면의 구연부에 회녹색(7.5Y 5/2)의 자연유가 흡착되어 있다. 꼭지는 대각도치형이고 신부는 반구형으로 완만하게 만곡하여 드림으로 이어진다. 드림턱이 짧게 돌출되었으며 드림단은 직립하고 있다. 드림턱은 뾰족하게, 드림단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외면 상단에 2조의 침선을 돌린 후 침선 내에 반시계방향으로 돌아가며 삼각집선문을 불규칙하게 시문하여 일부 문양이 중복되었다. 신부 외면 하위에는 다른 토기편 일부가 부착되어 중첩소성흔이 확인된다. 내면에



도면 13. 삼국시대 석곽묘 3호 출토유물1

지두압흔과 물레흔이 확인되며 표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기고 6.0㎝, 구경 12.4㎝, 꼭지경 3.6㎝, 두께 0.3㎝

31. 개(도면 13-31, 도판 16-31)

신부가 극히 일부 결실되어 완형에 가까운 개다. 경질 소성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표면은 회백색(5Y 7/1), 속심은 회색(7.5Y 7/1)을 띠고 있다. 꼭지는 대각도치형이고 신부는 반구형에 가까우며 완만하게 만곡하여 드림으로 이어진다. 드림은 드림턱이 짧게 돌출되었으며 드림단은 직립하고 있다. 드림턱과 드림단은 모두 둥글게 처리하였다. 내면은 물레흔이 확인되며 표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기고 5.7㎝, 구경 12.4㎝, 꼭지경 3.9㎝, 두께 0.3㎝

32. 개(도면 13-32, 도판 16-32)

구연부가 일부 결실된 개다. 경질 소성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외면 상단은 회색(N 7/), 외면 하단, 내면과 속심은 회청색(N 5/)을 띠고 있다. 꼭지는 단추형이고 신부는 상단이 편평한 반구형으로 완만하게 만곡하여 드림으로 이어진다. 드림은 드림턱이 짧게 돌출되었으며 드림단은 직립하고 있다. 드림턱은 뾰족하게 드림단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외면 상단에 지두압흔, 내면에 물레흔이 확인되며 표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기고 4.4㎝, 구경 12.2㎝, 꼭지경 3.1㎝, 두께 0.3㎝

33. 고배(도면 13-33, 도판 16-33)

완형의 일단투창고배이다. 경질 소성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다량 포함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외면은 회청색(N 5/), 내면은 암회황색(2.5Y 5/2)을 띠고 있다. 구연은 내경하며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뚜껑받이턱은 짧게 돌출되어 있으며 신부는 완만하게 만곡하며 대각으로 이어진다. 대각은 '八'자형으로 장방형 투창 3개를 등간격으로 뚫었다. 내저면에 지두압흔이 확인되며 표면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기고 7.8㎝, 구경 10.0㎝, 대각경 7.4㎝, 두께 0.4㎝

34. 고배(도면 13-34, 도판 16-34)

완형의 일단투창고배이다. 경질 소성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나 대각이 휘었으며 태토는 세사립이 다량 포함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외면은 회청색(N 5/), 내면은 회황색(2.5Y 5/2)을 띠고 있다. 신부 내면, 뚜껑받이턱 일부, 대각 일부에 회녹색(7.5Y 5/2)의 자연유가 흡착되어 있다. 구연은 내경하며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뚜껑받이턱은 짧게 돌출되어 있으며 신부는 완만하게 만곡하며 대각으로 이어진다. 대각은 절두원추형으로 장방형 투창 3개를 등간격으로 뚫었다. 내저면에 지두압흔이 확인되며 표면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기고 8.0㎝, 구경 8.2㎝, 대각경 7.2㎝, 두께 0.3㎝

35. 고배(도면 13-35, 도판 16-35)

배신부가 일부 결실된 일단투창고배이다. 경질 소성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포함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표면은 회갈색(N 6/), 속심은 회청색(N 4/)을 띠고 있다. 구연은 내경하며 구연단은 뾰족하게 처리하였다. 뚜껑받이턱은 짧게 돌출되어 있으며 신부는 완만하게 만곡하여 대각으로 이어진다. 대각은 절두원추형으로 하단에는 3조의 돌대를 돌렸으며 상단에는 장방형 투창 2개를 마주보도록 뚫었으며 대각단은 외단이 돌출된 삼각형으로 처리하였다. 내면에 물레흔이 확인되며 표면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기고 8.5㎝, 구경 10.9㎝, 대각경 7.3㎝, 두께 0.2㎝

36. 고배(도면 13-36, 도판 17-36)

배신부가 일부 결실된 일단투창고배이다. 경질 소성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포함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표면은 회청색(N 5/), 속심은 암적회색(5R 4/1)을 띠고 있다. 구연은 내경하며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뚜껑받이턱은 짧게 돌출되어 있으며 신부는 완만하게 만곡하여 대각으로 이어진다. 대각은 '八'자형으로 하단에는 1조의 돌대를 돌렸으며 상단에는 장방형 투창 3개를 등간격으로 뚫었으며 대각단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대각단에 모래뭉침받침흔 3군데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정치소성한 것으로 보인다. 내저면에 기포가 확인되며 표면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기고 9.0㎝, 구경 10.2㎝, 대각경 8.0㎝, 두께 0.2~0.6㎝

37. 대부완(도면 13-37, 도판 17-37)

구연부가 극히 일부 결실된 대부완이다. 경질 소성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석립이 다량 포함된 점토를 이용하였다. 색조는 표면은 회청색(N 4/), 속심은 암적색(5R 3/1)을 띤다. 내저면에 소성시 부착된 불순물이 확인되어 정치소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하였고 신부는 완만하게 내려간다. 동체 외면에 3조의 침선을 불규칙한 간격으로 돌렸으며 저부에 '干'과 유사한 표식이 확인되며 대각을 부착하였다. 대각은 '八'자형으로 하단에 2조의 돌대를 돌렸으며 상단에는 장방형 투창 2개를 마주보도록 뚫었다. 대각단은 외반하게 처리하였다. 내면에는 지두압흔과 물레흔이 확인되며 표면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흔이 관찰된다.

기고 7.3㎝, 구경 10.4㎝, 대각경 6.8㎝, 두께 0.3㎝

38. 대부완(도면 13-38, 도판 17-38)

구연부가 극히 일부 결실되고 대각이 일부 결실된 대부완이다. 경질 소성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석립이 소량 포함된 점토를 이용하였다. 색조는 표면과 속심은 회청색(N 6/)을 띤다.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신부는 완만하게 내려가며 동체 외면에 2조의 돌대를 2부분에 돌려 3단 구획하였으며 저부에 대각을 부착하였다. 대각은 '八'자형으로 중위에 2조의 돌대를 돌려 2단 구획한 후 하단에 장방형 투창 4개를 등간격으로 뚫었다. 대각단은 외단이 돌출하게 처리하였다. 내면에는 지두

압흔과 물레흔이 확인되며 표면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흔이 관찰된다.

기고 10.9㎝, 구경 14.0㎝, 대각경 8.6㎝, 두께 0.4㎝

39. 대부파수부호(도면 13-39, 도판 17-39)

구연부가 극히 일부 결실되어 완형에 가까운 대부파수부호이다. 경질 소성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석립이 소량 포함된 점토를 이용하였다. 색조는 표면은 회청색(N 6/), 속심은 암적색(5R 4/1)을 띤다. 신부 외면과 구연부 내면부에 암회황색(2.5Y 4/2)의 자연유가 흡착되어 있으며 일부는 산화 박락되었다. 구경부는 외반하고 있으며 구연단은 둥글게 마무리하였다. 경부와 견부, 견부와 동체. 동최대경에는 돌대를 돌려 구분하였으며 동체는 편구형에 가까우며 동최대경은 중위에 자리하고 있다. 동체 중위에는 단면형태 장방형의 대상파수를 'D'자형에 가깝게 2곳에 부착하였다. 대각은 '八'자형이며 장방형 투창 5개를 등간격으로 뚫었다. 대각단은 밖으로 말아서 마무리하였으며 대각단 내면에 초본류흔이 확인되어 정치소성한 것으로 보인다. 내저면에는 지두압흔이 확인되며, 표면은 전체적으로 회전 물손질로 정면하였다.

기고 15.2㎝, 구경 10.8㎝, 대각경 12.1㎝, 두께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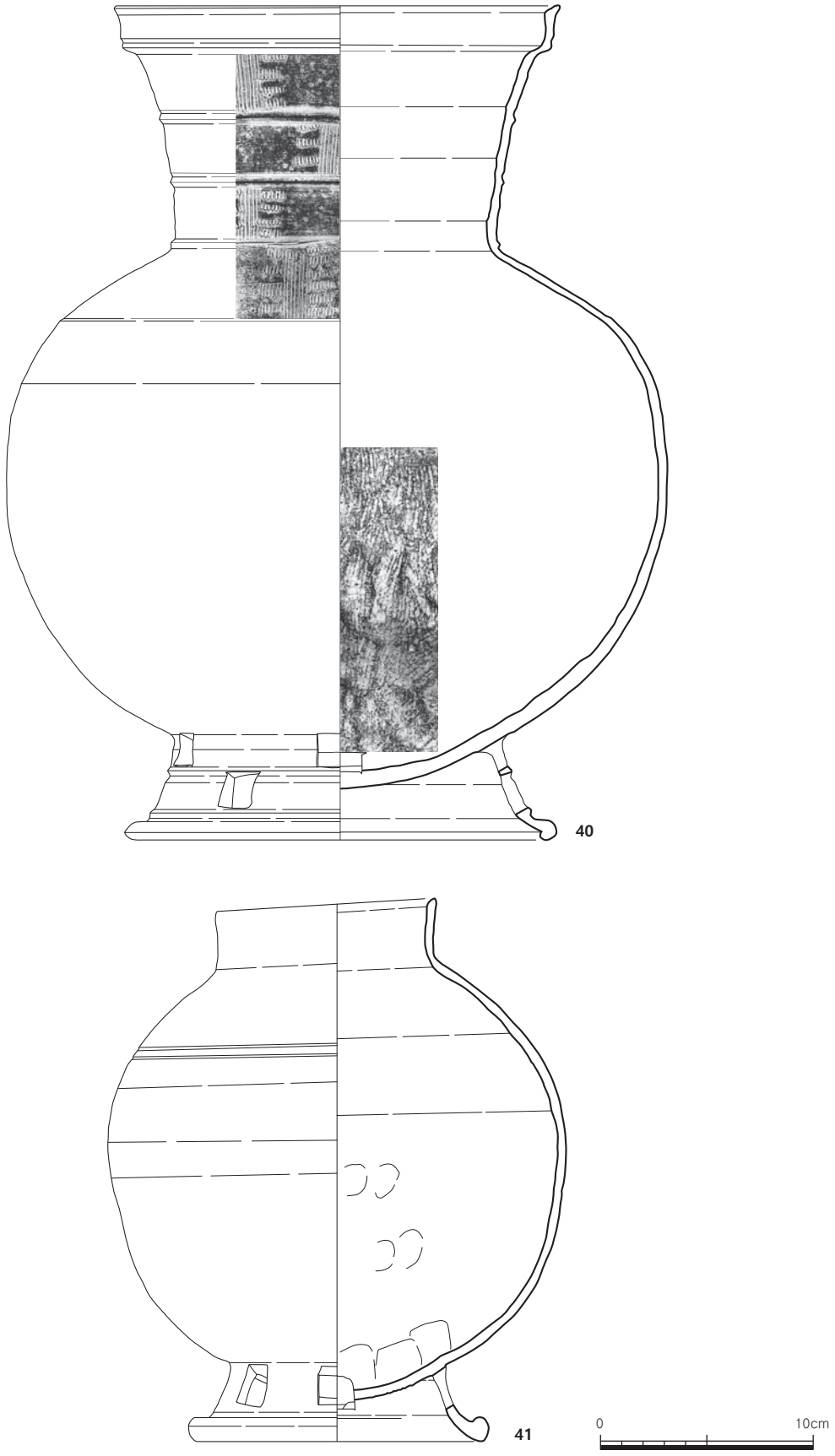
40. 부가구연대부장경호(도면 14-40, 도판 17-40)

구경부 일부와 대각 일부가 결실된 부가구연대부장경호이다. 경질 소성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외면과 속심은 회색(N 7/)이고, 내면은 회청색(N 6/)을 띤다. 신부 외면의 일부에는 암회황색(2.5Y 4/2)의 자연유가 흡착되었는데 일부는 산화 점상 박리되었다. 구연부는 부가구연으로 만들어 살짝 외반하고 있다. 경부는 2조의 돌대를 이용하여 3단 구획한 후 7치구를 이용하여 위에서 아래로 집선문을 그린 후 그 양쪽에 7치구로 짧은 집선문을 각 3~4개씩 그어 완성한 문양이 각 단마다 7개가 확인되며 이 문양을 상하교호로 배치하였다. 구경부와 견부의 경계는 1조의 돌대를 돌려 구분하였으며 견부에는 경부와 유사한 7치구를 이용한 집선문을 그린 후 집선문 양쪽에 7치구의 짧은 집선문을 그렸다. 짧은 집선문은 왼쪽은 5~6개씩, 오른쪽은 7~8개씩 그어 양쪽 집선문의 수가 다르게 시문하였다. 견부와 동체부는 돌대를 돌려 구분하였으며 동체는 원형이며 동최대경은 중상위에 위치하고 있다. 대각에는 2조의 돌대를 중위와 하위에 돌려 2단 구획한 후 상단에 장방형 투창 5개, 하단에 방형 투창 5개를 등간격으로 뚫었다. 내저면에는 박자흔이 확인되며 표면은 전체적으로 회전 물손질로 정면하였다.

기고 39.4㎝, 구경 20.8㎝, 대각경 19.9㎝, 두께 0.4㎝

41. 대부직구호(도면 14-41, 도판 17-41)

구연부 극히 일부와 동체 일부가 결실된 경질 소성의 대부직구호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석립이 소량 포함된 점토를 이용하였다. 색조는 외면과 속심은 회청색(N 6/), 내면은 회색(N 7/)을 띤다. 신부 외면과 구연부 내면 일부에 암회황색(2.5Y 4/2)의 자연유가 흡착되었으며 일부 산화되었다. 구경부는 직립하고 있으며 구연단은 뾰족하게 마무리하였다. 견부와 동체는 2조의 돌대를 돌려



도면 14. 삼국시대 석곽묘 3호 출토유물2

구분하였으나 돌대가 뚜렷하지 않다. 동체는 원형에 가까우며 동최대경은 중위에 자리하고 있다. 대각은 '八'자형이며 장방형 투창 7개를 등간격으로 뚫었다. 대각단은 밖으로 말아서 마무리하였다. 내저면에는 박자흔과 목리흔이 확인되며, 표면은 전체적으로 회전 물손질로 정면하였다.

기고 25.2㎝, 구경 10.8㎝, 대각경 13.4㎝, 두께 0.4㎝

42. 단경호(도면 15-42, 도판 17-42)

구연부 일부와 동체 일부가 결실된 단경호이다. 경질 소성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석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표면과 속심 모두 회청색(N 6/)이다. 저부는 원저이며 완만하게 올라가서 동 중위에서 최대경을 이룬 후 내만하여 경부에 이른다. 구경부는 완만하게 외반하나 구연단에서 급격히 외반하고 있다. 구경부 내면에 물레흔이, 내저면에 박자흔이 확인되며 표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기고 35.1㎝, 구경 22.0㎝, 두께 0.5㎝

43. 이식(도면 15-43, 도판 17-43)

금판이 일부 박리된 이식 1점이다. 두께 약 0.4cm 정도의 동봉을 얇은 금판으로 감싼 후 양 끝을 구부려 만든 세환이식이다. 금판을 구부릴 때 생긴 주름이 보인다. 평면형태와 단면형태는 원형이다.

지름 2.6㎝, 두께 0.4㎝, 무게 6.8g

44. 도자(도면 15-44, 도판 17-44)

단조품으로 완형의 철제 도자이다. 표면에 다량의 녹혹이 확인된다. 신부는 너비가 점점 넓어지며, 병부는 말단부로 갈수록 너비가 점점 좁아진다. 인부의 날은 뚜렷하며 신부의 단면형태는 이등변삼각형이고 병부의 단면형태는 이등변삼각형에 가깝다. 병부에 횡방향 목질흔이 관찰된다.

길이 13.5㎝, 너비 1.5㎝, 두께 0.4㎝, 무게 16.2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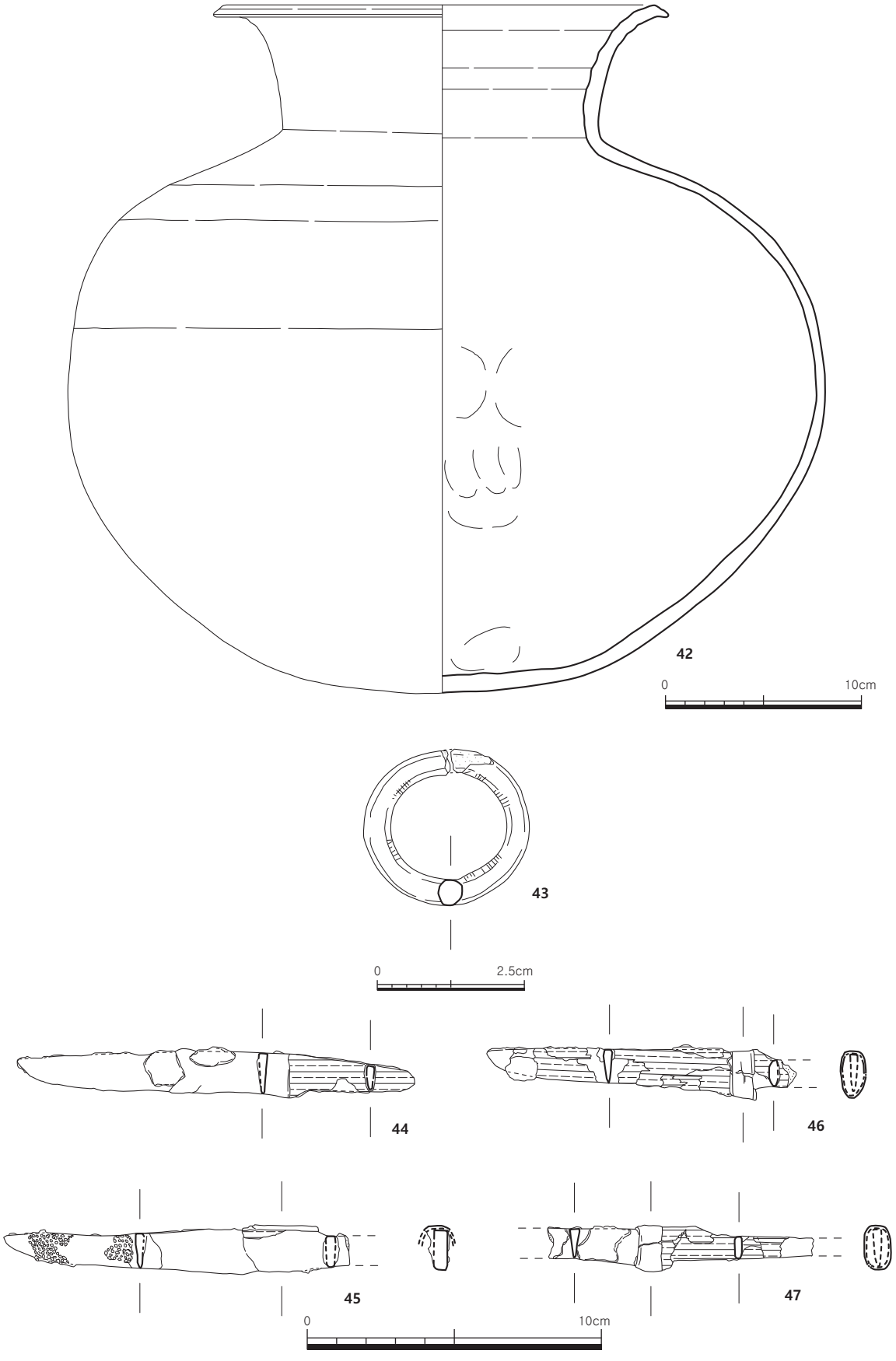
45. 도자(도면 15-45, 도판 17-45)

병부 일부가 결실된 철제 도자이다. 단조품이며 신부에 다량의 녹혹이 확인된다. 관부에는 병연금구가 일부 잔존하고 병부에는 횡방향 목질이 확인된다. 신부의 단면형태는 이등변삼각형이며 병부의 단면형태는 장방형이다.

잔존길이 11.9㎝, 너비 1.5㎝, 두께 0.4㎝, 무게 20.6g

46. 도자(도면 15-46, 도판 17-46)

병부 일부가 결실된 철제 도자이다. 단조품이며 신부 한 면에 목질흔이, 반대 면에는 녹혹이 확인된다. 인부는 날카로운 편이며 관부에는 은판을 구부려 만든 병연금구가 거의 완전한 형태로 잔존하고 있으며 관부에서 병부까지 횡방향 목질이 확인된다. 신부의 단면형태는 이등변삼각형이며 병부의 단면형태는 장타원형에 가깝다.



도면 15. 삼국시대 석곽묘 3호 출토유물3

잔존길이 10.5㎝, 너비 1.6㎝, 두께 0.4㎝, 무게 12.1g

47. 도자(도면 15-47, 도판 17-47)

인부 일부와 병부 일부가 결실된 철제 도자이다. 단조품이며 신부에 다량의 녹혹이 확인된다. 신부는 관부로 갈수록 넓어지며 관부에 목질을 감싼 병연금구가 거의 완전한 형태로 잔존하며 관부에서 병부까지 횡방향 목질이 확인된다. 신부의 단면형태는 이등변삼각형이며 병부의 단면형태는 장방형이다.

잔존길이 9.0㎝, 너비 1.5㎝, 두께 0.3㎝, 무게 10.1g

(4) 석곽묘 4호

가. 유구(도면 16, 도판 18~19-⑥)

조사구역 중앙에서 남쪽으로 약간 치우친 해발 2.5m 지점에서 확인된 횡구식 석곽묘이다. 석곽묘의 남장벽 일부와 남서쪽 모서리는 도굴로 인해 일부 파괴되었다. 북쪽으로 90㎝ 떨어져 옹관묘 3호가 있고, 북서쪽으로 250㎝ 떨어져서는 석곽묘 3호가 위치한다.

묘광은 암갈색사질토를 굴착하였는데,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묘광의 벽면은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였고 전체 규모는 길이 567㎝ · 너비 188㎝이다.

묘광 내부에는 동쪽으로 치우쳐 천석과 할석을 혼용하여 벽석을 축조하였다. 석곽의 규모는 길이 348㎝ · 너비 92㎝ · 깊이 37㎝로 장단비는 3.8:1이며, 장축방향은 동-서(N-80°-E)향이다. 벽석과 묘광 사이에는 암갈색사질토를 뒷채움하였다.

벽석의 축조방법은 북 · 남장벽의 경우 1단은 40×25㎝의 대형 할석을 가로 세워쌓기하였고, 2단부터 최상단까지는 15~30×10~20㎝의 천석을 사용하여 세로 눕혀쌓기하였다. 동단벽의 경우 40×30㎝의 대형 할석을 가로 세워쌓기하였다. 서단벽은 남벽과 북벽에 잇대어 설치하였다. 최하단부에는 30×20㎝의 대형 천석과 할석을 각 1매씩 가로 세워쌓기하였으며, 2단부터 최상단까지는 15~20×10~20㎝의 천석을 세로 눕혀쌓기하였다. 바닥면에는 별도의 시상은 설치하지 않았으나 약 10㎝ 가량의 두께로 회와 회갈색점토를 섞어 편평하게 정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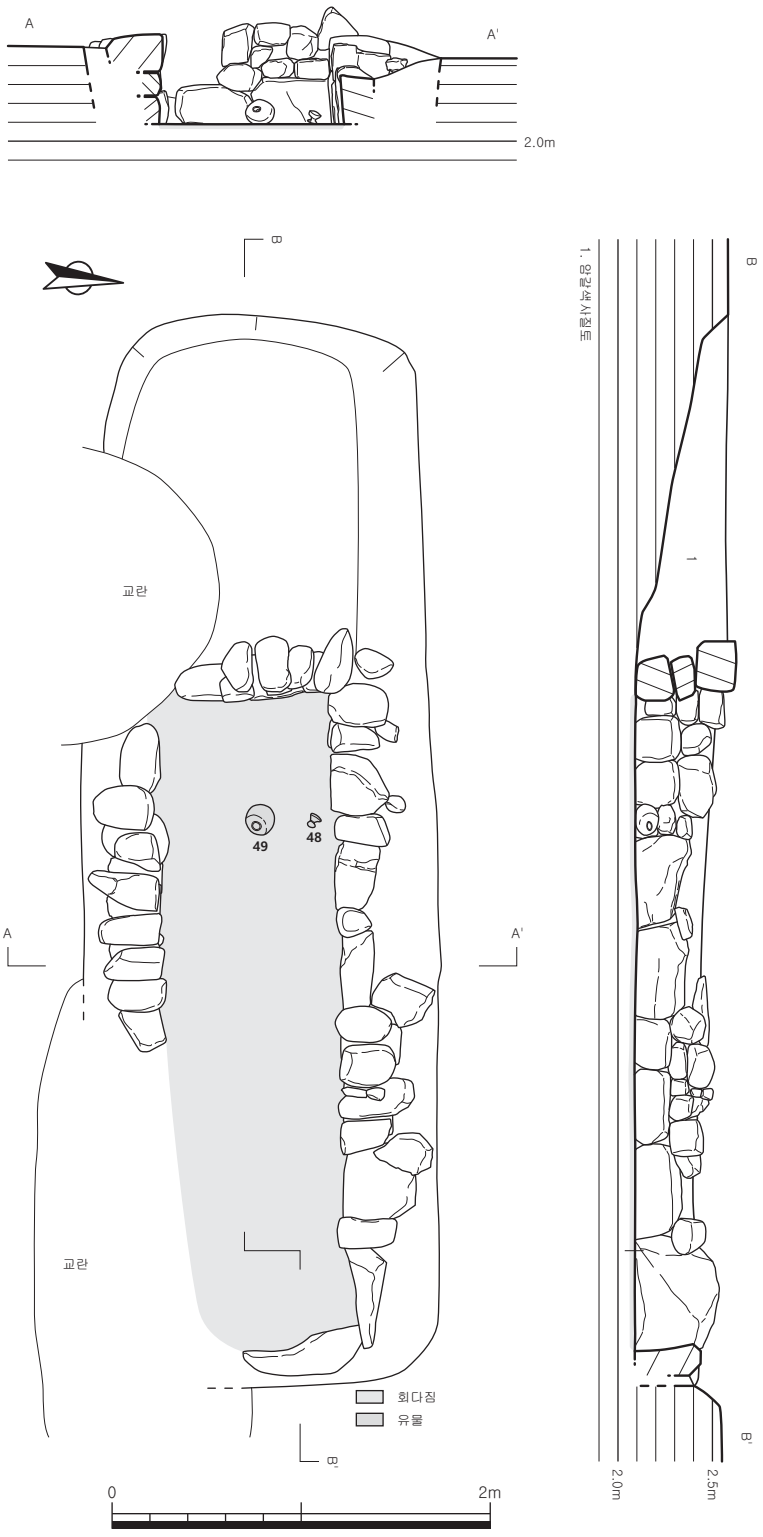
서쪽의 묘도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완만하게 경사를 이루고, 서장벽 축조 후 내부 암갈색사질토를 뒷채움하였다. 묘도의 규모는 길이 172㎝ · 너비 166㎝ · 최대 깊이 45㎝이다.

유물은 서단벽 부근에서 대부장경호 1점과 유개고배 1점 등 총 2점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48. 유개고배(도면 17-48, 도판 19-48)

개-신부가 상당부분 결실된 개다. 경질 소성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외면 상단은 회백색(2.5Y 7/2), 외면 하단은 황회색(2.5Y 6/1), 내면은 회색(N 6/), 속심은 회백색(N 7/)을 띠고 있다. 외면 색이 다른 것으로 보아 중첩소성한 듯하다.



도면 16. 삼국시대 석곽묘 4호

꼭지는 단추형이고 신부는 완만하게 만곡하여 드림으로 이어진다. 드림은 드림턱이 짧게 돌출되었으며 드림단은 직립하고 있다. 드림턱과 드림단은 모두 둥글게 처리하였다. 내면에 지두압흔과 물레흔이 확인되며 표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고배-구연부와 대각이 극히 일부 결실되어 완형에 가까운 이단투창고배이다. 경질 소성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다량 포함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배신 표면은 회청색(N 4/), 대각 표면은 회색(N 6/)을 띠고 있다. 구연은 직립에 가까우며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뚜껑받이턱은 짧게 돌출되어 있으며 신부는 완만하게 만곡하며 대각으로 이어진다. 대각은 '八'자형으로 2조의 돌대를 돌려 2단으로 구획을 나눈 후 상단에 장방형 투창 4개, 하단에 방형의 투창 4개를 불규칙한 간격으로 뚫어 상하교호로 배치하였다. 내저면에 지두압흔이 확인되며 표면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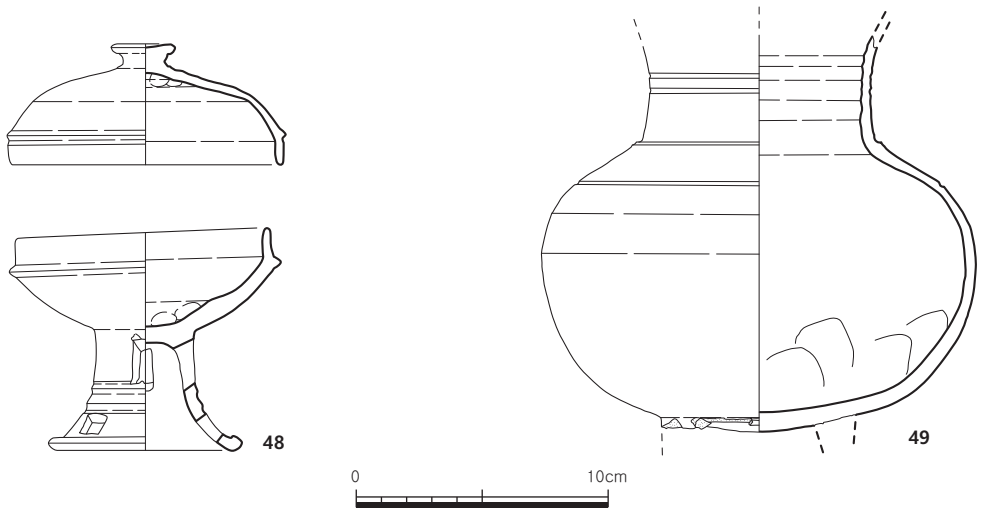
개 : 기고 4.8㎝, 구경 10.8㎝, 꼭지경 2.5㎝, 두께 0.3㎝

고배 : 기고 8.6㎝, 구경 10.0㎝, 대각경 7.7㎝, 두께 0.5㎝

49. 대부장경호(도면 17-49, 도판 19-49)

구경부 일부와 대각이 결실된 경질 소성의 대부장경호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표면과 속심이 회청색(N 6/)을 띤다. 잔존하는 경부는 2조의 홈을 돌려 단을 나누었다. 구경부와 견부의 경계 및 견부와 동체부의 경계는 1조의 침선을 돌려 구분하였다. 동체는 편구형에 가까우며 동최대경은 중위에 자리하고 있다. 대각 부착흔 및 잔존상태로 보아 각기 다른 크기의 투창 6개를 뚫었다. 내면에는 박자흔과 물레흔이 확인되며 전체적으로 회전 물손질로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15.6㎝, 두께 0.4㎝



도면 17. 삼국시대 석곽묘 4호 출토유물

(5) 석곽묘 5호

가. 유구(도면 18, 도판 20~22-③)

조사구역 남쪽 중앙에서 동쪽으로 약간 치우친 해발 2.5m에서 확인되었다. 북장벽과 남장벽이 서쪽으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석곽의 서단벽은 조사경계 외곽으로 연장되어 확인되지 않았다. 석곽묘의 남동쪽과 남서쪽 모서리 부근은 도굴 및 후대 교란에 의해 일부 훼손되어 있다. 북쪽으로 50 · 300㎝ 떨어져 옹관묘 4호와 석곽묘 4호가 각각 있고, 북서쪽으로 350㎝ 떨어져서는 석곽묘 6호가 위치한다.

묘광은 암갈색사질토를 평면 장방형의 형태로 굴착하고 축조하였으며, 노출 규모는 길이 418㎝ · 너비 136㎝이다. 묘광 내부에는 천석을 사용하여 석곽을 축조하였으며, 석곽의 규모는 노출 길이 312㎝ · 너비 101㎝ · 깊이 98㎝로 장단비는 3.1:1이며, 장축방향은 동-서(N-75°-E)향이다. 벽석과 묘광 사이에는 흑갈색사질토를 뒷채움하였다.

벽석은 동단벽 → 남장벽 → 북장벽 순으로 축조하였다. 축조방법은 1단의 벽석을 설치한 후 2단부터는 장벽과 단벽이 서로 맞물리게 쌓아올렸다. 각 벽석의 1단은 20~30×10~20㎝의 천석을 가로 눕혀쌓기하였고, 2단부터 최상단까지는 15~30×10~20㎝의 천석을 사용하여 세로 눕혀쌓기하였다. 석곽 내부에는 동단벽에서 서쪽으로 약 280㎝ 간격을 두고 격벽을 시설되었다. 격벽은 벽 축조에 사용된 석재와 동일한 천석을 사용하여 시설하여 피장칸과 부장칸으로 분리하였으며, 격벽은 4단 정도 잔존한다. 피장칸 바닥 전면에는 잔자갈을 깔아 시상을 설치하였으며, 시상의 크기는 길이 305㎝ · 너비 96㎝이다. 부장칸은 조사경계와 접하고 있어 조사가 불가능하여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물은 피장칸의 동단벽 부근에서 유개고배 3점, 개 1점, 도자 1점, 이식 1점 등 총 6점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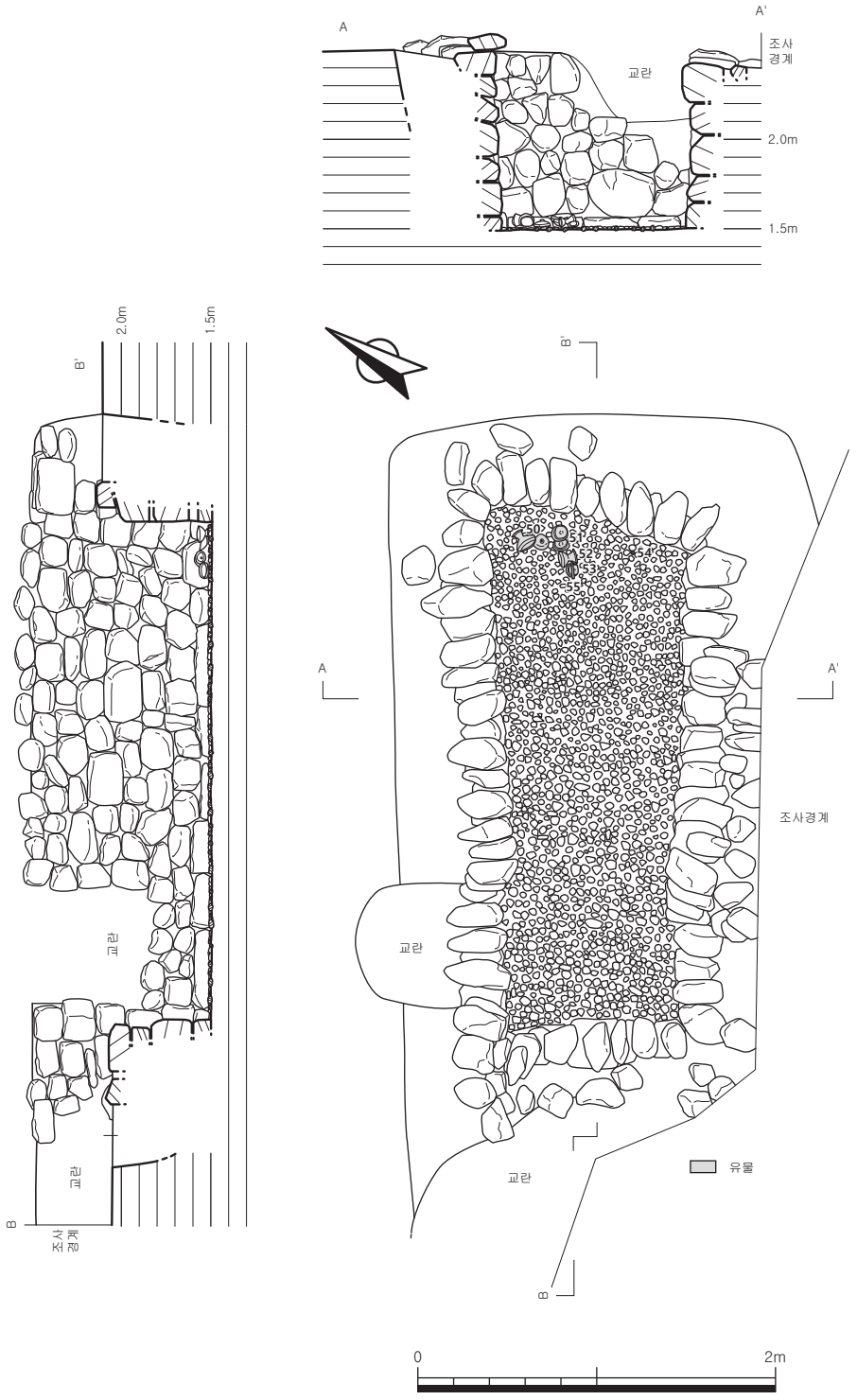
50. 유개고배(도면 19-50, 도판 22-50)

개-신부가 전체적으로 휜 완형의 개다. 경질 소성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외면은 회청색(N 6/), 내면은 회백색(N 7/)을 띠고 있다. 꼭지는 단추형이고 신부는 반구형으로 완만하게 만곡하여 드림으로 이어진다. 드림턱이 짧게 돌출되었으며 드림단은 직립하고 있다. 드림턱과 드림단은 모두 둥글게 처리하였다. 외면 상단에 나선형의 침선을 돌렸으나 뚜렷하지 않다. 내면에 물레흔과 지두압흔이 확인되며 표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고배-구연부가 극히 일부 결실되어 완형에 가까운 이단투창고배이다. 경질 소성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다량 포함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외면과 속심은 회백색(N 6/), 내면은 회청색(N 6/)을 띠고 있다. 구연은 내경하며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뚜껑받이턱은 짧게 돌출되어 있으며 신부는 완만하게 만곡하며 대각으로 이어진다. 대각은 절두원추형으로 중위에 2조의 돌대를 돌린 후 상하단에 장방형 투창 각 3개를 불규칙한 간격으로 뚫었으며 상하교호로 배치하였다. 표면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개 : 기고 6.6㎝, 구경 12.8㎝, 꼭지경 2.6㎝, 두께 0.2㎝

고배 : 기고 10.2㎝, 구경 11.6㎝, 대각경 9.1㎝, 두께 0.4㎝



도면 18. 삼국시대 석곽묘 5호

51. 유개고배(도면 19-51, 도판 22-51)

개-신부 외면이 극히 결실되었으나 완형에 가까운 개다. 경질 소성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나 신부가 약하게 휘었으며 태토는 세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외면은 적갈색(5YR 4/3), 회청색(N 6/), 회백색(N 7/)이, 내면은 회백색(N 7/), 속심은 자흑색(5RP 2/1)을 띠고 있다. 내면 구연부에 회녹색(7.5Y 5/2)의 자연유가 흡착되어 있다. 꼭지는 단추형이고 신부는 반구형으로 완만하게 만곡하여 드림으로 이어진다. 드림턱이 짧게 돌출되었으며 드림단은 직립하고 있다. 드림턱과 드림단은 모두 둥글게 처리하였다. 외면 상단에 나선형의 침선을 돌렸으며 하단에 다른 토기의 편이 일부 부착되어 중첩소성흔이 확인된다. 내면에 물레흔과 점토접합흔, 지두압흔이 확인되며 표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고배 - 완형의 이단투창고배이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다량 포함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외면은 회청색(N 5/)과 회백색(N 6/)으로 양분되어 있고, 내면은 회청색(N 4/)을 띠고 있다. 뚜껑받이턱과 대각 일부에 회녹색(7.5Y 5/2)의 자연유가 흡착되어 있으며 일부 산화 점상 박락되었다. 구연은 내경하며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뚜껑받이턱은 짧게 돌출되어 있으며 신부는 완만하게 만곡하며 대각으로 이어진다. 대각은 약하게 휜 '八'자형으로 중위에 2조의 돌대를 돌린 후 상하단에 장방형 투창 각 3개를 불규칙한 간격으로 뚫었으며 상하교호로 배치하였다. 표면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개 : 기고 6.2㎝, 구경 12.5㎝, 꼭지경 2.6㎝, 두께 0.4㎝

고배 : 기고 9.6㎝, 구경 10.8㎝, 대각경 8.4㎝, 두께 0.3㎝

52. 유개고배(도면 19-52, 도판 22-52)

개-완형의 개다. 경질 소성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석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외면은 회청색(N 6/)이, 내면은 회백색(N 7/)을 띠고 있다. 표면 구연부에 회녹색(7.5Y 5/2)의 자연유가 흡착되어 있다. 꼭지는 단추형이고 신부는 반구형으로 완만하게 만곡하여 드림으로 이어진다. 드림턱은 거의 흔적만 남았으며 드림단은 직립하고 있다. 드림턱은 뾰족하게, 드림단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내면에 물레흔과 지두압흔이 확인되며 표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고배-구연부가 일부 결실되었으나 완형에 가까운 이단투창고배이다. 경질 소성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다량 포함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표면은 회청색(N 5/), 속심은 적회색(5R 5/1)을 띠고 있다. 뚜껑받이턱과 신부 내면, 대각 일부에 회녹색(7.5Y 5/2)의 자연유가 흡착되어 있으며 일부 산화 점상 박락되었다. 구연은 내경하며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뚜껑받이턱은 짧게 돌출되어 있으며 신부는 완만하게 만곡하며 대각으로 이어진다. 대각은 '八'자형으로 중위에 2조의 돌대를 돌린 후 상하단에 장방형 투창 각 3개를 불규칙한 간격으로 뚫었으며 상하교호로 배치하였다. 표면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개 : 기고 5.8㎝, 구경 13.2㎝, 꼭지경 2.7㎝, 두께 0.3㎝

고배 : 기고 9.9㎝, 구경 12.3㎝, 대각경 8.7㎝, 두께 0.4㎝

53. 개(도면 19-53, 도판 22-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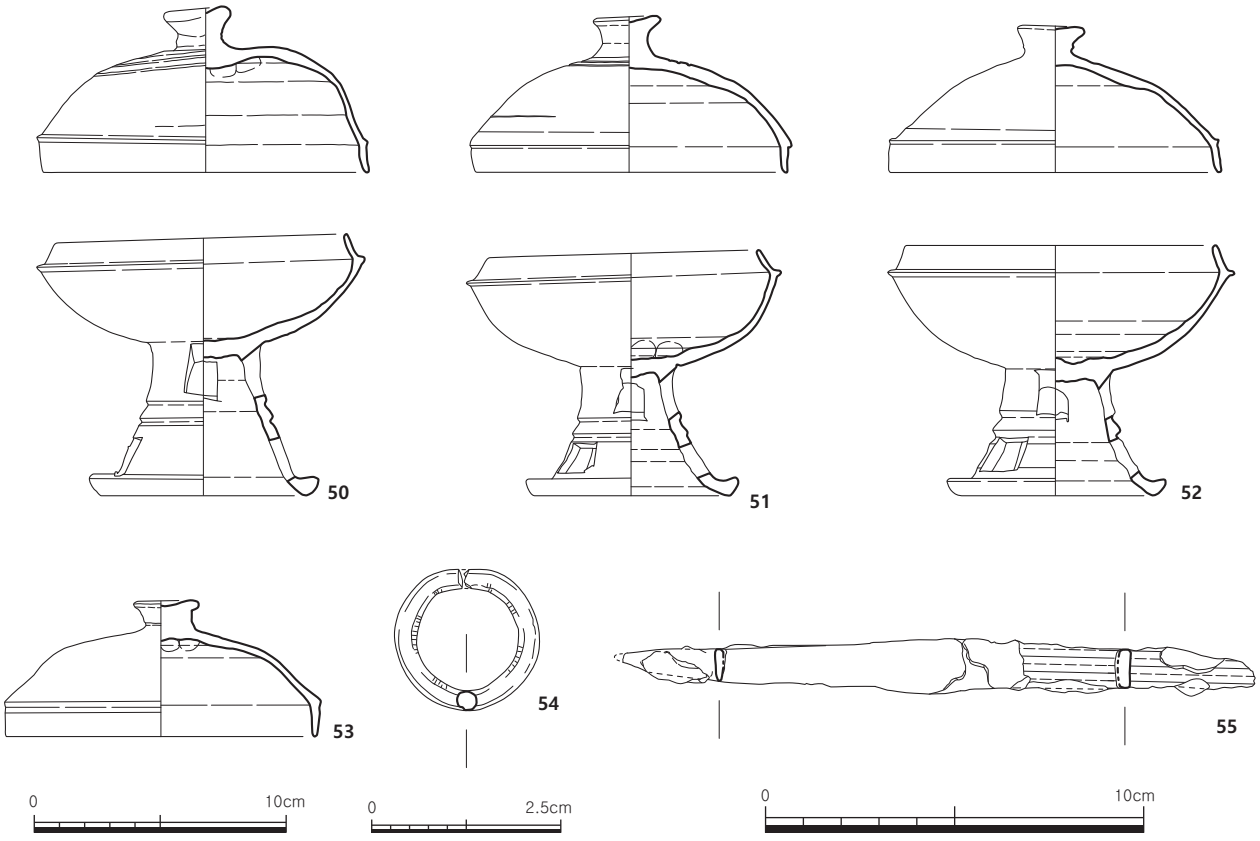
완형의 개다. 경질 소성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석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표면 색조는 회청색(N 6/)을 띠고 있다. 표면 구연부에 회녹색(7.5Y 5/2)의 자연유가 흡착되어 있다. 꼭지는 단추형이고 신부는 반구형으로 완만하게 만곡하여 드림으로 이어진다. 드림턱은 흔적만 남았으며 드림단은 직립하고 있다. 드림단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내면에 물레흔과 지두압흔이 확인되며 표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기고 5.4㎝, 구경 12.4㎝, 꼭지경 2.5㎝, 두께 0.3㎝

54. 이식(도면 19-54, 도판 22-54)

완형의 이식 1점으로 다른 유구에서 출토된 이식보다 현저히 소형이다. 두께 약 0.2cm 정도의 동봉을 얇은 금판으로 감싼 후 양 끝을 구부려 만든 세환이식이다. 금판을 구부릴 때 생긴 주름이 보인다. 평면형태와 단면형태는 원형이다.

지름 1.8㎝, 두께 0.2㎝, 무게 1.7g



도면 19. 삼국시대 석곽묘 5호 출토유물

55. 도자(도면 19-55, 도판 22-55)

인부가 극히 일부 결실되어 완형에 가까운 철제 도자이다. 단조품이며 신부에 녹혹이 확인된다. 신부가 휘었으며 다른 유구의 도자에 비해 너비가 좁다. 병부에는 횡방향 목질이 확인된다. 신부의 단면형태는 이등변삼각형이며 병부의 단면형태는 장방형이다.

길이 16.7㎝, 너비 1.5㎝, 두께 0.2~0.3㎝, 무게 22.3g

(6) 석곽묘 6호

가. 유구(도면 20, 도판 23~25)

조사구역 중앙에서 동쪽으로 치우친 해발 2.5m에 위치한다. 석곽묘의 벽석은 도굴로 인해 부분적으로 훼손되었다. 남쪽으로 200 · 350㎝ 떨어져 옹관묘 4호와 석곽묘 5호가 각각 있고, 서쪽으로 210㎝ 떨어져서는 석곽묘 4호가 위치한다.

묘광은 암갈색사질토를 굴착하였는데,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전체 규모는 길이 392㎝ · 너비 194㎝이다. 묘광 내부에는 천석을 사용하여 석곽을 축조하였는데, 벽석은 1~3단이 잔존해 있다. 석곽의 규모는 길이 301㎝ · 너비 116㎝ · 깊이 45㎝로 장단비는 2.59:1이며, 장축방향은 동-서(N-82°-W)향이다. 벽석과 묘광 사이에는 암갈색사질토를 뒷채움하였다.

벽석은 동단벽 → 남장벽 → 북장벽 → 서단벽 순으로 축조하였다. 축조방법은 1단의 벽석을 설치한 후 2단부터는 장벽과 단벽이 사로 맞물리게 쌓아올렸다. 각 벽석은 1단은 20~40×10~20㎝의 천석을 가로 눕혀쌓기한 후 2단부터 최상단까지 15~25×10~20㎝의 천석을 사용하여 세로 눕혀쌓기하였다. 바닥면에는 10㎝ 내외의 납작한 자갈을 깔아 시상을 설치하였으며, 시상의 규모는 길이 196㎝ · 너비 100㎝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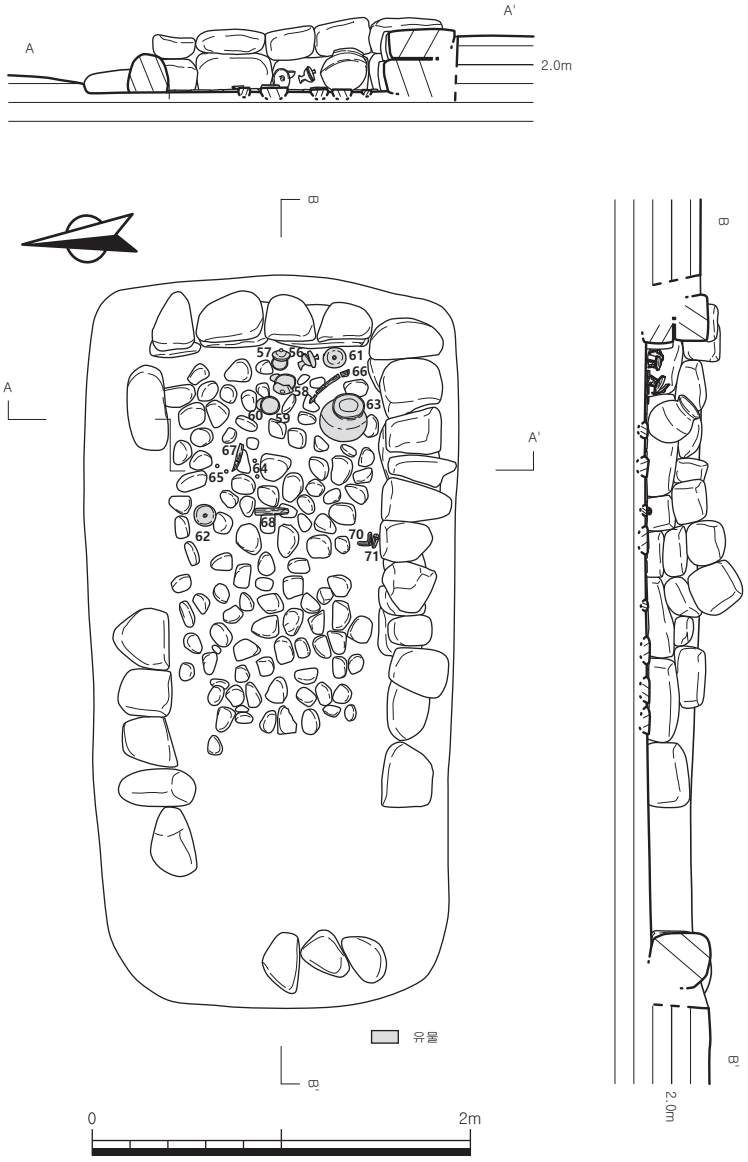
유물은 동단벽 부근에서 단경호 1점 · 병 2점 · 유개고배 3점 · 고배 1점 · 개 1점 · 도자 4점, 뿔모루 1점 · 망치 1점 · 이식 2쌍 등 총 16점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56. 유개고배(도면 21-56, 도판 26-56)

개-구연부가 극히 일부 결실된 완형에 가까운 개다. 경질 소성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외면 상단은 회청색(N 6/), 외면 하단은 회백색(N 7/)이, 내면은 회청색(N 5/)을 띠고 있다. 꼭지는 단추형이고 신부는 납작한 완만하게 드림으로 이어진다. 드림턱은 짧게 돌출되었으며, 드림단은 직립하고 있다. 드림턱은 둥글게, 드림단은 뾰족하게 처리하였다. 표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고배 - 대각 일부가 결실되었으나 완형에 가까운 일단투창고배이다. 경질 소성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다량 포함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외면과 속심은 회색(N 6/), 내면은 회청색(N 4/)을 띠고 있다. 구연은 내경하며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뚜껑받이턱은 짧게 돌출되어 있으며 신부는 사선으로 대각으로 이어진다. 대각은 '八'자형으로 장방형 투창 3개를 불규칙한 간



도면 20. 삼국시대 석곽묘 6호

격으로 뚫었다. 표면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개 : 기고 4.4㎝, 구경 11.6㎝, 꼭지경 2.6㎝, 두께 0.4㎝

고배 : 기고 7.5㎝, 구경 10.0㎝, 대각경 6.5㎝, 두께 0.2~0.8㎝

57. 유개고배(도면 21-57, 도판 26-57)

개-구연단이 극히 일부 결실된 완형에 가까운 개다. 경질 소성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외면 상단은 회백색(N 7/), 외면 하단은 회청색(N

4/), 내면과 속심은 회청색(N 5/)을 띠고 있다. 꼭지는 단추형이고 신부는 납작한 완만하게 드림으로 이어진다. 드림턱은 짧게 돌출되었으며, 드림단은 직립하고 있다. 드림턱은 둥글게, 드림단은 뾰족하게 처리하였다. 내면에 지두압흔과 물레흔이 확인되며 표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고배-구연 일부가 결실되었으나 완형에 가까운 일단투창고배이다. 경질 소성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다량 포함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외면은 회청색(N 5/), 내면은 암회황색(2.5Y 5/2), 속심은 암자회색(5RP 4/1)을 띠고 있다. 구연은 내경하며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뚜껑받이턱은 짧게 돌출되어 있으며 신부는 사선으로 대각으로 이어진다. 대각은 '八'자형으로 장방형 투창 3개를 불규칙한 간격으로 뚫었다. 대각단은 삼각형을 이룬다. 표면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개 : 기고 4.7㎝, 구경 10.8㎝, 꼭지경 2.6㎝, 두께 0.4㎝

고배 : 기고 7.2㎝, 구경 9.2㎝, 대각경 6.4㎝, 두께 0.4㎝

58. 유개고배(도면 21-58, 도판 26-58)

개-구연 일부가 결실된 개다. 경질 소성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외면 상단은 회백색(N 7/), 외면 하단은 회색(N 5/), 내면은 회색(N 6/), 속심은 암자회색(5RP 4/1)을 띠고 있다. 꼭지는 단추형이고 신부는 납작한 반구형으로 완만하게 드림으로 이어진다. 드림턱은 짧게 돌출되었으며, 드림단은 직립하고 있다. 드림턱은 둥글게, 드림단은 뾰족하게 처리하였다. 내면에 지두압흔과 물레흔이 확인되며 표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고배-대각 일부가 결실된 일단투창고배이다. 경질 소성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다량 포함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외면은 회청색(N 5/), 내면은 암회황색(2.5Y 5/2), 속심은 암자회색(5RP 4/1)을 띠고 있다. 구연은 내경하며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뚜껑받이턱은 짧게 돌출되어 있으며 신부는 사선으로 대각으로 이어진다. 대각은 '八'자형에 가깝고 장방형 투창 3개를 불규칙한 간격으로 뚫었다. 표면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개 : 기고 4.3㎝, 구경 10.7㎝, 꼭지경 2.7㎝, 두께 0.4㎝

고배 : 기고 6.6㎝, 구경 9.6㎝, 대각경 6.0㎝, 두께 0.5㎝

59. 개(도면 21-59, 도판 26-59)

경질 소성의 구연 일부가 결실된 개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외면 상단은 회백색(N 7/), 외면 하단은 회청색(N 5/), 내면은 회색(N 6/), 속심은 암자회색(5RP 4/1)을 띠고 있다. 중첩소성 등으로 외면 색조가 나눠진 것으로 보인다. 꼭지는 단추형이고 신부는 납작한 반구형으로 완만하게 드림으로 이어진다. 드림턱은 짧게 돌출되었으며, 드림단은 직립하고 있다. 드림턱은 둥글게, 드림단은 뾰족하게 처리하였다. 내면에 지두압흔과 물레흔이 확인되며 표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기고 4.3㎝, 구경 11.0㎝, 꼭지경 2.7㎝, 두께 0.3㎝

60. 고배(도면 21-60, 도판 26-60)

경질 소성의 신부 일부와 대각 일부가 결실된 일단투창고배이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다량 포함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외면은 회색(N 6/), 내면은 회청색(N 5/), 속심은 암자회색(5RP 4/1)을 띠고 있다. 구연은 내경하며 구연단은 뾰족하게 처리하였다. 뚜껑받이턱은 짧게 돌출되어 있으며 납작한 신부는 사선으로 대각으로 이어진다. 대각은 절두원추형으로 장방형 투창 4개를 불규칙한 간격으로 뚫었다. 표면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기고 6.7㎝, 복원구경 9.9㎝, 복원대각경 6.4㎝, 두께 0.4㎝

61. 병(도면 21-61, 도판 26-61)

구연부가 결실된 병이다. 경질 소성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외면은 황회색(2.5Y 6/1), 속심은 회백색(2.5Y 7/1)을 띠고 있다. 외면 일부에 회녹색(7.5Y 5/2)의 자연유가 흡착되어 있으며 일부 산화 점상 박락되었다. 저부는 평저이며 동체는 편구형으로 완만하게 올라가 중하위에서 동최대경을 이룬 후 내만하여 직립하는 경부로 이어진다. 기벽에서 기포가 확인되며 견부에는 이물질이 부착되어 있다. 저위에는 2단의 반시계방향의 깎기흔이. 바닥에는 깎기흔과 지두압흔이 확인되며 외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9.7㎝, 저경 6.0㎝, 두께 0.5㎝

62. 병(도면 21-62, 도판 26-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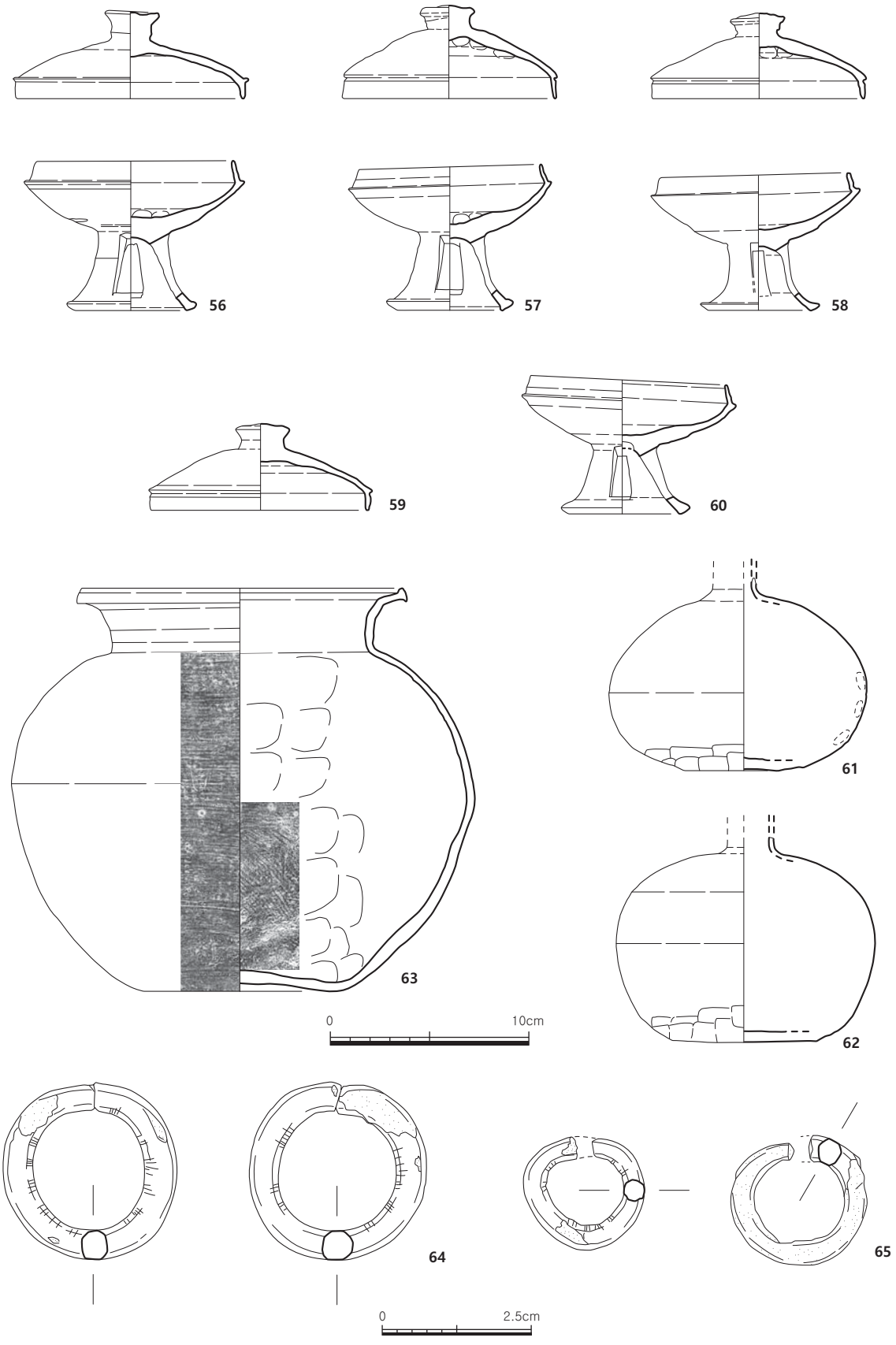
경질 소성의 병으로 구연부가 결실되었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외면은 황회색(2.5Y 6/1), 속심은 회황색(2.5Y 7/2)을 띠고 있다. 외면 일부에 회녹색(7.5Y 5/2)의 자연유가 두껍게 흡착되어 있다. 저부는 평저이며 동체는 구형에 가까우며 완만하게 올라가 중위에서 동최대경을 이룬 후 만곡하게 내만하여 직립하는 경부로 이어진다. 저부에는 2단 깎기흔과 다른 토기편의 일부가 띠처럼 부착되어 있어 중첩소성흔이 확인된다. 바닥에는 지두압흔이 보이며 외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10.3㎝, 저경 7.3㎝, 두께 0.4㎝

63. 단경호(도면 21-63, 도판 26-63)

경질 소성의 단경호로 완형이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회청색(N 5/)을 띠고 있다. 저부는 가운데가 오목한 말각평저이며 동체는 구형에 가까우며 완만하게 올라가 중상위에서 동최대경을 이룬 후 만곡하게 내만하여 경부로 이어진다. 경부부터 구연에 이르러 급격히 외반하고 있다. 외면 전체에 집선문을 타날하였으나 물손질정면하여 구경부의 집선문은 희미하게 잔존하고 동체의 집선문은 뚜렷하게 잔존하고 있다. 내면에는 박자흔과 물손질 정면흔이 확인된다.

기고 20.2㎝, 구경 16.3㎝, 저경 10.0㎝, 두께 0.4㎝



도면 21. 삼국시대 석곽묘 6호 출토유물1

64. 이식(도면 21-64, 도판 26-64)

이식 1쌍으로 2점 모두 금판이 박리되어 동봉이 일부 노출되어 있다. 두께 약 0.5cm 정도의 동봉을 얇은 금판으로 감싼 후 양 끝을 구부려 만든 세환이식이다. 금판을 구부릴 때 생긴 주름이 보인다. 평면형태와 단면형태는 원형이다.

지름 2.9㎝, 두께 0.5㎝, 무게 10.3g

지름 3.0㎝, 두께 0.5㎝, 무게 10.4g

65. 이식(도면 21-65, 도판 26-65)

이식 1쌍으로 1점은 금판이 일부 박리되었으나 1점은 금판이 대부분 박리되어 동봉이 노출되어 있다. 두께 약 0.4cm 정도의 동봉을 얇은 금판으로 감싼 후 양 끝을 구부려 만든 세환이식이다. 금판을 구부릴 때 생긴 주름이 보인다. 평면형태와 단면형태는 원형에 가까우나 살짝 휘었다.

지름 1.9㎝, 두께 0.4㎝, 무게 3.1g

지름 2.2㎝, 두께 0.4㎝, 무게 2.6g

66. 도자(도면 22-66, 도판 27-66)

완형의 철제 도자이다. 단조품이며 신부와 병부 전체에 횡방향 목질흔이 확인된다. 인부는 날까로운 편이며 관부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신부의 단면형태는 이등변삼각형이고, 병부의 단면형태는 세장방형이다

길이 20.4㎝, 너비 2.6㎝, 두께 0.4㎝, 무게 56.8g

67. 도자(도면 22-67, 도판 27-67)

인부가 일부 결실된 철제 도자이다. 단조품이며 신부에 목질흔이 다수 확인된다. 신부는 관부로 갈수록 넓어지며 관부에는 목질을 감싼 병연금구가 완전한 형태로 잔존하고 있다. 병부에는 횡방향 목질이 확인된다. 신부의 단면형태는 이등변삼각형이며 병부의 단면형태는 장방형이다.

잔존길이 16.3㎝, 너비 2.3㎝, 두께 0.4㎝, 무게 43.9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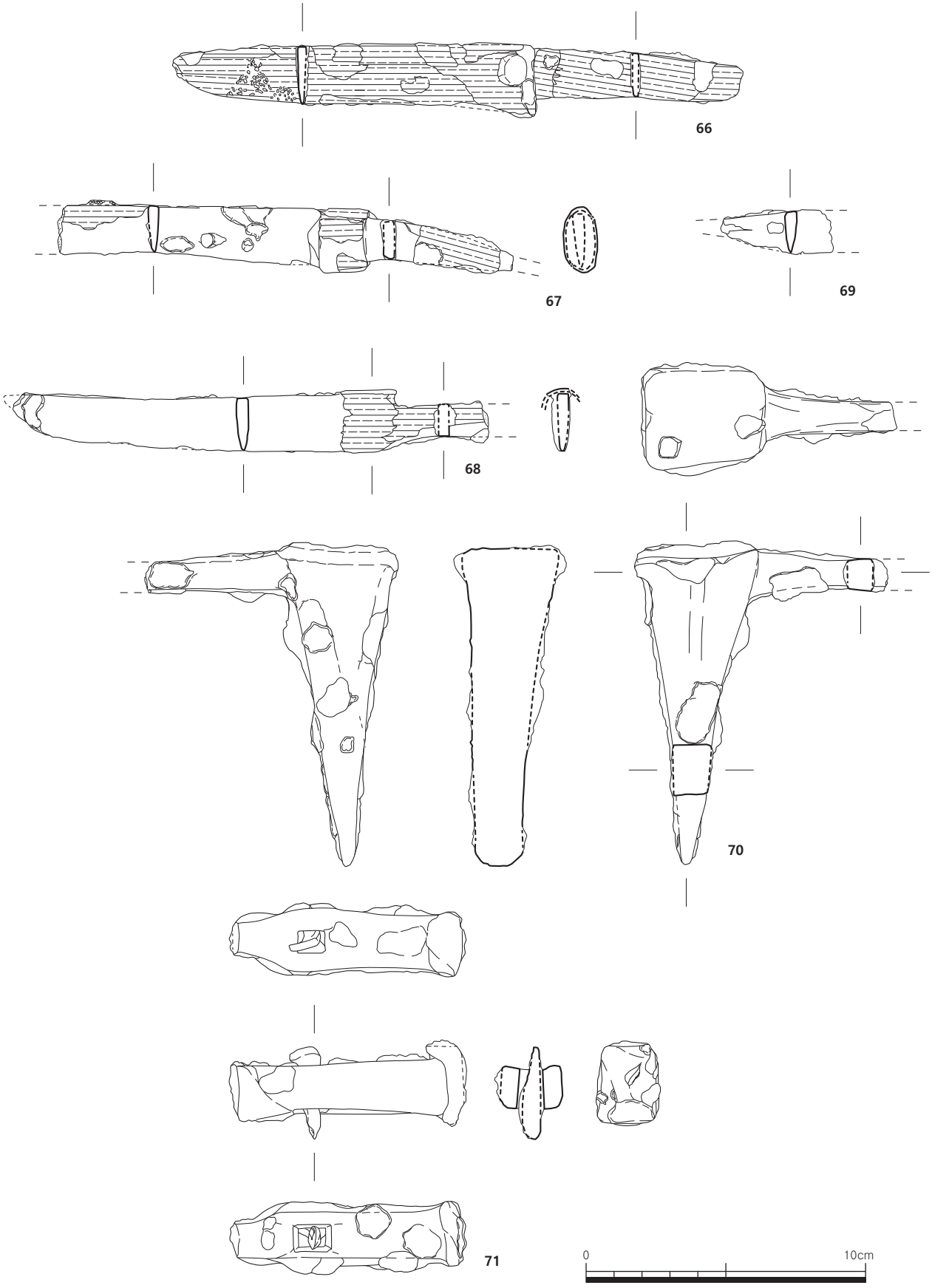
68. 도자(도면 22-68, 도판 27-68)

인부 극히 일부와 병부 일부가 결실된 철제 도자이다. 단조품이며 신부에 작은 녹혹이 다수 확인된다. 신부에서 관부로 갈수록 넓어지며 관부에는 병연금구가 일부 잔존하고 있으며 관부에서 병부 말단부까지 횡방향 목질이 확인되고 있다. 신부의 단면형태는 이등변삼각형이며 병부의 단면형태는 장방형이다.

잔존길이 17.0㎝, 너비 2.2㎝, 두께 0.4㎝, 무게 41.8

69. 도자(도면 22-69, 도판 27-69)

인부 일부 잔존하고 있는 철제 도자이다. 신부 외면에 녹혹이 다수 확인되며 단면형태는 이등변삼



도면 22. 삼국시대 석곽묘 6호 출토유물2

각형이다.

잔존길이 4.0㎝, 너비 1.6㎝, 두께 0.4㎝

70. 뿔모루(도면 22-70, 도판 27-70)

손잡이가 일부 결실된 뿔모루이다. 단조품으로 일체형으로 제작되었다. 신부 전체에 다수의 녹혹이 확인된다. 모루의 평면형태는 삼각형, 단면형태는 장방형에 가깝다. 두부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에 가까우며 잦은 타격으로 인해 면이 옆으로 눌려져 있다. 각부는 뾰족하게 처리하였다. 손잡이의 단면형태는 방형에 가깝다.

각부 길이 11.5㎝, 두께 1.6~3.4㎝, 두부 너비 3.2×4.3㎝, 손잡이 두께 1.1㎝

71. 망치(도면 22-71, 도판 27-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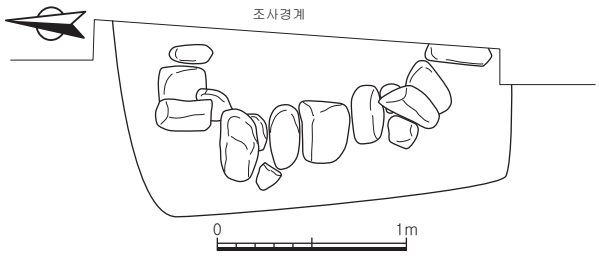
철제 망치로 손잡이를 제외한 머리부분만 잔존하고 있다. 신부 전체에 녹혹이 다수 확인된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에 가까우며 한 면은 좁고 다른 쪽 면은 신부와 같은 너비로 이어진다. 좁은 면에 연접하여 장방형의 구멍(1.5×1.1㎝)이 있으며 구멍 내 손잡이를 고정하기 위한 못이 확인된다. 넓은 면은 면이 옆으로 눌려져 있어 많이 사용된 듯하다.

길이 8.4㎝, 너비 2.1㎝, 두께 2.4㎝, 무게 167.8g

(7) 석곽묘 7호

가. 유구(도면 23, 도판 28-①~④)

조사구역 동쪽 경계에서 북쪽으로 약간 치우친 해발 2.5m에 위치하고, 조사구역 외곽으로 연장된다. 서쪽으로 220㎝ 떨어져 석곽묘 2호가 있고, 북서쪽으로 310㎝ 떨어져서는 석곽묘 1호가 위치한다.



도면 23. 삼국시대 석곽묘 7호

이번 조사구역 내에서 석곽묘의 서단벽 일부만 노출됨에 따라 탐색 트렌치를 설정하여 묘광의 축조양상을 확인하는 선에서 조사를 마무리하였다. 탐색 트렌치의 토층양상으로 보아 묘광은 암갈색사질토를 수직에 가깝게 굴착한 것으로 보이며, 내부에 천석을 사용하여 벽석을 축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옹관묘

(1) 옹관묘 1호

가. 유구(도면 24, 도판 28-⑤~⑧)

조사구역 중앙부에서 북쪽으로 약간 치우친 해발 2.5m 지점에 위치한다. 상부는 삭평으로 인해 상당부분 훼손되어 옹관이 반파된 상태로 확인되었다. 북쪽으로 160㎝ 떨어져 석곽묘 1호가 있고, 남쪽으로 60㎝ 떨어져서는 석곽묘 2호가 있으며, 서쪽에 인접해 옹관묘 2호가 위치한다. 석곽묘 1호와 근접해 있는 것으로 보아 석곽묘 1호의 배장묘로 추정된다.

묘광은 암갈색사질토를 평면 타원형의 형태로 굴착하고 축조하였으며, 벽면은 완만하고, 바닥은 약간 오목하게 굴착하였다. 묘광의 잔존 규모는 길이 76㎝, 너비 48㎝이다.

묘광 내부에는 장란형토기와 단경호를 활용하여 시설한 합구식 옹관묘로, 장란형토기를 주옹, 단경호를 막음옹으로 활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옹관의 잔존 규모는 길이 61㎝ · 너비 38㎝이며, 장축방향은 동-서(E-W)향이다. 옹관과 묘광 사이에는 황갈색사질토를 채워 넣어 보강하였다.

옹관 내부에서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나. 유물

72. 단경호(도면 24-72, 도판 28-72)

막음옹으로 사용된 단경호로 구연부 일부와 동체 일부가 잔존하고 있다. 연질 소성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황등색(10YR 6/4)을 띠고 있다. 동체는 구형에 가까우며 완만하게 올라가 중위에서 동최대경을 이룬 후 만곡하게 내만하여 경부로 이어진다. 구연에 이르러 급격히 외반하고 있다. 동체 중위에 그을음흔이 확인된다. 구경부부터 동체까지 외면 전체에 격자문을 타날하였으나 박락이 심하며 내면에는 박자흔과 물손질 정면흔이 확인된다.

잔존기고 16.8㎝, 구경 19.3㎝, 두께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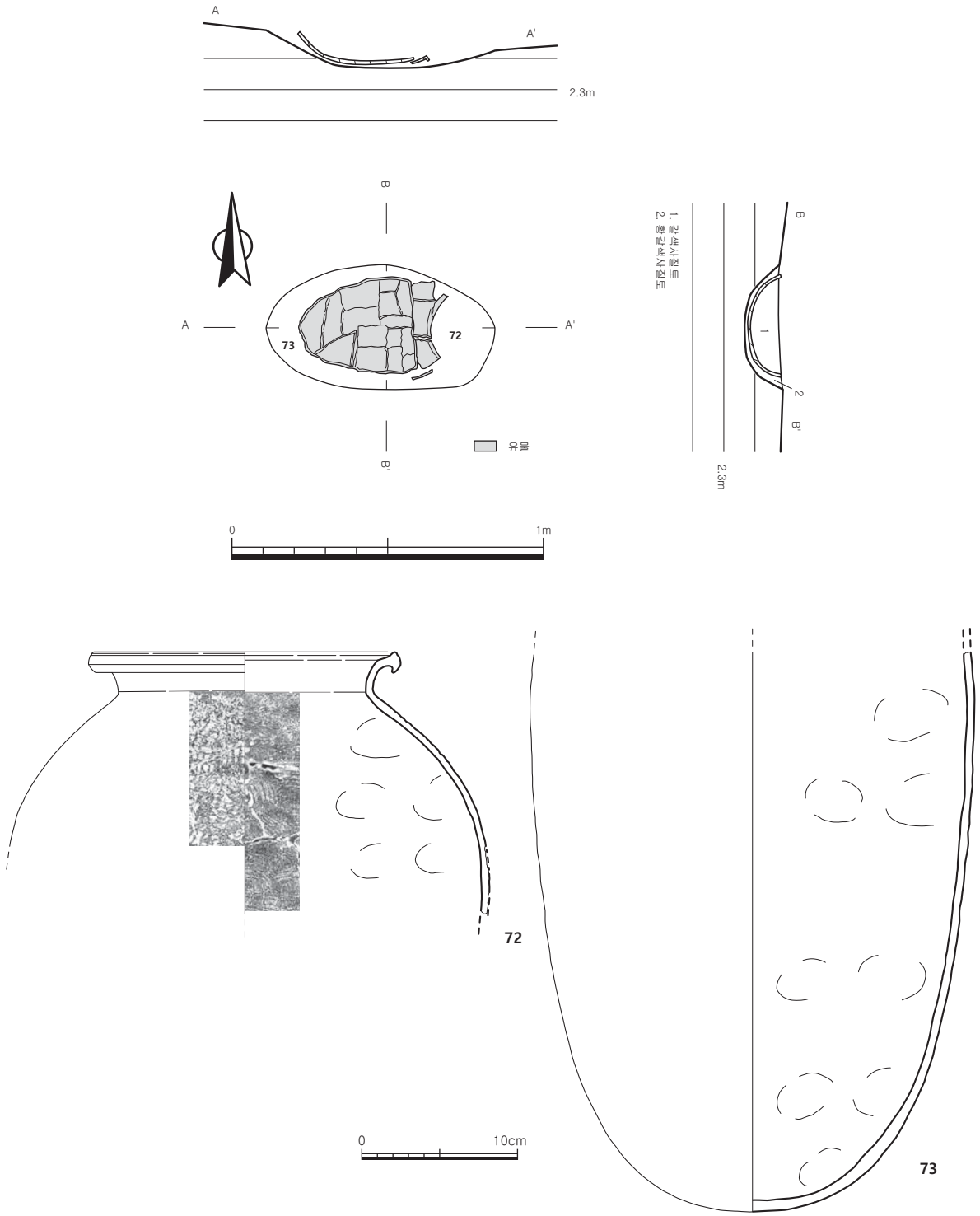
73. 장란형토기(도면 24-73, 도판 28-73)

주옹으로 활용된 장란형토기로 동체부만 일부 잔존하고 있다. 연질 소성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석립이 다량으로 포함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황등색(10YR 6/3)를 띠고 있다. 저부는 원저이며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올라간다. 외저면에 그을음흔이, 내면은 박자흔이 있으며 표면에 박락이 심하며 물손질로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40.4㎝, 두께 0.5㎝

(2) 옹관묘 2호

가. 유구(도면 25, 도판 29-①~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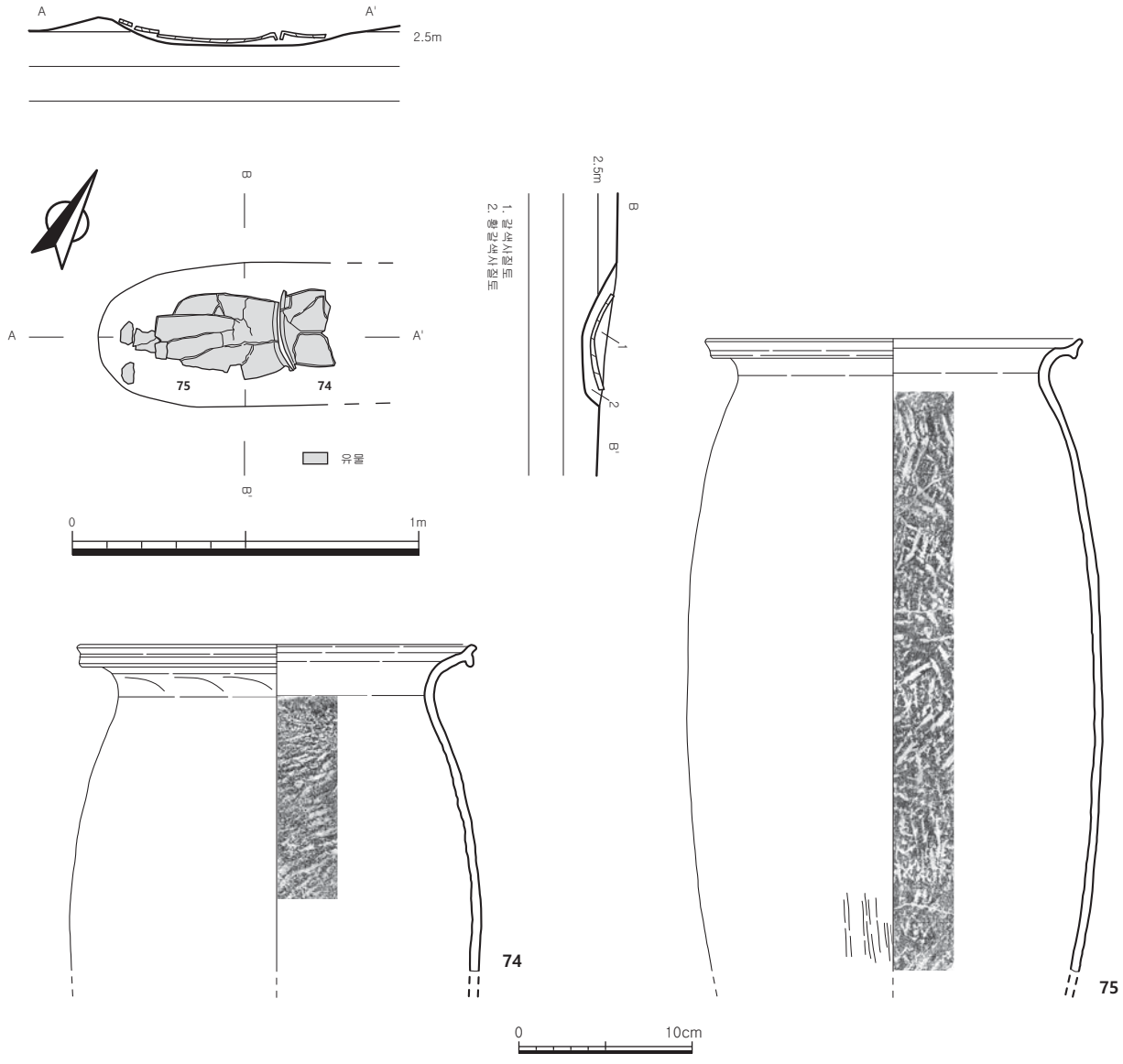


도면 24. 삼국시대 옹관묘 1호 및 출토유물

조사구역 중앙부에서 북쪽으로 약간 치우친 해발 2.5m에 위치한다. 유구의 동쪽일대는 최근 교란으로 인해 모두 유실되었고, 상부는 삭평으로 인해 옹관묘는 반파된 상태로 확인되었다. 북쪽으로 160㎝ 떨어져 석곽묘 1호가 있고, 남쪽으로 60㎝ 떨어져서는 석곽묘 2호가 있으며, 동쪽으로 인접해 옹관묘 1호가 위치한다. 석곽묘 1호의 배장묘로 추정된다.

묘광은 암갈색사질토를 평면 타원형의 형태로 굴착하였으며, 벽면은 비교적 완만하고, 바닥면은 약간 오목하게 굴착하였다. 묘광의 규모는 잔존 길이 71㎝, 너비 49㎝이다.

묘광 내부에서는 장란형토기 2점을 이용한 합구식 옹관이 확인되었는데, 옹관의 조합 방식은 동쪽



도면 25. 삼국시대 옹관묘 2호 및 출토유물

의 장란형토기 구경보다 서쪽의 장란형토기 구경이 좁은 것으로 보아 서쪽이 주옹이고, 동쪽이 막음옹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옹관의 규모는 잔존 길이 65㎝ · 너비 39㎝이며, 장축방향은 북동-남서(N-65°-W)향이다. 묘광과 옹관 사이에는 황갈색사질토를 채워 넣어 보강하였다.

나. 유물

74. 장란형토기(도면 25-74, 도판 29-74)

막음옹으로 활용된 장란형토기로 구연 일부와 동체 일부만 일부 잔존한다. 연질 소성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석립이 다량으로 포함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황등색(10YR 6/3)를 띠고 있다. 동체는 완만하게 내만하여 경부에 이르며 구연부는 외반하고 있다. 외면은 전체적으로 물손질로 정면하였으며 내면은 구연부는 물손질 정면흔이, 동체부에는 박자흔이 확인된다.

잔존기고 18.9㎝, 구경 22.6㎝, 두께 0.5㎝

75. 장란형토기(도면 25-75, 도판 29-75)

주옹으로 활용된 장란형토기로 구연 일부와 동체 일부만 일부 잔존한다. 연질 소성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석립이 다량으로 포함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황등색(10YR 6/3)를 띠고 있다. 동체는 완만하게 올라가 동 상위에서 최대경을 이룬 후 내만하여 경부에 이르며 구연부는 외반하고 있다. 외면은 전체적으로 물손질로 정면하였으며 내면은 구연부에는 물손질 정면흔이, 동체부에는 박자흔이 확인된다.

잔존기고 36.5㎝, 구경 21.6㎝, 두께 0.5㎝

(3) 옹관묘 3호

가. 유구(도면 26, 도판 29-⑤⑥)

조사구역 중앙부에서 남서쪽으로 약간 치우친 해발 2.5m에 위치한다. 유구의 동쪽일대는 후대 교란으로 상당부분 유실되었고, 상부는 삭평으로 인해 옹관이 반파된 상태로 확인되었다. 남쪽으로 90㎝ 떨어져 석곽묘 4호가 있고, 북서쪽으로 210㎝ 떨어져서는 석곽묘 2호가 위치한다. 석곽묘 4호의 배장묘로 추정된다.

묘광은 암갈색사질토를 굴착하고 축조되었으며, 평면형태는 타원형으로 추정된다. 벽면은 비교적 완만하고, 바닥은 약간 오목하게 굴착하였다. 묘광의 규모는 잔존 길이 85㎝, 너비 46㎝이다.

묘제는 합구식 옹관묘로 장란형토기 1점과 단경호 1점을 활용하여 축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장란형토기를 주옹으로, 단경호를 막음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옹관의 규모는 잔존 길이 60㎝ · 너비 31㎝이며, 장축방향은 동-서(N-75°-E)향이다. 옹관과 묘광 사이에는 황갈색사질토를 채워 넣어 보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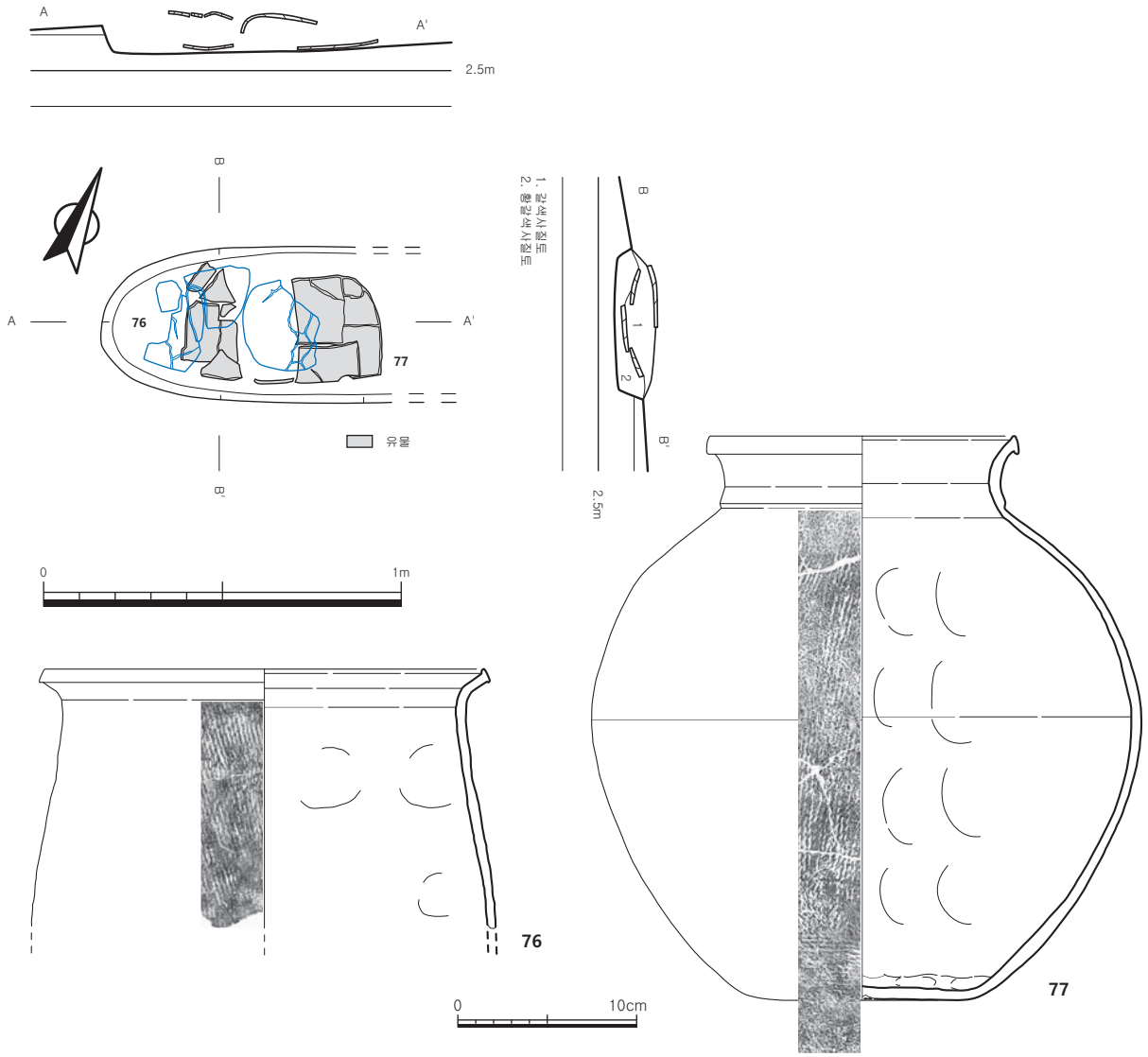
옹관 내부에서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나. 유물

76. 장란형토기(도면 26-76, 도판 29-76)

주옹으로 사용된 장란형토기로 구연 일부와 동체 일부만 잔존한다. 연질 소성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석립이 다량으로 포함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황등색(10YR 6/3)를 띠고 있다. 동체는 완만하게 내만하며 구연부는 외반하고 있다. 외면은 승문을 타날하였으며 구연부는 문양이 일부 지워졌다. 내면은 물손질로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14.6㎝, 구경 24.4㎝, 두께 0.6㎝



도면 26. 삼국시대 옹관묘 3호 및 출토유물

77. 단경호(도면 26-77, 도판 29-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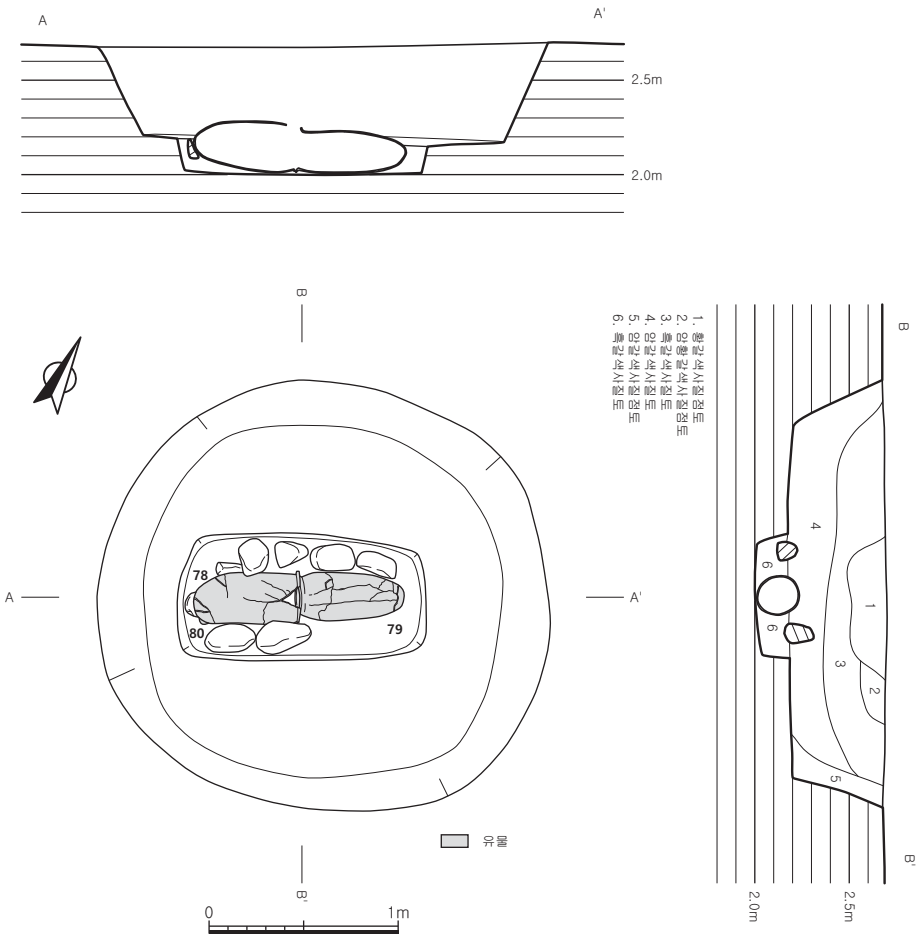
막음옹으로 활용된 단경호로 전체적으로 1/2정도 잔존한다. 연질 소성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석립이 다량으로 포함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황등색(10YR 6/3)를 띠고 있다. 저부는 말각평저이며 동체는 구형에 가까우며 중위에 동최대경이 자리하고 있다. 경부는 완만하게 외반하여 구연단은 편평하게 마무리하였다. 외면은 승문을 타날하였으나 문양 일부가 지워졌으며 저부에 그을음흔이 확인된다. 내면에는 저부와 동체부를 접합한 흔적과 박자흔이 확인되며 전체적으로 물손질로 정면하였다.

기고 32.5㎝, 구경 17.4㎝, 저경 10.0㎝, 두께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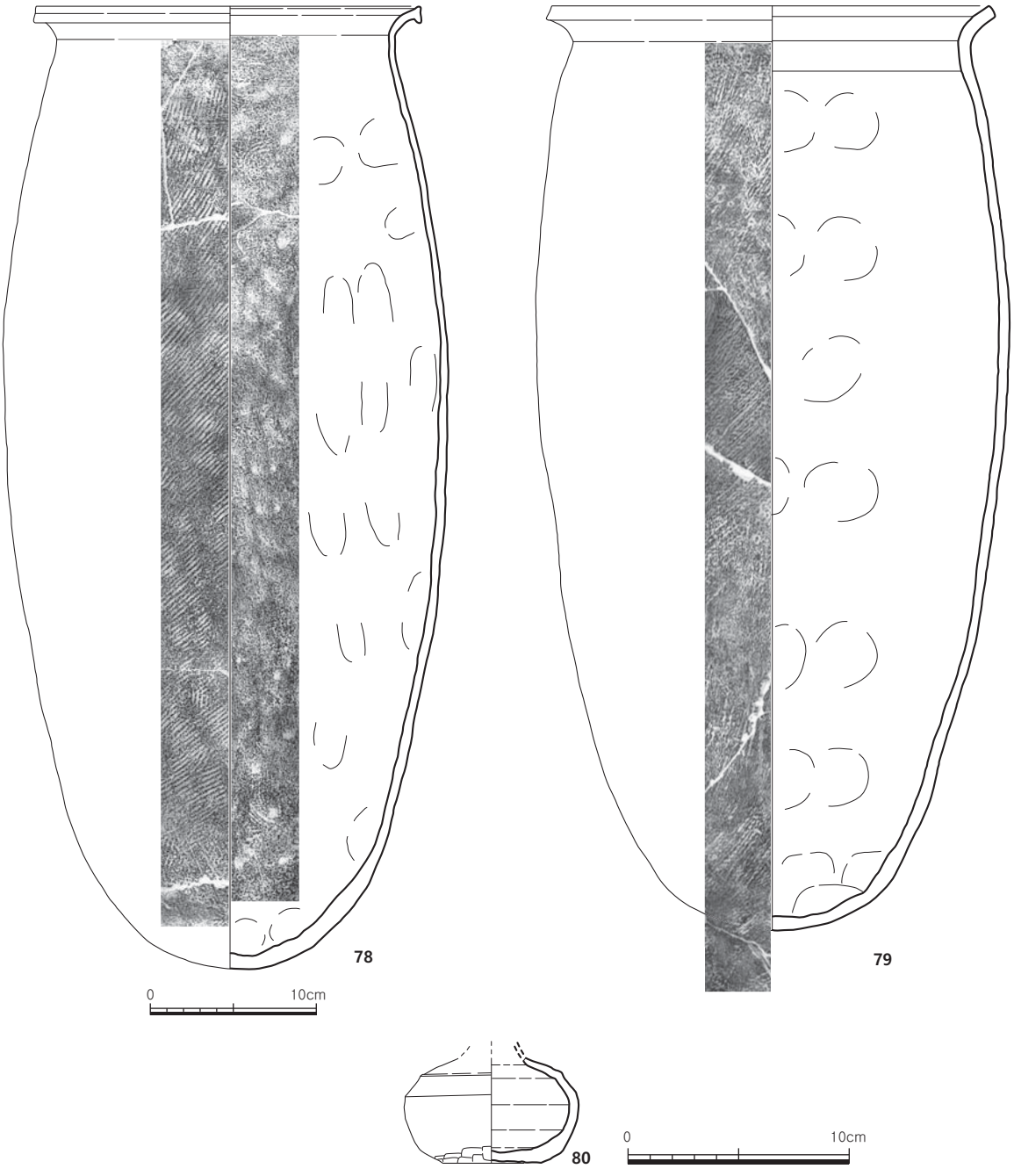
(4) 옹관묘 4호

가. 유구(도면 27, 도판 30~31-②)

조사구역 중앙에서 남쪽으로 치우친 해발 3.8m에 위치한다. 남쪽으로 90㎝ 떨어져 석곽묘 5호가 있고, 북쪽으로 220㎝ 떨어져서는 석곽묘 6호가 위치한다.



도면 27. 삼국시대 옹관묘 4호



도면 28. 삼국시대 옹관묘 4호 출토유물

묘광은 암갈색사질토를 평면 원형의 형태로 굴착하였고 벽면은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였으며, 바닥은 비교적 편평하게 정지하였다. 묘광의 규모는 길이 245㎝, 너비 236㎝, 깊이 50㎝이다. 묘광 내부에는 황갈색사질점토 - 암황갈색사질점토 - 흑갈색사질토 - 암갈색사질토 - 흑갈색사질토의 순으로 퇴적되었다.

묘광의 중앙부 바닥면을 평면 타원형의 형태로 2차 굴착한 후 내부에 장란형토기 2점을 배치한 합구식 옹관을 설치하였다. 옹관의 축조방법은 동쪽 옹은 구경이 작고, 서쪽 옹은 구경을 큰 것으로 보아 동쪽이 주옹이고, 서쪽이 막음옹으로 보인다. 옹관의 기면을 따라 20㎝ 내외의 천석을 돌려 고정석으로 사용하였다. 옹관의 크기는 길이 81㎝ · 너비 31㎝이며, 장축방향은 동-서(N-75°-W)향이다. 묘광과 옹관 사이에는 석재를 채워 넣어 보강하였으며, 고정석의 규모는 길이 113㎝ · 너비58㎝이다.

유물은 옹관 하부에 구연부를 인위적으로 파손한 후 매납한 소형 병 1점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78. 장란형토기(도면 28-78, 도판 31-78)

주옹으로 사용된 구연 일부와 동체 일부만 결실된 장란형토기이다. 연질 소성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석립이 다량으로 포함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황등색(10YR 6/3)를 띠고 있다. 저부는 원저이며 동체는 완만하게 올라가며 중상위에서 동최대경을 이룬 후 내만하며 구연부는 외반하고 있다. 외면은 전체적으로 집선문을 타날하였으며 저부는 물손질로 정면하였다. 내면은 물손질 정면흔과 박자흔이 확인된다.

기고 58.0㎝, 구경 23.0㎝, 두께 0.5㎝

79. 장란형토기(도면 28-79, 도판 31-79)

막음용으로 사용된 구연 일부와 동체 일부만 결실된 장란형토기이다. 연질 소성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석립이 다량으로 포함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황등색(10YR 6/3)를 띠고 있다. 저부는 원저이며 동체는 완만하게 올라가 동 중상위에서 최대경을 이룬 후 내만하며 구연부는 외반하고 있다. 외면은 전체적으로 승문을 타날하였으며 일부 박락되어 문양이 지워졌다. 내면은 물손질 정면흔과 박자흔이 확인된다.

기고 55.6㎝, 구경 26.4㎝, 두께 0.7㎝

80. 소형 병(도면 28-80, 도판 31-80)

구연부가 결실된 경질 소성의 소형 병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회청색(N 5/)을 띠고 있다. 저부는 평저이며 동체는 직립에 가깝게 올라가며 중상위에서 동최대경을 이룬 후 만곡하게 내만하여 경부로 이어진다. 견부와 동체부의 경계는 돌대로 나누었다. 저부에 깎기흔이, 바닥에 지두압흔이 확인된다. 외면은 물손질로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4.7㎝, 저경 4.4㎝, 두께 0.4㎝

Ⅳ. 조사성과

본 발굴조사 대상지는 김경하氏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로 강원도 강릉시 초당동 330번지에 해당하며, 조사대상면적은 770㎡이다. 발굴조사는 2017년 11월 7일에 착수하여 12월 6일에 완료하였다.

조사대상지가 속한 초당동은 강릉시내에서 북쪽으로 이어지는 낮은 구릉성 산지의 동쪽 말단부에 위치하며, 마을이 형성되면서 형질변경되어 현재는 대부분 평탄대지를 이루고 있다.

발굴조사 결과, 원삼국시대 주거지 1동, 삼국시대 석곽묘 7기 · 옹관묘 4기 등 총 12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원삼국시대 주거지는 주거공간이 오각형인 呂자형 주거지이다. 바닥면은 황갈색점토와 암갈색사질토를 섞어 생활면을 조성하였고, 주거공간 중앙부에서 약간 북쪽으로 치우쳐 무시설식 노지 1기를 마련하였다. 유물은 경질무문토기 구연부편 · 동체부편 · 저부, 파수편, 지석, 어망추 등이 출토되었다. 초당동 내에서 다수의 원삼국시대 주거지가 확인되었으나 대부분 凸자형으로 이 중 강릉 유화아파트-강릉고등학교간 도로개설부지 내 유적에서 呂자형 주거지가 조사된 바 있다. 강릉 유화아파트-강릉고등학교간 도로개설부지 내 유적의 呂자형 주거지(주거지 2호) 내부에는 주거공간 내에 무시설식 노지 1기가 확인되었고, 유물은 타날문토기 호 · 발 · 명기 등이 출토되었는데, 축조 시기는 AD. 3세기에서 4세기 초로 보고하고 있다. 이 유적과 비교해 보았을 때 본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원삼국시대 주거지는 3세기 전반경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삼국시대 석곽묘는 총 7기가 확인되었는데 이 중 3기(3 · 5 · 7호)는 조사경계지점에서 일부만 노출된 관계로 일부만 조사되었다. 확인된 대부분의 석곽묘는 축조방법으로 보아 수혈식이지만 석곽묘 4호의 경우 횡구식 석곽묘로 판단된다.

전체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4기의 평면형태는 모두 장단비가 2:1 이상인 세장방형[99]으로 장축방향은 동-서 방향이다. 석곽의 규모는 모두 길이 250㎝ 이상 400㎝ 미만으로 중형[100]에 해당하며, 벽석은 할석과 천석을 사용하여 가로 · 세로 눕혀쌓기를 혼용하여 축조하였다. 석재의 사용 빈도에 따라 천석과 할석을 약 5:5로 혼용한 석곽은 2기(2 · 4호), 천석의 사용 빈도가 높은 석곽은 4기(1 · 3 · 5 · 6호)로 구분된다[101]. 바닥면은 대부분 잔자갈을 이용하여 시상을 깔았으며, 석곽묘 4호의 경우에는 따로 시상을 설치하지는 않았으나 바닥에 회와 회갈색점토를 섞어 단단하게 정지한 흔적이 확인되었다. 석곽 내부에 시상이 확인되는 구조의 고분은 비교적 많은 수가 확인되는데 대표적으로 초당동 287-14번지(Ⅰ지구) 8호 석곽묘[102]가 이번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석곽묘들과 유사하게 잔자갈과 주먹 크기의 납작한 천석을 이용하였다.

---

99) 嶺南文化財硏究院, 2006,『高靈 池山洞 古墳群 Ⅵ』.

100) 江原文化財硏究所, 2008,『江陵 草堂洞 遺蹟 Ⅳ』.

101) 석곽묘 7호는 조사경계에 걸쳐 서단벽 일부만 노출되어 제외하였다.

102) 江原文化財硏究所, 2006,『江陵 草堂洞 遺蹟 Ⅱ』.

피장자의 침향을 알 수 있는 근거(인골)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석곽묘 1 · 2 · 3 · 5 · 6호에서 이식이 모두 동단벽 부근에서 출토된 것으로 보아 두향은 동향으로 추정된다. 또한 초당동 고분군과 남대천을 사이에 두고 위치한 병산동 고분군에서 일부 양호한 상태의 인골이 확인되었는데, 모두 동향 또는 동남향을 하고 있어 참고가 된다. 각 석곽묘의 세부속성은 다음【표 3】과 같다.

【표 3】 삼국시대 석곽묘 세부속성

	장축 방향	평면형태		규모					장단비 (묘곽)	바닥 시설	두향	유물 부장	비고
		묘광	묘곽	묘광		묘곽							
				길이	너비	깊이	너비	깊이					
석곽묘 1호	N-85°-E	세장방	세장방	(414)	(152)	(320)	(90)	45	3.6:1	시상	동침	양단	수혈식 교란
석곽묘 2호	N-75°-E	세장방	세장방	(430)	(235)	(385)	(115)	60	3.3:1	시상	동침	양단	수혈식 교란
석곽묘 3호	N-75°-E	세장방	세장방	(347)	267	(283)	135	60	·	시상	동침	·	수혈식 도굴 추정
석곽묘 4호	N-80°-E	세장방	세장방	567	188	348	92	37	3.8:1	회다짐	동침	·	횡구식 도굴 추정
석곽묘 5호	N-75°-E	세장방	세장방	418	136	312	101	98	3.1:1	시상	동침	·	수혈식 도굴 추정
석곽묘 6호	N-82°-E	세장방	세장방	392	194	301	116	45	2.6:1	시상	동침	·	수혈식 도굴 추정
석곽묘 7호	·	·	·	·	·	·	·	·	·	·	·	·	

유물 부장은 양단부장이 2기(1 · 2호)이며, 석곽묘 7호를 제외한 나머지 석곽묘에서는 모두 동단벽 부근에서 유물이 출토되었으나 모두 교란 또는 도굴의 흔적이 확인되어 명확한 부장 양상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유물은 (유개)고배 · 개 · 단경호 · 대부장경호 · 대부완 등의 토기류와 도자 · 뿔모루 · 망치 등의 철기류, 이식 등의 장신구류가 출토되었다.

출토된 고배는 모두 17점으로 석곽묘 1호에서 2점, 석곽묘 3호에서 7점, 석곽묘 4호에서 1점, 석곽묘 5호에서 3점, 석곽묘 6호에서 4점이 출토되었다. 일부 결실이 있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 완형에 가까운 형태이다. 신부 외면은 모두 무문으로 일단투창고배가 10점, 이단투창고배가 7점이 출토되었다.

석곽묘 5호에서 출토된 고배(유물번호 50 · 51)를 제외하면 대부분 배신고 대 대각고의 비율이 1:1 정도를 보이고 있다. 고배의 배신고 대 대각고의 비율이 6세기로 넘어가면서 점차 1:1의 비율로 변화

하는 양상으로 볼 때 본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고배는 대체로 늦은 형식으로 판단되며, 그 중에서 석곽묘 5호에서 출토된 2점의 고배는 다른 석곽묘에서 출토된 고배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른 형식으로 판단된다.

출토된 개는 모두 20점[103]으로 석곽묘 1호에서 5점, 석곽묘 3호에서 6점, 석곽묘 4호에서 1점, 석곽묘 5호에서 4점, 석곽묘 6호에서 4점이 출토되었다. 석곽묘 3호에서 출토된 개(유물번호 27 · 28 · 30)의 경우 삼각집선문을 시문하였으며, 나머지는 모두 무문이다. 꼭지는 단추형 · 대각도치형 · 보주형 · 접시형으로 구분되며, 대부분 단추형이다. 전체적인 기형은 모두 반구형이며, 드림은 대부분 수직으로 뻗어내리고 있는 등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다만 대각도치형 꼭지의 개를 통해서 볼 때 석곽묘 1호에서 출토된 개(유물번호 14)의 경우 다른 유물에 비해 꼭지의 외반도가 크고 드림의 길이가 짧아지는 차이를 보이고 있어 비교적 늦은 형식으로 보인다. 그에 반해 석곽묘 3호 출토 개(유물번호 27 · 28 · 30)의 경우 석곽묘 1호의 개에 비해 꼭지의 외반도가 비교적 약하고 삼각집선문이 시문되어 있는 등 시기적으로 빠른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석곽묘 내에서 출토된 고배와는 다소 시기적 차이가 나는 양상이다.

출토된 호류는 총 16점으로 명확한 기형을 알 수 있는 것은 15점이다. 대부장경호 4점, 대부직구호 3점, 부가구연대부장경호 1점, 부가구연장경호 1점, 대부파수부호 1점, 단경호 5점이 출토되었다. 이 중 주목되는 유물은 석곽묘 2호에서 출토된 대부장경호(유물번호 23)로 동체부의 기형은 구형이며, 동최대경은 중위에 위치하고 있다. 기벽이 두꺼운 편이고, 투창과 각단의 간격이 넓은 편이다. 이러한 형태는 의성과 상주지역에서 다수 출토되는 재지적인 형태의 기형으로 의성양식토기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104]. 또한 석곽묘 2호에서 부가구연장경호(유물번호 22), 석곽묘 3호에서 부가구연대부장경호(유물번호 40)가 1점 출토되었으며, 다른 유물들에 비해 비교적 늦은 형식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각 석곽묘의 축조 방법과 석곽묘에서 출토된 고배 · 개 · 호류를 중심으로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전체적인 양상으로 볼 때 석곽묘는 석곽묘 5호→석곽묘 1 · 6호→석곽묘 2 · 3호→석곽묘 4호의 순서로 축조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초당동 고분군에서 출토되는 신라토기를 Ⅰ~Ⅳ기로 구분[105]했을 때 대체적으로 늦은 시기인 Ⅲ · Ⅳ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출토유물과 석곽묘의 축조방법 등 종합적인 양상으로 보아 석곽묘 축조시기의 상한은 5세기 후반, 하한은 6세기 초반으로 판단된다[106].

옹관묘는 총 4기가 확인되었는데 모두 합구식 옹관묘이다. 초당동 고분군 내에서 석곽묘와 관련된

---

103) 유개고배의 개도 포함하였다.

104) 慶尙北道文化財硏究院, 韓國道路工事, 2001,『尙州 屛城洞 古墳群』.

105) 江陵原州大學校 博物館, 2011,『江陵 草堂洞 古墳群』.

106) 이희준, 1997,「토기에 의한 新羅 고분의 分期와 편년」,『韓國考古學報 36輯』.
江原文化財硏究所, 2005,『江陵 草堂洞 遺蹟Ⅰ』.
江原文化財硏究所, 2006,『江陵 草堂洞 遺蹟 Ⅱ』.
江原文化財硏究所, 2007,『江陵 草堂洞 遺蹟 Ⅲ』.
江原文化財硏究所, 2008,『江陵 草堂洞 遺蹟 Ⅳ』.
江原文化財硏究所, 2008,『江陵 草堂洞 遺蹟 Ⅴ』.

배장묘로서의 옹관묘와 의례행위를 위한 봉토 내 매납유구가 확인된 예[107]가 다수 있으며, 본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옹관묘 역시 1m 내외에 위치하는 석곽묘의 배장묘로 판단된다. 즉, 옹관묘 1 · 2호는 석곽묘 2호, 옹관묘 3호는 석곽묘 4호, 옹관묘 4호는 석곽묘 5호의 배장묘이다. 이 중 옹관묘 4호의 경우에는 비교적 잔존상태가 양호한 상태로 확인되었는데, 흑갈색사질토를 넓게 원형으로 묘광을 굴착한 후 장란형토기를 이용하여 옹관을 설치하고 옹관 주변으로 20㎝ 내외의 천석을 고정석으로 둘렀다. 출토된 유물은 옹관묘 4호에서 소형 병 1점이 확인되었는데, 옹관 아래에 구연부를 인위적으로 파손하여 부장하였다. 옹관묘와 석곽묘의 관련성으로 볼 때 석곽묘의 축조시기와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107) 韓國文化財財團, 2015, 「강릉 초당동 47-6, 47-7, 87번지 유적」, 『2012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Ⅱ』.

도 판



도판 1. 발굴조사 대상지(①조사중, ②조사후)



도판 2. 원삼국시대 주거지(①조사전, ②③조사중, ④조사후)



도판 3. 원삼국시대 주거지 토층(①②동서, ③④남북, ⑤출입구)



도판 4. 원삼국시대 주거지(출입구(①토층), 노지(②조사중, ③토층, ④조사후), ⑤~⑧유물출토상태)



도판 5. 원삼국시대 주거지 출토유물



도판 6. 삼국시대 석곽묘 1호(①조사전, ②~④조사중)



도판 7. 삼국시대 석곽묘 1호(①조사후, ②남장벽, ③서단벽, ④~⑥토층)



도판 8. 삼국시대 석곽묘 1호 유물출토상태



도판 9. 삼국시대 석곽묘 1호 출토유물



도판 10. 삼국시대 석곽묘 2호(①조사전, ②③조사중, ④조사후)



도판 11. 삼국시대 석곽묘 2호(①북장벽, ②남장벽, ③서단벽, ④토층, ⑤유물출토상태)



도판 12. 삼국시대 석곽묘 2호(①~③유물출토상태, 22~26:출토유물)



도판 13. 삼국시대 석곽묘 3호(①조사전, ②③조사중, ④조사후)



도판 14. 삼국시대 석곽묘 3호(①남장벽, ②북장벽, ③동단벽, ④유물출토상태)



도판 15. 삼국시대 석곽묘 3호 유물출토상태



도판 16. 삼국시대 석곽묘 3호 출토유물1



도판 17. 삼국시대 석곽묘 3호 출토유물2



도판 18. 삼국시대 석곽묘 4호(①조사전, ②③조사중, ④조사후)



도판 19. 삼국시대 석곽묘 4호(①북장벽, ②남장벽, ③동단벽, ④서단벽, ⑤⑥유물출토상태, 48 · 49:출토유물)



도판 20. 삼국시대 석곽묘 5호(①조사전, ②③조사중, ④조사후)



도판 21. 삼국시대 석곽묘 5호(①북장벽, ②남장벽, ③서단벽)



















도판 22. 삼국시대 석곽묘 5호(①동단벽, ②③유물출토상태, 50~55:출토유물)



도판 23. 삼국시대 석곽묘 6호(①조사전, ②③조사중, ④조사후)



도판 24. 삼국시대 석곽묘 6호(①북장벽, ②남장벽, ③동단벽, ④서단벽, ⑤유물출토상태)



도판 25. 삼국시대 석곽묘 6호 유물출토상태



도판 26. 삼국시대 석곽묘 6호 출토유물1



도판 27. 삼국시대 석곽묘 6호 출토유물2



도판 28. 삼국시대 석곽묘 7호(①②조사중, ③④조사후) 및 옹관묘 1호(⑤조사전, ⑥조사중, ⑦조사후, ⑧토층, 72 · 73:출토유물)



도판 29. 삼국시대 옹관묘 2호(①조사전, ②조사중, ③조사후, ④토층, 74 · 75:출토유물) 및 3호(⑤조사중, ⑥조사후, 76 · 77:출토유물)



도판 30. 삼국시대 옹관묘 4호(①조사전, ②~⑤조사중)











도판 31. 삼국시대 옹관묘 4호(①조사후, ②토층, 78~80:출토유물)

강릉 초당동 330번지 유적 유물목록

유물번호	유물명	수량(점)	출토유구	분류		크기(㎝)			도면번호 도판번호	선별 결과
				재질	시대	기고(길이)	구경(폭)	저경(두께)		
2017–1356–0001	경질무문토기 내만구연옹 구연부편	1	주거지	토도	원삼국시대	(5.8)	–	0.8	6–1 5–1	Y
2017–1356–0002	경질무문토기 내만구연옹 구연부편	1	주거지	토도	원삼국시대	(12.3)	–	0.7	6–2 5–2	Y
2017–1356–0003	경질무문토기 내만구연옹 구연부편	1	주거지	토도	원삼국시대	(4.0)	–	0.5	6–3 5–3	Y
2017–1356–0004	경질무문토기 외반구연호 동체부편	1	주거지	토도	원삼국시대	(11.6)	–	1.0	6–4 5–4	Y
2017–1356–0005	경질무문토기 저부편	1	주거지	토도	원삼국시대	(7.7)	–	8.4	6–5 5–5	Y
2017–1356–0006	경질무문토기 저부편	1	주거지	토도	원삼국시대	(2.0)	–	0.8	6–6 5–6	Y
2017–1356–0007	파수편	1	주거지	토도	원삼국시대	(4.4)	(6.0)	2.4	6–7 5–7	Y
2017–1356–0008	공이	1	주거지	옥석유리	원삼국시대	(10.3)	10.7	6.0	6–8 5–8	Y
2017–1356–0009	지석	1	주거지	옥석유리	원삼국시대	(9.2)	7.4	4.3	7–9 5–9	Y
2017–1356–0010	지석	1	주거지	옥석유리	원삼국시대	5.9	2.1	2.6	7–10 5–10	Y
2017–1356–0011	어망추	1	주거지	옥석유리	원삼국시대	6.0	5.5	2.3	7–11 5–11	Y
2017–1356–0012	유개고배	2	석곽묘 1호	토도	삼국시대	4.7 8.2	11.6 10.4	꼭지경 3.5 대각경 7.5	9–12 9–12	Y
2017–1356–0013	유개고배	2	석곽묘 1호	토도	삼국시대	3.8 7.9	8.0 (8.9)	꼭지경 2.8 대각경 7.6	9–13 9–13	Y
2017–1356–0014	개	1	석곽묘 1호	토도	삼국시대	4.8	9.8	꼭지경 3.0	9–14 9–14	Y
2017–1356–0015	개	1	석곽묘 1호	토도	삼국시대	6.6	12.4	꼭지경 2.8	9–15 9–15	Y
2017–1356–0016	개	1	석곽묘 1호	토도	삼국시대	4.7	10.6	0.5	9–16 9–16	Y

유물번호	유물명	수량(점)	출토유구	분류		크기(㎝)			도면번호 도판번호	선별결과
				재질	시대	기고(길이)	구경(폭)	저경(두께)		
2017–1356–0017	대부장경호	1	석곽묘 1호	토도	삼국시대	40.3	19.1	21.7	9–17 9–17	Y
2017–1356–0018	단경호	1	석곽묘 1호	토도	삼국시대	13.3	11.5	9.8	9–18 9–18	Y
2017–1356–0019	이식	2	석곽묘 1호	금속	삼국시대	2.5 2.5	–	0.4 0.4	9–19 9–19	Y
2017–1356–0020	도자	1	석곽묘 1호	금속	삼국시대	(16.0)	2	0.3~0.4	9–20 9–20	Y
2017–1356–0021	도자	1	석곽묘 1호	금속	삼국시대	(6.1)	1.4	0.3	9–21 9–21	Y
2017–1356–0022	부가구연장경호	1	석곽묘 2호	토도	삼국시대	24.8	14.8	8.6	11–22 12–22	Y
2017–1356–0023	대부장경호	1	석곽묘 2호	토도	삼국시대	(22.2)	–	대각경 13.2	11–23 12–23	Y
2017–1356–0024	대부장경호	1	석곽묘 2호	토도	삼국시대	(18.6)	–	대각경 13.9	11–24 12–24	Y
2017–1356–0025	호 저부	1	석곽묘 2호	토도	삼국시대	(19.4)	–	12.0	11–25 12–25	Y
2017–1356–0026	이식	2	석곽묘 2호	금속	삼국시대	2.7 2.7	–	0.4 0.4	11–26 12–26	Y
2017–1356–0027	유개고배	2	석곽묘 3호	토도	삼국시대	6.2 8.4	12.4 11.5	꼭지경 3.5 대각경 8.8	13–27 16–27	Y
2017–1356–0028	유개고배	2	석곽묘 3호	토도	삼국시대	6.1 6.7	10.6 10.6	꼭지경 3.5 대각경 7.1	13–28 16–28	Y
2017–1356–0029	유개고배	2	석곽묘 3호	토도	삼국시대	6.0 7.1	12.2 10.4	꼭지경 4.3 대각경 7.8	13–29 16–29	Y
2017–1356–0030	개	1	석곽묘 3호	토도	삼국시대	6.0	12.4	꼭지경 3.6	13–30 16–30	Y
2017–1356–0031	개	1	석곽묘 3호	토도	삼국시대	5.7	12.4	꼭지경 3.9	13–31 16–31	Y
2017–1356–0032	개	1	석곽묘 3호	토도	삼국시대	4.4	12.2	꼭지경 3.1	13–32 16–32	Y
2017–1356–0033	고배	1	석곽묘 3호	토도	삼국시대	7.8	10.0	대각경 7.4	13–33 16–33	Y
2017–1356–0034	고배	1	석곽묘 3호	토도	삼국시대	8.0	8.2	대각경 7.2	13–34 16–34	Y

유물번호	유물명	수량(점)	출토유구	분류		크기(㎝)			도면번호 도판번호	선별결과
				재질	시대	기고(길이)	구경(폭)	저경(두께)		
2017–1356–0035	고배	1	석곽묘 3호	토도	삼국시대	8.5	10.9	대각경 7.3	13–35 16–35	Y
2017–1356–0036	고배	1	석곽묘 3호	토도	삼국시대	9.0	10.2	대각경 8.0	13–36 17–36	Y
2017–1356–0037	대부완	1	석곽묘 3호	토도	삼국시대	7.3	10.4	대각경 6.8	13–37 17–37	Y
2017–1356–0038	대부완	1	석곽묘 3호	토도	삼국시대	10.9	14.0	대각경 8.6	13–38 17–38	Y
2017–1356–0039	대부파수부호	1	석곽묘 3호	토도	삼국시대	15.2	10.8	대각경 12.1	13–39 17–39	Y
2017–1356–0040	부가구연대부장경호	1	석곽묘 3호	토도	삼국시대	39.4	20.8	대각경 19.9	14–40 17–40	Y
2017–1356–0041	대부직구호	1	석곽묘 3호	토도	삼국시대	25.2	10.8	대각경 13.4	14–41 17–41	Y
2017–1356–0042	단경호	1	석곽묘 3호	토도	삼국시대	35.1	22.0	0.5	15–42 17–42	Y
2017–1356–0043	이식	1	석곽묘 3호	금속	삼국시대	2.6	–	0.4	15–43 17–43	Y
2017–1356–0044	도자	1	석곽묘 3호	금속	삼국시대	13.5	1.5	0.4	15–44 17–44	Y
2017–1356–0045	도자	1	석곽묘 3호	금속	삼국시대	(11.9)	1.5	0.4	15–45 17–45	Y
2017–1356–0046	도자	1	석곽묘 3호	금속	삼국시대	(10.5)	1.6	0.4	15–46 17–46	Y
2017–1356–0047	도자	1	석곽묘 3호	금속	삼국시대	(9.0)	1.5	0.3	15–47 17–47	Y
2017–1356–0048	유개고배	2	석곽묘 4호	토도	삼국시대	4.8 8.6	10.8 10.0	꼭지경 2.5 대각경 7.7	17–48 19–48	Y
2017–1356–0049	대부장경호	1	석곽묘 4호	토도	삼국시대	(15.6)	–	0.4	17–49 19–49	Y
2017–1356–0050	유개고배	2	석곽묘 5호	토도	삼국시대	6.6 10.2	12.8 11.6	꼭지경 2.6 대각경 9.1	19–50 22–50	Y
2017–1356–0051	유개고배	2	석곽묘 5호	토도	삼국시대	6.2 9.6	12.5 10.8	꼭지경 2.6 대각경 8.4	19–51 22–51	Y
2017–1356–0052	유개고배	2	석곽묘 5호	토도	삼국시대	5.8 9.9	13.2 12.3	꼭지경 2.7 대각경 8.7	19–52 22–52	Y

유물번호	유물명	수량(점)	출토유구	분류		크기(㎝)			도면번호 도판번호	선별결과
				재질	시대	기고(길이)	구경(폭)	저경(두께)		
2017–1356–0053	개	1	석곽묘 5호	토도	삼국시대	5.4	12.4	꼭지경 2.5	19–53 22–53	Y
2017–1356–0054	이식	1	석곽묘 5호	금속	삼국시대	1.8	–	0.2	19–54 22–54	Y
2017–1356–0055	도자	1	석곽묘 5호	금속	삼국시대	16.7	1.5	0.2~0.3	19–55 22–55	Y
2017–1356–0056	유개고배	2	석곽묘 6호	토도	삼국시대	4.4 7.5	11.6 10.0	꼭지경 2.6 대각경 6.5	21–56 26–56	Y
2017–1356–0057	유개고배	2	석곽묘 6호	토도	삼국시대	4.7 7.2	10.8 9.2	꼭지경 2.6 대각경 6.4	21–57 26–57	Y
2017–1356–0058	유개고배	2	석곽묘 6호	토도	삼국시대	4.3 6.6	10.7 9.6	꼭지경 2.7 대각경 6.0	21–58 26–58	Y
2017–1356–0059	개	1	석곽묘 6호	토도	삼국시대	4.3	11.0	꼭지경 2.7	21–59 26–59	Y
2017–1356–0060	고배	1	석곽묘 6호	토도	삼국시대	6.7	(9.9)	대각경 6.4	21–60 26–60	Y
2017–1356–0061	병	1	석곽묘 6호	토도	삼국시대	(9.7)	–	6.0	21–61 26–61	Y
2017–1356–0062	병	1	석곽묘 6호	토도	삼국시대	(10.3)	–	7.3	21–62 26–62	Y
2017–1356–0063	단경호	1	석곽묘 6호	토도	삼국시대	20.2	16.3	10.0	21–63 26–63	Y
2017–1356–0064	이식	2	석곽묘 6호	금속	삼국시대	2.9 3.0	–	0.5 0.5	21–64 26–64	Y
2017–1356–0065	이식	2	석곽묘 6호	금속	삼국시대	1.9 2.2	–	0.4 0.4	21–65 26–65	Y
2017–1356–0066	도자	1	석곽묘 6호	금속	삼국시대	20.4	2.6	0.4	22–66 27–66	Y
2017–1356–0067	도자	1	석곽묘 6호	금속	삼국시대	(16.3)	2.3	0.4	22–67 27–67	Y
2017–1356–0068	도자	1	석곽묘 6호	금속	삼국시대	(17.0)	2.2	0.4	22–68 27–68	Y
2017–1356–0069	도자	1	석곽묘 6호	금속	삼국시대	(4.0)	1.6	0.4	22–69 27–69	Y
2017–1356–0070	뿔모루	1	석곽묘 6호	금속	삼국시대	11.5	3.2~4.3	1.6~3.4	22–70 27–70	Y

유물번호	유물명	수량(점)	출토유구	분류		크기(㎝)			도면번호 도판번호	선별결과
				재질	시대	기고(길이)	구경(폭)	저경(두께)		
2017–1356–0071	망치	1	석곽묘 6호	금속	삼국시대	8.4	2.1	2.4	22–71 27–71	Y
2017–1356–0072	단경호	1	옹관묘 1호	토도	삼국시대	(16.8)	19.3	0.4	24–72 28–72	Y
2017–1356–0073	장란형토기	1	옹관묘 1호	토도	삼국시대	(40.4)	–	0.5	24–73 28–73	Y
2017–1356–0074	장란형토기	1	옹관묘 2호	토도	삼국시대	(18.9)	22.6	0.5	25–74 29–74	Y
2017–1356–0075	장란형토기	1	옹관묘 2호	토도	삼국시대	(36.5)	21.6	0.5	25–75 29–75	Y
2017–1356–0076	장란형토기	1	옹관묘 3호	토도	삼국시대	(14.6)	24.4	0.6	26–76 29–76	Y
2017–1356–0077	단경호	1	옹관묘 3호	토도	삼국시대	32.5	17.4	10.0	26–77 29–77	Y
2017–1356–0078	장란형토기	1	옹관묘 4호	토도	삼국시대	58.0	23.0	0.5	28–78 31–78	Y
2017–1356–0079	장란형토기	1	옹관묘 4호	토도	삼국시대	55.6	26.4	0.7	28–79 31–79	Y
2017–1356–0080	소형 병	1	옹관묘 4호	토도	삼국시대	(4.7)	–	4.4	28–80 31–80	Y

掘調査報告書 抄錄

報告書名	강릉 초당동 330번지 유적		發行日	2019年 12月 23日
發行機關	名稱	한국문화재재단		
	住所	(06153)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06		
	TEL	(02)3011-2173	FAX	(02)566-5954
執筆 · 編輯者	정훈진 · 이건충 · 허병주 · 최민석 · 박구영 · 정홍선 · 박자연			
調査 緣由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에 따른 구제조사			
發掘調査者	박종섭 · 이창욱 · 허병주 · 김정민 · 최민석 · 박구영			
遺蹟調査地番	강원도 강릉시 초당동 330번지			
調査面積	770㎡			

遺構種別	時代 및 年代	類型 및 基數	重要遺物	特記事項
주거지	원삼국	1동	경질무문토기 내만구연옹 편, 지석 등	
석곽묘	삼국	7기	유개고배, 대부장경호, 이식, 도자 등	
옹관묘	삼국	4기	단경호, 장란형토기 등	

148. 김해 동상동 538-6번지 유적

한국문화재재단

목 차

Ⅰ. 조사개요 …… 148 - 7

Ⅱ. 유적의 위치와 환경 …… 148 - 9

Ⅲ. 조사내용 …… 148-19
〈조선시대〉 …… 148-21
1) 체성 …… 148-21
2) 주혈 …… 148-26
3) 수혈유구 …… 148-30

Ⅳ. 조사성과 …… 148-35

도 면 목 차

도면 1. 조사대상지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1:25,000) …… 148-10
도면 2. 조사대상지 지형도(1:5,000)…… 148-11
도면 3. 김해부내지도(金海府內地圖)의 조사대상지 위치도
(소장처:대성동고분박물관 / 제작시기:1820년 추정) …… 148-12
도면 4. 조사대상지 및 김해읍성 관련 유적 분포도(1:5,000) …… 148-17
도면 5. 조사대상지 지적도(1:1,000) …… 148-18
도면 6. 유구분포도 …… 148-20
도면 7. 체성 …… 148-23
도면 8. 체성 출토유물 …… 148-25
도면 9. 주혈 …… 148-29
도면 10. 수혈유구 …… 148-31
도면 11. 상부 수습유물 …… 148-33

도 판 목 차

도판 1. 조사대상지 전경(①원경(NE→SW), ②근경(E→W)) …… 148-39
도판 2. 조사후 전경(①S→N, ②E→W) …… 148-40
도판 3. 외벽(①조사후(E→W), ②세부(NE→SW), ③세부(SE→NW)) …… 148-41
도판 4. 내벽 조사후(①E→W), 뒷채움 조사후(②E→W) …… 148-42
도판 5. 뒷채움 조사후(①W→E, ②S→N, ③E→W, ④N→S), 지정토 전경(외벽 하부
(⑤E→W, ⑥N→S, ⑦SE→NW), 뒷채움 하부(⑧E→W)) …… 148-43
도판 6. 외벽 및 석렬 전경(①E→W), 석렬 조사후(②E→W, ③N→S, ④E→W),
석렬토층(⑤N→S) …… 148-44
도판 7. 체성 출토유물1…… 148-45
도판 8. 체성 출토유물2, 외벽 동쪽 주혈 전경(①E→W) …… 148-46
도판 9. 주혈 전경(①②외벽 동쪽 세부, ③④북동쪽 뒷채움석 하부, ⑤주혈 1, ⑥주혈 2,
⑦주혈 3) …… 148-47
도판 10. 주혈 전경(①주혈 4, ②주혈 5, ③주혈 6, ④주혈 7, ⑤주혈 8, ⑥주혈 9,
⑦주혈 10, ⑧주혈 11) …… 148-48
도판 11. 주혈 전경(①주혈 12~14, ②주혈 30, ③주혈 31, ④주혈 32, ⑤주혈 51,
⑥주혈 52, ⑦주혈 63, ⑧주혈 64)…… 148-49
도판 12. 수혈유구 1호(①조사전(W→E), ②조사후(W→E)), 수혈유구 2호(③조사전(E→W),
④조사후(E→W)), 수혈유구 3호(⑤조사전(S→N), ⑥조사후(S→N)),
수혈유구 4호(⑦조사전(E→W), ⑧조사후(E→W)) …… 148-50
도판 13. 상부 수습유물 …… 148-51
도판 14. 학술자문회의(①) 및 전문가검토회의 광경(②) …… 148-52

Ⅰ. 조사개요

발굴조사 대상지는 경상남도 김해시 동상동 538-6번지로 사업시행자 목지수씨의 단독주택 신축부지(149㎡)이다. 조사 경위 및 경과는 다음과 같다.

사업시행자는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김해시에 건축 허가 신고를 하였으며, 김해시는 신청지가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김해읍성)이므로 매장문화재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조치되어야함을 통보하였다. 이에 사업시행자는 본 재단에 2017년 8월 1일 시굴조사를 신청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의 개인 사정으로 시굴조사를 강산문화재연구원에 의뢰해 2017년 8월 29일(현장조사일수 1일)에 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김해읍성의 동쪽 체성 일부가 확인되어, 사업대상지 전면(149㎡)에 대한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1] 이후 정밀발굴조사는 본 재단에서 진행하였으며, 세부계획서는 10월 17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였다. 10월 20일 현장조사일수 20일에 대한 문화재청 허가(제2017-1328호)를 받은 후 발굴조사는 11월 2일에 착수하여 12월 6일 현장조사를 완료하였다.

조사결과 김해읍성의 체성(내 · 외벽, 뒷채움, 지정목, 주혈)과 수혈유구 4기 등이 확인되었다. 학술자문회의[2]는 11월 17일 개최하였으며 회의 결과, 조사대상지 서쪽의 남-북 방향의 석렬에 대한 성격과 체성과의 관련성 및 체성 앞의 주혈의 보완 조사가 필요하며, 향후 유적 처리는 전문가 검토회의를 개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문화재청 전문가 검토회의는 12월 6일 개최되었으며 회의결과[3], 잔존상태가 양호하며 증개축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학술적 가치가 있으므로 확인된 유구 보존 방안 등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2018년 1월 17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결과 “현지 보존”하고 성토하여 건축하도록 조치되었다.

이후 본 조사단은 유구 보호를 위해 상부를 모래 20㎝ 정도 두께로 성토 후 원상 복구하였다.

발굴조사 당시, 조사단 구성은 다음과 같다.

조 사 단 장 : 박 종 섭(문화재조사연구단장)
책임조사원 : 박 강 민(조사연구 1팀 부팀장)
조 사 원 : 김 재 열(조사연구 1팀 연구원)
준 조 사 원 : 정 의 현(조사연구 1팀 연구원)
보 조 원 : 유 순 곤(조사연구 1팀 연구원)

*( )는 조사당시 직명임.

---

1) 강산문화재연구원, 2017,「경남 김해 동상동 538-6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매장문화재 발굴(시굴)조사 결과보고서」.
2) 학술자문회의 위원 : 임학종(국립김해박물관장), 정의도(한국문물연구원장)
3) 전문가검토회의 위원 : 박광춘(동아대학교 교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나동욱(부산박물관 문화재조사팀장)

발굴조사 후 보고서 작업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유물 정리 및 복원, 실측, 도면 일러스트 작업은 강성귀 책임 하에 하혜진, 김유정, 김정애, 이영호 등 본 재단 연구원이 분담하여 작성하였다. 도면 및 도판 편집은 강성귀, 김재열, 유순곤, 황도담이 담당하였으며, 유물의 사진 촬영은 이재영(스카이뷰)이 촬영하였다.

원고는 박강민 책임 하에 Ⅰ～Ⅱ장 김재열, Ⅲ장 김재열(조사내용 및 유구)·하혜진(유물), Ⅳ장 김재열이 작성하였으며, 교정 및 교열은 박강민이 하였다.

Ⅱ. 유적의 위치와 환경

조사대상지는 행정구역상 경상남도 김해시 동상동 538-6번지이며 지리적 좌표는 동경 128° 53′ 9.068″, 북위 35° 14′9.407″이다. 조사대상지는 동김해IC에서 분성로를 경유해 김해동광초등학교 방면으로 진입 후, 초등학교 정문에서 분성로 365번길을 따라 북서쪽으로 약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조사대상지 동쪽은 도로(분성로 365번길)와 접해있으며, 북 · 남 · 서쪽 조사경계는 인접 주택 담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발굴조사 당시 조사대상지는 시굴조사 트렌치 복토 후 공지로 남아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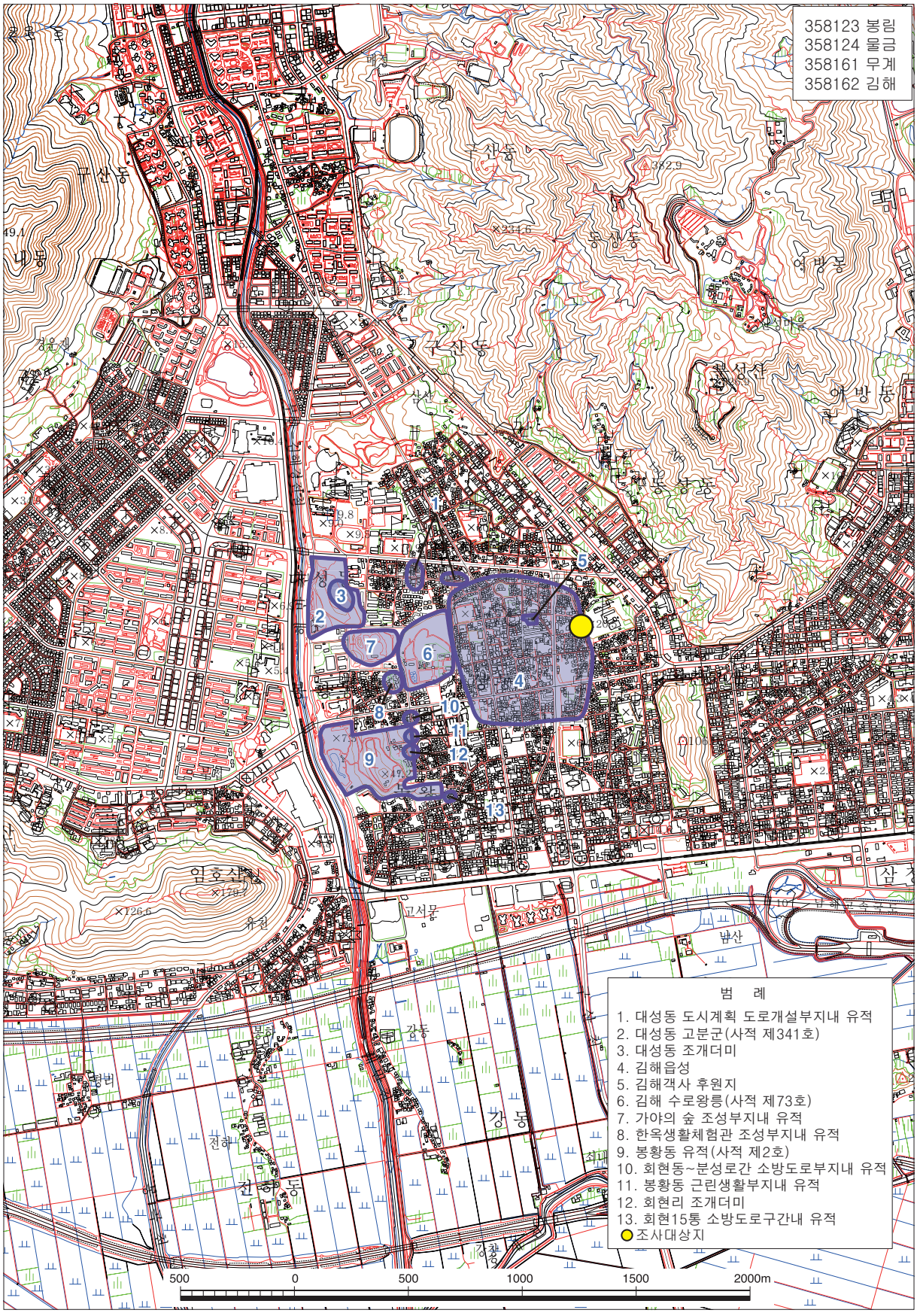
자연 · 지리적[4]으로 김해시는 경상남도 동남부에 위치하며 행정구역상 동쪽의 부산광역시와 양산시에 인접하며, 북쪽은 낙동강을 경계로 밀양시, 남쪽은 창원시와 행정 경계를 이룬다. 김해시는 낙동강에 의해 형성된 삼각주 충적평야 지대에 분포하며, 낙동강은 동→남쪽으로 곡류해 남해안으로 유입된다. 낙동강을 따라 화포강(花浦江)과 밀양강(密陽江)이 합류되는 지역에 넓은 충적지대가 형성되었으며 남해안에 근접하며 낙동강 하구는 광활한 삼각주가 형성되어 있다. 김해지역 산지는 북부와 서부 지역으로 양분된다. 북부지대는 소백산맥 지맥들이 낙동강을 향해 뻗었으며, 해발고도 300~400m 내외 산지로 이뤄졌다. 서부지역은 용지봉(743m), 화산(798m), 굴암산(662m) 등에 둘러싸였으며, 서쪽은 창원 · 마산과 자연 지리적 경계를 이룬다. 김해지역 남부 일대는 무척산(700m)과 신어산(630m)의 산지를 따라 낙동강이 곡류하며 남해안에 근접한 낙동강 하구 일대에는 광활한 삼각주의 충적 평야 지대가 형성되었다. 삼각주 일대에는 대단위의 농경지와 現 김해시가지가 위치한다. 삼각주 평야지대 대부분은 강변 배후 습지였으나 근대 이후 자연 퇴적량의 증가와 인위적인 제방 축조와 매립으로 현재와 같은 김해시가지가 본격 개발되었다.

조사대상지가 위치한 동상동 일대는 해발고도 9~10m 정도의 평지이며 김해시가지 중심에 근접해 있다. 동상동 북쪽은 분성산(300m), 서쪽은 경운산(314m)에 둘러싸였으며 남쪽은 낙동강 하구를 향해 있다. 서쪽에는 북쪽 산지에서 발원해 낙동강에 유입되는 해반천이 남류한다. 배후 산지와 낙동강으로 유입하는 지류들이 발달한 조상대상지 일원은 과거부터 낙동강 범람의 영향을 받은 해반천과 지류들의 상습적인 범람과 퇴적 작용이 활발했던 지형 환경이었다. 조사대상지가 속한 동상동 일대는 김해시 중앙부의 시가지와 성산 산지에 걸쳐 있다. 북동쪽은 분산성(사적 제66호)이 위치한 산악지대, 남서쪽은 현재 김해 시가지가 위치한다. 동상동은 북쪽으로는 구상동, 서쪽은 대성동, 남쪽은 봉황동과 행정 경계를 이룬다. 동상동 일원의 자연환경은 북쪽으로는 분성산과 경운산 등의 산지와 연결되며, 남서쪽으로는 구지봉과 대성동 구릉 등의 독립 구릉이 형성되어 있다. 서쪽은 분성산에서 발원해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해반천이 위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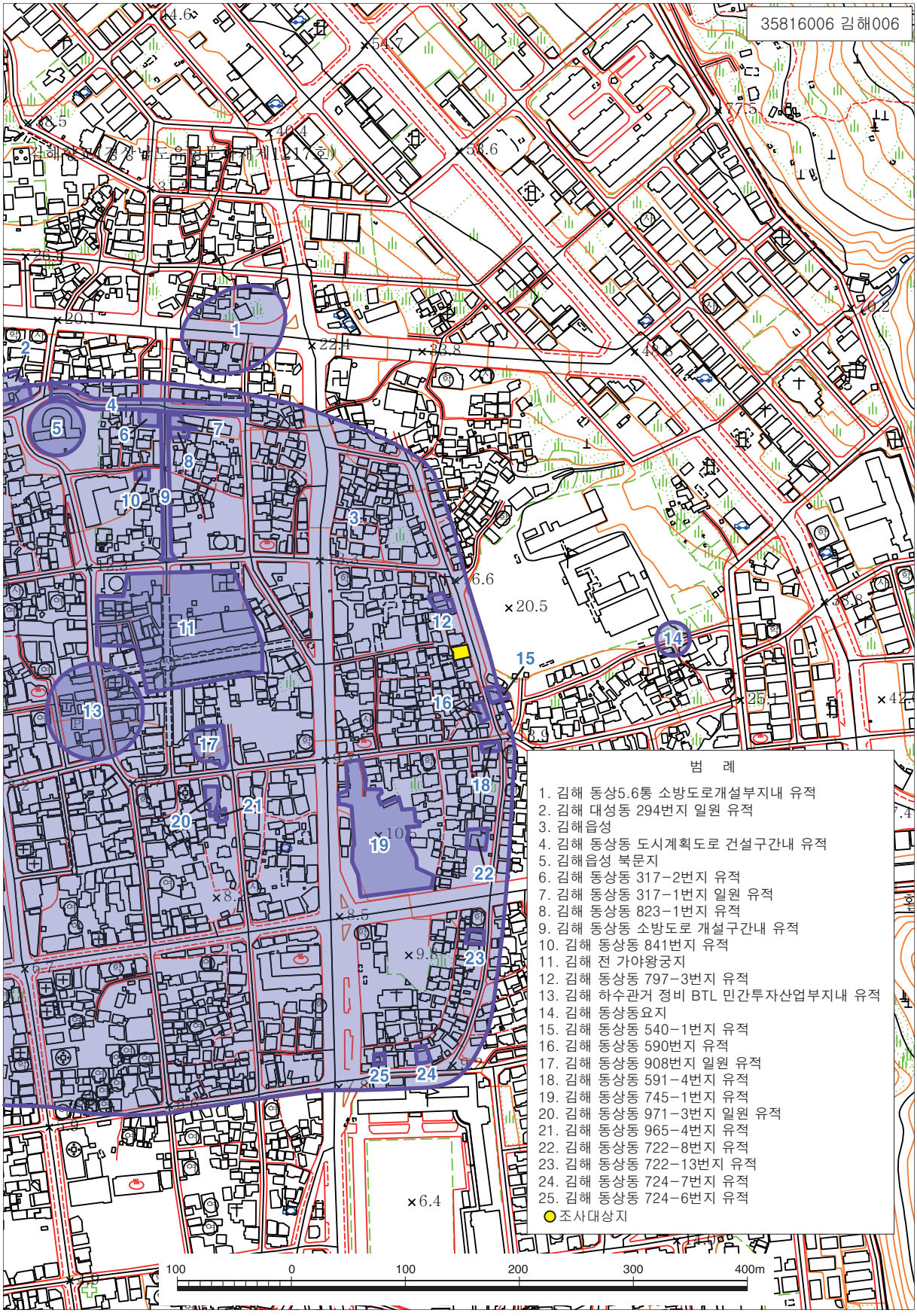
역사적[5]으로 김해지역은 낙동강 하구 평야지대라는 풍족한 자연 지리적 환경으로 인해, 인간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선사시대부터 다양한 유적이 분포한다. 청동기시대 대단위 지석묘

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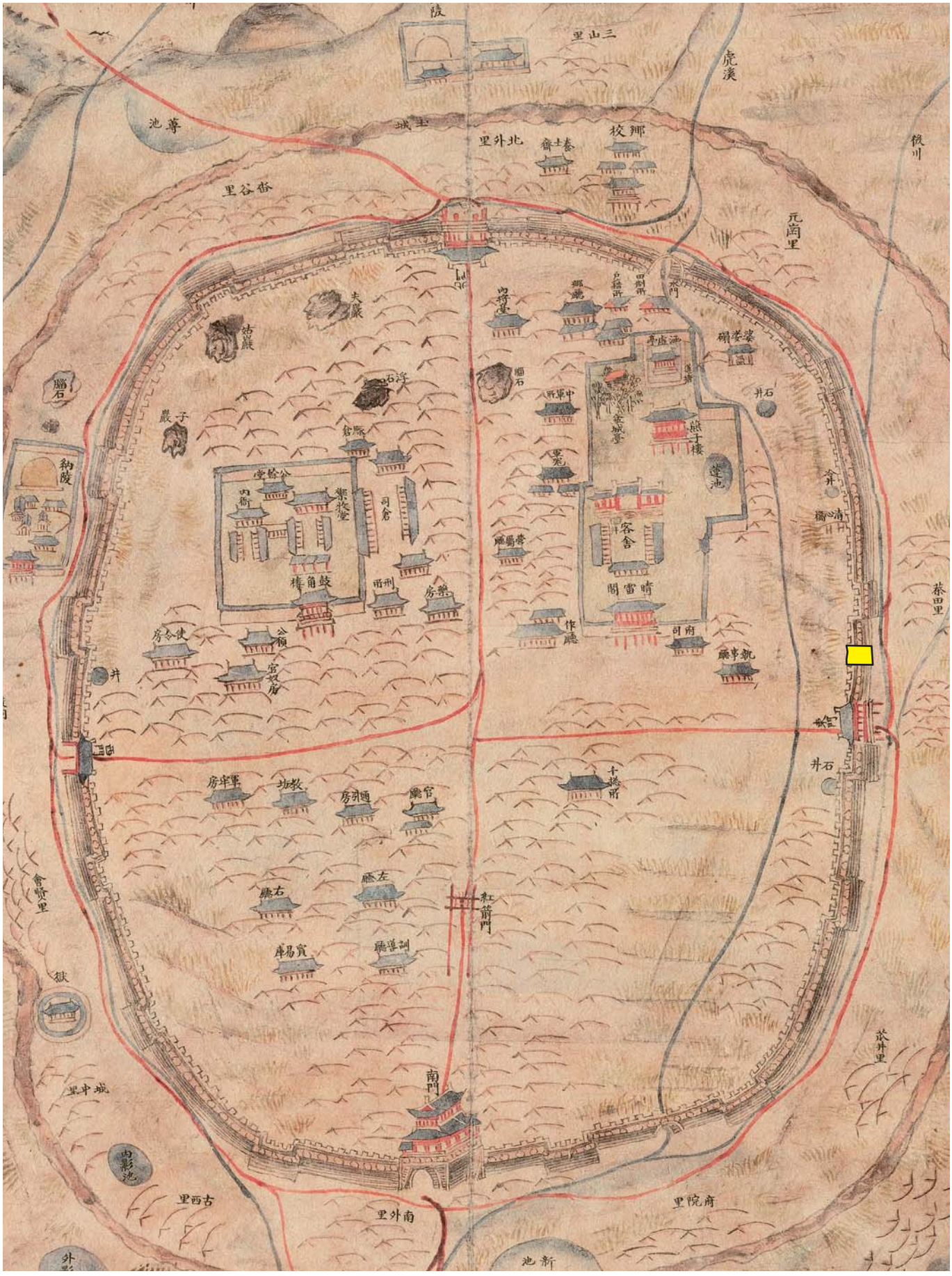
5) 金海市 · 東亞大學校 博物館, 1998,『文化遺蹟分布地圖-金海市-』.



도면 1. 조사대상지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1:25,000)



도면 2. 조사대상지 지형도(1:5,000)



도면 3. 김해부내지도(金海府內地圖)의 조사대상지 (□)위치도(소장처: 대성동고분박물관 / 제작시기: 1820년 추정)

가 조영된 김해 율하 유적을 비롯해 역사시대는 고대 구야국(狗倻國)의 고도로 추정되고 있다. 철기시대 이후 김해지역 정치체는 구야(狗耶) 또는 가락(駕洛)으로 문헌에 등장하며 후일 금관가야(金官伽倻)로 발전한다. 김수로왕이 건국한 금관가야는 전기가야 연맹의 맹주로 활약했으며, 400년 고구려 남정으로 쇠락에 접어든다. 532년(법흥왕 19년) 금관가야 구해왕이 신라에 투항하고 금관군으로 지위가 격하된다. 이후 680년(문무왕 20년) 금관소경(金官小京)이 설치되며 757년(경덕왕 16년) 김해소경(金海小京)으로 개칭된다. 고려 초인 940년(태조 23년) 김해소경은 '김해부(金海府)'로 변경되고 다시 임해현(臨海縣)과 임해군(臨海郡)을 거친다. 1271년(원종 12년) 김녕도호부(金寧都護府), 1308년 김주목(金州牧)으로 승격되고 1310년(충선왕 2년) 김해부(金海府)를 끝으로 고려시대를 마감한다. 조선 초인 1413년(태종 13년) 김해도호부로 승격되며, 1467년(세조 12년) 지방 군제의 개편으로 경상우도 병마절도사 관하의 김해진관(金海鎭管)이 설치된다. 1895년(고종 32년) 지방 관제의 개편으로 김해군(金海郡)으로 개칭된다. 1918년 좌부면과 우부면을 병합하여 김해읍을 신설하며, 1981년 김해군 관할에 속한 김해읍이 시로 승격된다. 1983년 김해 생림면의 금곡리와 생림리 일부가 포함되며, 1995년 김해시 · 군이 통합되어 현재의 김해시로 유지되고 있다. 조사지역이 속한 '동상동' 지명은 조선 세종대 대기리(大岐里)로 확인된다. 이후 예종 대기음리(大岐音里)와 도화동(桃花洞), 좌부면(左部面)의 북내동(北內洞)으로 개칭되었다. 조선시대부터 김해부의 행정 중심지였으며, 일제강점기에는 군청, 등기소, 금융조합 등이 자리했다. 1947년 북내동에서 동상동으로 변경된 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1981년부터 행정동인 회현동 관할에 속해 유지되고 있다.

고고학적으로 김해지역은 금관가야의 고도로 추정되며, 그를 증명하듯 조사대상지 남서쪽 반경 1㎞ 범위에 봉황대 유적(사적 제2호), 수로왕릉(사적 제73호), 김해 대성동 고분군(사적 제341호)등의 유적들이 분포한다(도면1 및 도면2 참조).

조사대상지는 김해읍성의 분포 범위 내 동쪽 경계부 중앙에 해당한다. 김해읍성은 조선시대 건립되어 근대까지 김해의 중심 치소 역할을 담당했다. 김해읍성의 연혁을 살펴보면, 조선왕조실록 세종 16년(1434년) 연간에 김해읍성이 석성으로 축성된 기록이 처음 등장한다.[6] 이후 문종 원년(1451년) 기록에는 읍성 주위 둘레 4,418尺, 높이 13尺, 여장 높이 2尺, 적대 20개소, 옹성문 4개소가 확인되고, 해자 둘레는 4,683尺으로 기록이 확인된다. 당시 기록에서 김해읍성 해자와 성벽 둘레 차이가 265尺에 불과한데, 문종 당시 김해읍성 해자는 성벽 모두에 설치되기보단 방어가 취약한 지점에만 부분적으로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김해읍성은 김해지역 치소로 운영되다 고종 32년(1895년) 대부분이 철거된다.

김해읍성의 고고학 조사는 1998년 북문지 동쪽 성벽과 해자에 대한 일부 조사,[7] 문지 · 옹성 · 체성

---

6) 김해읍성의 연혁은 아래를 참고해 수정하였다.
① 金海市 · 慶南文化財硏究院, 2009,『金海邑城 北門址』.
② 나동욱, 2005,「慶南地域 邑城과 鎭城의 試 · 發掘調査 成果」,『東亞文化 創刊號』, 東亞文化財硏究院.
7) 金海市 · 慶南文化財硏究院, 2009,『金海邑城 北門址』.

그리고 해자가 함께 조사되어 복원 정비된 '북문지 유적'[8]이 대표적이다. 이후 서벽,[9] 동벽,[10] 남벽에서 해자와 체성 일부가 부분적으로 조사되었다. 최근까지의 김해읍성 관련 발굴조사된 유적 분포현황은 다음【표 1】과 같다.

【표 1】 주변유적 분포현황

연번	유적명	이격 거리	유적시기 및 성격	참고문헌	비고
1	김해 동상동 도시계획도로 건설구간내 유적	북서쪽 273m	고려시대 건물지 조선시대 호안석축 등	동양문물연구원, 2012, 『김해읍성-김해 동상동 도시계획도로 건설구간내 유적』	
2	김해 대성동 294번지 일원 유적	북서쪽 435m	청동기시대 지석묘 등 조선시대 호안석축 등	강산문화연구원, 2018, 「경남 김해 대성동 294번지 일원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매장문화재 발굴(정밀)조사 결과보고서」	
3	김해읍성 북문지	북서쪽 380m	조선시대 북문지, 옹성 등	金海市 · 慶南文化財硏究院, 2009, 『金海邑城 北門址』	
4	김해 동상동 317-2번지 유적	북서쪽 330m	조선시대 호안석축	강산문화연구원, 2018, 『김해읍성』	
5	김해 동상동 소방도로 개설구간 내 유적	북서쪽 265m	통일신라~고려시대 수혈유구, 구상유구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2007, 『창녕 도시계획도로 건설부지내 · 김해 동상동 소방도로개설구간 내 文化遺蹟 試掘調査報告書』	
6	김해 동상동 317-1번지 일원 유적	북서쪽 325m	조선시대 치성	해동문화재연구원, 2018, 「김해 동상동(317-1)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약보고서」	
7	김해 동상동 823-1번지 유적	북서쪽 300m	조선시대 체성, 치성	강산문화연구원, 2018, 『김해읍성』	
8	김해 동상동 841번지 유적	북서쪽 310m	조선시대 수혈유구, 석축유구 등	한국문화재재단, 2019, 『2017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XVI-104. 김해 서상동 841번지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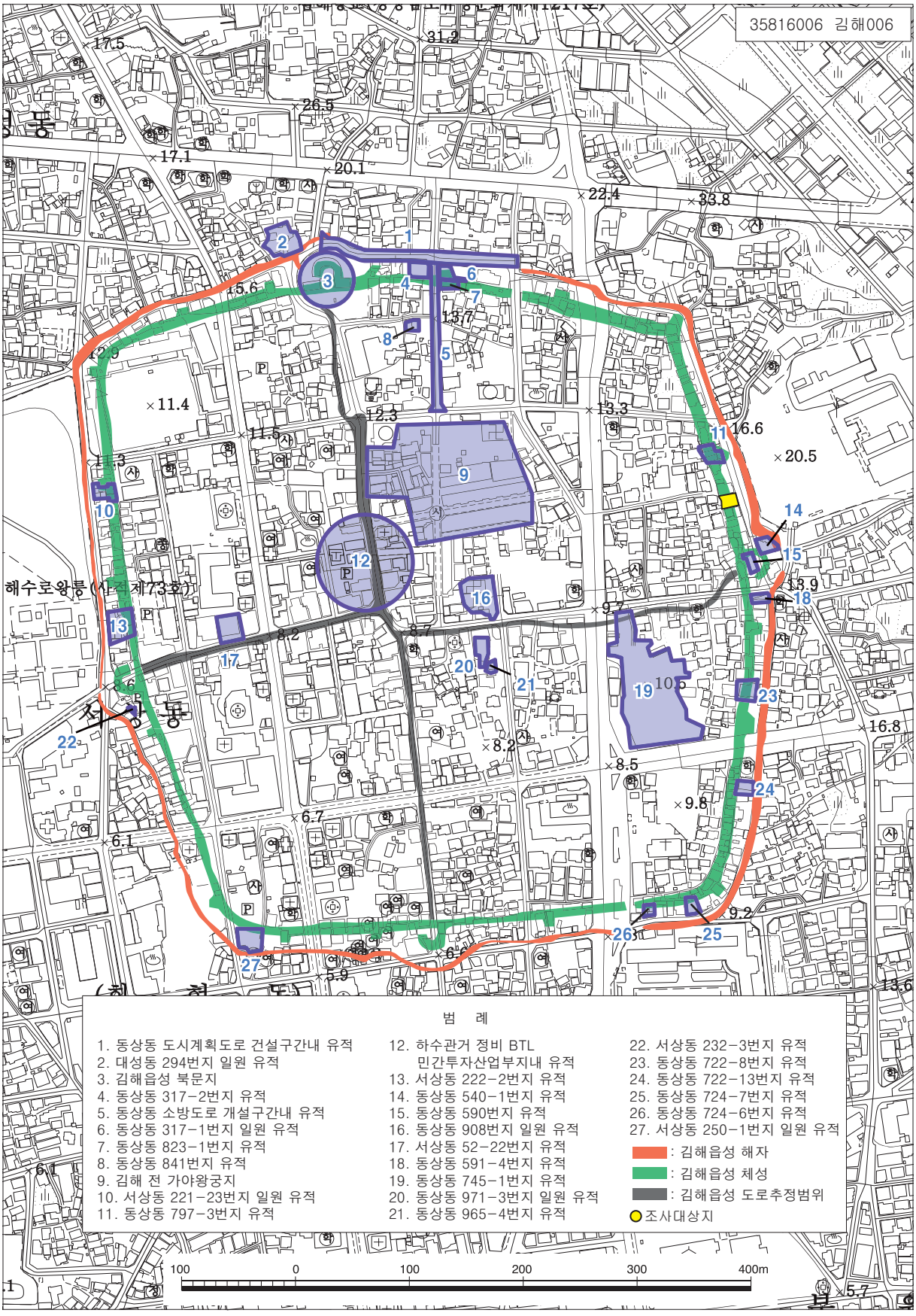
8) 두류문화재연구원, 2013, 『김해 동상동 591-4번지 유적』.

9) 한국문화재재단, 2019, 『2017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XII-73. 김해 서상동 222-2번지 유적』.
한국문화재재단, 2018, 「소규모 국비지원 발굴조사 약식보고서-김해 서상동 221-23번지 외 3필지 소규모공장 신축부지 내 유적-」.

10) 한국문화재재단, 2019, 『2017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XX-130. 김해 서상동 722-13번지 유적(한화문물연구원)』.

연번	유적명	이격 거리	유적시기 및 성격	참고문헌	비고
9	김해 전 가야왕궁지	서쪽 170m	조선시대 토단, 석축유구 등	한국문물연구원, 2007, 「김해 전 가야왕궁지(분성대) 문화재 발굴(시굴)조사결과 약보고」	
10	김해 서상동 221-23번지 일원 유적	서쪽 540m	조선시대 체성, 치성	한국문화재재단, 2018, 「소규모 국비지원 발굴조사 약식 보고서-김해 서상동 221-23번지 외 3필지 소규모공장 신축부지 내 유적-」	
11	김해 동상동 797-3번지 유적	북쪽 30m	조선시대 체성 지대석 등	강산문화연구원, 2018, 「경남 김해 동상동 797-3번지 단독 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소규모 국비 지원 발굴(정밀)조사 결과보고서」	
12	김해 하수관거 정비 BTL 민간투자 산업부지 내 유적	서쪽 290m	고려~조선시대 건물지, 석축유구 등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2010, 『김해 하수관거 정비 BTL 민간투자사업부지내 문화유적 發掘調査 報告書』	
13	김해 서상동 222-2번지 유적	남서쪽 535m	조선시대 체성, 해자, 석축	한국문화재재단, 2019, 『2017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Ⅻ-73. 김해 서상동 222-2번지 유적』	
14	김해 동상동 540-1번지 유적	남동쪽 50m	조선시대 체성, 해자	頭流文化硏究院, 2011, 「동상동 540-1번지 주택건축부지 내 문화유적 시(발)굴조사 결과약보고」	
15	김해 동상동 590번지 유적	남쪽 50m	조선시대 옹성	한반도문화재연구원, 2019, 「김해 동상동 590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소규모 국비지원 정밀발굴조사 약보고서」	
16	김해 동상동 908번지 일원 유적	남서쪽 215m	조선시대 건물지, 배수로	강산문화연구원, 2018, 『김해읍성』	
17	김해 서상동 52-22번지 유적	남서쪽 440m	삼국시대 수혈유구 등 조선시대 수혈유구	경상문화재연구원, 2014, 『金海 西上洞 52-22番地 遺蹟』	
18	김해 동상동 591-4번지 유적	남동쪽 85m	조선시대 해자, 석축	頭流文化硏究院, 2015, 『김해읍성 · 신기산성-김해 동상동 591-4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연번	유적명	이격 거리	유적시기 및 성격	참고문헌	비고
19	김해 동상동 745-1번지 유적	남서쪽 130m	통일신라시대 우물 등 조선시대 담장지, 석렬 등	경상문화재연구원, 2018, 『김해 동상동 745-1번지 유적- 김해 제일교회 신축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20	김해 동상동 971-3번지 일원 유적	남서쪽 240m	조선시대 담장지, 적심, 우물 등	우리문화재연구원, 2015, 『金海 東上洞 971-3番地 遺蹟』	
21	김해 동상동 965-4번지 유적	남서쪽 250m	근대 기단석렬	한국문화재재단, 2019, 「소규모 국비지원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김해 동상동 965-4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문화유적-」	
22	김해 서상동 232-3번지 유적	남서쪽 550m	조선시대 호안석축	강산문화연구원, 2019, 「김해 서상동 232-3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국비지원 매장문화재 발굴(정밀)조사 결과보고서」	
23	김해 동상동 722-8번지 유적	남쪽 160m	삼국시대 주혈군 조선시대 체성	강산문화연구원, 2018, 『김해읍성』	
24	김해 동상동 722-13번지 유적	남쪽 250m	조선시대 체성, 해자, 석축	한국문화재재단, 2019, 『2017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XX-130. 김해 서상동 722-13번지 유적(한화문물연구원)』	
25	김해 동상동 724-7번지 유적	남쪽 350m	조선시대 호안석축	韓國文化財財團, 2015, 『2013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Ⅷ-울산 · 경남- 김해 동상동 824-7번지 유적』	
26	김해 동상동 724-6번지 유적	남쪽 360m	조선시대 호안석축	頭流文化硏究院, 2016, 「김해 동상동 724-6번지 근린시설 신축부지 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결과약보고서」	
27	김해 서상동 250-1번지 일원 유적	남서쪽 555m	조선시대 호안석축, 석렬	한국문화재재단, 2016, 「김해 서상동 250-1외 1필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문화유적 국비지원 시굴조사 약보고서」	



도면 4. 조사대상지 및 김해읍성 관련 유적 분포도(1:5,000)



도면 5. 조사대상지 지적도(1: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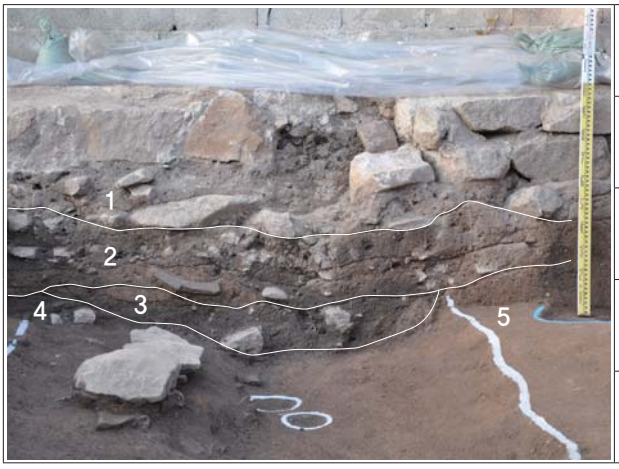
Ⅲ. 조사내용

제토는 시굴조사 트렌치를 재굴착하여 조사 당시 확인된 체성 및 관련 유구 등 기본적인 층위 양상을 파악 후 실시하였다. 유구가 분포한 토층 상면까지는 굴삭기로 전면 제토했으며, 유구 확인 및 노출은 수작업으로 진행하였다. 제토 범위는 동쪽 경계는 도로, 나머지 서쪽과 남 · 북쪽은 옆 주택 담장으로 사용 중인 관계로 안전문제를 고려해 조사경계에서 50㎝ 정도 들여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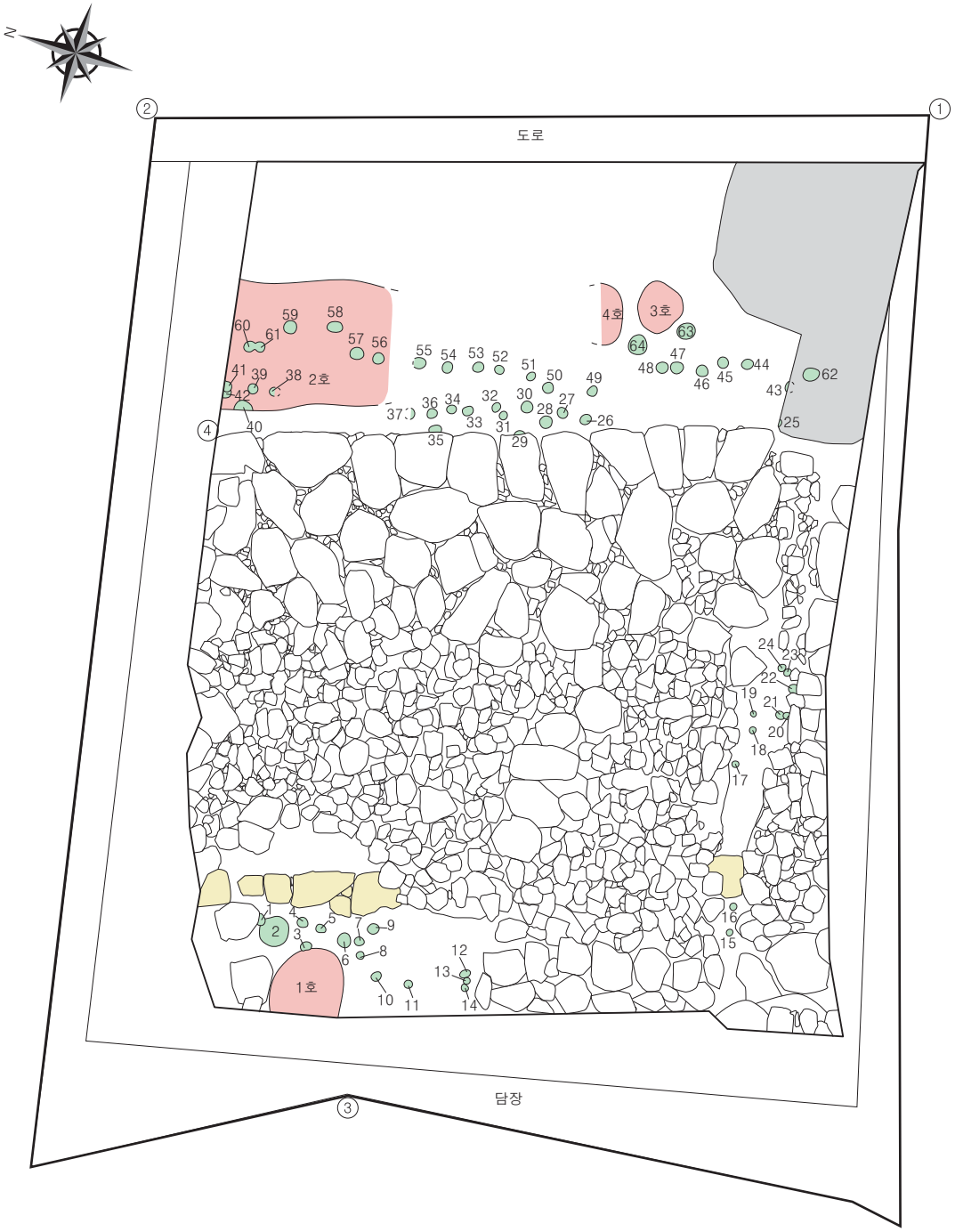
체성 및 관련 유구 상부는 현대 건물이 들어서며 상부가 대부분 훼손되었다. 조사대상지 남동쪽은 정화조로 교란되었으며, 조사대상지 남동쪽은 배수관이 매립되며 일부가 교란되었다. 조사대상지 북서쪽 범위는 후대 교란토가 확인되었다. 체성의 동쪽 중앙은 시굴조사 트렌치가 위치하고 있다. 발굴조사에서는 확인된 성벽 등을 최대한 노출해 분포 양상을 파악했으며, 성벽과 주혈 등의 단면 및 해체 조사는 문화재청 전문가 검토회의 결과가 '유적 현지 보존'으로 결정되어 실시하지 못하였다. 다만 조사대상지 남동쪽의 정화조와 체성 서쪽에 매설된 건물 배관의 교란 범위를 정리해, 체성의 지정토-내벽-외벽 일부 단면과 토층을 부분적으로 확인하였다.

조사대상지 전반적인 토층 퇴적양상은 조사대상지 북동쪽 경계면을 기준으로, 표토층-퇴적층-체성 정지토 순으로 확인되었다. 표토층(1층)은 두께 30~60㎝ 정도 담황갈색 사질점토이다. 성벽 상부를 덮고 있으며 시멘트와 폐자재 등이 혼입되었다. 표토층 아래에 성벽이 확인되었으며, 퇴적층은 체성의 외벽 동쪽에서 확인되었다. 퇴적층(2층)은 표토하 60㎝ 정도에서 확인되는 갈색 사질점토층으로 두께는 20㎝ 정도이다. 퇴적층 아래는 체성이 조성된 체성 조성층 갈색 사질점토층(5층)이 표토하 80㎝ 정도에서 확인되었다. 갈색 사질점토층은 체성 동쪽과 체성 하부 모두에 분포하고 있다.

【표 2】 조사대상지 토층(북쪽 조사경계)



1층 : 담황갈색(10YR 4/3) 사질점토 - 건물 폐자재, 시멘트 등 포함	표토층 (두께 30~60㎝)
2층 : 갈색(10YR 4/4) 사질점토	퇴적층 (표토하 60㎝)
3층 : 회황갈색(10YR 4/2) 사질점토 - 수혈유구 2호 내부토	유구내부토
4층 : 담황갈색(10YR 4/3) 사질점토	체성 정지토
5층 : 갈색(10YR 4/3) 사질점토	체성 조성층



GPS 측점 제원표

측점		TM 좌표	측점		TM 좌표
①	X	293277.388m	③	X	293281.356m
	Y	189609.663m		Y	189594.399m
	Z	15.4m		Z	15.8m
②	X	293288.267m	④	X	293286.102m
	Y	189606.471m		Y	189602.333m
	Z	15.7m		Z	15.7m

도면 6. 유구분포도

〈조선시대〉

1) 체성

가. 유구(도면 7, 도판 3~6)

김해읍성 동벽의 체성에 해당하며 외벽과 내벽 일부, 뒷채움석, 지정토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뒷채움석 아래에서 석렬 1기가 추가로 확인되었다.

체성의 확인된 전체 규모는 길이 840~978㎝(남-북), 너비 870㎝(동-서), 높이 40~45㎝ 정도이다. 체성 외벽과 뒷채움부는 남·북쪽 조사경계 밖으로 연장되며, 내벽은 조사대상지 남서쪽 경계에서 일부만 확인되었다. 지정토는 외벽 바깥을 따라 확인되었다.

외벽은 남-북 방향으로 진행하며 폭 300㎝ 정도, 높이 40~45㎝ 정도 1단이 잔존한다. 중·대형 할석(크기 72×78㎝~66×120㎝ 정도)을 면석으로 치석해 축조했으며 면석 방향은 동쪽을 향해 고르게 배치했다. 외벽석 상면 또한 평평하게 치석하고 벽석 사이 빈틈에 소형 할석을 끼워 외벽의 전체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했다. 외벽은 대형 할석 2~3열로 축조한 특징을 보인다(도판 3 참조).

내벽은 조사대상지 남서쪽 경계 모서리에서 일부가 확인되며 북쪽 범위는 후대 교란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내벽은 해발고도 14.9m 정도에 위치한다. 내벽은 외벽과 평행한 남-북 방향으로 진행하며, 내벽과 외벽 서쪽면 사이 간격은 510~560㎝ 정도이다. 대형 할석(크기 60~90㎝ 정도) 1단이 확인되었으며 잔존 규모는 길이 234㎝, 폭 60㎝, 높이 60㎝ 정도이다. 외벽 석렬이 할석 2~3열을 쌓은 것과 달리 내벽은 석렬 1열을 쌓은 것으로 추정된다(도판 4 참조).

내·외벽 사이는 30~60㎝ 정도 크기의 중소형 할석을 채웠으며 현재 1~3단 정도가 잔존한다. 뒷채움석의 석재는 대부분 할석을 채운 양상이지만, 일부 석재는 평평한 면이 위를 향하도록 채워 둔 것으로 확인된다. 뒷채움석의 잔존 너비는 내·외 벽석 사이 500㎝ 정도이다. 지정토는 외벽과 뒷채움 아래에서 확인된다. 외벽쪽 지정토는 외벽석에서 동쪽으로 너비 90~114㎝, 깊이 30~50㎝ 정도 굴착했으며, 지정토 굴착 바닥면의 해발고도는 약 15m 정도이다. 갈색 사질점토층(생토층)을 비스듬히 굴착했으며 내부는 흑갈색, 명갈색, 갈색 등의 사질점토를 층층이 채웠다(도면 7의 B-B′토층 참고). 대형 외벽석 바로 아래 지정토는 사질점토와 함께 20~30㎝ 소형 할석을 1~2열 깔아 보강하였다. 뒷채움석 아래 지정토는 갈색 사질점토층(생토층)에 두께 30~36㎝ 정도로 갈색, 담황갈색, 흑갈색, 명갈색 사질점토와 크기 30㎝ 정도의 할석 일부를 함께 채웠다(도판 5 참조).

조사대상지 북서쪽 경계부의 후대 건축물 교란부를 정리하는 과정에 석렬 1기가 추가로 확인되었다. 조사대상지 남서쪽 후대 건물 배관 교란부에서도 석렬의 할석 일부가 확인되어, 축조 당시 남-북 방향으로 연결된 석렬일 것으로 추정된다. 석렬은 중소형 할석(크기 42×90㎝ 정도~30×42㎝ 정도) 1단이 확인되었으며, 해발고도 약 14.9m 정도에 위치한다. 석렬의 할석은 면석으로 치석되었으며 면석 방향은 동쪽을 향한다. 석렬의 면석 방향은 동쪽, 내벽석은 서쪽을 향해 차이를 보여 석렬의 용도는 선축 성벽 또는 축조 이전 임시 성벽일 가능성이 추정된다(도판 6 참조).

유물은 체성 노출 과정에 자기편과 기와편 등이 확인되었으며 그 중 양호한 6점을 선별 수습하였다.

나. 유물

1. 분청사기 저부(도면 8-1, 도판 7-1)

신부의 하위와 굽만 잔존한다. 소성상태는 보통이며, 태토는 회갈색(7.5YR 5/3)을 띤다. 유약은 대부분 산화되어 회색(5Y 6/1)를 띤다. 유약은 전면에 시유하였으나, 굽 접지면 일부는 박락되었다. 내저면에서 내화토모래빚음 받침 4개가 확인된다. 굽은 죽절굽의 형태를 띤다.

잔존기고 2.4㎝, 저경 4.3㎝

2. 분청사기 저부(도면 8-2, 도판 7-2)

신부의 하위 및 굽의 1/2 정도 잔존하는 것을 도면 복원하였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회색(7.5Y 6/1)을 띤다. 유약은 올리브회색(2.5GY 5/1)을 띠며, 전면에 시유하였다. 신부 내면의 하위에는 상감기법으로 2조의 원권을 돌렸으며, 그 상면에 불명확한 문양이 확인된다. 외면은 상감기법으로 2조의 원권을 돌렸다. 굽 접지면과 안바닥에는 굵은모래 받침이 확인된다. 굽은 수직굽의 형태를 띤다.

잔존기고 2.4㎝, 복원저경 5.1㎝

3. 연화문수막새(도면 8-3, 도판 7-3)

드림부의 1/2 정도와 기와부의 극히 일부가 잔존한다. 경질제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내외면의 색조는 황회색(2.5Y 4/1), 속심의 색조는 회등색(7.5YR 6/4)이다. 주연부는 무문으로, 안쪽 가장자리에 1조의 돌대를 돌려 주연부와 문양부를 구획하였다. 문양부에는 물방울 형태의 연판이 4엽 정도 남아있다. 드림부 내면에서 점토보강흔과 물손질흔이 확인된다.

잔존직경 6.8㎝, 두께 1.8㎝

4. 암키와편(도면 8-4, 도판 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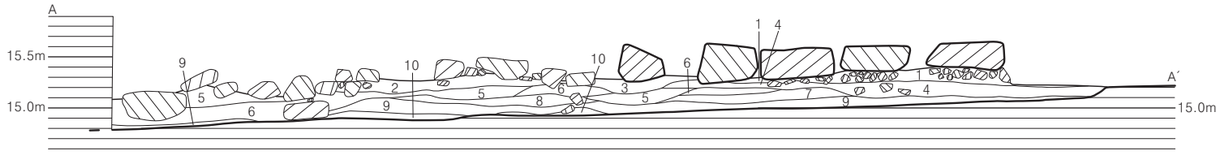
상부의 일부가 잔존한다. 경질제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세석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황색(2.5Y 5/1)이다. 내면에서 포목흔이 확인되며, 외면은 어골문 타날 후, 상단부는 물손질 정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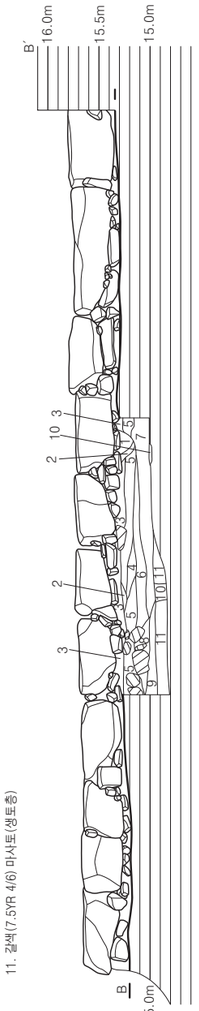
잔존길이 13.3㎝, 잔존너비 11.6㎝, 두께 1.8㎝

5. 암키와편(도면 8-5, 도판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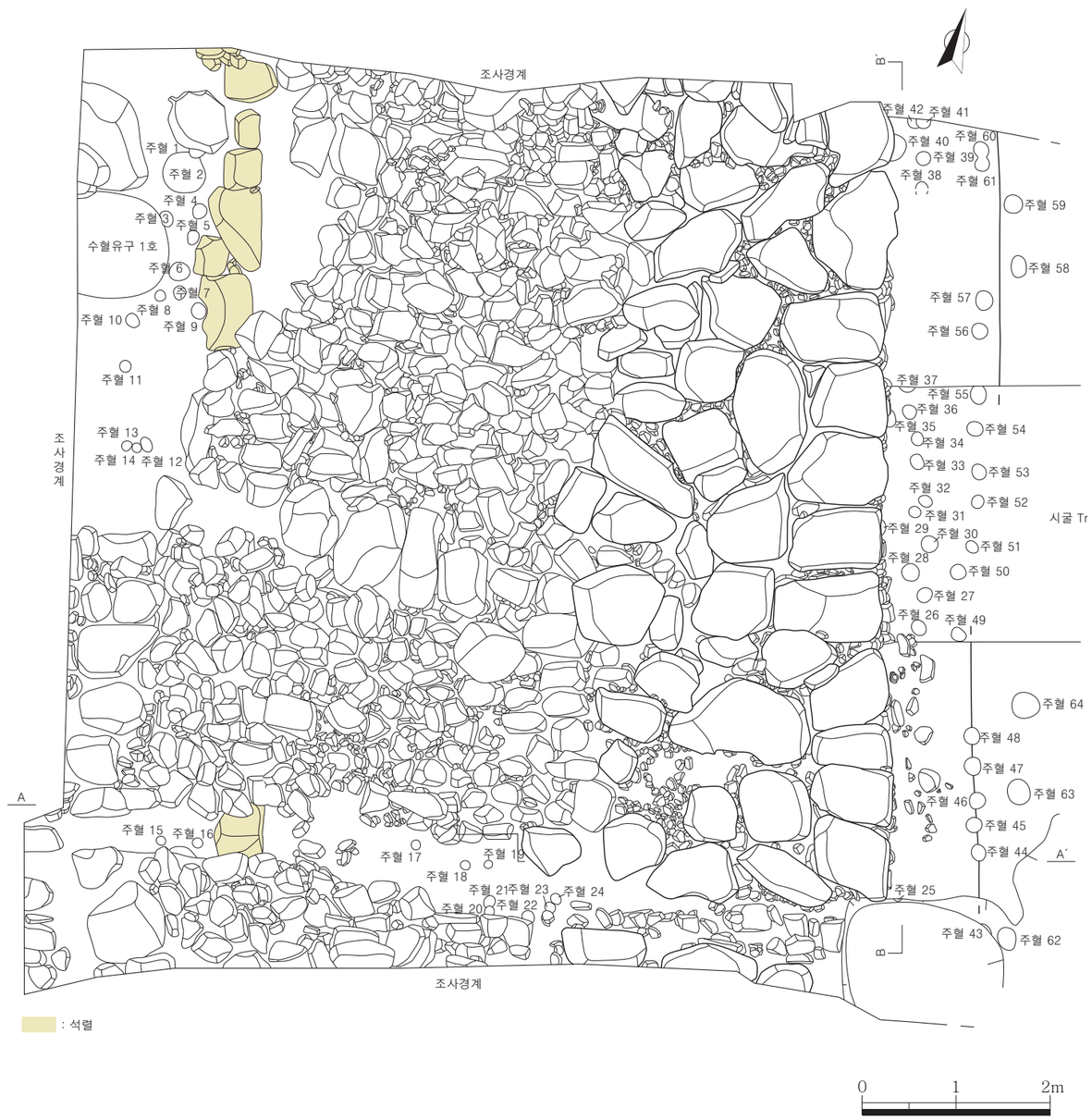
좌측 하부의 일부가 잔존한다. 경질제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황색(2.5Y 5/1)이다. 내면에서 포목흔과 점토합흔이 확인되며, 하단부는 물손질로 단부 조정하였다. 외면은 방사상의 호선문을 타날한 것으로 판단되며, 하단부는 물손질 정면하였다. 와도흔은 좌측에서 확인되며, 내→외로 1/2 정도 분할하였다.

1. 갈색(7.5YR 4/4) 사질점토 – 5~10cm 정도의 할석 다량 혼입, 사질성 강함
2. 담황갈색(10YR 4/3) 사질점토
3. 담황갈색(10YR 5/4) 사질점토
4. 흑갈색(7.5YR 3/2) 사질점토 – 7~10cm 정도의 할석, 기와편 및 목탄 혼입
5. 회황갈색(10YR 4/2) 사질점토
6. 흑갈색(10YR 3/1) 사질점토 – 기와편 혼입, 점성 강함
7. 암갈색(10YR 3/3) 사질점토
8. 담황갈색(10YR 5/3) 사질점토
9. 회황갈색(10YR 5/2) 사질점토 – 목탄 소량 혼입
10. 명갈색(7.5YR 5/6) 사질점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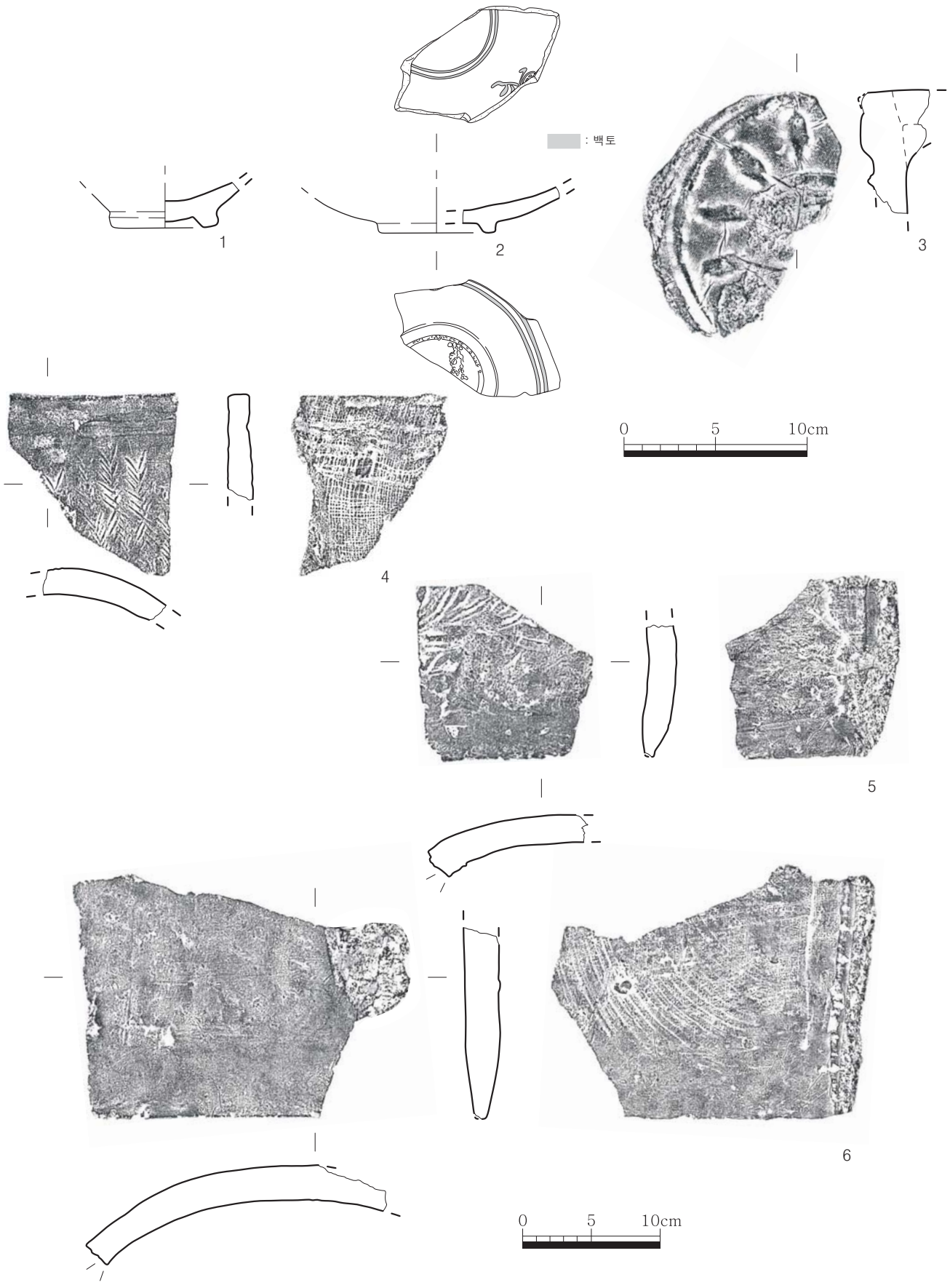




1. 흑갈색(5YR 3/1) 사질점토
2. 명갈색(7.5YR 5/6) 사질점토
3. 갈색(7.5YR 4/4) 사질점토 – 5~10cm 정도의 할석 다량 혼입, 사질성 강함
4. 갈회색(10YR 4/1) 사질점토
5. 흑갈색(10YR 3/2) 사질점토 – 7~10cm 정도의 할석, 기와편 및 목탄 혼입
6. 암갈색(10YR 3/3) 사질점토 – 목탄 소량 혼입
7. 흑갈색(7.5YR 3/2) 사질점토 – 목탄 혼입
8. 흑갈색(7.5YR 3/1) 사질점토 – 목탄 소량 혼입
9. 회황갈색(10YR 5/2) 사질점토 – 목탄 소량 혼입
10. 극암갈색(7.5YR 2/3) 사질점토 + 회백색 니질토(주혈 내부토)
11. 갈색(7.5YR 4/6) 마사토(생토층)



도면 7. 체성



도면 8. 체성 출토유물

잔존길이 13.2㎝, 잔존너비 12.2㎝, 두께 2.0㎝

6. 암키와편(도면 8-6, 도판 8-6)

좌측 하부의 일부가 잔존한다. 경질제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황색(2.5Y 5/1)이다. 내면에서 포목흔과 사절흔이 확인되며, 하단부는 물손질로 단부 조정하였다. 외면은 물손질 정면하였다. 와도흔은 좌측에서 확인되며, 내→외로 1/3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18.5㎝, 잔존너비 23.0㎝, 두께 2.4㎝

2) 주혈

가. 유구(도면 9, 도판 8~11)

주혈은 총 64개가 확인되었다. 주혈의 분포 위치는 외벽 바깥 동쪽의 지정토 범위, 조사대상지 북서쪽과 남동쪽 뒷채움석 아래에서 부분적으로 확인되었다. 주혈의 토층 단면 조사는 교란으로 훼손된 주혈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외벽 동쪽편 주혈(25~64)은 남-북 방향 2열(동 · 서쪽열)이 분포한다. 주혈 중 30, 32, 51, 52 내부토는 목질흔(갈회색 사질점토)과 목질부식흔(회백색 니질토)이 확인되며, 나머지 주혈은 회색 및 갈색계 사질점토가 단일 퇴적되었다. 주혈 규모는 직경 14㎝ 정도, 깊이 35~57㎝ 정도이다. 조사대상지 북서쪽 뒷채움석 아래(1~14)의 주혈은 직경 10~43㎝, 깊이 6~26㎝ 정도이며 내부는 회 · 갈색계 사질점토가 단일 퇴적되었다. 남서쪽 뒷채움석 아래 주혈(15~24)는 직경 9~12㎝ 정도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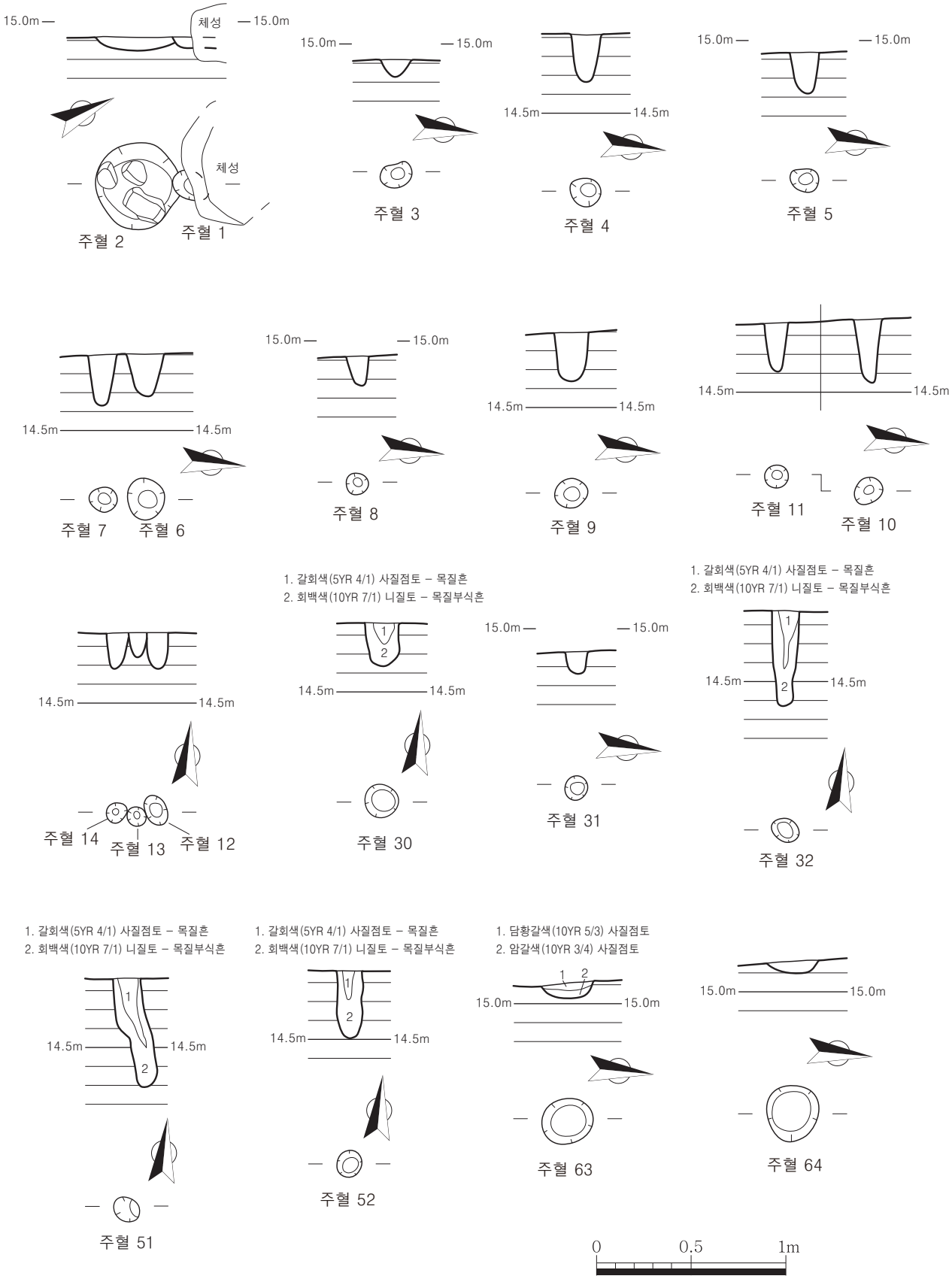
주혈의 세부적인 특징은 다음【표 3】과 같으며 주혈에서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표 3】 주혈 속성표

주혈 번호	도면 번호	도판 번호	평면 형태	규모(㎝)		내부토	비고
				직경	깊이		
1	9	9-⑤	(원형)	(10)	6	갈회색(10YR 4/1) 사질점토	
2	9	9-⑥	원형	43	7	갈회색(10YR 5/1) 사질점토	
3	9	9-⑦	원형	16	9	갈회색(10YR 4/1) 사질점토	
4	9	10-①	원형	16	26	흑갈색(10YR 3/2) 사질점토	
5	9	10-②	원형	14	22	흑갈색(10YR 3/2) 사질점토	
6	9	10-③	원형	20	28	갈회색(10YR 4/1) 사질점토	
7	9	10-④	원형	14	23	흑갈색(10YR 3/2) 사질점토	

주혈 번호	도면 번호	도판 번호	평면 형태	규모(㎝)		내부토	비고
				직경	깊이		
8	9	10-⑤	원형	10	16	흑갈색(10YR 3/1) 사질점토	
9	9	10-⑥	원형	18	26	흑갈색(10YR 3/2) 사질점토	
10	9	10-⑦	원형	14	26	갈회색(10YR 4/1) 사질점토	
11	9	10-⑧	원형	12	34	갈회색(10YR 4/1) 사질점토	
12	9	11-①	원형	16	19	흑갈색(10YR 3/2) 사질점토	
13	9	11-①	원형	10	13	흑갈색(10YR 3/2) 사질점토	
14	9	11-①	원형	10	19	흑갈색(10YR 3/2) 사질점토	
15	-	-	원형	10	-	-	
16	-	-	원형	10	-	-	
17	-	-	원형	10	-	-	
18	-	-	원형	10	-	-	
19	-	-	원형	9	-	-	
20	-	-	원형	10	-	-	
21	-	-	원형	12	-	-	
22	-	-	원형	12	-	-	
23	-	-	원형	10	-	-	
24	-	-	원형	10	-	-	
25	-	-	원형	(10)		-	
26	-	-	원형	18	-	-	
27	-	-	원형	18	-	-	
28	-	-	원형	18	-	-	
29	-	-	(원형)	(18)	-	-	
30	9	11-②	원형	16	22	1. 갈회색(5YR 4/1) 사질점토-목주흔 2. 회백색(10YR 7/1) 니질토-목질부식흔	
31	9	11-③	원형	14	12	갈회색(10YR 5/1) 사질점토	

주혈 번호	도면 번호	도판 번호	평면 형태	규모(㎝)		내부토	비고
				직경	깊이		
32	9	11-④	원형	14	50	1. 갈회색(5YR 4/1) 사질점토-목주흔 2. 회백색(10YR 7/1) 니질토-목질부식흔	
33	-	-	원형	18	-	-	
34	-	-	원형	16	-	-	
35	-	-	(원형)	(19)	-	-	
36	-	-	원형	14	-	-	
37	-	-	(원형)	(16)	-	-	
38	-	-	(원형)	(14)	-	-	
39	-	-	원형	14	-	-	
40	-	-	(원형)	(26)	-	-	
41	-	-	원형	14	-	-	
42	-	-	(원형)	(10)	-	-	
43	-	-	(원형)	(14)	-	-	
44	-	-	원형	18	-	-	
45	-	-	원형	18	-	-	
46	-	-	원형	18	-	-	
47	-	-	원형	20	-	-	
48	-	-	원형	18	-	-	
49	-	-	원형	14	-	-	
50	-	-	원형	16	-	-	
51	9	11-⑤	원형	14	57	1. 갈회색(5YR 4/1) 사질점토-목주흔 2. 회백색(10YR 7/1) 니질토-목질부식흔	
52	9	11-⑥	원형	14	35	1. 갈회색(5YR 4/1) 사질점토-목주흔 2. 회백색(10YR 7/1) 니질토-목질부식흔	
53	-	-	원형	16	-	-	
54	-	-	원형	16	-	-	


15.0m
체성
15.0m
체성
주혈 2
주혈 1
주혈 3
14.5m
14.5m
주혈 4
주혈 5
주혈 7
주혈 6
주혈 8
주혈 9
주혈 11
주혈 10
1. 갈회색(5YR 4/1) 사질점토 – 목질흔
2. 회백색(10YR 7/1) 니질토 – 목질부식흔
주혈 14
주혈 13
주혈 12
주혈 30
주혈 31
주혈 32
주혈 51
주혈 52
주혈 63
주혈 64
0
0.5
1m

도면 9. 주혈

주혈 번호	도면 번호	도판 번호	평면 형태	규모(㎝)		내부토	비고
				직경	깊이		
55	–	–	원형	20	–	–	
56	–	–	원형	16	–	–	
57	–	–	원형	21	–	–	
58	–	–	타원형	22	–	–	
59	–	–	원형	20	–	–	
60	–	–	원형	16	–	–	
61	–	–	원형	14	–	–	
62	–	–	원형	24	–	–	
63	9	11-⑦	원형	26	7	담황갈색(10YR 5/3) 사질점토	
64	9	11-⑧	원형	26	6	암갈색(10YR 3/4) 사질점토	

3) 수혈유구

가. 유구(도면 10, 도판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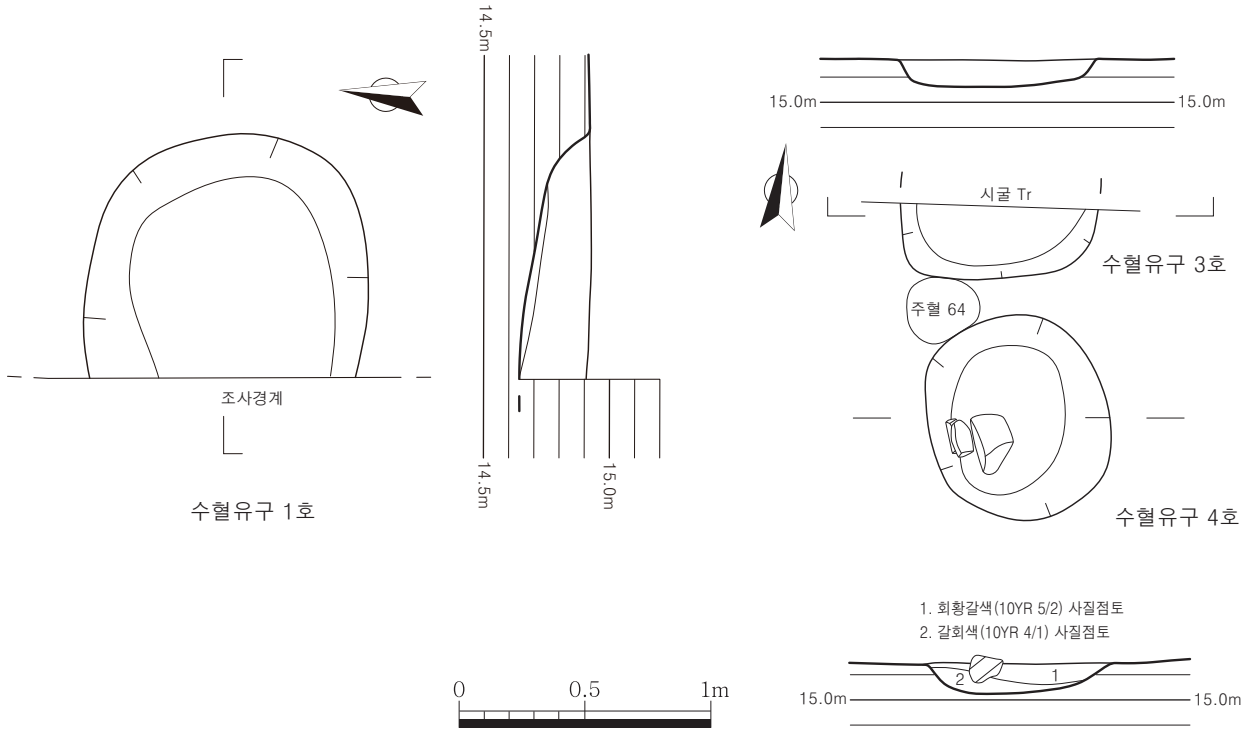
수혈유구는 총 4기가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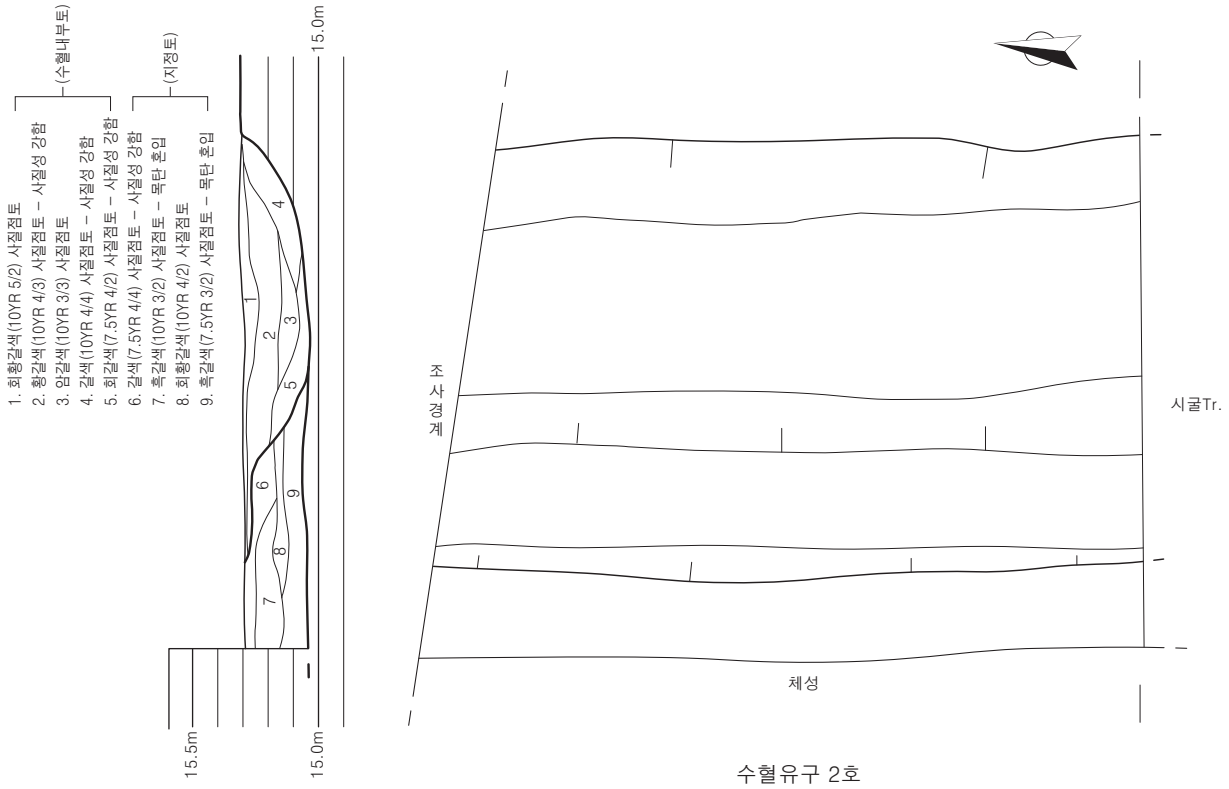
수혈유구 1호는 조사대상지 북서쪽의 뒷채움석 아래에 위치하며 서쪽 일부는 조사경계 바깥으로 연장된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에 가까우며 내부는 갈회색 사질점토가 단일 퇴적되었다. 수혈유구 2호는 외벽의 북동쪽 바깥에 분포하며, 수혈유구 남쪽은 시굴트렌치로 교란되었다. 지정토를 굴착해 조성되었으며 내부는 회황갈색, 암갈색, 갈색 사질점토가 퇴적되었다. 수혈유구 4호는 북쪽 절반 가량이 시굴트렌치로 교란되었다. 수혈유구 3호는 4호 남쪽에 분포한다.

수혈유구 1~4호는 내부 유물이 출토되지 않았으며 별다른 특징이 파악되지 않아 조사내용은【표4】에 간략히 정리하였다.

【표 4】수혈유구 속성표

유구 번호	도면 번호	도판 번호	규모(㎝)			내부토	비고
			길이	너비	깊이		
1호	10	12-①②	108	(99)	25	갈회색(10YR 4/1) 사질점토	


14.5m
조사경계
14.5m
15.0m
수혈유구 1호
15.0m
15.0m
시굴 Tr
수혈유구 3호
주혈 64
수혈유구 4호
1. 회황갈색(10YR 5/2) 사질점토
2. 갈회색(10YR 4/1) 사질점토
2
1
15.0m
15.0m
0
0.5
1m


(수혈내부토)
(지정토)
1. 회황갈색(10YR 5/2) 사질점토
2. 황갈색(10YR 4/3) 사질점토 – 사질성 강함
3. 암갈색(10YR 3/3) 사질점토
4. 갈색(10YR 4/4) 사질점토 – 사질성 강함
5. 회갈색(7.5YR 4/2) 사질점토 – 사질성 강함
6. 갈색(7.5YR 4/4) 사질점토 – 사질성 강함
7. 흑갈색(10YR 3/2) 사질점토 – 목탄 혼입
8. 회황갈색(10YR 4/2) 사질점토
9. 흑갈색(7.5YR 3/2) 사질점토 – 목탄 혼입
15.0m
15.5m
15.0m
조사경계
시굴Tr.
체성
수혈유구 2호

도면 10. 수혈유구

유구 번호	도면 번호	도판 번호	규모(㎝)			내부토	비고
			길이	너비	깊이		
2호	10	12-③④	282	164	29	1. 회황갈색(10YR 5/2) 사질점토 2. 황갈색(10YR 4/3) 사질점토 - 사질성 강함 3. 암갈색(10YR 3/3) 사질점토 4. 갈색(10YR 4/4) 사질점토 - 사질성 강함 5. 회갈색(7.5YR 4/2) 사질점토 - 사질성 강함	
3호	10	12-⑤⑥	73	(26)	15	갈회색(10YR 4/1) 사질점토	
4호	10	12-⑦⑧	85	55	10	1. 회황갈색(10YR 5/2) 사질점토 2. 갈회색(10YR 4/1) 사질점토	

〈상부 수습유물〉

체성 동쪽편의 생토층과 표토층 사이 퇴적층(갈색 사질점토층)을 제토하는 과정에 수습된 유물에 해당된다.

7. 청자 접시(도면 11-7, 도판 13-7)

구연부 및 동체부 일부와 굽만 잔존하는 것을 도면 복원하였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회백색(10YR 7/1)의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유약의 색조는 올리브회색(2.5GY 6/1)으로 전면에 시유하였으나, 굽 접지면과 굽 안바닥의 일부는 닦아낸 흔적이 확인된다. 전면에는 가는 빙렬이 확인된다. 내저면에서 내화토빚음 받침 3개, 굽 접지면에서 내화토빚음 받침 1개가 확인된다. 굽은 다리굽의 형태를 띠며, 굽 접지면의 너비가 일정하지 못한 편이다.

기고 3.0㎝, 복원구경 11.0㎝, 저경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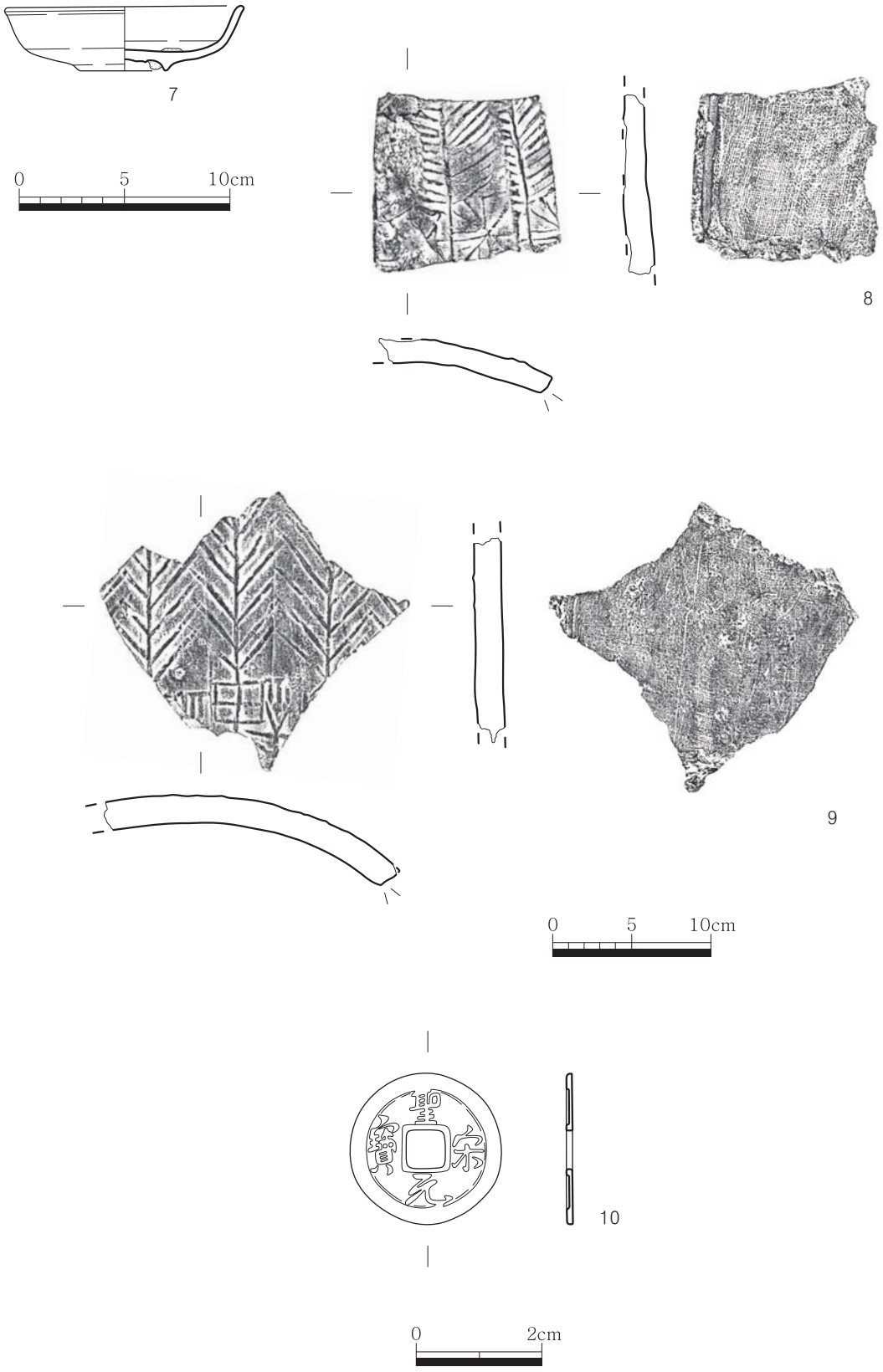
8. 암키와편(도면 11-8, 도판 13-8)

우측 일부가 잔존한다. 경질제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외면이 회황색(2.5Y 5/1), 내면과 속심은 회황등색(10YR 7/3)이다. 내면에서 포목흔이 확인되며, 외면은 어골문과 '*'을 타날하였다. 와도흔은 전면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11.5㎝, 잔존너비 11.4㎝, 두께 1.5㎝

9. 암키와편(도면 11-9, 도판 13-9)

일부가 잔존한다. 경질제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황색(2.5Y 5/1)이다. 내면에서 포목흔이 확인된다. 외면은 어골문 아래에 방곽문과 '*'을 타날하였다. 방곽문내에는 '十'자 선문을 타날하였다. 와도흔은 내→외로



도면 11. 상부 수습유물

1/3 정도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17.9㎝, 잔존너비 18.7㎝, 두께 1.7㎝

10. 성송원보(도면 11-10, 도판 13-10)

주조품으로 잔존상태 양호한 편이다. 前面에는 '聖宋元寶'가 상→우→하→좌의 순서로 표시되어 있고, 後面은 무문이다. 중앙부에는 방형의 구멍을 뚫었다.

직경 2.4㎝, 두께 0.1㎝, 중량 2.6g

Ⅳ. 조사성과

본 김해시 동상동 538-6번지 유적 단독주택 신축부지에 대한 발굴조사는 소규모발굴 국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조사결과, 조선시대 김해읍성의 체성(내·외벽, 뒷채움석, 지정토, 석렬)과 주혈 64개, 수혈유구 4기가 확인되었다. 유물은 체성 등 유구 노출 과정에 분청사기, 암키와편 등 총 10점이 출토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체성은 김해읍성 동벽에 해당된다. 상부는 후대 교란으로 대부분 남아있지 않으며, 체성 외벽과 내벽의 최하단석 그리고 뒷채움의 하부가 확인되었다. 체성의 축조과정은 지정토 조성→내·외벽 축조→뒷채움 조성 순서로 파악된다. 지정토는 생토층(갈색 사질점토층)을 굴착해 조성했다.[11] 체성 외벽의 바깥을 너비 90~114㎝ 정도로 넓게 굴착했으며 지정토의 굴착 깊이는 체성 외벽은 30㎝, 뒷채움부는 30~50㎝ 정도 깊이로 굴착하였다. 체성 외벽 아래는 갈색·황갈색 사질점토를 번갈아 채웠으며 외벽석 직하에는 소형 1~3단을 깔아 벽석의 하중을 지탱하도록 했다. 뒷채움 아래의 지정토는 소형 할석 일부와 갈색 사질점토를 30~60㎝ 두께로 층층이 깔았다.

체성 외벽은 대형 할석을 2~3열 복열로 연접해 조성하였다. 외벽의 벽석재는 바깥면을 평평하게 치석해 면석 방향을 고르게 맞추었다. 벽석 윗면 역시 평평하게 치석했으며 벽석 사이 빈틈과 벽석 아래에 소형 할석을 끼워 외벽 최하단석의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했다. 내벽은 조사대상지 남서쪽 경계에서 일부만 확인되었다. 외벽과 달리 할석 1열로 조성했으며 현재 1단이 잔존한다. 체성 내벽과 외벽 안쪽면 사이 간격은 약 510~560㎝ 정도이다. 뒷채움부는 중대형 할석을 채웠으며, 현재 1~3단 정도가 잔존한다. 일부는 할석의 평평한 면이 위를 향하도록 의도적으로 깔은 양상이 확인된다.

체성의 북서쪽에 석렬 1기가 추가로 확인되었다. 벽석 동쪽면을 평평하게 면석 형태로 치석했다. 석렬의 진행 방향은 내외벽과 나란한 남-북향이며, 석렬 면석 방향은 외벽과 나란한 동쪽을 향해있다. 석렬 일부만 발굴조사되어 구체적인 용도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선축 성벽 또는 체성 축조 당시 임시 성벽일 가능성이 있다.[12]

주혈은 체성 외벽 바깥의 동쪽 범위와 체성 북서쪽 뒷채움석 아래에서 확인되었다. 뒷채움석 아래의 주혈은 체성 축조 당시 조성된 지정목혈로 추정된다. 체성 외벽 바깥의 주혈은 남-북 방향으로 2열이 일정하게 분포한다. 지정토에 주혈이 중복되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지정토 조성 이후 사용된 비계용 목주혈의 용도로 추정된다.

유물은 체성 등의 노출 과정에서 기와편, 자기편 등이 수습되었다. 기와의 문양은 무문, 어골문

---

11) 한국문화재재단, 2019,『2017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XX-130. 김해 서상동 722-13번지 유적(한화문물연구원)』.
이와 같은 체성 축조 과정은 본 조사대상지와 인접한 김해 동상동 722-13번지 유적에서 확인된 축조 양상과 유사하다.

12) 이는 발굴조사 중 개최된 학술자문회의 및 전문가검토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임을 밝혀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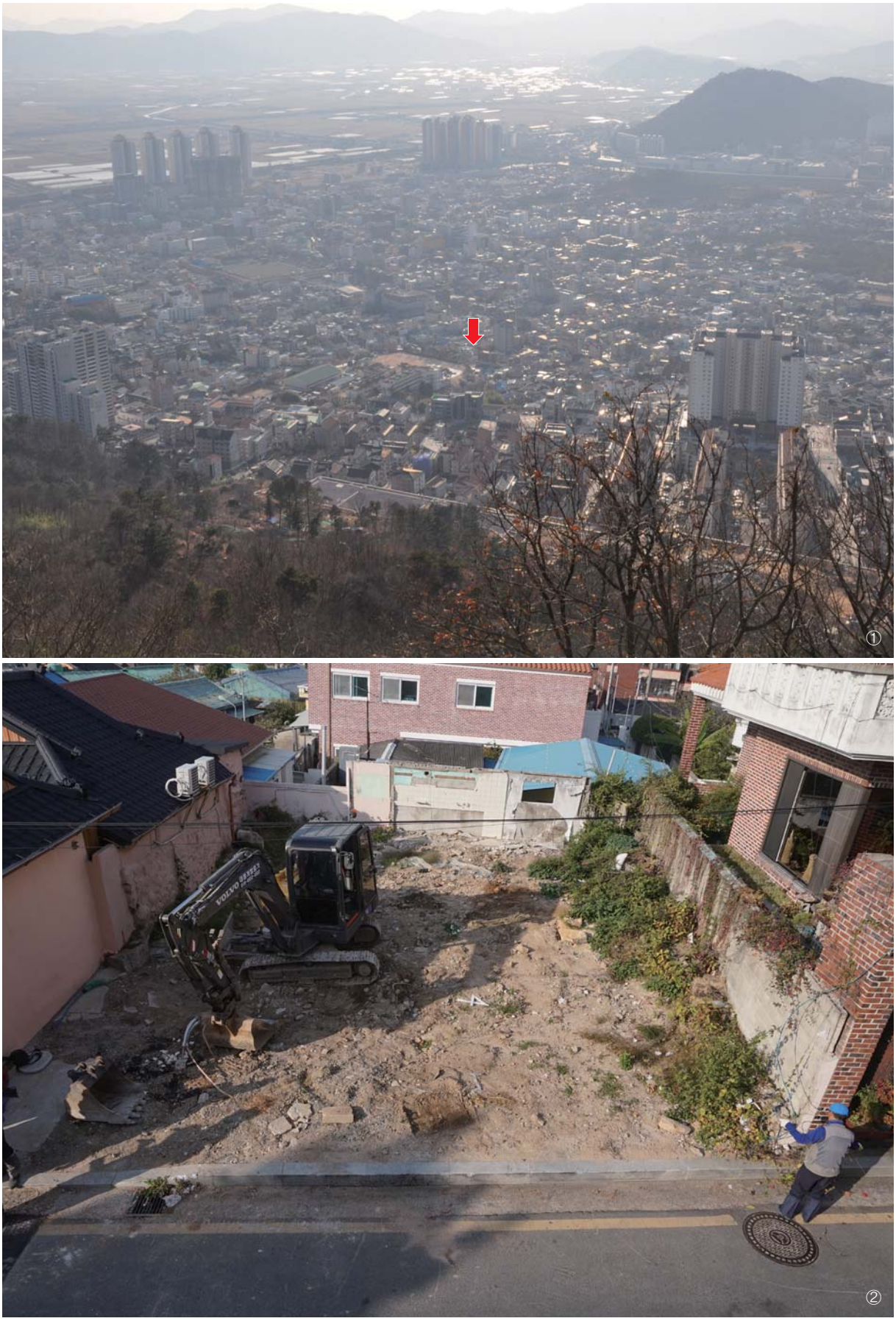
등의 복합문이며, 자기는 15~16세기로 편년되는 분청사기 저부편 등이 출토되었다.[13] 그 외 중국 송나라 성송원보(聖宋元寶) 1점이 상부 제토과정에서 수습되었으나 퇴적토의 수습유물인 관계로 유구 축조 연대 파악에는 한계가 있다. 출토 유물의 양상은 대체로 김해읍성 북문지 유적 출토품과 유사하다. 유물의 연대는 주로 15~16세기로 편년되며, 따라서 본 유적에서 확인된 체성의 축조 연대는 조선시대 전기로 판단된다.

김해읍성은 조선시대 김해지역의 중요 성곽으로 기능했으나 근현대사를 거치며 자취를 감추었다. 최근 발굴조사에서 김해읍성의 체성과 여러 구조물들이 확인되고 있다. 이번 발굴조사 결과 체성 상부는 대부분 남아있지 않으나, 체성 최하단부의 외벽과 내벽 일부 그리고 뒷채움부가 비교적 양호하게 확인되었다. 그런 점에서 주변 유적 발굴자료와 함께 향후 김해읍성 축조 과정의 일면을 살필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

13) 金海市 · 慶南文化財硏究院, 2009,『金海邑城 北門址』.
본 유적에서 출토된 기와 및 분청사기 굽편은 김해읍성 북문지 출토품과 유사하며, 김해읍성 보고서에는 출토 기와편 및 분청사기편의 연대를 15~16세기로 판단하고 있다.

도 판



도판 1. 조사대상지 전경(①원경(NE→SW), ②근경(E→W))



도판 2. 조사후 전경(①S→N, ②E→W)



도판 3. 외벽(①조사후(E→W), ②세부(NE→SW), ③세부(SE→NW))



도판 4. 내벽 조사후(①E→W), 뒷채움 조사후(②E→W)



도판 5. 뒷채움 조사후(①W→E, ②S→N, ③E→W, ④N→S), 지정토 전경(외벽 하부(⑤E→W, ⑥N→S, ⑦SE→NW), 뒷채움 하부(⑧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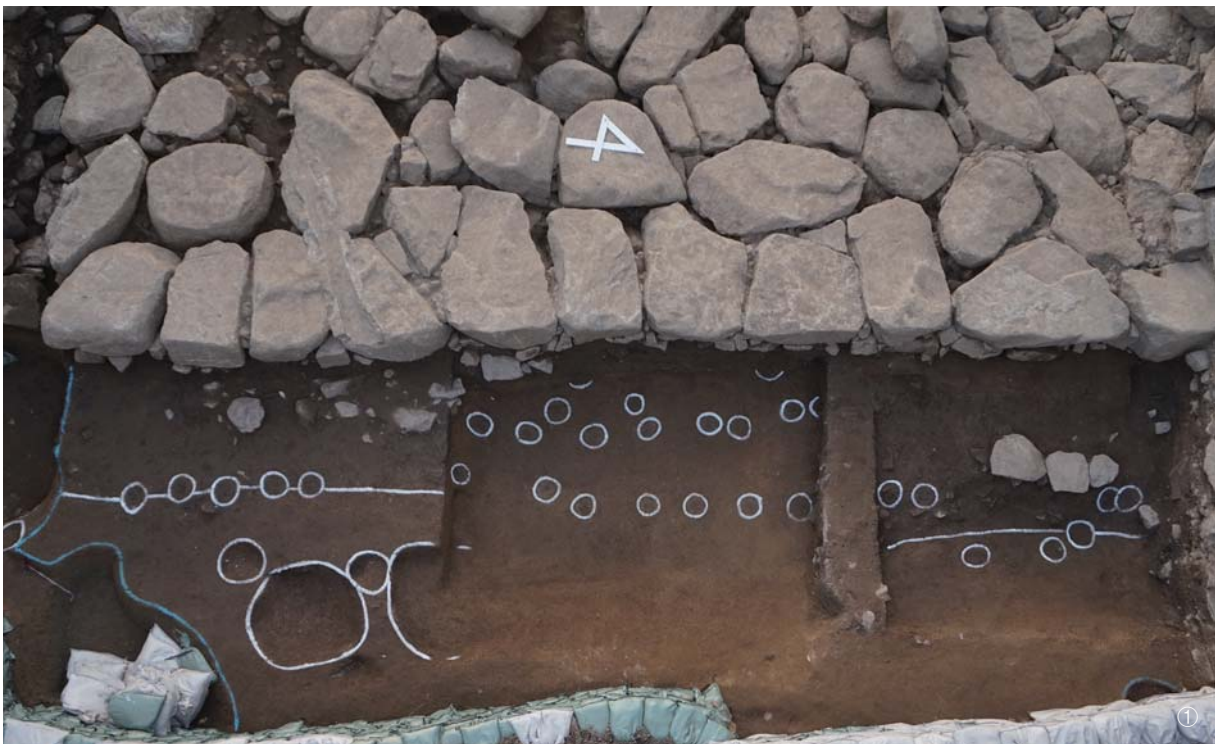
도판 6. 외벽 및 석렬 전경(①E→W), 석렬 조사후(②E→W, ③N→S, ④E→W), 석렬토층(⑤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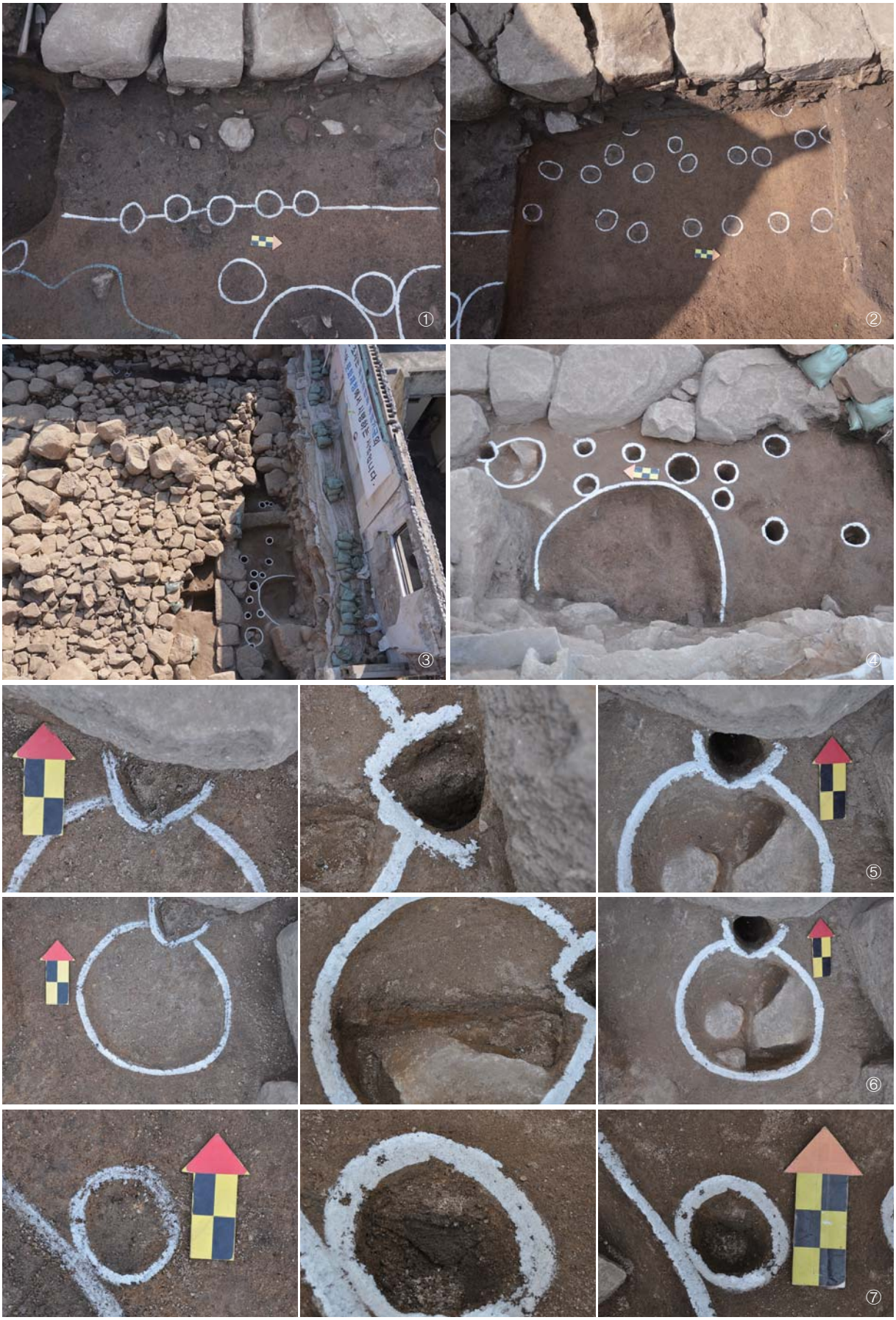
도판 7. 체성 출토유물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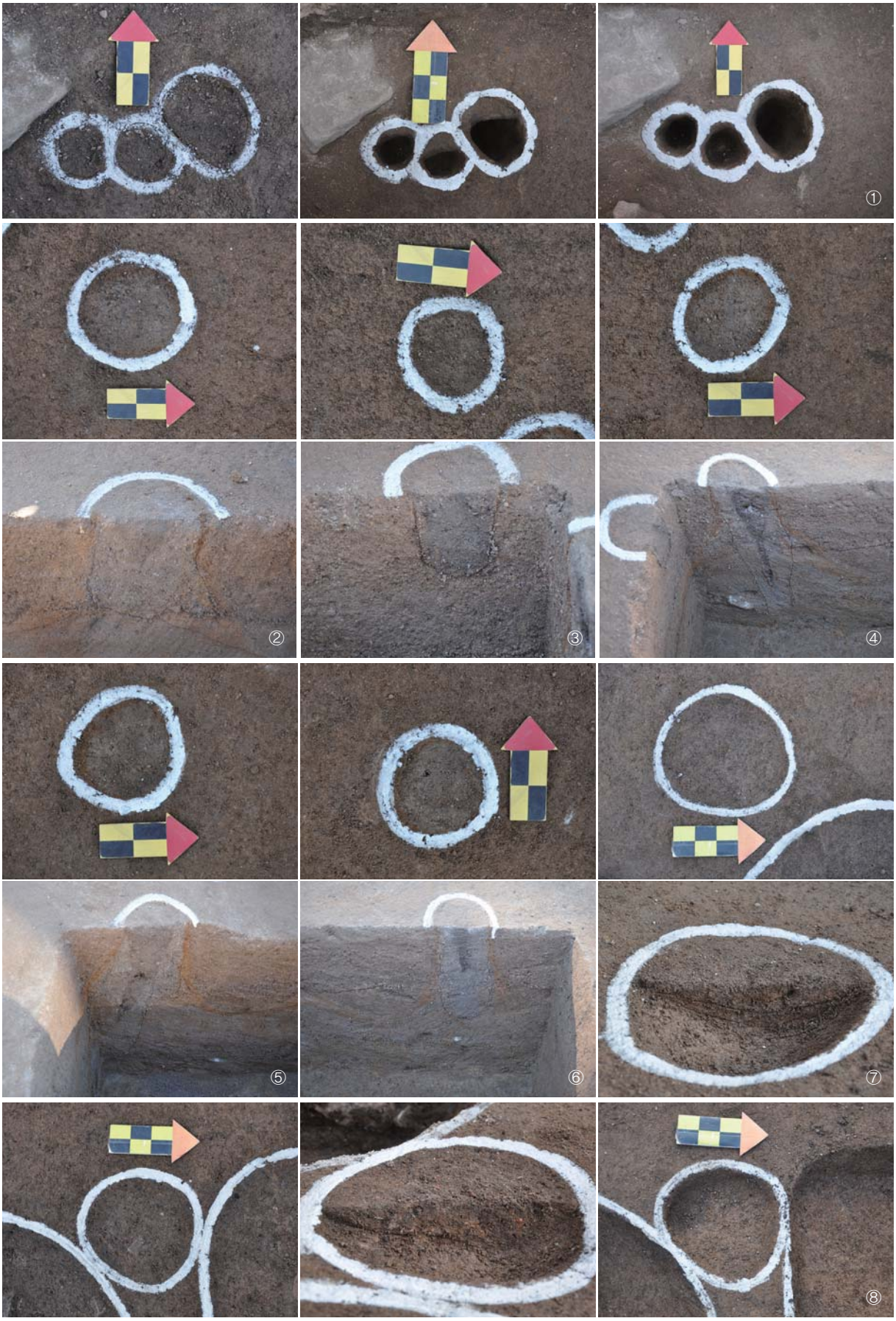
도판 8. 체성 출토유물2, 외벽 동쪽 주혈 전경(①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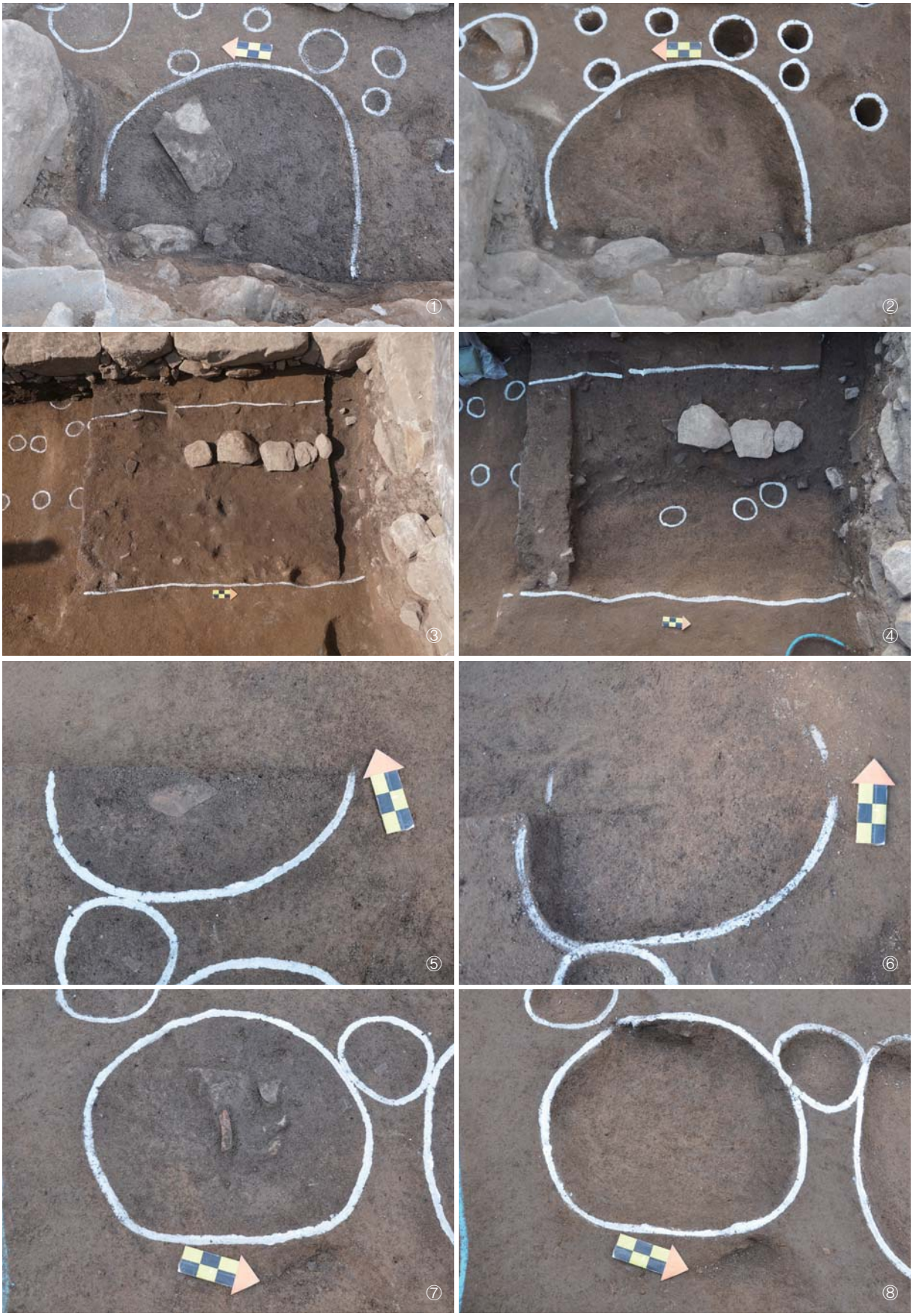
도판 9. 주혈 전경(①②외벽 동쪽 세부, ③④북동쪽 뒷채움석 하부, ⑤주혈 1, ⑥주혈 2, ⑦주혈 3)



도판 10. 주혈 전경(①주혈 4, ②주혈 5, ③주혈 6, ④주혈 7, ⑤주혈 8, ⑥주혈 9, ⑦주혈 10, ⑧주혈 11)



도판 11. 주혈 전경(①주혈 12~14, ②주혈 30, ③주혈 31, ④주혈 32, ⑤주혈 51, ⑥주혈 52, ⑦주혈 63, ⑧주혈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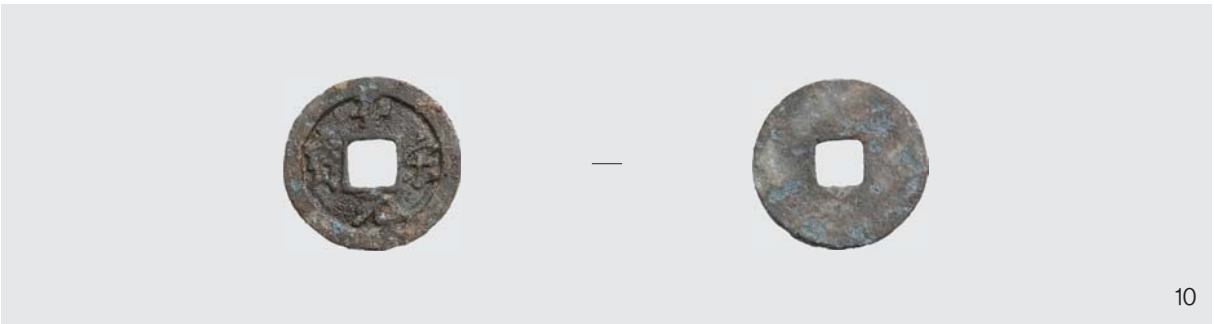


도판 12. 수혈유구 1호(①조사전(W→E), ②조사후(W→E)), 수혈유구 2호(③조사전(E→W), ④조사후(E→W)), 수혈유구 3호(⑤조사전(S→N), ⑥조사후(S→N)), 수혈유구 4호(⑦조사전(E→W), ⑧조사후(E→W))









도판 13. 상부 수습유물



도판 14. 학술자문회의(①) 및 전문가검토회의 광경(②)

김해 동상동 538-6번지 유적 유물목록

유물번호	유물명	수량(점)	출토유구	분류		크기(㎝)			도면번호 도판번호	선별결과
				재질	시대	기고(길이)	구경(폭)	저경(두께)		
2017-1328-0001	분청사기 저부	1	체성	토도류	조선시대	잔존 2.4	0.0	4.3	8-1 7-1	Y
2017-1328-0002	분청사기 저부	1	체성	토도류	조선시대	잔존 2.4	0.0	복원 5.1	8-2 7-2	Y
2017-1328-0003	연화문 수막새	1	체성	토도류	조선시대	잔존 6.8	0.0	1.8	8-3 7-3	Y
2017-1328-0004	암키와편	1	체성	토도류	조선시대	잔존 13.3	잔존 11.6	1.8	8-4 7-4	Y
2017-1328-0005	암키와편	1	체성	토도류	조선시대	잔존 13.2	잔존 12.2	2.0	8-5 8-5	Y
2017-1328-0006	암키와편	1	체성	토도류	조선시대	잔존 18.5	잔존 23.0	2.4	8-6 8-6	Y
2017-1328-0007	청자접시	1	상부 수습	토도류	조선시대	3.0	복원 11.0	3.7	11-7 13-7	Y
2017-1328-0008	암키와편	1	상부 수습	토도류	조선시대	잔존 11.5	잔존 11.4	1.7	11-8 13-8	Y
2017-1328-0009	암키와편	1	상부 수습	토도류	조선시대	잔존 17.9	잔존 18.7	1.5	11-9 13-9	Y
2017-1328-0010	성송원보	1	상부 수습	금속류	조선시대	2.4	0.0	0.1	11-10 13-10	Y

掘調査報告書 抄錄

報告書名	김해 동상동 538-6번지 유적		發行日	2019年 12月 23日
發行機關	名稱	한국문화재재단		
	住所	(135-090)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06		
	TEL	(02)3011-2173	FAX	(02)566-5954
執筆 · 編輯者	박강민, 김재열, 유순곤, 강성귀, 하혜진			
調査 緣由	단독주택 신축에 따른 구제조사			
發掘調査者	박종섭, 박강민, 김재열, 정의현, 유순곤			
遺蹟調査地番	경상남도 김해시 동상동 538-6번지			
調査面積	149㎡			

遺構種別	時代 및 年代	類型 및 基數	重要遺物	特記事項
체성	조선시대	1	분청사기 저부, 연화문수막새, 암키와 등	
주혈		64	-	
수혈유구		4	-	

149. 군위 화북리 632번지 유적

한국문화재재단

목 차

Ⅰ. 조사개요 ····· 149 – 9

Ⅱ. 유적의 위치와 환경 ····· 149–11

Ⅲ. 조사내용 ····· 149–16
1. 발굴조사 ····· 149–16
〈삼국시대〉 ····· 149–18
1) 구상유구 ····· 149–18
2) 수혈유구 ····· 149–23
(1) 수혈유구 1호 ····· 149–24
(2) 수혈유구 2~19호 ····· 149–26
3) 주혈 ····· 149–30
〈시대미상〉 ····· 149–33
1) 수혈유구 ····· 149–33
2) 주혈 ····· 149–34

Ⅳ. 조사성과 ····· 149–36

도 면 목 차

도면 1. 조사대상지 및 주변유적 분포도(1:25,000) ……149-12
도면 2. 조사대상지 지형도(1:5,000) ……149-13
도면 3. 조사대상지 지적도(1:1,000) ……149-15
도면 4. 유구분포도 ……149-17
도면 5. 구상유구 및 수혈유구 1호 ……149-19
도면 6. 구상유구 출토유물 ……149-22
도면 7. 수혈유구 1호 출토유물……149-25
도면 8. 수혈유구 2~9호 및 출토유물(16:4호) ……149-28
도면 9. 수혈유구 10~19호 및 출토유물(17:14호) ……149-29
도면 10. 주혈 1~16……149-32
도면 11. 수혈유구 20~24호 ……149-34
도면 12. 주혈 17~23 ……149-35

도 판 목 차

도판 1. 조사대상지 조사전 전경(① 원경(S→N), ②근경(SE→NW)) ……149-41
도판 2. 조사대상지 전경(①유구확인 후(SE→NW), ②북쪽구간 조사후(SE→NW)) ……149-42
도판 3. 조사대상지 전경(①남쪽구간 조사후(E→W), ②조사후(항공사진)) ……149-43
도판 4. 구상유구(①유구확인후(SW→NE), ②조사전(SW→NE), ③토층,
④수혈유구 1호 중복양상 토층, ⑤수혈유구 1호 중복양상 전경(W→E))……149-44
도판 5. 구상유구(①굴착면 양상(S→N), ②조사후(SW→NE), 1~8:출토유물) ……149-45
도판 6. 수혈유구 1호(①유구확인후(S→N), ②조사전(S→N), ③토층, ④조사후(S→N)) ……149-46
도판 7. 수혈유구 1호(①유물 출토상태, 9~15:출토유물)……149-47
도판 8. 수혈유구 2호(①조사전(S→N), ②토층, ③조사후(S→N)),
수혈유구 3호(④조사전(S→N), ⑤토층, ⑥조사후(S→N)),
수혈유구 4호(⑦수혈유구 5호 중복관계 토층, ⑧조사중(S→N), ⑨유물 출토상태,
16:출토유물), 수혈유구 5호(⑩조사전(S→N), ⑪토층, ⑫조사후(S→N)) ……149-48
도판 9. 수혈유구 6호(①조사전(S→N), ②토층, ③조사후(S→N)),
수혈유구 7호(④조사전(S→N), ⑤토층, ⑥조사후(S→N)),
수혈유구 8호(⑦조사전(SE→NW), ⑧토층, ⑨조사후(SE→NW)),
수혈유구 9호(⑩조사전(SE→NW), ⑪토층, ⑫조사후(SE→NW)),
수혈유구 10호(⑬조사전(SE→NW), ⑭토층, ⑮조사후(SE→NW)),
수혈유구 11호(⑯조사전(SW→NE), ⑰토층, ⑱조사후(SW→NE)) ……149-49
도판 10. 수혈유구 12호(①조사전(SW→NE), ②토층, ③조사후(S→N)),
수혈유구 13호(④조사전(S→N), ⑤토층, ⑥조사후(S→N)),
수혈유구 14호(⑦조사전(E→W), ⑧토층, ⑨유물 출토상태, ⑩조사후(E→W), 17:출토유물),
수혈유구 15호 (⑪조사전(S→N), ⑫토층, ⑬조사후(S→N)),
수혈유구 16호(⑭조사전(S→N), ⑮토층, ⑯조사후(S→N)) ……149-50
도판 11. 수혈유구 17호(①조사전(E→W), ②토층, ③조사후(E→W)),
수혈유구 18호(④조사전(S→N), ⑤토층, ⑥조사후(S→N)),
수혈유구 19호(⑦조사전(E→W), ⑧토층, ⑨조사후(E→W)),
주혈 1(⑩토층, ⑪조사후(S→N)), 주혈 2(⑫토층, ⑬조사후(S→N)),
주혈 3(⑭토층, ⑮조사후(S→N)), 주혈 4(⑯토층, ⑰조사후(S→N)),
주혈 5(⑱토층, ⑲조사후(S→N)), 주혈 6(⑳토층, ㉑조사후(S→N)) ……149-51
도판 12. 주혈 7(①토층, ②조사후(S→N)), 주혈 8(③토층, ④조사후(S→N)),
주혈 9(⑤토층, ⑥조사후(E→W)), 주혈 10(⑦토층, ⑧조사후(S→N)),
주혈 11(⑨토층, ⑩조사후(E→W)), 주혈 12(⑪토층, ⑫조사후(W→E)),

주혈 13(⑬토층, ⑭조사후(SE→NW)), 주혈 14(⑮토층, ⑯조사후(W→E)),
주혈 15(⑰토층, ⑱조사후(S→N)) ……149-52
도판 13. 주혈 16(①토층, ②조사후(S→N)), 수혈유구 20호(③유구확인후(S→N),
④단면조사), 수혈유구 21호(⑤조사전(S→N), ⑥조사후(S→N)), 수혈유구 22호
(⑦조사전(S→N), ⑧토층, ⑨조사후(S→N)), 수혈유구 23호(⑩조사전(S→N),
⑪토층, ⑫조사중(S→N), ⑬내부수혈 조사전, ⑭내부수혈 토층, ⑮조사후(S→N)),
수혈유구 24호(⑯조사전(S→N), ⑰토층, ⑱조사후(S→N)) ……149-53
도판 14. 주혈 17(①토층, ②조사후(S→N)), 주혈 18(③토층, ④조사후(E→W)),
주혈 19(⑤토층, ⑥조사후(E→W)), 주혈 20(⑦토층, ⑧조사후(S→N)),
주혈 21(⑨토층, ⑩조사후(S→N)), 주혈 22(⑪토층, ⑫조사후(E→W)),
주혈 23(⑬토층, ⑭조사후(E→W)) ……149-54

Ⅰ. 조사개요

본 발굴조사 대상지는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632번지로 사업시행자 이상규씨의 단독주택 신축부지(783㎡)이다. 조사 경위와 경과는 다음과 같다.

사업시행자는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군위군에 건축신고를 하였고, 군위군은 신청지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군위 화북리 유물산포지)에 해당하기에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되어야 할 사항임을 통보하였다.

이에 사업시행자는 표본조사를 의뢰하였으며, 다온문화재연구원에서는 2017년 6월 22일부터 동년 6월 23일(현장조사일수 2일)까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표토하 80~90㎝ 정도 아래에서 확인된 갈색 사질점토층에서 삼국시대로 추정되는 추정 토기가마 회구부, 수혈유구, 주혈 등이 확인되어 사업대상지 전면(783㎡)에 대한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1)]

이후 사업시행자는 본 발굴조사가 국비지원 대상임을 군위군을 통하여 확인하고, 2017년 8월 23일에 문화재청 문화재전자행정 협업포털시스템을 통해 본 재단에 발굴조사를 신청하였다. 본 재단에서는 2017년 10월 25일에 정밀발굴조사 계획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였으며, 2017년 11월 6일에 현장조사일수 15일에 대한 문화재청 허가(제2017-1406호)를 받았다.

발굴조사는 2017년 11월 16일에 착수하였다. 조사결과, 삼국시대 구상유구[2)] 1기, 수혈유구 19기, 주혈 16개 및 시대미상 수혈유구 5기, 주혈 7개 등이 확인되었다. 조사단에서는 확인된 유구에 대하여 기록 보존한 후, 2017년 12월 6일(현장조사일수 15일)에 현장조사를 완료하였다.

조사당시, 조사단 구성은 다음과 같다.

조 사 단 장 : 박 종 섭(문화재조사연구단장)
책임조사원 : 박 무 식(조사연구 1팀 부팀장)
조 사 원 : 이 도 현(조사연구 1팀 연구원)
준 조 사 원 : 이 현 호(조사연구 1팀 연구원)
보 조 원 : 황 원 우(조사연구 1팀 연구원)

*( )는 조사당시 직명임.

발굴조사 후 보고서 작업은 다음과 같이 분담하여 진행하였다.

---

1) 다온문화재연구원, 2017, 「군위 화북리 632번지 단독주택신축부지 내 유적 표본조사 약보고서」.
조사부지 내 총 2개의 트렌치를 설치하여 조사한 결과, 다량의 삼국시대 토기편과 함께 트렌치 1에서 수혈유구 1기와 주혈, 트렌치 2에서는 추정 토기가마 회구부가 확인되었다.

2) 발굴조사결과, 표본조사 당시 확인된 추정 토기가마 회구부는 구상유구로 확인되었다.

유물정리 및 복원, 실측, 도면 일러스트작업은 강성귀 책임 하에 하혜진, 김유정, 이영호, 윤영경 등 본 재단 연구원이 분담하여 작성하였다. 도면 및 도판편집은 강성귀, 이도현, 이현호, 황원우, 황도담이 담당하였으며, 유물의 사진촬영은 이재영(스카이뷰)이 촬영하였다.

원고는 박무식 책임 하에 Ⅰ～Ⅱ장 이도현, Ⅲ장 이도현(조사내용 및 유구)·하혜진(유물), Ⅳ장 이도현이 작성하였으며, 교정 및 교열은 박무식·박종섭이 하였다.

Ⅱ. 유적의 위치와 환경

본 유적은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632번지에 해당하며, 지리적 좌표는 동경 128°46′26.96″, 북위 36°7′43.62″이다. 조사대상지는 사적 제374호인 인각사지에서 국도 908번도(삼국유사로)를 따라 서쪽으로 550m 정도 진행한 후, 화북 1리 마을회관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화북 1길을 따라 동쪽으로 계속 진행하다가 마을 끝에서 좌회전하여 도로 끝까지 진행하면 나타나는 공지이다. 부지는 서쪽으로 과수원, 동쪽으로 경작지, 남쪽으로는 인근 주택이 경계를 이룬다. 또한, 북쪽은 현대 경작과 관련된 배수로 조성으로 절토되어 잡목이 우거진 북쪽의 산지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자연 · 지리적[3]으로, 조사대상지는 북쪽에 위치한 선암산(해발 881m)에서 남쪽으로 뻗어내린 구릉 말단부 남사면의 해발 161.4~164.6m 정도에 위치한다. 남쪽으로 80m 정도 떨어져 위천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고 있다. 군위군은 동쪽으로 영천시, 서쪽으로는 구미시, 남쪽은 대구광역시와 칠곡군, 북쪽은 의성군과 접하는 곳으로 경상북도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남쪽에는 팔공산(해발 1,192m)이 대구광역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위천은 고로면 학암리에서 발원하여 북단인 소보면 사리리를 지나 의선군 비안면에서 쌍계천과 합류되며, 하천유역의 양안에 농경지가 형성되면서 군위읍, 소보면, 효령면, 의흥면 등으로 평야지대가 형성되어 있다. 군위군의 동쪽에 위치한 고로면은 높은 산들이 둘러사고 있는 산간지대이다. 동쪽으로는 방가산(해발 756m), 서쪽으로는 조림산(해발 638m) 남쪽으로는 화산(해발 828m), 북쪽으로는 아미산(해발 418m)이 고로면을 에워싸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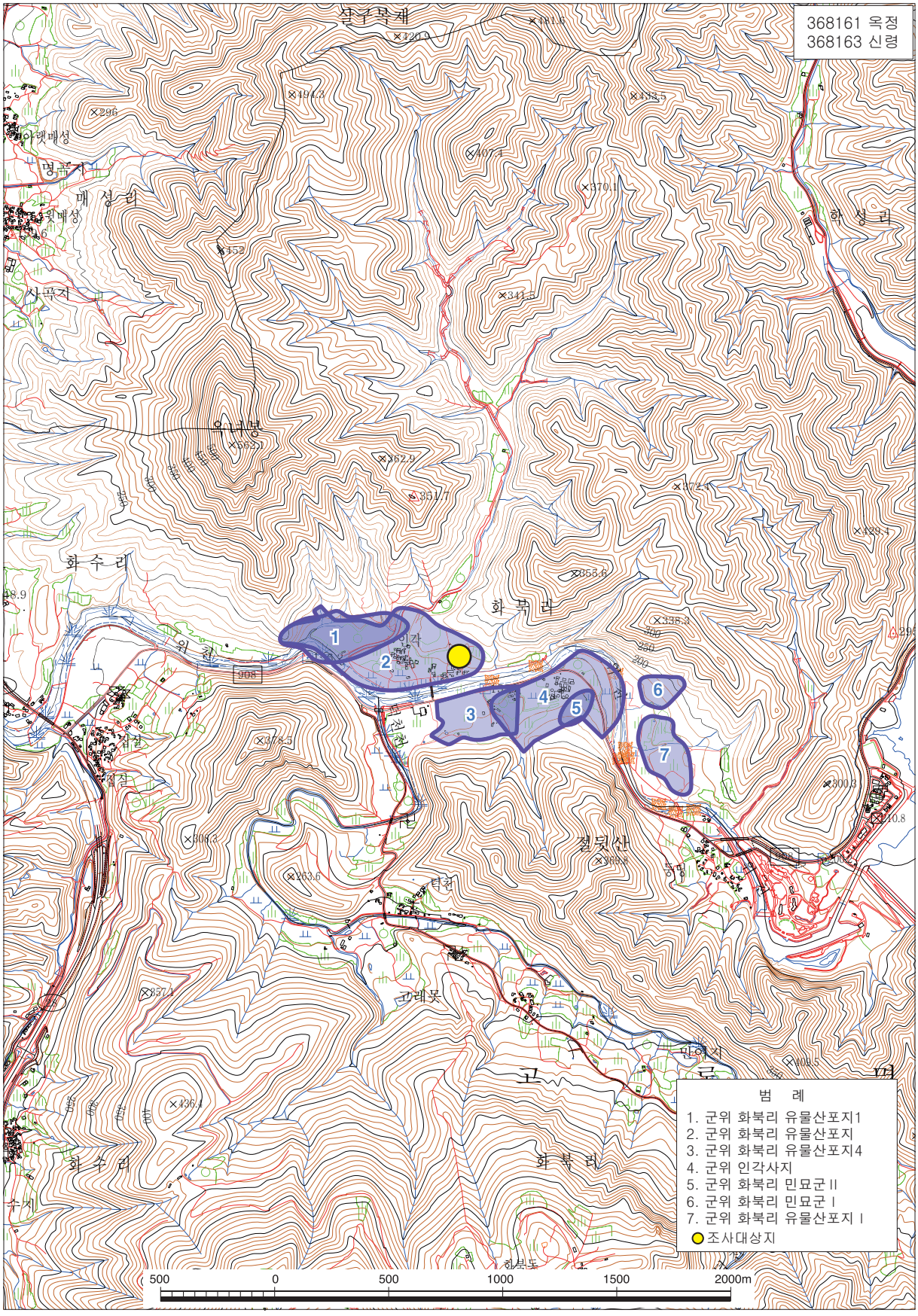
역사적[4]으로 군위군은 변진 24국 중 여담국(如湛國)으로 비정되었던 곳으로 신라시대에는 노동멱현(奴同覓縣), 모혜현(芼兮縣), 부림현(缶林縣) 등에 편제되었다. 757년(경덕왕 16년)에 노동면현은 군위현으로, 호혜현은 효령면으로 개명되어 숭선군(嵩善郡)의 속현이 되었다. 고려시대에는 점진적으로 지방제도 개편이 이루어짐에 따라 독립현을 구성하지 못하고 계속 다른 군현에 소속되었다. 군위, 효령, 부계현은 1018년(현종 9년) 지방제도 개편 때 상주에 예속되었다가 1143년(인종 21년) 일선현(一善縣)에 이속되어 고려말까지 유지되었다. 고려후기 속현이 주현으로 승격될 때인 1390년(공양왕 2년) 군위현과 의흥군에 감무가 파견되어 비로소 독립행정단위를 구성하게 되었으며, 각기 효령현과 부계현을 속현으로 삼았다.

조선시대인 1413년(태종 13년) 지방제도 개편시 군위현, 의흥현으로 정리되어 현감이 파견되었고, 갑오경장의 일환으로 1895년 소지역주의가 채택되어 23부제가 실시되자 군위현과 의흥현 두 지역 모두 군이 되어 대구부에 속했다가 다음해인 1896년(고종 33년) 8월 4일 훈령 제35호로 13도제 실시에 따라 경상북도의 군위군과 의흥군이 되었다. 1914년 부 · 군 · 면의 통폐합에 따라 의흥군이 폐지되어 오늘날의 군위군이 형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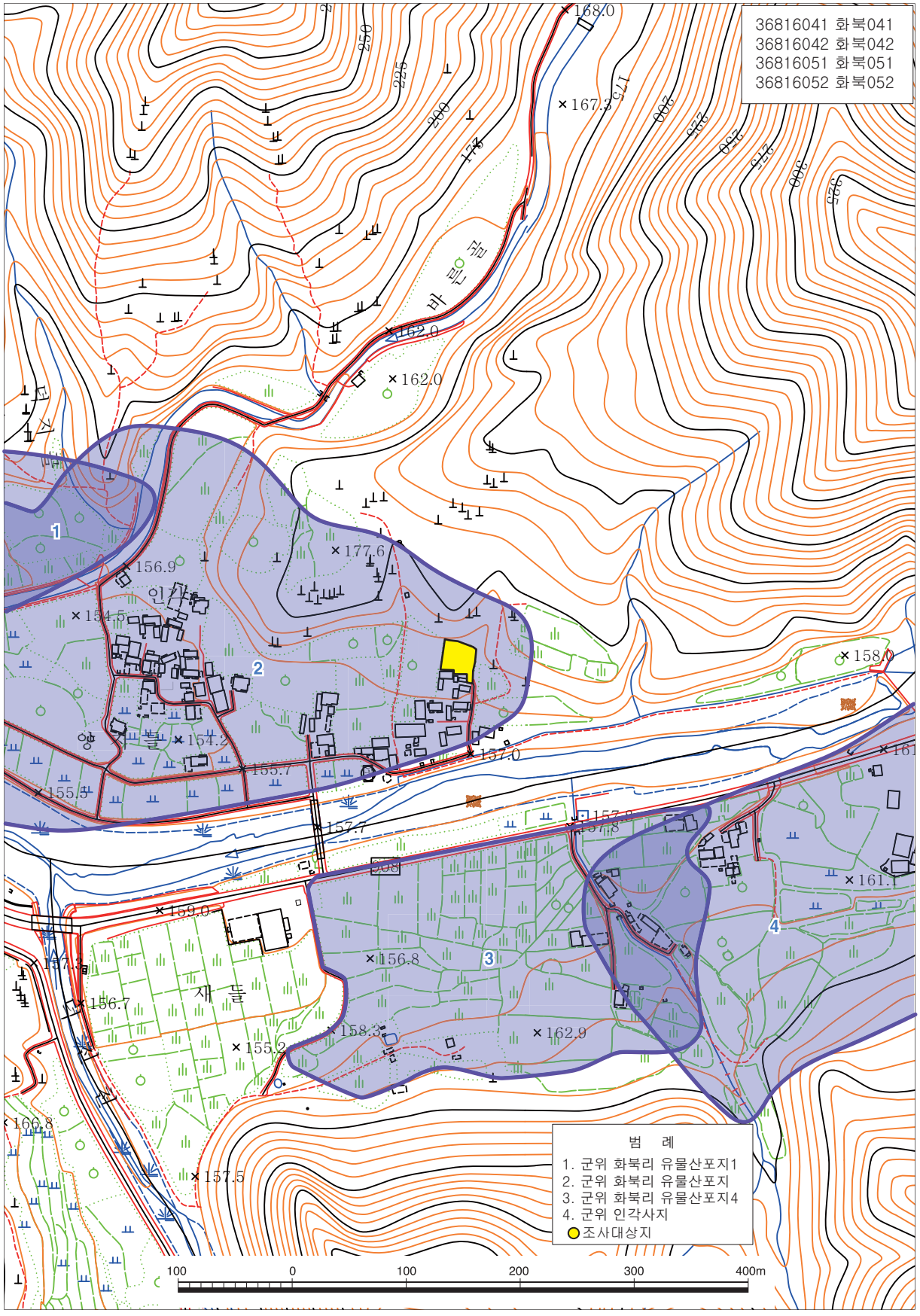
---

3) 지리적 환경은 아래의 자료를 참조하여 수정 · 가필하였다.
① 영남문화재연구원, 2014, 『軍威 雲山里 遺蹟』.
② 世宗文化財硏究院, 2013, 『軍威 佳湖里 977-3番地 遺蹟』.

4) 역사적 환경은 『麟角寺-軍威 麟角寺 2 · 3 · 4차 발굴조사 보고서』(불교문화재연구소, 2010)를 참고하여 수정 · 가필하였다.



도면 1. 조사대상지 및 주변유적 분포도(1:25,000)



도면 2. 조사대상지 지형도(1:5,000)

고로면은 신라시대 고로부곡(古老部曲)이라 칭해지던 구산현과 부림현을 병합하여 의흥군으로 유지되었다가 현종 9년(1018년) 안동군에 귀속되었다. 조선 태종 13년(1408년)에 의흥군 소수면과 의성군 소야면으로 분리되었고, 1914년 부군령에 의하여 행정구역 개편시에 다시 통합되어 그 당시 고로실 이름을 따서 '고로'라 칭하였다고 한다. 특히, 화북리는 인각(麟角)이라고도 부르는 곳으로 화북리의 중심이 되는 마을로 인각사 앞에 있으므로 인각이라 하였다고 한다.

고고학적으로 조사대상지는 문화유적분포지도상 군위 화북리 유물산포지[5] 내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주변으로는 군위 화북리 유물산포지 4,[6] 군위 화북리 민묘군Ⅱ[7] 등이 인접해 있으며, 특히 동쪽으로 450m 정도 떨어져 사적 제374호인 인각사지[8]가 위치하고 있다.

주변유적 분포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표 1】주변유적 분포현황

연번	유적명	이격거리	유적시기 및 성격	참고문헌	비고
1	군위 화북리 유물산포지 1	서쪽 290m	삼국~조선시대 유물산포지	영남문화재연구원, 2011, 「중앙선(도담-영천)복선 전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문화재 지표조사」	
2	군위 화북리 유물산포지	조사대상지 포함	삼국~조선시대 유물산포지	大邱大學校中央博物館 · 軍威郡, 2005, 『文化遺蹟分布地圖-軍威郡-』	
3	군위 화북리 유물산포지 4	남쪽 110m	삼국~조선시대 유물산포지	大邱大學校中央博物館 · 軍威郡, 2005, 『文化遺蹟分布地圖-軍威郡-』	
4	군위 인각사지	동쪽 350m	삼국~조선시대 사찰	불교문화재연구소, 2011, 『麟角寺-軍威麟角寺 5차 발굴조사 보고서』	사적 제374호

5)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15,『군위댐 직하류 하천사업부지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마을 뒷산을 절토하여 만들어진 과수원과 마을 진입로 등 전면에서 삼국시대 고배편, 대부완편 등 삼국시대 토기편이 다량 확인되어, 구릉에 삼국시대 고분군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6)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15,『군위댐 직하류 하천사업부지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위천 남쪽에 위치하는 마을 일대 경작지에 넓게 분포하며, 유물은 경작지 전면에서 토기편, 자기편, 기와편 등이 확인되었다.

7) 軍威郡 · 大邱大學校 中央博物館, 2005,『文化遺蹟分布地圖-軍威郡』.
인각사의 남쪽 구릉일대에 조성되어 있다. 전언에 의하면 미연고 민묘가 이 일대에 조성되어 있다고 전해지며, 2001년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인각사 주변 고분이라 하여 1기가 보고된 바 있다. 이 봉분은 직경 약 17m, 높이 2m 정도로 중형급 봉토분이다.

8) 불교문화재연구소, 2010,『麟角寺-軍威麟角寺 2 · 3 · 4차 발굴조사 보고서』.
불교문화재연구소, 2011,『麟角寺-軍威麟角寺 5차 발굴조사 보고서』.
조사결과, 통일신라~조선시대의 건물지, 탑지, 연지, 담장지, 우물지 등이 확인되었으며, 금동향로, 청자, 분청사기, 기와편 등이 확인되었다.

연번	유적명	이격거리	유적시기 및 성격	참고문헌	비고
5	군위 화북리 민묘군 Ⅱ	남동쪽 430m	조선시대 민묘	大邱大學校中央博物館 · 軍威郡, 2005, 『文化遺蹟分布地圖-軍威郡-』	
6	군위 화북리 민묘군 Ⅰ	동쪽 730m	조선시대 민묘	大邱大學校中央博物館 · 軍威郡, 2005, 『文化遺蹟分布地圖-軍威郡-』	
7	군위 화북리 유물산포지 Ⅰ	남동쪽 770m	삼국~조선시대 유물산포지	大邱大學校中央博物館 · 軍威郡, 2005, 『文化遺蹟分布地圖-軍威郡-』	



도면 3. 조사대상지 지적도(1:1,000)

Ⅲ. 조사내용

1. 발굴조사

발굴조사를 위한 제토는 표본조사시 유구가 확인된 표토하 20~90㎝ 정도의 생토층(황갈색 사질점토) 상면을 중심으로 전면 실시하였다. 굴삭기를 이용한 기계제토를 실시한 후, 개별 유구 확인시 수작업으로 노출하여 교란범위 및 유구확인조사를 실시하였다. 제토범위는 조사대상지 서쪽 경계에 과수원이 인접하고 있고, 남쪽 진입로 부분은 기존 콘크리트 도로가 잔존해 있어 남쪽과 서쪽은 경계부에서 안전거리 30~50cm 정도 이격하여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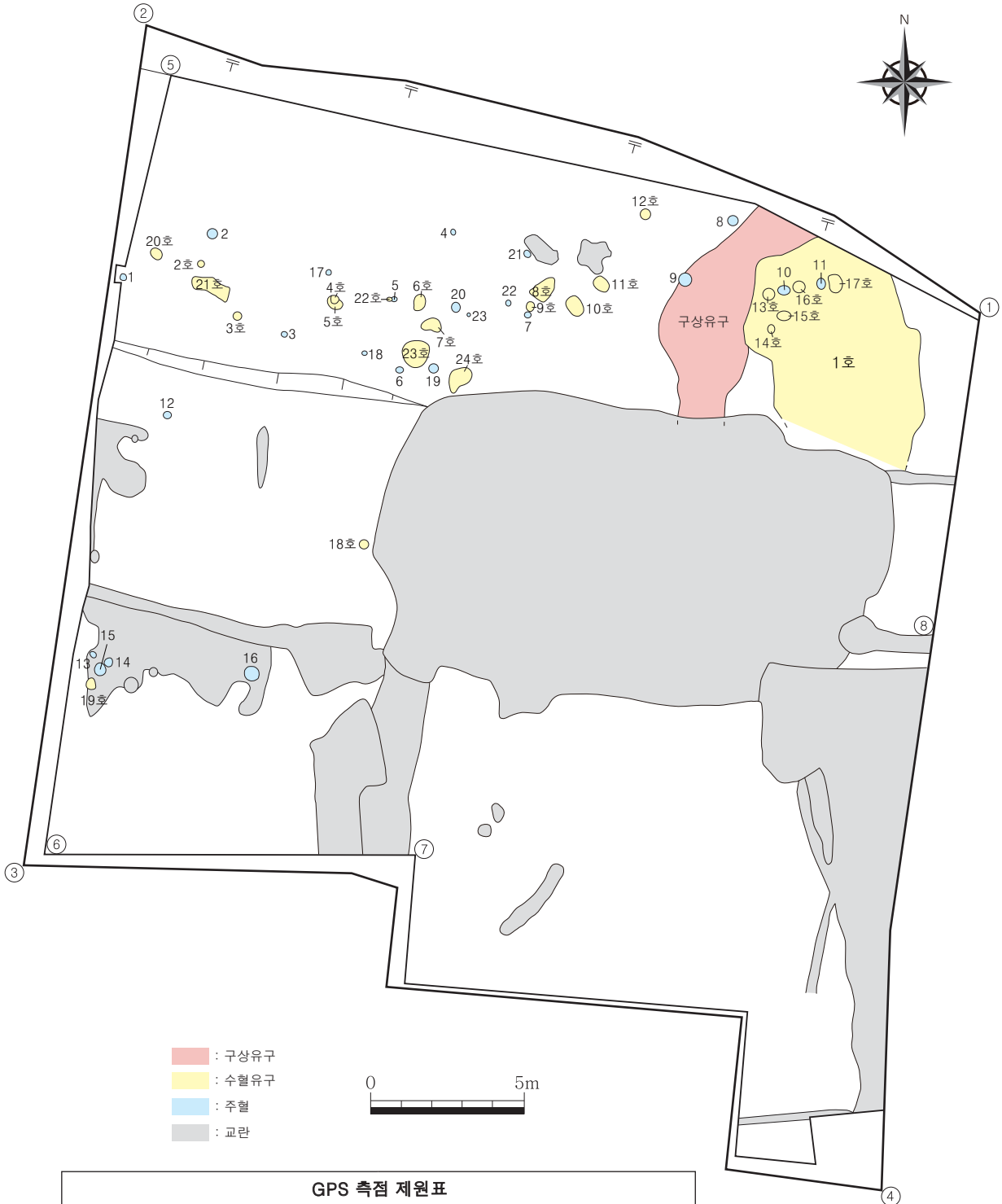
조사대상지의 토층 퇴적양상은 구릉사면부가 일부 잔존하고 있는 북쪽과 근대 민가 조성과정에서 원지형이 대부분 절취된 남쪽이 다른 양상으로 확인되었다.

북쪽은 조사대상지의 북쪽 경계는 이미 대부분 절토되어 조사경계를 따라 단을 이루고 있었으나, 남쪽구간에 비해 구릉이 다소 잔존하고 있는 상태였다. 토층퇴적양상은 표토층(1층)→삼국시대 문화층(2층) 순으로 확인되었다. 표토층(1층)은 비닐이 소량 혼입된 담황갈색 사질점토층으로 두께는 20㎝ 정도이다. 삼국시대 문화층은 표토하 20㎝ 정도에서 확인된 황갈색 사질점토층(생토층)이다.

【표 2】 조사대상지 토층(서쪽 경계부)

	1층 : 담황갈색(10YR 4/3) 사질점토	표토층 (두께 20㎝ 정도)
	2층 : 황갈색(10YR 5/6) 사질점토 (생토층)	삼국시대 문화층 (표토하 20㎝)

남쪽은 원지형이 대부분 근대 민가 조성과정에서 훼손되었으며, 표토층(1층)→근대 복토층(2 · 3층)→삼국시대 문화층(4층) 순으로 확인되었다. 표토층(1층)은 담황갈색 사질점토층으로 두께 10~40cm 정도이다. 근대 복토층(2, 3층)은 암갈색 사질점토층과 회황갈색 사질점토층으로 구분되며, 두께 20~50cm 정도이다. 내부에 비닐과 시멘트 기와편이 혼입된 층으로 근대 민가 철거 후 형성된 층이다. 삼국시대 문화층(4층)은 표토하 45~90cm 정도에서 확인되며, 근대 민가와 관련된 아궁이와 콘크리트 기초시설의 흔적이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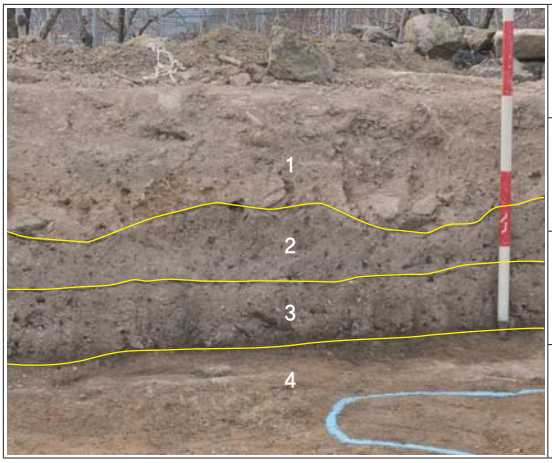


GPS 측점 제원표

측점		TM 좌표	측점		TM 좌표	측점		TM 좌표	측점		TM 좌표
①	X	392386.511m	②	X	392395.2883m	③	X	392368.553m	④	X	392358.04m
	Y	179701.611m		Y	179674.312m		Y	219291.023vm		Y	179698.287m
	Z	163.496m		Z	164.621m		Z	162.499m		Z	161.445m
⑤	X	392394.326m	⑥	X	392369.992m	⑦	X	392370.651m	⑧	X	392376.119m
	Y	179675.201m		Y	179672.509m		Y	179683.02m		Y	179699.37m
	Z	164.228m		Z	161.929m		Z	161.809m		Z	161.856m

도면 4. 유구분포도

【표 3】 조사대상지 토층(서쪽 경계부)

<table>
<tr><td rowspan="4"> 
</td><td>1층 : 담황갈색(10YR 4/3) 사질점토</td><td>표토층
(두께 10~40㎝ 정도)</td></tr>
<tr><td>2층 : 암갈색(10YR 3/3) 사질점토</td><td rowspan="2">근대 복토층
(두께 20~50㎝ 정도)</td></tr>
<tr><td>3층 : 회황갈색(10YR 4/2) 사질점토</td></tr>
<tr><td>4층 : 황갈색(10YR 5/6) 사질점토
(생토층)</td><td>삼국시대 문화층
(표토하 45~90㎝)</td></tr>
</table>

유구는 원지형이 남아 있는 북쪽의 경사면에서 주로 확인되었으며, 훼손된 남서쪽 일부 구간에서 수혈 및 주혈이 일부 확인되었다. 조사결과, 생토층에서 삼국시대 구상유구 1기, 수혈유구 19기, 주혈 등과 시대미상 수혈유구 5기, 주혈 등이 확인되었다.[9)]

〈삼국시대〉

표토하 20~90㎝ 정도에서 구상유구 1기, 수혈유구 19기, 주혈 등이 확인되었다. 내부토 및 바닥면에서 삼국시대 토기편 등 유물이 확인된 유구(1 · 4 · 14 · 15 · 19호)는 일부이지만, 수혈 및 주혈 내 퇴적된 내부토가 삼국시대 유구와 유사한 유구는 삼국시대로 구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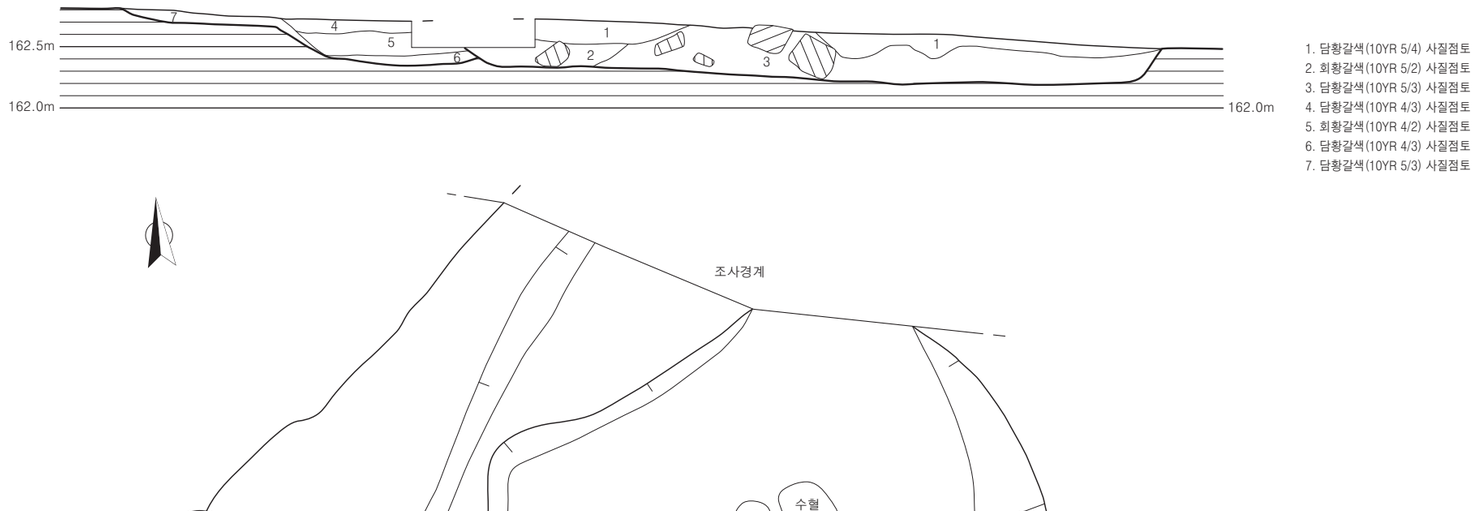
1) 구상유구

가. 유구(도면 5, 도판 4 · 5)

조사대상지 북동쪽, 해발 163m 정도에서 확인되었다. 유구의 동쪽은 수혈유구 1호에 의해 대부분 파괴되었으며, 남쪽은 근대 민가가 조성되면서 삭평되었다. 북쪽 경계부 절토면에서 구상유구의 단면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조사대상지 북쪽의 구릉 상부에서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축방향은 북동-남서향으로 판단되며, 확인된 규모는 잔존길이 703cm, 잔존너비 290cm, 깊이 20~50cm 정도이다. 벽면은 서쪽 일부만 잔존하며, 2단 굴착하여 조성하였다. 바닥면은 할석 등이 포함된 생토층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내부토는 다량의 목탄재와 소토 및 벽체편, 경질토기편 등이 퇴

9) 유구는 대부분 삭평이 되어, 잔존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소형 수혈유구 및 주혈이 대부분 확인되었다. 이 중, 유구 내 유물이 확인된 구상유구, 수혈유구 1호 및 수혈유구 1호 조사후 바닥면에서 확인된 수혈유구 18~22호와 주혈 17 · 18은 삼국시대 유구로 분류하였으며, 이 외 유구는 시대미상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유구번호는 조사대상지 서쪽부터 유구의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하였다.



1. 담황갈색(10YR 5/4) 사질점토
2. 회황갈색(10YR 5/2) 사질점토
3. 담황갈색(10YR 5/3) 사질점토
4. 담황갈색(10YR 4/3) 사질점토
5. 회황갈색(10YR 4/2) 사질점토
6. 담황갈색(10YR 4/3) 사질점토
7. 담황갈색(10YR 5/3) 사질점토

도면 5. 구상유구 및 수혈유구 1호

적되어 있었다.

유물은 내부에 퇴적되어 있는 대부호편 1점, 파수부호 1점, 옹 구연부편 1점, 장경호 구경부편 1점, 대호 구경부편 1점, 기대편 2점, 파수편 1점 등 총 8점을 선별하여 수습하였다.

나. 유물

1. 대부호편(도면 6-1, 도판 5-1)

동체부 하위와 대각 일부만 잔존하는 것을 도면 복원하였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한 편이며,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황회색(2.5Y 5/1)이다. 내외면은 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한 대각에서 3개의 투창이 확인된다.

잔존기고 5.1㎝

2. 파수부호(도면 6-2, 도판 5-2)

구연부 및 동체부 상위 일부만 잔존하는 것을 도면 복원하였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색(N 4/)이다. 구연부와 동체부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동체부 상위에 단면형태가 원형인 파수가 부착되어 있다. 파수는 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6.1㎝, 복원구경 24.3㎝

3. 옹 구연부편(도면 6-3, 도판 5-3)

구연부와 동체부 상위 일부만 잔존하는 것을 도면 복원하였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한 편이며, 태토는 세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황회색(2.5Y 5/1)이다. 내외면은 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5.4㎝, 복원구경 11.5㎝

4. 장경호 구경부편(도면 6-4, 도판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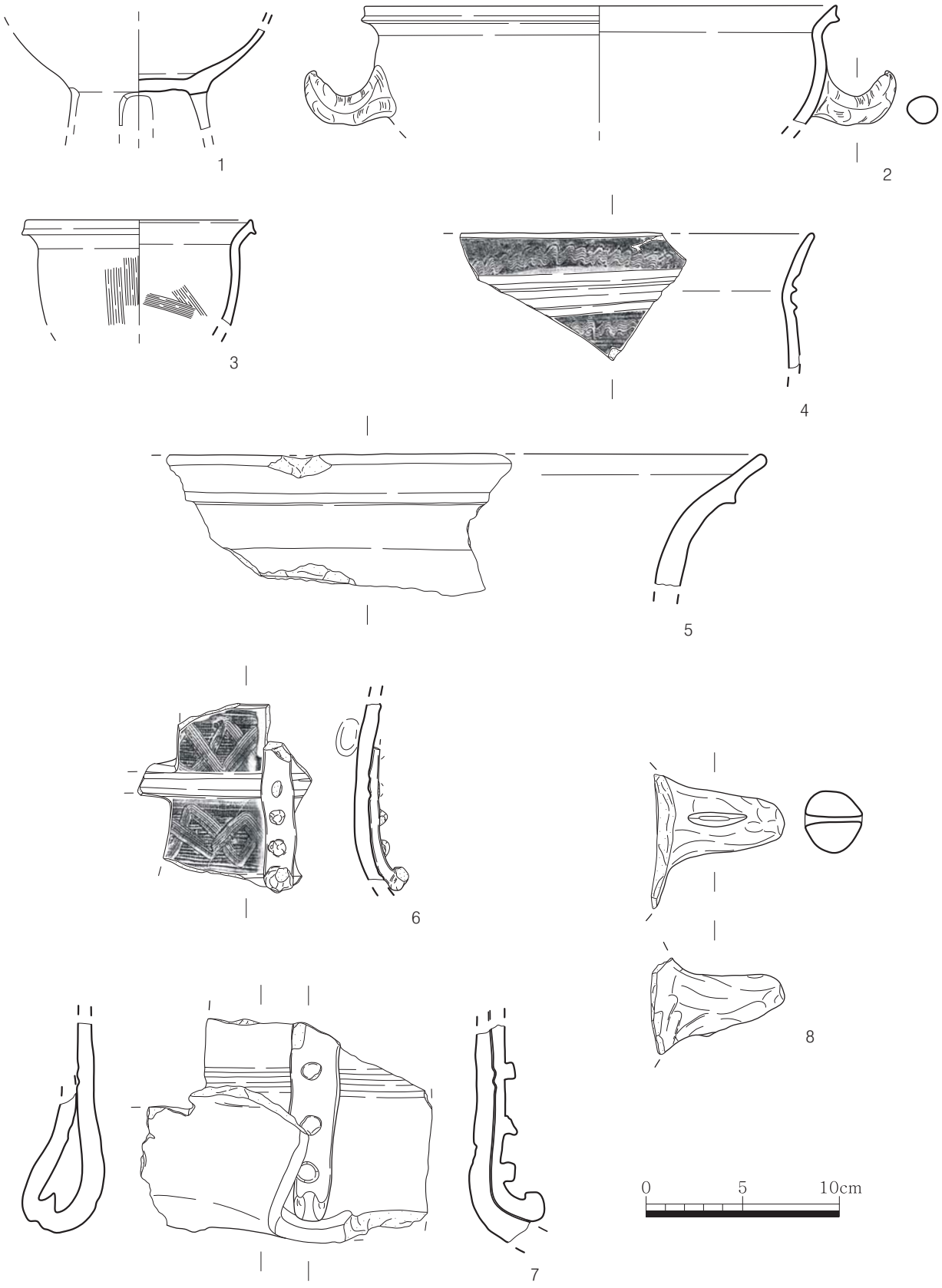
구경부 일부만 잔존한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한 편이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외면이 회색(N 4/), 내면은 황회색(2.5Y 6/1), 속심은 회적색(7.5R 4/2)이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구경부는 2조의 돌대를 돌려 구획하였으며, 각 단에 5치구의 파상문을 시문하였다.

잔존기고 6.6㎝

5. 대호 구경부편(도면 6-5, 도판 5-5)

구경부 일부만 잔존한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한 편이며, 태토는 세사립과 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황회색(2.5Y 5/1)이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6.8㎝



도면 6. 구상유구 출토유물

6. 기대편(도면 6-6, 도판 5-6)

통형기대의 통부만 극히 일부 잔존한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한 편이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황회색(2.5Y 5/1)이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으며, 내면에서 지두흔이 확인된다. 통부는 2조의 돌대를 돌려 구획하였으며, 너비 1.6㎝ 정도의 장식대를 종방향으로 부착하였다. 장식대에는 직경 0.8~1.4㎝ 정도의 원형 돌기가 3개 남아있다. 각 단에 7치구의 선문을 실타래형태로 시문하였다. 투창은 상하 일렬로 뚫었다.

잔존기고 9.0㎝

7. 기대편(도면 6-7, 도판 5-7)

통형기대의 통부와 대각부 일부가 잔존한다. 대각부는 바깥쪽으로 접혀 통부에 부착되어 있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한 편이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황회색(2.5Y 5/1)이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통부 하위에 1조의 돌대를 돌려 대각부와 구분하였다. 통부에는 2조의 돌대를 돌려 구획하였으며, 너비 2.5㎝ 정도의 장식대를 종방향으로 부착하였다. 장식대에는 직경 1.1㎝ 정도의 원형 돌기가 3개 남아있다. 투창은 3개가 확인되며, 일렬로 뚫었다. 대각부는 2조의 돌대를 돌려 구획하였다. 투창은 2개가 확인되며, 상하 엇갈리게 뚫었다.

잔존기고 11.2㎝

8. 파수(도면 6-8, 도판 5-8)

파수만 잔존한다. 연질제로 소성상태는 보통이며,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황회색(2.5Y 4/1), 속심은 등색(5YR 6/6)이다. 단면형태는 원형이며, 물손질 정면하였다. 파수 상위에는 3.1㎝ 정도의 홈을 투공하였다.

길이 6.9㎝, 너비 3.2㎝

2) 수혈유구

총 19기가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원형과 부정형이다. 수혈유구 1호만 길이 7m 이상의 대형수혈이며, 이 외에는 길이 24~84㎝ 정도로 1m 이내의 규모의 소형수혈이 대부분이다. 조사대상지 북동쪽에 위치하는 1호, 14호 및 서쪽에 위치하는 수혈유구 4호에서 유물이 확인되었다. 수혈유구 1호는 조사후 확인된 바닥면에서 수혈유구 5기(13~17호) 및 주혈 2개(10, 11)가 선축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수혈유구 15, 19호 등에서는 내부토에서 연질토기편이 일부 확인되었으나, 기형 및 시기를 알 수 없는 잔편으로 선별 후 폐기하였다.

이에 비교적 형태가 양호한 수혈유구 1호를 중심으로 기술하며, 이 외 유구는 【표 4】로 간략히 정리하였다.

(1) 수혈유구 1호

가. 유구(도면 5, 도판 6 · 7)

조사대상지 북동쪽, 해발 163.3m 정도에서 확인되었다. 구상유구의 동쪽 일부를 파괴하고 조성되었으며, 북쪽은 구릉 절토면에 조성된 현대 배수로, 남쪽은 근대 민가 조성과정에서 파괴되었다.

평면형태는 부정형이며, 규모는 잔존길이 783cm, 너비 564cm, 깊이 38cm 정도이다. 내부토는 담황갈색 사질점토, 회황갈색 사질점토 등과 함께 다량의 할석이 집석되어 있었으며, 삼국시대 연질토기편 및 경질토기편, 소량의 목탄이 혼입되어 있었다. 벽면은 비스듬하게 굴착하여 조성하였다. 바닥은 생토층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고르지 않다.

유물은 내부 퇴적토에 혼입된 파수부배 1점, 장동옹 1점, 장동옹편 1점, 연질 파수편 3점, 방추차 1점 등 총 7점을 선별하여 수습하였다.

나. 유물

9. 파수부배(도면 7-9, 도판 7-9)

파수는 결실되었으며, 구연부와 동체부의 1/5 정도와 저부만 잔존하는 것을 도면 복원하였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외면이 회색(7.5Y 4/1), 내면은 회색(N 6/), 속심은 회백색(N 7/)이다. 저부에서 회백색(2.5Y 7/1)을 띠는 부정형의 소성흔이 확인된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동체부 상위와 중위에 1조의 돌대를 1열씩 돌려 구획하였다. 파수는 동체부 중위에서 저부까지 이어지는 'C'자 형태로 부착하였다.

기고 9.9㎝, 복원구경 9.6㎝, 동최대경 11.5㎝, 저경 5.0㎝

10. 장동옹(도면 7-10, 도판 7-10)

구연부 및 동체부 상위 일부만 잔존하는 것을 도면 복원하였다. 연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한 편이며, 태토는 세사립과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황등색(10YR 7/3)이다. 내외면은 물손질 정면 하였으며, 동체부 내면에서 지두흔이 확인된다.

잔존기고 21.7㎝, 복원구경 2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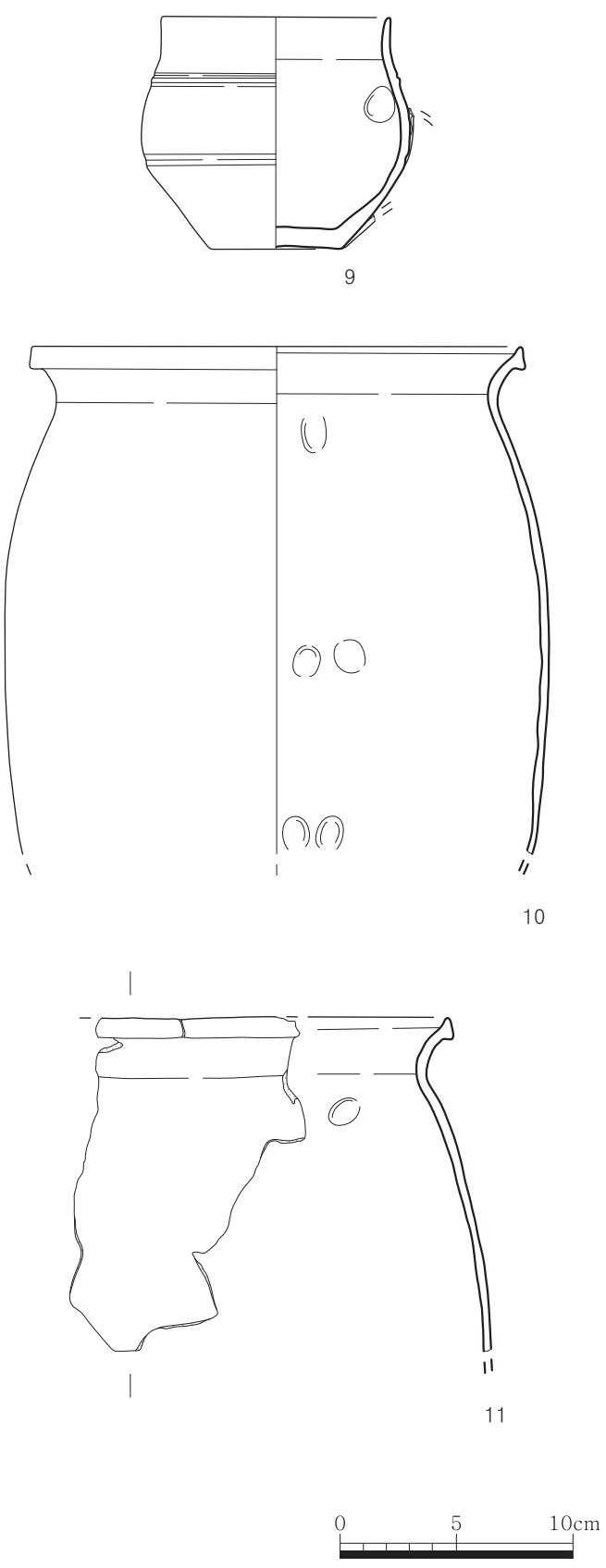
11. 장동옹편(도면 7-11, 도판 7-11)

구연부 및 동체부 일부만 잔존한다. 연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외면이 회황등색(10YR 7/4), 내면과 속심은 황회색(10YR 5/1)이다. 구연부와 동체부 내외면은 물손질 정면하였으며, 내면에서 지두흔이 확인된다.

잔존기고 14.2㎝

12. 파수(도면 7-12, 도판 7-12)

파수만 잔존한다. 연질제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



도면 7. 수혈유구 1호 출토유물

용하였다. 색조는 외면이 회황등색(10YR 7/4), 내면과 속심은 황회색(10YR 5/1)이다. 단면형태는 원형이며, 물손질 정면하였다.

길이 6.8㎝, 너비 3.2㎝

13. 파수(도면 7-13, 도판 7-13)

파수만 잔존한다. 연질제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외면이 등색(7.5YR 6/6), 내면과 속심은 회황등색(10YR 7/3)이다. 단면형태는 원형이며, 물손질 정면하였다. 파수 상위에는 2.0㎝ 정도 길이의 홈을 투공하였다.

길이 7.4㎝, 너비 3.6㎝

14. 파수(도면 7-14, 도판 7-14)

파수만 잔존한다. 연질제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등색(7.5YR 7/6)이다. 단면형태는 장타원형이며, 물손질 정면하였다. 파수 상위에는 직경 1.5㎝ 정도 길이의 원형 홈을 아래에서 위로 투공하였다.

길이 5.1㎝, 너비 5.8㎝

15. 방추차(도면 7-15, 도판 7-15)

완형이다. 경질제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전반적인 색조는 회황색(2.5Y 6/1)이다. 중앙부에는 직경 0.8㎝ 정도의 구멍을 양쪽에서 뚫었다.

직경 3.9㎝, 두께 1.9㎝

(2) 수혈유구 2~1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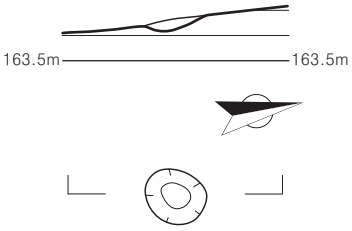
가. 유구

수혈유구 2~9호는 다음【표 4】에 간략하게 기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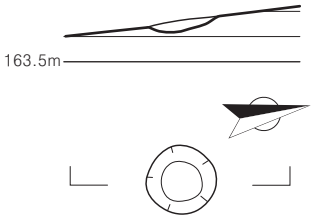
【표 4】 삼국시대 수혈유구 속성표

유구 번호	도면 번호	도판 번호	평면 형태	규모(㎝)			내부토	비고
				길이	너비	깊이		
2호	8	8	원형	24		2	회황갈색(10YR 6/2) 사질점토	
3호	8	8	원형	27		4	회황갈색(10YR 6/2) 사질점토 - 담황등색(10YR 7/4) 사질점토 혼입	
4호	8	8	원형	27		14	담황등색(10YR 6/4) 사질점토 - 연질토기편, 목탄알갱이 혼입	수혈유구 5호에 후축

유구 번호	도면 번호	도판 번호	평면 형태	규모(㎝)			내부토	비고
				길이	너비	깊이		
5호	8	8	부정형	54	36	10	1. 담황등색(10YR 7/4) 사질점토 2. 담황등색(10YR 6/3) 사질점토 – 담황갈색(10YR 5/4) 사질점토 소량 혼입	수혈유구 4호에 선축
6호	8	9	부정형	55	28	9	1. 담황갈색(10YR 5/4) 사질점토 2. 황갈색(10YR 5/6) 사질점토	
7호	8	9	부정형	66	43	3	담황등색(10YR 6/4) 사질점토	
8호	8	9	부정형	84	60	6	담황등색(10YR 6/4) 사질점토	
9호	8	9	부정형	30	25	7	1. 담황등색(10YR 6/4) 사질점토 2. 황갈색(10YR 5/6) 사질점토 – 목탄알갱이 소량혼입	
10호	9	9	부정형	68	49	9	담황갈색(10YR 5/4) 사질점토	
11호	9	9	부정형	56	42	6	담황갈색(10YR 5/4) 사질점토	
12호	9	10	원형	32		3	담황등색(10YR 6/4) 사질점토 – 암반편 소량 혼입	
13호	9	10	원형	42		13	담황갈색10YR 5/4) 사질점토 – 소토알갱이, 목탄알갱이 소량 혼입	
14호	9	10	부정형	28	24	12	황갈색(10YR 5/4) 사질점토 – 연질토기, 암반편, 목탄알갱이 다량 혼입	
15호	9	10	부정형	45	30	11	황갈색(10YR 5/6) 사질점토 –목탄알갱이, 연질토기편 소량 혼입	
16호	9	10	원형	39		12	담황갈색(10YR 5/4) 사질점토	
17호	9	11	부정형	62	46	20	담황갈색(10YR 5/4) 사질점토	
18호	9	11	원형	28		8	암갈색(10YR 3/4) 사질점토 – 목탄알갱이 포함	
19호	9	11	부정형	37	30	15	암갈색(10YR 3/4) 사질점토 – 연질토기편, 목탄알갱이 소량 혼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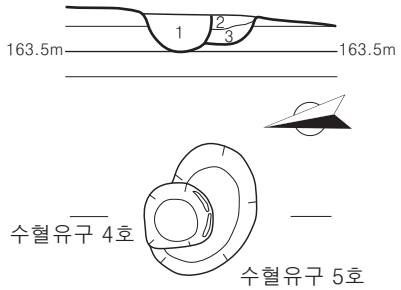


수혈유구 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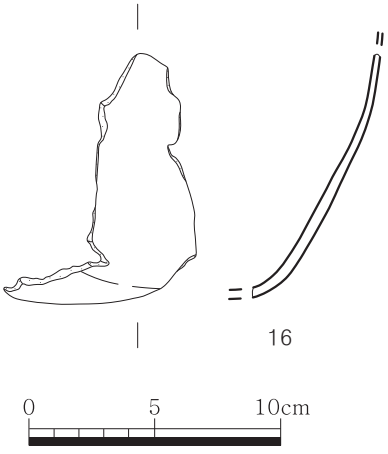
수혈유구 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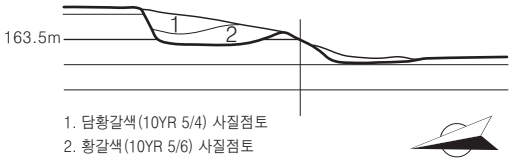
1. 담황등색(10YR 6/4) 사질점토 – 연질토기편, 목탄알갱이 혼입
2. 담황등색(10YR 7/4) 사질점토
3. 담황등색(10YR 6/3) 사질점토 – 담황갈색(10YR 5/4) 사질점토 소량 혼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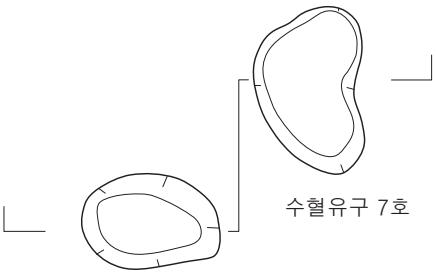
수혈유구 4호

수혈유구 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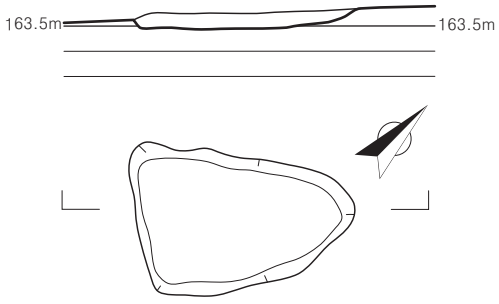


1. 담황갈색(10YR 5/4) 사질점토
2. 황갈색(10YR 5/6) 사질점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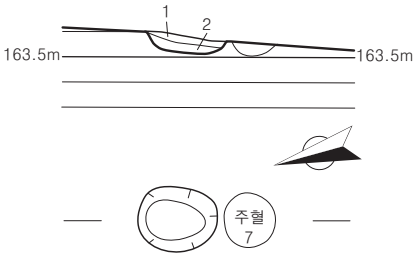
수혈유구 7호

수혈유구 6호



수혈유구 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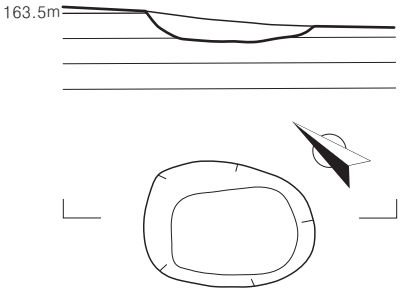
1. 담황등색(10YR 6/4) 사질점토
2. 황갈색(10YR 5/6) 사질점토 – 목탄알갱이 소량 혼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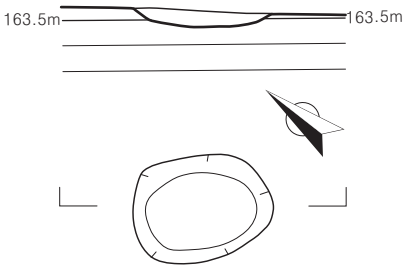
수혈유구 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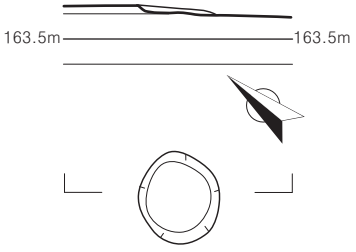
도면 8. 수혈유구 2~9호 및 출토유물(16: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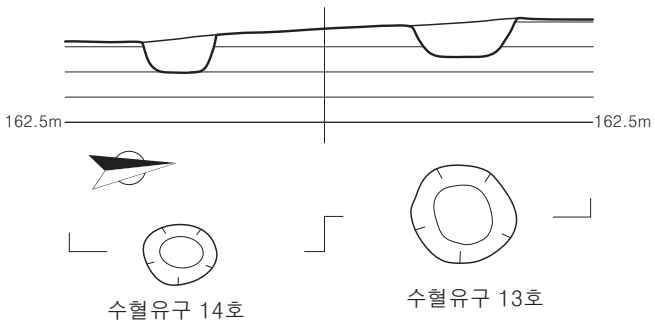
수혈유구 10호



수혈유구 1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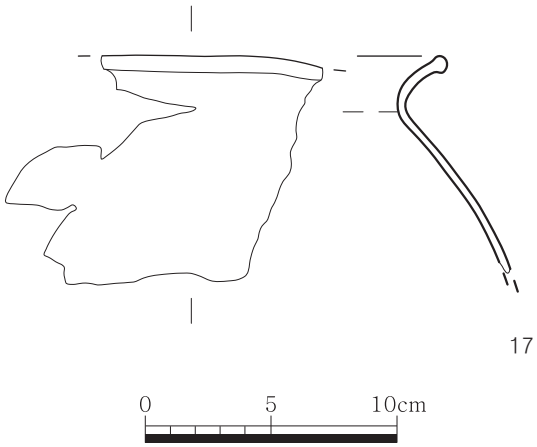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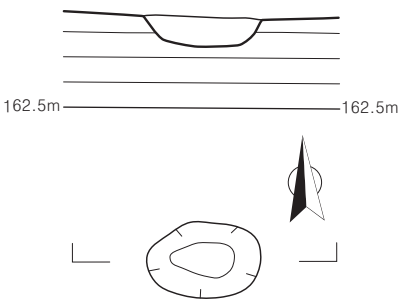
수혈유구 1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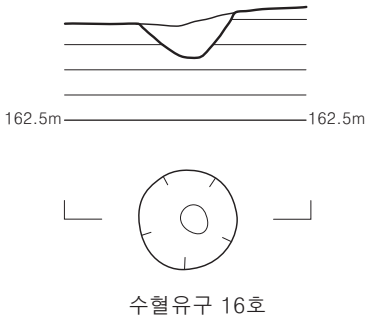
수혈유구 14호

수혈유구 1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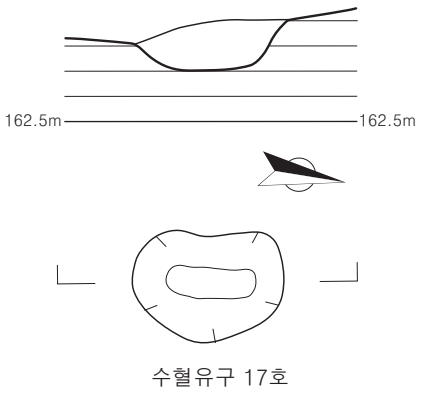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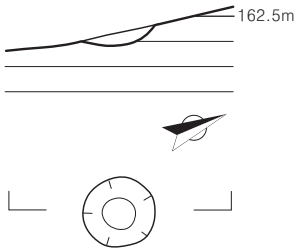
수혈유구 1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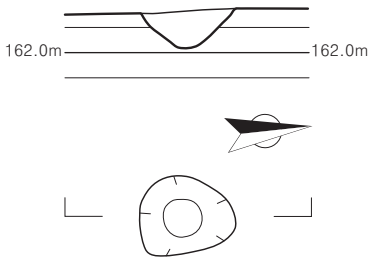
수혈유구 1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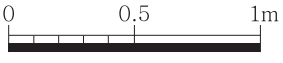
수혈유구 17호



수혈유구 18호



수혈유구 19호



도면 9. 수혈유구 10~19호 및 출토유물(17:14호)

나. 유물

16. 호 저부편(도면 8-16, 도판 8-16)

수혈유구 4호에서 출토되었다. 동체부 하위와 저부 일부만 잔존한다. 연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한 편이며, 태토는 세사립과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황등색(10YR 7/3)이다. 내외면은 물손질 정면 하였다.

잔존기고 9.7㎝

17. 호 구경부편(도면 9-17, 도판 10-17)

수혈유구 14호에서 출토되었다. 구경부 및 동체부 상위 일부만 잔존한다. 연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한 편이며, 태토는 세사립과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등색(5YR 7/8)이다. 내외면은 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21.7㎝, 복원구경 20.9㎝

3) 주혈

가. 유구(도면 10, 도판 1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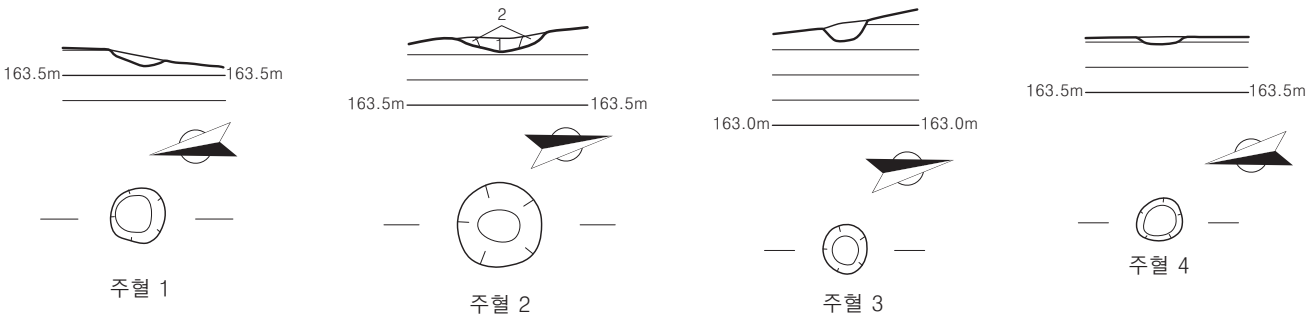
총 16개가 확인되었다. 조사대상지 내 전면에서 산발적으로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대부분 원형이며, 규모는 16~47㎝, 깊이 3~26㎝ 정도로 다양하게 확인되었다. 내부토는 주로 담황등색 사질점토가 퇴적되어 있었으며, 목탄알갱이 및 연질토기편이 일부 혼입되어 확인되었다. 단면형태는 'U'자형으로 벽면은 비스듬히 굴착하였으며, 바닥면은 오목한 형태에 가깝게 조성하였다. 주혈의 개별 속성은 다음【표 5】와 같다.

【표 5】 삼국시대 주혈 속성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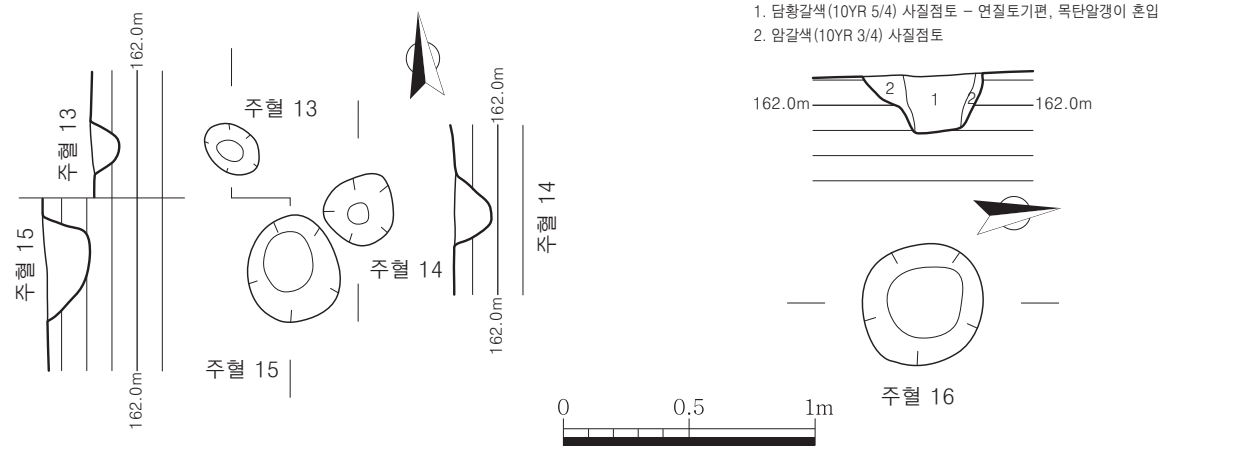
주혈 번호	평면형태	규모(㎝)		단면형태	내부토	비고
		직경	깊이			
1	원형	20	3	'U'자형	담황등색(10YR 6/4) 사질점토	
2	원형	34	5	'U'자형	1. 회황갈색(10YR 6/2) 사질점토 - 암반편 혼입 2. 담황등색(10YR 6/4) 사질점토 - 담황갈색(10YR 5/4) 사질점토 혼입	토층 내 목주흔
3	원형	18	7	'U'자형	담황등색(10YR 6/4) 사질점토 - 회황갈색(10YR 6/2) 사질점토 일부 혼입	
4	원형	16	3	'U'자형	담황등색(10YR 6/4) 사질점토 - 회황갈색(10YR 6/2) 사질점토 일부 혼입	

주혈 번호	평면형태	규모(㎝)		단면형태	내부토	비고
		직경	깊이			
5	원형	20	17	'凵'자형	담황갈색(10YR 5/3) 사질점토 – 담황등색(10YR 6/4) 사질점토 및 목탄알갱이 혼입	
6	원형	21	8	'U'자형	담황갈색(10YR 5/4) 사질점토	
7	원형	20	5	'U'자형	담황등색(10YR 6/4) 사질점토 – 회황갈색(10YR 6/2) 사질점토 일부 혼입	
8	원형	33	26	'U'자형	담황등색(10YR 6/4) 사질점토 – 명황갈색(10YR 6/6) 사질점토 일부 및 목탄알갱이 소량 혼입	
9	원형	43	14	'U'자형	갈색(10YR 4/4) 사질점토 – 목탄알갱이 혼입	
10	원형	32	20	'U'자형	담황갈색(10YR 5/4) 사질점토 – 목탄알갱이 소량 혼입	
11	원형	34	20	'U'자형	담황등색(10YR 6/4) 사질점토 – 갈색(10YR 4/6) 사질점토 소량, 연질토기편, 목탄알갱이 소량 혼입	
12	원형	15	13	'U'자형	담황갈색(10YR 5/4) 사질점토	
13	부정형	17~24	10	'U'자형	갈색(10YR 4/6) 사질점토	
14	원형	27	15	'U'자형	갈색(10YR 4/4) 사질점토 – 목탄알갱이 소량 혼입	
15	원형	42	17	'U'자형	암갈색(10YR 3/4) 사질점토 – 목탄알갱이 다량 혼입	
16	원형	47	22	'U'자형	1. 담황갈색(10YR 5/4) 사질점토 – 연질토기편, 목탄알갱이 혼입 2. 암갈색(10YR 3/4) 사질점토	토층 내 목주흔

1. 회황갈색(10YR 6/2) 사질점토 – 암반편 혼입
2. 담황등색(10YR 6/4) 사질점토 – 담황갈색(10YR 5/4) 사질점토 혼입



1. 담황갈색(10YR 5/4) 사질점토 – 연질토기편, 목탄알갱이 혼입
2. 암갈색(10YR 3/4) 사질점토



도면 10. 주혈 1~16

〈시대미상〉

표토하 20~90㎝ 정도에서 수혈유구 5기, 주혈 7개 등이 확인되었다. 삼국시대 유구에 비해 퇴적된 내부토가 비교적 밝은편으로, 내부에 암반편 등이 주로 포함되어 확인되었다. 내부에서 유물은 확인되지 않아, 시대미상으로 분류하였다.

1) 수혈유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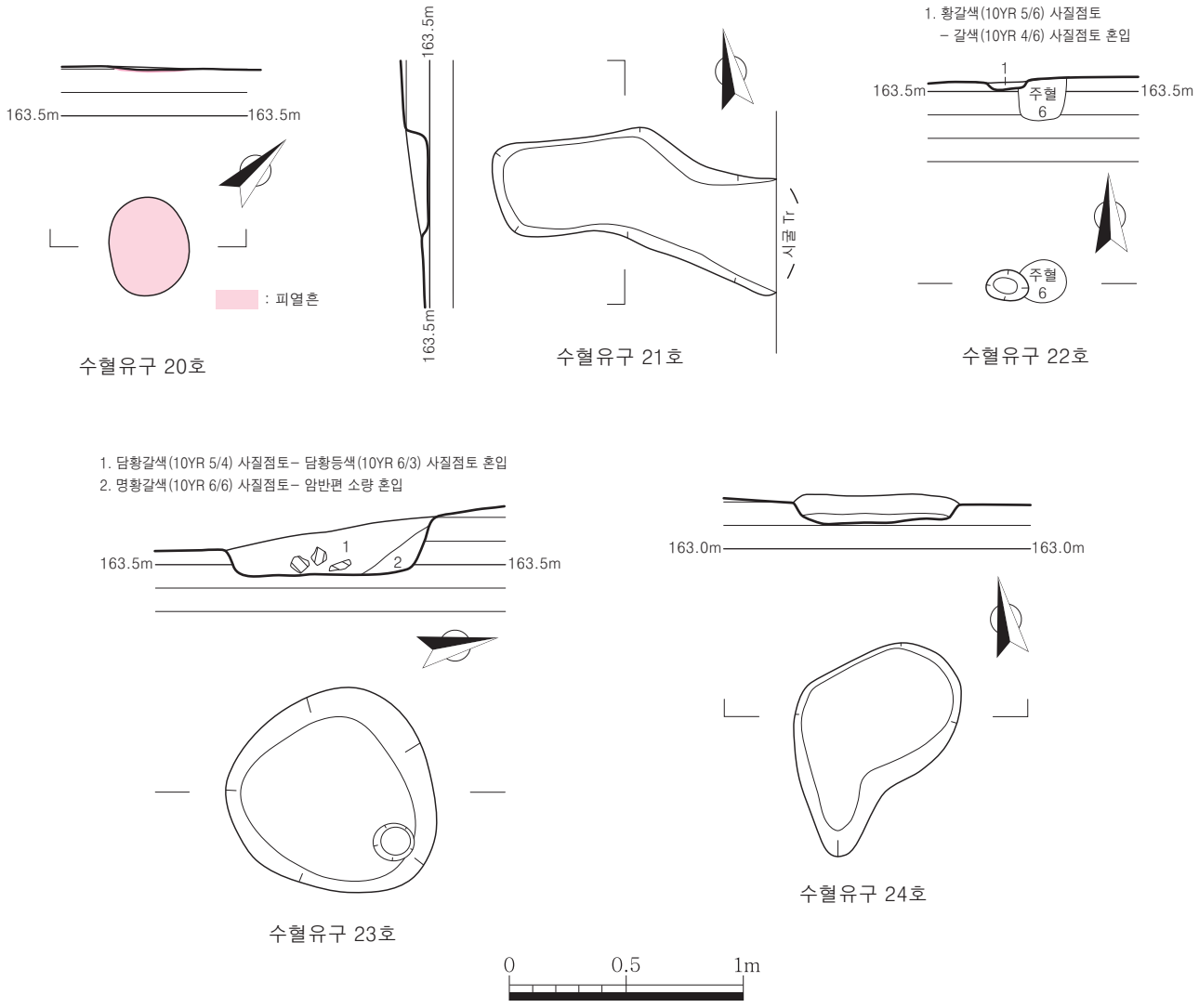
가. 유구(도면 11, 도판 13)

조사대상지 북서쪽 구간에서 총 5기가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부정형이 대부분이며, 일부 원형(22, 23호)도 확인되었다. 규모는 길이 42~128㎝, 너비 17~88㎝, 깊이 0~35㎝ 정도이다. 벽면은 비스듬히 굴착하였으며, 바닥면은 비교적 오목한 형태이다. 내부토는 황갈색 · 갈색 사질점토 등과 일부 암반편이 혼입되어 확인되었다. 수혈유구 23호는 동쪽 벽면에 접한 바닥면에 직경 15㎝ 정도의 내부 수혈이 확인되었다. 확인된 수혈유구는 대부분 별다른 시설 등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각 수혈유구의 세부속성은【표 6】으로 간략히 정리하였다.

【표 6】 시대미상 수혈유구 속성표

유구 번호	평면형태	(잔존)규모(㎝)			내부토	비고
		길이	너비	깊이		
20호	부정형	42	33	–	명적갈색(5YR 5/6) 피열흔	상면 피열
21호	부정형	(128)	46	35	회황갈색(10YR 6/2) 사질점토 – 담황등색(10YR 6/4) 사질점토 및 암반편 다량 혼입	표본조사 트렌치에 의해 동쪽 부분 결실
22호	원형	17		4	황갈색(10YR 5/6) 사질점토 – 갈색(10YR 4/6) 사질점토 혼입	
23호	원형	88		22	1. 담황갈색(10YR 5/4) 사질점토 – 담황등색(10YR 6/3) 사질점토 혼입, 10㎝내외 할석알갱이 일부 혼입 2. 명황갈색(10YR 6/6) 사질점토 – 암반편 소량 혼입 내부수혈:갈색(10YR 4/4) 사질점토 – 목탄알갱이 소량 혼입	내부수혈 (원형/15㎝)
24호	부정형	96	66	8	갈색(10YR 4/4) 사질점토	



도면 11. 수혈유구 20~2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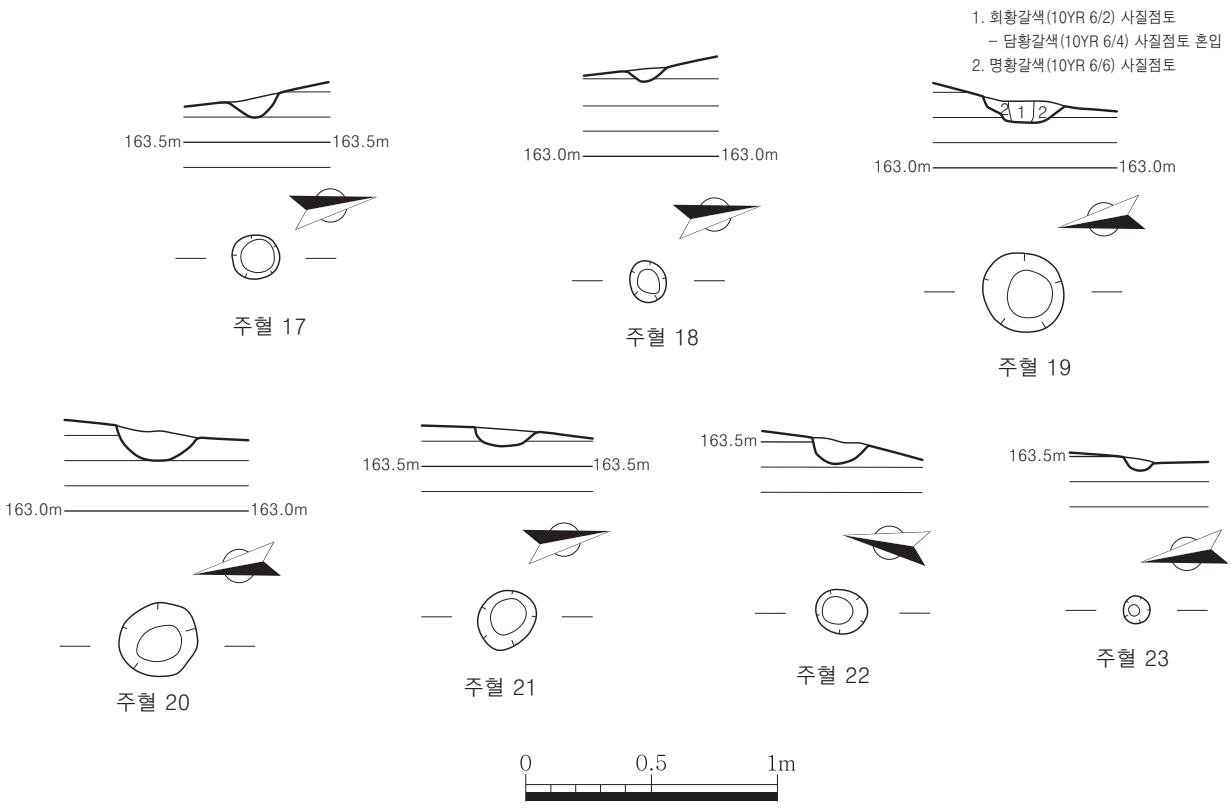
2) 주혈

가. 유구(도면 12, 도판 14)

조사대상지 북서쪽 구간에서 총 7개가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모두 원형이며, 규모는 직경 10~30㎝, 깊이 4~11㎝ 정도이다. 벽면은 비스듬히 굴착하였으며, 단면형태는 모두 'U'자형에 가깝다. 내부토는 대부분 회황갈색 사질점토가 퇴적되어 있었다. 각 주혈의 세부속성은 다음【표 7】과 같다.

【표 7】 시대미상 주혈 속성표

주혈 번호	평면형태	규모(㎝)		단면형태	내부토	비고
		길이	너비			
17	원형	17	8	‘U’자형	회황갈색(10YR 6/2) 사질점토	
18	원형	15	5	‘U’자형	회황갈색(10YR 6/2) 사질점토	
19	원형	30	8	‘U’자형	1. 회황갈색(10YR 6/2) 사질점토 – 담황갈색(10YR 6/4) 사질점토 혼입 2. 명황갈색(10YR 6/6) 사질점토	
20	원형	30	11	‘U’자형	회황갈색(10YR 6/2) 사질점토 – 담황갈색(10YR 5/4) 사질점토 소량 혼입	
21	원형	22	6	‘U’자형	회황갈색(10YR 6/2) 사질점토 – 담황갈색(10YR 5/4) 사질점토 소량 혼입	
22	원형	20	9	‘U’자형	회황갈색(10YR 6/2) 사질점토	
23	원형	10	4	‘U’자형	회황갈색(10YR 6/2) 사질점토	



도면 12. 주혈 17~23

Ⅳ. 조사성과

본 발굴조사는 군위 화북리 632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에 대한 소규모 발굴 국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발굴조사 결과, 유구는 생토층에서 삼국시대 구상유구 1기, 수혈유구 19기, 주혈 등과, 시기를 알 수 없는 수혈유구 5기, 주혈 등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파수부배, 장동옹, 호편, 통형기대편 등 총 17점을 선별 수습하였다.

유구는 비교적 교란이 되지 않은, 부지의 북쪽을 중심으로 확인되었으나, 잔존상태가 좋지 않아 정확한 성격은 알 수 없다.

구상유구는 조사대상지 북쪽 경계 절토면에서 단면이 확인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조사경계 밖 구릉 상부에서 이어지는 유구로 판단된다. 유구의 남쪽은 원지형의 삭평과 수혈유구 1호가 후축되면서 대부분 훼손되어 정확한 성격은 알 수 없었다. 조사과정에서 내부토에 다량의 목탄재와 소토 및 벽체편, 소성과정에서 찌그러진 삼국시대 경질토기편 등이 포함되어 확인되는 것을 볼 때, 조사대상지의 북쪽 구릉부에 삼국시대 토기가마와 관련된 유구가 유존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조사대상지 내에서는 가마와 관련된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수혈유구는 총 24기가 확인되었으며, 이 중 삼국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수혈은 총 19기이다. 내부에서 유물이 확인된 수혈유구는 1 · 4 · 14 · 15 · 19호이며, 1 · 4 · 14호를 제외한 나머지 수혈은 내부토에서 잔편만 확인되었다. 대부분 길이 100㎝ 미만의 소형 수혈이나, 1호는 잔존길이 783cm, 너비 564cm 정도로 비교적 큰 편이다. 수혈 내부에 다량의 할석이 흐트러진 형태로 채워져 있었으며, 파수부배, 연질토기편 등이 확인되었다. 수혈유구는 조사대상지 전면에서 확인되었으나, 대부분 내부시설이 없는 등 특징이 확인되지 않았기에 성격은 알 수 없었다.

주혈은 조사대상지 전면에서 총 23개가 확인되었다. 이 중 삼국시대로 분류가능한 주혈은 총 16개이며, 평면형태는 대부분 원형이다. 원지형의 삭평이 심하여, 깊이는 얕은 편으로, 주혈간 배치양상



성주 성산동 고분군 38호분 통형기대



구상유구 내 출토 통형기대편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유물은 대부분 잔편으로 수습되어, 시기성을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구상유구 내에서 장식대가 부착된 통형기대편 2점이 출토되었으며, 본 유적에서 출토된 기대편은 성주 성산동 38호분[10] 등에서 출토된 통형기대의 장식대와 유사한 특징이 확인되었다. 또한, 대부호 대각편 및 대호 구경부편 등에 시문된 파상문 등을 볼 때 유적의 중심시기는 5세기 전기~중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본 유적에서 확인된 유구는 후대의 교란 및 삭평으로 잔존상태가 좋지 않아 정확한 성격은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구상유구에서 가마 벽체편, 목탄, 소토와 함께 찌그러진 삼국시대 토기편 등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유적이 입지하는 북쪽 능선 상부에 삼국시대 토기가마 등과 관련된 유구가 분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유적에서 확인된 주혈, 수혈유구, 구상유구는 이러한 생산시설과 관련된 폐기, 저장, 공방 등의 작업 및 거주의 흔적으로 추정된다.

10) 啓明大學校 行素博物館, 2006,『星州 星山洞 古墳群』.

도 판



도판 1. 조사대상지 조사전 전경(①□원경(S→N), ②근경(SE→NW))



도판 2. 조사대상지 전경(①유구확인 후(SE→NW), ②북쪽구간 조사후(SE→N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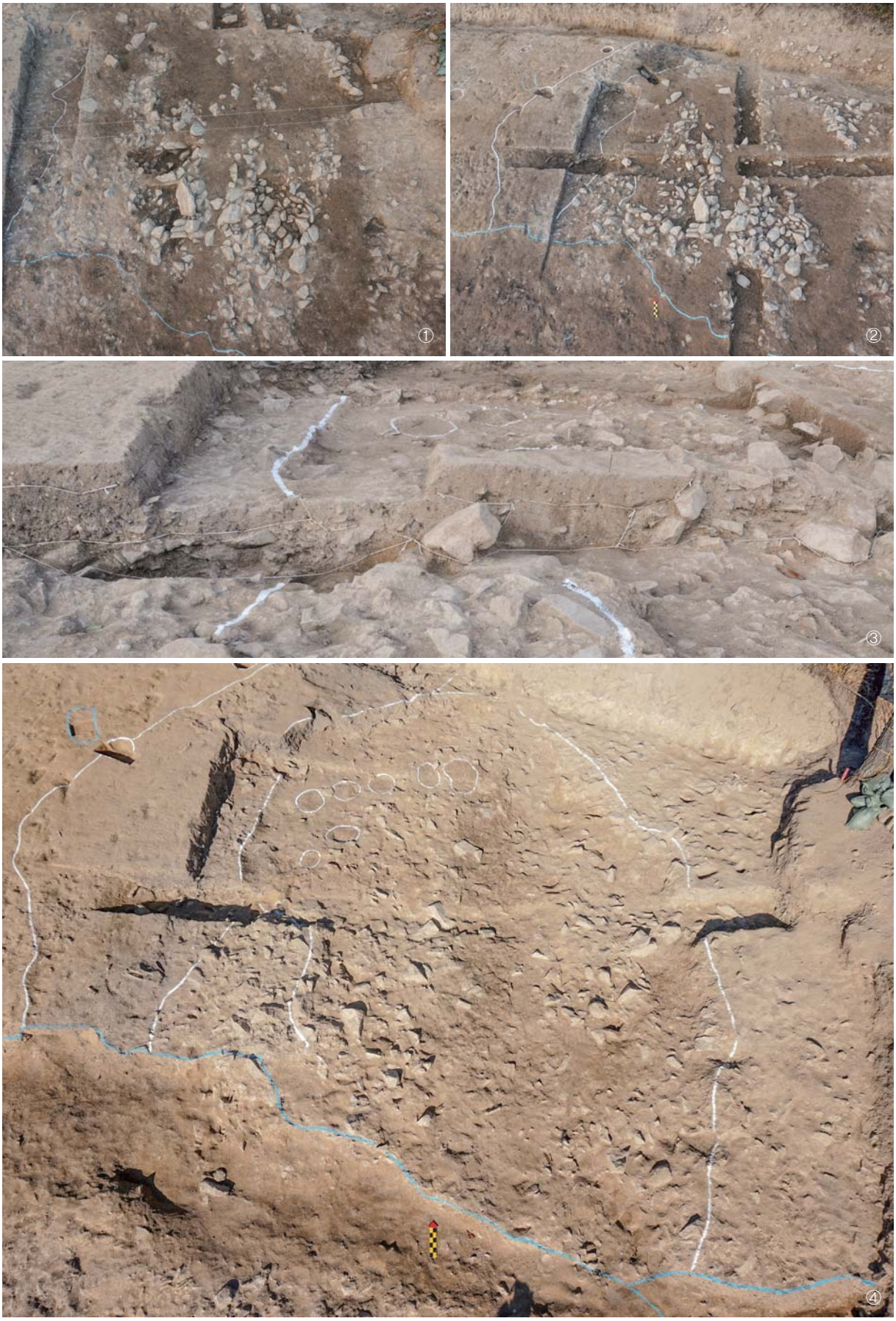
도판 3. 조사대상지 전경(①남쪽구간 조사후(E→W), ②조사후(항공사진))



도판 4. 구상유구(①유구확인후(SW→NE), ②조사전(SW→NE), ③토층, ④수혈유구 1호 중복양상 토층, ⑤수혈유구 1호 중복양상 전경(W→E))



도판 5. 구상유구(①굴착면 양상(S→N), ②조사후(SW→NE), 1~8: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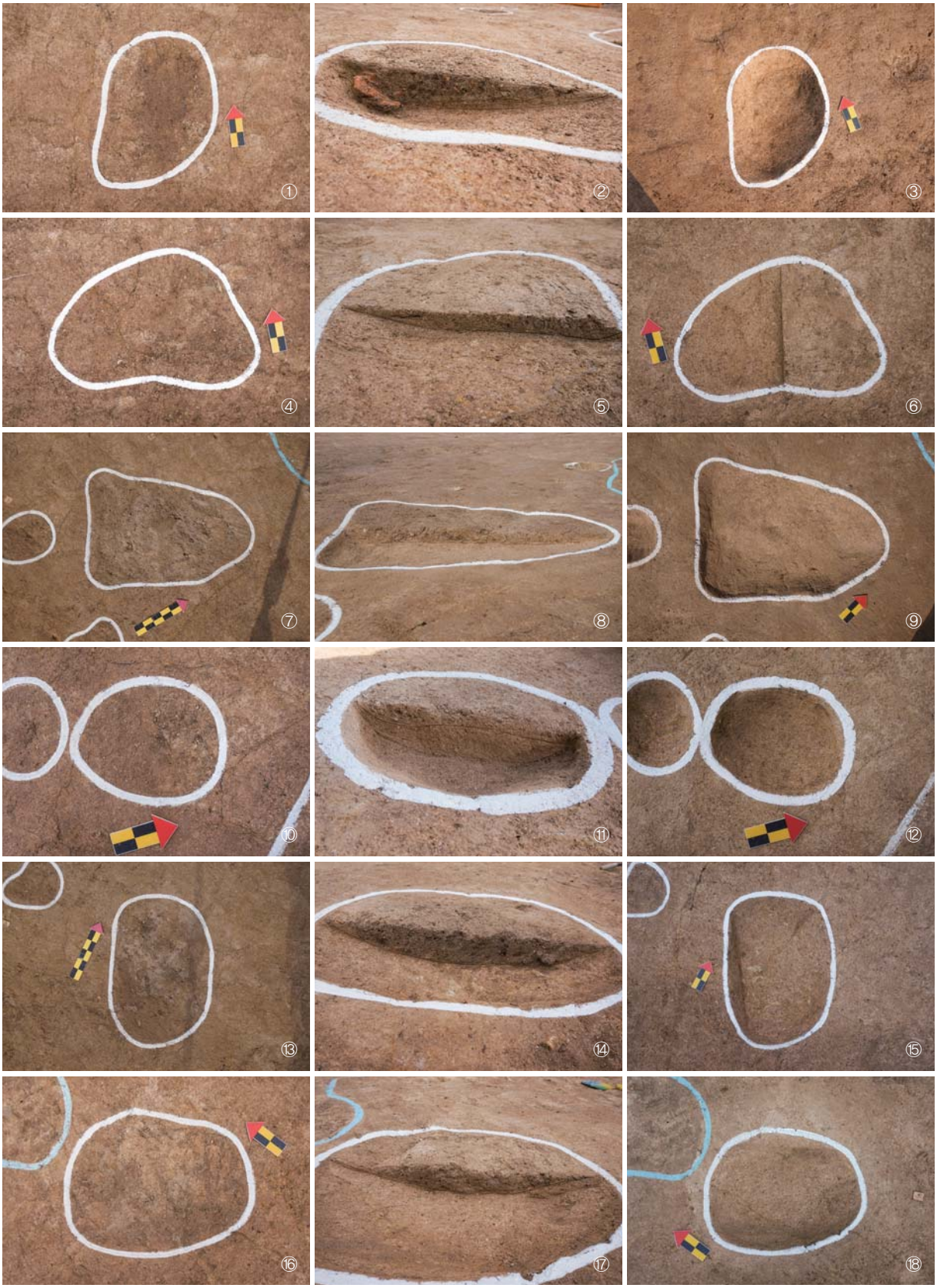
도판 6. 수혈유구 1호(①유구확인후(S→N), ②조사전(S→N), ③토층, ④조사후(S→N))



도판 7. 수혈유구 1호(①유물 출토상태, 9~15: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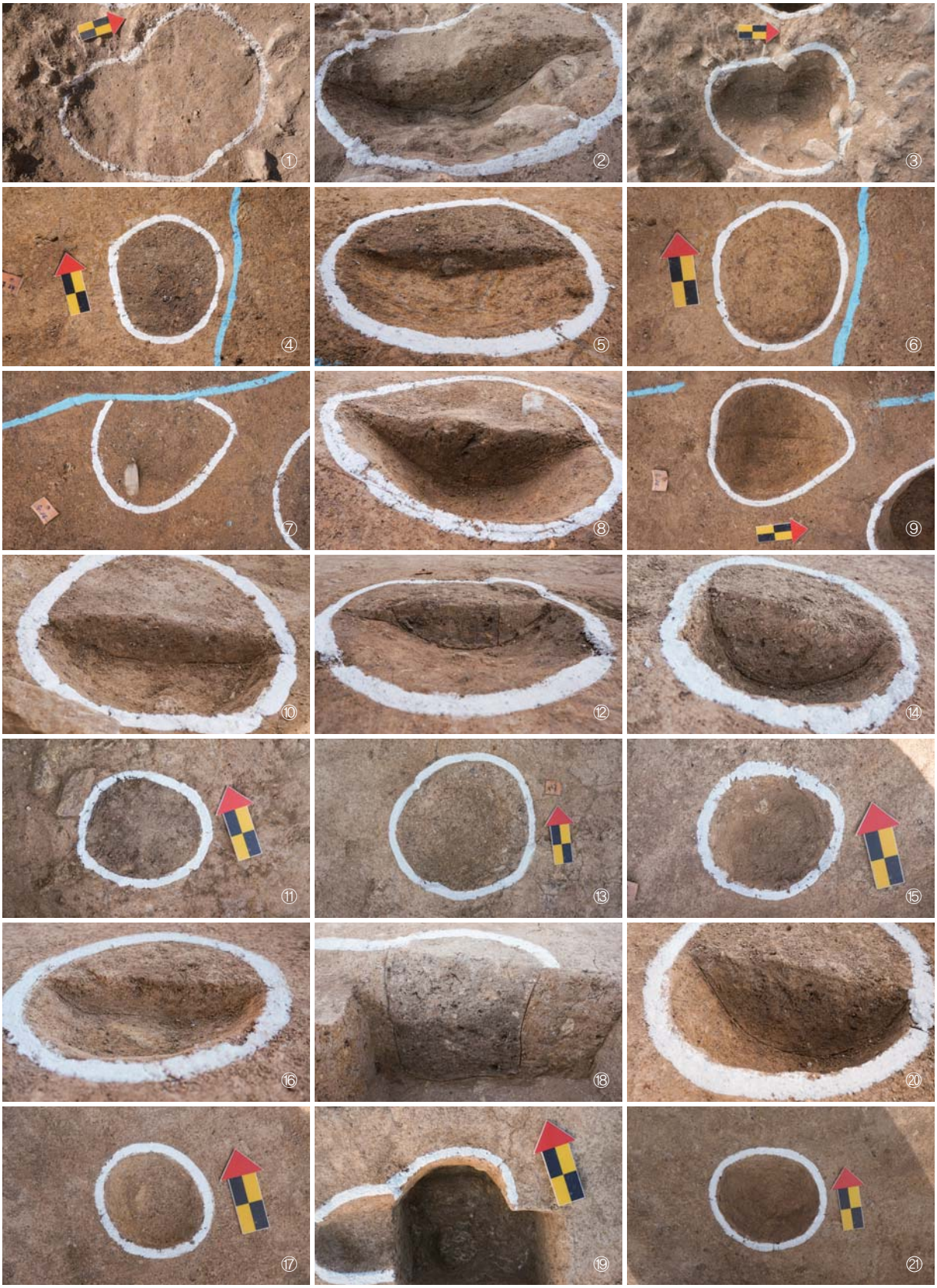
도판 8. 수혈유구 2호(①조사전(S→N), ②토층, ③조사후(S→N)), 수혈유구 3호(④조사전(S→N), ⑤토층, ⑥조사후(S→N)), 수혈유구 4호(⑦수혈유구 5호 중복관계 토층, ⑧조사중(S→N), ⑨유물 출토상태, 16:출토유물), 수혈유구 5호 (⑩조사전(S→N), ⑪토층, ⑫조사후(S→N))



도판 9. 수혈유구 6호(①조사전(S→N), ②토층, ③조사후(S→N)), 수혈유구 7호(④조사전(S→N), ⑤토층, ⑥조사후(S→N)), 수혈유구 8호(⑦조사전(SE→NW), ⑧토층, ⑨조사후(SE→NW)), 수혈유구 9호(⑩조사전(SE→NW), ⑪토층, ⑫조사후(SE→NW)), 수혈유구 10호(⑬조사전(SE→NW), ⑭토층, ⑮조사후(SE→NW)), 수혈유구 11호(⑯조사전(SW→NE), ⑰토층, ⑱조사후(SW→NE))



도판 10. 수혈유구 12호(①조사전(SW→NE), ②토층, ③조사후(S→N)), 수혈유구 13호(④조사전(S→N), ⑤토층, ⑥조사후(S→N)), 수혈유구 14호(⑦조사전(E→W), ⑧토층, ⑨유물 출토상태, ⑩조사후(E→W), 17:출토유물), 수혈유구 15호(⑪조사전(S→N), ⑫토층, ⑬조사후(S→N)), 수혈유구 16호(⑭조사전(S→N), ⑮토층, ⑯조사후(S→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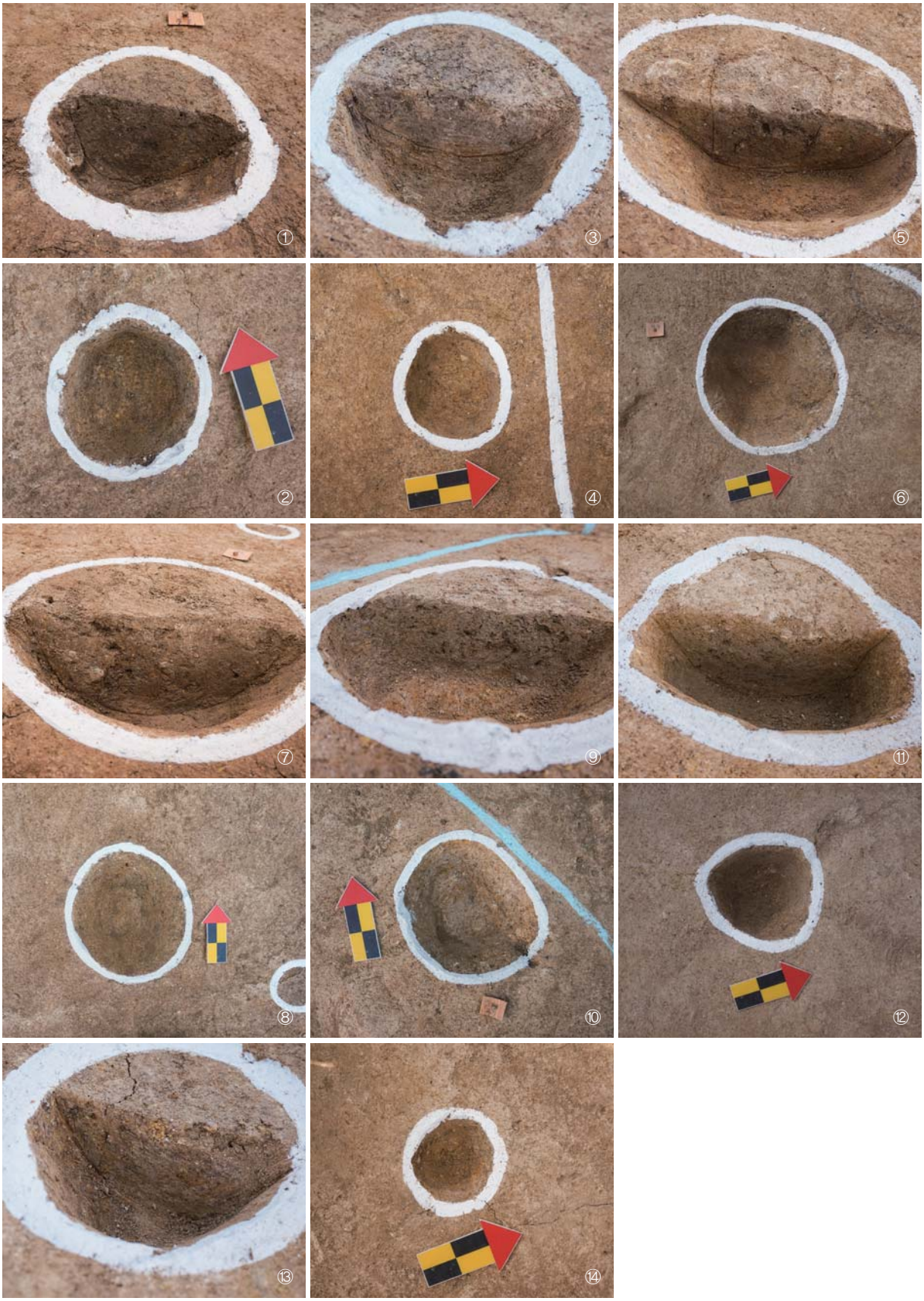
도판 11. 수혈유구 17호(①조사전(E→W), ②토층, ③조사후(E→W)), 수혈유구 18호(④조사전(S→N), ⑤토층, ⑥조사후(S→N)), 수혈유구 19호(⑦조사전(E→W), ⑧토층, ⑨조사후(E→W)), 주혈1(⑩토층, ⑪조사후(S→N)), 주혈 2(⑫토층, ⑬조사후(S→N)), 주혈 3(⑭토층, ⑮조사후(S→N)), 주혈 4(⑯토층, ⑰조사후(S→N)), 주혈 5(⑱토층, ⑲조사후(S→N)), 주혈 6(⑳토층, ㉑조사후(S→N))



도판 12. 주혈 7(①토층, ②조사후(S→N)), 주혈 8(③토층, ④조사후(S→N)), 주혈 9(⑤토층, ⑥조사후(E→W)), 주혈 10(⑦토층, ⑧조사후(S→N)), 주혈 11(⑨토층, ⑩조사후(E→W)), 주혈 12(⑪토층, ⑫조사후(W→E)), 주혈 13(⑬토층, ⑭조사후(SE→NW)), 주혈 14(⑮토층, ⑯조사후(W→E)), 주혈 15(⑰토층, ⑱조사후(S→N))



도판 13. 주혈 16(①토층, ②조사후(S→N)), 수혈유구 20호(③유구확인후(S→N), ④단면조사), 수혈유구 21호(⑤조사전(S→N), ⑥조사후(S→N)), 수혈유구 22호(⑦조사전(S→N), ⑧토층, ⑨조사후(S→N)), 수혈유구 23호(⑩조사전(S→N), ⑪토층, ⑫조사중(S→N), ⑬내부수혈 조사전, ⑭내부수혈 토층, ⑮조사후(S→N)), 수혈유구 24호(⑯조사전(S→N), ⑰토층, ⑱조사후(S→N))



도판 14. 주혈 17(①토층, ②조사후(S→N)), 주혈 18(③토층, ④조사후(E→W)), 주혈 19(⑤토층, ⑥조사후(E→W)), 주혈 20(⑦토층, ⑧조사후(S→N)), 주혈 21(⑨토층, ⑩조사후(S→N)), 주혈 22(⑪토층, ⑫조사후(E→W)), 주혈 23(⑬토층, ⑭조사후(E→W))

군위 화북리 632번지 유적 유물목록

유물번호	유물명	수량(점)	출토유구	분류		크기(㎝)			도면번호 도판번호	선별결과
				재질	시대	기고(길이)	구경(폭)	저경(두께)		
2017-1406-0001	대부호편	1	구상유구	토도류	삼국시대	잔존 5.1	0.0	0.0	6-1 5-1	Y
2017-1406-0002	파수부호	1	구상유구	토도류	삼국시대	잔존 6.1	복원 24.3	0.0	6-2 5-2	Y
2017-1406-0003	옹 구연부편	1	구상유구	토도류	삼국시대	잔존 5.4	복원 11.5	0.0	6-3 5-3	Y
2017-1406-0004	장경호 구경부편	1	구상유구	토도류	삼국시대	잔존 6.6	0.0	0.0	6-4 5-4	Y
2017-1406-0005	대호 구경부편	1	구상유구	토도류	삼국시대	잔존 6.8	0.0	0.0	6-5 5-5	Y
2017-1406-0006	기대편	1	구상유구	토도류	삼국시대	잔존 9.0	0.0	0.0	6-6 5-6	Y
2017-1406-0007	기대편	1	구상유구	토도류	삼국시대	잔존 11.2	0.0	0.0	6-7 5-7	Y
2017-1406-0008	파수	1	구상유구	토도류	삼국시대	6.9	3.2	0.0	6-8 5-8	Y
2017-1406-0009	파수부배	1	수혈유구 1호	토도류	삼국시대	9.9	복원 9.6	5.0	7-9 7-9	Y
2017-1406-0010	장동옹	1	수혈유구 1호	토도류	삼국시대	잔존 21.7	복원 20.9	0.0	7-10 7-10	Y
2017-1406-0011	장동옹편	1	수혈유구 1호	토도류	삼국시대	잔존 14.2	0.0	0.0	7-11 7-11	Y
2017-1406-0012	파수	1	수혈유구 1호	토도류	삼국시대	6.8	3.2	0.0	7-12 7-12	Y
2017-1406-0013	파수	1	수혈유구 1호	토도류	삼국시대	7.4	3.6	0.0	7-13 7-13	Y
2017-1406-0014	파수	1	수혈유구 1호	토도류	삼국시대	5.1	5.8	0.0	7-14 7-14	Y
2017-1406-0015	방추차	1	수혈유구 1호	토도류	삼국시대	3.9	0.0	1.9	7-15 7-15	Y
2017-1406-0016	호 저부편	1	수혈유구 4호	토도류	시대미상	잔존 9.7	0.0	0.0	8-16 8-16	Y
2017-1406-0017	호 구경부편	1	수혈유구 14호	토도류	시대미상	잔존 21.7	복원 20.9	0.0	9-17 10-17	Y

掘調査報告書 抄錄

報告書名	군위 화북리 632번지 유적		發行日	2019年 12月 23日
發行機關	名稱	한국문화재재단		
	住所	(06153)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06		
	TEL	(02)3011-2173	FAX	(02)566-5954
執筆 · 編輯者	박종섭, 박무식, 이도현, 강성귀, 하혜진			
調査 緣由	단독주택 신축에 따른 구제조사			
發掘調査者	박종섭, 박무식, 이도현, 이현호, 황원우			
遺蹟調査地番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632번지			
調査面積	783㎡			

遺構種別	時代 및 年代	類型 및 基數	重要遺物	特記事項
구상유구	삼국시대	1	파수부호, 기대편, 대호 구경부편 등	
수혈유구		19	파수부배, 장동옹, 파수 등	
주혈		16	-	
수혈유구	시대미상	5	-	
주혈		7	-	

150. 경주 동부동 37번지 유적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목 차

Ⅰ. 조사개요 …… 150 – 7

Ⅱ. 유적의 위치와 환경 …… 150 – 9

Ⅲ. 조사내용 …… 150–18
1. 통일신라시대 …… 150–18
1) 적심 …… 150–18
(1) 1호 적심 …… 150–18
(2) 2호 적심 …… 150–19
2) 수혈 …… 150–19
(1) 1호 수혈 …… 150–19
(2) 2호 수혈 …… 150–21
2. 조선시대 …… 150–21
1) 연지 …… 150–21
1) 수혈 …… 150–30

Ⅳ. 조사성과 …… 150–31

도 면 목 차

도면 1. 조사지역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축척=1:25,000) …… 150-10
도면 2. 조사지역 수치 지형도(축척=1:5,000 · 주변유적【표 1】참조)…… 150-11
도면 3. 조사지역 지적도 …… 150-12
도면 4. 경주읍내전도(1798년 제작, ○: 조사지역) …… 150-16
도면 5. 1916년도 지형도(축척=1/10.000 확대, 조선총독부 제작) …… 150-16
도면 6. 유구분포도(축척=1:100) …… 150-17
도면 7. 통일신라시대 1호 적심 평면 및 단면도 …… 150-19
도면 8. 통일신라시대 2호 적심 평면 및 단면도 …… 150-19
도면 9. 통일신라시대 1호 수혈 평면 · 토층도 및 출토유물(1, 2) …… 150-20
도면 10. 통일신라시대 2호 수혈 평면 및 토층도 …… 150-21
도면 11. 조선시대 연지 평면 · 입단면 및 토층도 …… 150-23
도면 12. 조선시대 연지 출토유물(3~6) …… 150-27
도면 13. 조선시대 연지 출토유물(7~10) …… 150-28
도면 14. 조선시대 연지 출토유물(11~16) …… 150-29
도면 15. 조선시대 연지 출토유물(17~27) …… 150-30
도면 16. 조선시대 수혈 평면 및 토층도 …… 150-30

도 판 목 차

도판 1. 조사지역 원경(①동→서, ②남→북) …… 150-35
도판 2. 조사지역 전경(①1차 조사, ②2차 조사) …… 150-36
도판 3. 통일신라시대 1호 적심(①~⑤) 및 2호 적심(⑥, ⑦) …… 150-37
도판 4. 통일신라시대 1호 수혈…… 150-38
도판 5. 통일신라시대 1호 수혈(상어뼈, 출토유물: 1, 2), 2호 수혈(①~③) …… 150-39
도판 6. 조선시대 연지(①조사 중, ②토층, ③ · ④석조물 출토상태) …… 150-40
도판 7. 조선시대 연지(①전경, ②내부토층) …… 150-41
도판 8. 조선시대 연지 호안석축(① · ②동안석축 ③모서리, ④~⑥서안석축) …… 150-42
도판 9. 조선시대 연지 출토유물(3~7) …… 150-43
도판 10. 조선시대 연지 출토유물(8~12) …… 150-44
도판 11. 조선시대 연지 출토유물(13~16) …… 150-45
도판 12. 조선시대 연지 출토유물(17~21) …… 150-46
도판 13. 조선시대 연지 출토유물(22~27)…… 150-47
도판 14. 조선시대 수혈(①~③), 현대 우물(④~⑥)…… 150-48

Ⅰ. 조사개요

본 조사지역은 경상북도 경주시 동부동 37번지로 사업시행자 손원조씨의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212㎡)이다.

사업시행자는 상기 부지에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해 경주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경주시는 “신청지는 국가지정문화재(경주읍성) 주변지역으로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현상변경 허용기준 이외의 사항이므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득한 후 시행하고, 현상변경허가를 득한 후 매장문화재 보존을 위하여 공사시행 전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의 입회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우선 조치”할 것을 통보하였다.

이에 사업시행자는 문화재청으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득한 후, 입회조사를 시행하였다. 입회조사 결과, 조선시대 집석과 통일신라시대 적심 등의 유구와 전돌, 백자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고, 입회관은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1)]

이후 사업시행자는 한국문화재재단에 국비지원 발굴조사를 신청하였고, 한국문화재재단은 우리 연구원에 대행조사를 의뢰하게 되어 우리 연구원이 발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문화재청으로부터 발굴허가(제2017-1515호; 2017.11.21.)를 받은 우리 연구원은 실조사일수 10일의 일정으로 2017년 11월 27일에 현장조사를 착수하였다. 조사결과, 통일신라시대 문화층에서 적심 2기와 수혈 2기가 확인되었고, 조선시대 문화층에서는 연지 1기와 수혈 1기가 확인되었다. 유물은 통일신라시대 수막새와 병, 고려시대 기와, 조선시대 기와와 백자 등이 출토되었다.

학술자문회의는 2017년 12월 7일에 개최하였다.[2)] 학술자문회의 결과, 발굴조사를 마무리하고 기록·보존할 것이라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이후 마무리 조사를 실시한 우리 연구원은 2017년 12월 8일에 현장조사를 완료하였다.

출토유물에 대한 선별회의는 2018년 5월 4일에 개최하였다. 출토된 27건 27점의 유물은 모두 보고서 수록대상으로 평가되었다.[3)]

당시 조사에 참여한 조사단 구성은 다음과 같다.

조 사 단 장 : 박 방 룡(신라문화유산연구원 원장)
책임조사원 : 이 재 현(신라문화유산연구원 학예연구실장)
조 사 원 : 최 순 조(신라문화유산연구원 조사연구2팀장)

---

1) 성림문화재연구원, 2017, 「경주 동부동 37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문화재 입회조사 결과서」.
2) 학술자문회의에는 강봉원(경주대학교 교수,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최재영(경주대학교 교수) 자문위원이 참석하였다.
3) 선별회의는 강봉원(경주대학교 교수,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박홍국(위덕대학교 교수), 황은순(국립경주박물관 학예연구관) 자문위원이 참석하였다.

준 조 사 원 : 이 정 욱(신라문화유산연구원 연구원)
진 지 형(신라문화유산연구원 연구원)
보 조 원 : 강 동 화(신라문화유산연구원 연구원)

*( )는 조사당시 직명임.

현장조사 외 GPS좌표 측량조사에는 정여선(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이성문(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연구원) 선생님이 도움을 주었다. 보고서 작업은 박방룡 총괄, 이재현 책임 하에 최순조, 이정욱, 진지형, 강동화가 진행하였고, 다음과 같이 분장하였다.

유물정리 및 복원 : 진 지 형
유 물 보 존 처 리 : 주 진 옥
유물실측 및 탁본 : 김 미 경, 하 은 희
도 면 편 집 : 강 동 화
유 물 사 진 촬 영 : 오 세 윤(문화재사진연구소)
원 고 작 성 : 최 순 조, 이 정 욱
도 판 편 집 : 이 정 욱
교 정 및 교 열 : 이 재 현

Ⅱ. 유적의 위치와 환경

조사지역은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경주시 동부동 37번지이며, 좌표로는 동경 129°12′47.06″, 북위 35°50′40.50″에 위치한다. 조사지역이 속한 동부동은 경주 시가지 중앙에 있으며, 주변으로 서부동, 북부동, 노동동, 노서동과 함께 법정동인 중부동에 속한다. 동부동 주변에는 경주경찰서, 경주소방서 동부119안전센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대한상공회의소 등의 공공기관이 소재하고 있다.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대로변에는 병원을 비롯한 빌딩이 있고 그 안쪽에는 단독주택이 들어서 있다. 동쪽 일대는 현재 경주읍성 성곽 복원공사가 진행 중이다.

자연 · 지리적 환경을 살펴보면, 경주시가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경주분지는 북동쪽에 소금강산(해발 296m), 동쪽에 명활산(해발 266m), 남쪽에 남산(금오봉, 해발 468m), 서쪽에 선도산(해발 390m)과 송화산(해발 276m)으로 둘러싸여 있다. 시가지 서쪽 가장자리에는 서천인 형산강이 북류하고 북쪽에는 북천(알천)이 서류하여 형산강에 합류한다. 특히 북천은 토함산(해발 746m) 자락인 추령에서 발원하여 덕동호, 보문호를 거쳐 시가지 동쪽에 위치하는 명활산과 약산(해발 272.1m)의 협곡을 지나 경주분지를 거쳐 형산강과 합류하기까지 선상지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경주선상지는 명활산과 약산의 협곡에서 형산강에 이르기까지 부채꼴을 이루고 있다. 조사지역은 선상지의 선단에 가까운 저위면에 위치하며, 기반층이 모래자갈로 이루어진 역석층이다. 지질학에는 신생대 제4기에 형성된 신기하성층으로 분류된다.[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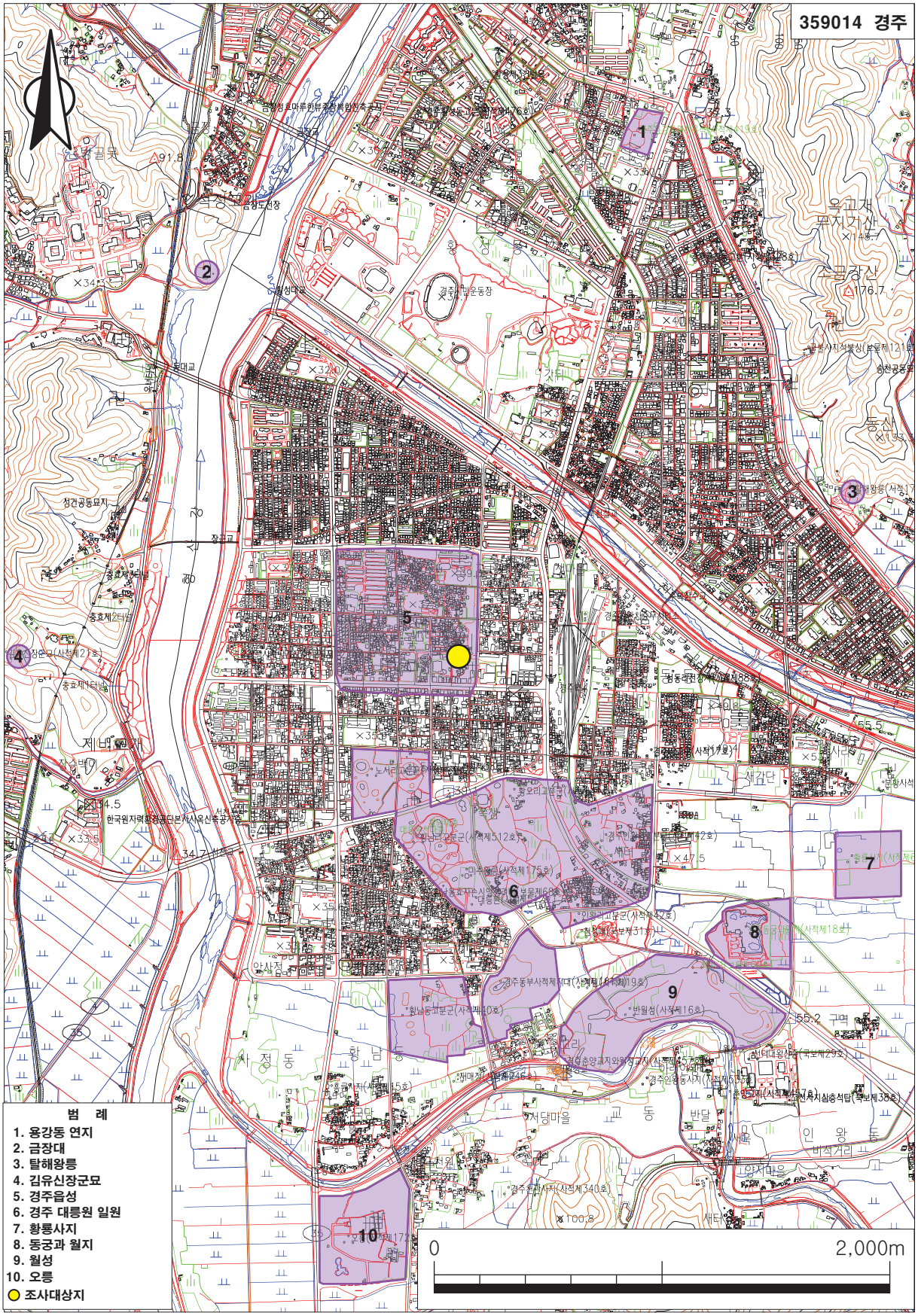
역사적으로 동부동은 경주읍성 내의 동쪽에 위치해 있는 마을이라 하여 '동부(東部)', '동부리'라 불렀다고 한다.[5)] 사적 제96호인 경주읍성은 축성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동경통지(東京通志)』에 '우왕 4년(1378)에 고쳐 쌓았는데 높이가 12척 7촌이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이전에도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선시대 경주읍성은 행정중심지였다. 조선 초기 8도 체제가 확립됨에 따라 경상도(慶尙道) 감영(監營)이 두어졌고, 태종 8년(1408) 무렵 경상도 감영이 상주목으로 옮겨졌으나, 경주부(慶州府)는 안강, 기계, 자인, 신광 등 4개 현을 속현(屬縣)으로 거느리는 영남의 거읍(巨邑)으로 유지되었다. 이후 점차 규모가 축소되었으나 조선말 지방제도 개혁 때까지 경주부로 유지되었다.

경주읍성은 석축 읍성으로, 조선시대 경주부를 관할하는 경주부윤(慶州府尹)이 집무를 보던 동헌(東軒)을 비롯하여, 객사(客舍), 군기청(軍器廳), 호적소(戶籍所), 무학당(武學堂) 등이 있었다. 이외에도 조선왕조 태조 이성계의 어진(御眞)을 봉안한 전각인 집경전(集慶展)이 있었다. 집경전터 북쪽에는 석실형태의 주전지(鑄錢址)가 현재 남아 있다. 주전지는 화폐를 주조, 발행하는 곳으로 전해지나, 집경전토에 남아 있어 석실에 진영(眞影)을 봉안하는 곳으로 추정하고 있다. 객사인 '동경관(東京館)'은 정청 · 동헌 · 서헌의 3동 건물이었던 것을 현재 1/3 정도인 서헌만이 이전 복원되어 있고, 경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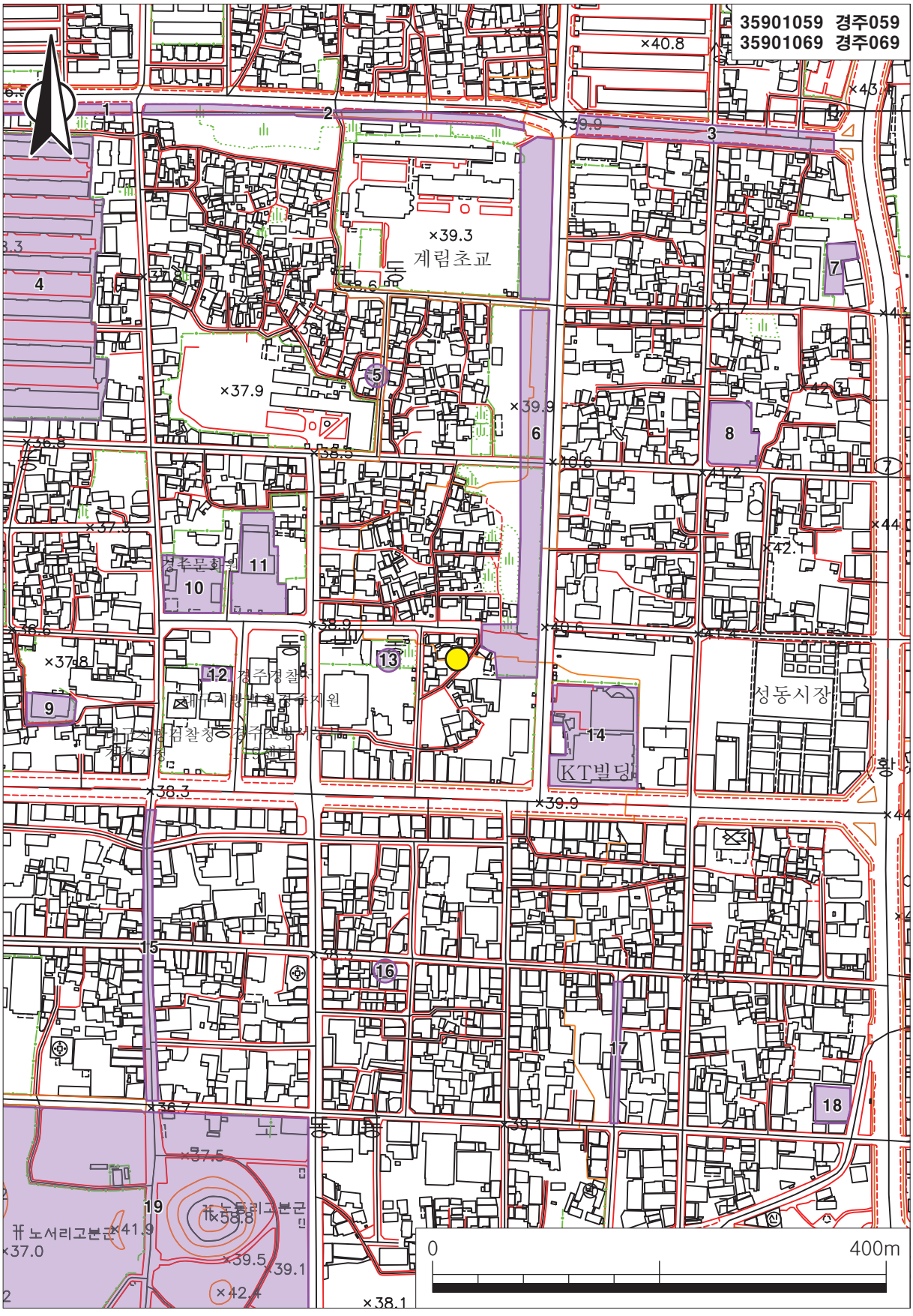
---

4) 윤순옥 · 황상일, 2004, 「경주 및 천북 지역의 선상지 지형발달」, 『대한지리학회지』39(1), 대한지리학회.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경주 알천유역 범람원의 고지형분석을 통한 토지이용연구』 R&D 보고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https://mgeo.kigam.re.kr), 지질주제도 참조.

5) 김기문, 2006, 『경주 풍물지리지』, 경주시 · 경주문화원.



도면 1. 조사지역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축척=1:25,000)



도면 2. 조사지역 수치 지형도(축척=1:5,000 · 주변유적【표 1】참조)



도면 3. 조사지역 지적도

화원 내에는 내전으로 추정되는 고건축물이 남아 있다. 문헌으로는 현종 10년(1669)에 편찬된 『동경잡기(東京雜記)』에 읍성 내 관청명 등이 전해지고, 정조 22년(1798)에 제작된 〈경주읍내전도(慶州邑內全圖)〉는 회화식 지도로 성곽과 관청, 가옥 등 읍성 전역이 그려져 있으며 관청명도 기록되어 있다.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조선시대 유적으로는 경주 서부동 19번지 유적에서 확인된 옥지(獄址)와 경주 동부동 159-1번지 유적에서 금학헌으로 추정하는 건물지, 행랑지, 연지 등이 확인되었다.[6] 경주읍성은 여러 차례에 걸쳐 조사된 북문로 도로개설 구간[7]과 경주읍성 복원사업부지[8]에서 읍성의 체

6)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3, 『경주 서부동 19번지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2, 『경주 동부동 159-1번지 건물지 발굴조사 보고서』.

7)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7, 『경주 북문로 왕경유적Ⅱ-서부동 북문로 도로개설구간(봉황로~서성로)내 시·발굴조사 보고서-』.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10, 『경주 북문로 왕경유적Ⅲ-북부동 북문로개설 공사구간(황성로~봉황로)내 발굴조사 보고서-』.

8) 한국문화재재단, 2014, 「경주읍성 복원정비사업부지(3·4·5구간내 유적 발굴(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자료」.
한국문화재재단, 2015, 「경주읍성 복원정비사업부지(3·4구간)내 유적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성과 치성이 조사되었고, 특히 2012년에 조사된 동문지에서 옹성이 확인되었다. 읍성은 일제강점기인 1916년까지 존재한 것으로 확인되나,(도면 4. 참고) 이후에는 식민지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읍성 철거로 멸실되었다. 현재까지의 발굴조사를 통해 경주읍성 복원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조선시대 이전인 신라시대의 왕경 유적도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서부동 19번지 유적에서는 조선시대 옥지 아래에서 통일신라시대 교차된 도로 2기와 우물 등이 확인되었고, 경주읍성 복원정비사업부지에서도 교차될 것으로 추정되는 도로 2기가 확인되었다. 경주 북문로 유적에서는 도로를 비롯한 건물지와 우물 등의 생활유적도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소규모 발굴조사를 통해 통일신라시대 또는 조선시대 유적이 보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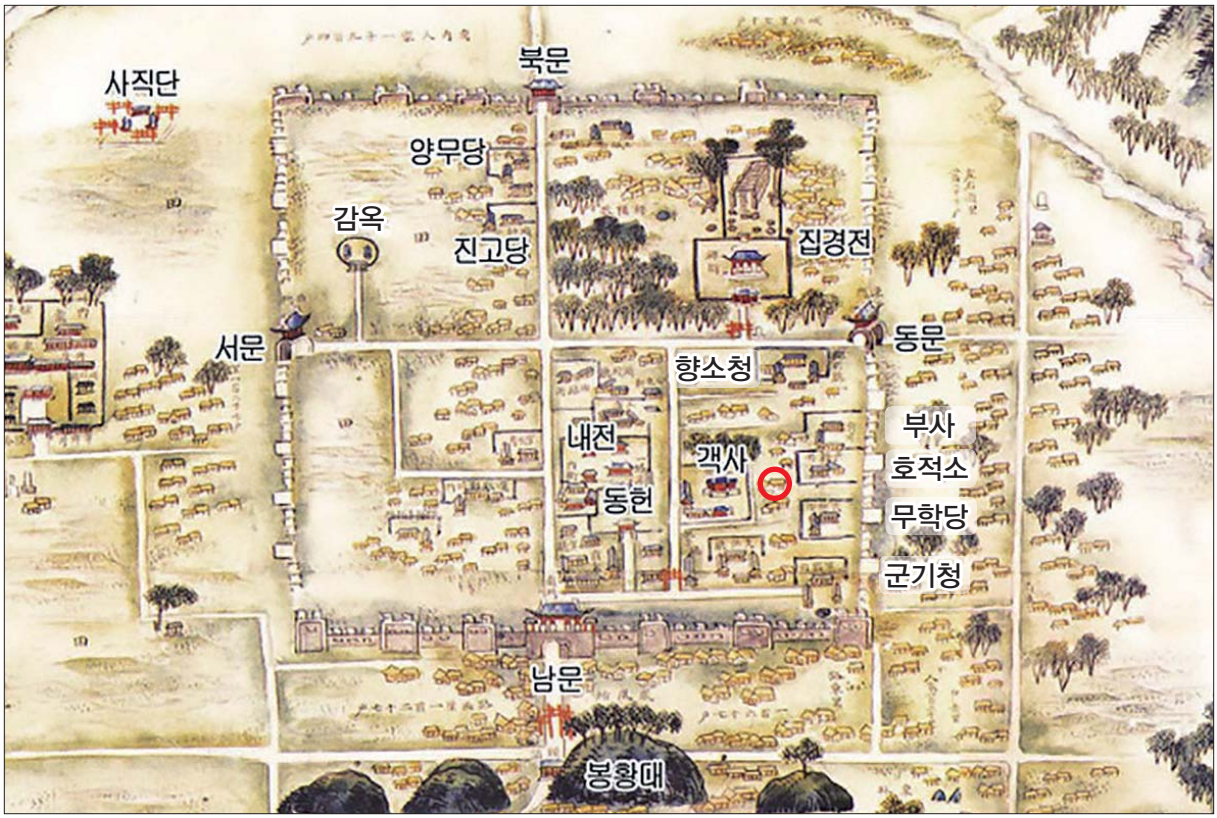
조사지역을 비롯한 주변 문화재 현황은【표 1】과 같다.

【표 1】 주변유적 분포현황(도면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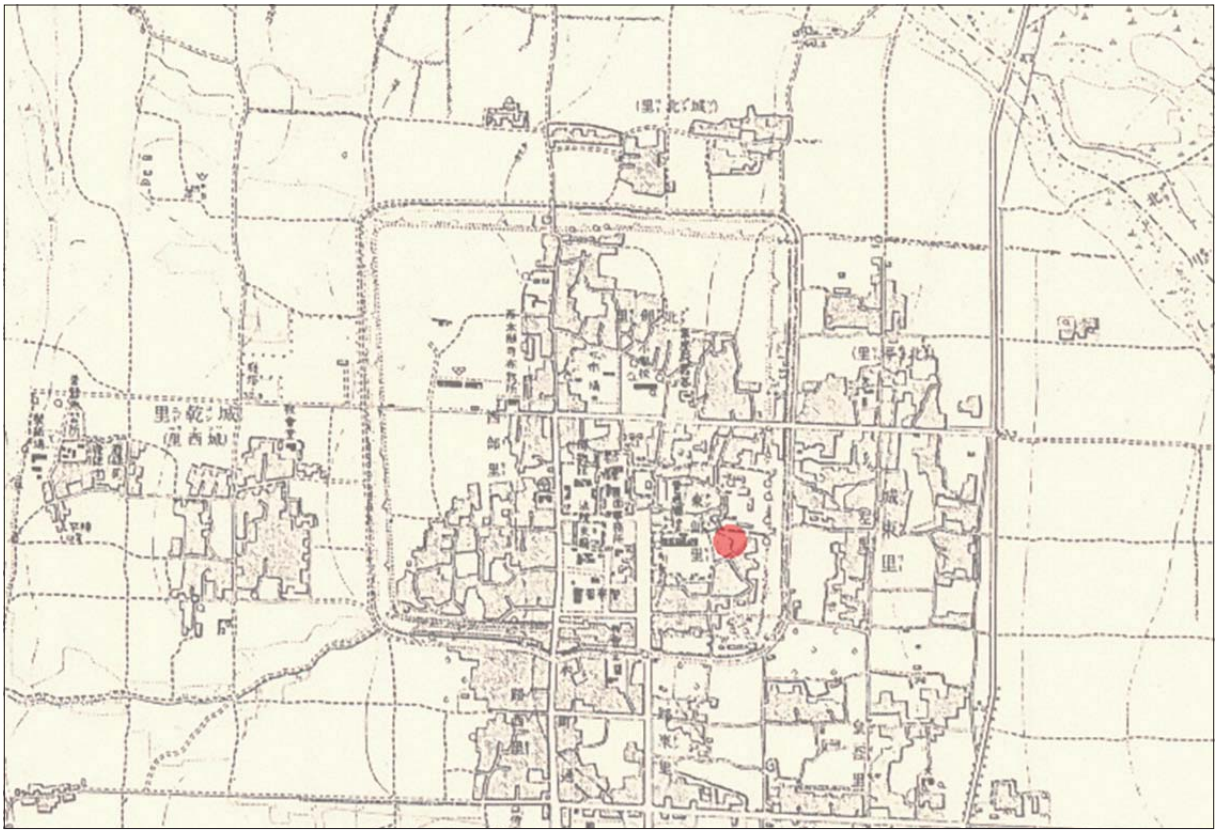
연번	유적명	유적시기	유구현황 및 보고서
1	북문로 왕경 유적 Ⅱ	통일신라~조선	성곽, 도로, 우물, 수혈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7,『경주 북문로 왕경유적 Ⅱ -서부동 북문로 도로개설구간(봉황로~서성로)내 시·발굴조사 보고서-』
2	북문로 왕경 유적 Ⅲ	통일신라~조선	성곽, 도로, 수혈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7,『경주 북문로 왕경유적 Ⅲ -북부동 북문로 공사구간(황성로~봉황로) 내 발굴조사 보고서-』
3	북문로 왕경 유적 Ⅰ	통일신라	도로, 담장, 수혈, 배수로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7,『경주 북문로 왕경유적 Ⅰ』
4	서부동 19번지 유적	통일신라·조선	옥지, 도로, 건물지, 우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3,『경주 서부동 19번지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5	주전지	조선	추정 주전지
			경주고적발굴조사단, 1985,『추정주전지시굴조사』
6	경주읍성	통일신라·조선	성곽, 도로, 사적 제96호
			한국문화재재단, 2017,『경주읍성 Ⅰ -경주읍성 복원정비사업부지(3·4구간) 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7	성동동 143-7·10 유적	통일신라	도로, 적심, 수혈
			신라문화유산조사단, 2007,『왕경유적 Ⅳ』

연번	유적명	유적시기	유구현황 및 보고서
8	성동동 273-1 · 298 유적	통일신라	건물지, 우물, 수혈
			신라문화유산조사단, 2007,『왕경유적 Ⅰ』
9	서부동 147-2번지 유적	통일신라 · 조선	건물지, 수혈, 석렬, 우물
			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12,『경주 서부동 147-2번지 유적 계명대학교 경주동산병원 증축부지 발굴조사 보고서』
10	동헌	조선	관아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7,『문화유적총람-경북편』
11	동부동 159-1번지 유적	고려~조선	행랑지, 우물, 담장, 배수로, 보도, 연못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9,『경주시 동부동 159-1번지 건물지 발굴조사 보고서』
12	동부동 203 유적	통일신라 · 조선	적심, 수혈, 석렬, 석조
			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12,「경주 동부동 203 유적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증축부지 발굴조사 보고서」,『경주 노동동 136 유적 경주 동부동 203. 유적』
13	동경관	조선	객사, 관아,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3호
			조선총독부, 1931,『조선고적도보 11』
14	성동동 386-6 유적	통일신라 · 조선	우물, 수혈
			영남문화재연구원, 1999,『경주 성동동 386-6번지 생활유적』
15	봉황로 지중화 공사부지 유적	통일신라 · 조선	홍살문지, 도로, 배수로, 수혈
			신라문화유산조사단, 2010,「경주 봉황로주변 지중화공사 예정부지내 유적」,『왕경유적Ⅹ Ⅵ』
16	노동동 136-3 유적	통일신라 · 조선	우물, 배수로, 적심, 석렬, 수혈
			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12,「경주 노동동 136-3 유적 근생시설 건립부지 발굴조사 보고서」,『경주 노동동 136 유적, 경주 동부동 203 유적』
17	황오동 소방도로 개설구간 유적	통일신라	건물지, 우물, 수혈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 2004,『왕경유적(Ⅱ) -황오동 소방도로 개설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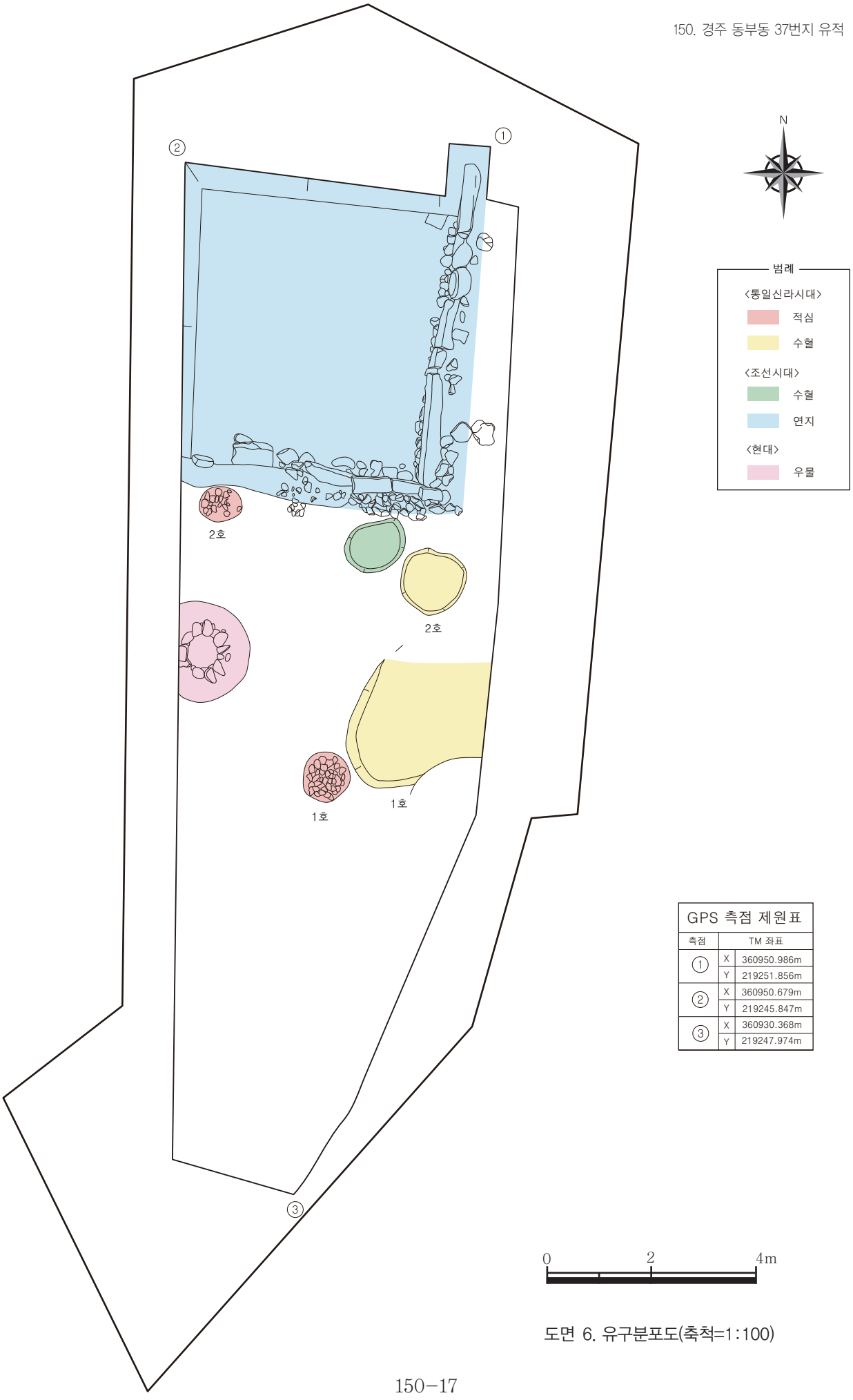
연번	유적명	유적시기	유구현황 및 보고서
18	황오동 118-6 번지 유적	통일신라 ~조선	건물지, 우물, 수혈
			영남문화재연구원, 2003,『경주 황오동 118-6번지 유적』
19	경주 대릉원 일원	삼국	고분군, 사적 제512호
			浜田耕作 · 梅原末治, 1924,「慶州金冠塚と其遺寶」,『古蹟調査特別報告』 第3册, 朝鮮總督府. 국립경주박물관, 2016,『경주 금관총 (유물편)』.



도면 4. 경주읍내전도(1798년 제작, ○: 조사지역)



도면 5. 1916년도 지형도(축척=1/10.000 확대, 조선총독부 제작)



GPS 측점 제원표

측점		TM 좌표
①	X	360950.986m
	Y	219251.856m
②	X	360950.679m
	Y	219245.847m
③	X	360930.368m
	Y	219247.974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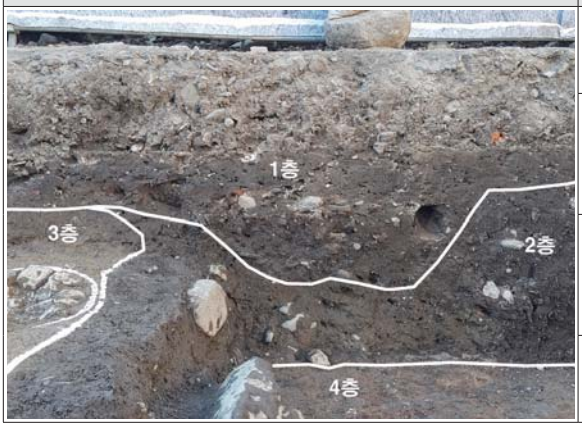
도면 6. 유구분포도(축척=1:100)

Ⅲ. 조사내용

조사지역은 조사 전 주택이 철거된 공지상태로 있었고, 주변 일대는 단독주택이 밀집된 형태로 분포하고 있었다. 평면형태가 세장방형에 가까운 조사지역은 조사범위가 협소하여 전면제토를 실시하였다. 제토작업은 입회조사에서 확인된 층위를 참고하여 문화층까지 실시하고, 유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반층까지 제토하였다.

유적에서 확인된 층위는 크게 4개 층으로 구분된다. 1층은 흑갈색 사질점토로, 현대에 이루어진 교란 또는 복토층이다. 2층은 암갈색 사질점토이며, 다량의 조선시대 기와편과 백자편 등이 포함된 문화층이다. 3층은 황갈색 점토이고, 미량의 통일신라시대 중판타날문 기와편과 인화문 토기편이 포함된 문화층이다. 4층은 모래자갈(선상지)의 기반층이다.

【표 2】 조사지역 기준 토층

토 층	내 용	
	1층 : 흑갈색 사질점토 – 쓰레기 혼입	현대 교란 · 복토층
	2층 : 암갈색 사질점토 – 조선시대 백자, 기와편 혼입	조선시대 문화층
	3층 : 황갈색 점토 – 통일신라시대 기와편, 토기편 혼입	통일신라시대 문화층
	4층 : 모래자갈	기반층

확인된 유구는 총 6기이고, 통일신라시대 문화층과 조선시대 문화층에서 각각 확인되었다. 통일신라시대 문화층에서 확인된 유구는 적심 2기와 수혈 2기로 총 4기이고, 수혈에서 보상화문수막새와 병 등이 출토되었다. 조선시대 문화층에서는 연지 1기, 수혈 1기가 확인되었으며, 연지 내부에서 다량의 평기와와 백자편 등이 출토되었다. 이외에 서쪽 가장자리에서 확인된 우물은 현대에 조성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번 보고에는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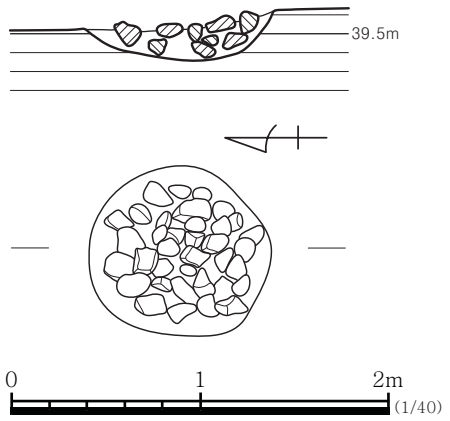
1. 통일신라시대

1) 적심

(1) 1호 적심

가. 유구(도면 7, 도판 3)

조사지역 남쪽 중앙에서 확인되었고, 북동쪽에 1호 수혈과 북서쪽에 현대 우물이 위치한다. 유구는 통일신라시대 문화층인 황갈색사질점토층을 제거하자 노출되었다. 적심은 석재 2단 정도가 잔존하고, 적심석은 15~20㎝ 크기의 천석이다. 적심석 사이에는 황갈색 점토를 채워 축조하였다. 적심의 크기는 직경 89㎝, 깊이 27㎝이다. 주변으로 관련 적심이 확인되지 않아 건물의 규모는 알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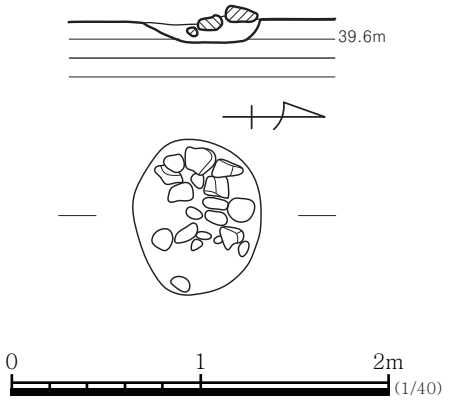


도면 7. 통일신라시대 1호 적심 평면 및 단면도

(2) 2호 적심

가. 유구(도면 8, 도판 3)

조사지역 서장벽 부근에서 확인되었으며, 북쪽에 조선시대 연지와는 근접하고 남쪽에는 현대 우물이 위치한다. 유구는 현대 교란으로 인해 대부분이 삭평된 상태로, 통일신라시대 문화층에서 확인되었다. 적심은 8~19㎝ 크기의 천석과 황갈색 점토를 채워 축조하였고, 석재 1단 정도가 남아 있다. 적심의 크기는 직경 80㎝, 깊이 20㎝이다. 주변으로 또 다른 적심은 확인되지 않았는데, 후축된 유구로 인해 멸실된 것으로 보이며, 건물의 규모는 알 수 없다.



도면 8. 통일신라시대 2호 적심 평면 및 단면도

2) 수혈

(1) 1호 수혈

가. 유구(도면 9, 도판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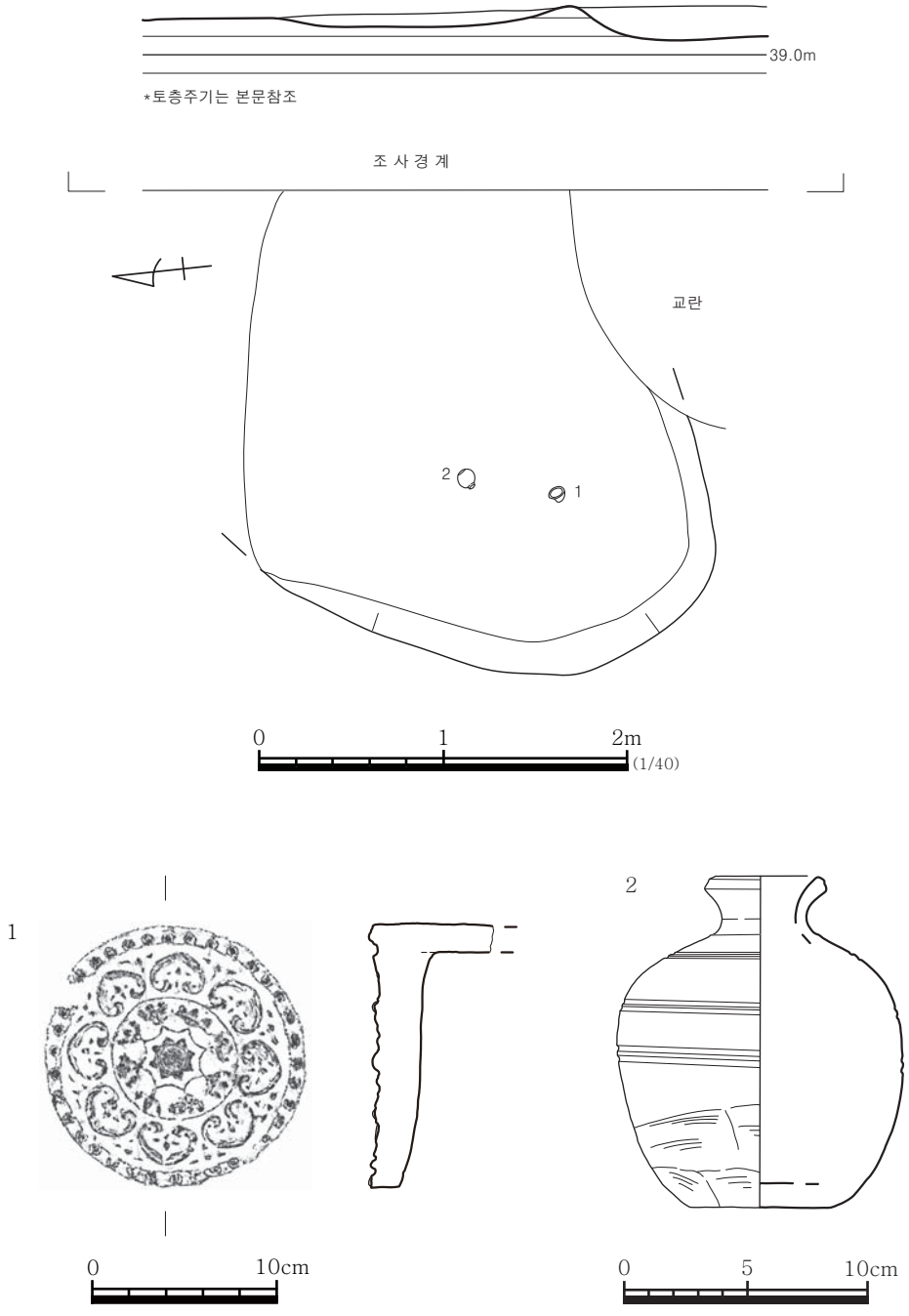
조사구역 동쪽 경계에서 확인되었다. 유구의 북쪽과 남쪽, 상부가 현대 교란으로 인해 대부분이 파괴된 상태이다. 유구는 황갈색 점토층을 굴착하여 조성하였고, 확인된 규모는 길이 312㎝, 너비 224㎝, 깊이 14㎝으로, 평면형태는 부정형으로 확인되나, 교란범위를 가늠해 보면 원형인 것으로 추정된다. 내부에는 흑색 점질토가 확인되었으며, 수막새와 병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또 길이 22.3㎝인 상어뼈가 함께 출토되었는데, 모두 13개이고 한 개의 크기가 직경 3.0~3.4㎝, 두께 1.7㎝ 정도이다.(도판 5 참조)

나. 유물

1. 수막새(도면 9, 도판 5)

드림새와 수키와부 일부가 남아 있다. 태토는 백색 세사립이 다량 함유된 점토이다. 표면과 속심은 청회색을 띠고, 문양은 보상화문이다. 배면에는 물손질을 하였고, 측면에는 도구로 회전물손질을 하였다. 수키와부 철면에는 종방향 물손질을 하였고 접합 후에는 횡방향 물손질을 하였다. 요면에 포목흔과 합철흔이 있다.

드림부 : 직경 14.1㎝, 두께 1.5~2.2㎝, 주연부너비 0.7~1.0㎝, 주연부높이 0.5㎝



도면 9. 통일신라시대 1호 수혈 평면 · 토층도 및 출토유물(1, 2)

2. 병(도면 9, 도판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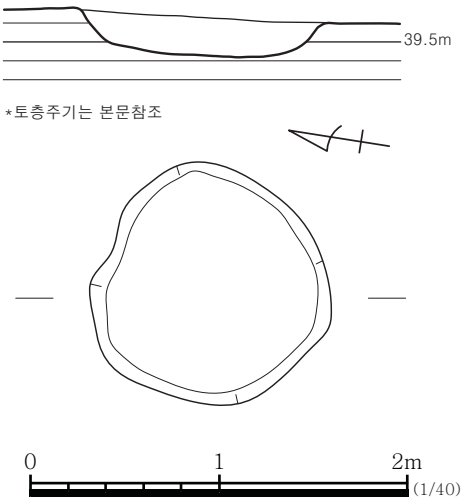
완형이다. 태토는 백색 세사립과 석립이 다량 함유된 점토이다. 경질소성으로, 표면은 암청회색을 띤다. 외면에는 회전물손질을 하였으나, 동체 저위와 저부는 도구를 사용하여 긁어 정면하였다.

기고 13.5㎝, 구경 4.1㎝, 저경 5.3㎝

(2) 2호 수혈

가. 유구(도면 10, 도판 5)

조사구역 북쪽에서 확인되었으며, 북서쪽에는 조선시대 연지와 수혈이 근접한다. 유구는 현대 교란토를 제거하자 확인되었고, 평면형태가 원형에 가까우며, 크기는 직경 128㎝, 깊이 31㎝ 정도이다. 내부에는 소량의 잡석을 포함한 회갈색 점질토가 확인되었고, 미량의 인화문토기편도 출토되었으나 수습하지 않았다.



도면 10. 통일신라시대 2호 수혈 평면 및 토층도

2. 조선시대

1) 연지

가. 유구(도면 11, 도판 6~8)

조사구역 북쪽 가장자리에서 확인되었다. 유구는 현대 복토층을 제거하자 평면형태가 'ㄴ'형의 호안석축이 확인되었다. 호안석축의 북쪽과 서쪽은 제한된 조사범위로 인해 확인할 수 없었으나 석축이 연장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연지의 평면형태는 방형 또는 장방형일 것으로 판단된다.

호안석축은 2~3단이 잔존하며 일부가 멸실되었다. 축조에 이용된 석재는 장대석, 초석, 천석 등이

고, 그 중 초석은 막초석과 원형주좌초석이 있으며, 모두 재사용하였다. 동안석축과 남안석축은 이용된 석재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동안석축은 기반층 위에 길이 15~30㎝ 크기의 천석을 놓고 그 위에 비교적 큰 석재를 쌓았는데, 2단에 있는 초석의 경우 하단에 천석 1단을 놓고 그 위에 상면을 안쪽으로 맞추어 세워 쌓은 반면, 너비가 좁은 장대석은 천석을 2단으로 쌓은 후 올렸다. 남안석축은 최대 3단이 확인되었는데, 최하단에 두께가 얇고 편평한 천석을 놓고 2단부터는 장대석과 초석으로 들여쌓기를 하였다. 최하단석 표면에는 황갈색 점토(3층)가 1㎝ 내외로 발려 있는데, 이는 연지의 물이 밑으로 새는 것을 막기 위해 시설한 차수벽으로 추정된다. 벽석과 굴광 사이에는 천석과 암갈색 점토(4층)를 채웠다.

내부에는 크게 2개 층이 확인되었다. 상층인 1(-1~4)층은 다량의 고려~조선시대 기와편과 백자편이 포함된 층이다. 하층인 2층은 남안석축의 벽석과 바닥에서 모래(-1)가 얇게 있고, 중앙 일대 바닥에는 흑색 니질토(-2)가 얇게 확인된다. 일부 석축 가장자리에는 벽석쪽에 갈색 사질점토(-3)가 퇴적되어 있다. 이를 정리하면, 바닥에 퇴적된 모래와 니질토, 갈색 사질점토를 이룬 2층은 연지 내부 퇴적층이고, 1층은 연지폐기 시 매립한 층이다. 유물은 대부분이 매립층에서 출토되었다.

나. 유물

3. 암막새(도면 12, 도판 9)

드림부 일부가 남아 있으며, 주연부가 없는 유악식 암막새이다. 태토는 백색 석립이 다량 함유된 점토이고, 등색을 띤다. 문양은 당초문이고, 배면과 턱면은 횡방향 물손질을 하였다. 접합기법은 '一'자형이고, 암키와 접합부에는 암키와 철면의 타날문이 찍혀 있다.

드림부 : 잔존길이 13.2㎝, 잔존너비 8.6㎝, 두께 2.0㎝

4. 암막새(도면 12, 도판 9)

드림부 일부가 남은 유악식 암막새이다. 태토는 백색 석립이 다량 함유된 점토이다. 표면은 흑색을, 속심은 회색을 띤다. 문양은 초화문이고, 주연부에는 연주가 없다. 배면에는 포목흔이 있고, 턱면에는 물손질을 하였다.

드림부 : 잔존길이 12.9㎝, 잔존너비 14.0㎝, 두께 2.3㎝, 주연부너비 1~1.5㎝, 주연부두께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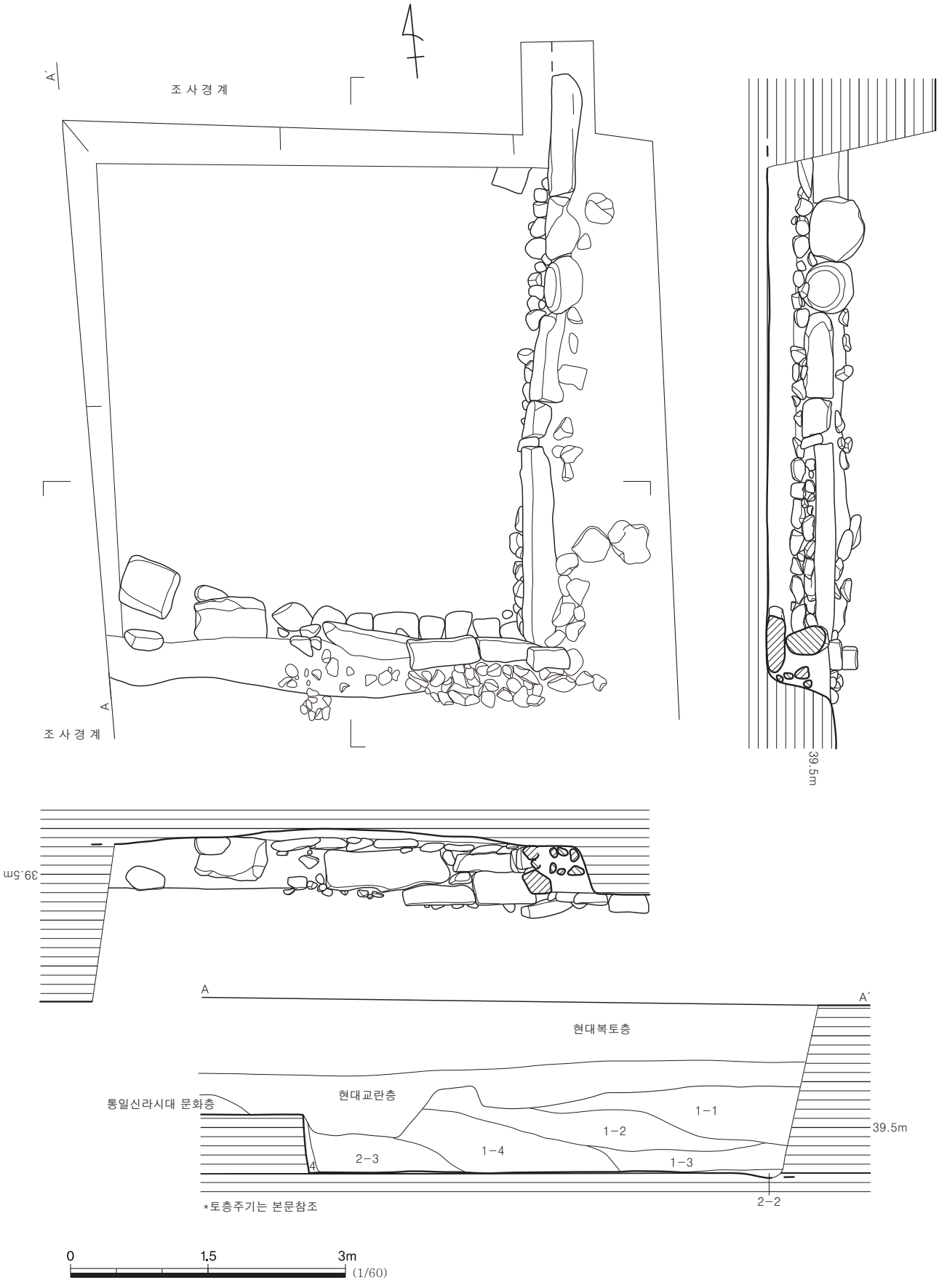
5. 수키와(도면 12, 도판 9)

토수기와로, 상단부 일부만 남아 있다. 태토는 백색 석립이 다량 함유된 점토로 회색을 띤다. 철면에는 장판 복합문 타날하였고, 복합문은 격자문과 차륜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요면에는 포목흔이 있다. 측면은 안→밖으로 그은 와도흔이 내측에 있다.

잔존길이 13.1㎝, 잔존너비 10.2㎝, 두께 2.7㎝

6. 수키와(도면 12, 도판 9)

미구기와로, 하단부인 1/2 이상이 결실되었다. 태토는 백색 석립이 다량 함유된 점토이다. 표면과



도면 11. 조선시대 연지 평면 · 입단면 및 토층도

속심은 흑색을 띠나, 철면에는 중첩소성으로 일부가 회색을 띠고 자연유가 있다. 철면에는 장판 타날하였으나 횡방향 물손질로 인해 대부분의 타날문이 지워져 있다. 요면에는 포목흔과 합철흔, 사절흔이 있다. 양쪽 측면에는 안→밖으로 그은 와도흔이 내측에 있으며, 미구부쪽에는 다시 한번 더 깊이 그어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24.0㎝, 너비 16.7~17.2㎝, 두께 2.3㎝

7. 수키와(도면 13, 도판 9)

상단부와 하단부 일부가 결실되었다. 태토는 백색 석립이 다량 함유된 점토이고, 전체가 흑색을 띤다. 철면에는 장판 타날한 후 횡방향 물손질로 인해 타날문이 지워져 있으나 타날문이 남아 있고, 미구부 중앙에는 선각된 원문이 있다. 요면에는 포목흔과 점토접합흔이 있고, 하단부는 내면조정이 되어 있다. 양 측면에는 안→밖으로 그은 와도흔이 있다.

잔존길이 36.4㎝, 너비 16.8㎝, 두께 1.1~2.6㎝

8. 암키와(도면 13, 도판 10)

일부가 남아 있다. 태토는 백색 석립이 다량 함유된 점토이다. 표면은 회색이고, 속심은 회색과 등색을 띤다. 철면에는 장판 복합문 타날하였으며, 복합문은 선문과 차륜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요면에는 포목흔과 연철흔이 있다.

잔존길이 17.9㎝, 잔존너비 14.7㎝, 두께 2.9~3.1㎝

9. 암키와(도면 13, 도판 10)

상단부 측면 일부가 남아 있다. 태토는 백색 세사립이 소량 함유된 점토이다. 표면과 속심은 암청회색을 띤다. 철면에는 장판 사격자문을 타날하였고 상단부에는 횡방향 물손질을 하였다. 요면에는 포목흔과 연철흔이 있고 점토접합부에는 지두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종방향으로 정면하였다. 측면에는 안→밖으로 그은 와도흔이 있다.

잔존길이 20.1㎝, 잔존너비 16.4㎝, 두께 2.5㎝

10. 암키와(도면 13, 도판 10)

상단부가 결실되었으나 1/2 이상이 잔존한다. 태토는 백색 석립이 다량 함유된 점토이다. 표면은 암청회색을, 속심은 회색을 띤다. 철면에는 장판 청해파문을 타날하였고 하단부는 횡방향 물손질을 하였다. 요면에는 포목흔과 연철흔, 사절흔, 점토접합흔이 있고, 하단부에는 내면조정을 하였다. 양쪽 측면에는 안→밖으로 그은 와도흔이 있다.

잔존길이 36.0㎝, 너비 30.8㎝, 두께 1.2~3.0㎝

11. 전(도면 14, 도판 10)

1/2 정도가 잔존한다. 태토는 백색 석립이 다량 함유된 점토이고, 표면과 속심은 회색을 띤다. 표면

전체가 물손질을 하였고, 한쪽 면 중앙에는 도구를 사용하여 긁어 낸 홈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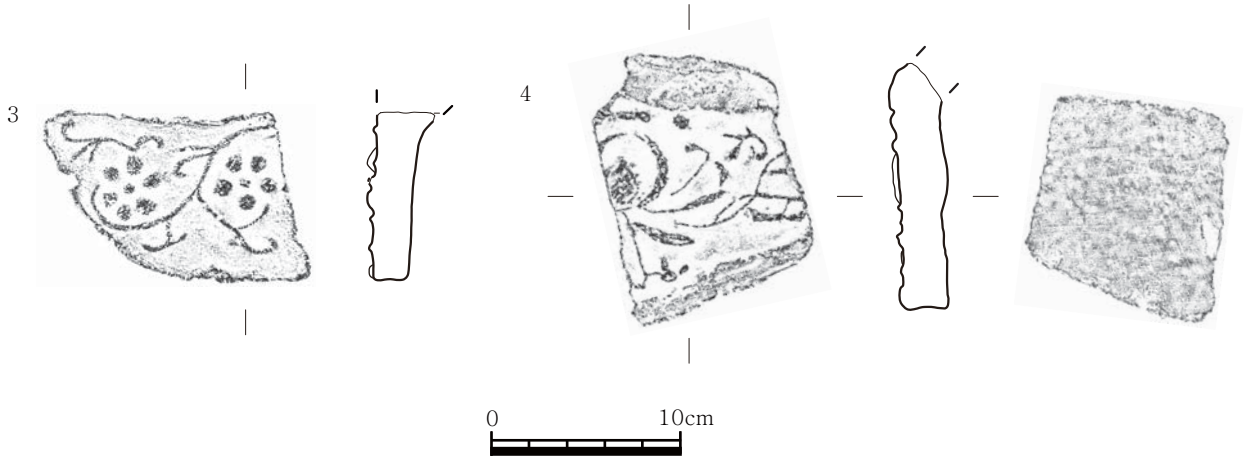
잔존길이 16.9㎝, 너비 13.7㎝, 두께 4.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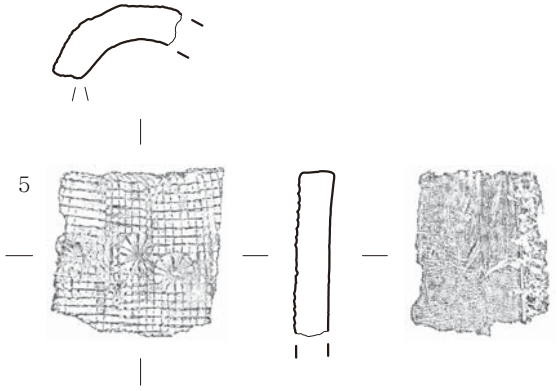
12~27. 백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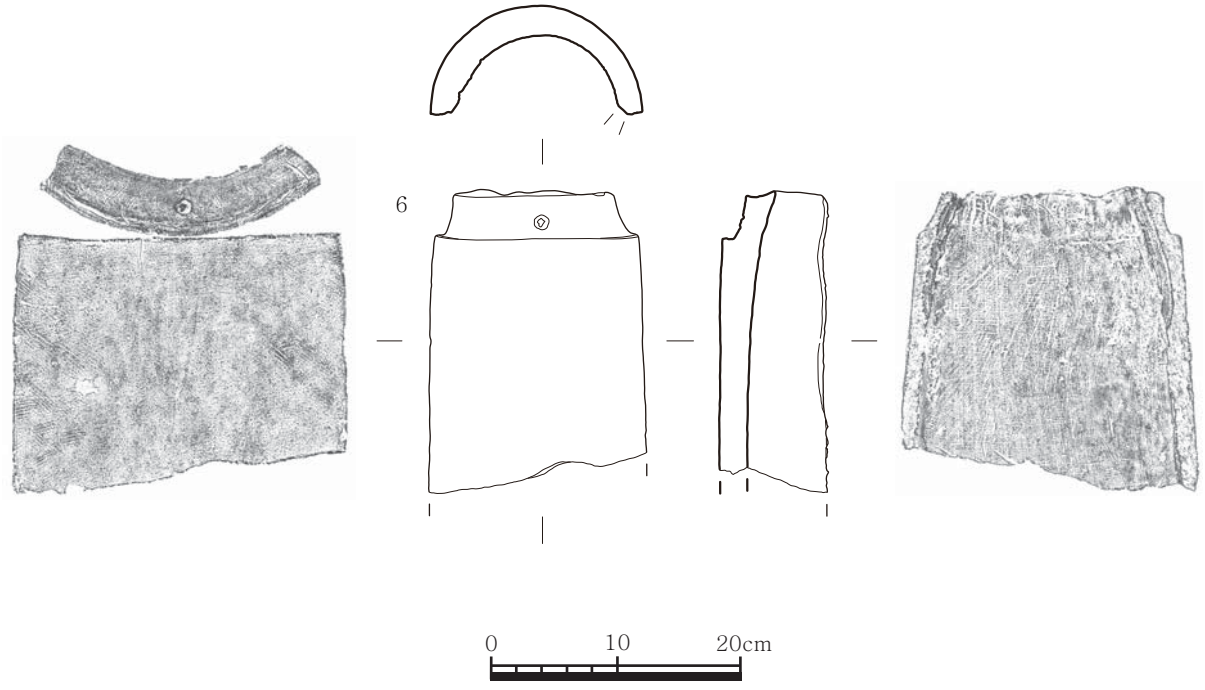
백자는 총 16점이다. 뚜껑 1점, 종지 3점, 접시 8점, 기형을 알 수 없는 유물은 4점이다. 명문이 확인된 백자는 3점이고, 명문은 모두 굽 안쪽에 있다. 그중 2점은 선각되었고 나머지 1점은 묵서로 되어 있다.

번호	유물명	도면/도판	크기[(잔존 · 복원),㎝]			특 징
			기고	구경	저경	
12	백자뚜껑	14 / 10	2.9	(17.2)		· 1/6 정도 잔존 · 태토 백색, 유약 투명 · 외면 시유 · 내면 포개구이 유약 용착흔
13	백자저부	14 / 11	(8.0)		(12.0)	· 굽 1/2 · 신부 일부 잔존 · 태토 백색, 유약 불투명 푸른 빛 · 전면 시유 · 굽 접지면 유약 마모, 내면 회전성형흔 · 태토받침 굽 안쪽
14	명문백자 접시	14 / 11	4.1	(5.1)	5.3	· 굽 · 신부 1/4 정도 잔존, 태토 백색, 유약 박리 · 내저면 원각 · 굽 안쪽 '爪' 명문 묵서.
15	명문백자 저부	14 / 11	(3.1)		(7.4)	· 굽 1/2 · 신부 일부 잔존 · 태토 백색, 유약 투명 옅은 푸른 빛 · 전면 시유 · 내저면 원각 · 태토받침 내면 2곳 · 굽 2곳 잔존 · 굽 안쪽 원 구획 후 내부 '目(?) 人' 명문 선각
16	명문백자 저부	14 / 11	(4.6)		7.6	· 굽 3/4 · 신부 일부 잔존 · 태토 백색, 유약 투명 푸른 빛 · 전면 시유, 빙열 · 번조받침 굽결락흔 3곳 잔존 · 굽 안쪽의' 명문 선각
17	백자종지	15 / 12	4.3	(9.2)	4.3	· 굽 · 배신 1/2 이상 잔존 · 태토 백색, 유약 투명 푸른 빛 · 전면 시유, 빙열 · 모래받침 굽 전면
18	백자종지	15 / 12	3.5	(7.8)	3.8	· 굽 · 배신 1/4 정도 잔존 · 태토 백색, 유약 투명 푸른 빛 · 전면 시유, 빙열
19	백자종지	15 / 12	3.6	(7.5)	(3.4)	· 굽 1/3 · 배신 1/5 정도 잔존 · 태토 백색, 유약 투명 푸른 빛 · 내저면 원각 · 모래받침 굽 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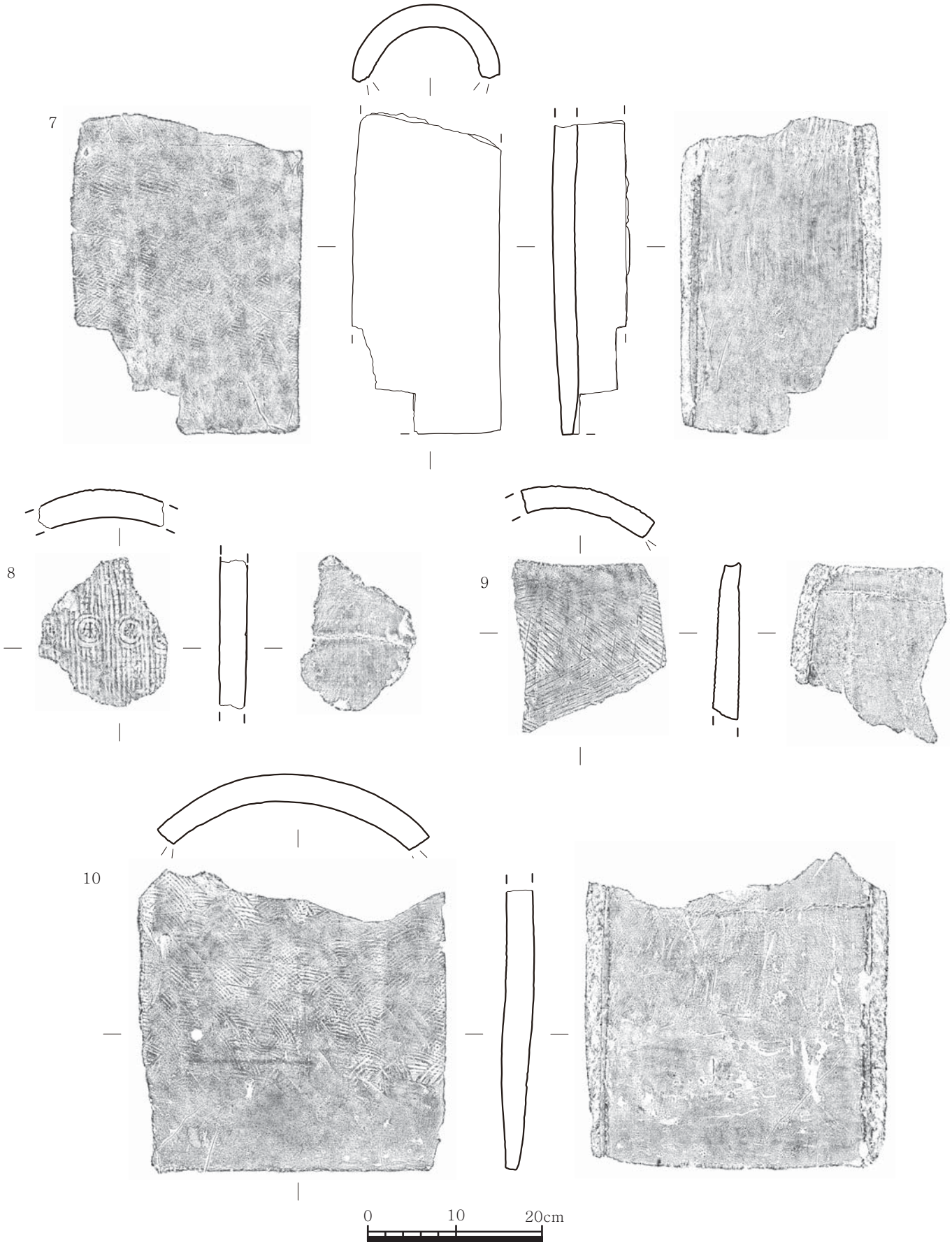
번호	유물명	도면/도판	크기[(잔존 · 복원),㎝]			특 징
			기고	구경	저경	
20	백자접시	15 / 12	4.5	12.1	6.6	· 굽 일부, 배신 일부 결실 · 태토 백색, 유약 투명 옅은 백색 빛 · 전면 시유, 빙열 · 내면 포개구이 자기 용착흔 · 태토받침 내면 10곳 · 굽 전면
21	백자접시	15 / 12	4.4	16.6	6.0	· 배신 1/2 이상 결실 · 태토 회색, 유약 불투명 흰색 · 전면 시유 · 내저면 원각 · 모래받침 내면 굽 전면
22	백자접시	15 / 13	3.2	9.4	4.3	· 배신 1/3 정도 결실 · 태토 백색, 유약 투명 녹황색 빛 · 전면 시유
23	백자접시	15 / 13	2.9	(16.4)	5.4	· 굽 1/2 · 배신 1/4 정도 잔존 · 태토 백색, 유약 투명 푸른 빛 · 전면 시유, 빙열 · 내저면 원각 · 태토받침 굽 2곳 잔존
24	백자접시	15 / 13	3.0	(13.0)	5.1	· 1/2 이상 결실 · 태토 백색, 유약 불투명 녹황색 빛 · 전면 시유 · 내저면 원각 · 태토받침 내면 4곳 · 굽 4곳 잔존
25	백자접시	15 / 13	2.4	(11.5)	4.7	· 1/2 이상 결실 · 태토 회색, 유약 투명 푸른 빛 · 전면 시유 · 내저면 원각 · 태토받침 내면 4곳 · 굽 2곳 잔존.
26	백자접시	15 / 13	4.0	(13.5)	5.9	· 제기(祭器), 굽 1/2 · 신부 1/4 정도 잔존 · 태토 백색, 유약 투명 녹황색 빛 · 전면 시유 내면만 잔존, 균열 · 태토받침 굽 전면
27	청화백자 저부	15 / 13	(2.8)		(5.0)	· 굽 1/3 · 배신 일부 잔존 · 태토 백색, 유약 투명 푸른 빛 · 전면 시유, 일부 빙열 · 내면 문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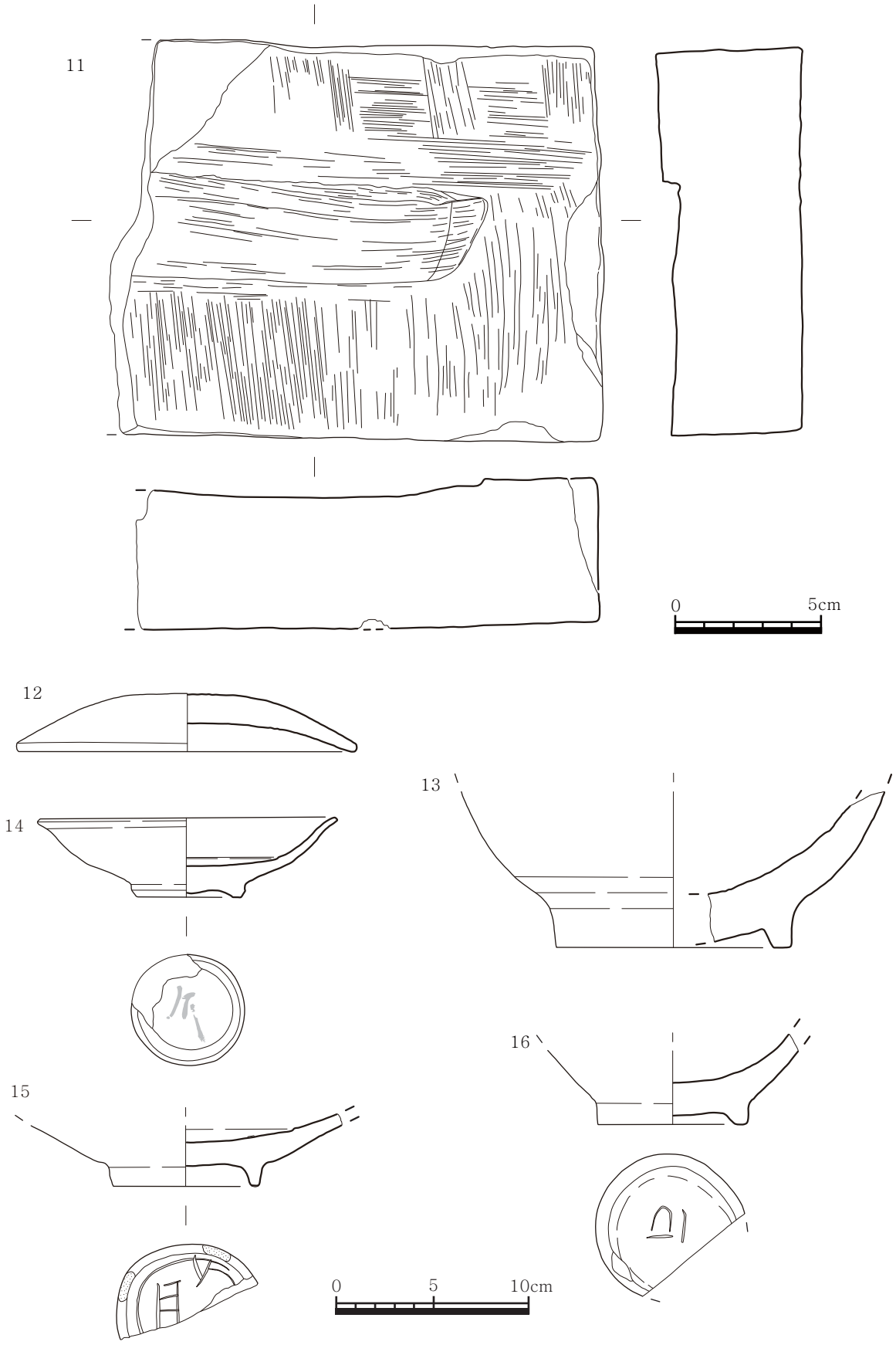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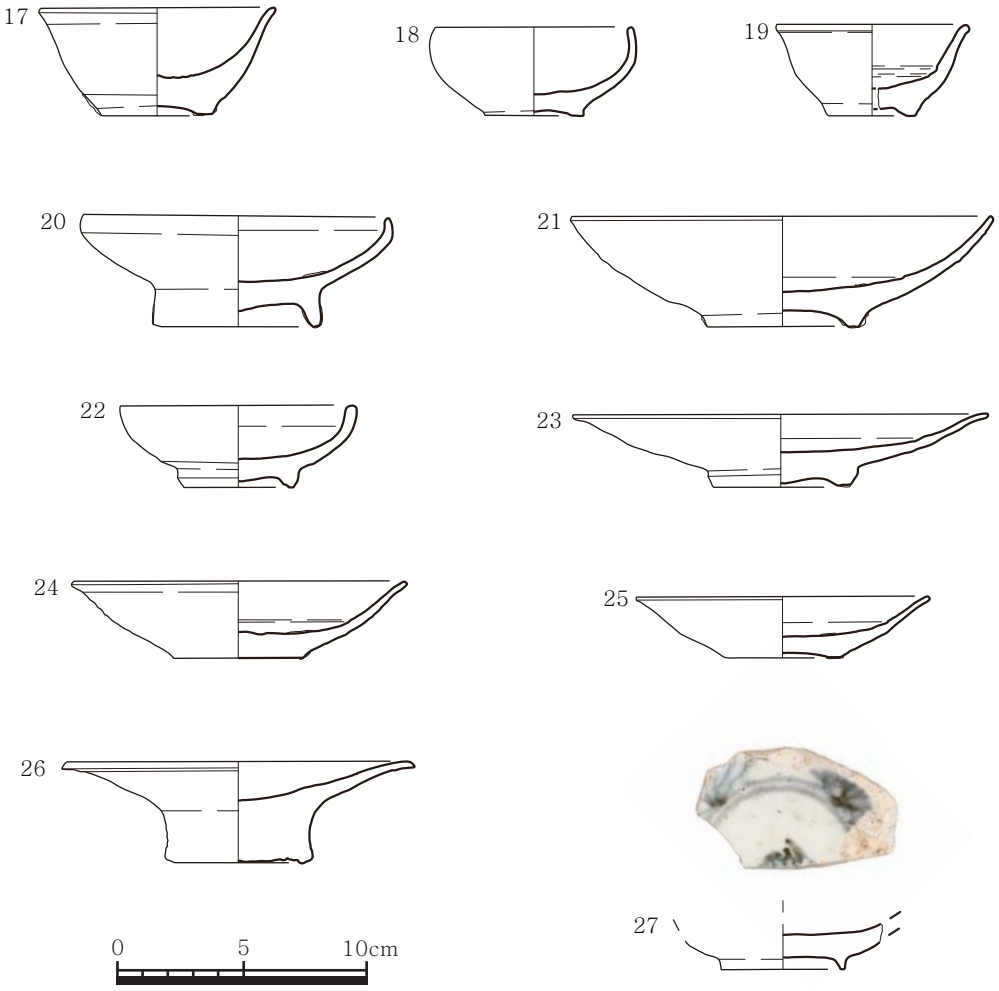
도면 12. 조선시대 연지 출토유물(3~6)



도면 13. 조선시대 연지 출토유물(7~10)



도면 14. 조선시대 연지 출토유물(1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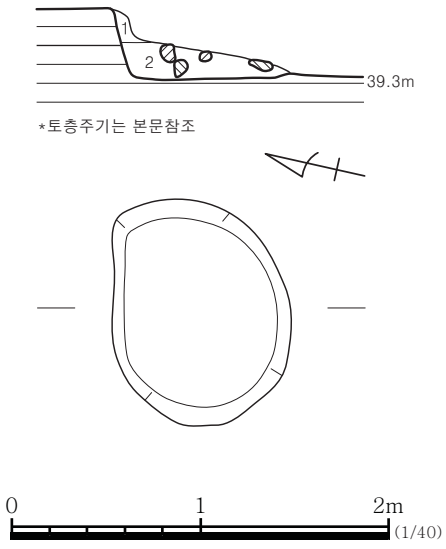


도면 15. 조선시대 연지 출토유물(17~27)

(2) 수혈

가. 유구(도면 16, 도판 14)

조사구역 중앙에서 확인되었고, 북쪽에 조선시대 연지와 남동쪽에 통일신라시대 2호 수혈과는 근접한다. 유구의 평면형태가 타원형에 가까우며, 크기는 길이 120㎝, 너비 96㎝, 깊이 37㎝ 정도이다. 내부토는 2개 층위가 확인되었다. 상층(1층)은 황갈색 점토이며, 소량의 목탄이 확인되었다. 하층(2층)은 회갈색 점질토로 소량의 목탄과 잡석이 포함하고 있다.



도면 16. 조선시대 수혈 평면 및 토층도

Ⅳ. 조사성과

이번조사는 손원조씨의 근린생활시설 신축예정부지인 경상북도 경주시 동부동 37번지에 대한 발굴조사이며 2017년 11월 27일부터 동년 12월 8일까지 실조사일수 10의 일정으로 진행하였다.

발굴조사 결과, 2개의 문화층에서 적심 2기, 수혈 3기, 연지 1개 등 총 6기의 유구가 조사되었고, 유물은 연화문수막새, 병, 평기와, 백자 등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통일신라시대 유구는 적심과 수혈로, 건물의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있을 만큼의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신라왕경의 범위 안이고 주변유적과 관련성을 두고 볼 때, 신라왕경과 관련된 건축 · 생활유적임을 알 수 있었다.

조선시대 유구로는 연지와 수혈이 각각 확인되었다. 그중 연지는 일부가 확인되었고 잘 다듬은 석재를 사용하였으나 석축상태가 조잡하다. 내부에는 바닥에 퇴적된 뻘층이 확인되나, 그 두께가 두껍지 않고 그 위로 다량의 기와편과 백자편을 포함한 암갈색 사질점토가 퇴적되어 있었다. 이러한 토층상태를 볼 때, 연지는 후대에 건물을 세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연지 내부의 뻘을 대부분 제거한 후 흙을 매립한 것으로 판단된다. 출토유물 가운데, 연지는 19세기대의 백자가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보아 19세기 말까지 존속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1669년부터 증보 · 간행된『동경잡기(東京雜記)』와 1798년에 제작된『경주읍내전도』에는 연지에 관한 기사와 회화가 전해지고 있는데, 기록된 연지의 위치로 볼 때 본 유적의 연지와는 관련이 없었다. 따라서 본 유적의 연지는 기록으로 전해지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었고, 존속기간 또한 짧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 연지가 객사로부터 동쪽으로 약 50m 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보면 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유적은 통일신라시대 건축 · 생활유구와 조선시대 경주읍성과 관련된 유구로 추정된다. 특히 연지 발굴은 기록으로 전해지지 않은 19세기 이후 읍성 내부구조의 일면을 밝힐 수 있는 고고학적 자료를 확보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주변 일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 연지의 정확한 규모가 밝혀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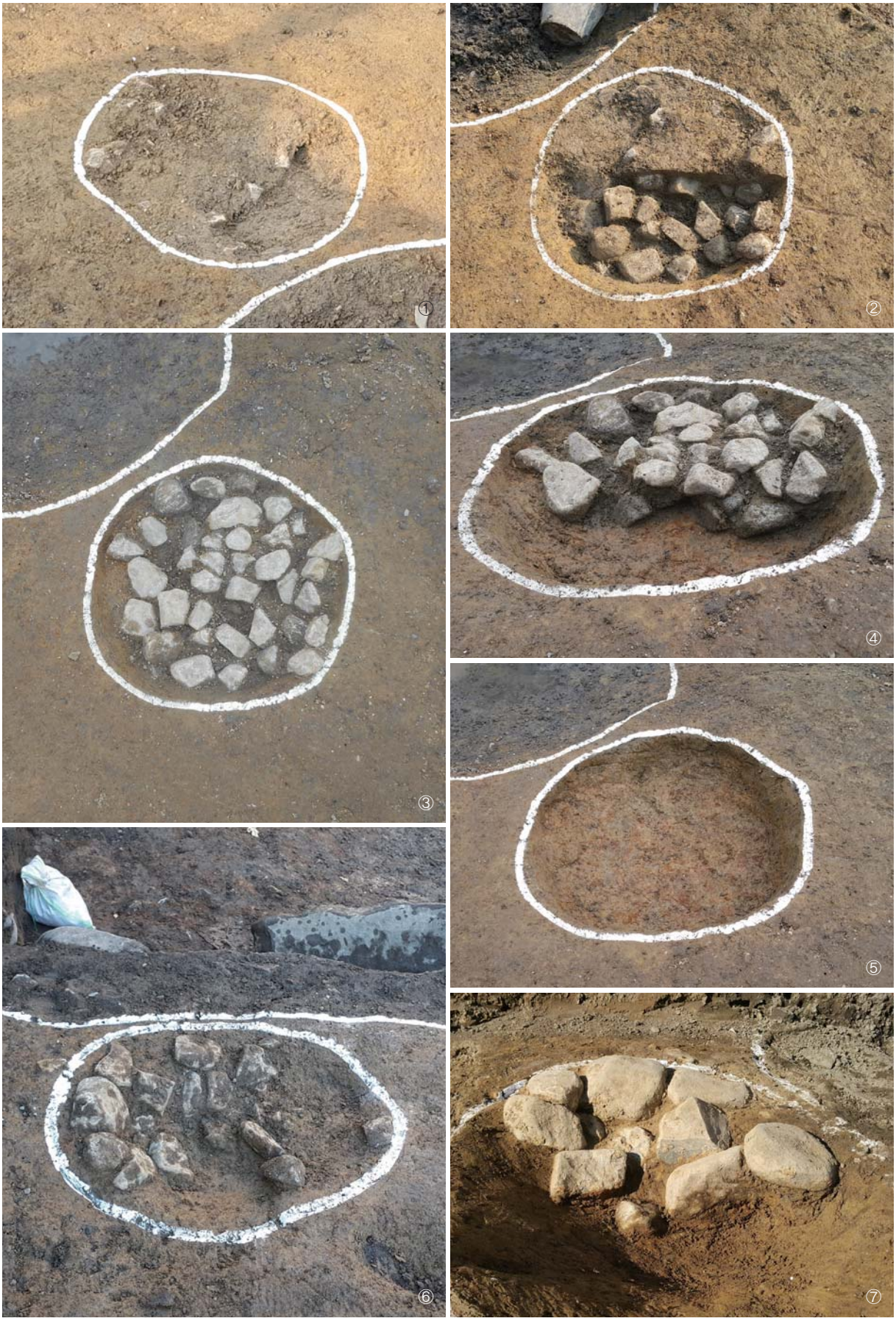
도 판



도판 1. 조사지역 원경(①동→서, ②남→북)



도판 2. 조사지역 전경(①1차 조사, ②2차 조사)



도판 3. 통일신라시대 1호 적심(①~⑤) 및 2호 적심(⑥, ⑦)



도판 4. 통일신라시대 1호 수혈


상어뼈


1


2


①


②


③

도판 5. 통일신라시대 1호 수혈(상어뼈, 출토유물 1, 2), 2호 수혈(①~③)



도판 6. 조선시대 연지(①조사 중, ②토층, ③ · ④석조물 출토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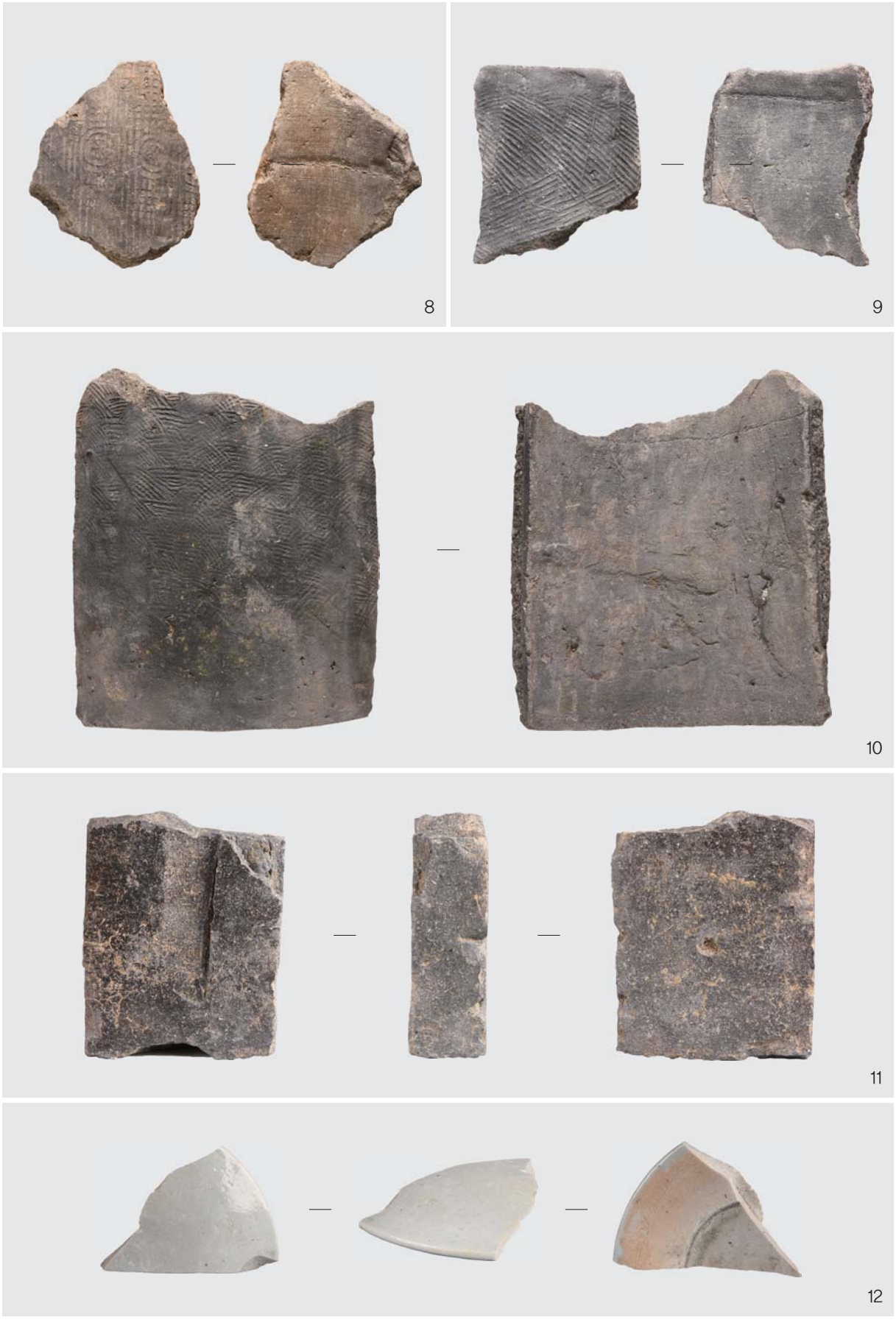
도판 7. 조선시대 연지(①전경, ②내부토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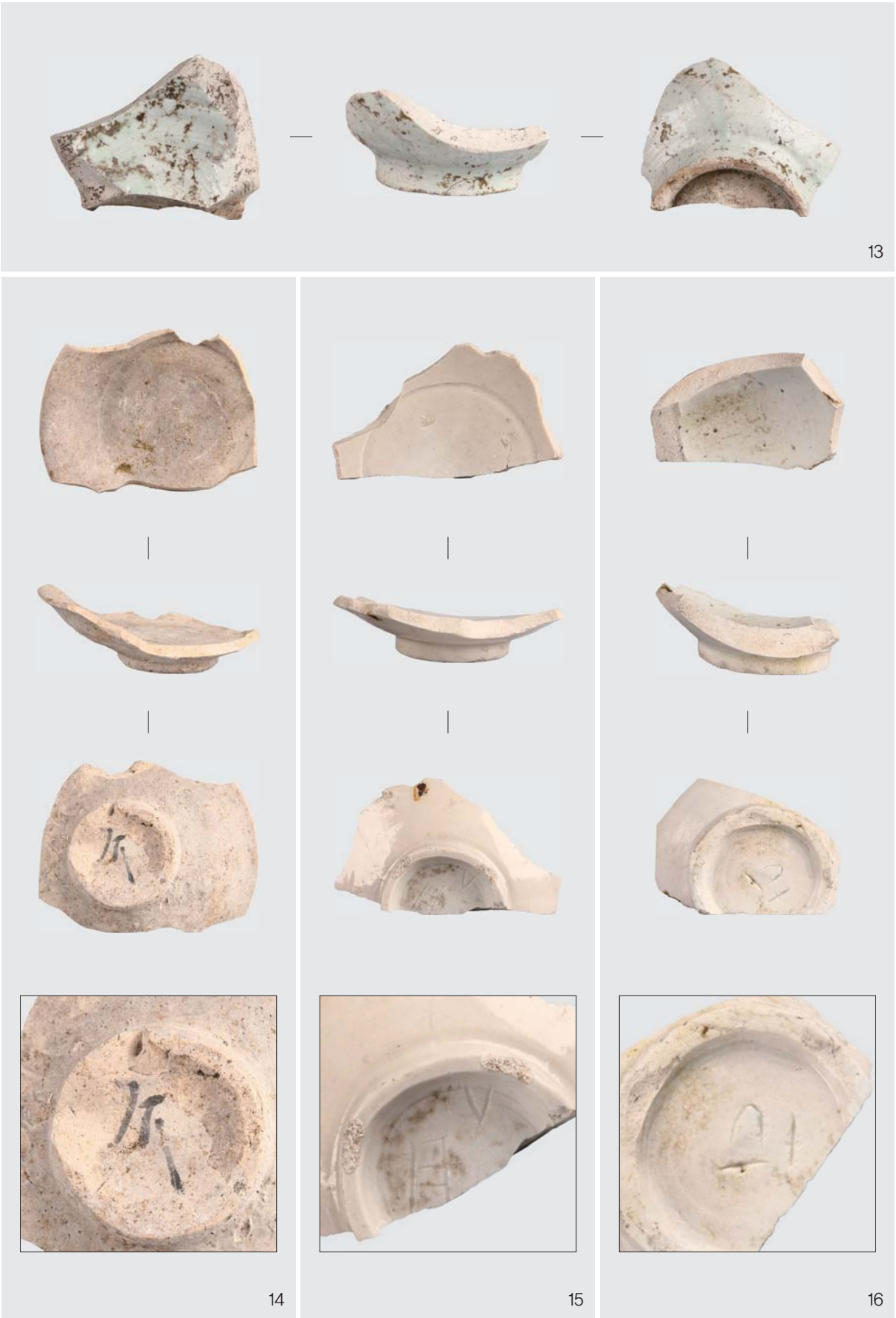
도판 8. 조선시대 연지 호안석축(① · ②동안석축, ③모서리, ④~⑥서안석축)



도판 9. 조선시대 연지 출토유물(3~7)



도판 10. 조선시대 연지 출토유물(8~12)



도판 11. 조선시대 연지 출토유물(13~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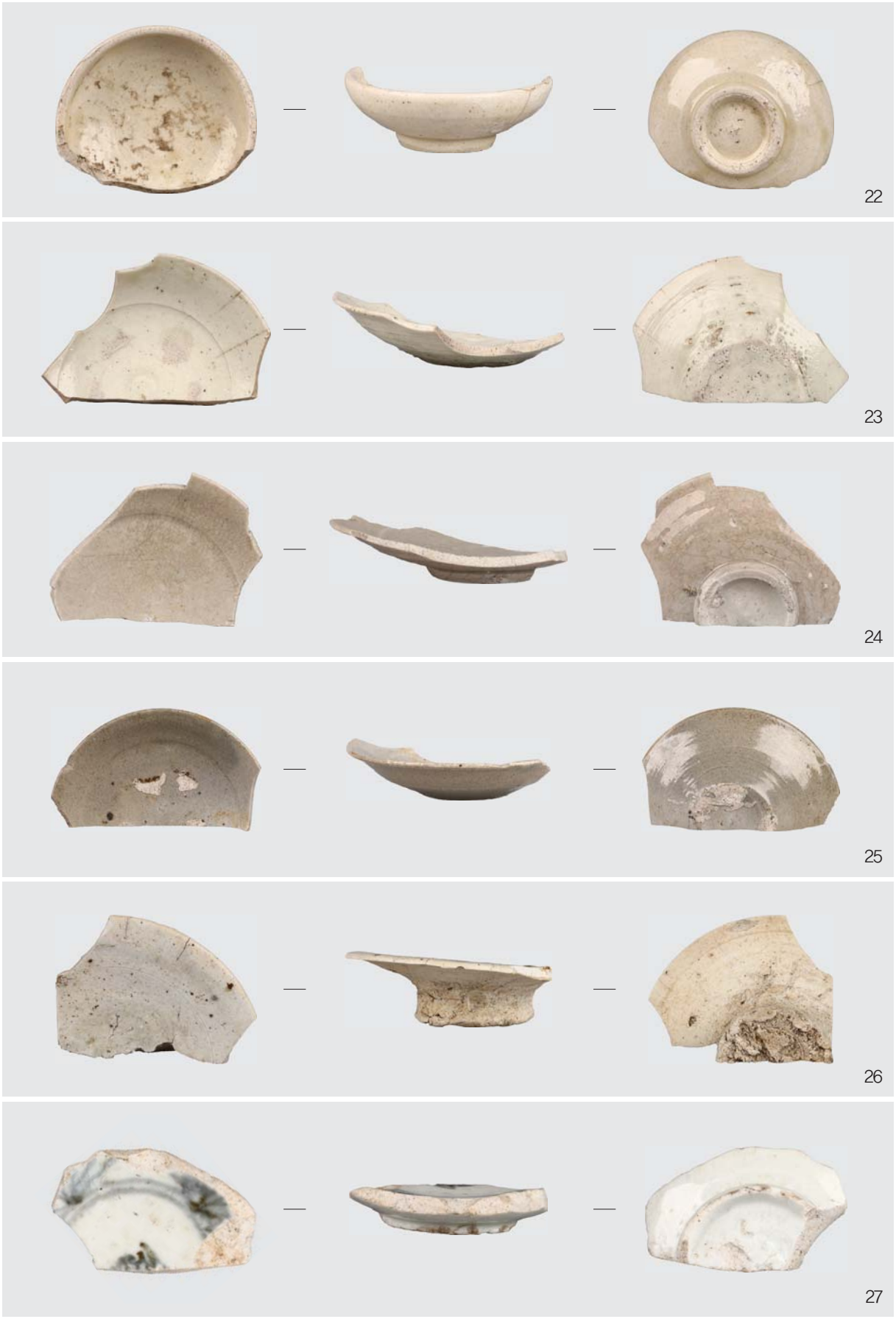








도판 12. 조선시대 연지 출토유물(17~21)



도판 13. 조선시대 연지 출토유물(22~27)



도판 14. 조선시대 수혈(①~③), 현대 우물(④~⑥)

경주 동부동 37번지 유적 유물목록

유물번호	유물명	수량(점)	출토유구	분류		크기(㎝)			보고서 도면번호 도판번호	선별결과
				재질	시대	기고(길이)	구경(폭)	저경(두께)		
2017–1515–0001	수막새	1	1호 수혈	토도류	통일신라	14.1		2.2	9, 5	Y
2017–1515–0002	병	1	1호 수혈	토도류	통일신라	13.5	4.1	5.3	9, 5	Y
2017–1515–0003	암막새	1	연지	토도류	고려	13.2	8.6	2.0	12, 9	Y
2017–1515–0004	암막새	1	연지	토도류	조선	12.9	14.0	2.3	12, 9	Y
2017–1515–0005	수키와	1	연지	토도류	고려	13.1	10.2	2.7	12, 9	Y
2017–1515–0006	수키와	1	연지	토도류	조선	24.0	17.2	2.3	12, 9	Y
2017–1515–0007	수키와	1	연지	토도류	조선	36.4	16.8	2.6	13, 9	Y
2017–1515–0008	암키와	1	연지	토도류	고려	17.9	14.7	3.1	13, 10	Y
2017–1515–0009	암키와	1	연지	토도류	고려	20.1	16.4	2.5	13, 10	Y
2017–1515–0010	암키와	1	연지	토도류	조선	36.0	30.8	3.0	13, 10	Y
2017–1515–0011	전	1	연지	토도류	고려	16.9	13.7	5	14, 10	Y
2017–1515–0012	백자뚜껑	1	연지	토도류	조선	2.9			14, 10	Y
2017–1515–0013	백자저부	1	연지	토도류	조선	8.0			14, 11	Y
2017–1515–0014	명문백자접시	1	연지	토도류	조선	4.1		5.3	14, 11	Y
2017–1515–0015	명문백자저부	1	연지	토도류	조선	3.1			14, 11	Y
2017–1515–0016	명문백자저부	1	연지	토도류	조선	4.6		7.6	14, 11	Y
2017–1515–0017	백자종지	1	연지	토도류	조선	4.3		4.3	15, 12	Y

유물번호	유물명	수량(점)	출토유구	분류		크기(㎝)			보고서 도면번호 도판번호	선별 결과
				재질	시대	기고(길이)	구경(폭)	저경(두께)		
2017–1515–0018	백자종지	1	연지	토도류	조선	3.5		3.8	15, 12	Y
2017–1515–0019	백자종지	1	연지	토도류	조선	3.6			15, 12	Y
2017–1515–0020	백자접시	1	연지	토도류	조선	4.5	12.1	6.6	15, 12	Y
2017–1515–0021	백자접시	1	연지	토도류	조선	4.4	16.6	6.0	15, 12	Y
2017–1515–0022	백자접시	1	연지	토도류	조선	3.2	9.4	4.3	15, 13	Y
2017–1515–0023	백자접시	1	연지	토도류	조선	2.9		5.4	15, 13	Y
2017–1515–0024	백자접시	1	연지	토도류	조선	3.0		5.1	15, 13	Y
2017–1515–0025	백자접시	1	연지	토도류	조선	2.4		4.7	15, 13	Y
2017–1515–0026	백자접시	1	연지	토도류	조선	4.0		5.9	15, 13	Y
2017–1515–0027	청화백자저부	1	연지	토도류	조선	2.8			15, 13	Y

掘調査報告書 抄錄

報告書名	경주 동부동 37번지 유적		發行日	2019年 12月 23日
發行機關	名稱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住所	경상북도 경주시 포석로 1058-26		
	TEL	(054)777-3101~2	FAX	(054)777-3103
執筆 · 編輯者	박방룡, 이재현, 최순조, 이정욱, 진지형, 강동화			
調査 緣由	근린생활시설 신축에 따른 구제조사			
發掘調査者	박방룡, 이재현, 최순조, 이정욱, 진지형, 강동화			
遺蹟調査地番	경상북도 경주시 동부동 37번지			
調査面積	정밀발굴 212㎡			

遺構種別	時代 및 年代	類型 및 基數	重要遺物	特記事項
적심	통일신라	2		
수혈	통일신라 · 조선	3	수막새, 병	
연지	조선	1	암막새, 평기와, 백자	

151. 제주 삼양2동 2140-6번지 유적

(재)제주고고학연구소

목 차

Ⅰ. 머리말 …… 151 - 7

Ⅱ. 조사 지역의 위치와 환경 …… 151 - 8
1. 자연 · 지리적 위치와 환경 …… 151 - 8
2. 고고학적 환경 …… 151-11
3. 삼양동 마을의 형성과 그 연혁 …… 151-18

Ⅲ. 조사 방법 및 층위 …… 151-23
1. 조사 방법 …… 151-23
2. 층위 …… 151-24

Ⅳ. 조사내용 …… 151-25
1. 주거지 …… 151-26
2. 수혈유구 …… 151-38

Ⅴ. 맺음말 …… 151-39

〈부 록〉
1. 자문위원 의견서 …… 151-59
2. 방사성탄소 연대측정 결과 …… 151-61

삽 도 목 차

삽도 1.『耽羅巡歷圖』(한라장촉)에 나타난 옛 삼양동의 '소흘포(所訖浦)' …… 151-20
삽도 2. 조사대상지 위성사진(출처 naver) …… 151-23
삽도 3. 조사대상지 층위 …… 151-24

도 면 목 차

도면 1. 조사대상지 지질도(한국자원연구소 조사 · 제주도 발행 1/50,000 참조) …… 151 - 9
도면 2. 조사대상지 토양 분포지형도[흙토람(http://soil.rda.go.kr)참고] …… 151 - 9
도면 3. 조사대상지 토양 모재도[흙토람(http://soil.rda.go.kr)참고] …… 151-10
도면 4. 조사대상지 토양 퇴적양식도[흙토람(http://soil.rda.go.kr)참고] …… 151-10
도면 5. 조사대상지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국토정보지리원 1/25,000 참조) …… 151-16
도면 6. 조사대상지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국토정보지리원 수치지형도 참조) …… 151-17
도면 7. 조사대상지 유구배치도 …… 151-25
도면 8. 1호 주거지 1차 조사 후 평 · 단면도 …… 151-27
도면 9. 1호 주거지 조사 완료 후 평 · 단면도 …… 151-28
도면 10. 1호 주거지 출토유물(1~4) …… 151-30
도면 11. 1호 주거지 출토유물(5~12) …… 151-31
도면 12. 1호 주거지 출토유물(13~17) …… 151-33
도면 13. 1호 주거지 출토유물(18~20) …… 151-35
도면 14. 2호 주거지 출토유물(21 · 22) …… 151-36
도면 15. 2호 주거지 평 · 단면도 …… 151-37
도면 16. 1호 수혈유구 평 · 단면도 …… 151-38

도 판 목 차

도판 1. 조사대상지 원경(①), 조사대상지 북쪽 경계 교란층 전경(②) …… 151-43
도판 2. 1호 주거지 조사 전 전경(①), 1호 주거지 1차 조사 후 전경(②) …… 151-44
도판 3. 1호 주거지 1차 조사 후 출토유물(①~⑧) …… 151-45
도판 4. 1호 주거지 내부 소토층 전경 및 세부(① · ②) …… 151-46
도판 5. 1호 주거지 토층(①~④) …… 151-47
도판 6. 1호 주거지 2차 조사 후 전경(①), 1호 주거지 2차 조사 후 출토유물(②~⑤) …… 151-48
도판 7. 1호 주거지 내부 탄화 목재 세부(① · ②) …… 151-49
도판 8. 1호 주거지 불다짐벽체 전경 및 세부(① · ②) …… 151-50
도판 9. 2호 주거지 조사 전 전경(①), 2호 주거지 1차 조사 후 전경(②)…… 151-51
도판 10. 2호 주거지 토층(①), 2호 주거지 내부 주혈 조사과정(②~④),
2호 주거지 조사 완료 후 전경(⑤) …… 151-52
도판 11. 1호 수혈유구 조사 전 전경(①), 1호 수혈유구 1차 조사 후 전경(②),
1호 수혈유구 토층(③), 1호 수혈유구 2차 조사 후 전경(④),
1호 수혈유구 내부 주혈 토층(⑤~⑦), 1호 수혈유구 조사 완료 후 전경(⑧) …… 151-53
도판 12. 자문회의 모습(① · ②) …… 151-54
도판 13. 1호 주거지 출토유물(1~12) …… 151-55
도판 14. 1호 주거지 출토유물(13~20), 2호 주거지 출토유물(21 · 22) …… 151-56

Ⅰ. 머리말

본 조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양2동 2140-6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문화재 발굴조사이다. 조사대상지는 문화유적 분포지도상 '제주 삼양동 유적(사적 제 416호)'에 위치하며 주변으로 삼양동 유물산포지 및 다수의 유적이 자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장문화재 보존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문화재 발굴조사 기관에 의뢰하였다. 시굴조사(문화재청 허가 제2017-1413호)를 실시한 결과 수혈유구 3기와 주혈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 신축에 앞서 발굴조사를 통하여 유적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본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유적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 범위의 발굴조사에 해당하여 한국문화재재단과 계약을 거쳐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유적의 위치는 제주시 삼양2동 2140-6번지이며 조사면적은 211㎡이다. 조사기간은 2017년 11월 28일부터 2017년 12월 22일(실 조사일수 7일)까지 실시하였다. 발굴조사 결과 주거지 2동과 수혈유구 1기 및 주혈이 확인되었으며 조사완료 후 기록 보존하였다.

발굴조사단 구성은 다음과 같다.

조 사 단 장 : 강 창 화(제주고고학연구소 소장)
자 문 위 원 : 고 재 원(제주문화유산연구원 원장)
박 용 범(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 학예연구사)
책임조사원 : 김 용 덕(제주고고학연구소 연구부장)
조 사 원 : 윤 중 현(제주고고학연구소 연구원)
준 조 사 원 : 오 원 홍(제주고고학연구소 연구원)
보 조 원 : 송 주 란(제주고고학연구소 연구원)

*( )는 조사당시 직명임.

현장조사는 조사단장의 책임하에 조사단이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자문위원으로 고재원 선생님, 박용범 선생님이 유적 조사 및 처리 방향 등에 대해 조언을 해주셨다. 보고서의 작성은 김용덕이 총괄 진행하였으며 각 연구원들이 실내작업과 원고작성을 분담하였다. 먼저 실내작업으로 유물정리 및 복원은 이하나(제주고고학연구소 자료관리팀장), 유물실측 및 유물제도는 김혜진(제주고고학연구소 연구원) · 최자예(제주고고학연구소 연구원)가 하였다. 유구 도면 · 도판 편집과 유물사진 촬영 · 편집은 오원홍이 하였다.

보고서의 원고 작성은 Ⅰ장 머리말은 김용덕, Ⅱ장 조사 지역의 위치와 환경에서 자연 · 지리적 위치와 환경 및 고고학적 환경은 윤중현이 기술하였다. 삼양동 마을의 형성과 그 연혁은 고창석(前 제주고고학연구소장, 前 제주대학교 사학과 교수)이 집필하였다. Ⅲ장 조사방법 및 층위와 Ⅳ장 조사내용은 오원홍, Ⅳ장 맺음말은 윤중현이 작성하였다. 보고서의 교열 및 감수는 강창화가 하였다.

Ⅱ. 조사지역의 위치와 환경

1. 자연 · 지리적 위치와 환경

조사대상지는 행정구역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양2동 2140-6번지이다. 지리적으로는 북위 33°31′20.21″, 동경 126°35′15.77″에 해당한다. 조사대상지는 해안에서 한단 올라온 해발 20m 내외의 평탄대지에 자리하고 있다. 동쪽으로는 삼양동과 봉개동을 잇는 삼봉로와 접해있다.

조사대상지가 위치한 삼양동은 주변보다 살짝 내만한 지형의 해안에 접한 마을로 제주도의 북편 중앙부에 위치한다. 조사대상지에서 동쪽으로 약 1.0㎞ 떨어진 곳에 위치한 원당봉(해발 171m)을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평탄한 지형을 하고 있다. 조사대상지는 해안에서 직선거리로 400m 이격되어 있으며 삼양동 선사유적지(사적 제416호)에서 남쪽으로 80m 이격된 곳에 위치한다. 주변의 하천을 살펴보면 동쪽으로 약 250m 떨어진 곳에는 봉개동에서 발원한 '음나물내'가 삼양해수욕장의 동편 끝으로 흐르고 있으며 서쪽으로 900m 떨어진 곳에 삼수천이 삼양2동 해안으로 흐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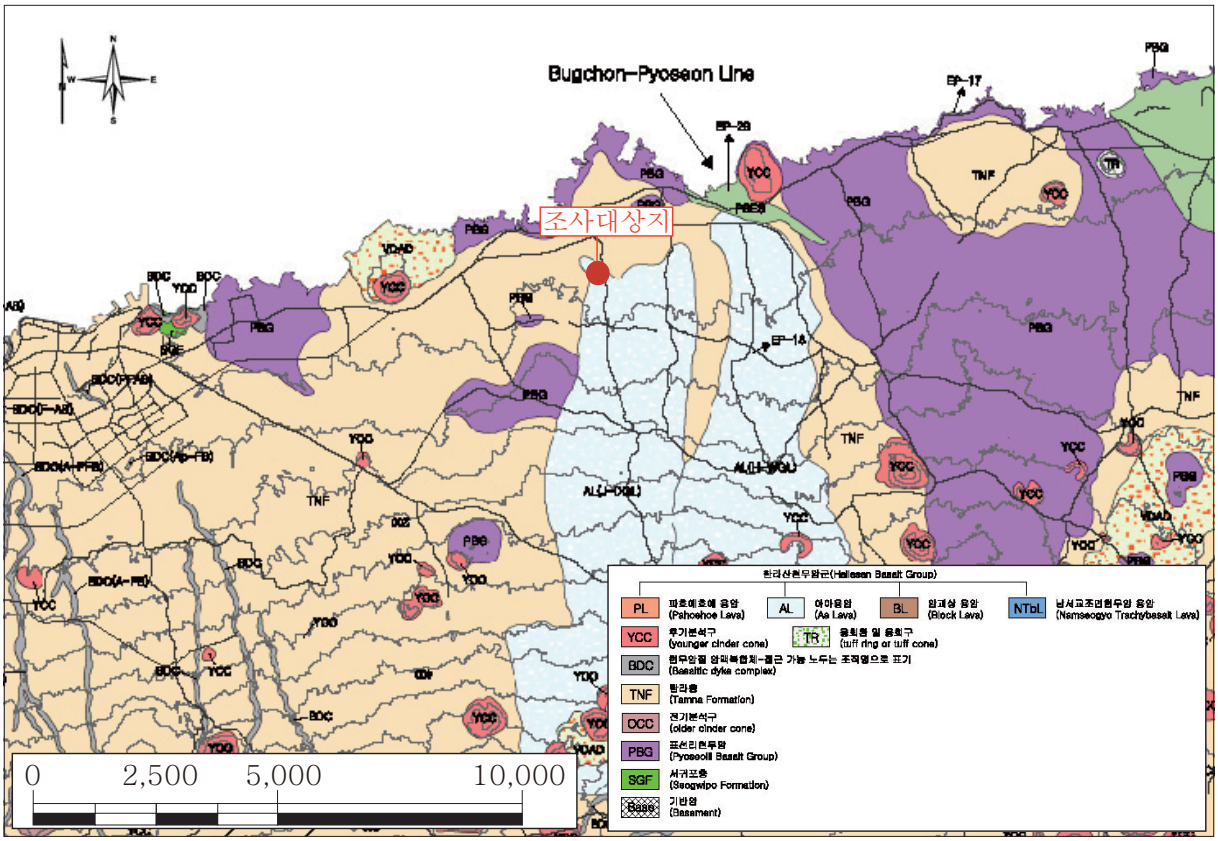
삼양동은 신촌과 더불어 제주에서 용천수로 유명한 곳이다. 삼양동 해안에는 현무암이 모재인 검은 모래로 이루어진 해빈과 사구가 발달되어 있으며 이 삼양해수욕장의 서편에 '감물개'라는 해안용천수가 용출되고 있다. '감물개'는 현재 삼양 1 · 2 수원지로 개발된 상태이다[1]. 해안에는 '감물개' 이외에도 '큰물'과 '샛도리물' 등 다수의 용천수가 분포하고 있어 풍부한 수량을 보여주고 있다.

조사대상지의 토양은 대흘통[2]이다. 대흘통은 미구 Soil Taxonomy 분류에 의하면 coarse loamy, mixed, thermic family of Fluventic Hapludolls에 속하며, FAO/WRB 분류에 의하면 Mollic Fluvisols(Eutric Novic)에 속한다. 표토1(Ap)은 암갈색의 양질사토, 표토2(AC)는 암갈색의 사양토이다. 2심토(2Bb)는 농암회갈색의 미사질양토이며 구조는 약하고 큰 괴상이다. 대흘통은 조개껍데기가 있는 해변에 기인하며, 완만한 경사 내지 경사지의 해안단구와 해변지역에 발생한다. 경사는 2~15%이며, 주된 경사는 2~7%이다. 토양배수는 양호이며, 투수성은 약간 빠르면 유거는 보통이다. 분포면적은 제주도 해변지역에 분포하며 매우 좁은 면적으로 분포한다. 대흘통의 유사토양은 온평, 명지, 마지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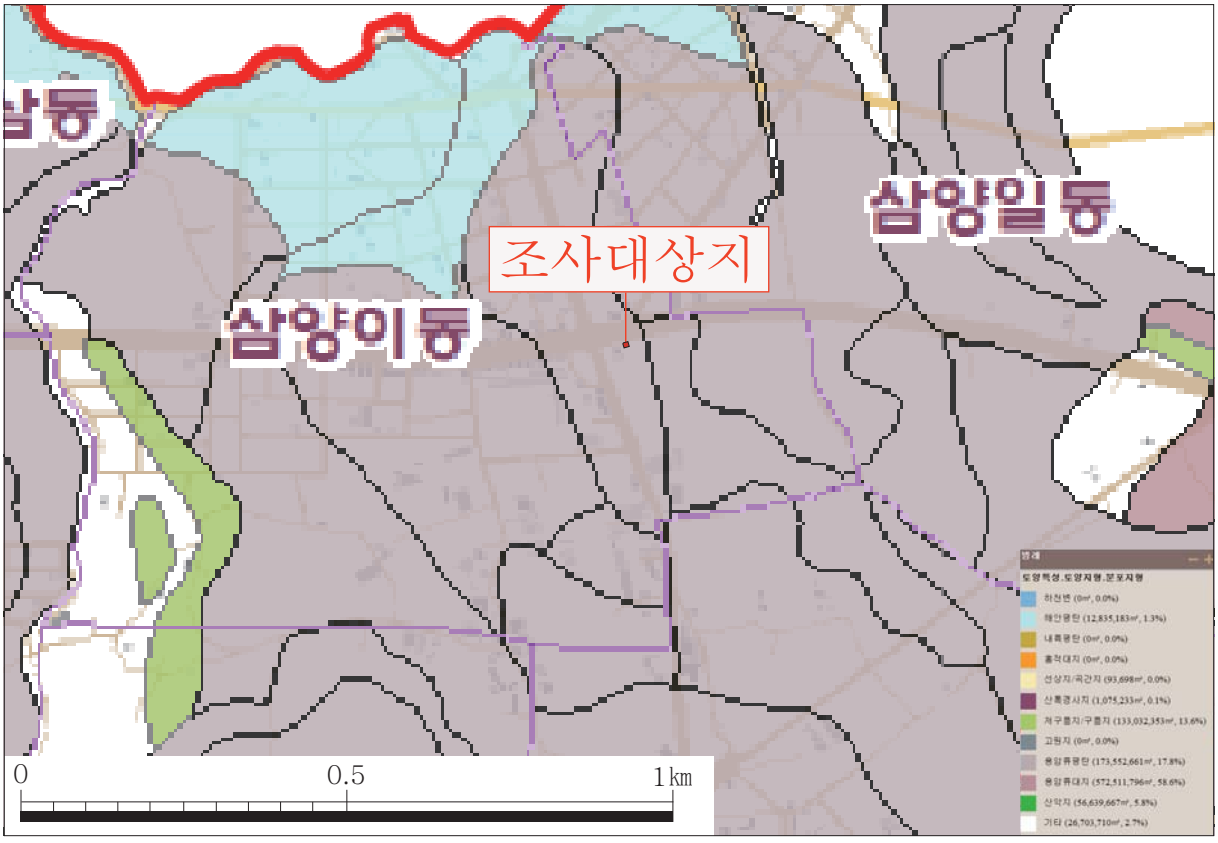
---

1) 강순석, 2004,『제주도 해안을 가다』,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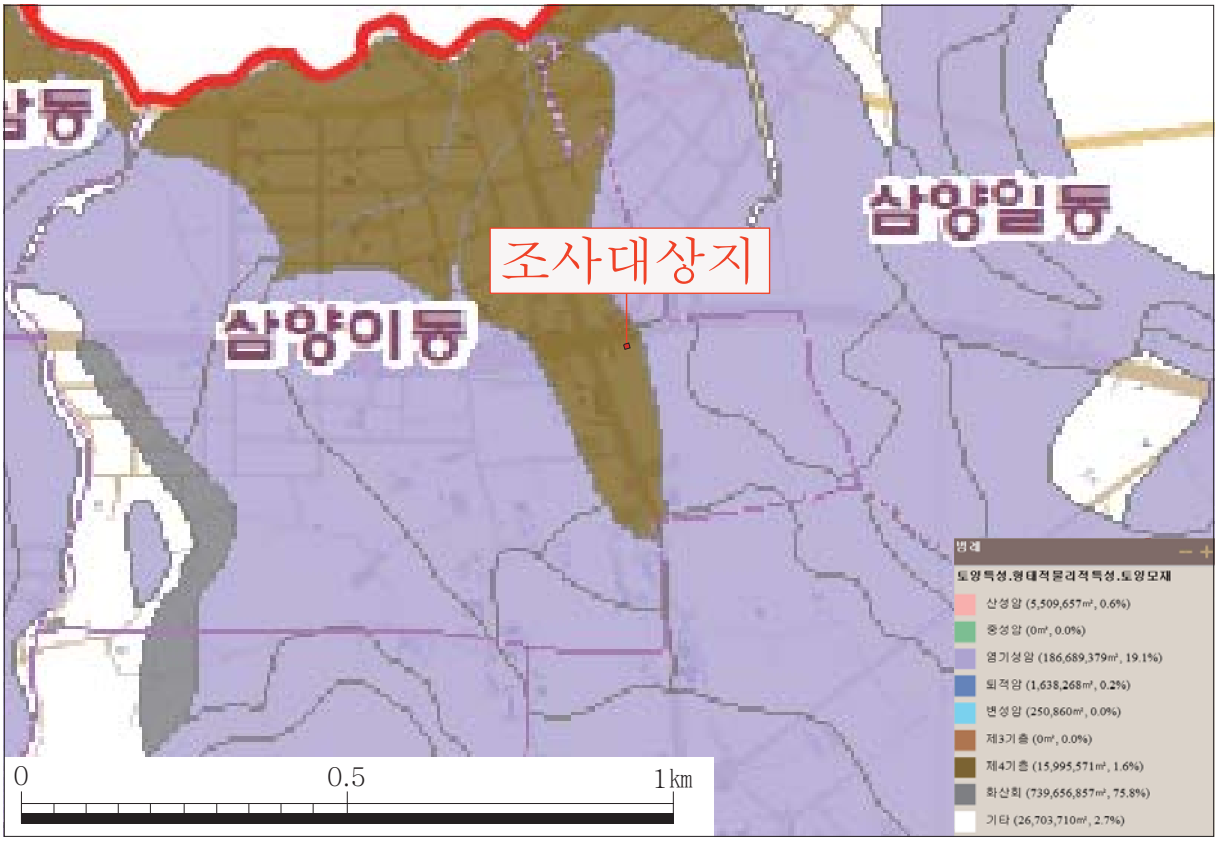
2) 토양환경정보시스템(흙토람, http://soil.rda.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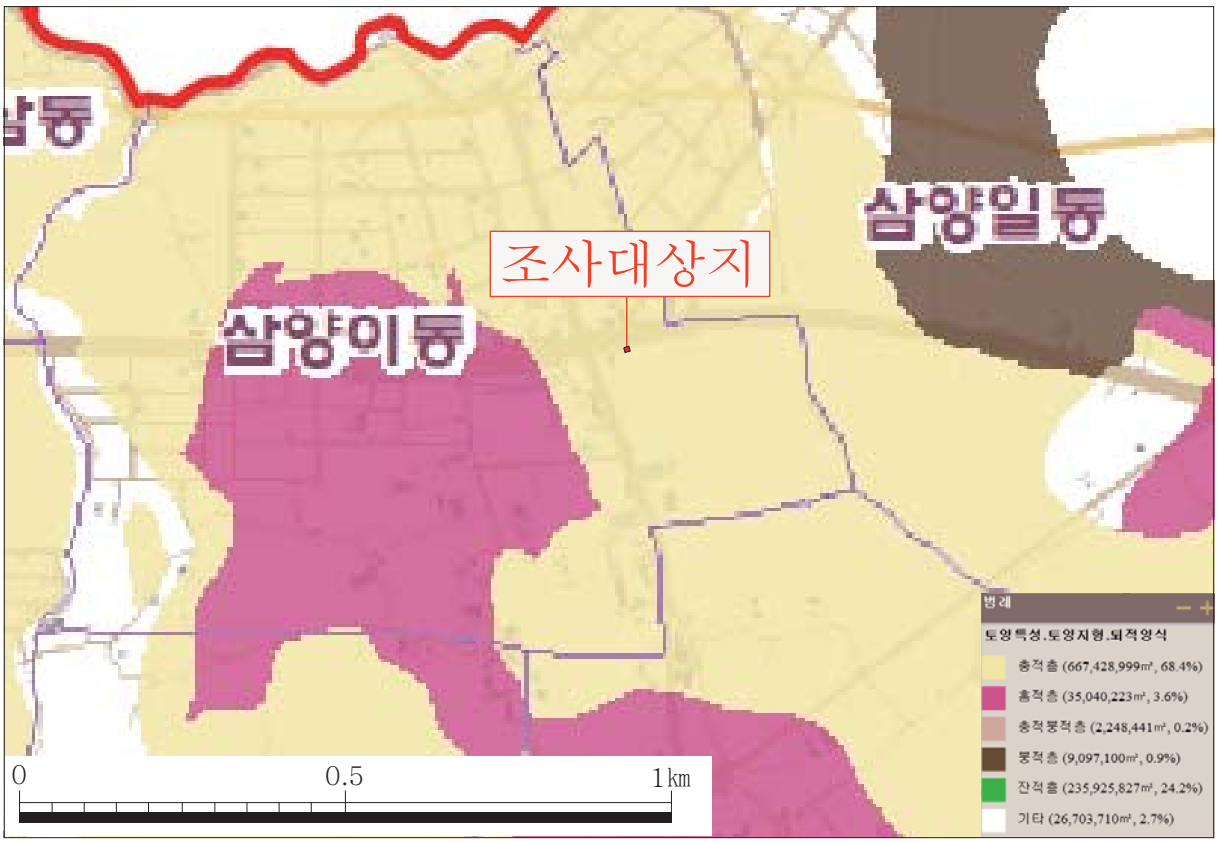
도면 1. 조사대상지 지질도(한국자원연구소 조사 · 제주도 발행 1/50,000 참조)



도면 2. 조사대상지 토양 분포지형도[흙토람(http://soil.rda.go.kr)참고]



도면 3. 조사대상지 토양모재도[흙토람(http://soil.rda.go.kr)참고]



도면 4. 조사대상지 토양 퇴적양식도[흙토람(http://soil.rda.go.kr)참고]

2. 고고학적 환경[3)]

유적이 위치한 제주시 삼양동은 삼양동 유물산포지와 삼양동 고인돌, 도련동 고인돌이 일찍부터 알려지면서 선사시대 유적이 분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졌다. 1996년 삼양동 택지개발사업 중 삼양동 유적이 조사되면서 이 일대에 대규모의 취락유적이 형성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삼양동 유적은 사적 제416호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2007년에는 삼화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발굴조사가 진행되어 신석기시대 초창기에서 청동기시대, 초기철기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유구와 유물이 확인되면서 삼양동일대는 대규모의 선사시대유적이 분포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지금까지 삼양동일대에서 조사된 유적을 시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삼화택지개발지구 신석기시대 유적[4)]은 제주시 삼양동 삼화지구 택지개발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적의 서편으로 삼수천이 흐르고 있다. 고산리식토기와 함께 압날점렬문토기, 무문양토기가 공반 출토되었으며 석기는 석촉, 첨두기, 긁개, 마제석부, 갈돌, 갈판 등이 확인되었다.

삼양동 유원지조성부지 내 유적[5)]에서는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에 해당하는 유적이 확인되었다. 신석기시대 유물로는 고산리식토기와 융기문토기, 조흔문토기, 조우문토기와 함께 세석핵, 격지 등의 석기가 출토되었다. 청동기시대의 유적에서는 구순각목문토기와 마연토기가 확인되었다. 유구는 신석기시대와 청동기기시대의 수혈유구와 적석유구, 구상유구가 확인되었다.

삼화지구 유적은 2007년부터 2009년에 걸쳐 호남문화재연구원, 국립제주박물관, 제주문화유산연구원에서 구역별로 조사하였다. 호남문화재연구원에서 조사한 나구역[6)]은 3개의 구역으로 나눌 수 있다. 1구역에서는 구석기시대 몸돌을 비롯하여 송국리형주거지 1동, 지상건물지 1동, 수혈유구 28기, 옹관묘 9기, 토광묘 5기, 소성유구 9기, 구 7기가 확인되었다. 2구역에서는 청동기시대 수혈 15기, 소성유구 2기, 조선시대 수혈 2기, 구 2기가 확인되었다. 3구역에서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20동, 수혈 28기, 소성유구 2기, 소토유구 9기를 비롯하여 조선시대 지상건물지 5동이 확인되었다.

국립제주박물관에서 조사한 가-Ⅰ구역[7)]에서는 주거지는 장방형주거지 33동, 방형주거지 17동, 원형주거지 1동으로 총 51동, 수혈유구 156기, 소성유구 11기, 소토유구 8기, 옹관묘 5기, 토광묘 4기, 매납유구 4기, 지상건물지 6동, 구상유구 7기가 확인되었다. 출토유물로는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 구순각목문토기, 구순각목문공렬토기, 직립구연토기, 호형토기, 원형점토대토기, 마연토기, 삼양동식토기 등의 토기류와 타제석기, 석촉, 석부, 석검, 편인석부, 주상편인석부, 유구석부 등의 석기류, 방추차, 원판형토제품, 유리구슬 등이 확인되었다. 유적의 시기는 청동기시대 전기~초기철기이며 상한대는 B.C 800년대, 하한대는 B.C 300~100년대로 상정하고 있다.

---

3)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2000,『文化遺蹟分布地圖-濟州市』.
4) 동양문물연구원, 2011,『제주 삼화지구유적 발굴조사 보고서』,제4집.
5) 제주문화예술재단, 2006,『삼양유원지 조성사업 부지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6) (財)湖南文化財硏究院, 2010,『濟州 三和 나 地域 遺蹟-Ⅰ·Ⅱ區域』.
(財)湖南文化財硏究院, 2010,『濟州 三和 나 地域 遺蹟-Ⅲ區域』.
7) 국립제주박물관, 2010,『제주 삼화지구 가Ⅰ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제7책.

삼화지구 가-Ⅱ구역[8]을 조사한 제주문화유산연구원은 가-Ⅱ구역으로 6지점으로 나누어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수혈유구 101기, 적석유구 5기, 구상유구 25기가 확인되었다. 출토유물로는 대부분 토기류로 구순각목문토기, 구순각목문공렬토기, 무문토기, 마연토기, 경질무문토기 등이 있으며 석기류로는 합인석부, 갈돌이 확인되었다.

제주세무서 직원사택건축부지 내 유적[9]에서는 청동기시대 장방형주거지 2동, 수혈유구 2기, 적석유구 1기 및 삼국시대~조선시대의 적석매납유구 1기가 확인되었다. 출토유물로는 구순각목문토기, 구순각목문호형토기, 구순각목문공렬토기, 흑색마연토기 등이 있다. 유적은 한반도 남부지방의 청동기시대 장방형, 방형주거지유적과 비교될 수 있으며, 시기는 기원전 6세기경으로 추정하였다.

삼양2동 2132-1번지 내 유적[10]에서는 수혈유구 7기, 구상유구 1기, 주혈군이 확인되었으며 유물은 구순각목문토기와 공렬문토기가 출토되어 청동기시대 전기의 유적으로 추정되었다.

삼화지구 동측도로 확장공사구간 내 유적[11]에서는 탐라성립기의 합구식옹관묘 1기와 토광묘로 추정되는 토광 1기, 조선시대 유구 1기와 지상건물지 1동이 확인되었다. 옹관묘는 전형적인 삼양동식토기를 합구한 형태로 용담동 옹관묘에 비해 선행되는 옹관묘로 추정하였다.

삼양동주민센터 신축부지 내 유적[12]에서는 장방형주거지 4동, 송국리형주거지 3동, 굴립주건물지 1동, 원형구상유구 1기, 석관묘 1기, 수혈유구 24기, 소토유구 1기, 구상유구 8기가 확인되었다. 출토유물로는 원형점토대토기, 구순각목문토기, 경질무문토기편, 공이[敲石]과 숫돌[砥石], 석착, 석부편, 토제방추차가 확인되었다. 유적은 삼양동 유적과 삼화지구 유적의 범위가 겹치는 경계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거지의 형태로 볼 때 장방형계의 무문토기시대와 원형계의 송국리문화의 유입단계에 형성된 삼양동 취락유적의 일부분으로 추정하였다.

삼양동 유적[13]은 기원전 1세기를 전후한 대단위 취락유적으로 1996년에서 1998년까지 조사되었으며 주거지 236기(송국리형주거지 173기, 장방형계 17기, 부정형 18기, 지상식 불다짐처리 부정형주거지 20기, 굴립주 건물지 8동)와 소토유구 11기, 석축유구 2기, 구상유구 3기, 폐기장 등이 확인되었다. 주거지 236기 가운데 155기는 내부조사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81기는 유구 굴광선만 확인한 상태로 발굴조사가 마무리되었다. 후에 삼양동선사유적지 야외전시관부지와 주차창 및 관리실부지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미조사되었던 유구의 조사가 일부 진행되었다. 송국리형주거지의 규모는 대략 직경 4~5m이며 직경 6.6m의 대형주거지도 조사되었다. 출토유물은 원형·타원형·삼각형 점토대토기, 경질무문토기인 삼양동식토기, 파수부토기 등의 토기류와 마제석검, 마제석촉, 동검편, 환옥, 동촉, 철기류, 유리구슬, 석부, 석착, 지석, 갈돌, 갈판 등이 출토되었다. 그리고 탄화된 보리와 콩 등의 곡물도 확인되었다. 이 외에도 시기는 다르지만 신석기시대 유물도 확인되었는데 융기선문토기, 점렬

---

8)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0,『제주 삼화지구 가-Ⅱ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제6집.
9) 國立濟州博物館, 2007,『濟州稅務署 職員舍宅敷地內 文化遺蹟 發掘調査 報告書』.
10) 國立濟州博物館, 2007,『제주시 삼양2동 2132-1번지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11) (財)湖南文化財硏究院, 2008,『濟州 道蓮洞甕棺墓』.
12)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1,『제주 삼양동 유적(2136-9번지) 발굴조사 보고서』, 제12집.
13) 제주대학교박물관, 2001,『濟州三陽洞遺蹟 Ⅱ·Ⅲ地區』.
제주대학교박물관, 2002,『濟州三陽洞遺蹟 Ⅰ·Ⅴ地區』.

문토기, 석촉 등이 출토되었다.

삼양동 1249-7번지 내 유적[14]에서는 주거지 14동(원형 7동, 장방형 6동, 방형 1동), 굴립주건물지 3동, 수혈유구 8기, 소토유구 1기, 석렬유구 2기가 확인되었다. 출토유물은 직립구연토기, 경질무문토기, 삼각형점토대토기, 회색연질토기가 확인되었으며 이 가운데 경질무문토기 중 외반구연토기의 점유율이 높은 편이다. 토제방추차와 원판형토제품의 다수 출토되었으며 석기류는 연석, 지석 등 소량만 확인되어 대조를 이룬다. 삼양동 1249-7번지 유적의 조사는 기존 삼양동선사유적지가 송국리형주거지를 바탕으로 형성된 취락유적으로 확인되었으나 이 유적에서는 원형의 송국리형주거지 외에 방형계 주거지가 공존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취락의 범위가 삼양동 선사유적지에서 원당봉 남쪽 하단부까지 상당히 넓은 범위에 분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삼양동 Ⅵ지구 1665-1번지 내 유적[15]에서는 송국리형주거지 6동, 굴립주건물지 1동, 소성유구 1기, 수혈유구 1기가 확인되었다. 출토유물은 원형점토대토기, 직립구연토기, 경질무문토기 등의 토기류와 석촉, 고석, 연석, 요석 등의 석기류가 확인되었다.

제주 도련동 유적[16]은 도련사거리~삼양검문소간 도시우회도로 확장사업부지에서 확인된 유적이다. 조사결과, 송국리형주거지 4동, 굴립주건물지 1동, 수혈유구 22기, 구상유구 5기, 집석유구 1기, 소토유구 2기, 옹관묘 1기, 토광묘 4기가 확인되었다. 출토유물로는 원형점토대토기, 직립구연토기, 마연토기, 환상파수부편 등의 토기류와 석촉과 지석, 고석, 연석, 요석 등이 확인되었다.

삼양2동 2133-4번지 유적[17]은 단독주택 신축부지에 앞서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적이다. 조사결과, 수혈유구 4기가 확인되었다. 출토유물로는 구순각목문토기, 직립구연토기의 토기류가 출토되었다.

삼양2동 2175-2번지 유적[18]은 단독주택 신축부지에 앞서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적이다. 조사결과, 수혈유구 3기와 구상유구 1기, 다수의 주혈군이 확인되었다. 출토유물로는 무문토기가 확인되었다.

삼양2동 2181-29번지 유적[19]은 근린생활 신축에 앞서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적이다. 조사결과, 방형주거지 1동, 수혈유구 7기, 구상유구 3기, 굴립주 건물지 1동, 역사시대 수혈유구 4기가 확인되었다. 출토유물로는 공렬문토기, 돌류문토기, 직립구연토기, 구순각목문토기, 마연토기 등의 토기류와 지석, 홈돌, 고석, 갈돌, 갈판, 미완성석기 등의 석기류, 방추차가 확인되었다. 유적의 시기는 AMS분석결과와 출토 토기를 종합해 볼 때 기원전 8세기로 비정하고 있다.

---

14)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0, 『제주 삼양1동 1249-7번지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제4집.
15)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1, 『제주 삼양동 유적 Ⅵ지구(1665-1번지)발굴조사 보고서』, 제10집.
16)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1, 『제주 도련동 유적(614-1번지)발굴조사 보고서』, 제16집.
17) 한국문화재보호재단 ·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3, 「제주 삼양2동 2133-4번지 유적」, 『2011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Ⅹ』, p.309~354, 제268책.
18) 한국문화재보호재단 ·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3, 「제주 삼양2동 2133-4번지 유적」, 『2011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Ⅹ』, p.355~388, 제268책.
19) 한국문화재보호재단 · 제주고고학연구소, 2013, 「제주 삼양2동 2181-29번지 유적」, 『2011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Ⅹ』, p.389~538, 제268책.

삼양1동 1654-10번지 유적[20]은 다가구주택 신축부지에 앞서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적이다. 조사결과, 탐라성립기의 수혈유구 5기와 고려시대의 구상유구 1기가 확인되었다. 출토유물로는 경질무문토기 동체부편과 청자완 1점, 청자편 등이 확인되었다.

삼양2동 2102-23번지 유적[21]은 다가구주택 신축부지에 앞서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적이다. 조사결과, 수혈유구 6기가 확인되었다. 출토유물로는 청자와 도기편이 확인되었다. 이 유적의 편년은 AMS 분석결과와 출토유물을 통해 A.D 13세기 말로 추정하고 있다.

삼양2동 2137-10번지 유적[22]은 단독주택신축에 앞서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적이다. 조사결과, 방형주거지 1동, 수혈유구 3기, 구상유구 2기와 다수의 주혈군이 확인되었다. 출토유물로는 마연토기, 무문토기, 점토대편 등의 토기류와 마제석촉, 석착, 홈돌, 갈돌, 지석 등의 석기류, 방추차, 곡옥 2점이 확인되었다.

삼양동 고인돌은 삼양초등학교에서 남서편으로 250m 가량 이격되어 있으며 현재는 삼화택지개발지구 안에 위치하고 있다. 상석의 규모는 장축 219㎝, 단축 157㎝, 두께 35~50㎝이다. 장축방향은 남-북방향이며 상석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에 가깝다. 상석의 동쪽 중앙에 길이 63㎝, 폭 52㎝, 두께 28㎝의 할석상 지석이 기울어진 상태로 고여 있다. 상석의 북쪽과 남쪽은 길이 40㎝ 정도의 괴석 1매가 고여 있으며 서쪽은 지석 없이 바로 지면에 닿아 있다.

도련동 1호 고인돌은 삼양동 고인돌에서 동쪽으로 50여m 이격되어 있으며 도련동 2호 고인돌과 삼양동 고인돌의 중간지점에 위치한다. 상석의 규모는 장축 222㎝, 단축 205㎝, 두께 15~52㎝이며 장축방향은 남동-북서향을 가리키고 있다. 상석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에 가깝다. 상석의 북동, 남서쪽에는 치석한 흔적이 남아 있다. 상석의 상면은 굴곡이 심하고 성혈은 확인되지 않는다. 주변지역을 발굴조사한 결과 고인돌은 생토층이나 문화층 위에 축조된 것이 아니라 표토층에 떠있는 상황임이 확인되었다.

도련동 2호 고인돌은 도련동 1호 고인돌에서 동쪽으로 40m 이격된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상석의 규모는 장축 245㎝, 단축 175㎝, 두께 35~40㎝이다. 장축방향은 남동-북서향으로 도련동 1호 고인돌의 방향과 동일하다. 이 고인돌은 축조시 상석 자체의 두께가 고른 것을 일부러 택한 것으로 보인다. 상석 동서편에 수직으로 다듬은 치석흔이 관찰되며 상석의 북동쪽은 개방되어 있다. 아치형으로 개방된 부분의 높이는 22㎝이다. 지석은 상석의 북서, 남동, 북동에 각각 3매가 고여 있다. 지석의 크기는 직경 15㎝ 미만이다. 그러나 최근 경작에 의해 원상에서 뒤집혀진 상태이다.

도련동 3호 고인돌은 1985년 제주도 전역 지표조사에서 확인되었으나 1992년 조사에서는 고인돌 상석이 마을 주민에 의해 도련동 마을입구 야외공원으로 이전된 것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현재는 삼양동선사유적지 야외공원에 이전 복원되었다. 원상의 고인돌은 지대가 다소 높은 경작지의 돌무더기

---

20) 한국문화재재단 ·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5,「제주 삼양1동 1654-10번지 유적」,『2012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Ⅶ -제주 1-』, p.73~114, 제286책.

21) 한국문화재재단 · 제주고고학연구소, 2015,「제주 삼양2동 2102-23번지 유적」,『2012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Ⅶ -제주 1-』, p.115~190, 제286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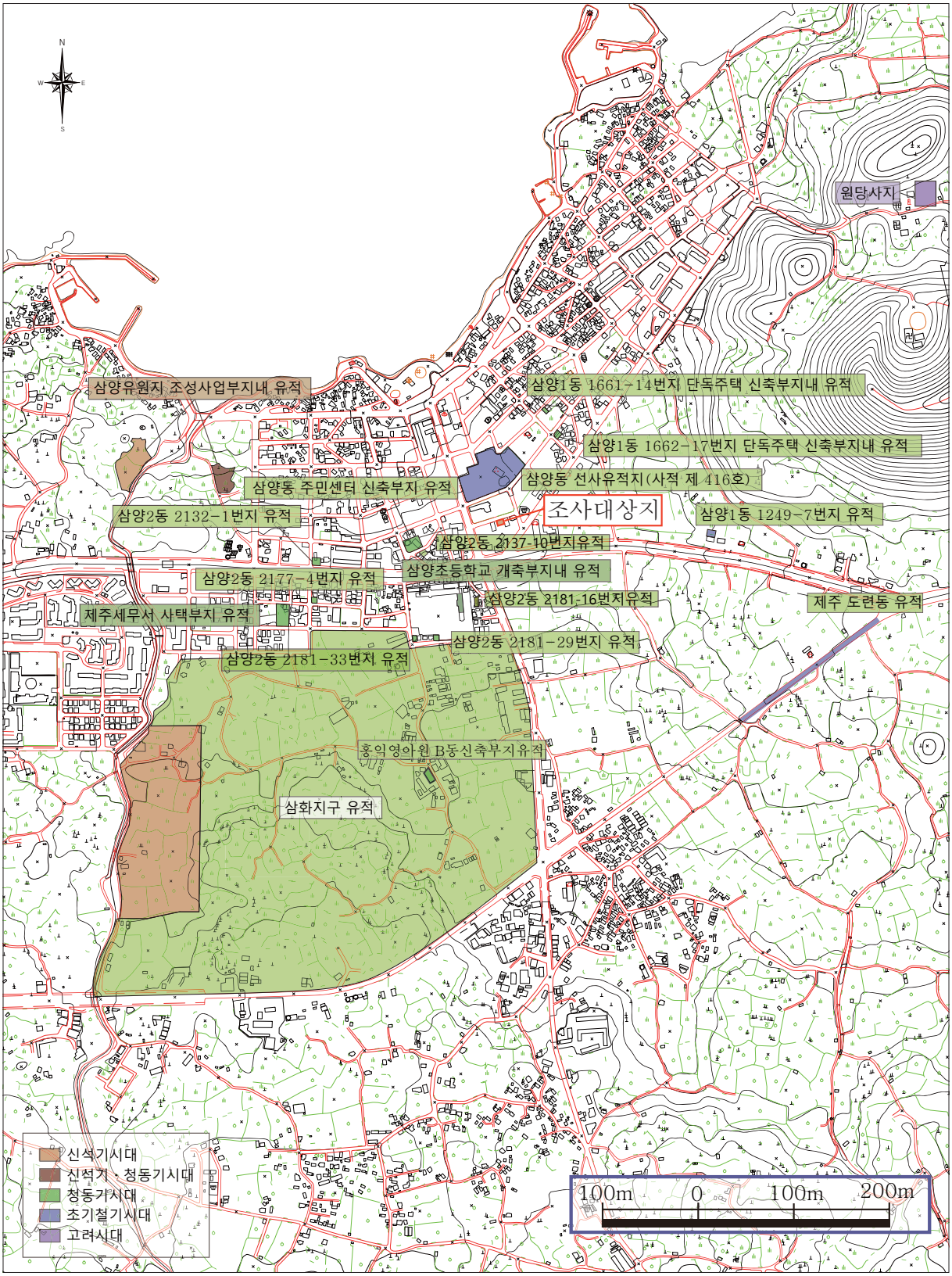
22) 한국문화재재단 · 제주고고학연구소, 2015,「제주 삼양2동 2137-10번지 유적」,『2012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Ⅶ -제주 1-』, p.191~254, 제286책.

에 있었다. 상석은 북서쪽으로 다소 기울어져 있었고 장축방향은 남동-북서향을 가리키고 있다. 상석의 규모는 장축 323㎝, 단축 296㎝, 두께 40~80㎝이며 상석의 북동쪽에 1매의 판석상 지석이 확인되었다.

이상과 같이 삼양동일대는 선사시대 유적지의 보고[寶庫]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수의 유적이 분포하고 있다.



도면 5. 조사대상지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국토정보지리원 1/25,000 참조)



도면 6. 조사대상지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국토정보지리원 수치지형도 참조)

3. 삼양동 마을의 형성과 그 연혁[23)]

삼양동(三陽洞)은 현재 제주시에 속한 19개의 행정동 가운데 하나이다. 이곳은 동쪽으로는 조천읍 신촌리, 서쪽으로는 화북동, 남쪽으로는 봉개동과 경계를 이루고, 북쪽으로는 바다와 접한 지역이다.

삼양동과 관련된 지명이 문헌상에 나타나기는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봉수(烽燧) 항목의, '원당악(元堂岳) 봉수'가 그 시초라 할 것이다. 서쪽으로는 별도(別刀) 봉수와 교신하고 동쪽으로는 입산악(笠山岳) 봉수와 교신한다고 하였다. 봉수는 횃불(烽)과 연기(燧)로써 급보(急報)를 전하던 군사 통신조직이다.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주석(註釋)에 의하면, "봉(烽)은 횃불을 들어서(擧火) 통보하는 것을 뜻하고 수(燧)는 섶나무(柴木)에 불을 질러서 그 연기를 바라보게 하는 것으로서 낮에는 연기(煙氣), 밤에는 횃불(烽火)을 들어 통보하는 제도를 말한다."고 하였다.

조선 전기 제주도 지역의 봉수에 대해서 『세종실록(世宗實錄)』 21년(1439) 윤2월 4일자에 의하면, 제주 도안무사(都安撫使) 한승순(韓承舜)이 "봉화(烽火)를 올리고 망(望)을 보는 곳은 제주의 동쪽에 있는 김녕(金寧)으로부터 제주의 서쪽에 있는 판포(板浦)까지의 사이에 10곳, 대정현 서쪽에 있는 차귀(遮歸)에서 동쪽에 있는 거옥(居屋)까지의 사이에 5곳, 정의현 서쪽에서 북쪽 지말산(只末山)까지의 사이에 7곳입니다. 봉화를 올리는 곳마다 5명씩 사람을 나누어 배치하였고 또 봉수대(烽燧臺)를 쌓되, 높이와 너비는 각각 10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망보는 사람은 무기와 깃발 · 나발을 가지고 올라갔다가 적정(賊情)이 나타나면, 봉화를 올리고 나발을 불면서 서로 연락하여 알리게 하였습니다."라고 보고한 내용이 있다.

이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봉수와 연대를 명확하게 구별하지 않고 언급하였는데, 그 수는 제주목 지경이 10곳, 대정현 지경이 5곳, 정의현 지경이 7곳으로 합하여 모두 22곳이다. 일일이 위치와 지명은 거론하지 않았다. 그리고 설치된 봉수대의 규모는 높이와 너비가 각각 10자라 하였고, 봉화군은 봉화가 있는 곳마다 5명씩 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봉수의 수에 있어서는 중종 때 이루어진 『신증동국여지승람』 3읍 봉수 항목의 내용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내용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제주목(8개소) : 사라악(沙羅岳, 사라봉), 별도(別刀), 원당악(元堂岳), 입산악(笠山岳, 김녕리), 도도리악(道道里岳, 도두봉), 수산악(水山岳, 애월 수산봉), 고내악(高內岳, 고내봉), 판을포악(板乙浦岳, 판포악)

정의현(10개소) : 남산(南山, 성읍 남산봉), 오음사지악(吾音沙只岳, 삼달리 독자봉), 여을온(餘乙溫, 성산 온평리), 소수산악(小水山岳, 성산 수산리), 지말산악(只末山岳, 종달리 지미봉), 달산(達山, 달산봉), 토산(兎山, 토산악), 전월론(餞月論, 위미 자배봉), 호아촌(弧兒村), 삼매양(三買陽, 삼매봉)

---

23) 이 글은 고창석 교수(前 제주고고학연구소 소장)가 작성하였다.

대정현(5개소) : 송악(松岳山), 모슬포악(毛瑟浦岳, 모슬봉), 차귀악(遮歸岳, 당산봉), 굴산(堀山, 군산), 거옥악(居屋岳, 구산봉)

이상은 봉수망 설치 초기의 배치 상황이다. 이에 의하면『세종실록』의 내용과는 우선 제주목 지경에서 2곳, 정의현 지경에서 3곳 등 모두 5곳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한 곳의 차이이다. 그리고 이들 지역을 제주목의 사라악 봉수를 중심으로 우회시켜 서로 교신하는 곳을 연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사라악↔별도↔원당악↔입산악↔지말산악↔소수산악↔여을온↔오음사지악↔남산↔토산↔달산↔전월론↔호아촌↔삼매양↔거옥악↔굴산↔송악↔모슬포악↔차귀악↔판을포악↔고내악↔수산악↔도도리악↔(사라악)

그런데 이들 지역은 모두가 높은 산정에 위치하여 있는 것으로 보아 후일의 봉수 · 연대의 구분상 우선 봉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후 정비 과정에서 해안을 따라 연대가 설치되면서 산악을 중심으로 하는 봉수와 해안을 중심으로 하는 연대가 구분되고, 그에 따른 관할처나 봉수관의 배치도 차이가 나게 된다. 또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서 더욱 정비되어 나간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이후 선조 36년(1603) 제주에 어사(御史)로 왔던 김상헌(金尙憲)의『남사록(南槎錄)』에는 선박을 정박시킬 수 있는 곳으로 '소흘포(所訖浦)'를 거론하였다. 그 위치는 제주목에서 동쪽 15리에 있다고 하였다. '소흘포'는 지금의 삼양1동에 편제된 해안지대의 포구로서 민간에서 주로 '서흘개', 혹은 '설개'라 부르는 곳이다. 이 '소흘포'가 1770년대 제작된『제주삼읍도총지도(濟州三邑都總地圖)』에는 '서흘포(鉏訖浦)'로 표기하였다. 그런데 '鉏訖浦'의 '鉏'자가 호미 '서'자이므로 '소흘포', 혹은 '서흘포'는 주변 지형이 호미[鉏]처럼 생겼기 때문에 붙여진 지명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서(鉏)'라는 한자에 집착한 견강부회이다. 따라서 '서흘개', 혹은 '설개'는 돌들이 엉기정기 쌓인 곳을 뜻하는 제주방언 '설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 어떻든 '소흘포'나 '서흘포'는 이곳 주변에 마을이 이루어졌음을 뜻할 뿐 아니라 이곳 주민들이 바다를 통해 오가는 포구로서 자주 이용하였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포구의 명칭에서 자연히 주민이 사는 곳을 뜻하는 마을로서 차차 소흘촌(所訖村), 혹은 서흘촌(鉏訖村) · 서흘리((鉏訖里) 등으로도 표기되었다. 이리하여는 정조 10년(1786)경에 씌어진『제주읍지(濟州邑誌)』방리(坊里) 항목에는 '□흘리(□訖里)'라 하고, 그 마을의 형세를 기록하여 "동쪽으로 15리 거리에 있다. 민호(民戶)가 91호, 인구는 남자가 207명, 여자가 307명으로 합계 514명이다."라고 하였다. 또 뒷날 삼양동에 합쳐지는 '도련평리(道連坪里)'도 그 형세를 기록하여 "동쪽으로 □□3리 거리에 있다. 민호가 36호, 인구는 남자가 80명, 여자가 136명으로 합계 216명이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訖里'의 탈락된 '□' 부분의 글자는 '소(所)'이거나 '서(鉏)'로 보아진다. 그렇다면 '所訖里' 혹은 '鉏訖里'가 된다. 특히 후자의 경우,『제주읍지』보다 조금 뒤인 정조 13년(1789)에 씌어진『호구총수(戶口總數)』제주 중좌면(中左面) 항목에는 '서흘포리(鉏訖浦里)'로 표기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중좌면은 행정면이 아니라 유면(儒面)이었다.

즉, 유면은 향약 시행의 단위였다. 또한 유면은 정비되기 이전의 조선 전기의 행정면의 구실도 하였다. 숙종 원년(1675) 12월 제주목에서 지금의 한림읍 금악리 수산강씨(水山姜氏) 집안에 발급한 준호구(準戶口)에 '明月面 水流川里'라 한 것이 그 한 예이다. 원래 유면을 설치한 것은 문묘(文廟, 鄕校)와도 관계가 있다. 기강을 세우고 유학(儒學)을 권하여 마을에 가르침을 베풀고 마을의 풍속을 아름답게 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따라서 유면은 조선 후기로 가면서 정비된 행정적 차원의 면 · 리 제도와는 현저히 다른 것이었다. 조선 시대에 중앙에서 지방관이 파견되는 곳은 현(縣)까지였다. 그러므로 면(面)은 현의 하부 행정구역으로서 지방 자치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러므로 면은 수령의 관할이라기보다는 향소(鄕所) 또는 향약의 계통을 잇는 것이었다. 약정(約定) 등의 임원도 좌수(座首) · 별감(別監)의 추천에 의하여 수령이 임명하는 것이었다. 약정 등의 임무는 제주목과 대정 · 정의 두 현의 행정 단위와 일반 백성 사이에 개재하여 정령(政令)을 주지시키고 특히 조세를 독촉하는 등 지방 관청의 심부름이 주된 임무였다. 향소 또는 향약이란 명칭에서 보듯이 처음에는 향촌의 덕망가가 추대되어 교화로써 자치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으나 뒤에는 차차 그 역할이



삽도 1. 『耽羅巡歷圖』(한라장촉)에 나타난 옛 삼양동의 '소흘포(所訖浦)'

변질되어 나갔다.

조선 영조 41년(1765)경에 씌어진 『증보탐라지(增補耽羅誌)』(일본 天理大 소장) 제주목 면촌(面村) 항목에는 행정면과 유면이 혼성(混成)되어 있다. 즉, 제주목은 4개의 대면(大面, 行政面) 안에 12개의 소면(小面, 儒面)이 편제되어 있는 것이다(총 81 리), 좌면(左面, 18리)에 소속된 유면은 신촌면(新村

面, 4리) · 조천관면(朝天舘面, 5리) · 김녕면(金寧面, 5리) · 별방면(別防面, 4리) 등 4면이고, 중면(中面, 28리)에 소속된 유면은 중좌면(中左面, 10리) · 주중면(州中面, 10리) · 중우면(中右面, 8리) 등 3면이며, 신우면(新右面, 21리)에 소속된 유면은 귀일면(貴日面, 4리) · 엄장면(7리) · 애월면(10리) 등 3면이다. 또 구우면(舊右面, 14리)에 소속된 유면은 명월면(明月面, 9리) · 판을포면(板乙浦面, 5리) 등 2면이다. 그리고 대면에는 풍헌(風憲)이 각 1인이고, 소면에는 약정(約正)이 각 1인이다. 81리에는 경민장(警民長) · 권농(勸農) · 기찰장(機察官) · 포도(捕盜) · 존위(尊位) · 동장(洞長) · 이임(里任) · 색장(色掌) · 지심(指審) · 유사(有司)가 각각 1인이 있어서 함께 서무를 관장한다고 하였다.

광무(光武) 8년(1904)에 씌어진 『삼군호구가간총책(三郡戶口家間惣册)』에는 오늘날의 삼양동에 해당하는 마을로 삼양리(三陽里)와 도련리(道連里)가 편제되어 있다. 즉, 삼양리와 도련리는 제주목의 중면(中面)에 속한 25개 리에 포함되어 있다. 20세기 초반의 이 두 마을의 형세를 살펴보면, 삼양리는 "연가(烟家) 290호에 인구는 남자가 474명, 여자가 490명으로 합계 964명이며, 초가는 711칸"이라 하였으며, 도련리는 "연가 80호에 인구는 남자가 132명, 여자가 127명으로 합계 259명이며, 초가는 214칸"이라고 하였다. 1914년 4월 1일 군면(郡面) 폐합에 따라 제주군 제주면에 도련리와 삼양리가 나란히 편재되어 있다. 이때 도련리는 도련리와 삼양리, 봉개리의 일부를 합쳐서 마을이 형성되었고, 삼양리는 삼양리 일부로 형성되었다. 1931년 4월 1일에는 제주면이 읍(邑)으로 승격됨에 따라 두 마을은 자연히 제주읍에 소속되었다. 이후 두 마을은 1946년 8월 1일 군제(郡制) 실시에 따라 북제주군에 편입된다.

1955년 9월 1일에는 법률 제368호에 의하여 제주읍이 시(市)로 승격되면서 북제주군에서 제주시로 독립하여 40개 동(洞)을 관할하였다. 이때에 삼양동은 1동 · 2동 · 3동으로 나누어지고 도련동은 1동 · 2동으로 나누어져서 각각 제주시에 소속되었다. 1962년 1월 1일에는 동제(洞制) 실시에 따라 종전의 40개 동(洞)이 14개 행정동으로 축소되는 개편이 이루어졌는데, 이때에 삼양 1동 · 2동 · 3동과 도련 1동 · 2동을 합하여 삼양동으로 불리게 되었다. 삼양동이 3개 동으로 분화될 때 삼양1동은 전통적으로 삼양리의 중심 마을이었던 '설개'를 비롯하여 '동카름성창', '주구리' 등의 마을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삼양2동은 '가물개[甘水洞]' 마을을 중심으로 '들은돌[擧石洞]' 등이 포함되었으며, 삼양3동은 '검은여'와 '버렁' 등으로 불리는 마을을 중심으로 하여 구성되었다. 또한 도련1동은 '도련드르', 도련2동은 '매돈지(梅敦地)' 등의 마을을 중심으로 하여 각각 이루어졌다.

오늘날 흔히들 법화사(法華寺) · 수정사(水精寺) · 원당사(元堂寺)를 원(元) 나라 때에 세운 3대 사찰(寺刹)이라고 한다. 그러나 의심되는 것은 그 중 원당사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불우(佛宇) 항목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 책은 원래 성종 17년(1486)에 『동국여지승람』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간행되었다. 그 뒤 연산군 5년(1499)에 이를 교정하고 보충하여 다시 간행하였으나, 그 내용은 원본과 별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중종 25년(1530)에 재차 잘못된 부분을 교정하고 또 새로운 사실을 보충하여 간행하였는데, 이때에 증보된 내용에는 반드시 '신증(新增)'이란 두 글자를 넣어서 표시하였다. 그래서 책명도 『신증동국여지승람』이라 한 것이다.

그런데 원당사는 『동국여지승람』으로부터 재판인 연산군 때(책명은 동일함), 3판인 중종 때의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실려 있지 않는 것은 혹 이때에는 원당사가 없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 원당사는『남사록』에도 언급이 없으며, 효종 4년(1653)에 간행된『탐라지』에 이르러서 비로소 문헌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맹목적으로 구전을 받아들이기에 앞서 문헌학적(실제 문헌학적으로는 고증할 길이 없다), 고고학적 뒷받침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어쩌면 후대의 창건 사실이 호사가들에 의해 앞당겨지고 내용이 부연되어 구전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이와 관련하여 기황후(奇皇后, ?~1369)와 5층석탑과의 관련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제주도실기(濟州島實記)』(1934년) 건치연역 항목에는 원당사의 창건과 관련하여 "충렬왕 26년(1300)에 기황후가 또 소 · 말 · 나귀 · 양 등의 방목장을 수산평(首山坪; 水山坪)에 정하였다. 제주성(濟州城) 내 동해빈(東海濱)의 삼첩칠봉(三疊七峰, 지금의 元堂峰) 아래에 큰 절을 지어서 7층탑을 조각(造刻)하고 사자(使者)를 보내어 복을 빌며 원당(元堂)이라고 칭하니, 이로써 불교가 날로 왕성하였다."는 내용이 보인다. 제주시에서 세운 표지석에도 유산한 내용이 보인다. 그리고 칠층탑은 오층탑의 착오이다.

그런대 위 기사에서 말한 것처럼 원당사의 창건 연대가 충렬왕 26년이라면, 원 나라의 황실세계(皇室世系)를 참고할 때 기황후와 연계(連繫)지을 수가 없고, 반대로 기황후와 연계시키려면 원당사의 창건 연대는 그보다 훨씬 뒤로 물려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충렬왕 26년 무렵의 원 나라 황제는 2대 성종(成宗, 1296~1307)이고, 순제(順帝, 1333~1367)는 11대로 시기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원당사와 관련하여 황태자[愛猷識理達臘]의 탄생을 기원하여 절을 창건하였다고 하는 것은 기황후의 신분과 시기를 고려하지 않은 한낱 허구에 불과한 이야기다. 즉, 기황후가 원 나라 순제(順帝)의 궁녀로 들어간 것이 고려 충숙왕 복위 2년(1333) 12월이고, 그녀의 몸에서 황태자가 태어난 것은 충숙왕 복위 8년(1339) 겨울이었다. 또 이를 계기로 제2 황후가 된 것은 그 다음해인 충혜왕 복위 원년(1340) 4월이다. 적어도 제주도에 원찰(願刹)을 세울 정도의 신분이라면 제2 황후가 된 이후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황태자는 그 이전에 이미 태어났다. 따라서 궁녀의 신분으로 그것도 머나먼 제주도에 원찰을 짓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충령왕 26년(1300)은 기황후와 시기가 맡지 않을 뿐 아니라 기황후가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은 때인 것이다.

* 오층석탑은 '불탑사오층석탑'이라는 명칭으로 1993년 11월 19일에 보물 제1187호로 지정되었으나, 불탑사는 1914년에 재건된 사찰이므로 원래 있었던 원당사로 바꾸어서 보물의 명칭을 '원당사오층석탑'으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Ⅲ. 조사 방법 및 층위

1. 조사 방법

조사대상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양2동 2140-6번지이며 조사면적은 211㎡이다. 조사지역은 해발 20m 내외의 평탄대지상에 위치한다.

조사지역은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공지 상태였다. 조사는 시굴조사시 트렌치에서 확인된 층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구굴광선이나 유물이 확인되는 면까지 제토를 하였으며, 유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생토면까지 전면 제토를 원칙으로 하여 유구의 존재유무을 확인하였다.

유구내부조사는 주거지의 경우 격자보크, 수혈유구의 경우 '-'보크를 넣어 유구간의 중복관계와 유물출토 및 토층 단면을 확인하였다. 유구내부 조사를 한 후 유구평면 형태와 유물에 대한 실측조사와 토층 실측조사를 병행하여 유구의 축조양상과 중복유구에 대한 선·후축 관계를 파악하였다. 유구와 유물 실측 후 레벨측량과 사진촬영, 유물수습 등의 순차적 조사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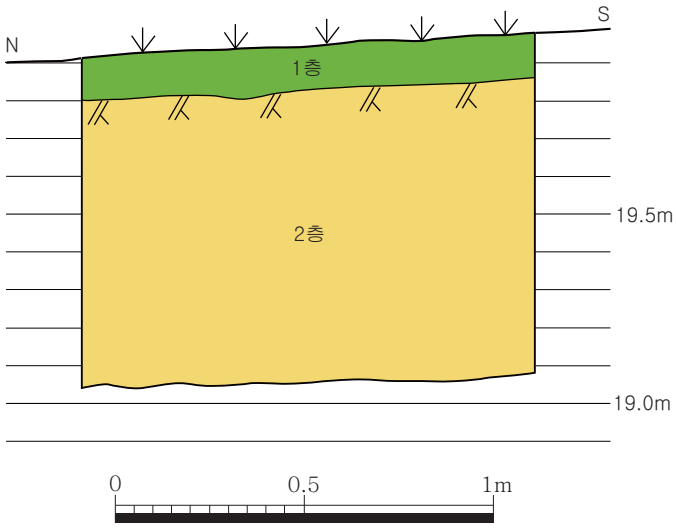
삽도 2. 조사대상지 위성사진(출처 naver)

2. 층위

조사대상지는 해안에서 한단 올라온 해발고도 약 20m 내외의 평탄한 대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조사대상지 주변은 모두 건물이 들어서 있으며 비교적 평탄한 대지를 이루고 있다. 조사대상지의 지형은 남에서 북으로 완만하게 경사져 내려가고 있다.

층위조사는 전면제토 결과 표토층 밑으로 생토층이 바로 확인되었다. 삼양동일대에서 확인되는 문화층 및 사구층 등은 택지 구획정리 당시 삭평된 것으로 판단된다. 모두 2개 층으로 나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Ⅰ층 : 암갈색사질점토층이다. 표토층으로 층의 두께는 10~20㎝ 이다.
② Ⅱ층 : 적갈색점토+황갈색점토층으로 생토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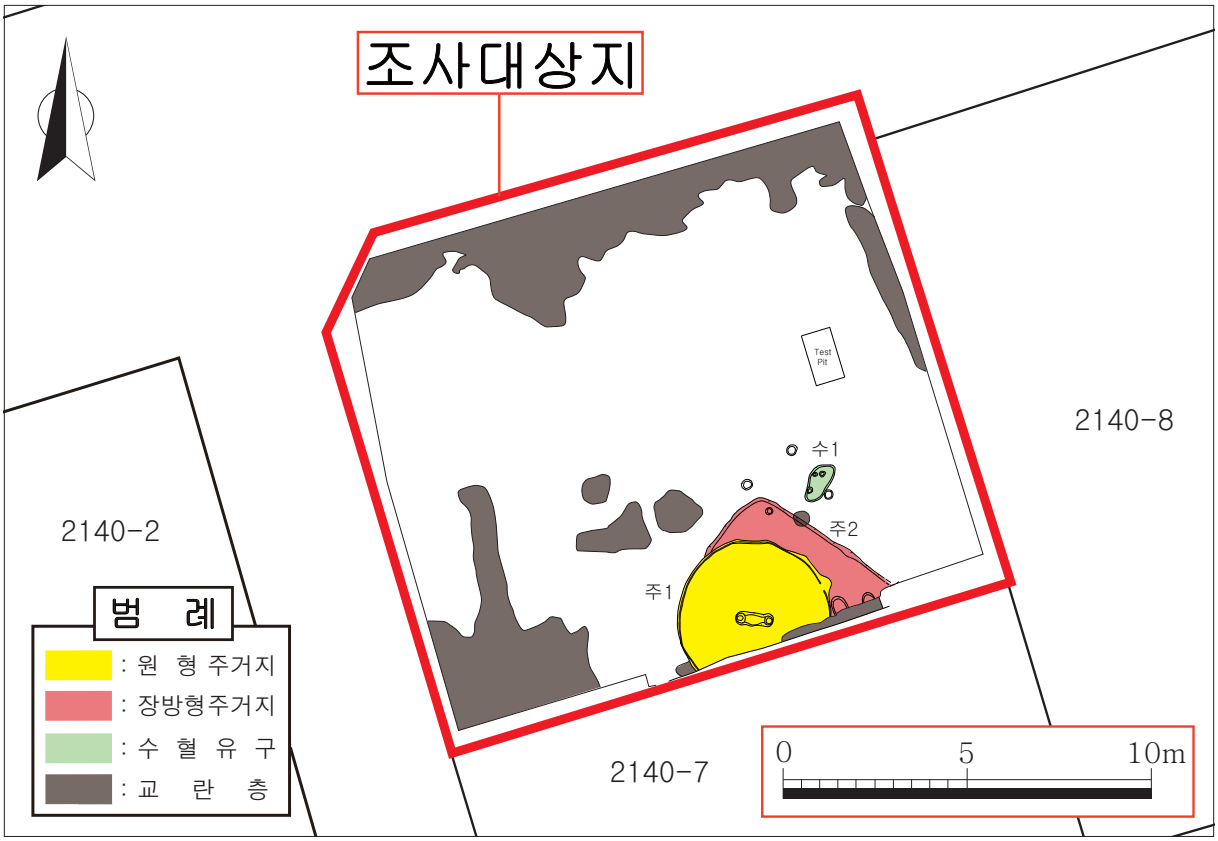


삽도3. 조사대상지 층위

Ⅳ. 조사 내용

조사대상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양2동 2140-6번지이며 조사면적은 211㎡이다. 조사대상지는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공지 상태였다.

발굴조사결과 조사대상지의 북쪽 경계는 상당부분 교란되었으며, 유구가 확인되지 않았다. 유구가 확인되는 남쪽 일부를 제외하고 부분적으로 교란된 흔적이 확인되었다. 유구가 확인되는 남쪽에서는 주거지 2동과 수혈유구 1기 및 주혈이 확인되어 조사가 이루어졌다. 발굴조사된 유구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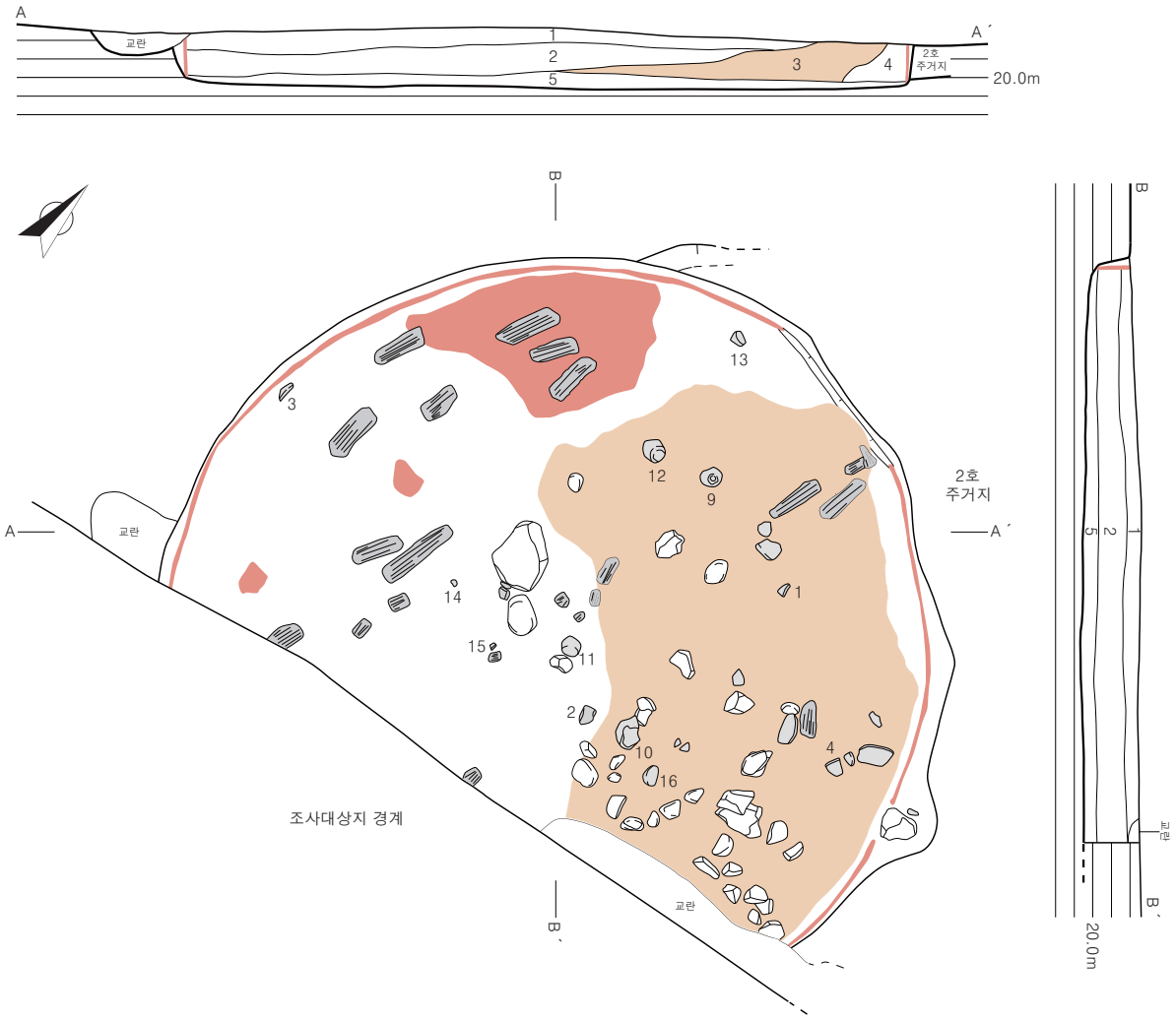
도면 7. 조사대상지 유구배치도

1. 주거지

1) 1호 주거지

가. 유구(도면 8 · 9, 도판 2~8)

1호 주거지는 조사대상지의 남쪽 가장자리에 위치하며, 2호 주거지의 서벽을 대부분 파괴하여 후축되었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조사대상지의 남쪽 경계로 1/3 가량 연장되고 일부 교란되어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지만 원형으로 추정된다. 규모는 잔존장축 354㎝(추정장축 420㎝), 잔존단축 300㎝, 깊이 25㎝이며, 장축각도는 N76°W이다. 주거지는 생토층을 굴착하여 축조되었다. 벽체는 주거지의 북벽과 동벽 일부를 제외하고 2~3㎝의 두께로 수직에 가깝게 불다짐처리되어 보강되었다. 바닥면은 북서쪽 벽체 부근과 동쪽 벽체 부근에 일부 불다짐처리로 보강되었으며, 그 외에는 점토다짐으로 편평하게 마무리하였다. 주거지의 내부퇴적토는 총 5개의 층이 확인되었다. 1층은 흑갈색사질점토층으로 소량의 목탄 및 소토알갱이가 혼입되었다. 층의 두께는 8~14㎝이다. 2층은 암갈색점토층으로 다량의 목탄 및 소토알갱이와 토기편이 혼입되었다. 층의 두께는 10~18㎝이다. 3층은 암갈색사질점토+소토층이며 층의 두께는 3~20㎝이다. 주거지 동쪽 벽체에서 중앙으로 완만한 경사를 보이며 퇴적된 것으로 보아 야외노지와 같은 유구로 재활용되었다기보다는 인위적으로 폐기된 층으로 판단된다. 4층은 흑갈색점토층으로 미량의 목탄 및 소토알갱이가 혼입되었다. 동쪽 벽체 부근에 일부 퇴적되었으며 층의 두께는 20㎝이다. 5층은 소토 및 목탄알갱이가 혼입된 암갈색점토층으로 탄화된 목재가 넘어진 상태로 확인되었다. 층의 두께는 3~8㎝이다. 1차 하강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거지의 중앙에서 동벽까지 소토층이 확인되었다. 소토층 내부에는 다량의 소토알갱이 및 소토덩어리가 유물과 천석 및 할석이 혼재된 상태로 확인되었다. 반면 소토층이 퇴적되지 않은 주거지 서쪽은 소토 및 목탄알갱이와 점토가 혼재된 층에서 벽체 부근을 중심으로 탄화된 목재가 확인되었다. 소토층 하부로는 탄화된 목재가 벽체를 중심으로 남-북 방향, 불다짐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북벽 중간 레벨에서 탄화된 목재가 주거지 안으로 넘어진 채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화재주거지인 것으로 추정된다. 주거지 내부시설로는 중앙에 타원형수혈이 확인되었다. 타원형수혈의 규모는 장축 102㎝, 단축 35㎝, 깊이 6㎝이다. 타원형수혈 양단 내부로 각각 주혈이 확인된다. 동쪽 주혈은 장축 25㎝, 단축 23㎝, 깊이 20㎝이다. 동쪽 주혈 상부에는 직경 18㎝의 목주흔이 확인되며, 목주흔 밑으로 직경 12㎝의 대석 1매가 확인된다. 서쪽 주혈은 장축 26㎝, 단축 25㎝, 깊이 20㎝이다. 동쪽 주혈 하부에는 직경 8㎝ 내외의 대석 2매가 확인되며 서쪽 주혈 대석의 레벨과 동일하다. 양단 주혈 모두 이단 굴광되었다. 유물은 주로 소토층에서 할석과 혼재되어 확인되었으며, 소토층이 없는 부분에서도 바닥면에서 뜬 상태로 소량 출토되었다. 토기류는 직립구연토기, 경질무문토기, 소성실패토기, 방추차 등이 확인되었다. 석기류는 석착, 고석, 지석, 갈돌 등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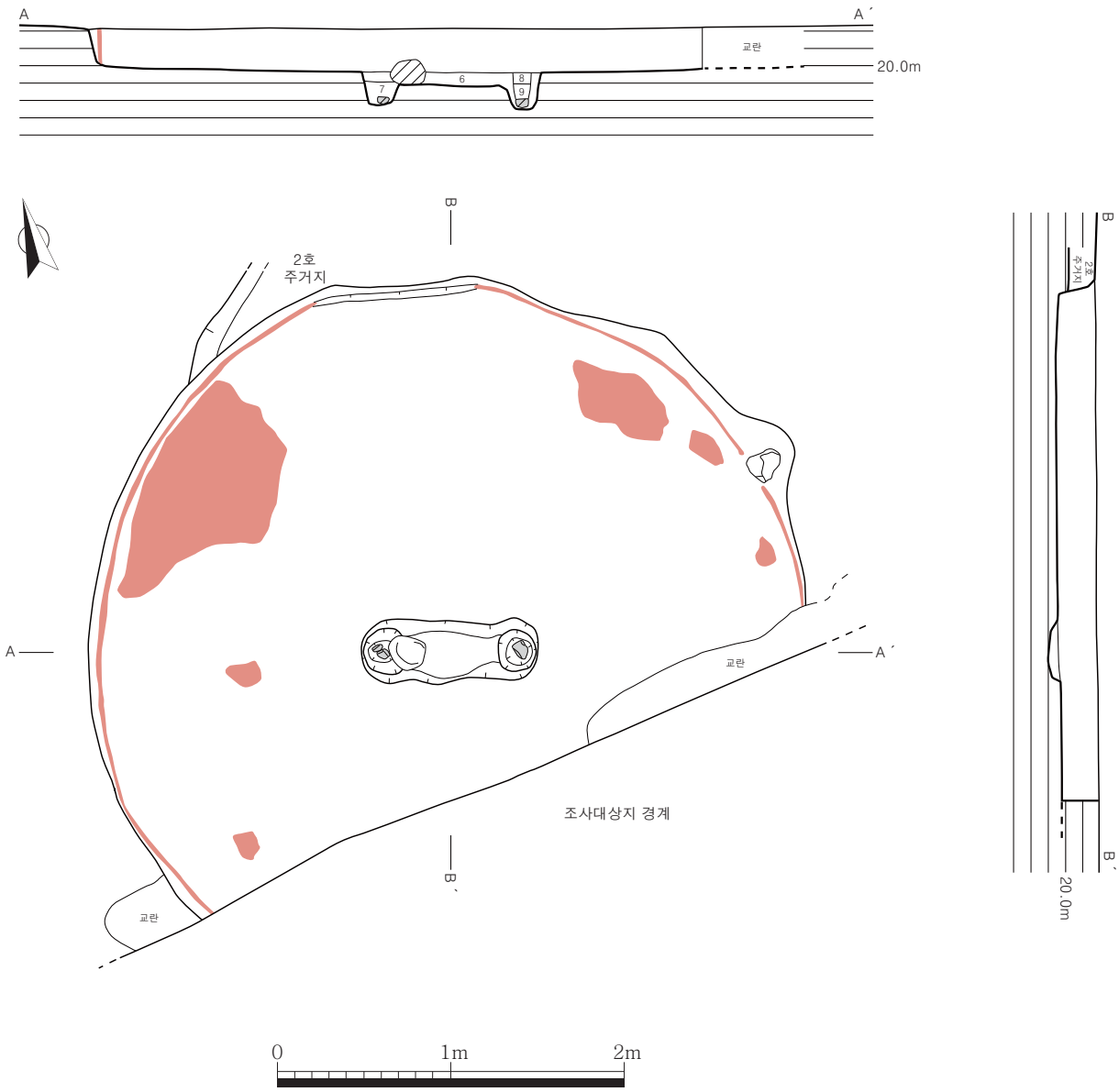


: 소 결 면
: 소 토 층
: 탄화목재
: 초 석

1층 : 흑갈색사질점토
2층 : 암갈색점토
3층 : 암갈색사질점토+소토층
4층 : 흑갈색점토
5층 : 암갈색점토
6층 : 암갈색사질점토
7층 : 흑색점토
8층 : 흑갈색점토
9층 : 흑색점토

0 1m 2m

도면 8. 1호 주거지 1차 조사 후 평 · 단면도



도면 9. 1호 주거지 조사 완료 후 평 · 단면도

나. 유물

1. 구연부편(도면 10-1, 도판 13-1)

경질무문토기 구연부편이다. 구연부는 외반하며 구순단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색조는 내 · 외면 및 속심 모두 적갈색조를 띤다. 태토보강재로 석립이 혼입되었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정면수법은 내면에서 지두흔이 일부 관찰된다.

현고 16.9㎝, 두께 0.5~0.7㎝

2. 구연부편(도면 10-2, 도판 13-2)

경질무문토기 구연부편이다. 구연부는 외반하며 구순단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색조는 외면은 적갈색조와 회색조가 혼재되었으며 내면과 속심은 적갈색조를 띤다. 태토보강재로 석립이 혼입되었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정면수법은 내 · 외면에서 지두흔이 관찰된다.

현고 12.8㎝, 두께 0.4~0.9㎝

3. 구연부편(도면 10-3, 도판 13-3)

경질무문토기 구연부편이다. 구연부는 외반하며 구순단은 편평하게 처리되었다. 색조는 내 · 외면 및 속심 모두 적갈색조를 띤다. 태토보강재로 석립이 혼입되었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정면수법은 외면에서 빗질흔, 내면에서는 지두흔이 관찰된다.

현고 9.7㎝, 두께 1.1~1.4㎝

4. 구연부편(도면 10-4, 도판 13-4)

경질무문토기 구연부편이다. 구연부는 외반하며 구순단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색조는 내 · 외면 및 속심 모두 황갈색조를 띤다. 태토보강재로 석립이 혼입되었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정면수법은 내 · 외면에서 지두흔이 관찰된다.

현고 7.3㎝, 두께 0.6~1.1㎝

5. 구연부편(도면 11-5, 도판 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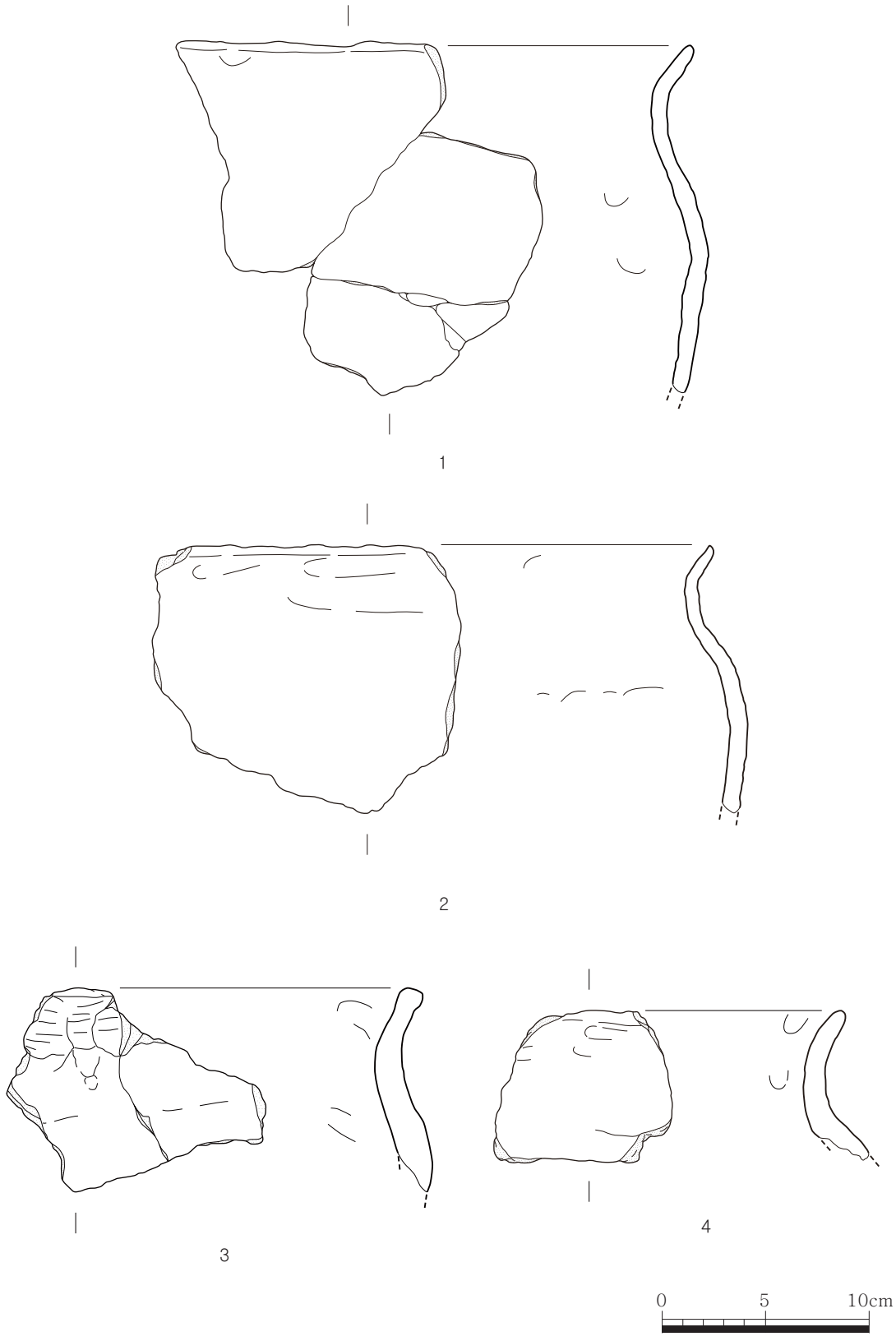
직립구연토기 구연부편이다. 구연부만 잔존하며 구순단은 편평하게 처리되었다. 색조는 내 · 외면 및 속심 모두 적갈색조를 띤다. 태토보강재로 석립이 혼입되었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정면수법은 내면 상부에서 지두흔이 관찰된다.

현고 8.2㎝, 두께 0.5~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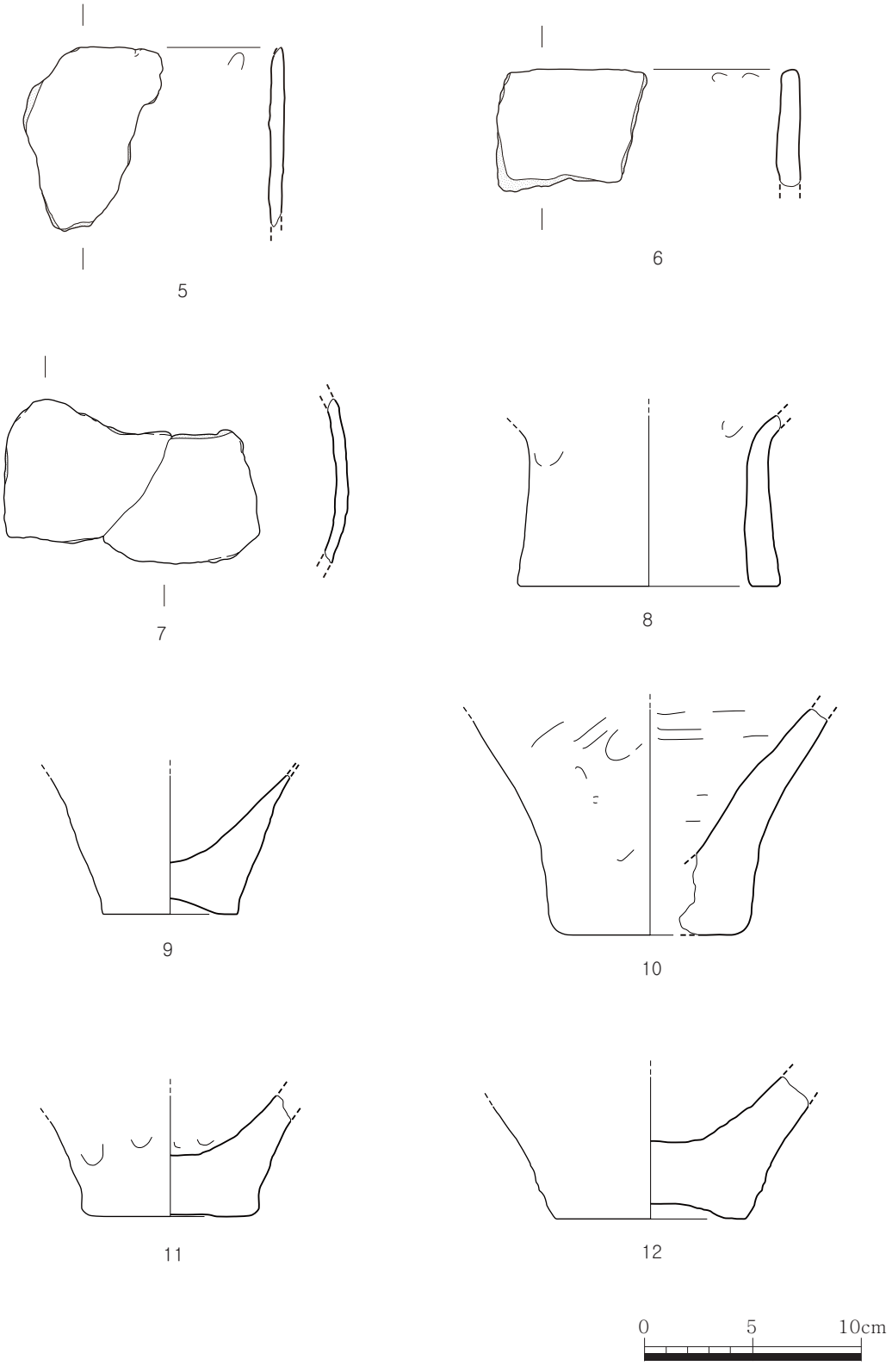
6. 구연부편(도면 11-6, 도판 13-6)

경질무문토기 구연부편이다. 구연부는 살짝 외반하며 구순단은 편평하게 처리되었다. 색조는 내 · 외면 및 속심 모두 황갈색조를 띤다. 태토보강재로 세석립이 혼입되었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정면수법은 내면 상단에서 지두흔이 관찰된다.

현고 5.3㎝, 두께 0.8~1.1㎝



도면 10. 1호 주거지 출토유물(1~4)



도면 11. 1호 주거지 출토유물(5~12)

7. 동체부편(도면 11-7, 도판 13-7)

연질토기 동체부편이다. 외지산 연질토기로 동체부 일부만 잔존한다. 색조는 내 · 외면 및 속심 모두 황갈색조를 띤다. 태토보강재로 석영과 사립이 혼입되었다.

길이 7.5㎝, 두께 0.5~0.6㎝

8. 대각편(도면 11-8, 도판 13-8)

두형토기 대각편이다. 대각은 나팔상으로 벌어지고 있다. 색조는 적갈색조와 암갈색조가 혼재되어 있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보강재로 현무암 석립이 혼입되었다. 정면수법은 외면에서 물손질흔과 지두흔이 관찰된다.

현고 7.8cm, 저경 12cm, 두께 0.6~1.4cm

9. 저부편(도면 11-9, 도판 13-9)

경질무문토기 저부편이며 굽저부이다. 저부에서 동체부로 직립하다 완만하게 올라가는 기형이다. 색조는 내 · 외면 및 속심 모두 적갈색조를 띤다. 소성상태는 불량한 편이며 동체상부로 박리가 진행 중이다. 태토보강재로 현무암 석립이 혼입되었다.

현고 6.3㎝, 저경 6.2㎝, 두께 0.3~2.2㎝

10. 저부편(도면 11-10, 도판 13-10)

경질무문토기 저부편이며 편평저부이다. 저부에서 동체부로 직립하다 완만하게 올라가는 기형이다. 색조는 내 · 외면 및 속심 모두 적갈색조를 띤다. 소성상태는 불량한 편이며 박리가 진행 중이다. 태토보강재로 현무암 석립이 혼입되었다. 정면수법은 내 · 외면에서 지두흔과 판상구 조정흔이 관찰된다.

현고 10.3㎝, 저경 8㎝, 두께 1.1~2.3㎝

11. 저부편(도면 11-11, 도판 13-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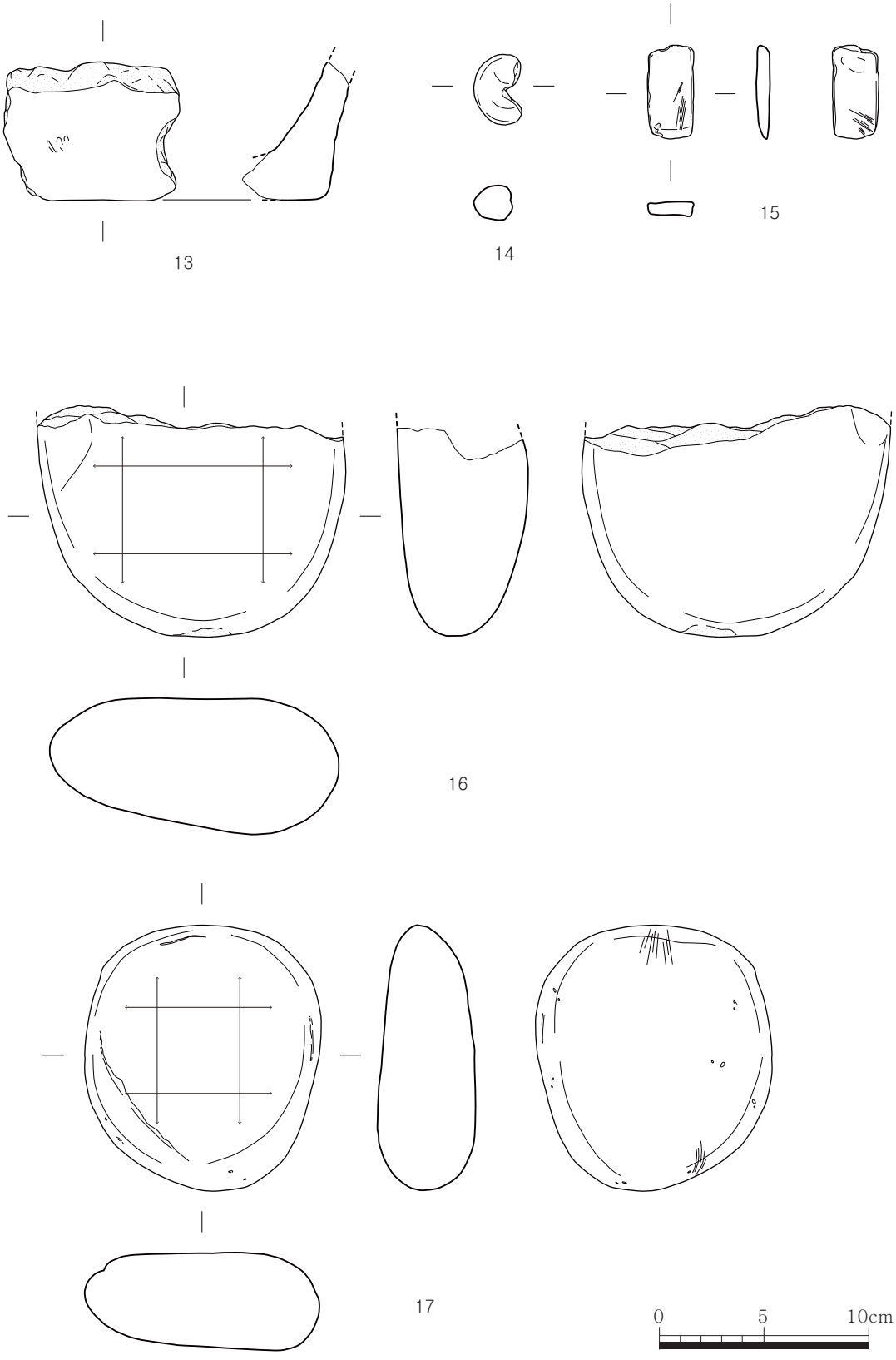
경질무문토기 저부편이며 편평저부이다. 저부에서 동체부로 직립하다 완만하게 올라가는 기형이다. 색조는 내면과 속심은 적갈색조, 외면은 회백색조를 띤다. 소성상태는 불량한 편이며 외면에서 고온으로 인해 녹아내린 흔적이 확인된다. 태토보강재로 현무암 세석립이 혼입되었다. 정면수법은 내 · 외면에서 지두흔이 관찰된다.

현고 5.45㎝, 저경 8㎝, 두께 1.4~2.4㎝

12. 저부편(도면 11-12, 도판 13-12)

경질무문토기 저부편이며 바닥이 오목하게 들어간 형태의 굽저부이다. 저부에서 동체부로 완만하게 올라가는 기형이다. 색조는 내 · 외면 및 속심 모두 적갈색조를 띤다. 소성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태토보강재로 현무암 석립이 혼입되었다.

현고 6.5㎝, 저경 8.8㎝, 두께 2~2.7㎝



도면 12. 1호 주거지 출토유물(13~17)

13. 저부편(도면 12-13, 도판 14-13)

경질무문토기 저부편이며 저부는 편평저부이다. 저부에서 동체부로 직립하다 완만하게 올라가는 기형이다. 색조는 내 · 외면 및 속심 모두 적갈색조를 띤다. 소성상태는 양호한 편이며 태토보강재로 현무암 석립이 혼입되었다.

현고 6.5㎝, 두께 1.4~2.6㎝

14. 방추차편(도면 12-14, 도판 14-14)

토제 방추차로 반파되었다. 잔존하는 단면형태를 보아 주판알형으로 추정된다. 중앙에 투공되어 있다. 색조는 적갈색조를 띤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보강재로 현무암 석립이 혼입되었다.

직경 2.3㎝, 두께 1.4㎝~1.6㎝

15. 석착(도면 12-15, 도판 14-15)

안산암제 석착이다. 전체적인 평면형태는 세장방형, 단면형태는 장방형이다. 전면과 인부에서 마연흔이 집중적으로 확인된다.

길이 4.45㎝, 너비 2.2㎝, 두께 0.4~0.65㎝

16. 지석(도면 12-16, 도판 14-16)

조면암제 지석이다. 전체적인 평면형태는 타원형일 것으로 추정되며 반파되어 일부만 남아있다. 단면형태는 타원형이다. 전면에 마연이 이루어졌고 하단부로 고타흔이 일부 확인된다.

길이 9.9㎝, 너비 13.8㎝, 두께 4.2~6.4㎝

17. 석착(도면 12-17, 도판 14-17)

조면암제 지석이다. 천석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전체적인 평면형태는 원형에 가깝고 단면형태는 타원형이다. 전면에 마연이 이루어졌다.

길이 12.6㎝, 너비 11.2㎝, 두께 2.55~4.4㎝

18. 갈돌(도면 13-18, 도판 14-18)

다공질 현무암제 갈돌이다. 평면형태는 장타원형이며 단면형태는 제형에 가깝다. 하단부는 사용으로 인하여 편평하게 마연되었다.

직경 16.6㎝, 너비 7.4㎝, 두께 4.6~7.4㎝

19. 고석(도면 13-19, 도판 14-19)

조면암제 고석이다. 평 · 단면형태는 타원형에 가깝다. 하단에서 고타흔이 집중적으로 관찰된다.

길이 11.4㎝, 너비 8.7㎝, 두께 3.8~6.6㎝



도면 13. 1호 주거지 출토유물(18~20)

20. 갈돌(도면 13-20, 도판 14-20)

다공질 현무암제 갈돌로 추정된다. 대부분 결실되어 일부만 남아 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추정되며 단면형태는 장방형이다. 전면에 사용흔이 관찰된다.

길이 8.7㎝, 너비 14.6㎝, 두께 2.9~3.9㎝

2) 2호 주거지

가. 유구(도면 15, 도판 9 ·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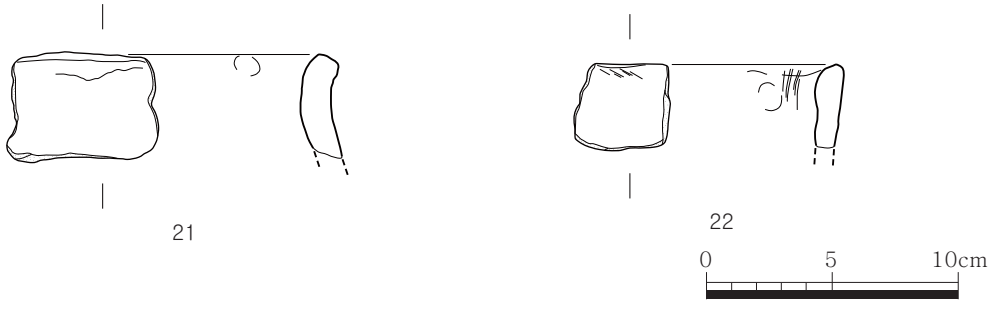
2호 주거지는 조사대상지의 남쪽 가장자리에 위치하며, 후축된 1호 주거지에 의해 서벽 대부분이 파괴되었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조사대상지의 남쪽 경계로 연장되고 일부 교란되어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지만 장방형으로 추정된다. 규모는 잔존장축 435㎝, 잔존단축 149㎝, 깊이 18㎝이며, 장축각도는 N47°W이다. 주거지는 생토층을 굴착하여 축조되었다. 주거지 남쪽의 상부퇴적층에서 암갈색사질점토가 퇴적된 주혈 2기가 확인되는데, 이는 주거지가 폐기된 이후에 후축된 것으로 판단된다. 벽체는 생토층을 이용하여 완만한 경사로 내려가며, 주거지 상면 역시 별다른 보강 없이 편평하게 마무리하였다. 1차 하강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부시설로는 주거지의 북쪽 모서리 인근에 주혈 1기가 확인되었다. 주혈의 규모는 장축 21㎝, 단축 19㎝, 깊이 4㎝이다. 주거지와 주혈의 내부퇴적토는 암갈색 사질점토층으로 미량의 목탄 및 소토알갱이가 혼입된 단일층이다. 출토유물은 내부퇴적토와 혼재되어 소량의 토기편이 확인되었다.

나.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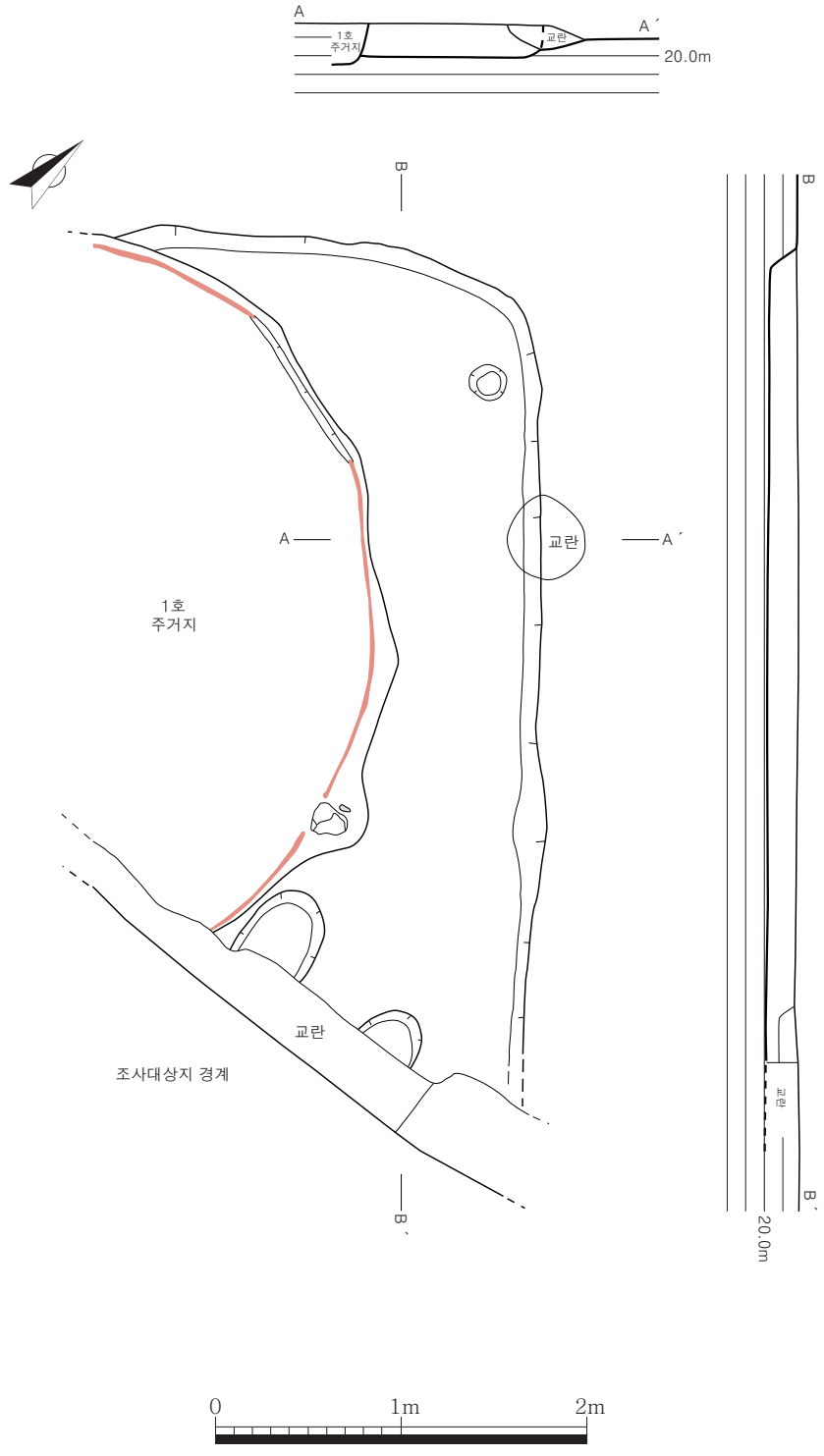
21. 구연부편(도면 14-21, 도판 14-21)

경질무문토기 구연부편이다. 구연부는 외반하며 구순단은 편평하게 처리되었다. 색조는 내 · 외면 및 속심 모두 황갈색조를 띤다. 태토보강재로 석립이 혼입되었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정면수법은 내면에서 지두흔이 관찰된다.

현고 4.1㎝, 두께 1.2㎝



도면 14. 2호 주거지 출토유물(21 · 22)



도면 15. 2호 주거지 평 · 단면도

22. 구연부편(도면 14-22, 도판 14-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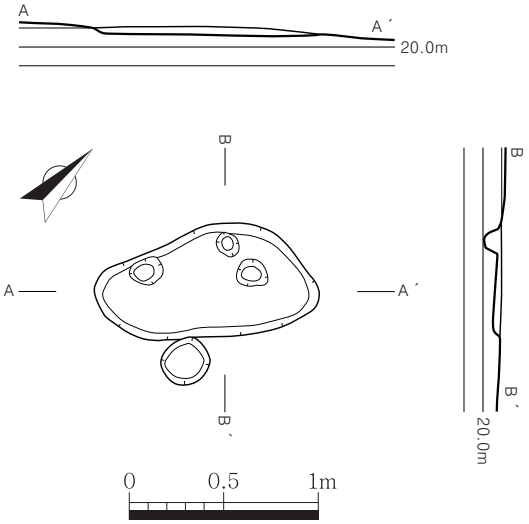
경질무문토기 구연부편이다. 구연부는 직립하며 구순단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색조는 내 · 외면은 적갈색조, 속심은 흑회색조를 띤다. 태토보강재로 세석립이 혼입되었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정면수법은 내면에서 지두흔이 관찰된다.

현고 3.3㎝, 두께 0.8~1.0㎝

2. 수혈유구

가. 유구(도면 16, 도판 11)

1호 수혈유구는 조사대상지의 남동쪽에 위치하며, 2호 주거지에서 동쪽으로 0.5m 이격되었다. 수혈유구의 평면형태는 부정형이다. 규모는 장축 117㎝, 단축 59㎝, 깊이 3㎝이며, 장축각도는 N47°E이다. 수혈유구는 생토층을 굴착하여 축조되었다. 벽체는 생토층을 이용하여 완만한 경사로 내려가며, 바닥면 역시 별다른 보강 없이 편평하게 마무리하였다. 1차 하강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부시설로는 수혈유구의 북벽과 동벽에 인접하여 각각 주혈 1기, 북쪽 내부에 주혈 1기가 확인되었다. 북벽에 인접한 주혈은 장축 15㎝, 단축 11㎝, 깊이 5㎝이다. 동벽에 인접한 주혈은 장축 18㎝, 단축 15㎝, 깊이 7㎝이다. 북쪽 내부 주혈은 장축 17㎝, 단축 14㎝, 깊이 3㎝이다. 수혈유구와 주혈의 내부퇴적토는 암갈색사질점토층으로 미량의 목탄과 소량의 소토덩어리가 혼재된 단일층이다. 출토유물은 내부퇴적토와 혼재되어 소량의 토기편이 확인되었다.



도면 16. 1호 수혈유구 평 · 단면도

Ⅴ. 맺음말

제주시 삼양2동 2140-6번지 유적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양2동 2140-6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발굴조사이며 조사면적은 211㎡이다. 조사대상지가 위치한 삼양동 일대는 신석기시대부터 철기시대에 해당하는 다수의 유적(선사취락, 지석묘, 옹관묘 등)이 분포하고 있다. 조사대상지와 인접한 유적으로는 삼양동 선사유적, 제주 삼양초등학교 유적, 제주 삼화지구 유적 등이 있다.

조사대상지는 해안에서 한단 올라온 해발고도 약 20m 내외의 평탄한 대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조사대상지 남쪽은 삼화지구택지개발지구로 해안에서 한단 올라가 있으며 조사대상지 동쪽은 하천방향으로 경사져 내려가는 지형을 보이고 있다. 조사지역은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공지 상태였다. 층위조사 결과, 표토층 하단으로 바로 생토층이 확인되는 단순한 층위가 확인되었다. 삼양동일대에서 확인되는 문화층 및 사구층 등은 택지 구획정리 당시 삭평된 것으로 판단된다.

발굴조사 결과, 주거지 2동과 수혈유구 1기 및 주혈이 확인되었다. 1호 주거지는 평면형태가 원형으로 판단되며, 주거지 벽체와 바닥 일부분에 불다짐처리로 보강되었다. 이러한 주거지는 삼양동 유적 Ⅱ-1지구 11호·15호 주거지, Ⅱ-2지구 4호 주거지, Ⅲ지구 1호 주거지, Ⅵ-2지구 1-2호 주거지, 용담동 유적 5호 주거지, 용담2동 2625-16번지 유적 2호 주거지가 있다. 2호 주거지는 평면형태가 장방형으로 판단되며, 주거지 벽체와 바닥면은 생토층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1호 수혈유구는 평면형태가 부정형이며 내부에서 주혈 3기가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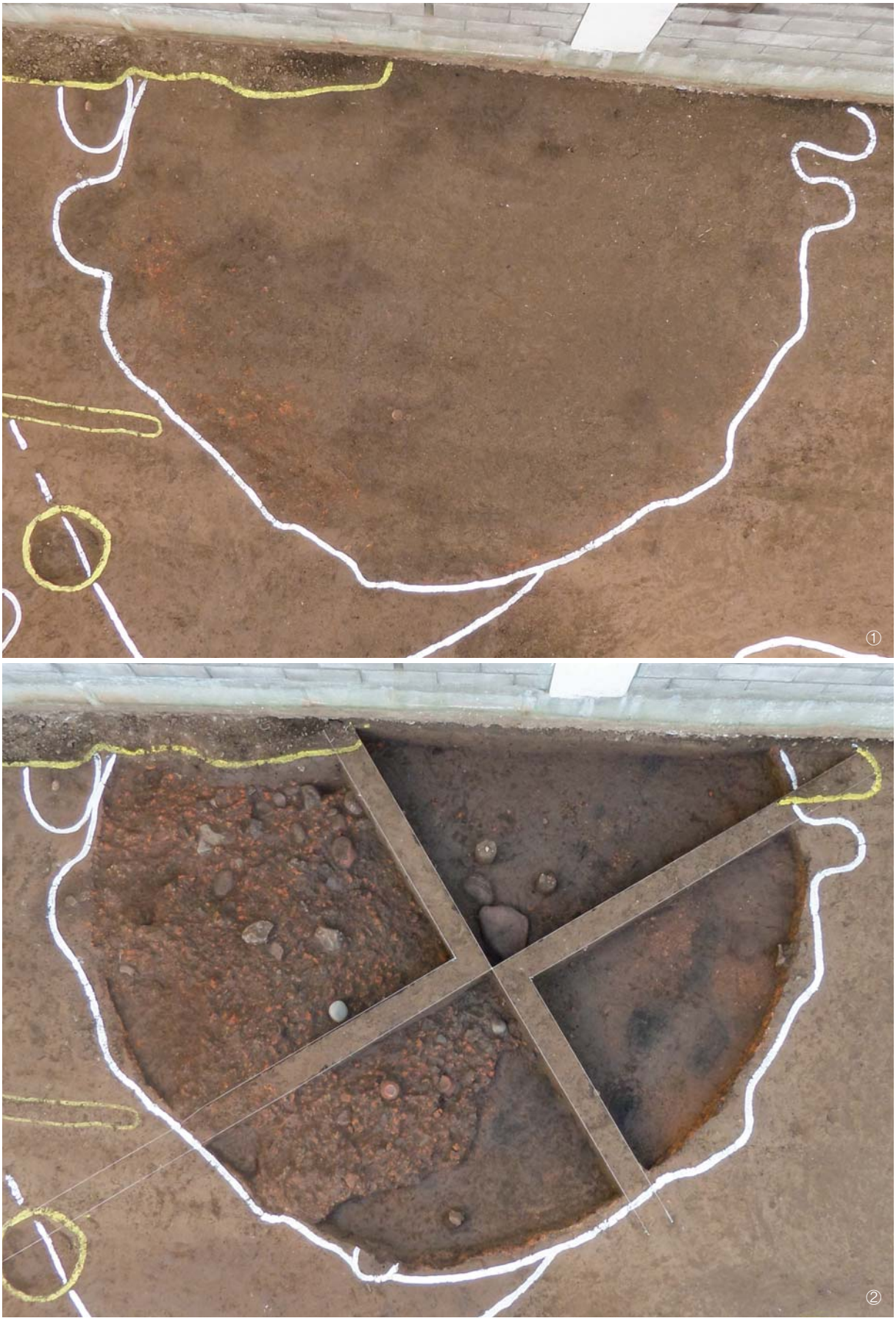
출토유물은 1호 주거지에서 대부분 확인되며 2호 주거지와 1호 수혈유구에서는 자잘한 토기편이 출토되었다. 토기류로는 직립구연토기, 경질무문토기, 소성실패토기, 방추차 등이 있다. 직립구연토기의 경우 태토가 두터우며, 경질무문토기의 경우 삼양동식토기와 외반 정도가 유사하다. 그리고 저부는 대부분 축약된 굽저부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아 삼양동 유적의 중심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석기류는 석착, 고석, 지석, 갈돌 등이 출토되었다.

본 유적에서 조사된 유구는 삼양동 일대 송국리형 취락유적의 일부로 판단된다. 이번에 조사한 유적은 송국리형주거지와 장방형주거지의 선후관계와 함께 제주도 송국리형주거지 연구에 있어 매우 좋은 학술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

도 판



도판 1. 조사대상지 원경(①), 조사대상지 북쪽 경계 교란층 전경(②)



도판 2. 1호 주거지 조사 전 전경(①), 1호 주거지 1차 조사 후 전경(②)



도판 3. 1호 주거지 1차 조사 후 출토유물(①~⑧)



도판 4. 1호 주거지 내부 소토층 전경 및 세부(① · ②)



도판 5. 1호 주거지 토층(①~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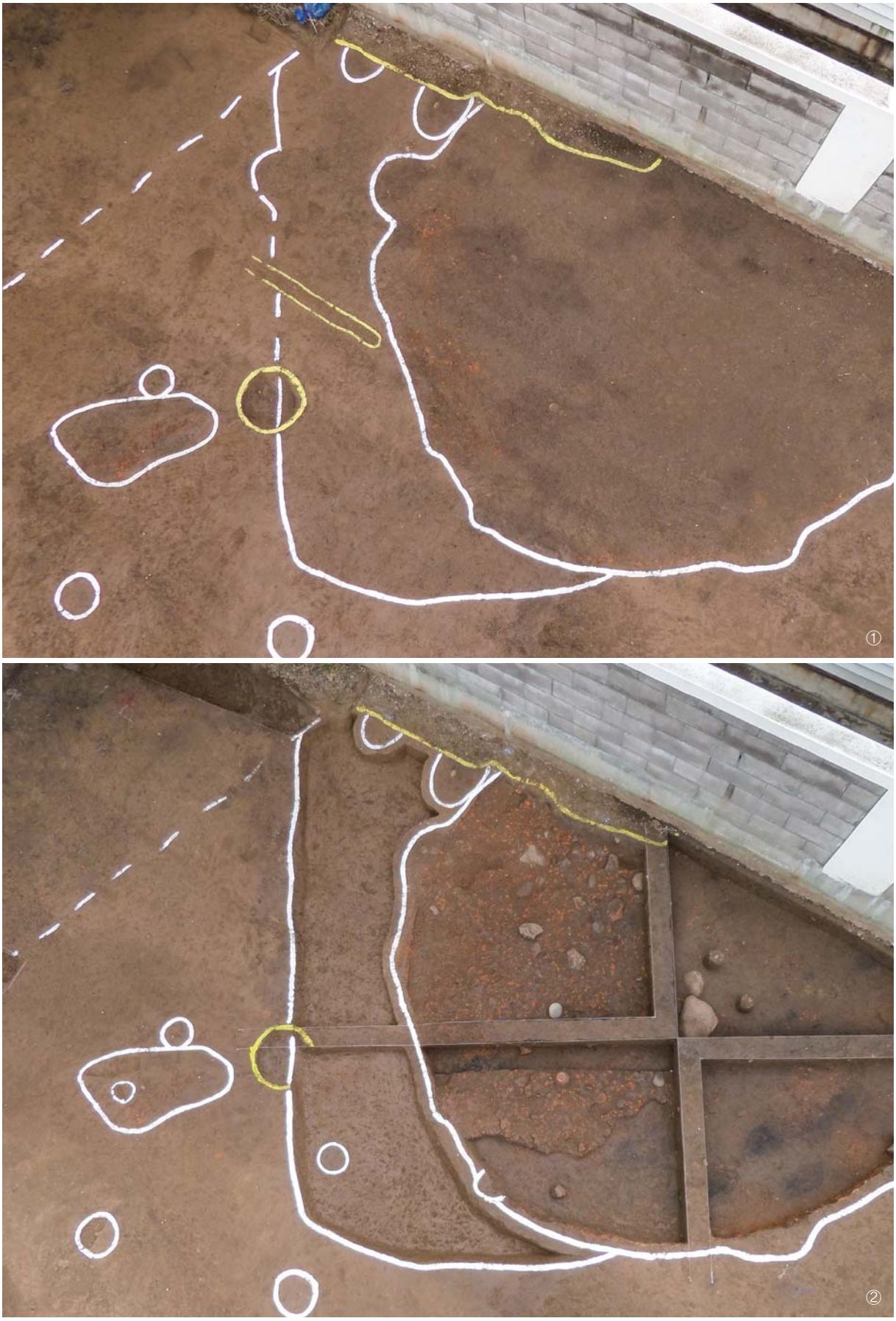
도판 6. 1호 주거지 2차 조사 후 전경(①), 1호 주거지 2차 조사 후 출토유물(②~⑤)



도판 7. 1호 주거지 내부 탄화 목재 세부(① ·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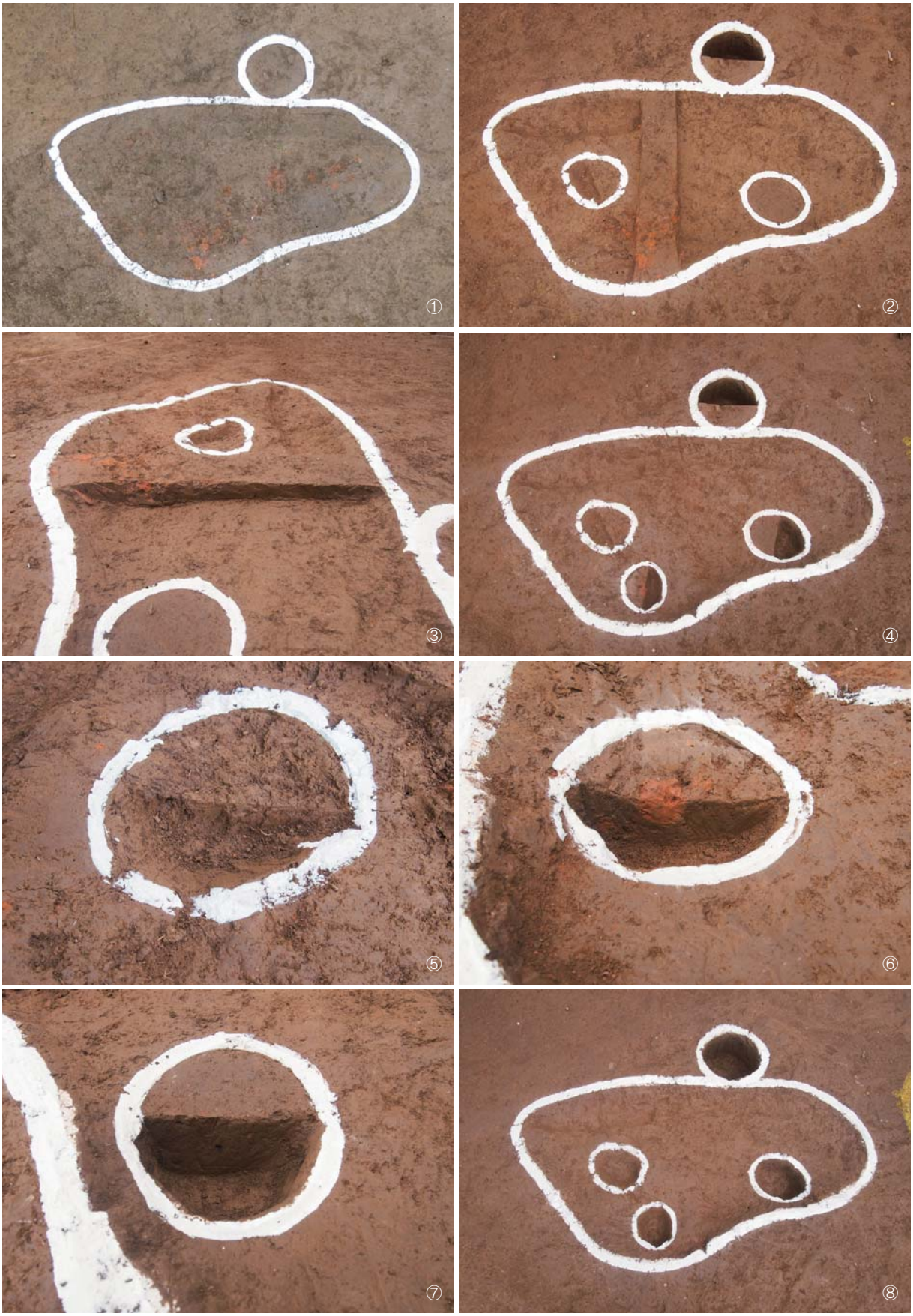
도판 8. 1호 주거지 불다짐벽체 전경 및 세부(① · ②)



도판 9. 2호 주거지 조사 전 전경(①), 2호 주거지 1차 조사 후 전경(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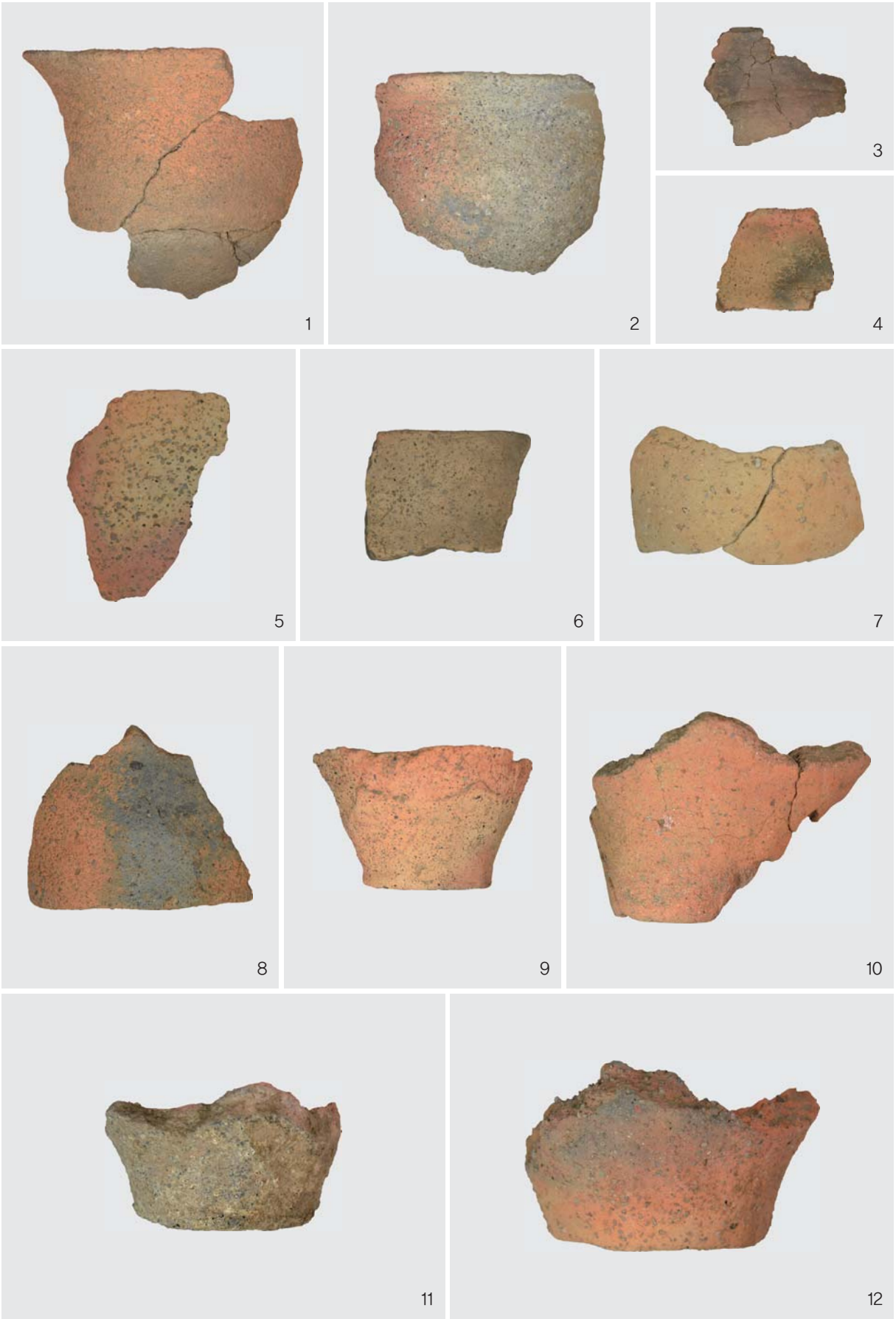
도판 10. 2호 주거지 토층(①), 2호 주거지 내부 주혈 조사과정(②~④), 2호 주거지 조사 완료 후 전경(⑤)



도판 11. 1호 수혈유구 조사 전 전경(①), 1호 수혈유구 1차 조사 후 전경(②), 1호 수혈유구 토층(③), 1호 수혈유구 2차 조사 후 전경(④), 1호 수혈유구 내부 주혈 토층(⑤~⑦), 1호 수혈유구 조사 완료 후 전경(⑧)



도판 12. 자문회의 모습(① · ②)



도판 13. 1호 주거지 출토유물(1~12)



도판 14. 1호 주거지 출토유물(13~20), 2호 주거지 출토유물(21 · 22)

부 록

발굴조사 자문회의 의견서

1. 제주시 삼양2동 2140-6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문화재 발굴조사 자문회의

○ 일　　시 : 2017년 12월 7일(목)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양2동 2140-6번지
○ 자 문 위 원 : 고 재 원(제주문화유산연구원)
　　박 용 범(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1) 유적 현황 및 성격

○ 유적은 삼양동선사유적 인근에 위치하며 조사결과 원형주거지 1동, 방형주거지 1동, 수혈유구 1기가 조사되었다. 삼양동 선사유적과 동일한 시기의 유적으로 보임.

2) 조사기관 의견 검토

○ 조사지역내의 전면발굴조사가 이루어졌기에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졌음.

3) 추가 의견

○ 기록 보존하고 추후 사업에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자문위원 의견서

유적 명칭	제주시 삼양2동 2140-6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제2017-1413)		
유적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양2동 2140-6번지		
조사 면적	211㎡	조사기관	(재)제주고고학연구소
조사 기간	2017.11.28~2017.12.22	회의 일시	2017.12.07(13시00분)
유적 현황 및 성격	유적은 삼양동선사유적 안에 위치해서 주거지나 환호등 일반고고학적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삼양동선사유적의 중심지역의 위치로 보아.		
조사기관 의견 검토	조사지역내의 퇴적이 높은 곳이 아닌 지점에 조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음.		
추가 의견	기존보존하고 추후 내에 적절히 이용방안을 마련해야 함.		

자 문 위 원

소 속	성 명
제주문화유산연구원	고 재 원 (인)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박 용 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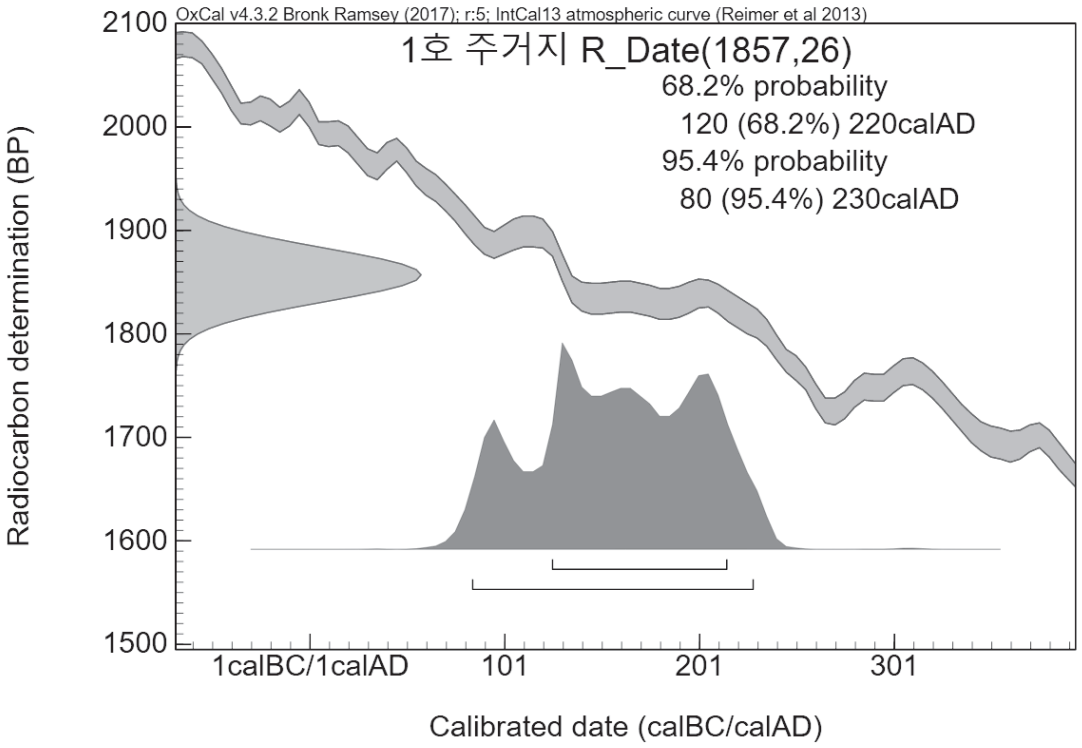
2017년 12 월 7 일

방사선탄소 연대측정 결과

의뢰기관	제주고고학연구소
의뢰인	이하나
시험분석 기관	한국과학기술원 (KIST)

시료명	시료코드	접수코드	전처리 방법
1호 주거지	ESCh180097	DIS180125WA021	AAA

탄소연대 (yrs BP ± err)	보정 평균 연대 (cal avr ± err)	! ^{13}C ± err (‰)	pMC ± err (%)
1857 ± 26	160 ± 70 calAD	-23.1 ± 0.1	79.36 ± 0.26



- 본 보고서는 시료의 진위 감정이나 법적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 오차는 1" (65%신뢰구간) 입니다.
- yrs BP는 Libby반감기(5568년)로 계산한 1950년 기준 방사성탄소연대를 의미합니다.
- 방사성탄소연대를 달력 연대로 환산하는데는 Oxcal 혹은 CalPal을 이용하였습니다. (http://c14.arch.ox.ac.uk/oxcal.html)
- ! 13C 및 #14C 의 정의에 관해서는 Radiocarbon, 19(1977)355를 참조하십시오.
- #14C 는 의뢰일 기준으로 계산된 값입니다.

가속기 질량분석기 (AMS) 재원

분석시험 기관명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모델명	6 MV Tandetron
Ion sources	SO-100 Duoplasmatron
Voltage Range [MV]	0.4 ~ 6.2
용도	연대측정 및 초극미량동위원소 분석
Commissioned	2013
제작사	High Voltage Engineering Europa
출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특성분석센터 가속기 연구실 (https://aac.kist.re.kr/accelerator/equipment/accelerator_2_1)

제주 삼양2동 2140-6번지 유적 유물목록

유물번호	유물명	수량(점)	출토유구	분류		크기(㎝)			도면번호 도판번호	선별결과
				재질	시대	기고(길이)	구경(폭)	저경(두께)		
2017-1413-0001	경질무문토기 구연부편	1	1호 주거지	토	초기철기	(16.9)	·	(0.5~0.7)	10-1 13-1	Y
2017-1413-0002	경질무문토기 구연부편	1	1호 주거지	토	초기철기	(12.8)	·	(0.4~0.9)	10-2 13-2	Y
2017-1413-0003	경질무문토기 구연부편	1	1호 주거지	토	초기철기	(9.7)	·	(1.1~1.4)	10-3 13-3	Y
2017-1413-0004	경질무문토기 구연부편	1	1호 주거지	토	초기철기	(7.3)	·	(0.6~1.1)	10-4 13-4	Y
2017-1413-0005	직립구연토기 구연부편	1	1호 주거지	토	초기철기	(8.2)	·	(0.5~0.6)	11-5 13-5	Y
2017-1413-0006	경질무문토기 구연부편	1	1호 주거지	토	초기철기	(5.3)	·	(0.8~1.1)	11-6 13-6	Y
2017-1413-0007	연질토기 동체부편	1	1호 주거지	토	초기철기	(7.5)	·	(0.5~0.6)	11-7 13-7	Y
2017-1413-0008	두형토기 대각편	1	1호 주거지	토	초기철기	(7.8)	·	12.0	11-8 13-8	Y
2017-1413-0009	경질무문토기 저부편	1	1호 주거지	토	초기철기	(6.3)	·	6.2	11-9 13-9	Y
2017-1413-0010	경질무문토기 저부편	1	1호 주거지	토	초기철기	(10.3)	·	8.0	11-10 13-10	Y
2017-1413-0011	경질무문토기 저부편	1	1호 주거지	토	초기철기	(5.45)	·	8.0	11-11 13-11	Y
2017-1413-0012	경질무문토기 저부편	1	1호 주거지	토	초기철기	(6.5)	·	8.8	11-12 13-12	Y
2017-1413-0013	경질무문토기 저부편	1	1호 주거지	토	초기철기	(6.5)	·	(1.4~2.6)	12-13 14-13	Y
2017-1413-0014	방추차편	1	1호 주거지	토	초기철기	(2.3)	·	(1.4~1.6)	12-14 14-14	Y
2017-1413-0015	석착	1	1호 주거지	석	초기철기	(4.45)	(2.2)	(0.4~0.65)	12-15 14-15	Y
2017-1413-0016	지석	1	1호 주거지	석	초기철기	(9.9)	(13.8)	(4.2~6.4)	12-16 14-16	Y

유물번호	유물명	수량(점)	출토유구	분류		크기(㎝)			도면번호 도판번호	선별결과
				재질	시대	기고(길이)	구경(폭)	저경(두께)		
2017–1413–0017	석착	1	1호 주거지	석	초기철기	(12.6)	(11.2)	(2.55~4.4)	12–17 14–17	Y
2017–1413–0018	갈돌	1	1호 주거지	석	초기철기	(16.6)	(7.4)	(4.6~7.4)	13–18 14–18	Y
2017–1413–0019	고석	1	1호 주거지	석	초기철기	(11.4)	(8.7)	(3.8~6.6)	13–19 14–19	Y
2017–1413–0020	갈돌	1	1호 주거지	석	초기철기	(8.7)	(14.6)	(2.9~3.9)	13–20 14–20	Y
2017–1413–0021	경질무문토기 구연부편	1	2호 주거지	토	초기철기	(4.1)	·	(1.2)	14–21 14–21	Y
2017–1413–0022	경질무문토기 구연부편	1	2호 주거지	토	초기철기	(3.3)	·	(0.8~1.0)	14–22 14–22	Y

掘調査報告書 抄錄

報告書名	제주 삼양2동 2140-6번지 유적		發行日	2019年 12月 23日
發行機關	名稱	(재)제주고고학연구소		
	住所	(6325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23길 1 (일도2동) 3층		
	TEL	(064) 711-9996	FAX	(064) 712-9984
執筆 · 編輯者	강창화 · 김용덕 · 윤중현 · 오원홍			
調査 緣由	건물 신축에 따른 구제 발굴조사			
發掘調査者	강창화 · 김용덕 · 윤중현 · 오원홍 · 송주란			
遺蹟調査地番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양2동 2140-6번지			
調査面積	211㎡			

遺構種別	時代 및 年代	類型 및 基數	重要遺物	特記事項
주거지	초기철기	2동	직립구연토기, 외반구연토기 방추차, 석착 등	
수혈유구	초기철기	1기		

152. 대구 불로동 30-14번지 유적

(재)세종문화재연구원

목 차

Ⅰ. 조사개요 ····· 152 - 7

Ⅱ. 유적의 위치와 환경 ····· 152-10

Ⅲ. 조사내용 ····· 152-20
1. 입회조사 ····· 152-20
2. 발굴조사 ····· 152-20
〈통일신라시대〉 ····· 152-23
1) 수혈유구 ····· 152-23
(1) 수혈유구 1호 ····· 152-23
(2) 수혈유구 2호 ····· 152-27
(3) 수혈유구 3호 ····· 152-28
(4) 수혈유구 4호 ····· 152-28
(5) 수혈유구 5호 ····· 152-32
(6) 수혈유구 6호 ····· 152-32
(7) 수혈유구 7호 ····· 152-33
(8) 수혈유구 8호 ····· 152-34
(9) 수혈유구 9호 ····· 152-34
(10) 수혈유구 10호 ····· 152-35
(11) 수혈유구 11호 ····· 152-35
(12) 수혈유구 12호 ····· 152-37
(13) 수혈유구 13호 ····· 152-37
(14) 수혈유구 14호 ····· 152-38
(15) 수혈유구 15호 ····· 152-39
(16) 수혈유구 16호 ····· 152-39
(17) 수혈유구 17호 ····· 152-41
(18) 수혈유구 18호 ····· 152-42
(19) 수혈유구 19호 ····· 152-43
(20) 수혈유구 20호 ····· 152-44
(21) 수혈유구 21호 ····· 152-45
(22) 수혈유구 22호 ····· 152-46

Ⅳ. 조사성과 ····· 152-47

도 면 목 차

도면 1. 유적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①(S=1/25,000, 2014년) ····· 152-16
도면 2. 유적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②(S=1/25,000, 1915년) ····· 152-17
도면 3. 유적 위치 및 지형도(S=1/5,000) ····· 152-18
도면 4. 유적 위치 및 지번도(S=1/200) ····· 152-19
도면 5. 입회조사시 탐색트렌치 배치도 및 현황 사진(S=1/300) ····· 152-21
도면 6. 유적 유구배치도(S=1/150) 및 표준토층도(S=1/30) ····· 152-22
도면 7. 수혈유구 1호 평면도 및 입 · 단면도(S=1/30) ····· 152-24
도면 8. 수혈유구 1호 출토유물(1~9) ····· 152-26
도면 9. 수혈유구 2호 평면도 및 입 · 단면도(S=1/30) ····· 152-28
도면 10. 수혈유구 3호 평면도 및 입 · 단면도(S=1/30) ····· 152-28
도면 11. 수혈유구 4호 평면도 및 입 · 단면도(S=1/30), 출토유물(10~12) ····· 152-29
도면 12. 수혈유구 4호 출토유물(13~16) ····· 152-31
도면 13. 수혈유구 5호 평면도 및 입 · 단면도(S=1/30) ····· 152-32
도면 14. 수혈유구 6호 평면도 및 입 · 단면도(S=1/30) ····· 152-33
도면 15. 수혈유구 7호 평면도 및 입 · 단면도(S=1/30) ····· 152-33
도면 16. 수혈유구 8호 평면도 및 입 · 단면도(S=1/30) ····· 152-34
도면 17. 수혈유구 9호 평면도 및 입 · 단면도(S=1/30) ····· 152-34
도면 18. 수혈유구 10호 평면도 및 입 · 단면도(S=1/30), 출토유물(17 · 18) ····· 152-36
도면 19. 수혈유구 11호 평면도 및 입 · 단면도(S=1/30) ····· 152-37
도면 20. 수혈유구 12호 평면도 및 입 · 단면도(S=1/30) ····· 152-38
도면 21. 수혈유구 13호 평면도 및 입 · 단면도(S=1/30) ····· 152-38
도면 22. 수혈유구 14호 평면도 및 입 · 단면도(S=1/30) ····· 152-38
도면 23. 수혈유구 15호 평면도 및 입 · 단면도(S=1/30) ····· 152-39
도면 24. 수혈유구 16호 평면도 및 입 · 단면도(S=1/30), 출토유물(19 · 20) ····· 152-40
도면 25. 수혈유구 17호 평면도 및 입 · 단면도(S=1/30), 출토유물(21) ····· 152-42
도면 26. 수혈유구 18호 평면도 및 입 · 단면도(S=1/30) ····· 152-43
도면 27. 수혈유구 19호 평면도 및 입 · 단면도(S=1/30) ····· 152-43
도면 28. 수혈유구 20호 평면도 및 입 · 단면도(S=1/30), 출토유물(22) ····· 152-44
도면 29. 수혈유구 21호 평면도 및 입 · 단면도(S=1/30) ····· 152-45
도면 30. 수혈유구 22호 평면도 및 입 · 단면도(S=1/30) ····· 152-46

도 판 목 차

도판 1. 유적 원경(①W→E) 및 근경(②E→W) ····· 152-51
도판 2. 유적 전경(①합성) 및 조사전 전경(②SE→NW, ③E→W, ④S→N, ⑤N→S) ····· 152-52
도판 3. 수혈유구 1호 전경(①조사전NE→SW, ②조사중, ③토층, ④조사후,
⑤~⑦유물 출토상태) ····· 152-53
도판 4. 수혈유구 1호 유물 출토상태(①~④), 출토유물(1~4) ····· 152-54
도판 5. 수혈유구 1호 출토유물(5~9) ····· 152-55
도판 6. 수혈유구 2호 전경(①조사전SW→NE, ②조사중, ③토층, ④조사완료),
수혈유구 3호 전경(⑤조사전SW→NE, ⑥조사중, ⑦토층, ⑧조사완료) ····· 152-56
도판 7. 수혈유구 4호 전경(①조사전SW→NE, ②토층, ③조사중, ④조사후) ····· 152-57
도판 8. 수혈유구 4호 유물 출토상태(①~⑥), 출토유물(10~13) ····· 152-58
도판 9. 수혈유구 4호 출토유물(14~16), 조사완료 전경(①S→N) ····· 152-59
도판 10. 수혈유구 5호 전경(①조사전NW→SE, ②조사중, ③토층, ④조사완료),
수혈유구 6호 전경(⑤조사전NW→SE, ⑥조사중, ⑦토층, ⑧조사완료) ····· 152-60
도판 11. 수혈유구 7호 전경(①조사전SW→NE, ②조사중, ③토층, ④조사완료),
수혈유구 8호 전경(⑤조사전SW→NE, ⑥조사중, ⑦토층, ⑧조사완료) ····· 152-61
도판 12. 수혈유구 9호 전경(①조사전SW→NE, ②토층, ③조사중, ④조사완료) ····· 152-62
도판 13. 수혈유구 10호 전경(①조사전NE→SW, ②조사중, ③토층, ④조사후) ····· 152-63
도판 14. 수혈유구 10호 유물 출토상태(① · ②), 출토유물(17 · 18),
조사완료 전경(③NE→SW) ····· 152-64
도판 15. 수혈유구 11호 전경(①조사전SW→NE, ②조사중, ③토층, ④조사완료),
수혈유구 12호 전경(⑤조사전NW→SE, ⑥조사중, ⑦토층, ⑧조사완료) ····· 152-65
도판 16. 수혈유구 13호 전경(①조사전E→W, ②조사중, ③토층, ④조사완료),
수혈유구 14호 전경(⑤조사전NW→SE, ⑥조사중, ⑦토층, ⑧조사완료) ····· 152-66
도판 17. 수혈유구 15호 전경(①조사전SW→NE, ②토층, ③조사중, ④조사완료) ····· 152-67
도판 18. 수혈유구 16호 전경(①조사전SW→NE, ②조사중, ③토층, ④1차 조사후) ····· 152-68
도판 19. 수혈유구 16호 내부주혈 조사전, 토층, 조사완료 전경(①~③내부주혈1,
④~⑥내부주혈2, ⑦~⑨내부주혈3), 2차 조사후(⑩SW→NE) ····· 152-69
도판 20. 수혈유구 16호 피열흔 세부전경(①), 유물 출토상태(② · ③),
출토유물(19 · 20), 조사완료 전경(④SW→NE) ····· 152-70
도판 21. 수혈유구 17호 전경(①조사전SW→NE, ②조사중, ③토층, ④조사후,
⑤유물 출토상태), 출토유물(21) ····· 152-71

도판 22. 수혈유구 18호 전경(①조사전SW→NE, ②조사중, ③토층, ④조사후,
⑤~⑦내부주혈 조사전, 토층, 조사완료) ····· 152-72
도판 23. 수혈유구 18호 조사완료 전경(①SW→NE), 수혈유구 19호
전경(②조사전SW→NE, ③조사중, ④토층, ⑤조사완료) ····· 152-73
도판 24. 수혈유구 20호 전경(①조사전NW→SE, ②조사중, ③토층, ④조사후) ····· 152-74
도판 25. 수혈유구 20호 내부주혈 조사전, 토층, 조사완료 전경(①~③내부주혈1,
④~⑥내부주혈2, ⑦~⑨내부주혈3, ⑩~⑫내부주혈4), 유물 출토상태(⑬),
출토유물(22) ····· 152-75
도판 26. 수혈유구 21호 전경(①조사전SW→NE, ②조사중, ③토층, ④조사완료),
수혈유구 22호 전경(⑤조사전SW→NE, ⑥조사중, ⑦토층, ⑧조사완료) ····· 152-76
도판 27. 학술자문위원회의 전경(① · ②) ····· 152-77
도판 28. 발굴조사구역 복토 완료후 전경(①SE→NW, ②NW→SE) ····· 152-78

Ⅰ. 조사개요

본 유적은 행정구역상 대구광역시 동구 불로동 30-14번지 일원에 해당한다. 이곳은 조용순(개인)씨가 근린생활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곳으로, 사업시행 전 사업시행자인 조용순(개인)씨는 대구광역시 동구 불로동 30-14번지 외 1필지(30-15번지)에 대한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관련 건축허가를 득함에 있어 대구광역시 동구청으로부터 "대구 불로 · 봉무동 유적내에 포함되므로 터파기공사 등 원지형을 훼손하는 공사가 수반될 시에는「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3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문화재 보존조치의 내용)에 따라 반드시 관련 전문가의 입회하에 입회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공사 진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라는 내용으로 건축(신축)허가 신청 협의 결과 회신(문화교육과-5546호, 2017.03.14.)을 받았다.

이후 조영순(개인)씨는 사업부지에 대한 입회조사를 (재)삼한문화재연구원에 의뢰하였다. 입회조사 결과, "트렌치내에서는 현표토 40~60㎝ 직하에서 갈색사질점토층이 확인되었고, 이층 하단에서 황색점토층을 굴착하고 조성된 수혈유구가 확인되었다. 수혈유구는 부정형으로 나타나고, 내부에는 암갈색토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내부토에서 삼국시대토기편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유구는 조성된 위치와 출토유물로 볼 때 삼국시대 이후에 조성된 생활유적의 일부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공사를 시행하려면 사전에 정밀발굴조사를 통해 유구의 규모와 성격을 규명한 후에 행정조치에 따라 처리하기 바랍니다."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1)]

이후 조영순(개인)씨는 문화재청에 보존조치(입회조사) 결과보고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였고, 이에 문화재청에서는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입회조사보고서에서 '정밀발굴조사로 설정한 지역'(446㎡/보고서 참조)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1조(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 등) 규정에 의거 별도의 허가를 받아 발굴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이라는 문화재 보존조치 통보(문화예술정책과-12125, 2017.8.28.)를 하였다.

이와 같은 입회조사 결과보고 및 문화재청 문화재 보존조치 통보를 바탕으로 조영순(개인)씨는 본 조사가 소규모 국비지원 대상임을 확인하고, 소규모 국비지원 정밀발굴조사를 (재)세종문화재연구원에 의뢰하였다. 이에 본 연구원에서는 문화재청의 허가(제2017-1439호, 2017.11.10.)에 의거하여 2017년 11월 15일부터 2017년 12월 8일(실조사일수 16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정밀발굴조사 결과, 통일신라시대 수혈 22기가 확인되었고, 유물은 완, 단경호, 파수부편, 수키와, 암키와, 어망추 등 총 22점이 출토되었다.

정밀발굴조사 중 2017년 12월 6일에 본 유적에 대한 학술자문회의[2)]를 개최하였다. 학술자문회의 결과, "대구 불로동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내 유적 국비지원 정밀발굴조사 결과 조사대상지에서는 다수

---

1) (재)삼한문화재연구원, 2017,『대구 불로동 30-14번지 외 1필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문화재 보존조치(입회조사) 결과보고서』.

2) (재)세종문화재연구원, 2017,『대구 불로동(30-14번지 외)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내 유적 국비지원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자료』.

의 통일신라시대 '수혈'이 발견되었습니다. 유구의 중복관계는 현저하지 않고, 문화층도 단순합니다. 조사기관의 조사결과에 대한 판단은 대단히 타당합니다. 출토토기 및 기와의 시기동정도 타당합니다. 유적은 조사내용을 충분히 기록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안전을 고려하여 기록 후 곧장 복토처리할 것을 주문합니다."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후 예정대로 현장조사를 완료하였다.

정밀발굴조사 완료 후 본 연구원에서는 조영순(개인)씨에 대구 불로동 30-14번지 유적에 대한 정밀발굴조사 완료신고를 하였다. 이후 조영순(개인)씨는 문화재청에 대구 불로동 30-14번지 유적에 대한 정밀발굴조사 완료신고를 하였다. 이에 문화재청에서는 "조사결과에 대한 기록 · 보존 철저 및 발굴현장 안전관리 철저 · 건설공사 시행 중 매장문화재 발견 시에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개발사업 계획 · 시행자의 책무) 및 제17조(발견신고 등)규정 준수."하라는 발굴 완료조치 통보(발굴제도과-38, 2018.1.2.)가 있었다. 이후 조영순(개인)씨는 정밀발굴조사가 완료되어 발굴조사 완료조치 통보가 이루어진 유적에 대하여 예정된 공사를 시행하였다.

이번 정밀발굴조사는 조용순(개인)씨가 대구 동구 불로동 30-14번지 외 1필지(30-15번지)에 추진하는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에 대한 형질변경에 앞서 문화재 정밀발굴조사를 진행함으로써,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유적의 보존 · 보호 방안을 수립하고, 나아가 고고학적 기초 학술자료를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정밀발굴조사에 참여한 조사단 구성은 다음과 같다.

조 사 단 장 : 김 창 억(세종문화재연구원 원장)
책임조사원 : 박 달 석(세종문화재연구원 조사과장)
조 사 원 : 양 승 기(前세종문화재연구원 주임연구원)
준 조 사 원 : 최 유 라(세종문화재연구원 주임연구원)
보 조 원 : 길 가 은(세종문화재연구원 연구원)

*( )는 조사당시 직책임.

정밀발굴조사 자료의 정리는 상기 조사원들이 담당하였고, 본 보고서의 발간에 이르기까지 발굴조사에서 생산된 각종 자료 및 유물의 관리는 도영아(세종문화재연구원 조사팀장)가 담당하였고, 유물정리 · 복원은 권정순(세종문화재연구원 주임연구원)이 담당하였다. 또한 유물의 실측, 유구 · 유물의 제도는 도영아의 주도하에 임미정, 송현희, 전수원, 임경옥, 김은경, 김윤주(이상 보조요원)가 담당하였다. 그리고 조사계약 등 조사 추진과 관련한 행정사무는 우리 연구원의 사무부 직원들이 수고하였다.

이번 보고서의 발간작업은 현장조사를 담당하였던 양승기, 최유라가 주도적으로 진행하였고, 각 부문별 분담업무에 대한 참여자는 다음과 같다.

총　　괄 : 박달석
연 구 기 획 : 양승기, 최유라
유물정리 · 복원 : 최유라, 권정순
유물실측 · 탁본 : 도영아, 최유라, 길가은
유물 · 유구제도 : 도영아, 최유라, 길가은
유물사진촬영 : 길가은, 이재영(향운사진연구소)
도 면 편 집 : 양승기, 도영아
사 진 편 집 : 최유라
본 문 작 성 : Ⅰ장 조사개요 - 박달석
Ⅱ장 유적의 위치와 환경 - 양승기
Ⅲ장 조사내용 - 최유라, 길가은
Ⅳ장 조사성과 - 양승기
교　　정 : 최유라, 도영아
교　　열 : 김창억, 박달석
출　　판 : 최유라, 도영아

끝으로 원활한 발굴조사와 보고서 발간에 이르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 사업시행자께 지면을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Ⅱ. 유적의 위치와 환경[3)]

유적은 행정구역상 대구광역시 동구 불로동 30-14번지 일원이다. 이 곳은 대구국제공항이 위치한 불로삼거리에서 팔공산방면으로 개설된 팔공로를 따라 가다보면 불로교가 나오고, 여기에서 350m 정도 진행하면 도로의 우측으로 불로동 고분군으로 진입하는 도로(팔공로 32길)가 개설되어 있다. 이 도로를 따라 120m 정도 들어가면 왼쪽에 조사지역이 위치한다. 주변은 주택과 상가건물이 밀집해 있고, 조사지역은 일부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었으며, 잡초가 우거진 상태이다.

유적이 속하는 불로동은 금호강으로 유입되는 신천에 의해 형성된 충적지와 인접한 곳으로, 지형은 동쪽에 불로동고분군이 위치하는 해발 82.3m 구릉의 서쪽 끝자락에 해당한다. 남쪽에는 약 400m 떨어져 불로천이 동에서 서로 흐르고 있는데, 불로천은 북쪽에 형성된 산악지대의 좁은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지천이 여러 곳에서 합류한다. 불로천에는 현재 제방이 조성되어 있는데, 제방이 조성되기 이전에는 홍수 범람시 계곡부에서 흘러내리는 유수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구는 금호강과 그 지류인 신천으로 둘러싸인 평야를 중심으로 일찍부터 살기 좋은 자연적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선사시대부터 인간의 거주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월성동에서 좀돌날석기가 발견되어 대략 2만년 전 구석기시대부터 사람이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신석기시대 유적은 대구 상동지석묘유적의 교란층에서 출토된 태선문 빗살무늬토기편과 서변동 신석기시대 집석유구와 빗살무늬토기의 발견으로 대구지역에도 신석기 유적이 있었음이 명백히 입증되었다. 청동기 유물은 국보 137호인 비산동의 청동검을 비롯하여 신천동, 만촌동, 서변동 등 대구지역 전역에서 발견되고 있고, 청동기시대 무덤인 지석묘가 해방 전까지는 대구역 부근, 달성공원 부근을 비롯하여 동남쪽으로는 봉산동, 대봉동에서부터 수성들까지 분포하고 있었으나 시가지의 확장으로 지금은 대부분 없어진 상태이다. 이로보아 당시 지석묘 축조집단의 세력이 상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동기시대 취락유적도 월성동, 팔달동, 송현동, 서변동, 상동, 동천동 등지에서 확인되고, 동천동유적에서는 경작유구도 확인된 바 있다. 이로써 청동시대의 생활상 및 생업유형을 알 수 있다.

삼한시대의 대구는 변진 24국 가운데 한 나라로 발전해 왔을 것으로 보이고, 대구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던 정치체는 그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비교적 이른 시기에 신라에 병합되었으며, 그 후 신라에 의해 일정한 재편과정을 겪었다. 이러한 사정은『삼국사기』에 나타나 있는데, 이에 의하면 최소한 5개의 정치체가 대구를 이루고 있었다. 8세기 당시 군의 중심지가 위치하고 있었던 신천상류지역의 위화, 신천 중하류지역 일대, 즉 오늘날 대구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었던 달구벌(達句伐), 원래 칠곡군 칠곡면이었으나 대구시 북구의 일부로 편입된 팔거리(八居里), 달성군 다사면 일대로 비정되는 다사지(多斯只), 현재 달성군 화원읍 일대의 설화리(舌火里)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 중 위화는

---

3) 유적의 자연환경과 입지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자료들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大邱市史編纂委員會, 1995,『大邱市史 第一卷(通史)』.
慶尙北道文化財硏究院, 2004,『大邱 不老洞古墳群 發掘調査報告書-91·93號墳-』.
大邱廣域市·(財)嶺南文化財硏究院, 2006,『文化遺蹟分布地圖-大邱廣域市 中·東·西·南·北·壽城·達西區-』.

달구벌에서 분리된 별도의 행정거점으로 설치되었으므로 삼국시대 대구를 구성했던 집단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결국 삼국시대 대구는 달구벌, 팔거리, 다사지, 설화 등 크게 4개의 정치체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문헌뿐만 아니라 고고학 자료, 즉 고분군의 분포를 통해서도 추정할 수 있는데, 이들 4개의 정치체는 각각의 고분군을 남기고 있다. 달구벌과 달성고분군, 팔거리와 구암동고분군, 다사지와 죽곡동고분군, 설화와 화원 성산동고분군 등이 그것이다. 이들 중 규모나 수량, 부장품의 내용 등에서 중심 집단은 달성고분군을 축조한 달구벌 세력이라 할 수 있다. 즉 대구사회는 달구벌을 중심으로 하고 팔거리, 다사지, 설화 등을 그 소속집단으로 하는 정치세력을 이루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시대 대구지역은 후삼국시대 신라에 대한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는 요충지로 인식되어 후백제와 고려의 각축장이 되었으나 고려가 삼국을 통일한 후에는 그 비중이 점차 낮아졌다. 고려 초기 대구지역은 수성군(壽城郡), 대구현(大丘縣), 해안현(解顔縣)으로 나뉘어서 수성군이 대구현을 거느리고, 해안현은 장산군(지금의 경산)에 소속되어 있었다. 1018년(현종 18) 전국적으로 군현이 재편되면서 수성군과 해안현은 동경(지금의 경주)의 속군 · 속현이 되었고, 대구현은 경산부 14속현의 하나로 편입되었다. 이때까지도 중앙에서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고 향리층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 뒤 100여년이 지난 1143년(인종 21) 대구현이 현령관으로 승격되면서 인근의 화원현과 하빈현을 속읍으로 포함하여 그 영역이 상당히 커졌다. 12세기 무신집권기에 대구 부근의 청도, 밀양, 경주 등에서 농민들의 항쟁이 발발하자 대구는 이를 진압하기 위한 근거지가 되었다. 그 후 몽고 침입기에는 팔공산 부인사가 대장경판과 더불어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전해지고, 몽고의 5차 침입 때는 대구지역 백성들이 공산성에 들어가 끝까지 저항하기도 하였다. 그 후 고려 말 왜구의 약탈이 시작되면서 대구도 2~3차례 걸쳐 피해를 입었다.

조선이 세워진 후 비옥한 평야지대를 끼고 있는 대구는 농업의 중심지로서 인구가 점차 증가하였고, 1394년(태조 3)에 대구현이 수성현과 해안현을 영속하여 확장 발전됨에 따라 1419년(세종 1)에는 대구군으로 승격하게 되었다. 성리학의 수용과 더불어 교육활동이 활발해졌고, 1448년(세종 30)에는 복지제도인 사창(社倉)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험 실시되어 성공하자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도 하였다. 1466년(세조 12)에는 도호부로 승격되어 영남내륙 교통의 요지, 군사적 중심지로서 그 중요성을 지니게 되었고, 1601년(선조 34)에는 경상도 감영을 대구부에 이전 설치하면서 경산현, 하양현, 화원현을 포괄하는 거대한 도시가 되었다. 1895년 8도를 대신하여 전국을 23부로 개편하게 되는데, 경상도가 대구부, 안동부, 진주부, 동래부 등 4개의 부로 분할되면서 대구부는 경상도 전역을 관할하던 감영소재지에서 대구군 등 대구부 예하 23개 군을 관할하는 부청 소재지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이 조치는 얼마 시행되지 못하고 다음 해인 1896년에는 다시 전국을 13도로 재편하였는데, 이 때 대구는 대구군 등 경상북도 예하 41개 군을 관할하는 도청소재지로서의 기능을 하였다.

대구는 갑오개혁(1894년)때까지 경상도 감영 소재지로서 영남지방의 중추기능을 계속하여 수행하였고, 1895년 도제도는 폐지되고 중앙에서 전국 23부를 바로 관할하게 되어 대구부 관할의 대구군으로 개칭되었으나 부청 소재지로서 그 관할구역과 지위에는 변함이 없었다. 1907년에는 대구의 서상돈, 김광제 등이 중심이 되어 일제의 침략으로 기울어져가는 국권을 금연, 금주, 절미로 되찾으려

는 평화적이고 자발적인 국채보상운동을 전개하여 전국적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1915년 서상일 등은 영남지방의 독립투사들과 함께 조선국권회복단 중앙총부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였는데, 이 단체는 3 · 1만세운동에서 대구지역 운동을 주도하였다. 1927년에는 신간회 대구지회가 조직되어 민족항쟁의 본거지로서 그 모습을 뚜렷이 나타내었다. 1945년 광복 이후 대구는 해외 귀환 동포의 정착과 월남 피난민들의 유입으로 인해 급격한 인구증가가 이루어져 대도시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1949년에는 대구시로 개칭되었고, 1950년 한국전쟁 시에는 낙동강 방어 작전의 최후 보루도시로 민주주의를 지킨 역사에 길이 남을 대구 방어전의 중심 도시가 되었다. 1960년 이승만 정권의 독재가 심화되고 있을 때 대구지역의 고등학생들은 2 · 28학생의거를 일으켜 반독재투쟁을 전개하였다. 1981년 달성군의 월배, 성서, 공산면, 칠곡군의 칠곡읍, 경산군의 안심읍 등을 편입하여 직할시로 승격하였고, 1988년에는 달서구가 신설되어 7구의 행정구역으로 개편되었다. 1995년 1월에는 대구광역시로 개칭하였다. 1995년 3월에는 7구 1군으로 행정구역을 광역화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조사지역이 위치한 동구의 선사시대 유적지인 괴전동 무문토기 산포지에는 무문토기편, 석기 등이 산재하고 있다. 이곳에서 발견된 유물들은 대개 청동기시대에서 초기 철기시대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동내동 유적에는 청동기시대의 주거지와 고인돌, 삼국시대의 분묘군이 위치하고 있다. 그 외 초기 철기시대의 유적지로는 신천동 유적지가 있다.

원삼국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봉무토성(鳳舞土城)을 들 수 있다. 봉무토성은 군사적 목적이 아닌 이 일대를 배경으로 거주하던 대규모 세력집단의 도피용 산성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를 통해 동구 지역에는 적어도 청동기시대부터 사람들이 거주하였고, 원삼국시대에는 이미 토성을 쌓을 정도의 강력한 정치집단이 형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이 지역은 신라시대 대구현에 속하지 않고 경산군에 소속되어 있었다. 삼국시대에 동구를 제외한 대구광역시의 다른 구 · 군은 수창군의 영현이었던 대구현, 팔리현, 하빈현, 그리고 화원현(花園縣) 등에 속하였다. 따라서 이 지역은 현재 대구광역시의 다른 지역과는 다른 정치세력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후삼국 혼란기 이 지역은 후백제와 고려의 각축장으로 신라에 대한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는 요충지로 인식되었고, 역사상 유명한 동수대전의 격전지가 되기도 하였다. 동수대전은 고려의 왕건과 후백제의 견훤이 현재의 팔공산 자락 지묘동에서 벌인 전투이다. 견훤의 공격으로 신라는 위기를 맞이하여 고려에 원병을 요청하였고, 이에 왕건이 군사를 이끌고 견훤의 군대를 정벌하기 위해 경주로 향하던 중 현재의 은해사 입구에서 처음으로 격돌하였다. 여기에서 패한 고려군은 후퇴하여 다시 현재의 지묘동 일대에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견훤의 후백제가 대승을 거두게 된다. 고려는 신숭겸, 김락 등의 장군을 잃게 되었고, 왕건은 겨우 살아남아 도주하게 되었다. 현재에도 동구에는 이 전투와 왕건에 관련된 설화 · 지명 등이 많이 남아 있다.

고려시대에는 거란의 침입을 막기 위해 판각한 초조대장경을 팔공산에 위치하고 있는 부인사에 보관하였다. 이 초조대장경은 고려 성종과 현종 때 세 차례에 걸쳐 거란군이 침입해 오자, 이를 불교의 신앙으로 물리치고 국운의 장구함을 염원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해인사의 팔만대장경보다 200년이나 앞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경판은 몽고 침입 때 모두 불타 버렸다. 그리고 이곳 부인사

는 고려시대 무신 집권에 항거하여 봉기한 승려들의 본거지이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1419년(세종 1) 대구현이 대구군으로 승격하여 동구 지역 일부가 대구군에 속하게 되었다. 그리고 1466년(세조12) 다시 대구가 군에서 도호부로 승격함에 따라 동구 지역은 대구도호부 관할의 해안현과 수성현 일부에 속하게 되었다. 동구 지역은 1895년 지방제도 개편으로 8도 체제가 폐지되고, 전국에 23개의 부가 설치됨에 따라 대구부에 속하였다가 다음 해인 1896년 전국이 다시 13개 도로 편성됨에 따라 경상북도 관할이 되었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3월 새로운 부제 실시로 대구부의 영역이 대구면으로 제한되었고, 이에 따라 대구면을 제외한 27개 면은 달성군에 속하게 되었다. 1938년 10월 대구부의 행정구역 확장에 따라 동구 지역은 중동, 신천동 등의 14개 동을 관할하는 대구부 수성면이 되었고, 이러한 대구부의 영역 확대와 인구 증가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1938년 11월 2일 수성면을 관할하는 동부출장소가 개설되었다.

광복 후, 1949년 지방자치법 실시로 대구부가 대구시로 승격되어 대구시 동부출장소가 설치되었다. 1957년 12월 12일 동촌출장소가 설치되었고,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4호 구제 실시에 따라 동부출장소와 동촌출장소가 통합, 동구로 승격되어 1월 16일 동구 동촌 출장소가 설치되었다. 1975년 10월 1일 구간 경계 조정이 실시되어 북구 대현동 일부가 편입되었고, 신암동3 · 6동 일부가 북구에 편입되었다. 또한 신암5동이 3동으로, 검사1동이 도동에 통합되었고, 검사2동이 검사동으로 개칭되었다. 1976년 8월 1일 동구 동촌 출장소가 시 직할출장소로 승격되었고, 1979년 5월 1일 효목동이 효목1동과 2동으로 분동되었다. 1980년 4월 1일 동구가 동구와 수성구로 분구되었다. 이로 인해 동촌출장소는 폐지되었고, 구청 소재지가 신천동으로 이전되었다. 1981년 7월 1일 대구시가 대구직할시로 승격됨과 동시에 경상북도 경산군 안심읍 전역과 달성군 공산면 전역을 편입하게 되었고, 안심읍 전역에 안심출장소가, 공산면 전역에 공산출장소가 설치되었다. 1982년 9월 1일 안심출장소와 공산출장소 관할구역에 안심1 · 2 · 3동, 공산1동 등 4개 행정동이 설치되었다. 1983년 3월 15일 공산출장소가 폐지되었고, 관할구역에 안심4동과 공산2동의 2개 행정동이 설치되었다. 1985년 12월 1일에는 불로동과 봉무동이 불로봉무동, 둔산동과 부동이 둔산부동으로 통합되었다. 1986년 12월 22일 구청 소재지가 신천동에서 신암동으로 이전되었다. 1987년 1월 1일 관할구역 변경이 이루어져 신암4동 일부가 북구 대현동으로, 공산2동 관할의 연경동이 북구 연경동으로, 수성구 가천동 일부가 율하동으로 편입되었다. 1988년 5월 1일 동구가 자치구로 승격되었다. 1990년 6월 1일 행정동 관할구역 변경으로 신암4동이 신암4동과 5동으로 분동되었고, 1992년 10월 14일 공산동의 미대, 내동이 공산1동으로 변경되었다. 1995년 1월 1일 동구는 대구직할시가 광역시로 승격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998년 9월 1일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26개 동이 20개 동으로 통합되었다. 1998년 9월 21일 안심출장소가 폐지되었고, 1999년 9월 1일 동 기능전환 실시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 운영이 이루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유적이 위치하는 금호강의 북안 주변에는 충적평야가 발달되어 일찍부터 취락에 좋은 조건을 갖추었고, 이러한 취락집단의 위상은 삼국시대 이후에는 줄곧 현 치소를 이루어 오기도 했다. 충적지에서는 봉무동 원삼국시대 유물산포지와 삼국시대 생활유적이 확인된다. 그리고 인근에 위치한 봉무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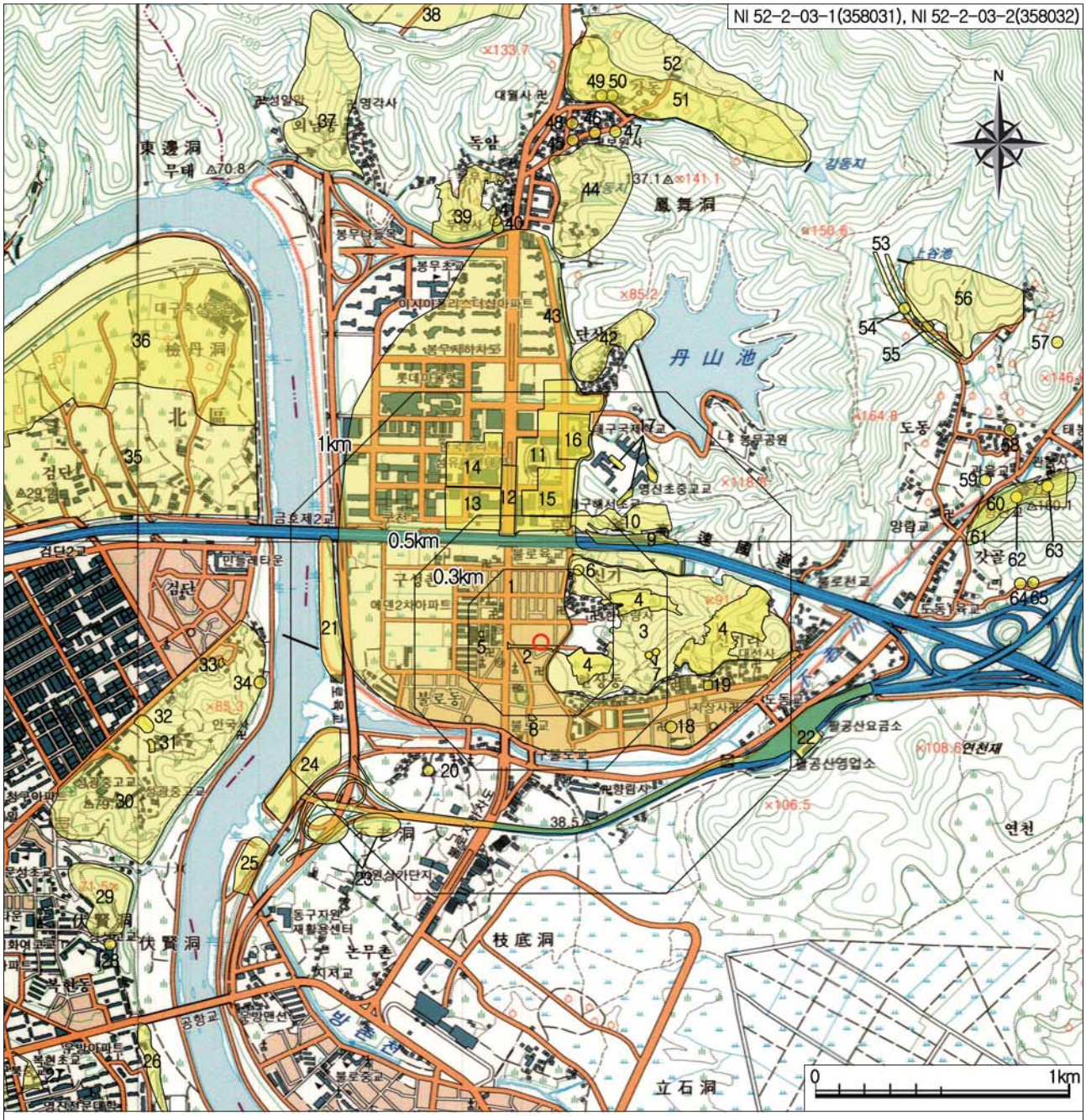
성은 팔공산에서 남쪽으로 뻗어내려 충적평야에 접하는 낮은 구릉상에 위치하고 있고, 높은 산의 정상에는 용암산성이 구축되어 고대로부터 이 지역이 교통 · 군사의 요충지로 자리해 왔음을 인식할 수 있다. 또한 불로동고분군 주변의 구릉지 일대에는 단산동고분군, 공산동고분군, 봉무동고분군, 도동고분군, 둔산동고분군 등의 고분군이 산재하는데, 이 고분들 가운데 불로동고분군은 200여 기의 고분이 확인된 금호강 북안 일대의 중심고분군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런 점으로 보아 불로동고분군을 조성한 집단은 이른 시기부터 이 지역의 중심세력을 이루며 토성과 취락유적, 분묘유적 등의 복합유적군을 형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적의 주변유적을 살펴보면, 조사지역은 대구 불로 · 봉무동 유적 내에 위치하고, 사적 제262호로 지정되어 있는 불로동 고분군의 서쪽으로 약 90m 떨어져 위치한다. 주변 반경 1㎞ 이내에는 약 24개의 유적이 위치하는데 반경 300m 안쪽으로는 대구 불로 · 봉무동 유적, 대구 동구 불로동 불로동고분군 진입도로 건설부지내 유적, 대구 불로동 고분군, 대구 불로동고분군 내외 자연마당 조성부지내 유적, 대구광역시 동구 불로동 1157-5, 1157-6번지 노유자시설 신축사업부지내 유적, 대구 불로동고분군내 수혈식석곽묘가 위치한다. 그리고 반경 500m 안쪽으로는 대구 불로동고분군 91 · 93호 유적, 대구 불로전통시장 문화공연장 건립부지내 유적, 봉무동고분군이 위치하며, 반경 1㎞ 안쪽으로는 대구 봉무동유적Ⅳ, 대구 봉무동 365-9번지 유적, 대구 봉무동 유적Ⅴ, 대구 봉무동 750번지 유적 등 14개의 유적이 위치한다.

【표 1】 주변유적 현황

유적 번호	유적명	행정구역	시대	유적성격	이격거리
1	대구 불로 · 봉무동 유적	불로 · 봉무동 일대	삼국	생활유적	조사지역 포함
2	대구 동구 불로동 불로동고분군 진입도로 건설부지내 유적 (영남문화재연구원, 2012)	불로동 29-26번지	고려 · 삼국	유물 산포지	조사지역 남쪽에 인접
3	대구 불로동 고분군 (사적 제262호)	불로동 335번지	삼국	고분군	동쪽 약 90m
4	대구 불로동고분군 내외 자연마당 조성부지 내 유적(세종문화재연구원, 2013)	불로동 355번지 일원	삼국~조선, 시대미상	고분군	동쪽 약 101m
5	대구광역시 동구 불로동 1157-5, 1157-6번지 노유자시설 신축사업부지내 유적 (한국문화재연구원, 2014)	불로동 1157-5 · 1157-6번지	삼국	생활유적	동쪽 약 199m
6	대구 불로동고분군내 수혈식석곽묘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9)	불로동 산1번지	삼국	고분	북동쪽 약 300m
7	대구 불로동고분군 91 · 93호 유적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4)	동구 도동 산134 일원	고려 · 삼국	고분	동쪽 약 425m
8	대구 불로전통시장 문화공연장 건립부지내 유적(성림문화재연구원, 2013)	불로동 583-1번지 일원	시대미상	생활유적	남쪽 약 268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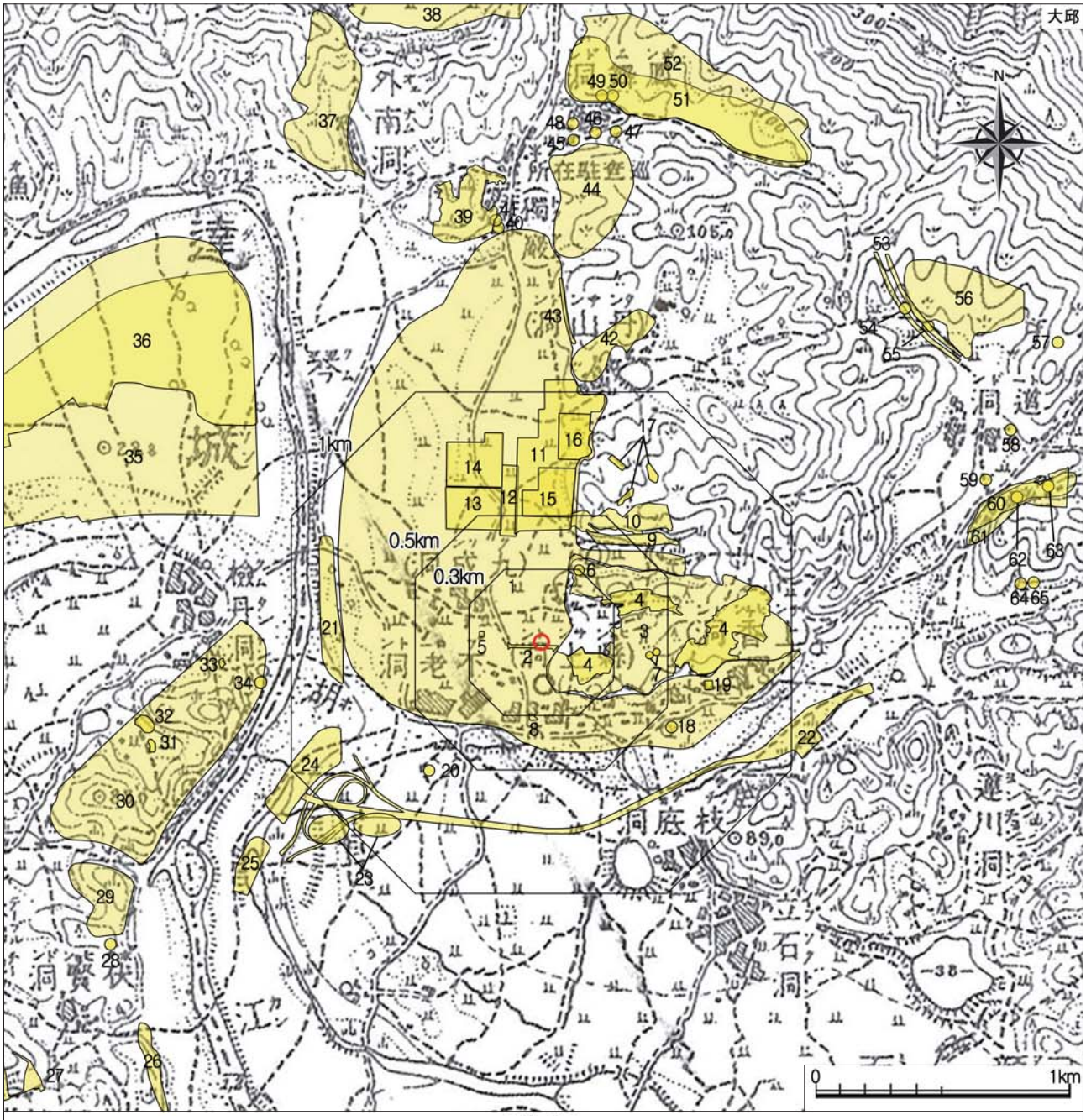
유적 번호	유적명	행정구역	시대	유적성격	이격거리
9	대구 봉무동 고분군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1)	봉무동 621-1	삼국~조선	고분, 생산유적	북동쪽 약 440m
10	봉무동고분군 (대구광역시기념물 제15호)	봉무동 산 146 외	삼국	고분군	북동쪽 약 460m
11	대구 봉무동유적 Ⅳ (영남문화재연구원, 2011)	봉무동 592번지 일원	시대미상	생활유적	북쪽 약 400m
12	대구 봉무동 365-9번지 유적 (영남문화재연구원, 2006)	봉무동 365-9번지 일원	삼국, 조선	생활유적	북쪽 약 420m
13	대구 봉무동유적 Ⅴ (영남문화재연구원, 2011)	봉무동 751번지 일원	청동기 ~조선	생활유적	북서쪽 약 430m
14	대구 봉무동 750번지 유적 (삼한문화재연구원, 2011)	봉무동 750번지 일원	원삼국, 삼국, 통일신라 이후	생활유적	북쪽 약 600m
15	대구 봉무동유적 Ⅱ (영남문화재연구원, 2010)	봉무동 335-7번지 일원	청동기, 삼국, 조선	생활유적	북쪽 약 488m
16	대구 봉무동유적 Ⅰ (영남문화재연구원, 2009)	봉무동 335-7번지 일원	삼국~조선, 근대/일제 강점기	분묘, 생활유적, 생산유적	북쪽 약 660m
17	대구 봉무동고분군 Ⅰ~Ⅲ구역 (영남문화재연구원, 2006)	봉무동 544-1번지 일원	고려 · 삼국, 시대미상	고분군	북쪽 약 580m
18	대구 도동 느티나무	도동 978-258	근대/일제 강점기	노거수	남동쪽 약 550m
19	대구 도동중앙교회 신축부지내 유적 (동북아문화재연구원, 2015)	도동 107-2번지 일원	고려	생활유적	남동쪽 약 620m
20	대구 불로동 느티나무	불로동 671-1	조선	노거수	남서쪽 약 610m
21	대구 불로 · 봉무동 유물산포지①	불로동 봉무동 일대	삼국	유물 산포지	서쪽 약 750m
22	불로동 유물산포지 (영남문화재연구원, 1998)	북구 서변동, 동구 율하동, 수성구 황금동 · 삼덕동	청동기 ~고려	유물 산포지	남쪽 약 700m
23	대구-포항고속도로 진입로 및 종합유통단지 진입로 건설공사 구간내 유적 (유물산포지 Ⅰ-①,②) (영남문화재연구원, 2007)	불로동,봉무동,팔공리 ~불로IC~공항교~봉무 IC~산업단지 남단	고려	유물 산포지	남서쪽 약 870m
24	대구 불로 · 봉무동 유물산포지②	북구,동구(금호강 신천 합류점~대구시 경계)	삼국	유물 산포지	남서쪽 약 830m



〈 범 례 〉

1. 대구 불로 · 봉무동 유적
2. 대구동구 불로동 불로동고분군 진입도로 건설부지 내 유적 (영남문화재연구원, 2012)
3. 대구 불로동 고분군(사적 제262호)
4. 대구 불로동고분군 내외 자연마당 조성부지내 유적 (세종문화재연구원, 2013)
5. 대구광역시 동구 불로동 1157-5, 1157-6번지 노유자시설 신축사업부지 내 유적(한국문화재연구원, 2014)
6. 대구 불로동고분군 내 수혈식석곽묘(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9)
7. 대구 불로동고분군 91 · 93호유적(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4)
8. 대구 불로전통시장 문화공연장 건립 부지 내 유적 (성림문화재연구원, 2013)
9. 대구 봉무동고분군(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1)
10. 봉무동고분군(시도기념물 제15호)
11. 대구 봉무동유적 Ⅳ(영남문화재연구원, 2011)
12. 대구 봉무동 365-9번지 유적(영남문화재연구원, 2006)
13. 대구 봉무동유적Ⅴ(영남문화재연구원, 2011)
14. 대구 봉무동 750번지 유적(심한문화재연구원, 2011)
15. 대구 봉무동유적Ⅱ(영남문화재연구원, 2010)
16. 대구 봉무동유적Ⅰ(영남문화재연구원, 2009)
17. 대구 봉무동고분군 - Ⅰ~Ⅲ구역(영남문화재연구원, 2006)
18. 대구 도동 느티나무
19. 대구도동중앙교회 신축부지 내 유적(동북아문화재연구원, 2015)
20. 대구 불로동 느티나무
21. 대구 불로·봉무동 유물산포지①
22. 불로동 유물산포지(영남문화재연구원, 1998)
23. 대구-포항고속도로 진입로 및 종합유통단지 진입로 건설공사 구간내 유적(유물산포지Ⅰ-①,②)(영남문화재연구원, 2007)
24. 대구 불로·봉무동 유물산포지②
25. 대구 불로·봉무동 유물산포지③
26. 대구 북현동 유물산포지②
27. 대구 북현동 고분(경북대학교박물관, 1989)
28. 대구 북현동 느티나무
29. 대구 북현동 유물산포지①
30. 검단토성
31. 대구 검단동 자동차정비공장 신축부지내 유적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3)
32. 대구 북구 검단동 산8-3 LPG충전소 신축부지 문화재 지표조사 (세종문화재연구원, 2013)
33. 대구 검단동 1301번지 일원 문화재 지표조사(영남문화재연구원, 2004)
34. 대구 검단동 압로정
35. 대구 금호워터폴리스 문화재 지표조사(영남문화재연구원, 2015)
36. 대구 검단동 유물산포지(한빛문화재연구원, 2009)
37. 봉무동 유물산포지1(한강문화재연구원, 2015)
38. 지묘동 유물산포지3(서물문화유산연구원, 2012)
39. 봉무토성(대구광역시 기념물 제4호)
40. 대구 봉무동 독좌암
41. 봉무정(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8호)
43. 대구 봉무동 고분군③
44. 대구 봉무동 동굴
45. 대구 봉무동 느티나무②
46. 독암서당(문화재자료 제12호)
47. 대구 봉무동 느티나무③
48. 대구 봉무동 느티나무①
49. 대구 봉무동 경지당
50. 대구 봉무동 원모재
51. 대구 봉무동 유물산포지
52. 대구 봉무동유물산포지(서물문화유산연구원, 2012)
53. 대구 봉무공원 주변지구(영남문화재연구원, 1998)
54. 대구 도동 와폐기장(영남문화재연구원, 1998)
55. 대구 도동 추보재
56. 대구 도동 고분군2(서울문화유산연구원, 2012)
57. 대구 도동 고묘(세종문화재연구원, 2013)
58. 대구 도동 전귀당·백원서원
59. 대구 도동 회화나무
60. 대구 도동 측백나무 숲(천연기념물 제1호)
61. 달성의 측백수림
62. 대구 도동 구로정
63. 대구 도동 관음사
64. 문창공영당(문화재자료 제20호)
65. 대구 도동 구회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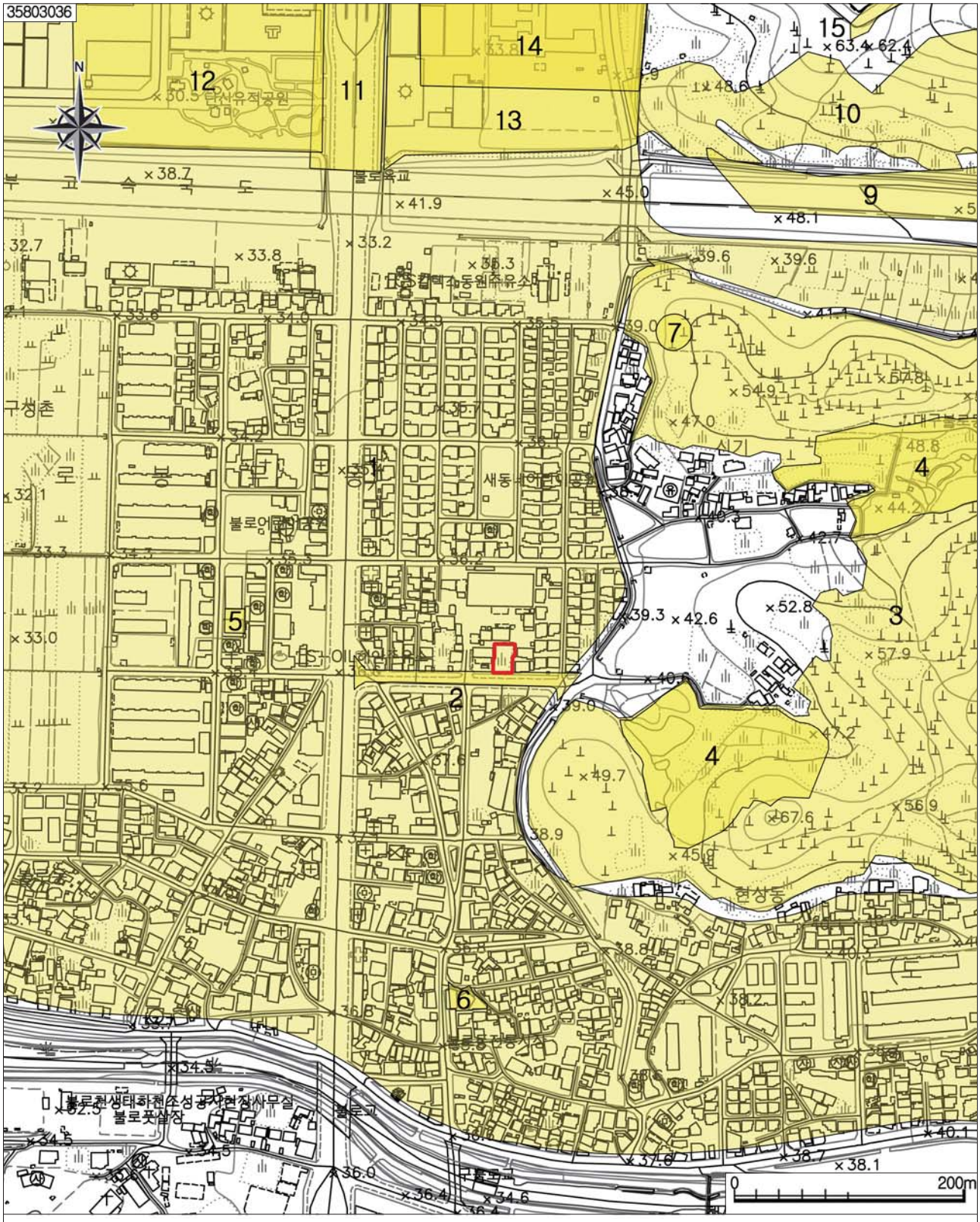
도면 1. 유적(○)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①(S=1/25,000, 2014년)



〈 범 례 〉

1. 대구 불로 · 봉무동 유적
2. 대구동구 불로동 불로동고분군 진입도로 건설부지 내 유적 (영남문화재연구원, 2012)
3. 대구 불로동 고분군(사적 제262호)
4. 대구 불로동고분군 내외 자연마당 조성부지내 유적 (세종문화재연구원, 2013)
5. 대구광역시 동구 불로동 1157-5, 1157-6번지 노유자시설 신축사업부지 내 유적(한국문화재연구원, 2014)
6. 대구 불로동고분군 내 수혈식석곽묘(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9)
7. 대구 불로동고분군 91 · 93호유적(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4)
8. 대구 불로전통시장 문화공연장 건립 부지 내 유적 (성림문화재연구원, 2013)
9. 대구 봉무동고분군(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1)
10. 봉무동고분군(시도기념물 제15호)
11. 대구 봉무동유적 Ⅳ(영남문화재연구원, 2011)
12. 대구 봉무동 365-9번지 유적(영남문화재연구원, 2006)
13. 대구 봉무동유적Ⅴ(영남문화재연구원, 2011)
14. 대구 봉무동 750번지 유적(삼한문화재연구원, 2011)
15. 대구 봉무동유적Ⅱ(영남문화재연구원, 2010)
16. 대구 봉무동유적Ⅰ(영남문화재연구원, 2009)
17. 대구 봉무동고분군 - Ⅰ~Ⅲ구역(영남문화재연구원, 2006)
18. 대구 도동 느티나무
19. 대구도동중앙교회 신축부지 내 유적(동북아문화재연구원, 2015)
20. 대구 불로동 느티나무
21. 대구 불로·봉무동 유물산포지①
22. 불로동 유물산포지(영남문화재연구원, 1998)
23. 대구-포항고속도로 진입로 및 종합유통단지 진입로 건설공사 구간내 유적(유물산포지Ⅰ-①,②)(영남문화재연구원, 2007)
24. 대구 불로·봉무동 유물산포지②
25. 대구 불로·봉무동 유물산포지③
26. 대구 북현동 유물산포지②
27. 대구 북현동 고분(경북대학교박물관, 1989)
28. 대구 북현동 느티나무
29. 대구 북현동 유물산포지①
30. 검단토성
31. 대구 검단동 자동차정비공장 신축부지내 유적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3)
32. 대구 북구 검단동 산8-3 LPG충전소 신축부지 문화재 지표조사 (세종문화재연구원, 2013)
33. 대구 검단동 1301번지 일원 문화재 지표조사(영남문화재연구원, 2004)
34. 대구 검단동 압로정
35. 대구 금호워터폴리스 문화재 지표조사(영남문화재연구원, 2015)
36. 대구 검단동 유물산포지(한빛문화재연구원, 2009)
37. 봉무동 유물산포지1(한강문화재연구원, 2015)
38. 지묘동 유물산포지3(서물문화유산연구원, 2012)
39. 봉무토성(대구광역시 기념물 제4호)
40. 대구 봉무동 독좌암
41. 봉무정(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8호)
43. 대구 봉무동 고분군③
44. 대구 봉무동 동굴
45. 대구 봉무동 느티나무②
46. 독암서당(문화재자료 제12호)
47. 대구 봉무동 느티나무③
48. 대구 봉무동 느티나무①
49. 대구 봉무동 경지당
50. 대구 봉무동 원모재
51. 대구 봉무동 유물산포지
52. 대구 봉무동유물산포지(서물문화유산연구원, 2012)
53. 대구 봉무공원 주변지구(영남문화재연구원, 1998)
54. 대구 도동 와폐기장(영남문화재연구원, 1998)
55. 대구 도동 추보재
56. 대구 도동 고분군2(서울문화유산연구원, 2012)
57. 대구 도동 고묘(세종문화재연구원, 2013)
58. 대구 도동 전귀당·백원서원
59. 대구 도동 회화나무
60. 대구 도동 측백나무 숲(천연기념물 제1호)
61. 달성의 측백수림
62. 대구 도동 구로정
63. 대구 도동 관음사
64. 문창공영당(문화재자료 제20호)
65. 대구 도동 구회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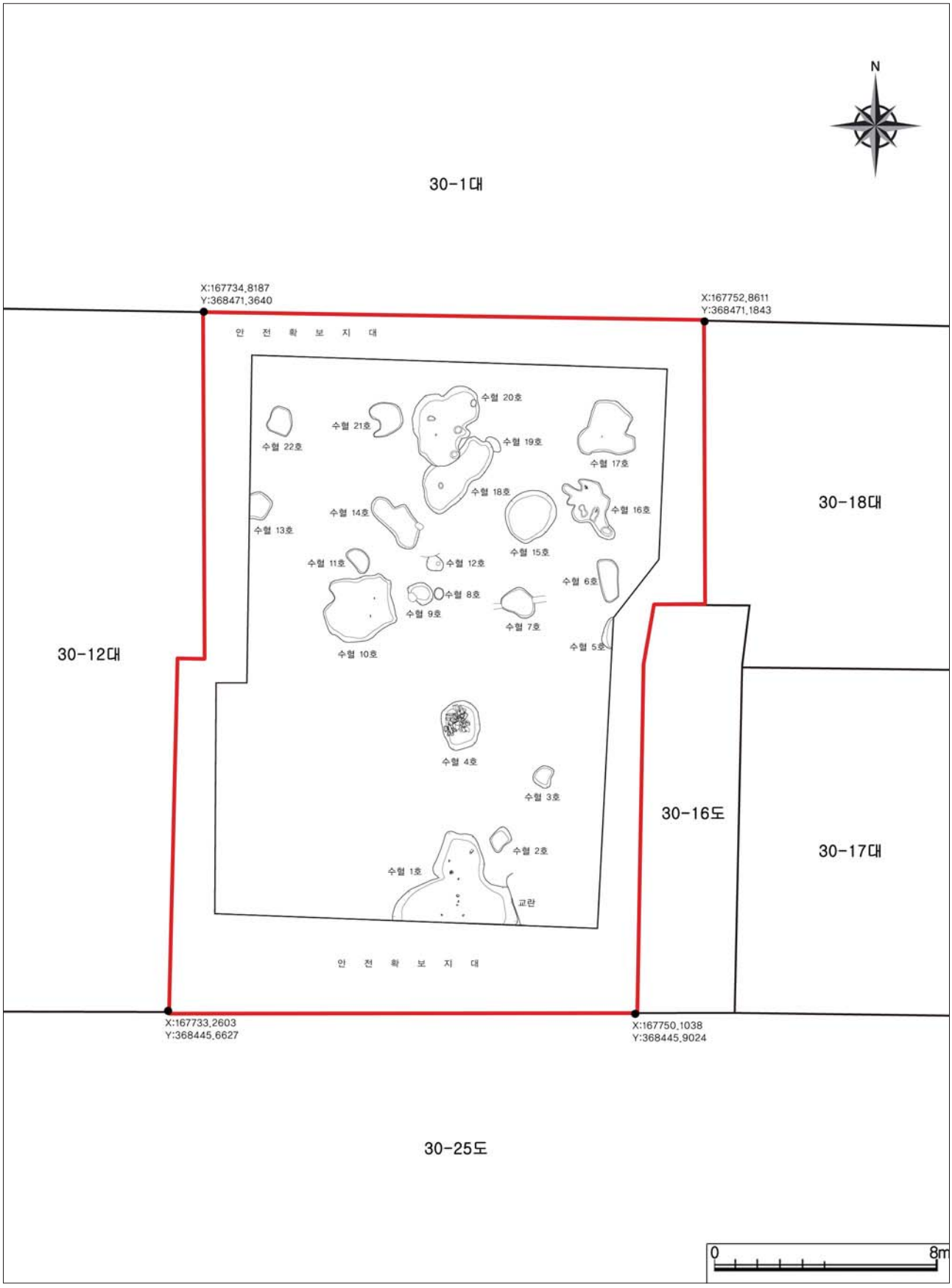
도면 2. 유적(○)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②(S=1/25,000, 1915년)



〈 범 례 〉

1. 대구 불로 · 봉무동 유적
2. 대구동구 불로동 불로동고분군 진입도로 건설부지 내 유적 (영남문화재연구원, 2012)
3. 대구 불로동 고분군(사적 제262호)
4. 대구 불로동 고분군 내외 자연마당 조성부지 내 유적 (세종문화재연구원, 2013)
5. 대구광역시 동구 불로동 1157-5, 1157-6번지 노유자시설 신축사업부지 내 유적(한국문화재연구원, 2014)
6. 대구 불로전통시장 문화공연장 건립 부지 내 유적 (성림문화재연구원, 2013)
7. 대구 블로동고분군 내 수혈식석곽묘(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9)
9. 대구 봉무동 고분군(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1)
10. 봉무동고분군(시도기념물 제15호)
11. 대구 봉무동 365-9번지 유적(영남문화재연구원, 2006)
12. 대구 봉무동유적Ⅴ(영남문화재연구원, 2011)
13. 대구 봉무동유적Ⅵ(영남문화재연구원, 2011)
14. 대구 봉무동유적Ⅱ(영남문화재연구원, 2010)
15. 대구 봉무동고분군-Ⅰ구역(영남문화재연구원, 2006)

도면 3. 유적(□) 위치 및 지형도(S=1/5,000)



도면 4. 유적(□) 위치 및 지번도(S=1/200)

Ⅲ. 조사내용

1. 입회조사[4)]

조사지는 대구광역시 동구 불로동 30-14번지외 1필지로 불로동 유물산포지내에 포함된다. 본 조사는 제2근생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에서 입회조사를 조치함에 따라 이루어 졌다. 면적은 446㎡이다.

조사지는 불로동고분군에서 서쪽으로 약 90m 정도 떨어져 있고, 고분군을 포함하고 있는 능선의 끝자락과 충적지인 경작지가 맞닿은 지점에 해당한다. 조사지는 길이 25.15m, 너비 17.94m의 평면 장방형상의 나대지이다. 트렌치는 길이방향과 등고방향의 직교되게 3개소를 설치, 굴착하였다.

굴착된 트렌치벽면에서 복토층(40㎝), 갈색사질점토(20~40㎝), 황색점토층이 확인되었다. 전반적으로 구지표는 동고서저, 남고북저의 형국으로 확인되었다.

조사결과, 트렌치내에서는 현표토 40~60㎝ 직하에서 갈색사질점토층이 확인되었고, 이층 하단에서 황색점토층을 굴착하고 조성된 수혈유구가 확인되었다. 수혈유구는 부정형으로 나타나고, 내부에는 암갈색토가 확인된다. 그리고 내부토에서 삼국시대토기편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유구는 조성된 위치와 출토유물로 볼 때 삼국시대 이후에 조성된 생활유적의 일부로 판단된다.

2. 발굴조사

발굴조사는 입회조사에서 확인된 유구 유존범위를 대상으로 2017년 11월 15일부터 12월 8일(실조사일수 16일)까지 실시하였다.

본 유적의 북쪽과 동쪽, 서쪽에는 공장과 카페, 주택 등이 조성되어 있고, 남쪽으로는 동서방향의 도로가 개설되어 있다.

발굴조사는 입회조사에서 확인된 유구를 파악하며 실시하였다. 전체적인 유구 확인을 위한 제토작업은 발굴조사 범위의 평면형태와 지형을 고려하여 별도의 그리드 구획을 하지 않고 입회조사 시 구획된 기준 및 입회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토층양상을 따라 그 아래를 수평으로 점차 하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제토작업은 조사지역 동 · 서 · 북쪽에 담장이 있고, 남쪽은 인도와 접하고 있어 담장 붕괴 방지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해 조사경계에서 1~2m 떨어져 굴삭기를 이용해 퇴적토를 유구 확인면에 근접하게 제토한 다음, 인력으로 유구 확인작업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제토과정에서 나온 흙들을 적치할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전체 조사지역을 3등분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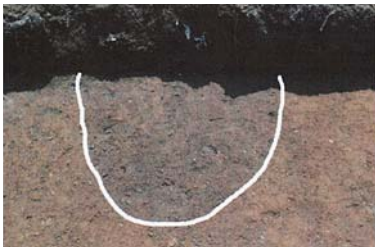
유적의 전반적인 층위는 크게 4개 층으로 구분된다. 1층은 현 지표에서 약 10㎝ 두께의 표토층이고,

---

4) (재)삼한문화재연구원, 2017, 전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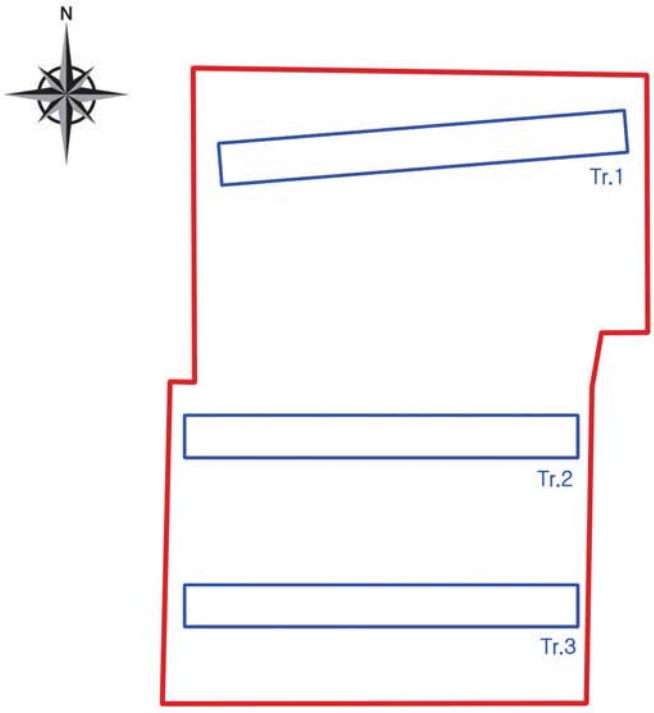
Tr.2 전경



Tr.2 수혈세부



Tr.2 유물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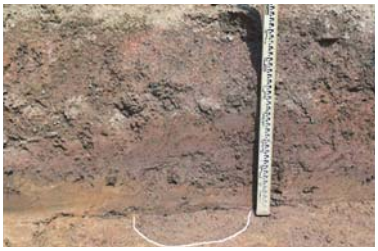
Tr.1 전경



Tr.1 토층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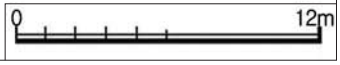
Tr.3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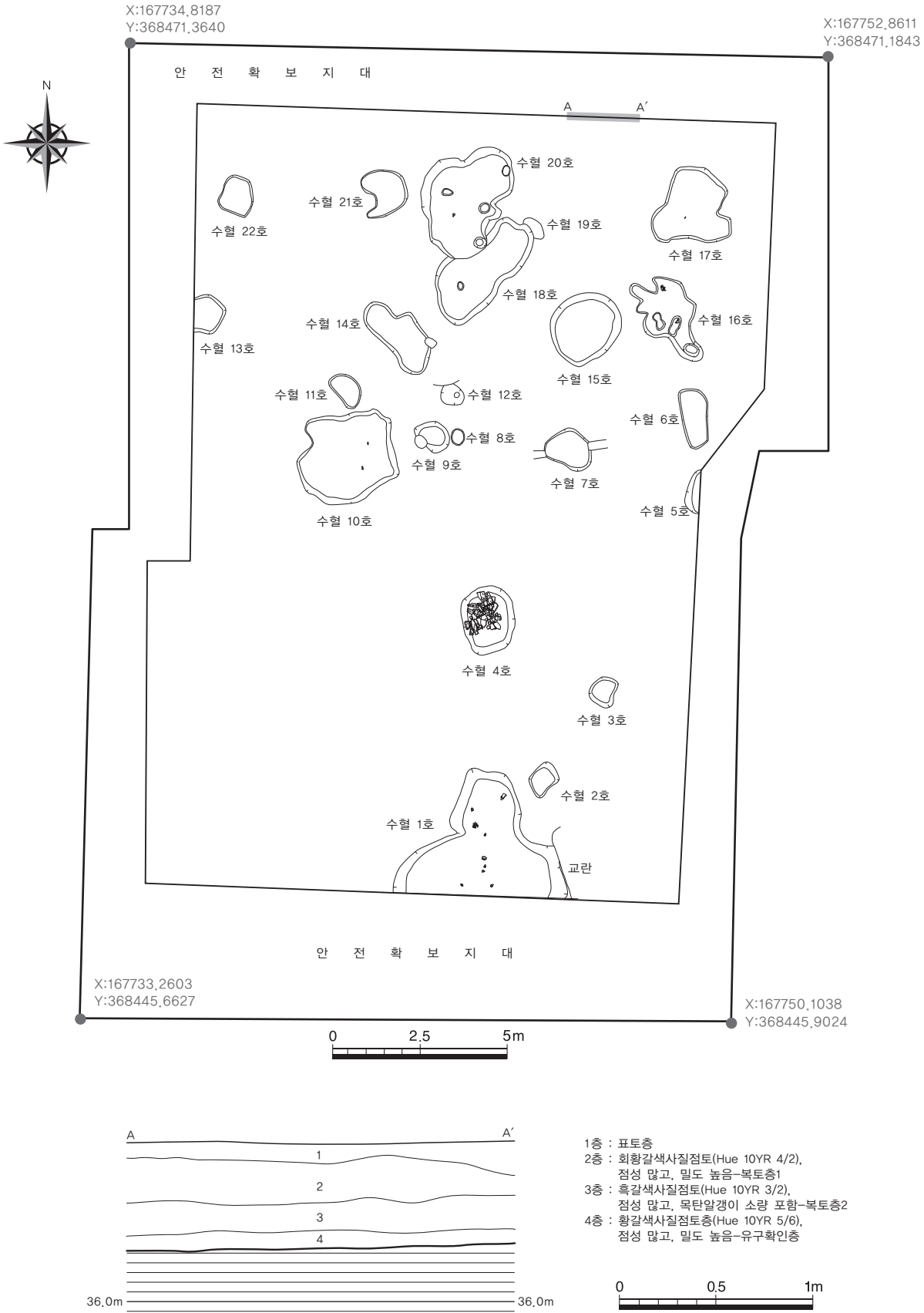
Tr.3 토층세부 및 주혈



Tr.3 수혈세부



도면 5. 입회조사(□)시 탐색트렌치(□) 배치도 및 현황 사진(S=1/300, 삼한문화재연구원, 2017. 4)



도면 6. 유적 유구배치도(S=1/150) 및 표준토층도(S=1/30)

2층은 약 20㎝ 두께의 회갈색사질점토층, 3층은 약 15㎝ 두께의 흑갈색사질점토층, 4층은 지표에서 약 50㎝ 아래의 황갈색사질점토층(유구확인층)이다.

발굴조사 결과, 통일신라시대 수혈 22기가 조사되었고, 완, 단경호, 파수부편, 수키와, 암키와 등 유물 22점이 출토되었다.

【표 2】 표준층위

해발	북쪽 조사경계	토층내용
35.8m		1층 : 표토층
		2층 : 회갈색사질점토층(복토층)
		3층 : 흑갈색사질점토층(복토층)
36.3m		4층 : 황갈색사질점토층(유구확인층)

〈통일신라시대〉

1) 수혈유구

(1) 수혈유구 1호

가. 유구(도면 7, 도판 3~5)

유적내 남쪽 경계에 접하여 해발고도 36.32m에 위치한다. 북동쪽으로 약 0.8m 떨어져 통일신라시대 2호 수혈, 북쪽으로 약 4.4m 떨어져 통일신라시대 4호 수혈이 위치한다. 유구는 기반층인 황갈색사질점토층에서 확인되었고, 유구의 내부에 갈색사질점토가 채워져 있어 육안으로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조사는 유구의 장축방향과 직교되는 중심부에 폭 20㎝의 '一'자 둑을 설정하고, 둑에 붙여서 탐색 피트를 설정하여 토층양상을 파악한 후, 일정한 깊이만큼 단계적으로 내부토를 제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평면형태는 부정형이고, 장축방향은 N-83°-W이다. 규모는 길이 448㎝, 잔존너비 320㎝, 잔존깊이 33㎝이다. 내부토는 단일층으로, 점성이 많고, 목탄알갱이가 소량 포함된 갈색사질점토이다.

유물은 유구의 중앙부에서 단경호와 파수부편 각 1점, 북쪽으로 치우쳐 단경호와 파수부편 각 1점, 남쪽으로 치우쳐 토기완 1점과 파수부편 4점 등 총 9점이 출토되었다.



도면 7. 수혈유구 1호 평면도 및 입 · 단면도(S=1/30)

나. 유물

1. 완(도면 8, 도판 4)

남쪽으로 치우쳐 출토되었다. 구연부에서 완신이 1/4 정도 남은 것을 도상복원하였고, 경질 소성이다. 색조는 명갈회색, 속심은 명적갈색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함유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고,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구연은 외반하고, 구연은 凹면을 이룬다. 바닥은 말각평저이다. 저부 외면에는 면깎기흔과 물손질 정면흔이, 내면에는 물손질 정면흔이 있다. 완신 상위 내면에는 내박자흔이 희미하게 남아 있다.

기고 5.4㎝, 복원구경 14.7㎝, 저경 7.8㎝

2. 단경호(도면 8, 도판 4)

북쪽으로 치우쳐 출토되었다. 구경부에서 동체 상위 1/4 정도 남은 것을 도상복원하였고, 연질 소성이다. 색조는 명갈회색, 속심은 등색이다. 태토는 소량의 세사립과 사립이 함유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고,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구경부는 외반하고, 구연단은 凹면을 이룬다. 동체 외면에는 종방향의 평행타날을 하고, 내면에는 내박자흔이 희미하게 있다.

현고 11.7㎝, 복원구경 17.5㎝

3. 단경호(도면 8, 도판 4)

중앙부에서 출토되었다. 구경부 3/4, 동체 일부가 남은 것을 도상복원하였고, 연질 소성이다. 색조와 속심은 등색이다. 태토는 소량의 석립과 사립이 함유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고,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구경부는 외반하고, 구연단은 凹면을 이룬다. 동최대경은 중위에 있다. 동체 상위 내면에는 점토 접합흔이 있고, 동체 외면에는 격자문 타날흔이 희미하게 잔존하며, 내면에는 내박자흔이 있다. 동체 외면 하위에는 깎기조정하였고, 전면 물손질 정면하였다.

현고 9.8㎝, 복원구경 12.8㎝, 복원동최대경 14.2㎝

4. 파수부편(도면 8, 도판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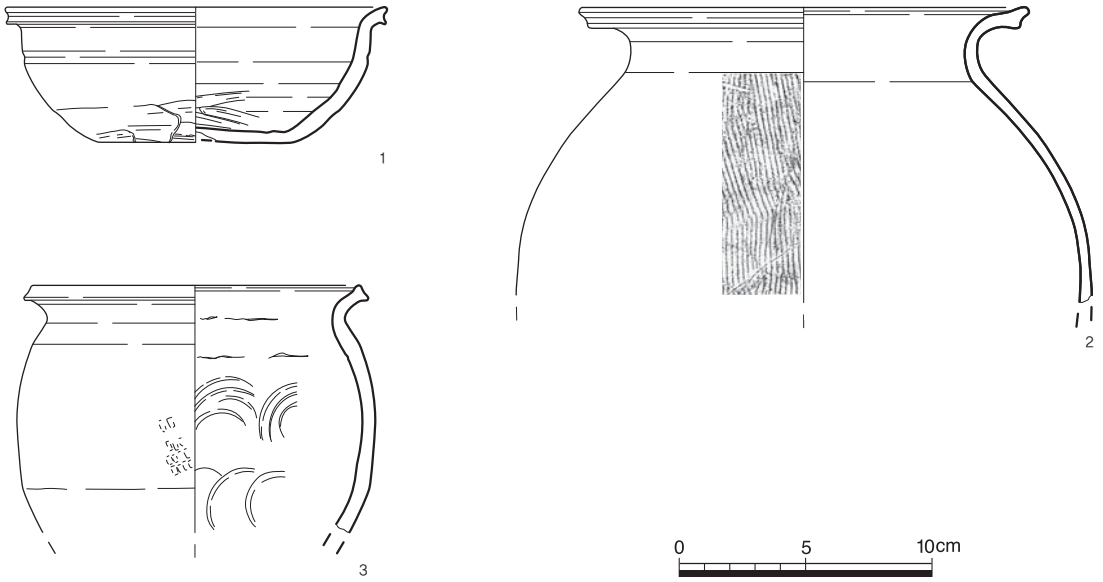
남쪽으로 치우쳐 출토되었고, 경질 소성이다. 색조와 속심은 회색이다. 태토는 다량의 사립이 함유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고,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끝을 자른 봉상 파수로, 단면형태는 원형이다. 파수와 접합된 동체 내면에는 내박자흔이 있고, 파수 전면 물손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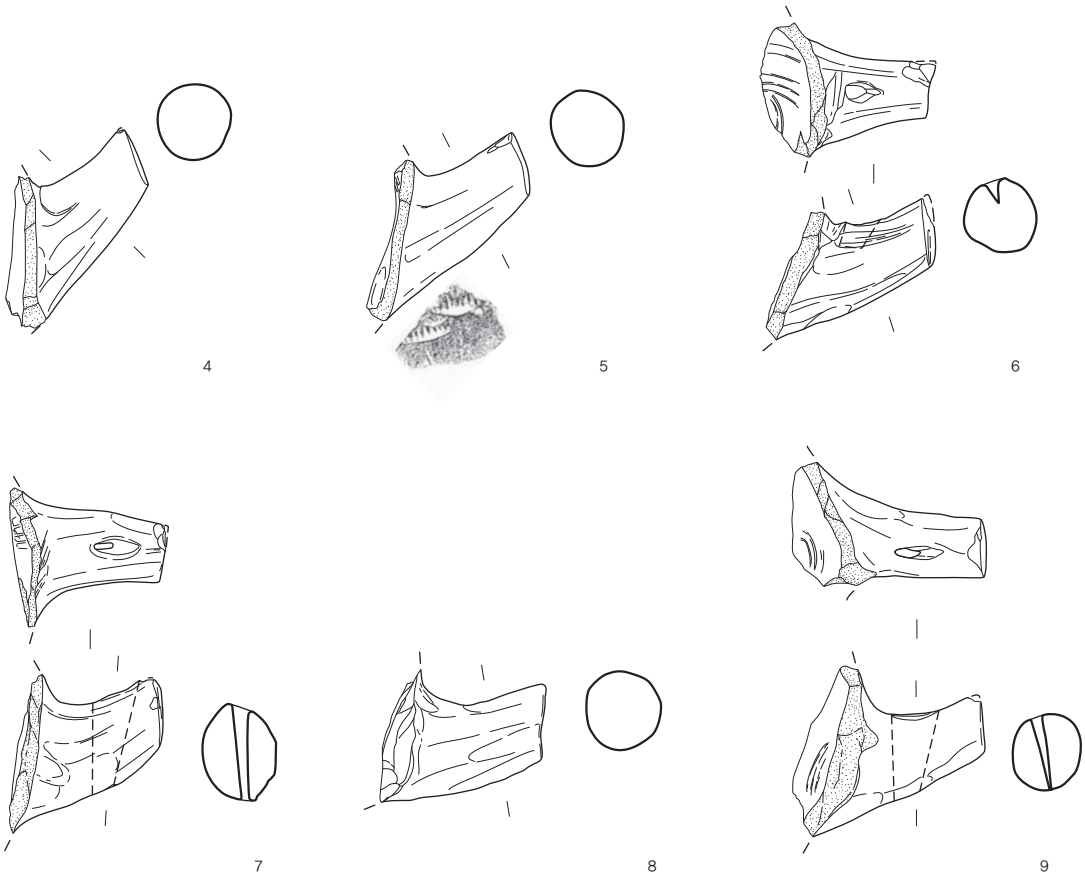
잔존길이 5.7㎝, 파수경 3.0×3.0㎝

5. 파수부편(도면 8, 도판 5)

남쪽으로 치우쳐 출토되었고, 경질 소성이다. 색조는 회색, 속심은 암회황색이다. 태토는 사립이 다량 함유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고,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끝을 자른 봉상 파수로, 단면형태는 원형이다. 파수와 접합된 동체 외면에는 선문 타날흔이 일부 잔존하고, 내면에는 내박자흔이 있다. 파수 전면 물손질하였다.

잔존길이 6.4㎝, 파수경 2.8×3.1㎝





도면 8. 수혈유구 1호 출토유물(1~9)

6. 파수부편(도면 8, 도판 5)

남쪽으로 치우쳐 출토되었다. 파수의 끝부분 일부가 결실되었고, 경질 소성이다. 색조와 속심은 회색이다. 태토는 사립이 다량 함유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고,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끝을 자른 봉상 파수로, 단면형태는 원형이다. 파수와 접합된 동체 내면에는 내박자흔이 있고, 파수 전면 물손질하였다. 파수의 윗면에서 아랫면을 향해 구멍을 뚫었으나, 관통되지 않았다.

잔존길이 6.8㎝, 파수경 2.8×3.0㎝

7. 파수부편(도면 8, 도판 5)

남쪽으로 치우쳐 출토되었다. 파수의 끝부분 일부가 결실되었고, 경질 소성이다. 색조와 속심은 회색이다. 태토는 사립이 함유된 정선된 점토이다. 끝을 자른 봉상 파수로, 단면형태는 원형이다. 파수와 접합된 동체 파편 내면에는 선문 내박자흔이 있고, 파수 전면 물손질하였다. 파수의 윗면에서 아랫면을 향해 구멍을 뚫어 관통하였다.

잔존길이 6.0㎝, 파수경 2.9×3.9㎝

8. 파수부편(도면 8, 도판 5)

중앙부에서 출토되었고, 경질 소성이다. 색조와 속심은 회색이다. 태토는 사립이 함유된 정선된 점토이다. 끝을 자른 봉상 파수로, 단면형태는 원형이다. 파수 전면 물손질하였다.

잔존길이 6.6㎝, 파수경 3.0×3.1㎝

9. 파수부편(도면 8, 도판 5)

북쪽에 치우쳐 출토되었다. 파수의 끝부분 일부가 결실되었고, 경질 소성이다. 색조와 속심은 회색이다. 태토는 사립이 다량 함유된 정선된 점토이다. 끝을 자른 봉상 파수로, 단면형태는 원형이다. 파수와 접합된 동체 파편 내면에는 내박자흔이 있고, 파수 전면 물손질하였다. 파수의 윗면에서 아랫면을 향해 구멍을 뚫었으나, 관통되지 않았다.

잔존길이 7.7㎝, 파수경 2.8×2.7㎝

(2) 수혈유구 2호(도면 9, 도판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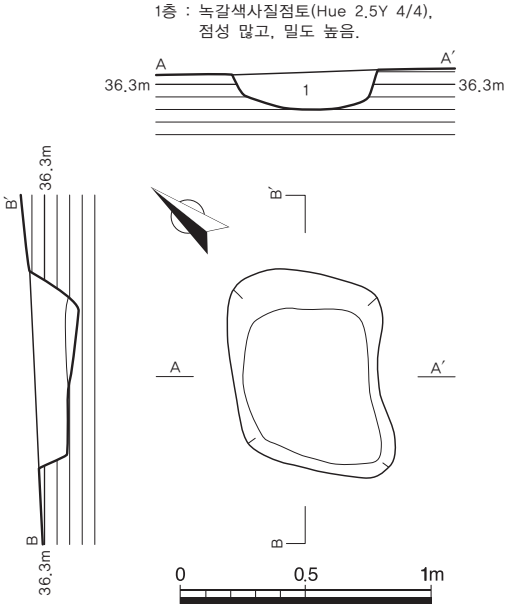
유적내 남동쪽 해발고도 36.36m에 위치한다. 남서쪽으로 약 0.8m 떨어져 통일신라시대 1호 수혈, 북동쪽으로 약 2.7m 떨어져 통일신라시대 3호 수혈이 위치한다. 유구는 기반층인 황갈색사질점토층에서 확인되었고, 유구의 내부에 녹갈색사질점토가 채워져 있어 육안으로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조사는 유구의 규모가 소형이기 때문에 장축방향과 직교되는 방향으로 중앙부의 절반을 절개하고, 일정한 깊이만큼 단계적으로 내부토를 제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장축방향은 N-52°-E이다. 잔존규모는 길이 78㎝, 너비 58㎝, 깊이 15㎝이다. 내부토는 단일층으로, 점성이 많고, 밀도가 높은 녹갈색사질점토이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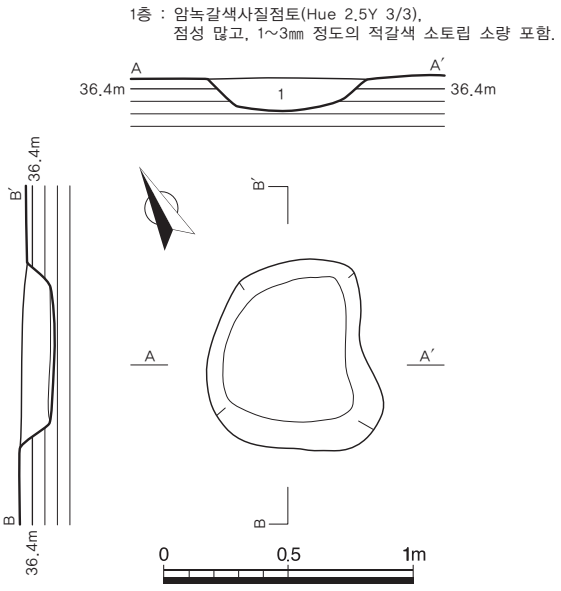
(3) 수혈유구 3호(도면 10, 도판 6)

유적내 남동쪽 해발고도 36.45m에 위치한다. 남서쪽으로 약 2.7m 떨어져 통일신라시대 2호 수혈, 북서쪽으로 약 3.3m 떨어져 통일신라시대 4호 수혈이 위치한다. 유구는 기반층인 황갈색사질점토층에서 확인되었고, 유구의 내부에 암녹갈색사질점토가 채워져 있어 육안으로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조사는 유구의 규모가 소형이기 때문에 장축방향과 직교되는 방향으로 중앙부의 절반을 절개하고, 일정한 깊이만큼 단계적으로 내부토를 제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장축방향은 N-28°-E이다. 잔존규모는 길이 74㎝, 너비 64㎝, 깊이 13㎝이다. 내부토는 단일층으로, 점성이 많고, 1~3㎜ 가량의 적갈색 소토립이 소량 포함된 암녹갈색사질점토이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도면 9. 수혈유구 2호 평면도 및 입 · 단면도(S=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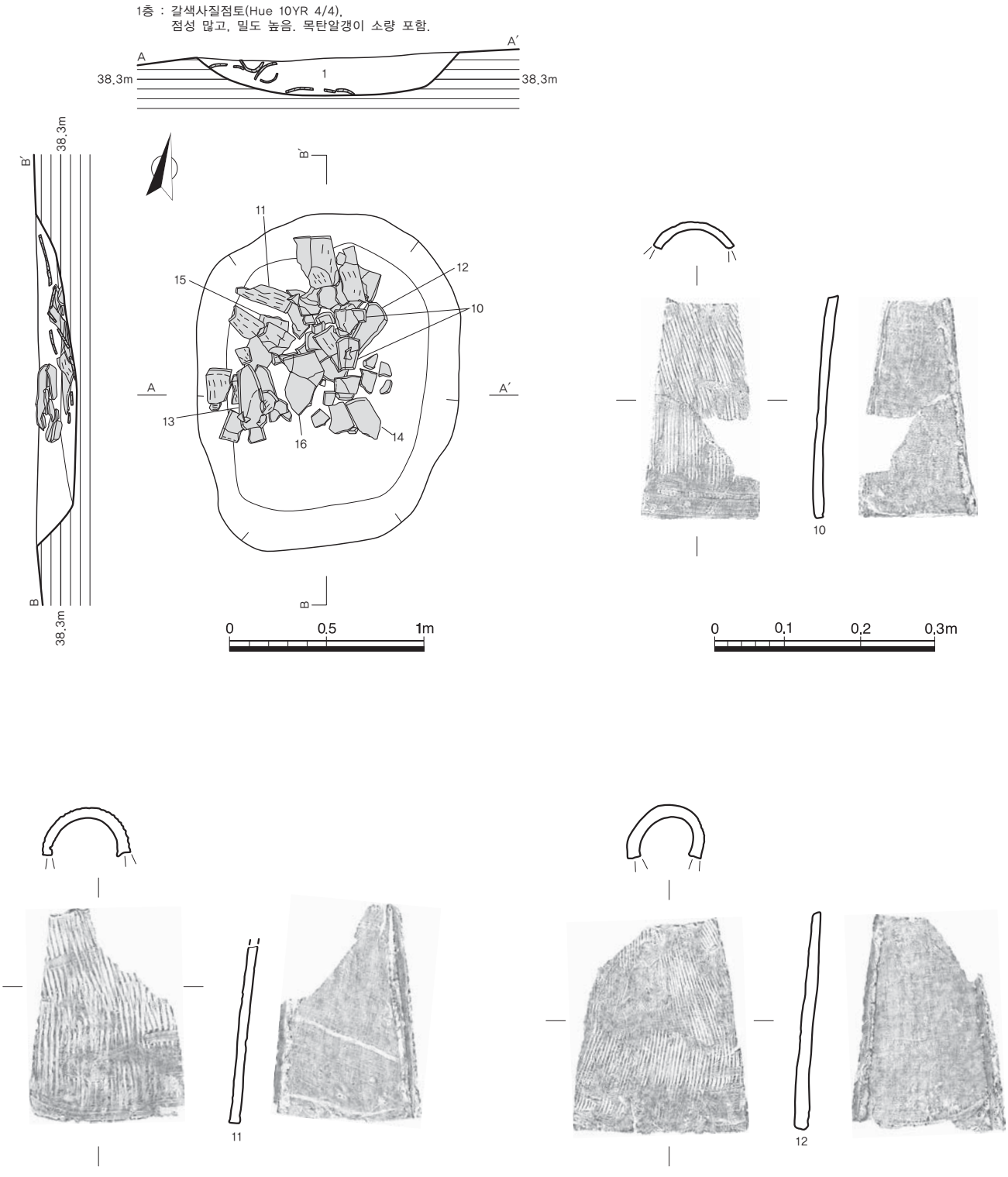


도면 10. 수혈유구 3호 평면도 및 입 · 단면도(S=1/30)

(4) 수혈유구 4호

가. 유구(도면 11, 도판 7~9)

유적내 중앙부에서 남쪽으로 살짝 치우쳐 해발고도 36.45m에 위치한다. 남쪽으로 약 4.4m 떨어져 통일신라시대 1호 수혈, 북동쪽으로 약 4.9m 떨어져 통일신라시대 7호 수혈이 위치한다. 유구는 기반층인 황갈색사질점토층에서 확인되었고, 유구의 내부에 갈색사질점토가 채워져 있어 육안으로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조사는 유구의 장축방향과 직교되는 중심부에 폭 20㎝의 '一'자 둑을 설정하고,



도면 11. 수혈유구 4호 평면도 및 입 · 단면도(S=1/30), 출토유물(10~12)

둑에 붙여서 탐색 피트를 설정하여 토층양상을 파악한 후, 일정한 깊이만큼 단계적으로 내부토를 제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이고, 장축방향은 N-8°-E이다. 규모는 장경 170㎝, 단경 134㎝, 잔존깊이 19㎝이다. 내부토는 단일층으로, 점성이 많고, 목탄알갱이가 소량포함된 갈색사질점토이다.

유물은 유구 전체에서 고르게 확인되었고, 수키와 4점, 수키와편 1점, 암키와 1점, 암키와편 1점 등 총 7점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10. 수키와(도면 11, 도판 8)

중앙부에서 출토되었다. 우측 중앙부가 일부 결실된 토수기와로, 연질 소성이다. 색조와 속심은 등색이다. 태토는 굵은 석립과 사립이 다량 함유된 정선된 점토이다. 외면에는 종선문이 타날되었고, 내면에는 포흔이 확인된다. 내면 우측에는 점토분할선과 윤철흔이 관찰되고, 와도흔은 좌측은 외면쪽으로, 우측은 내면쪽으로 0.3㎝ 정도 확인된다.

길이 30.3㎝, 너비 10.9㎝, 두께 1.1㎝

11. 수키와(도면 11, 도판 8)

북서쪽에 치우쳐 출토되었다. 우측 상단 모서리가 결실된 토수기와로, 연질 소성이다. 색조와 속심은 회색이다. 태토는 다량의 사립이 함유된 점토이다. 외면에는 태선문이 타날었고, 내면에는 포흔이 관찰된다. 내면에 좌측에 점토분할선이 관찰된다. 와도흔은 좌측은 내면쪽으로, 우측은 외면쪽으로 0.8~1.5㎝ 정도 확인된다.

길이 24.2㎝, 너비 11.9㎝, 두께 1.4㎝

12. 수키와(도면 11, 도판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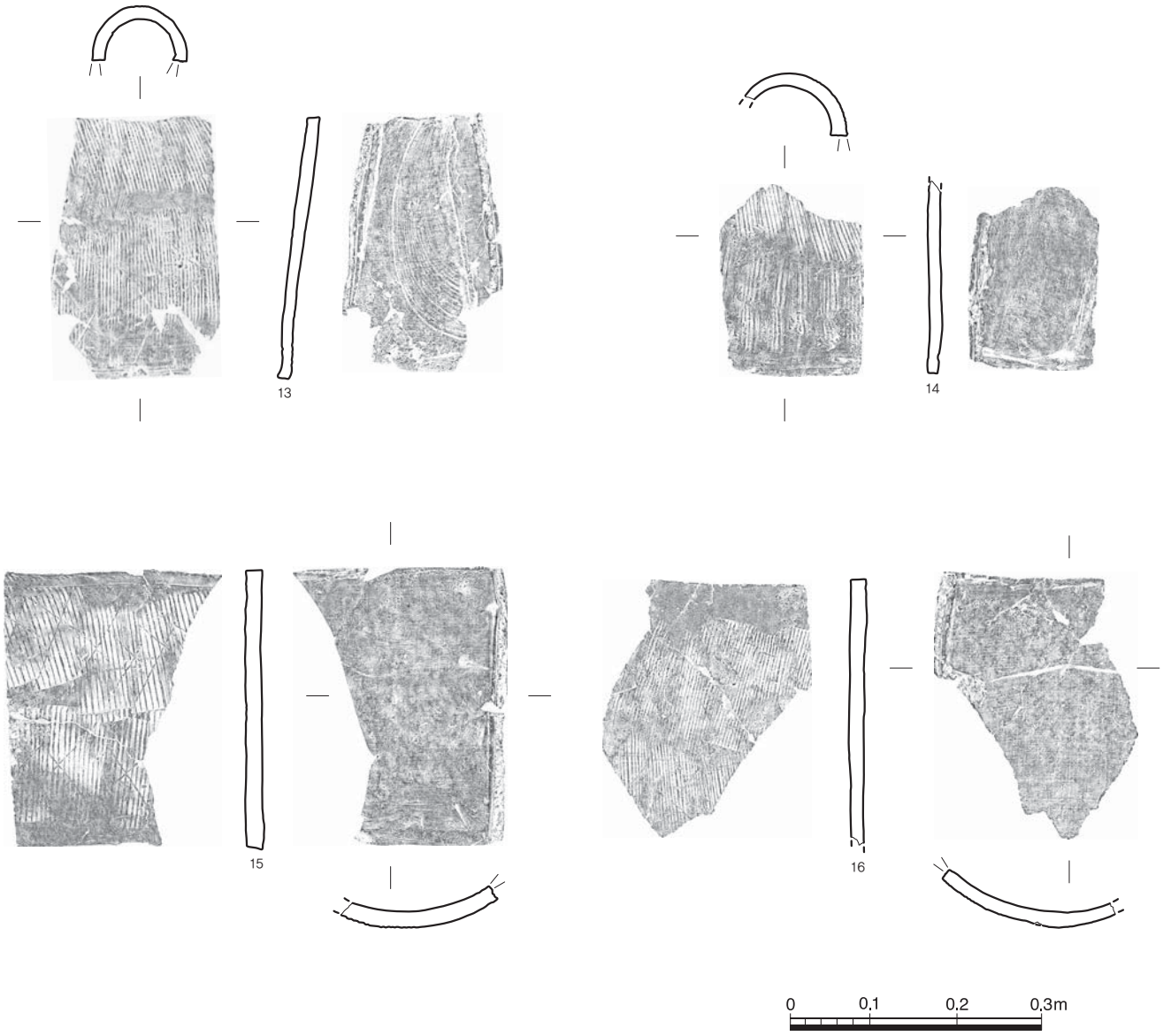
북동쪽에서 출토되었다. 우측 상단 모서리가 결실된 토수기와로, 경질 소성이다. 색조와 속심은 암청회색이다. 태토는 세사립이 다량 함유된 점토이다. 외면에는 태선문이 타날되었고, 내면에는 포흔이 관찰된다. 와도흔은 좌측은 내면쪽으로, 우측은 외면쪽으로 1.0㎝ 정도 확인된다. 전체적으로 휘어져 일그러졌다.

길이 29.5㎝, 너비 10.3㎝, 두께 1.6㎝

13. 수키와(도면 12, 도판 8)

남서쪽에 치우쳐 출토되었다. 하단의 양쪽 모서리가 결실된 토수기와로, 경질 소성이다. 색조와 속심은 암회색이다. 태토는 세사립과 사립이 다량 함유된 정선된 점토이다. 외면에는 선문이 타날되었고, 내면에는 사절흔과 포흔이 관찰된다. 내면 우측에는 점토분할흔이 있다. 와도흔은 좌측은 외면쪽으로, 우측은 내면쪽으로 0.6㎝ 정도 확인된다.

길이 31.2㎝, 너비 11.2㎝, 두께 1.5㎝



도면 12. 수혈유구 4호 출토유물(13~16)

14. 수키와편(도면 12, 도판 9)

남동쪽에 치우쳐 위치한다. 하단의 우측이 남아 있고, 연질 소성이다. 색조와 속심은 등색이다. 태토는 세사립이 다량 함유된 정선된 점토이다. 외면에는 선문이 타날되었고, 내면에는 포흔이 있다. 와도흔은 우측이 외면쪽으로 0.8㎝ 정도 확인된다.

길이 23.0㎝, 잔존너비 12.2㎝, 두께 1.5㎝

15. 암키와(도면 12, 도판 9)

북서쪽에 치우쳐 출토되었다. 좌측이 결실되었고, 연질 소성이다. 색조는 황등색, 속심은 등색이다. 외면에는 선문이 타날되었고, 내면에는 사절흔과 포흔이 관찰된다. 내면 우측에는 점토분할흔이

있다. 와도흔은 좌측은 외면쪽으로, 우측은 내면쪽으로 0.6㎝ 정도 확인된다.

길이 33.3㎝, 잔존너비 18.7㎝, 두께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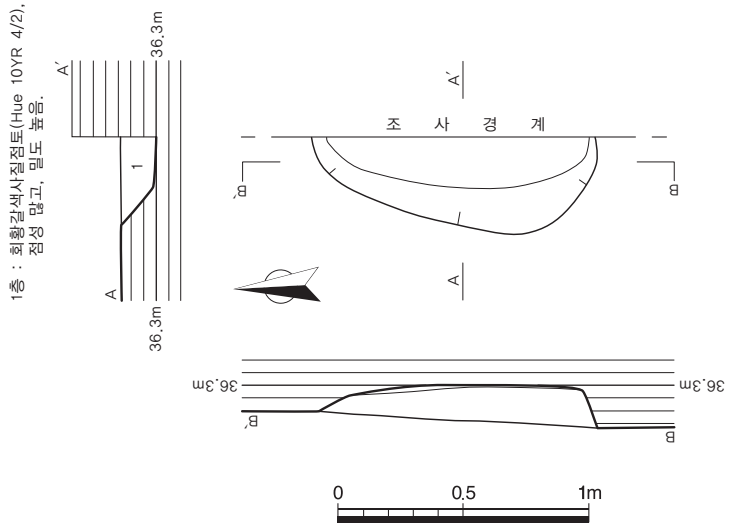
16. 암키와편(도면 12, 도판 9)

남쪽에서 출토되었다. 상단 좌측을 제외한 가장자리 부분은 결실되었고, 연질 소성이다. 색조는 흐린 등색, 속심은 등색이다. 태토는 소량의 석립과 세사립이 함유된 정선된 점토이다. 외면에는 선문이 타날되었고, 내면에는 포흔과 윤철흔이 관찰된다. 와도흔은 좌측 내면쪽으로 0.5㎝ 정도 확인된다.

잔존길이 31.7㎝, 잔존너비 20.6㎝, 두께 1.7㎝

(5) 수혈유구 5호(도면 13, 도판 10)

유적내 동쪽 경계 중앙부에 접하여 해발고도 36.47m에 위치한다. 북쪽으로 약 0.6m 떨어져 통일신라시대 6호 수혈, 서쪽으로 약 3.3m 떨어져 통일신라시대 7호 수혈이 위치한다. 유구는 기반층인 황갈색사질점토층에서 확인되었고, 유구의 내부에 회황갈색사질점토가 채워져 있어 육안으로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조사는 유구의 규모가 소형이기 때문에 장축방향과 직교되는 방향으로 중앙부의 절반을 절개하고, 일정한 깊이만큼 단계적으로 내부토를 제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장축방향은 N-6°-E이다. 잔존규모는 길이 115㎝, 너비 36㎝, 깊이 14㎝이다. 내부토는 단일층으로, 점성이 많고, 밀도가 높은 회황갈색사질점토이다.



도면 13. 수혈유구 5호 평면도 및 입 · 단면도(S=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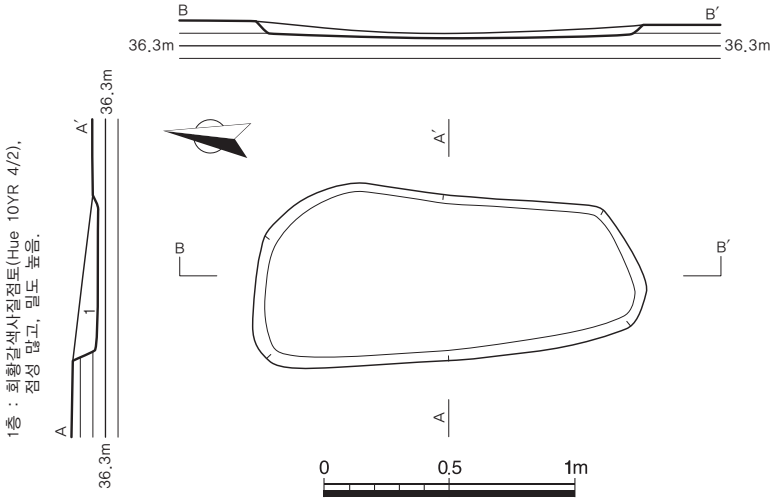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6) 수혈유구 6호(도면 14 도판 10)

유적내 동쪽 경계 중앙부에 인접하여 해발고도 36.43m에 위치한다. 남쪽으로 약 0.6m 떨어져 통일신라시대 5호 수혈, 북쪽으로 약 1.1m 떨어져 통일신라시대 16호 수혈이 위치한다. 유구는 기반층인 황갈색사질점토층에서 확인되었고, 유구의 내부에 회황갈색사질점토가 채워져 있어 육안으로 뚜

렷하게 확인되었다. 조사는 유구의 규모가 소형이기 때문에 장축방향과 직교되는 방향으로 중앙부의 절반을 절개하고, 일정한 깊이만큼 단계적으로 내부토를 제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고, 장축방향은 N-4°-E이다. 규모는 길이 154㎝, 너비 66㎝, 잔존깊이 6㎝이다. 내부토는 단일층으로, 점성이 많고, 밀도가 높은 회황갈색사질점토이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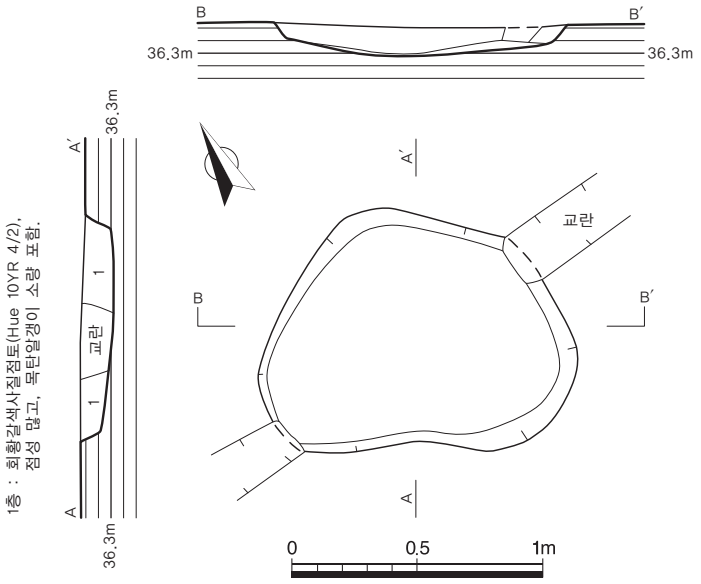


도면 14. 수혈유구 6호 평면도 및 입 · 단면도(S=1/30)

(7) 수혈유구 7호(도면 15, 도판 11)

유적내 북동쪽으로 살짝 치우쳐 해발고도 36.42m에 위치한다. 북쪽으로 약 2.3m 떨어져 통일신라시대 15호 수혈, 동쪽으로 약 0.7m 떨어져 통일신라시대 16호 수혈이 위치한다. 유구는 기반층인 황갈색사질점토층에서 확인되었다. 유구의 내부에 회황갈색사질점토가 채워져 있어 육안으로 뚜렷하게 확인되었고, 유구의 북동-남서로 길게 폭 23㎝의 교란층이 확인되었다. 조사는 유구의 규모가 소형이기 때문에 장축방향과 직교되는 방향으로 중앙부의 절반을 절개하고, 일정한 깊이만큼 단계적으로 내부토를 제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이고, 장축방향은 N-38°-E이다. 규모는 장경 116㎝, 단경 90㎝, 잔존깊이 12㎝이다. 내부토는 단일층으로, 점성이 많고, 목탄알갱이가 소량 포함된 회황갈색사질점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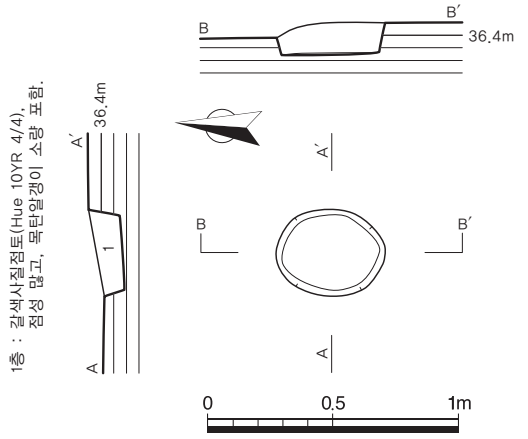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도면 15. 수혈유구 7호 평면도 및 입 · 단면도(S=1/30)

(8) 수혈유구 8호(도면 16, 도판 11)

유적내 중앙부 해발고도 36.45m에 위치한다. 서쪽으로 인접하여 통일신라시대 9호 수혈, 북쪽으로 약 0.9m 떨어져 통일신라시대 12호 수혈이 위치한다. 유구는 기반층인 황갈색사질점토층에서 확인되었고, 유구의 내부에 갈색사질점토가 채워져 있어 육안으로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조사는 유구의 규모가 소형이기 때문에 장축방향과 직교되는 방향으로 중앙부의 절반을 절개하고, 일정한 깊이만큼 단계적으로 내부토를 제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이고, 장축방향은 N-4°-W이다. 규모는 장경 43㎝, 단경 34㎝, 잔존깊이 13㎝이다. 내부토는 단일층으로, 점성이 많고, 목탄알갱이가 소량 포함된 갈색사질점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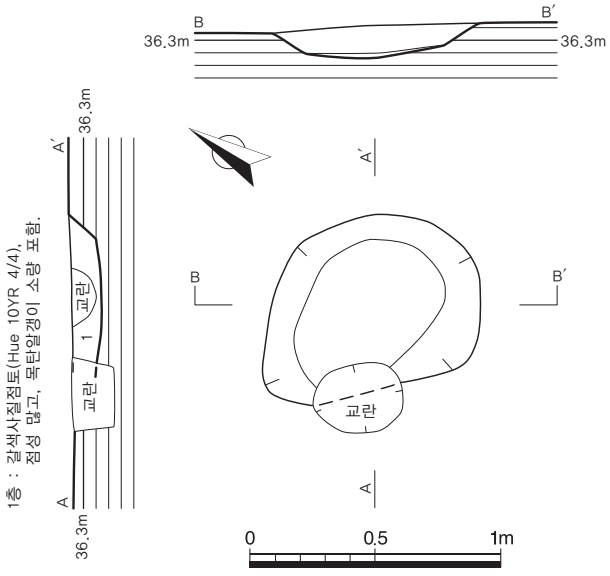


도면 16. 수혈유구 8호 평면도 및 입 · 단면도(S=1/30)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9) 수혈유구 9호(도면 17, 도판 11)

유적내 북서쪽으로 살짝 치우쳐 해발고도 36.37m에 위치한다. 동쪽으로 인접하여 통일신라시대 8호 수혈, 서쪽으로 약 0.8m 떨어져 통일신라시대 10호 수혈이 위치한다. 유구는 기반층인 황갈색사질점토층에서 확인되었다. 유구의 내부에 갈색사질점토가 채워져 있어 육안으로 뚜렷하게 확인되었고, 유구의 중앙부와 남서쪽 일부는 교란에 의해 파괴되었다. 조사는 유구의 규모가 소형이기 때문에 장축방향과 직교되는 방향으로 중앙부의 절반을 절개하고, 일정한 깊이만큼 단계적으로 내부토를 제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이고, 장축방향은 N-24°-W



도면 17. 수혈유구 9호 평면도 및 입 · 단면도(S=1/30)

이다. 규모는 장경 83㎝, 잔존단경 59㎝, 잔존깊이 12㎝이다. 내부토는 단일층으로, 점성이 많고, 목탄알갱이가 소량 포함된 갈색사질점토이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10) 수혈유구 10호

가. 유구(도면 18, 도판 13 · 14)

유적내 북서쪽으로 살짝 치우쳐 해발고도 36.34m에 위치한다. 북쪽으로 약 0.2m 떨어져 통일신라시대 11호 수혈, 동쪽으로 약 0.8m 떨어져 통일신라시대 9호 수혈이 위치한다. 유구는 기반층인 황갈색사질점토층에서 확인되었다. 유구의 내부에 갈색사질점토가 채워져 있어 육안으로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조사는 유구의 장축방향과 직교되는 중심부에 폭 20㎝의 '一'자 둑을 설정하고, 둑에 붙여서 탐색 피트를 설정하여 토층양상을 파악한 후, 일정한 깊이만큼 단계적으로 내부토를 제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평면형태는 부정형이고, 장축방향은 N-84°-W이다. 규모는 길이 256㎝, 너비 227㎝, 잔존깊이 30㎝이다. 내부토는 2개 층으로 구분되는데, 1층은 점성이 많고, 목탄알갱이가 소량 포함된 갈색사질점토층, 2층은 점성이 적고, 밀도가 보통인 황갈색사질점토층이다.

유물은 중앙부에서 남동쪽으로 치우쳐 파수부편 1점, 북동쪽으로 치우쳐 어망추 1점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17. 파수부편(도면 18, 도판 14)

남동쪽으로 치우쳐 출토되었고, 경질 소성이다. 색조와 속심은 회색이다. 태토는 세사립이 함유된 정선된 점토이다. 끝을 자른 봉상 파수로, 단면형태는 원형이다. 파수와 접합된 동체 내면에는 지두흔 있고, 파수 전면 물손질하였다. 파수의 윗면에서 아랫면을 향해 구멍을 뚫어 관통하였다.

잔존길이 7.7㎝, 파수경 2.6×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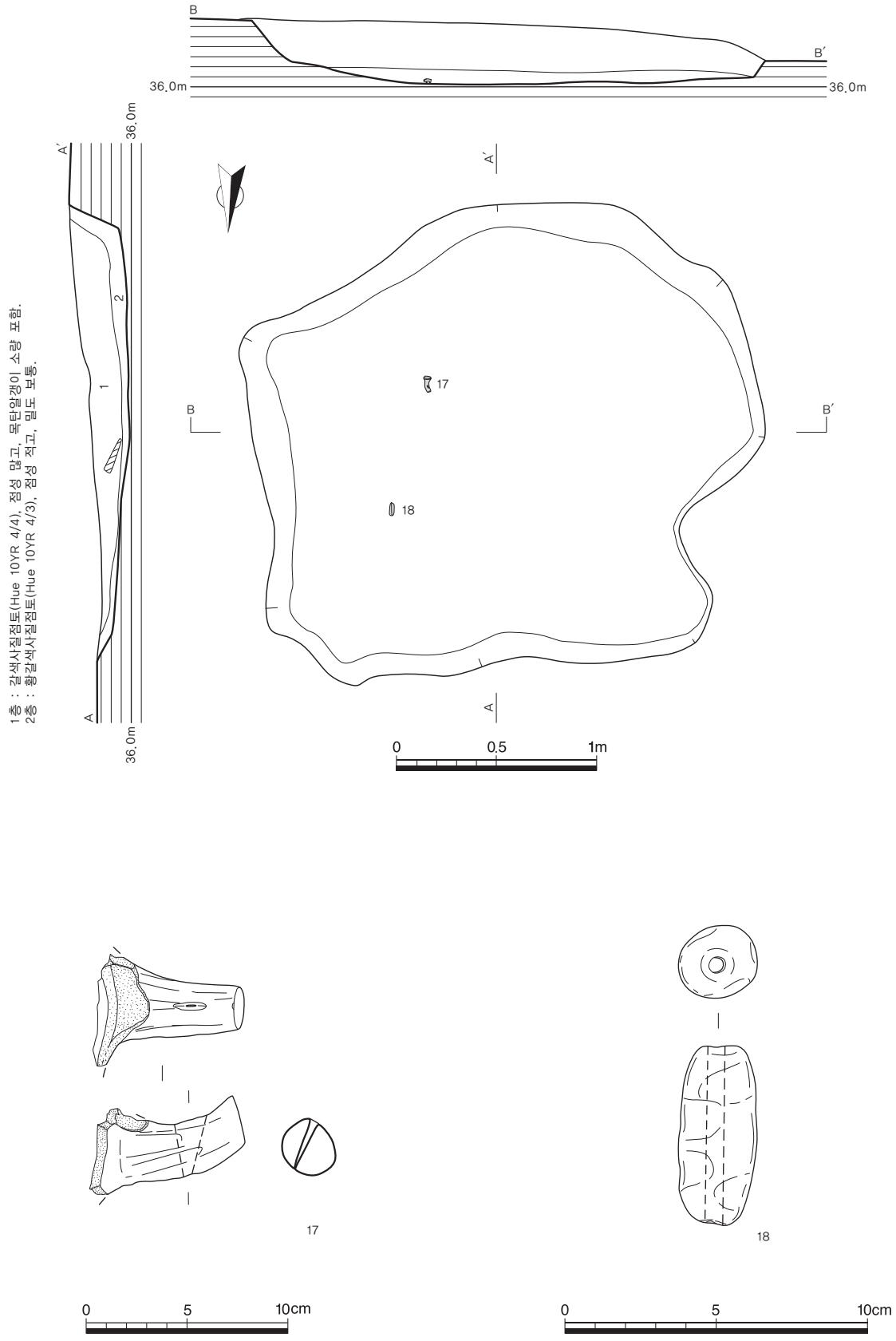
18. 어망추(도면 18, 도판 14)

북동쪽에 치우쳐 출토되었다. 완형이고, 토제로 경질 소성이다. 색조는 회색으로, 일부 담적갈색을 띤다. 태토는 소량의 석립과 사립이 함유된 정선된 점토이다. 외면에는 손누름흔이 있다. 상단 중앙에 지름 0.57㎝의 구멍을 뚫어 하단까지 관통하였다.

길이 5.9㎝, 경 2.6×2.4㎝, 무게 42.7g

(11) 수혈유구 11호(도면 19, 도판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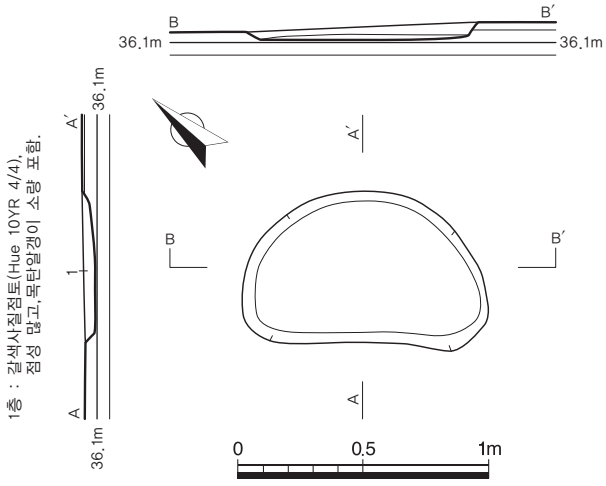
유적내 북서쪽으로 치우쳐 해발고도 36.18m에 위치한다. 북동쪽으로 약 1.7m 떨어져 통일신라시대 14호 수혈, 북서쪽으로 약 4.3m 떨어져 통일신라시대 13호 수혈이 위치한다. 유구는 기반층인 황갈색사질점토층에서 확인되었고, 유구의 내부에 갈색사질점토가 채워져 있어 육안으로 뚜렷하게 확



도면 18. 수혈유구 10호 평면도 및 입 · 단면도(S=1/30), 출토유물(17 · 18)

인되었다. 조사는 유구의 규모가 소형이기 때문에 장축방향과 직교되는 방향으로 중앙부의 절반을 절개하고, 일정한 깊이만큼 단계적으로 내부토를 제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이고, 장축방향은 N-41°-W이다. 규모는 장경 92㎝, 단경 60㎝, 잔존깊이 5㎝이다. 내부토는 단일층으로, 점성이 많고, 목탄알갱이가 소량 포함된 갈색사질점토이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도면 19. 수혈유구 11호 평면도 및 입 · 단면도(S=1/30)

(12) 수혈유구 12호(도면 20, 도판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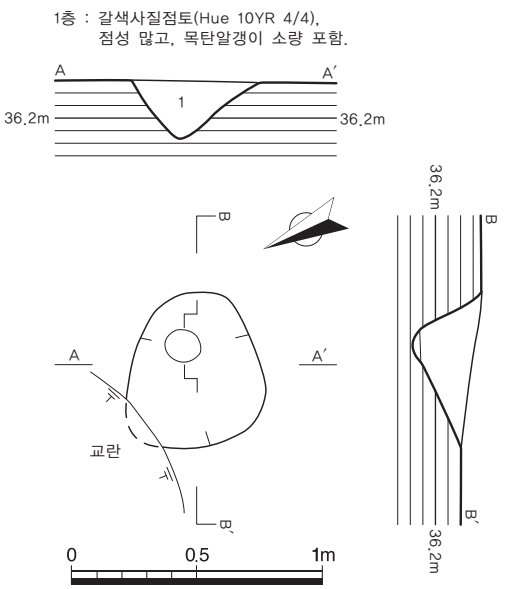
유적내 중앙부에서 북쪽으로 살짝 치우쳐 해발고도 36.38m에 위치한다. 북서쪽으로 약 0.9m 떨어져 통일신라시대 14호 수혈, 남쪽으로 약 0.9m 떨어져 통일신라시대 8호 수혈이 위치한다. 유구는 기반층인 황갈색사질점토층에서 확인되었다. 유구의 내부에 갈색사질점토가 채워져 있어 육안으로 뚜렷하게 확인되었고, 북서쪽 일부는 교란에 의해 파괴되었다. 조사는 유구의 규모가 소형이기 때문에 장축방향과 직교되는 방향으로 중앙부의 절반을 절개하고, 일정한 깊이만큼 단계적으로 내부토를 제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이고, 장축방향은 N-54°-W이다. 규모는 장경 62㎝, 단경 51㎝, 잔존깊이 23㎝이다. 내부토는 단일층으로, 점성이 많고, 목탄알갱이가 소량 포함된 갈색사질점토이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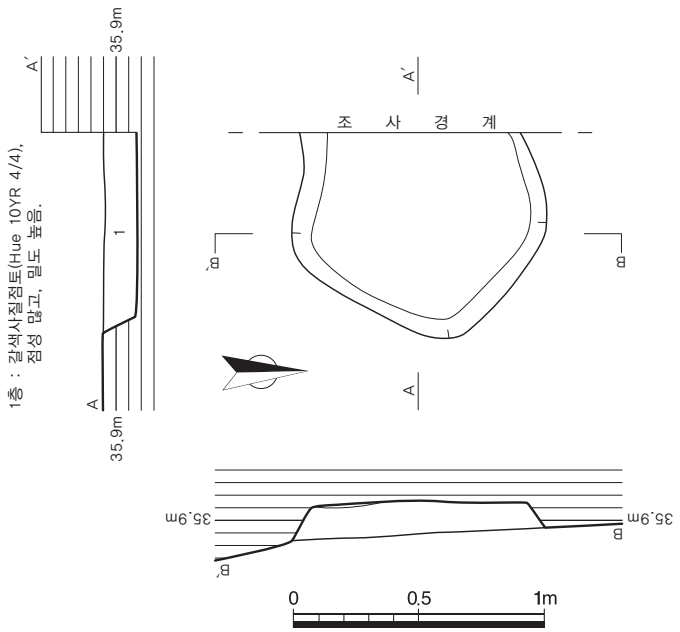
(13) 수혈유구 13호(도면 21, 도판 16)

유적내 서쪽 경계 상단부에 접하여 해발고도 35.98m에 위치한다. 북동쪽으로 약 3.1m 떨어져 통일신라시대 22호 수혈, 남동쪽으로 약 4.3m 떨어져 통일신라시대 11호 수혈이 위치한다. 유구는 기반층인 황갈색사질점토층에서 확인되었다. 유구의 내부에 갈색사질점토가 채워져 있어 육안으로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조사는 유구의 규모가 소형이기 때문에 장축방향과 직교되는 방향으로 중앙부의 절반을 절개하고, 일정한 깊이만큼 단계적으로 내부토를 제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장축방향은 N-7°-E이고, 규모는 길이 100㎝, 잔존너비 82㎝, 잔존깊이 13㎝이다. 내부토는 단일층으로, 점성이 많고, 밀도가 높은 갈색사질점토이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도면 20. 수혈유구 12호 평면도 및 입 · 단면도(S=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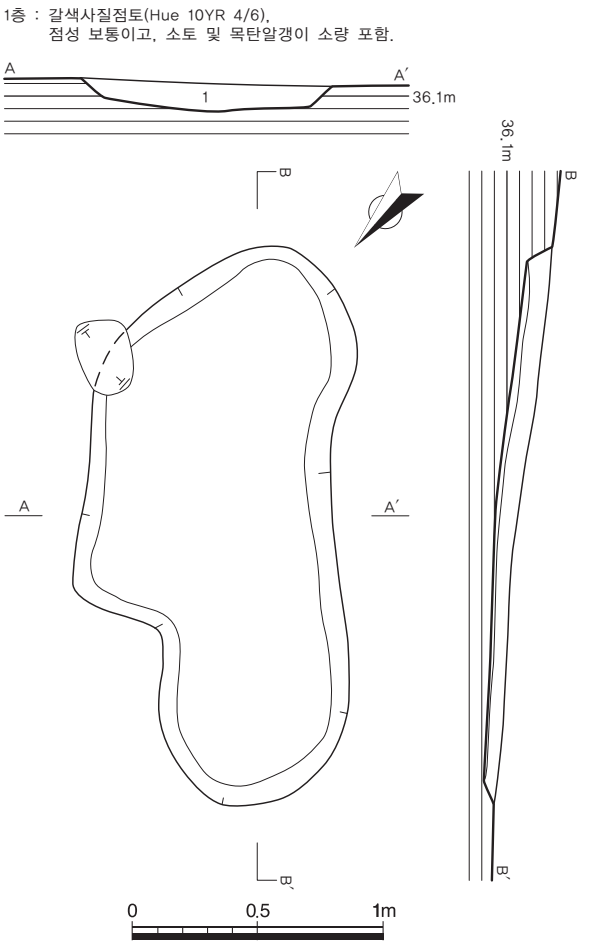


도면 21. 수혈유구 13호 평면도 및 입 · 단면도(S=1/30)

(14) 수혈유구 14호(도면 22, 도판 16)

유적내 북서쪽 해발고도 35.98m에 위치한다. 북동쪽으로 약 1m 떨어져 통일신라시대 18호 수혈, 북쪽으로 약 3m 떨어져 통일신라시대 21호 수혈이 위치한다. 유구는 기반층인 황갈색사질점토층에서 확인되었다. 유구의 내부에 갈색사질점토가 채워져 있어 육안으로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조사는 유구의 장축방향과 직교되는 중심부에 폭 20㎝의 '—' 자 둑을 설정하고, 둑에 붙여서 탐색 피트를 설정하여 토층양상을 파악한 후, 일정한 깊이만큼 단계적으로 내부토를 제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평면형태는 부정형이고, 장축방향은 N-35°-W이다. 규모는 길이 233㎝, 너비 100㎝, 잔존깊이 11㎝이다. 내부토는 단일층으로, 점성은 보통이고, 소토 및 목탄알갱이가 소량 포함된 갈색사질점토이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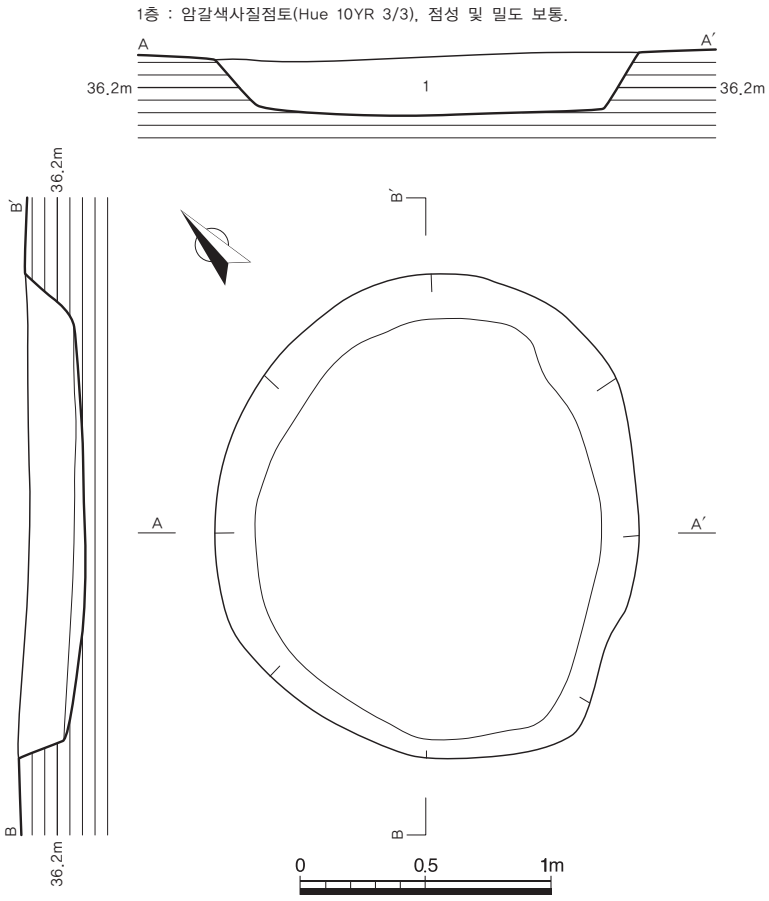


도면 22. 수혈유구 14호 평면도 및 입 · 단면도(S=1/30)

(15) 수혈유구 15호(도면 23, 도판 17)

유적내 북동쪽 해발고도 36.35m에 위치한다. 동쪽으로 약 0.7m 떨어져 통일신라시대 16호 수혈, 남쪽으로 약 2.3m 떨어져 통일신라시대 7호 수혈이 위치한다. 유구는 기반층인 황갈색사질점토층에서 확인되었다. 유구의 내부에 암갈색사질점토가 채워져 있어 육안으로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조사는 유구의 장축방향과 직교되는 중심부에 폭 20㎝의 '一'자 둑을 설정하고, 둑에 붙여서 탐색 피트를 설정하여 토층양상을 파악한 후, 일정한 깊이만큼 단계적으로 내부토를 제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이고, 장축방향은 N-42°-E이다. 규모는 장경 192㎝, 단경 169㎝, 잔존깊이 23㎝이다. 내부토는 단일층으로, 점성 및 밀도가 보통인 암갈색사질점토이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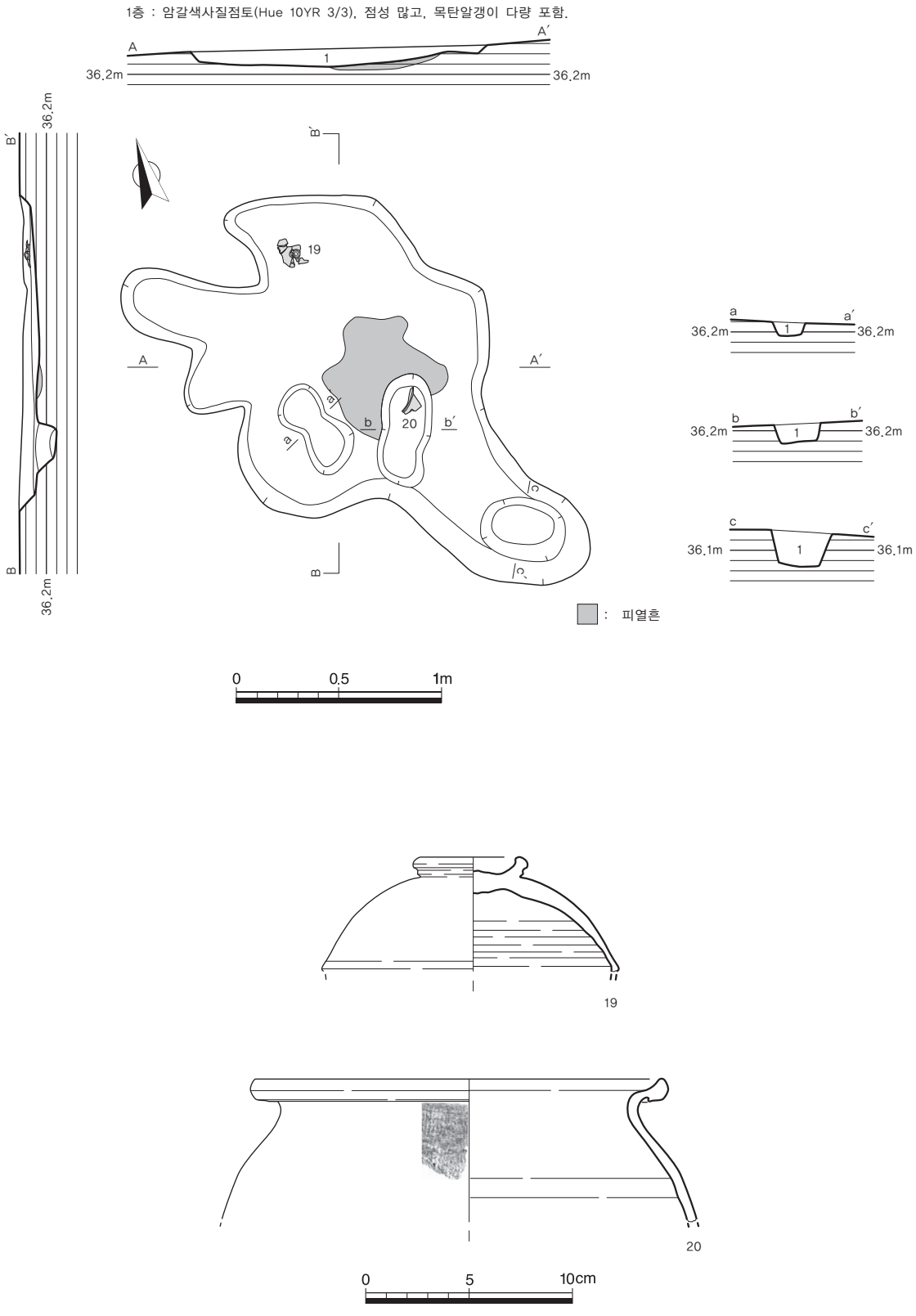


도면 23. 수혈유구 15호 평면도 및 입 · 단면도(S=1/30)

(16) 수혈유구 16호

가. 유구(도면 24, 도판 18~20)

유적내 북동쪽 해발고도 36.34m에 위치한다. 남쪽으로 약 1.1m 떨어져 통일신라시대 6호 수혈, 북쪽으로 약 1.3m 떨어져 통일신라시대 17호 수혈이 위치한다. 유구는 기반층인 황갈색사질점토층에서 확인되었다. 유구의 내부에 암갈색사질점토가 채워져 있어 육안으로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조사는 유구의 장축방향과 직교되는 방향으로 중앙부의 절반을 절개하고, 일정한 깊이만큼 단계적으로 내부토를 제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평면형태는 부정형이고, 장축방향은 N-28°-E이다. 규모는 길이 153㎝, 너비 144㎝, 잔존깊이 17㎝이다. 내부토는 단일층으로, 점성이 많고, 목탄알갱이가 소량 포함된 암갈색사질점토이다.



도면 24. 수혈유구 16호 평면도 및 입 · 단면도(S=1/30), 출토유물(19 · 20)

유구 중앙부에서 피열흔이 확인되었다. 내부시설로는 주혈 3개가 확인되었다. 내부주혈1 · 2는 남쪽으로 치우쳐 확인되었고, 내부주혈3은 남동쪽으로 치우쳐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이고, 단면형태는 '凵'형이다. 규모는 장경 41~55㎝, 단경 16~30㎝, 잔존깊이 7~17㎝이다. 내부토는 단일층으로, 점성이 많고, 목탄알갱이가 소량 포함된 암갈색사질점토이다.

유물은 북쪽으로 치우쳐 개 1점과 내부주혈2내에서 단경호 구연부편 1점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19. 개(도면 24, 도판 20)

북쪽으로 치우쳐 출토되었다. 꼭지 일부와 드림부가 모두 결실된 개신 일부가 남은 것을 도상복원하였고, 경질 소성이다. 외면 색조는 갈회색, 내면은 회갈색, 속심은 등색을 띤다. 태토는 세사립이 함유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고, 소성은 양호하다. 꼭지는 굽형이고, 개신은 반구형이다. 개신 상위 외면에는 회전물손질을 하였다.

현고 5.6㎝, 복원꼭지경 5.5㎝

20. 단경호 구연부편(도면 24, 도판 20)

내부주혈2내에서 출토되었다. 구연부 및 동체 상위 일부가 남은 것을 도상복원하였고, 연질 소성이다. 색조는 담등색이고, 속심은 등색이다. 동체 외면에는 승석문 타날흔, 내면에는 내박자흔이 있으나, 내외면 모두 회전물손질 정면하여 희미하게 잔존한다.

현고 6.9㎝, 복원구경 19.2㎝

(17) 수혈유구 17호

가. 유구(도면 25, 도판 21)

유적내 북동쪽으로 치우쳐 해발고도 36.36m에 위치한다. 남쪽으로 약 1.3m 떨어져 통일신라시대 16호 수혈, 남서쪽으로 약 2.8m 떨어져 통일신라시대 15호 수혈이 위치한다. 유구는 기반층인 황갈색사질점토층에서 확인되었다. 유구의 내부에 회황갈색사질점토가 채워져 있어 육안으로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조사는 유구의 장축방향과 직교되는 중심부에 폭 20㎝의 '一'자 둑을 설정하고, 둑에 붙여서 탐색 피트를 설정하여 토층양상을 파악한 후, 일정한 깊이만큼 단계적으로 내부토를 제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평면형태는 부정형이고, 장축방향은 N-17°-E이다. 규모는 길이 184㎝, 너비 143㎝, 잔존깊이 8㎝이다. 내부토는 단일층으로, 점성이 많고, 밀도가 높은 회황갈색사질점토이다.

유물은 남서쪽에서 어망추 1점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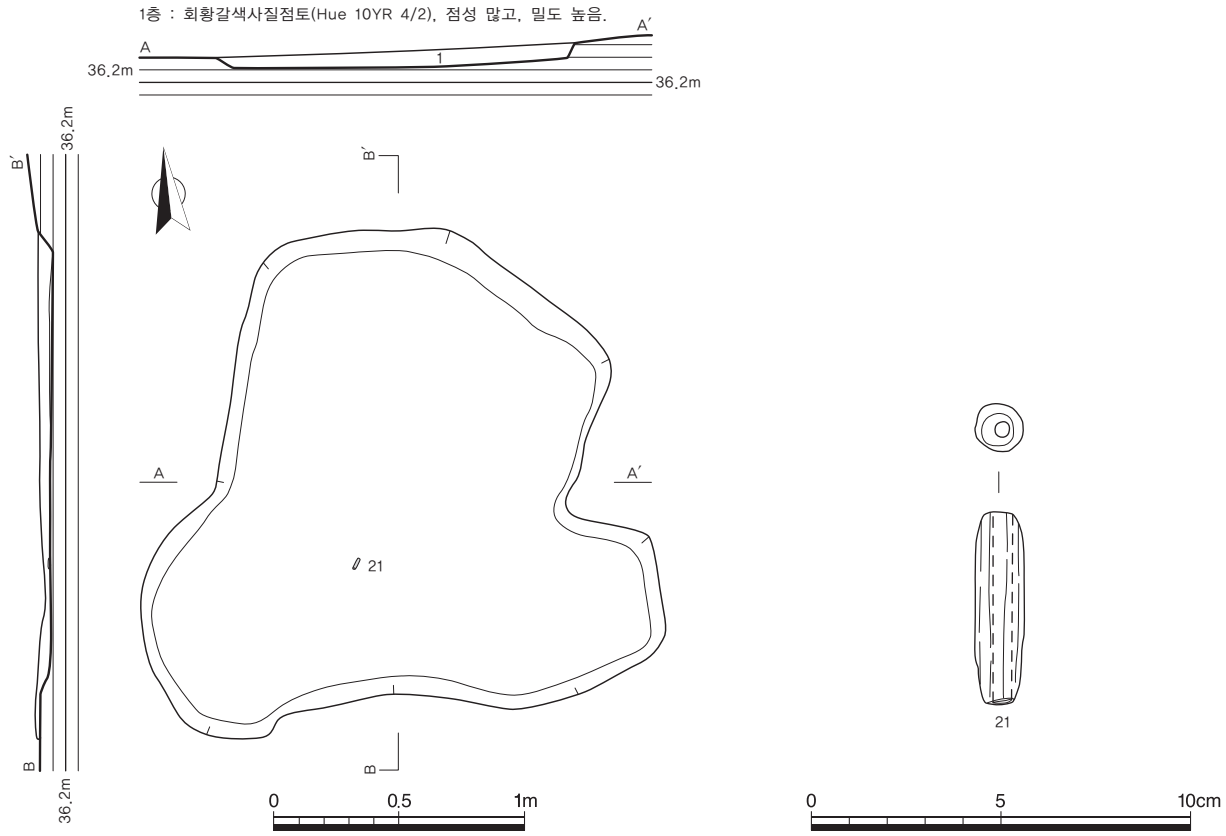
나. 유물

21. 어망추(도면 25, 도판 21)

남서쪽에서 출토되었다. 완형이고, 토제로 경질 소성이다. 색조는 암청회색이다. 태토는 세사립이

함유된 정선된 점토이다. 외면에는 길이 방향으로 깎기조정하였다. 상단 중앙에 지름 0.35㎝의 구멍을 뚫어 하단까지 관통하였다.

길이 5.0㎝, 경 1.3㎝, 무게 8.7g



도면 25. 수혈유구 17호 평면도 및 입 · 단면도(S=1/30), 출토유물(21)

(18) 수혈유구 18호(도면 26, 도판 22 · 23)

유적내 북쪽으로 치우쳐 해발고도 36.32m에 위치하고, 후축된 19호 수혈에 의해 북동쪽 일부가 파괴되었으며, 후축된 20호 수혈에 의해 북서쪽 일부가 파괴되었다. 북서쪽으로 통일신라시대 20호 수혈과 중복되어 있고, 남서쪽으로 약 1m 떨어져 통일신라시대 14호 수혈이 위치한다. 유구는 기반층인 황갈색사질점토층에서 확인되었다. 유구의 내부에 암갈색사질점토가 채워져 있어 육안으로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조사는 유구의 장축방향과 직교되는 중심부에 폭 20㎝의 '一'자 둑을 설정하고, 둑에 붙여서 탐색 피트를 설정하여 토층양상을 파악한 후, 일정한 깊이만큼 단계적으로 내부토를 제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평면형태는 부정형이고, 장축방향은 N-52°-E이다. 규모는 길이 315㎝, 너비 167㎝, 잔존깊이 18㎝이다. 내부토는 단일층으로, 점성이 많고, 목탄알갱이가 소량 포함

된 암갈색사질점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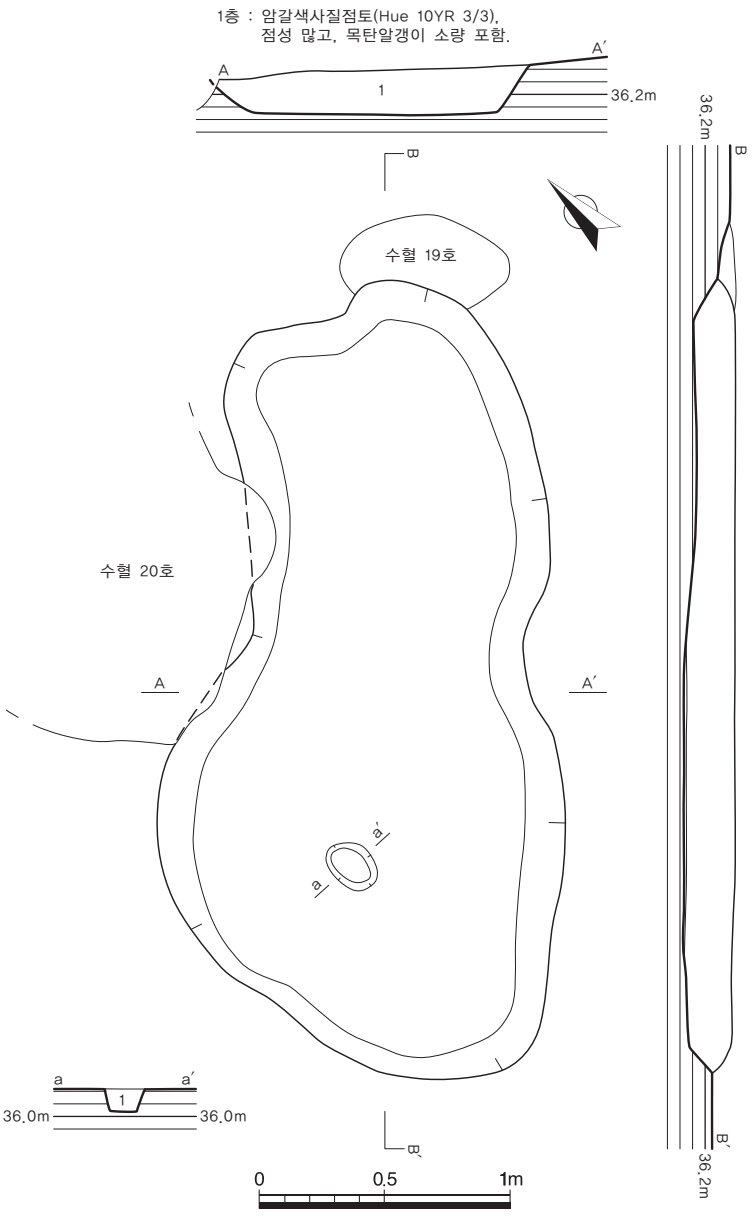
내부시설로는 주혈 1개가 확인되었다. 내부주혈은 남서쪽으로 치우쳐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이고, 단면형태는 '凵'형이다. 규모는 장경 22㎝, 단경 16㎝, 깊이 9㎝이다. 내부토는 단일층으로, 점성이 많고, 목탄알갱이가 소량 포함된 암갈색사질점토이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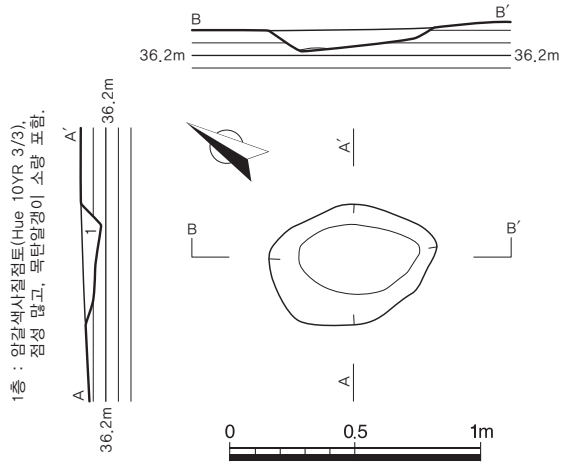
(19) 수혈유구 19호(도면 27, 도판 23)

유적내 북동쪽으로 치우쳐 해발고도 36.31m에 위치하고, 선축된 18호 수혈의 북동쪽 일부를 파괴하고 조성되었다. 남서쪽으로 통일신라시대 18호 수혈과 중복되어 있고, 북쪽으로 약 0.8m 떨어져 통일신라시대 20호 수혈이 위치한다. 유구는 기반층인 황갈색사질점토층에서 확인되었다. 유구의 내부에 암갈색사질점토가 채워져 있어 육안으로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조사는 유구의 규모가 소형이기 때문에 장축방향과 직교되는 방향으로 중앙부의 절반을 절개하고, 일정한 깊이만큼 단계적으로 내부토를 제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이고, 장축방향은 N-30°-W이다. 규모는 장경 65㎝, 단경 48㎝, 잔존깊이 8㎝이다. 내부토는 단일층으로, 점성이 많고, 목탄알갱이가 소량 포함된 암갈색사질점토이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도면 26. 수혈유구 18호 평면도 및 입 · 단면도(S=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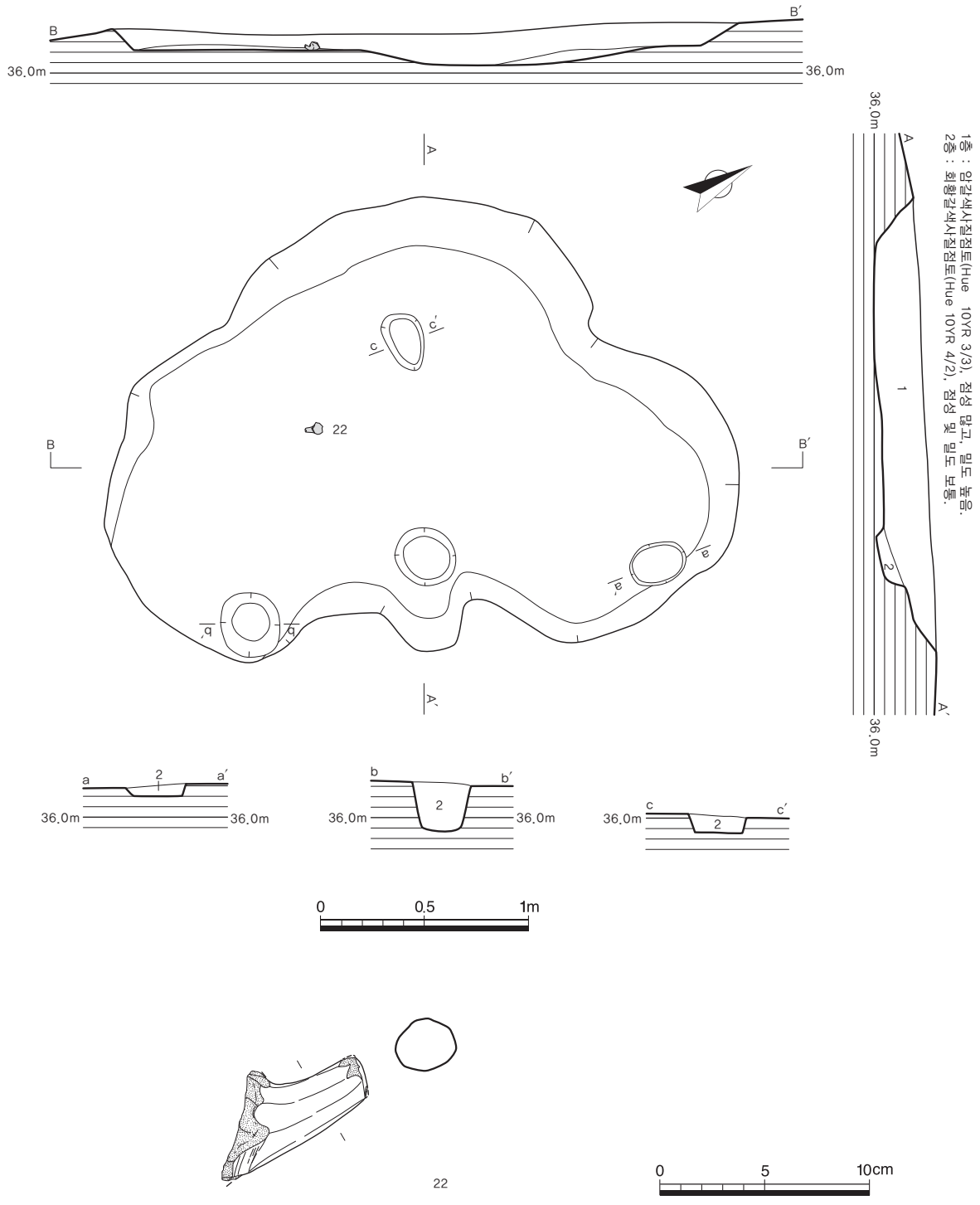


도면 27. 수혈유구 19호 평면도 및 입 · 단면도(S=1/30)

(20) 수혈유구 20호

가. 유구(도면 28, 도판 24 · 25)

유적내 북쪽으로 치우쳐 해발고도 36.3m에 위치하고, 선축된 18호 수혈의 북서쪽 일부를 파괴하고 조성되었다. 남동쪽으로 통일신라시대 18호 수혈과 중복되어 있고, 서쪽으로 약 0.5m 떨어져 통일신



도면 28. 수혈유구 20호 평면도 및 입 · 단면도(S=1/30), 출토유물(22)

라시대 21호 수혈이 위치한다. 유구는 기반층인 황갈색사질점토층에서 확인되었다. 유구의 내부에 암갈색사질점토가 채워져 있어 육안으로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조사는 유구의 장축방향과 직교되는 중심부에 폭 20㎝의 '一'자 둑을 설정하고, 둑에 붙여서 탐색 피트를 설정하여 토층양상을 파악한 후, 일정한 깊이만큼 단계적으로 내부토를 제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평면형태는 부정형이고, 장축방향은 N-38°-E이다. 규모는 길이 300㎝, 너비 217㎝, 잔존깊이 20㎝이다. 내부토는 2개 층으로 구분되는데, 1층은 점성이 많고, 밀도가 높은 암갈색사질점토층, 2층은 내부주혈로, 점성 및 밀도가 보통인 회황갈색사질점토층이다.

내부시설로는 주혈 4개가 확인되었다. 내부주혈은 동벽 아래에서 3개, 서벽 중앙부 아래에서 1개가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원형과 타원형이고, 단면형태는 '凵'형이다. 규모는 장경 28~29㎝, 단경 20~31㎝, 깊이 5~24㎝이다.

유물은 중앙부에서 파수부편 1점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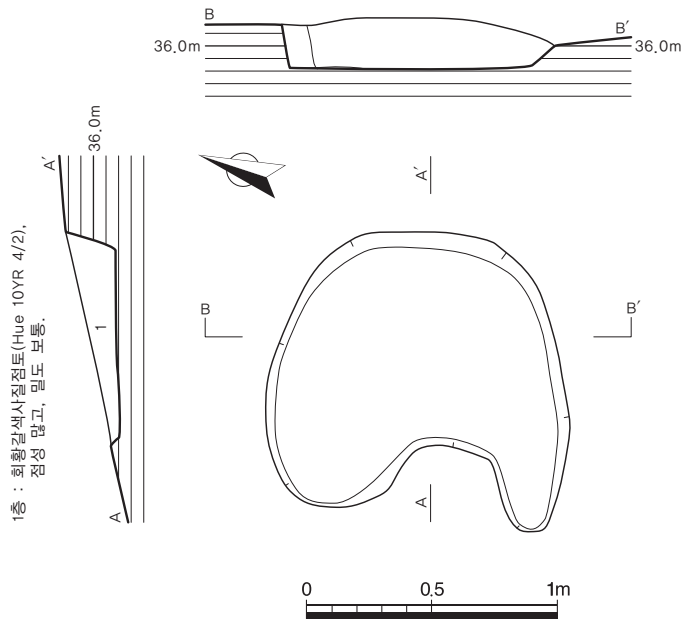
22. 파수부편(도면 28, 도판 25)

중앙부에서 출토되었다. 단부 일부가 결실되었고, 경질 소성이다. 색조는 회색, 속심은 회백색이다. 태토는 세사립이 다량 함유된 정선된 점토이다. 끝을 자른 봉상 파수로, 단면형태는 원형이다. 파수에는 길이 방향으로 물손질하였다.

잔존길이 7.0㎝, 파수경 2.5×2.9㎝

(21) 수혈유구 21호(도면 29, 도판 26)

유적내 북서쪽으로 치우쳐 해발고도 36.11m에 위치한다. 동쪽으로 약 0.5m 떨어져 통일신라시대 20호 수혈, 남쪽으로 약 3m 떨어져 통일신라시대 14호 수혈이 위치한다. 유구는 기반층인 황갈색사질점토층에서 확인되었다. 유구의 내부에 회황갈색사질점토가 채워져 있어 육안으로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조사는 유구의 규모가 소형이기 때문에 장축방향과 직교되는 방향으로 중앙부의 절반을 절개하고, 일정한 깊이만큼 단계적으로 내부토를 제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평면형태는 부정형이고, 장축방향은 N-19°-W이다. 규



도면 29. 수혈유구 21호 평면도 및 입 · 단면도(S=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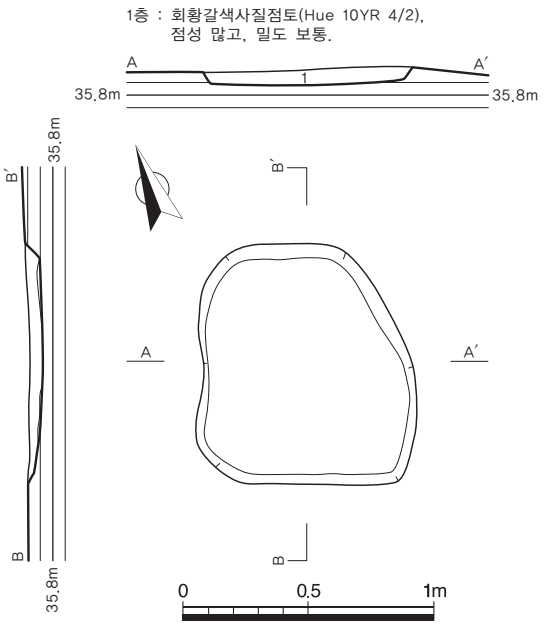
모는 길이 120㎝, 너비 85㎝, 잔존깊이 18㎝이다. 내부토는 단일층으로, 점성이 많고, 밀도가 보통인 회황갈색사질점토이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22) 수혈유구 22호(도면 30, 도판 26)

유적내 북서쪽으로 치우쳐 해발고도 35.91m에 위치한다. 동쪽으로 약 3.7m 떨어져 통일신라시대 21호 수혈, 남서쪽으로 약 3.1m 떨어져 통일신라시대 13호 수혈이 위치한다. 유구는 기반층인 황갈색사질점토층에서 확인되었다. 유구의 내부에 회황갈색사질점토가 채워져 있어 육안으로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조사는 유구의 규모가 소형이기 때문에 장축방향과 직교되는 방향으로 중앙부의 절반을 절개하고, 일정한 깊이만큼 단계적으로 내부토를 제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평면형태는 부정형이고, 장축방향은 N-21°-E이다. 규모는 길이 96㎝, 너비 88㎝, 잔존깊이 6㎝이다. 내부토는 단일층으로, 점성이 많고, 밀도가 보통인 회황갈색사질점토이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도면 30. 수혈유구 22호 평면도 및 입 · 단면도(S=1/30)

Ⅳ. 조사성과

본 유적은 행정구역상 대구광역시 동구 불로동 30-14번지 일원으로, 전체 조사면적은 446㎡이다. 조사는 2017년 11월 15일부터 2017년 12월 8일까지 실조사일수 16일간에 걸쳐 실시하였다. 이곳은 대구국제공항이 위치한 불로삼거리에서 팔공산방면으로 개설된 팔공로를 따라 가다보면 불로교가 나오고, 여기에서 350m 정도 진행하면 도로의 우측으로 불로동 고분군으로 진입하는 도로(팔공로 32길)가 개설되어 있는데, 이 도로를 따라 120m 정도 들어가면 왼쪽에 금번 조사지역이 위치한다. 주변은 주택과 상가건물이 밀집해 있고, 조사지역은 일부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잡초가 우거진 상태이다.

유적이 속하는 불로동은 금호강으로 유입되는 신천에 의해 형성된 충적지와 인접한 곳으로, 지형은 동쪽에 불로동고분군이 위치하는 해발 82.3m 구릉의 서쪽 말단부에 해당한다. 남쪽에는 약 400m 떨어져 불로천이 동에서 서로 흐르고 있는데, 불로천은 북쪽에 형성된 산악지대의 좁은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지천이 여러 곳에서 합류한다. 불로천에는 현재 제방이 조성되어 있는데, 제방이 조성되기 이전에는 홍수 범람시 계곡부에서 흘러내리는 유수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적의 주변유적을 살펴보면, 조사지역은 대구 불로 · 봉무동 유적내에 위치하고, 사적 제262호로 지정되어 있는 대구 불로동고분군의 서쪽으로 약 90m 떨어져 위치한다. 주변 반경 1㎞ 이내에는 약 24개의 유적이 위치하는데 반경 300m 안쪽으로는 대구 불로 · 봉무동 유적, 대구 동구 불로동 불로동고분군 진입도로 건설부지내 유적, 대구 불로동고분군, 대구 불로동고분군 내외 자연마당 조성부지내 유적, 대구광역시 동구 불로동 1157-5, 1157-6번지 노유자시설 신축사업부지내 유적, 대구 불로동고분군내 수혈식석곽묘가 위치하고, 반경 500m 안쪽으로는 대구 불로동고분군 91 · 93호호 유적, 대구 불로전통시장 문화공연장 건립부지내 유적, 봉무동고분군이 위치하며, 반경 1㎞ 안쪽으로는 대구 봉무동유적Ⅳ, 대구 봉무동 365-9번지 유적, 대구 봉무동 유적Ⅴ, 대구 봉무동 750번지 유적 등 14개의 유적이 위치한다.

발굴조사 결과, 통일신라시대 수혈유구 22기가 조사되었고, 완, 단경호, 파수부편, 수키와, 암키와, 어망추 등 유물 22점이 출토되었다.

조사된 유구는 모두 통일신라시대 생활유구로서 수혈유구만 확인되었고, 유적내에서 남서쪽을 제외하고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평면형태는 타원형, 장방형, 부정형이 확인되었으나, 대부분 부정형이다. 규모 또한 길이가 43㎝~448㎝로 다양한 크기의 수혈이 확인되었다. 내부시설로 주혈이 확인된 수혈은 총 3기로 16 · 18 · 20호이고, 16호 수혈에서는 피열흔이 함께 확인되었다. 유물은 수혈유구 1, 4, 10, 16, 17, 20호에서 출토되었고, 이들 중 수혈유구 4호에서는 통일신라시대 기와들이 다량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유구의 정확한 용도 및 성격은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만 유적의 동쪽으로 약 90m 떨어져 위치한 대구 불로동고분군[5] 주변에서 구순각목문토기구연부편, 무문토기저부, 두형토기편 등의 유물이 채집되었다. 이런 점으로 보아 선사시대 이래 불로동 지역에서 취락집단의 존재를 추측할 수 있다.[6]

따라서 이번 조사의 성과는 통일신라시대 수혈유구와 이와 관련된 유물에 대한 자료를 확보한 데에 있다. 이는 당시 불로동 일원의 생활을 연구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특히 대구 불로동고분군 주변에서 채집된 유물들과 함께 선사시대 이래로 취락지역으로서 오랜 시간동안 기능해 왔다는 점을 파악한데 그 의의가 있다.

---

5) 대구분지의 북동쪽이자 금호강의 북안일대에 위치하고, 팔공산의 환상산맥 가운데 하나인 해발 246m의 문암산 정상에서 남쪽으로 뻗어내려 불로천에 접하는 구릉 일대에 위치한다. 고분군은 해발 53~83m인 동서로 길게 뻗은 구릉과 북서쪽으로 뻗은 구릉능선의 정상부와 경사면일대에 大 · 小고분이 무리를 지어 조영되어 있다.

6) 大邱直轄市 · 慶北大學校博物館, 1990,『大邱의 文化遺蹟-先史, 古代』.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88,『鄕土文化遺蹟』.
경북대학교박물관, 2000,『경북대학교박물관 유적발굴40년』.
大邱市史編纂委員會, 1995,『大邱市史 第一卷(通史)』.

도 판



도판 1. 유적 원경(①W→E) 및 근경(②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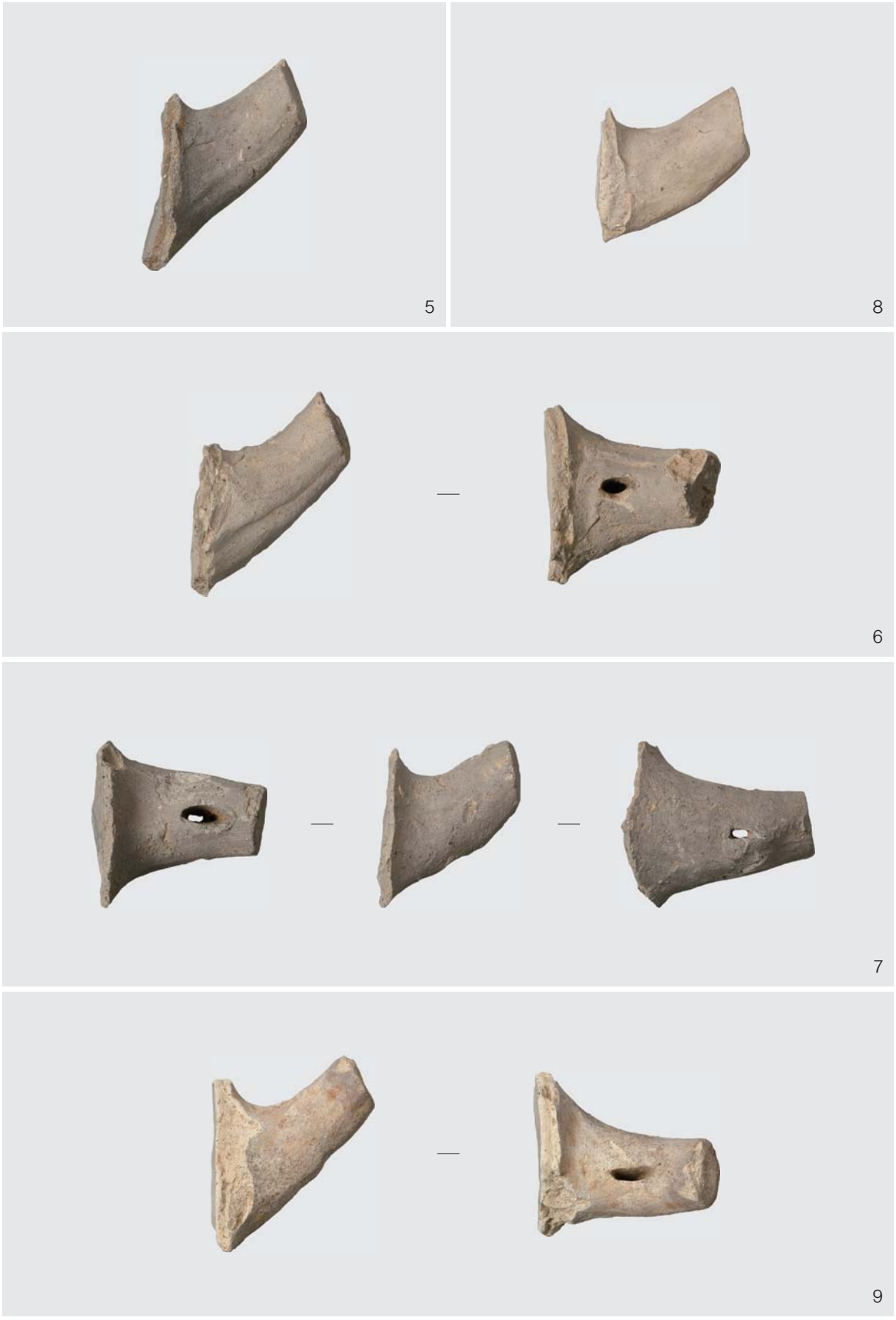
도판 2. 유적 전경(①합성) 및 조사전 전경(②SE→NW, ③E→W, ④S→N, ⑤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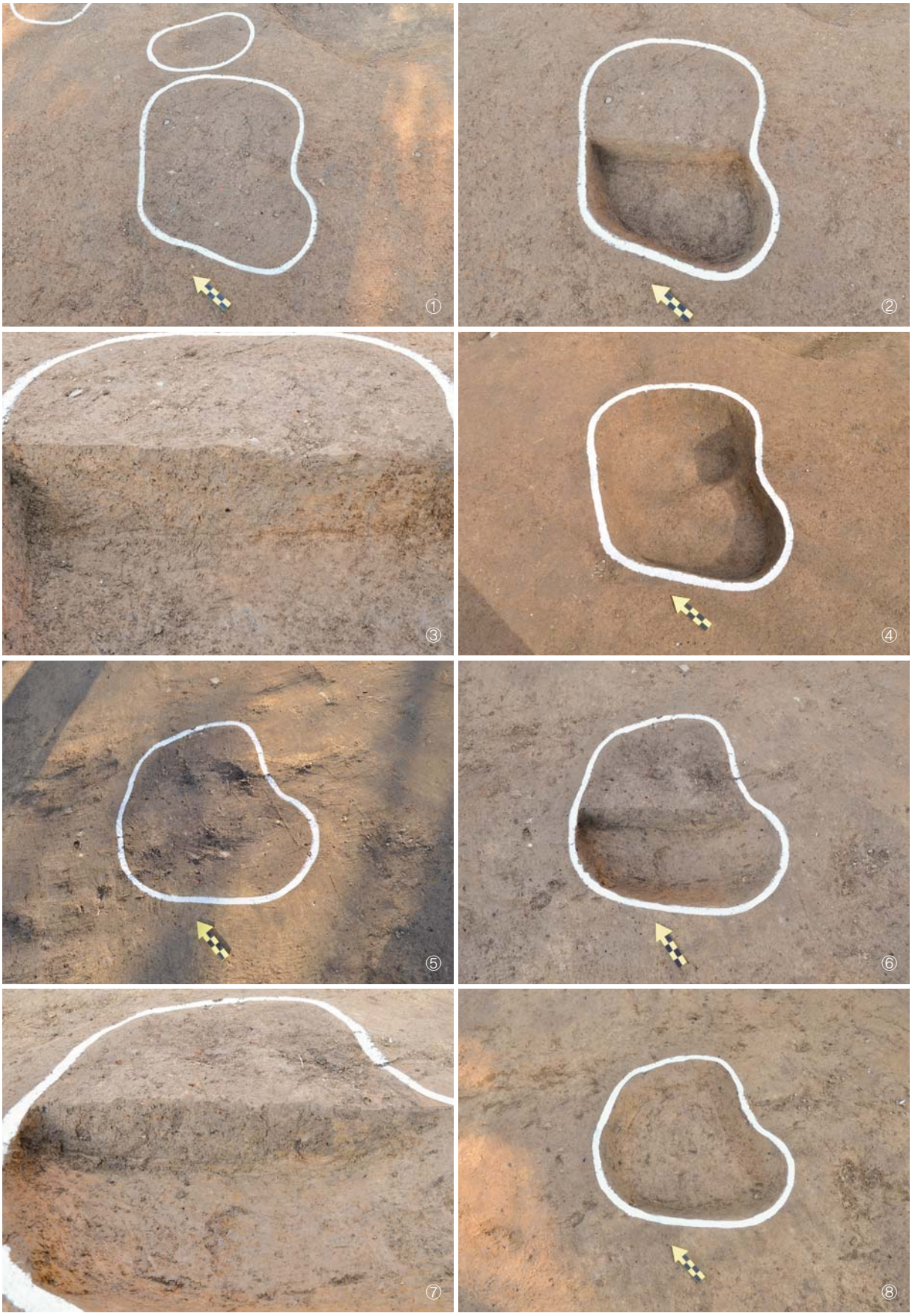
도판 3. 수혈유구 1호 전경(①조사전NE→SW, ②조사중, ③토층, ④조사후, ⑤~⑦유물 출토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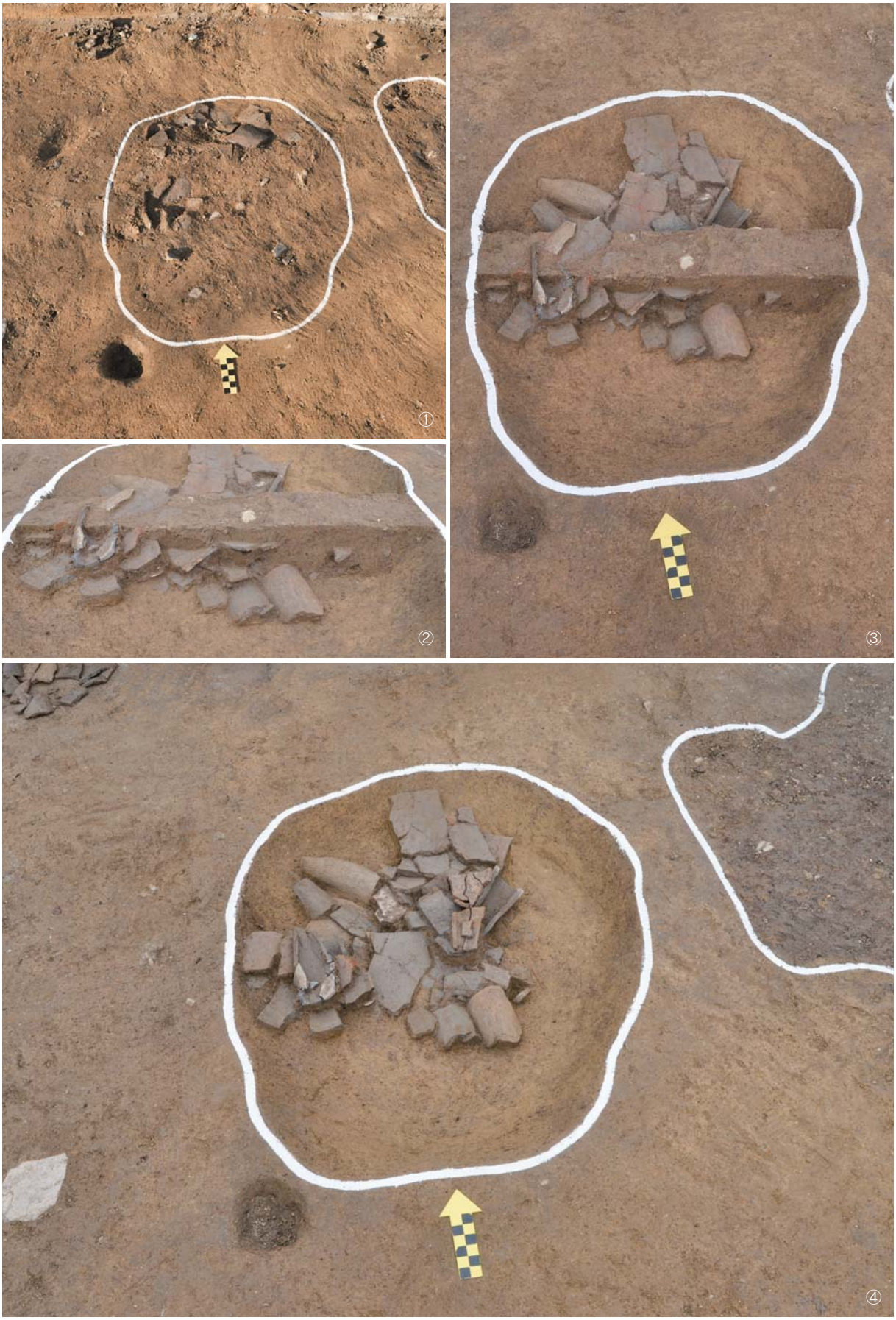
도판 4. 수혈유구 1호 유물 출토상태(①~④), 출토유물(1~4)



도판 5. 수혈유구 1호 출토유물(5~9)



도판 6. 수혈유구 2호 전경(①조사전SW→NE, ②조사중, ③토층, ④조사완료), 수혈유구 3호 전경(⑤조사전SW→NE, ⑥조사중, ⑦토층, ⑧조사완료)



도판 7. 수혈유구 4호 전경(①조사전SW→NE, ②토층, ③조사중, ④조사후)



도판 8. 수혈유구 4호 유물 출토상태(①~⑥), 출토유물(1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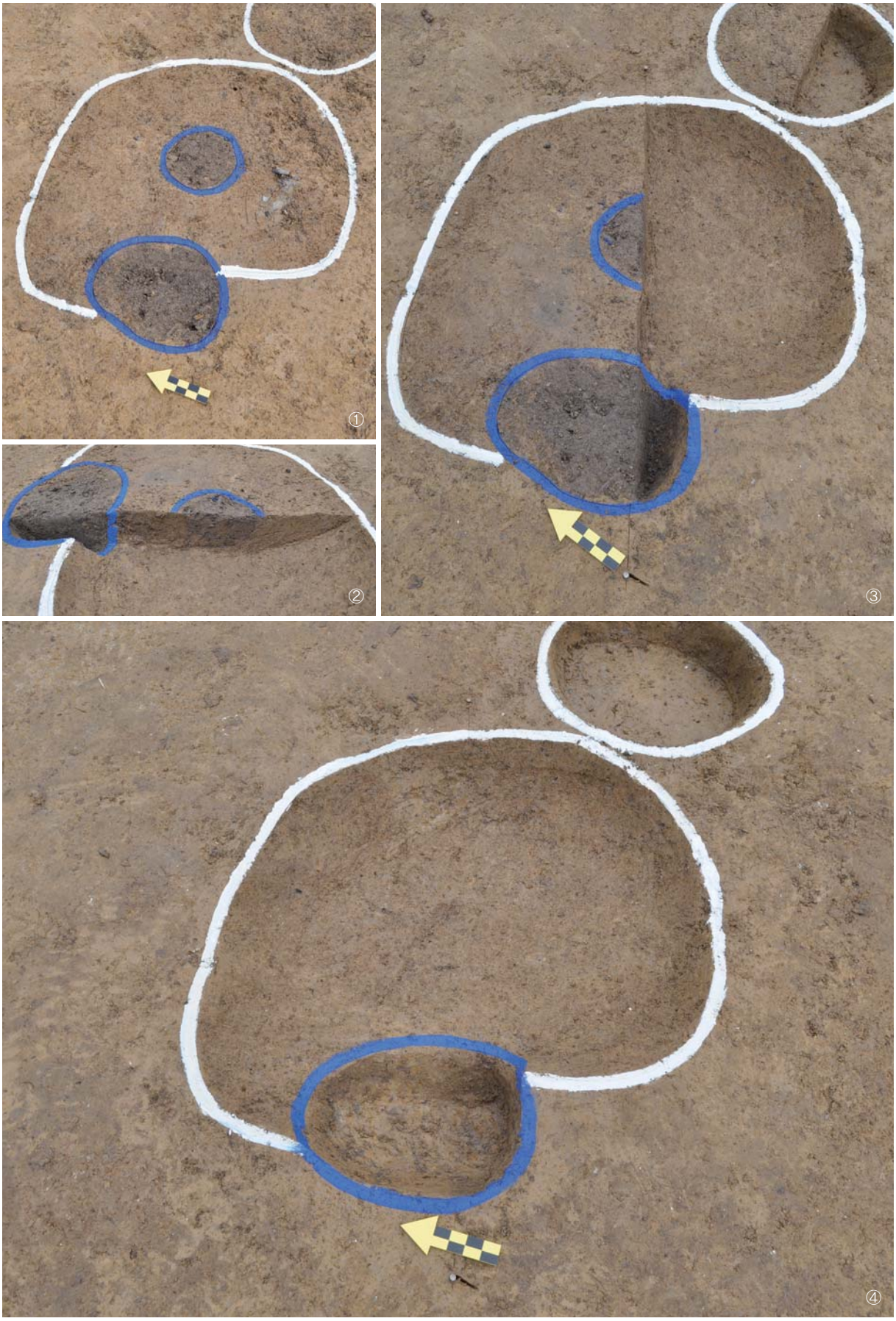
도판 9. 수혈유구 4호 출토유물(14~16), 조사완료 전경(①S→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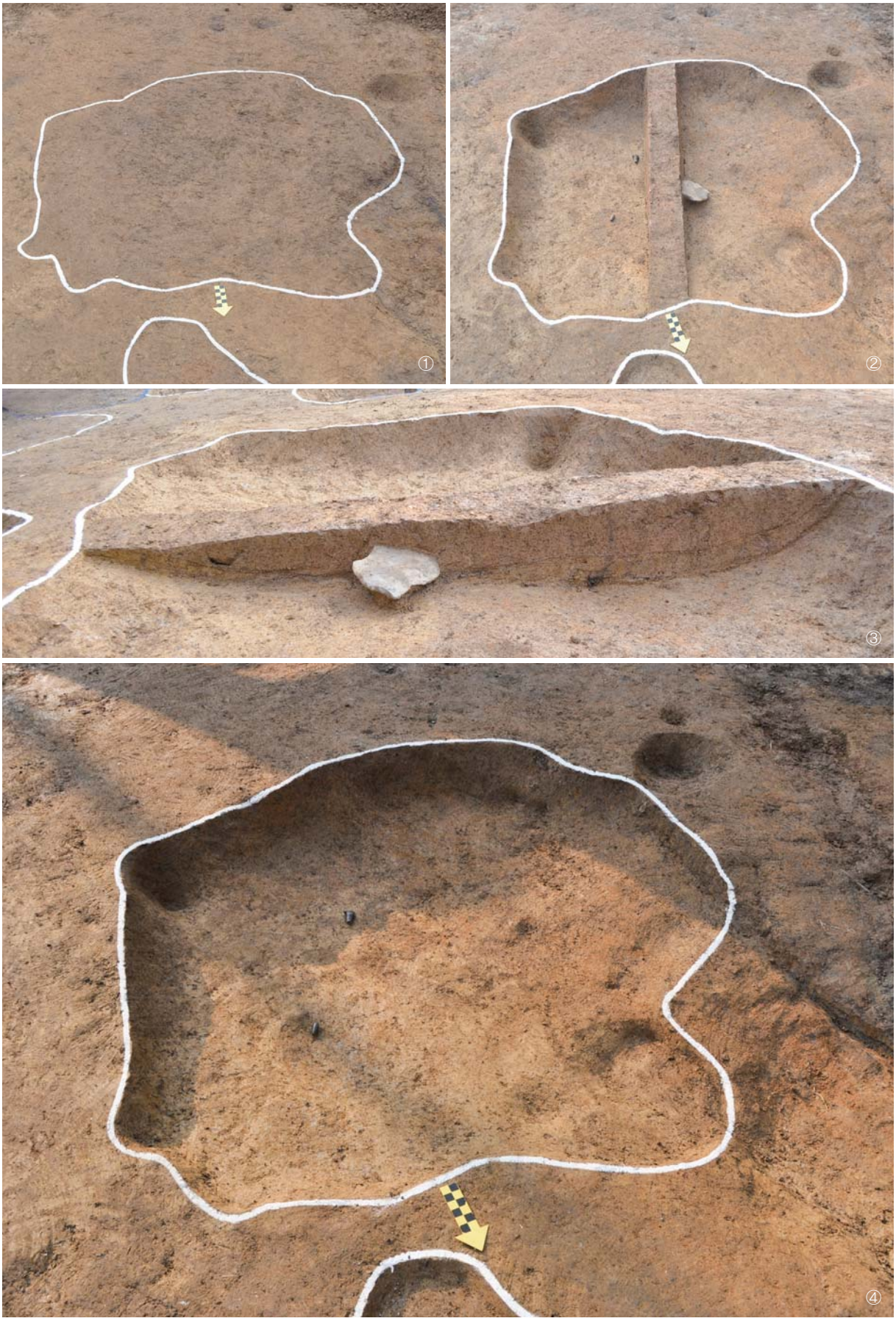
도판 10. 수혈유구 5호 전경(①조사전NW→SE, ②조사중, ③토층, ④조사완료), 수혈유구 6호 전경(⑤조사전NW→SE, ⑥조사중, ⑦토층, ⑧조사완료)



도판 11. 수혈유구 7호 전경(①조사전SW→NE, ②조사중, ③토층, ④조사완료), 수혈유구 8호 전경(⑤조사전SW→NE, ⑥조사중, ⑦토층, ⑧조사완료)



도판 12. 수혈유구 9호 전경(①조사전SW→NE, ②토층, ③조사중, ④조사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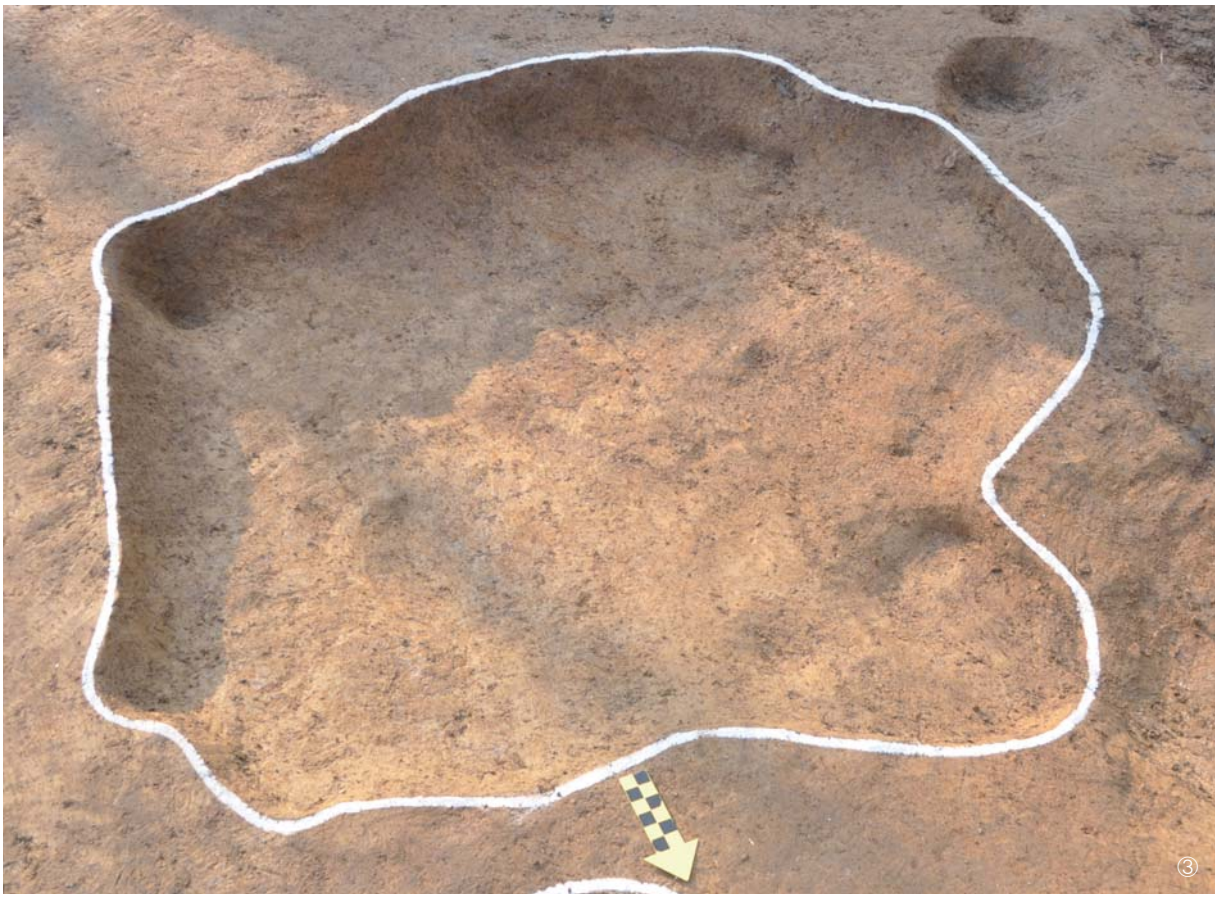
도판 13. 수혈유구 10호 전경(①조사전NE→SW, ②조사중, ③토층, ④조사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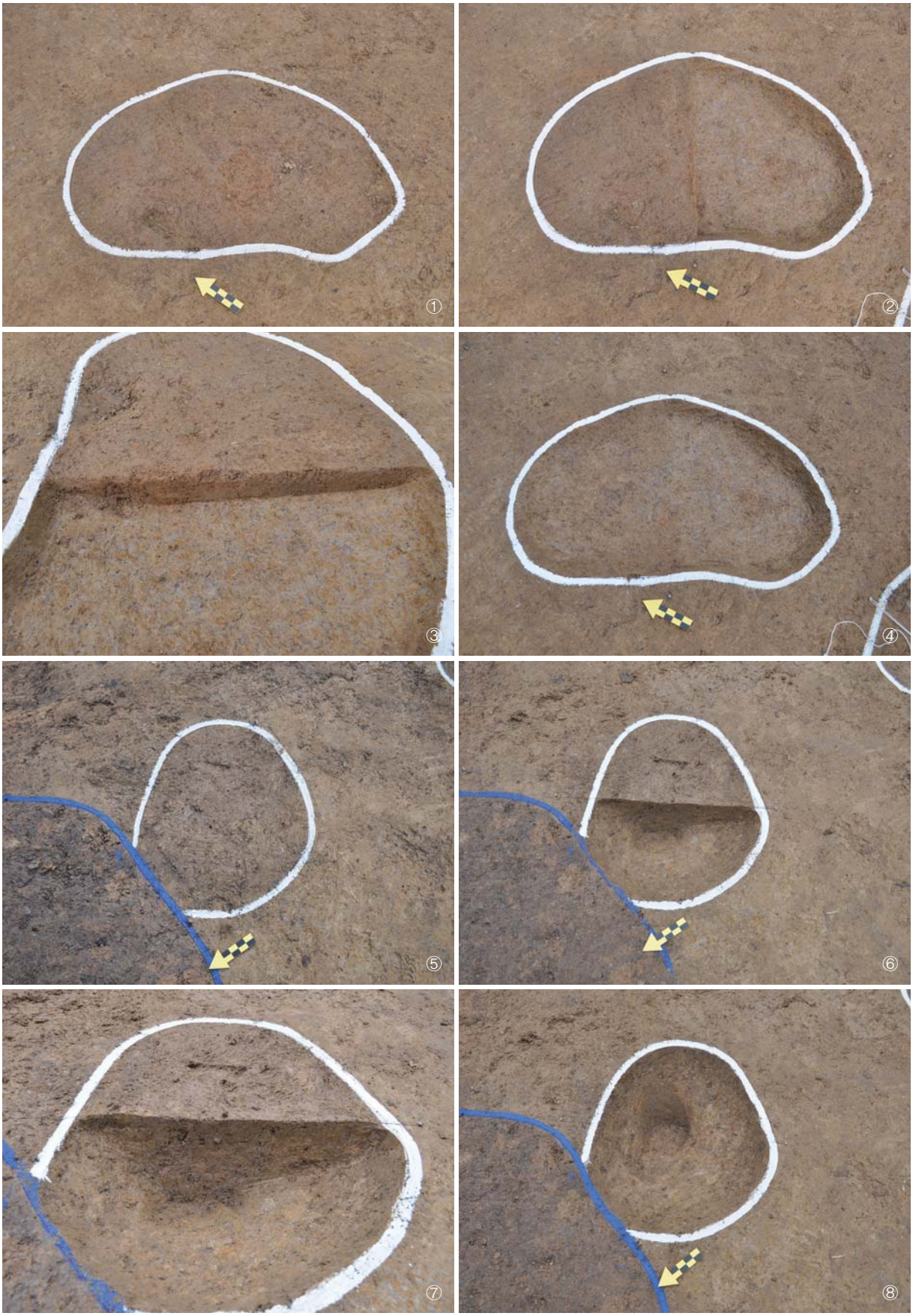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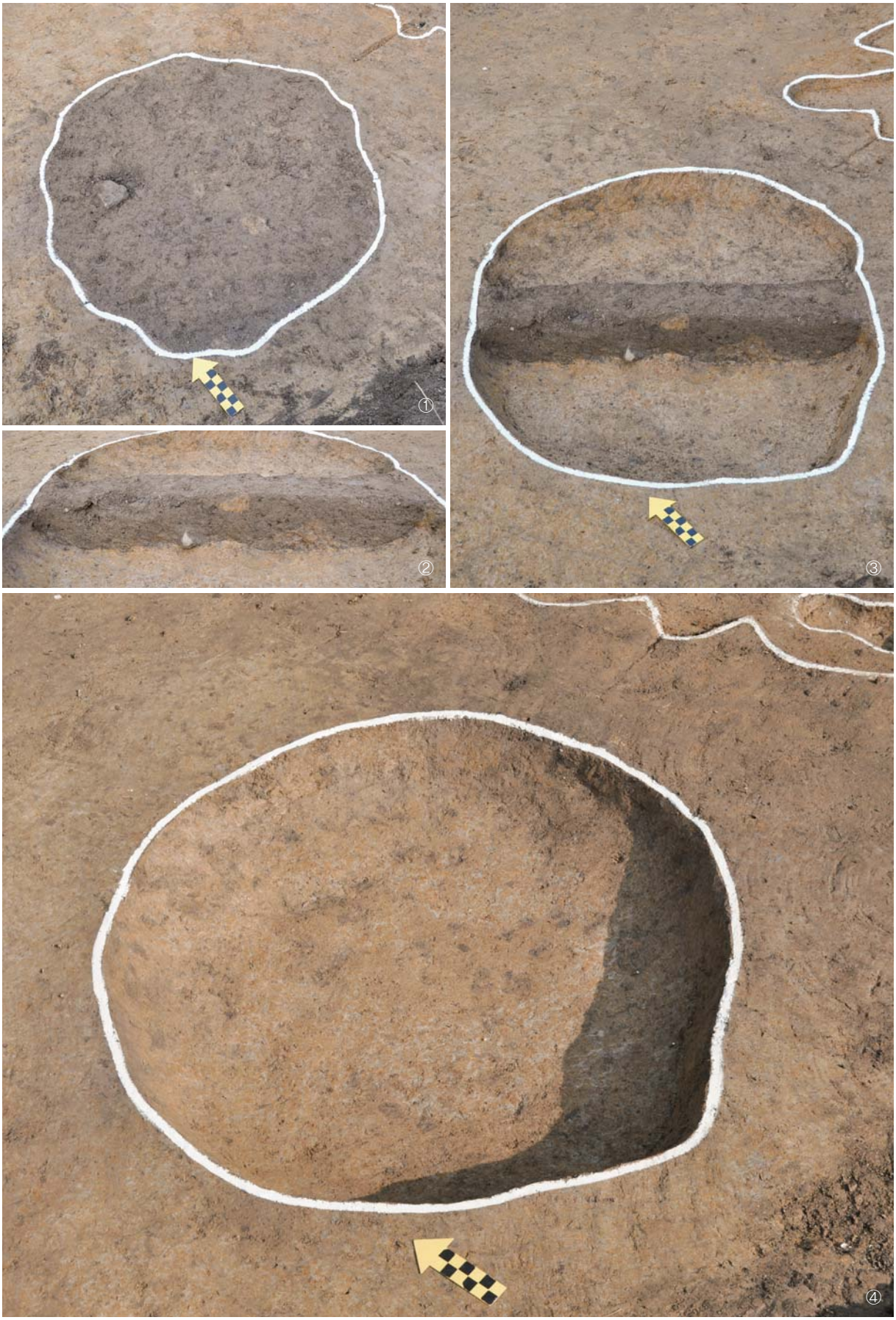
도판 14. 수혈유구 10호 유물 출토상태(① · ②), 출토유물(17 · 18), 조사완료 전경(③NE→SW)



도판 15. 수혈유구 11호 전경(①조사전SW→NE, ②조사중, ③토층, ④조사완료), 수혈유구 12호 전경(⑤조사전NW→SE, ⑥조사중, ⑦토층, ⑧조사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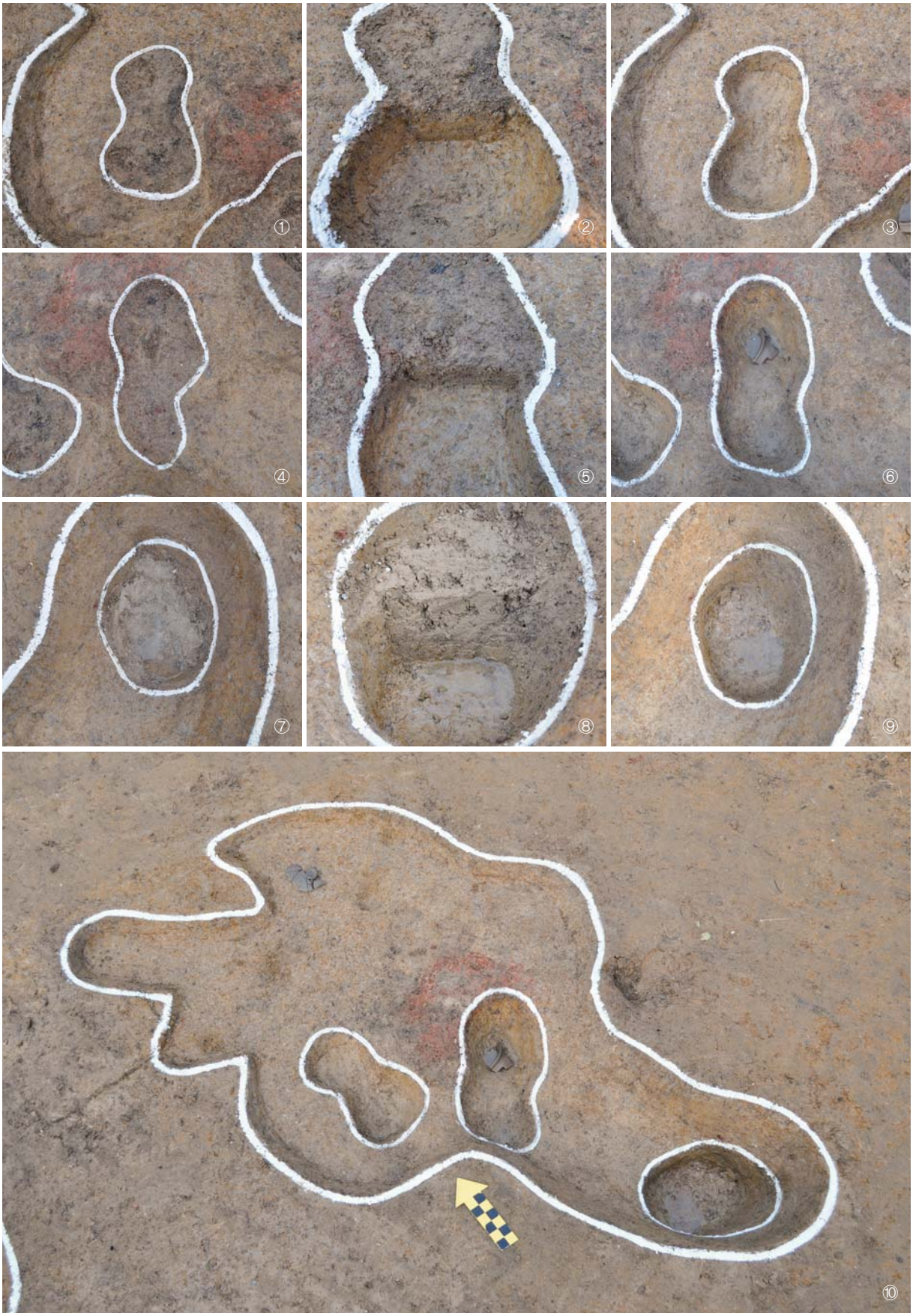
도판 16. 수혈유구 13호 전경(①조사전E→W, ②조사중, ③토층, ④조사완료), 수혈유구 14호 전경(⑤조사전NW→SE, ⑥조사중, ⑦토층, ⑧조사완료)



도판 17. 수혈유구 15호 전경(①조사전SW→NE, ②토층, ③조사중, ④조사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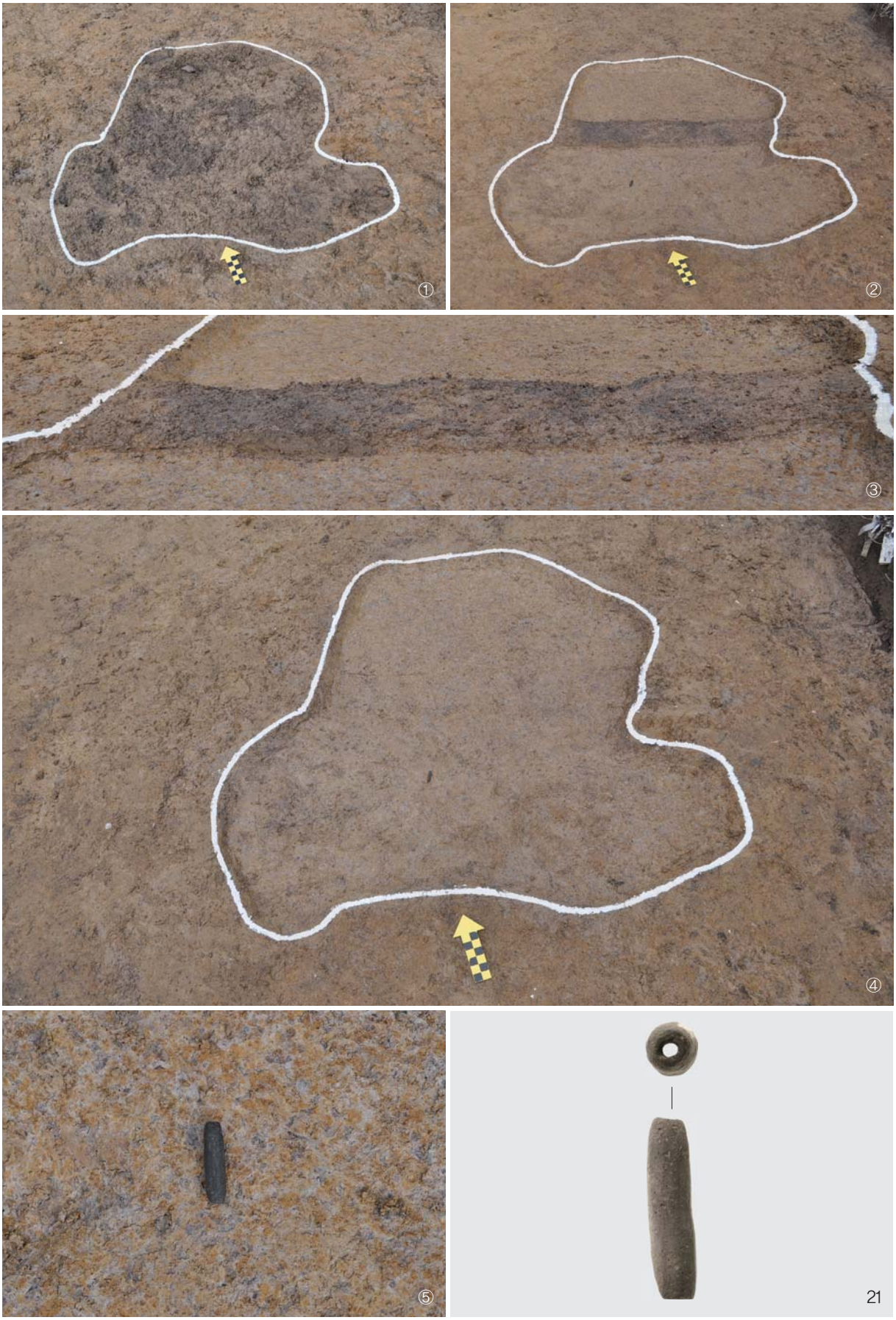
도판 18. 수혈유구 16호 전경(①조사전SW→NE, ②조사중, ③토층, ④1차 조사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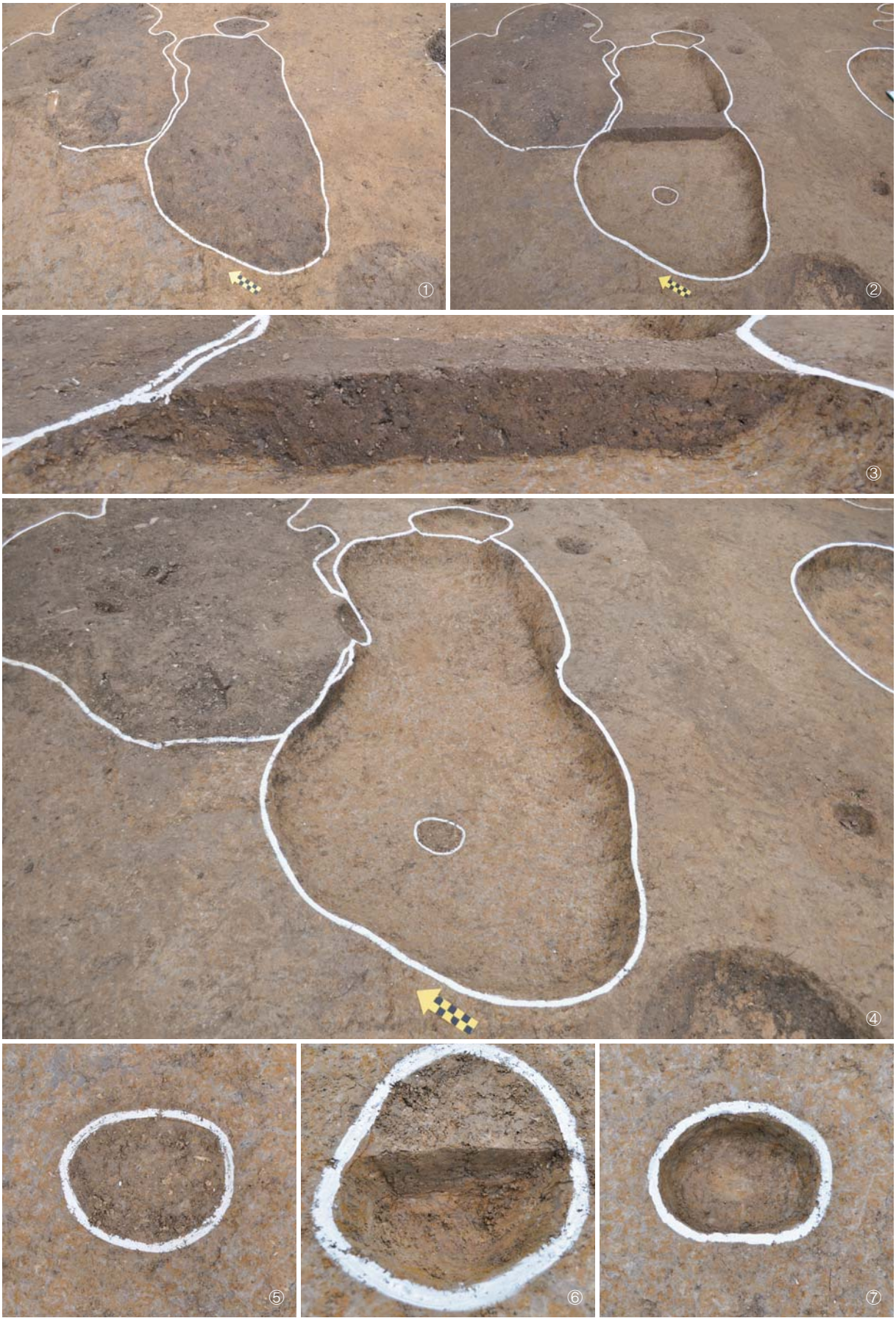
도판 19. 수혈유구 16호 내부주혈 조사전, 토층, 조사완료 전경(①~③내부주혈1, ④~⑥내부주혈2, ⑦~⑨내부주혈3), 2차 조사후(⑩SW→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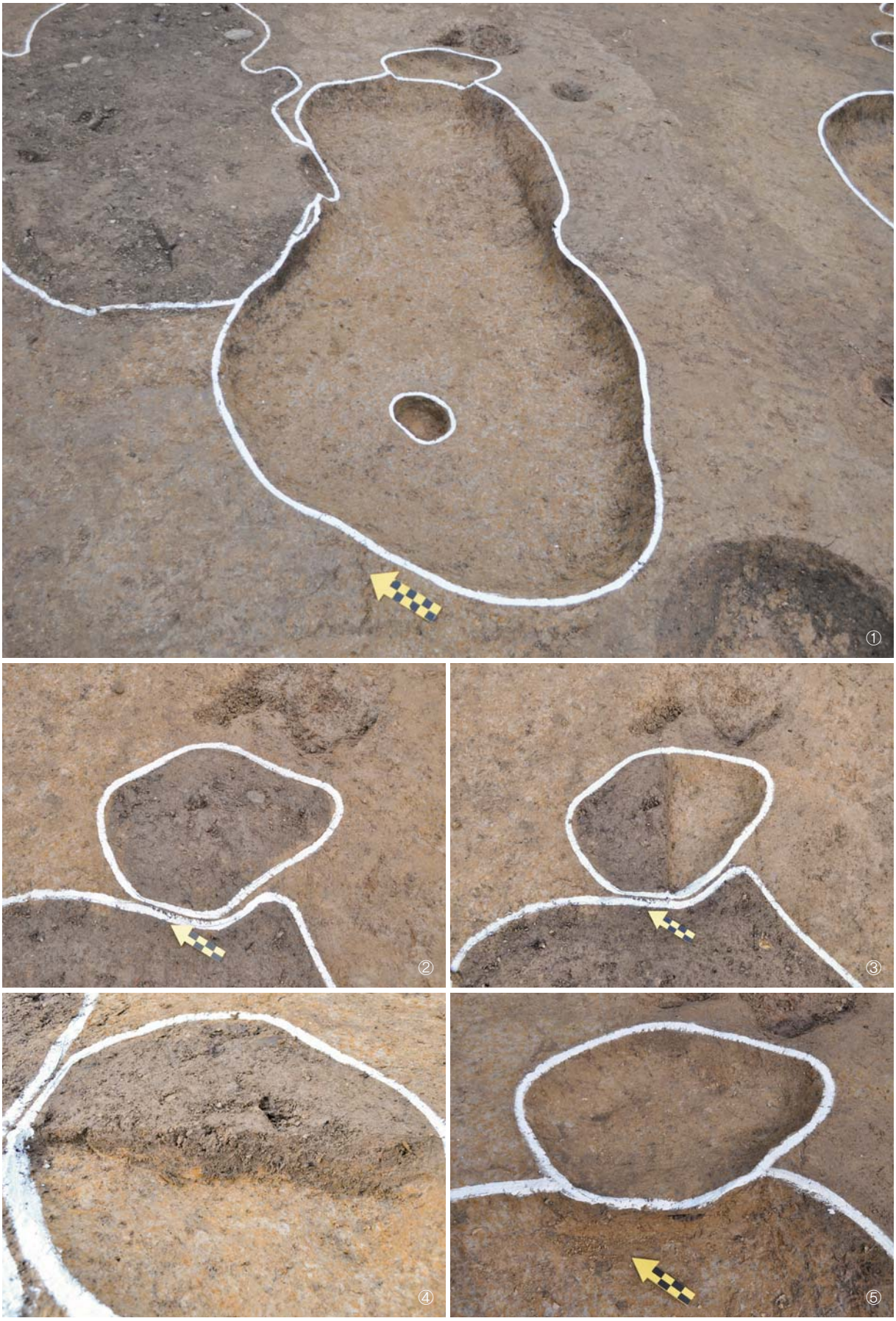
도판 20. 수혈유구 16호 피열흔 세부전경(①), 유물 출토상태(② · ③), 출토유물(19 · 20), 조사완료 전경(④SW→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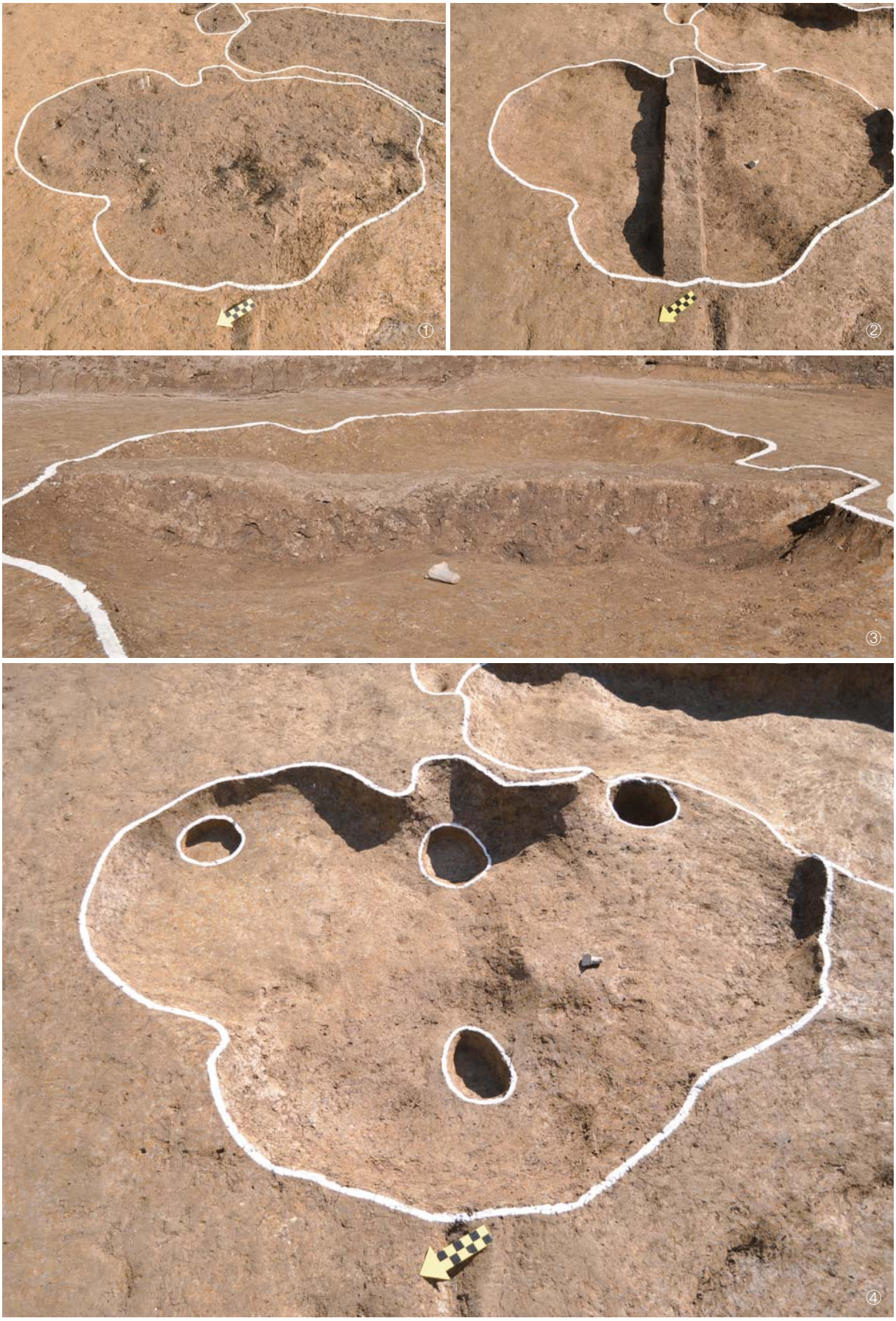
도판 21. 수혈유구 17호 전경(①조사전SW→NE, ②조사중, ③토층, ④조사후, ⑤유물 출토상태), 출토유물(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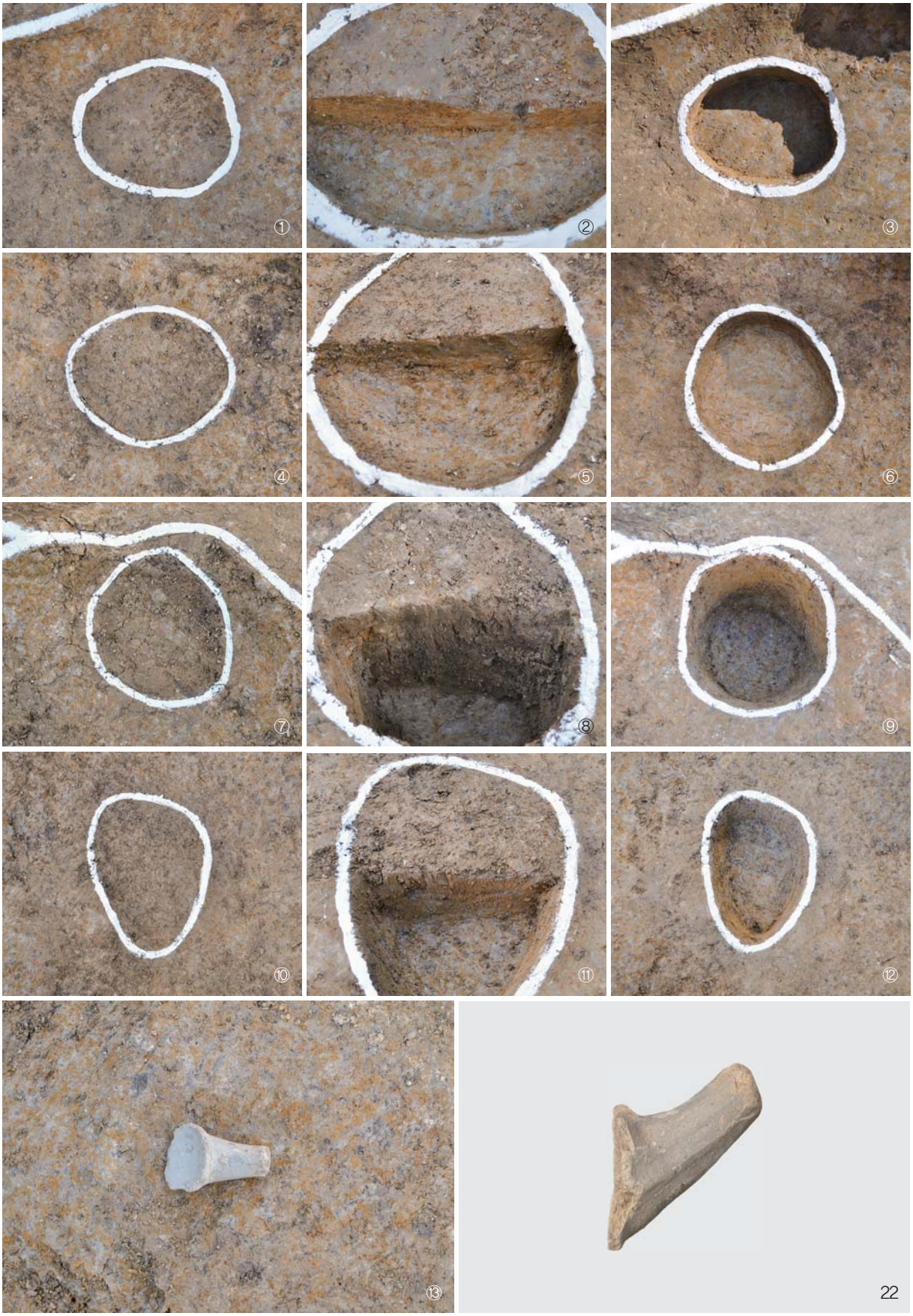
도판 22. 수혈유구 18호 전경(①조사전SW→NE, ②조사중, ③토층, ④조사후, ⑤~⑦내부주혈 조사전, 토층, 조사완료)



도판 23. 수혈유구 18호 조사완료 전경(①SW→NE), 수혈유구 19호 전경(②조사전SW→NE, ③조사중, ④토층, ⑤조사완료)



도판 24. 수혈유구 20호 전경(①조사전NW→SE, ②조사중, ③토층, ④조사후)



도판 25. 수혈유구 20호 내부주혈 조사전, 토층, 조사완료 전경(①~③내부주혈1, ④~⑥내부주혈2, ⑦~⑨내부주혈3, ⑩~⑫내부주혈4), 유물 출토상태(⑬), 출토유물(22)



도판 26. 수혈유구 21호 전경(①조사전SW→NE, ②조사중, ③토층, ④조사완료), 수혈유구 22호 전경(⑤조사전SW→NE, ⑥조사중, ⑦토층, ⑧조사완료)



도판 27. 학술자문위원회의 전경(① · ②)



도판 28. 발굴조사구역 복토 완료후 전경(①SE→NW, ②NW→SE)

대구 불로동 30-14번지 유적 유물목록

유물번호	유물명	수량(점)	출토유구	분류		크기(㎝)			도면번호, 도판번호	선별결과
				재질	시대	기고(길이)	구경(폭)	저경(두께)		
2017-1439-0000001	완	1	수혈유구 1호	토도류	통일신라시대	5.4	(14.7)	7.8	8, 4	Y
2017-1439-0000002	단경호	1	수혈유구 1호	토도류	통일신라시대	(11.7)	(17.5)	·	8, 4	Y
2017-1439-0000003	단경호	1	수혈유구 1호	토도류	통일신라시대	(9.8)	(12.8)	·	8, 4	Y
2017-1439-0000004	파수부편	1	수혈유구 1호	토도류	통일신라시대	(5.7)	·	·	8, 4	Y
2017-1439-0000005	파수부편	1	수혈유구 1호	토도류	통일신라시대	(6.4)	·	·	8, 5	Y
2017-1439-0000006	파수부편	1	수혈유구 1호	토도류	통일신라시대	(6.8)	·	·	8, 5	Y
2017-1439-0000007	파수부편	1	수혈유구 1호	토도류	통일신라시대	(6.0)	·	·	8, 5	Y
2017-1439-0000008	파수부편	1	수혈유구 1호	토도류	통일신라시대	(6.6)	·	·	8, 5	Y
2017-1439-0000009	파수부편	1	수혈유구 1호	토도류	통일신라시대	(7.7)	·	·	8, 5	Y
2017-1439-0000010	수키와	1	수혈유구 4호	토도류	통일신라시대	30.3	10.9	1.1	11, 8	Y
2017-1439-0000011	수키와	1	수혈유구 4호	토도류	통일신라시대	24.2	11.9	1.4	11, 8	Y
2017-1439-0000012	수키와	1	수혈유구 4호	토도류	통일신라시대	29.5	10.3	1.6	11, 8	Y
2017-1439-0000013	수키와	1	수혈유구 4호	토도류	통일신라시대	31.2	11.2	1.5	12, 8	Y
2017-1439-0000014	수키와	1	수혈유구 4호	토도류	통일신라시대	23.0	(12.2)	1.5	12, 9	Y
2017-1439-0000015	암키와	1	수혈유구 4호	토도류	통일신라시대	33.3	(18.7)	1.9	12, 9	Y
2017-1439-0000016	암키와편	1	수혈유구 4호	토도류	통일신라시대	31.7	(20.6)	1.7	12, 9	Y
2017-1439-0000017	파수부편	1	수혈유구 10호	토도류	통일신라시대	(7.7)	·	·	18, 14	Y

유물번호	유물명	수량(점)	출토유구	분류		크기(㎝)			도면번호, 도판번호	선별결과
				재질	시대	기고(길이)	구경(폭)	저경(두께)		
2017-1439-0000018	어망추	1	수혈유구 10호	토도류	통일신라시대	5.9	·	·	18, 14	Y
2017-1439-0000019	개	1	수혈유구 16호	토도류	통일신라시대	(5.6)	(5.5)	·	24, 20	Y
2017-1439-0000020	단경호 구연부편	1	수혈유구 16호	토도류	통일신라시대	(6.9)	(19.2)	·	24, 20	Y
2017-1439-0000021	어망추	1	수혈유구 17호	토도류	통일신라시대	5.0	·	·	25, 21	Y
2017-1439-0000022	파수부편	1	수혈유구 20호	토도류	통일신라시대	(7.0)	·	·	28, 25	Y

掘調査報告書 抄錄

報告書名	대구 불로동 30-14번지 유적		發行日	2019年 12月 23日
發行機關	名稱	(재)세종문화재연구원		
	住所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면 압독2로 1길 25(신대리 377)		
	TEL	(053)752-0303	FAX	(053)752-0363
執筆 · 編輯者	김창억, 박달석, 양승기, 최유라, 길가은			
調査 緣由	근린생활시설 신축에 따른 구제조사			
發掘調査者	김창억, 박달석, 양승기, 최유라, 길가은			
遺蹟調査地番	대구광역시 동구 불로동 30-14번지 일원			
調査面積	446㎡			

遺構種別	時代 및 年代	類型 및 基數	重要遺物	特記事項
생활유적	통일신라시대	수혈유구 22기	완, 단경호, 파수부편, 수키와, 암키와, 어망추 등	

153. 춘천 장학리 439-8번지 유적

한국문화재재단

목 차

Ⅰ. 조사개요 ····· 153- 7

Ⅱ. 유적의 위치와 환경 ····· 153- 9

Ⅲ. 조사내용 ····· 153-18
〈청동기시대 문화층〉····· 153-20
1) 주거지 ····· 153-20
(1) 주거지 1호 ····· 153-20
(2) 주거지 2호 ····· 153-22
2) 수혈유구 ····· 153-25
〈원삼국~고려시대 문화층〉····· 153-26
1. 원삼국시대 ····· 153-27
1) 주거지 ····· 153-27
(1) 주거지 1호 ····· 153-27
(2) 주거지 2호 ····· 153-31
(3) 주거지 3호 ····· 153-33
2) 수혈유구 ····· 153-36
2. 삼국시대 ····· 153-37
1) 주거지 ····· 153-37
(1) 주거지 1호 ····· 153-37
(2) 주거지 2호 ····· 153-40
3. 고려시대 ····· 153-42
1) 구들형 유구 ····· 153-42
2) 수혈유구 ····· 153-43
(1) 수혈유구 1호 ····· 153-43
(2) 수혈유구 2호 ····· 153-47
3) 매납유구 ····· 153-49
〈수습유물〉 ····· 153-49

Ⅳ. 조사성과 ····· 153-52

도 면 목 차

도면 1. 조사대상지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1:25,000) …… 153-12
도면 2. 조사대상지 지형도(1:5,000) …… 153-14
도면 3. 조사대상지 지적도(1:1,000)…… 153-17
도면 4. 발굴조사 유구배치도 …… 153-19
도면 5. 청동기시대 문화층 유구배치도…… 153-21
도면 6. 청동기시대 주거지 1호 및 출토유물 …… 153-23
도면 7. 청동기시대 주거지 2호 …… 153-24
도면 8. 청동기시대 수혈유구 …… 153-25
도면 9. 원삼국~고려시대 문화층 유구배치도…… 153-26
도면 10. 원삼국시대 주거지 1호 …… 153-28
도면 11. 원삼국시대 주거지 1호 출토유물1 …… 153-30
도면 12. 원삼국시대 주거지 1호 출토유물2 …… 153-31
도면 13. 원삼국시대 주거지 2호 …… 153-32
도면 14. 원삼국시대 주거지 2호 출토유물 …… 153-33
도면 15. 원삼국시대 주거지 3호 …… 153-34
도면 16. 원삼국시대 주거지 3호 출토유물 …… 153-35
도면 17. 원삼국시대 수혈유구 및 출토유물 …… 153-36
도면 18. 삼국시대 주거지 1호 …… 153-38
도면 19. 삼국시대 주거지 1호 출토유물…… 153-39
도면 20. 삼국시대 주거지 2호 …… 153-40
도면 21. 삼국시대 주거지 2호 출토유물…… 153-41
도면 22. 고려시대 구들형 유구 …… 153-42
도면 23. 고려시대 수혈유구 1호 …… 153-43
도면 24. 고려시대 수혈유구 1호 출토유물1 …… 153-45
도면 25. 고려시대 수혈유구 1호 출토유물2 …… 153-46
도면 26. 고려시대 수혈유구 2호 및 출토유물 …… 153-48
도면 27. 고려시대 매납유구 …… 153-50
도면 28. 수습유물 …… 153-51

도 판 목 차

도판 1. 발굴조사 대상지(①조사전, ②청동기시대 문화층 및 원삼국~고려시대 문화층 원삼국시대 조사후) …… 153-57
도판 2. 발굴조사 대상지 원삼국~고려시대 문화층 삼국 · 고려시대(①조사중, ②조사후) …… 153-58
도판 3. 청동기시대 문화층 주거지 1호(①조사전, ②조사중) …… 153-59
도판 4. 청동기시대 문화층 주거지 1호(①조사후, ②토층, 1~3:출토유물) …… 153-60
도판 5. 청동기시대 문화층 주거지 2호(①조사전, ②조사중) …… 153-61
도판 6. 청동기시대 문화층 주거지 2호(①조사후, ②토층, ③④내부주혈1, ⑤⑥내부주혈2, ⑦⑧내부주혈3) …… 153-62
도판 7. 청동기시대 문화층 주거지 2호(①~③내부주혈4, ④~⑥내부주혈5, ⑦~⑨내부주혈6) 및 수혈유구(⑩조사전, ⑪조사중, ⑫조사후, ⑬토층) …… 153-63
도판 8. 원삼국~고려시대 문화층 원삼국시대 주거지 1호(①조사전, ②조사중) …… 153-64
도판 9. 원삼국~고려시대 문화층 원삼국시대 주거지 1호(①조사후, ②토층, ③~⑤노지 세부) …… 153-65
도판 10. 원삼국~고려시대 문화층 원삼국시대 주거지 1호 출토유물(4~10) 및 주거지 2호(①조사전)…… 153-66
도판 11. 원삼국~고려시대 문화층 원삼국시대 주거지 2호(①조사중, ②조사후, ③토층, 11:출토유물) …… 153-67
도판 12. 원삼국~고려시대 문화층 원삼국시대 주거지 3호(①조사전, ②조사중, ③조사후) …… 153-68
도판 13. 원삼국~고려시대 문화층 원삼국시대 주거지 3호(①토층, 12~18:출토유물) 및 수혈유구(②조사전, ③조사중, ④조사후, ⑤토층, 19:출토유물)…… 153-69
도판 14. 원삼국~고려시대 문화층 삼국시대 주거지 1호(①조사전, ②조사중1) …… 153-70
도판 15. 원삼국~고려시대 문화층 삼국시대 주거지 1호(①조사중2, ②조사후) …… 153-71
도판 16. 원삼국~고려시대 문화층 삼국시대 주거지 1호(①②토층, ③~⑤노지, ⑥~⑧유물출토상태, 20~24:출토유물)…… 153-72
도판 17. 원삼국~고려시대 문화층 삼국시대 주거지 2호 (①조사전, ②조사중, ③조사후)… 153-73
도판 18. 원삼국~고려시대 문화층 삼국시대 주거지 2호(①유물출토상태, 25 · 26:출토유물) 및 고려시대 구들형 유구(②조사전, ③조사중) …… 153-74
도판 19. 원삼국~고려시대 문화층 고려시대 구들형 유구(①조사후, ②토층) 및 수혈유구 1호(③조사전)…… 153-75
도판 20. 원삼국~고려시대 문화층 고려시대 수혈유구 1호(①조사중, ②조사후) …… 153-76

도판 21. 원삼국~고려시대 문화층 고려시대 수혈유구 1호(①토층, ②~⑤유물출토상태,
27~29:출토유물1) …… 153-77
도판 22. 원삼국~고려시대 문화층 고려시대 수혈유구 1호 출토유물2(30~36) 및
2호(①조사전, ②조사중, ③조사후, ④토층, 37:출토유물) …… 153-78
도판 23. 원삼국~고려시대 문화층 고려시대 매납유구(①조사전, ②조사중, ③조사후,
38:출토유물), 수습유물(39 · 40), 학술자문회의(④)…… 153-79

Ⅰ. 조사개요

본 조사대상지는 사업시행자 오순옥씨의 단독주택 신축부지로 강원도 춘천시 동면 장학리 439-8번지(792㎡)에 해당한다.

사업시행자는 해당 지번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춘천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춘천시에서는 사업부지에 대한 문화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1]하였다. 그 결과 "사업부지가 장학리 유물산포지 내에 위치하며, 주변에 '장학리 439-6번지 유적[2]' · '장학리 439-22번지 유적[3]' · '지내리 유적[4]' · '지내리 689-3번지 유적[5]' · '율문리 75-2번지 유적[6]' 등 다수의 유적이 분포하고 있어 사업부지에 대해 공사 이전에 정밀발굴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춘천시에서는 이러한 문화재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 결과를 토대로 사업시행자의 단독주택 신축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할 경우 매장문화재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의 발굴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할 것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하여 국비지원 대상에 해당함을 통보하였다.

춘천시의 조치를 통보받은 사업시행자는 공사 이전에 매장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자 2017년 6월 19일 문화재협업포털을 이용하여 본 재단에 소규모 국비지원 발굴조사를 신청하였다.

이에 재단에서는 국비지원 대상여부를 확인한 후 6월 28일 발굴조사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문화재청으로부터 7월 4일 실조사일수 15일에 대한 허가(제2017-0852호)를 받았다. 이후 사업시행자는 사업면적을 당초 450㎡에서 792㎡로 변경하기 위하여 7월 12일 착수 연기를 요청한 후 8월 3일 조사면적 변경을 신청하였다.

현장조사는 10월 13일 착수하였으나 곧바로 중지하고 10월 19일 문화재청에 조사면적 증가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을 요청하였다. 10월 23일 실조사일수 20일(발굴제도과-12119호)에 대한 변경 허가를 득한 후 10월 26일에 현장조사를 재착수하였다. 조사가 진행 중인 11월 16일에 학술자문회의[7]를 개최하였는데 "하부 문화층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토대로 11월 22일 실조사일수 12일에 대한 기간연장을 신청하였다. 발굴조사는 12월 8일에 완료하여 실조사일수 29.5일을 소요하였다.

발굴조사 결과, 2개의 문화층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 2동 · 수혈유구 1기, 원삼국시대 주거지 3동 · 수혈유구 1기, 삼국시대 주거지 2동, 고려시대 구들형 유구 1기 · 수혈유구 2기 · 매납유구 1기 등 13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

1) 최종모(강원문화재연구소 연구실장), 심재연(한림대학교 한림고고학연구소 연구교수)
2) 한국문화재재단, 2018, 「3. 춘천 장학리 439-6 · 22번지 유적」, 『2016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Ⅳ -강원2-』.
3) 한국문화재재단, 2018, 「3. 춘천 장학리 439-6 · 22번지 유적」, 『2016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Ⅳ -강원2-』.
4) 강원문화재연구소, 2003, 『문화유적분포지도 -춘천시』.
5) 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13, 「7. 춘천 지내리 689-3번지 유적」, 『2011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Ⅱ -경기2 · 강원-』.
6) 예맥문화재연구원, 2008, 「춘천 율문리 유적Ⅰ-춘천 율문리 75-2번지 창고신축부지내 유적 시굴조사 보고서」.
7) 자문위원 : 지현병(강원고고문화연구원장), 심재현(한림대학교 한림고고학연구소 연구교수)

발굴조사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조 사 단 장 : 박 종 섭(문화재조사연구단장)
책임조사원 : 이 창 욱(조사연구2팀 부팀장)
조 사 원 : 이 건 충(조사연구2팀 연구원)
준 조 사 원 : 조 은 이(조사연구2팀 연구원)
보 조 원 : 양 현 승(조사연구2팀 연구원)

*( )는 조사당시 직명임.

발굴조사 후 보고서 작업은 다음과 같이 분담하여 진행하였다.

현장에서 작성하고 정리한 유구도면 및 도판은 이건충(조사연구2팀 부팀장) 책임 하에 이건충 · 조은이(조사연구2팀 연구원)가 분담하여 작성하였다. 유물정리 및 복원, 실측, 도면 일러스트작업은 정홍선(조사연구2팀 부팀장) 책임 하에 김현진 · 김선미 · 김경화 · 기여운(이상 조사연구2팀 연구원)이 함께 작성하였고, 금속유물의 보존처리는 송혜련 · 윤정현(조사연구2팀 연구원)이 담당하였다. 도면 및 도판편집은 김현진이 담당하였으며, 유물사진은 이순희(시림 아카이브)가 촬영하였다.

원고는 Ⅰ · Ⅱ장 이건충, Ⅲ장 이건충(조사내용 및 유구) · 김현진(유물), Ⅳ장 이건충이 작성하였고 교정 및 교열은 정훈진(조사연구2팀장)이 하였다.

Ⅱ. 유적의 위치와 환경

본 발굴조사 대상지는 강원도 춘천시 동면 장학리 439-8번지에 해당하며, 수리적 위치는 동경 127° 74′08″, 북위 37° 92′32″이다. 조사대상지는 춘천시 동면사무소에서 소양강 방향으로 향하는 가산로를 따라 1.8㎞ 진행하면 삼거리가 나타나는데, 삼거리에서 서쪽 방향으로 2.1㎞ 진행하면 마을로 통하는 진입도로가 나오며, 그 진입로를 따라 350m 정도를 이동하면 서편에 조사대상지가 위치한다.

자연 · 지리적 환경[8]을 살펴보면 춘천시는 동쪽은 인제군 남면 및 홍천군 두촌면, 북방면과 접해 있고, 서쪽은 화천군 사내면 및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과 접하고 있다. 남쪽은 홍천군 서면 및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과 접해 있으며, 북쪽은 화천군 하남면, 간동면, 양구군 남면과 접하고 있다.

지리적으로는 태백산의 서부 주변부에 위치하여 서부의 평원성지대인 경기지방에 인접하고 있다. 따라서 태백산지가 서부의 평원성지대로 천이하는 점이지대라고도 볼 수 있다. 북한강이 춘천지역의 중심부를 관류하여 지류인 소양강과 합류하는 곳에 춘천분지가 형성되어 있다. 분지의 서북부 산지는 북동-남서주하는 광주산맥에 연속되고 분지의 동북부 산지는 태백산맥에 이어지면서 동쪽의 대룡산(899m), 서쪽의 삼악산(654m), 남쪽의 금병산(652m), 북쪽의 용화산(878m)을 비롯한 주변의 해발 650~890m 정도의 크고 작은 산줄기가 병풍처럼 춘천분지를 에워싸고 있다. 분지 안쪽으로는 해발고도 약 300m로 동쪽은 급사면을 이루나 그 이하 지역은 구릉성 산지와 산록 완사면이 넓게 발달되어 있다. 지형 윤회상으로 보면 동북부는 만장년성 산지이고 남부는 노년성 산지로 볼 수 있으며, 개소진전이 활발한 소계곡들이 많다. 춘천지역의 지세는 대치로 동고서저형을 이루고 있으며, 화강암 분포가 탁월한 지형이다.

하천으로는 북한강이 금강산 서북쪽의 시루봉(1,267m)과 옥밭봉(1,240m) 사이에 있는 먹포령(850m)에서 발원하여 북서류하다가 남류하면서 제1지류인 금강산에서 발원한 금강천과 양구군 수입면 대정리에서 합류하고, 김화군 원북면 당현리에서 발원한 수입천과 양구군 북면 서호리에서 합류한다. 또한 인제군 서화면 회전리에서 발원한 소양강과 춘천시에서 합류하고 홍천군 서석면 응봉산에서 발원한 홍천강과 춘천시 남면 관천리에서 합류되어 남류하다가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에서 남한강과 합류한다. 소양강과 북한강 사이에 우두평야와 샘밭 등 기름진 충적지가 펼쳐져있다.

고고학적 환경을 살펴보면 춘천분지 내의 충적대지상에는 많은 선사 · 역사유적이 조사되었다.

춘천지역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구석기시대 유적은 남면 한덕리[9], 남산면 통곡리[10], 서면 월송리[11]

---

8) 춘천시 · 춘성군, 1984, 『春州誌』.

9) 노혁진 · 심재연, 1997, 「춘천의 선사유적」, 『춘천의 역사와 문화유적』, 한림대학교박물관.
김남돈, 1998, 「춘천 한덕리 구석기 유적」, 『강원문화연구』, 제17집,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최복규, 1999, 「북한강유역의 선사문화」, 『한강유역사연구』, 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10) 江原文化財硏究所, 2003, 『文化遺蹟分布地圖-春川市』.

11) 노혁진 · 심재연, 1997, 「춘천의 선사유적」, 『춘천의 역사와 문화유적』, 한림대학교박물관.
최복규, 1999, 「북한강유역의 선사문화」, 『한강유역사연구』, 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에서 구석기유물이 수습되어 구석기유적의 존재는 예측되었다. 이후 서면 금산리 갈둔 구석기유적[12]과 동내면 거두리[13], 서면 서상리[14], 동면 만천리에서 구석기유적이 발굴조사되었다.

신석기시대 유적은 춘천 교동 동굴유적[15]과 소양댐 수몰지역인 내평리[16], 천전리[17] · 신매리[18] · 거두리[19]에서 주거지가 조사되었고 송암동[20]과 우두동[21]에서는 야외노지가 확인되었으며, 지촌리[22] · 신매리[23] · 금산리[24] · 중도[25] 등의 충적대지상에서 신석기시대 유물산포지가 확인되었다. 또한 최근 만천리에서는 해발 180m 내외의 구릉 말단부에서도 빗살무늬토기편[26]이 확인되어 향후 구릉지에서도 신석기시대의 유적이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 고고학적 조사를 통해 확인된 신석기시대 유적은 천전리 동면-신북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간구간내 유적[27] · 춘천 소양5교~소양댐간 도로확포장공사구간 내 유적[28] · 신매리 10 · 47-1번지 유적[29] · 신매리 786번지 유적[30]에서 주거지와 야외노지 등이 확인되었다.

청동기시대 유적은 춘천분지 대부분의 지역에서 고르게 확인되었다. 대부분의 유적이 충적대지상에 입지하고 있지만, 거두택지2지구에서는 구릉상에서 공렬토기를 공반하는 주거지가 발굴조사[31]되

---

12) 江原文化財硏究所, 2008,『춘천 금산리 갈둔 구석기유적』.
13) 예맥문화재연구원, 2009,『춘천 거두리유적 -춘천 거두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남서지구)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14) 예맥문화재연구원, 2011,『춘천 서상리유적 -춘천 신매-오월간 도로확포장공사구간내 B지구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15) 김원룡, 1962,「춘천교동 혈거유적 발견유물 -교동문화의 성격-」,『고고미술』이십구호.
김원룡, 1963,「춘천교동 혈거유적 발결유물 -교동문화의 성격과 년대-」,『역사학보』제이십집.
16) 한병삼 외, 1974,「소양강 수몰지구 유적 발굴조사」,『팔당 · 소양댐수몰지구유적 발굴종합조사보고』,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7) 江原文化財硏究所, 2008,『泉田里』.
18) 江原文化財硏究所, 2007,「신매리 10번지 주택신축예정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新梅里 10 · 47-1番地 遺蹟』.
19) 江原文化財硏究所, 2008,『春川 擧頭2地區 遺蹟 -춘천 거두2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20) 예맥문화재연구원, 2010,『춘천 송암동유적 -춘천 의암 레저스포츠타운 조성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21) 江原文化財硏究所, 2011,『春川 牛頭洞 遺蹟 I -직업훈련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구간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22) 한림대학아시아문화연구소, 1986,「강원도 유적 유물분포 총람」,『강원도의 선사문화』.
노혁진 · 장미영 · 심재연, 1994,「춘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한림대학교박물관』.
노혁진 · 심재연, 1997,「춘천의 선사유적」,『춘천의 역사와 문화유적』, 한림대학교박물관.
23) 翰林大學校博物館, 1986,『신매리 지석묘 주거지 발굴보고서』.
예맥문화재연구원, 2009,『춘천 신매리유적 I -춘천 신매-오월간 도로공사구간 내 A지구 유적 시굴조사보고서』.
24) 江原大學校博物館, 1984,『중도유적 지표조사보고』.
25) 임세권, 1980,「춘천 중도의 선사문화-즐문 및 무문토기 중심으로-」,『한국고고학보』9.
최복규 · 정연우, 1982,「중도에서 발견된 선사유물의 연구」,『강원문화연구』제2집,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江原大學校博物館, 1984,『중도유적 지표조사보고』.
26) 한림대학교박물관, 2007,「춘천시 동면 만천리사지 시굴조사 보고서」,『춘천시 동면 시 · 발굴조사 보고서』.
27) 江原文化財硏究所, 2008,『천진리 동면-신북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구간내 遺蹟 發掘調査 報告書』.
28) 예맥문화재연구원, 2014,「춘천 소양5교~소양댐간 도로확포장부지내 시굴 · 정밀발굴조사 약식보고서」.
29) 江原文化財硏究所, 2007,『新梅里 10 · 47-1番地 遺蹟 -주택신축예정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30) 국토문화재연구원, 2017,「춘천 서면 신매리(786번지) 단독주택신축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소규모 국비지원) 학술자문회의 자료」.
31) 江原文化財硏究所, 2008,『春川 擧頭2地區 遺蹟 -춘천 거두2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었다. 취락유적은 천전리[32] · 율문리[33] · 우두동[34] · 장학리[35] · 신매리[36] · 금산리[37] · 현암리[38] · 중도[39] · 삼천동[40] · 송암동[41] · 거두리[42] 등에서 발굴조사되었으며 매장유적으로는 내평리 · 추전리 · 대곡리[43] · 발산리[44] · 천전리[45] · 우두동[46] · 신매리[47] · 중도[48] 등에서 지석묘와 석관묘가 발굴조사되었다. 산천리 · 율문리 · 지내리 · 서상리 · 금산리 · 현암리 · 방동리 · 삼천동 · 거두리 · 하곡리 등에는

---

32) 江原文化財硏究所, 2008,『泉田里』.
한림대학교박물관, 2008,『춘천 천전리 121-16번지 유적』.

33) 江原文化財硏究所, 2008,『春川 栗文里 335-4番地 遺蹟 -춘천 율문리 생물산업단지 조성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34) 江原文化財硏究所, 2006,『춘천 우두동 707-1, 35번지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江原文化財硏究所, 2011,『春川 牛頭洞 遺蹟Ⅰ-직업훈련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구간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江原文化財硏究所, 2012,『春川 牛頭洞 遺蹟Ⅱ-한국폴리텍Ⅲ대학 춘천캠퍼스 건물개축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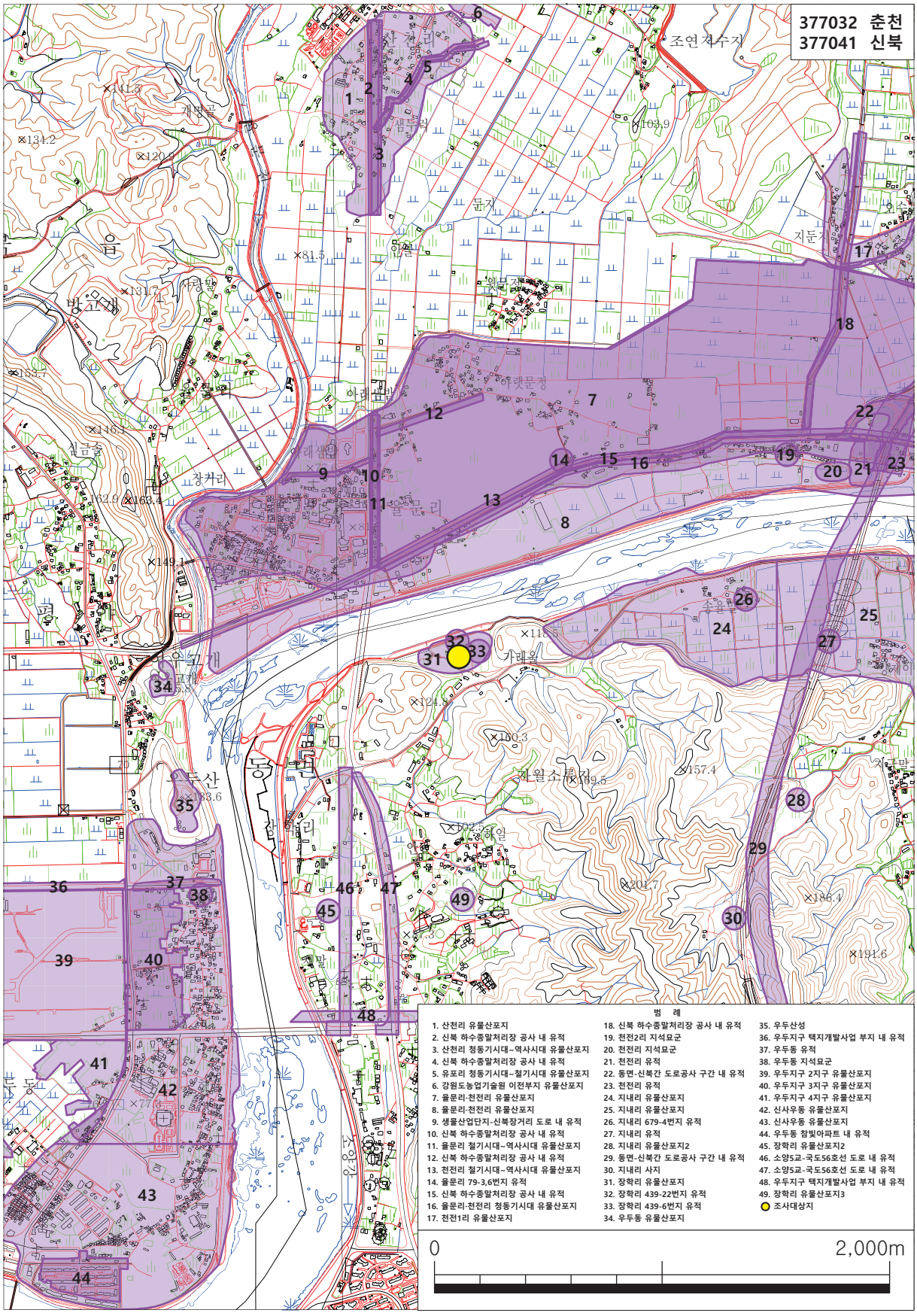
35) 江原文化財硏究所, 2011,『춘천 장학리 Ⅰ유적 -소양 5교~국도56호선간 도로 확 · 포장공사 구간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36) 國立中央博物館, 1982,『중도』진전보고Ⅱ.
翰林大學校博物館, 1986,『신매리 지석묘 주거지 발굴보고서』.
翰林大學校博物館, 2003,『춘천 신매대교부지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江原文化財硏究所, 2003,『춘천 신매리 주차장 신축예정부지 유적』.
江原文化財硏究所, 2005,『新梅里 54-4番地 遺蹟 -주택신축예정부지내 유적 시굴조사 보고서』.
江原文化財硏究所, 2007,『新梅里 10 · 47-1番地 遺蹟 -주택신축예정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江原文化財硏究所, 2007,『新梅里 373-6番地 遺蹟 -주택신축예정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한국문화재단, 2016,「4. 춘천 신매리 289-11번지 유적」,『2014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Ⅵ -강원2-』.
국강문화재연구원, 2017,「춘천 서면 신매리(70-9번지) 단독주택신축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소규모 국비지원) 학술자문회의 자료」.

37) 강원문화재연구소, 2012,『春川 金山里遺蹟 -춘천 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부지 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금산지구)』.

38) 예맥문화재연구원, 2011,『춘천 현암리유적 -춘천 서면 문화산업단지 조성지구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39) 翰林大學校博物館, 2002,『춘천 하중도 제방공사 구간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예맥문화재연구원, 2013,『춘천 중도동유적 -4대강 살리기사업 춘천 중도동 하중도 F지구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
江原文化財硏究所, 2013,『춘천 중도동유적 -4대강 살리기사업 춘천 중도동 하중도 D-E지구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
한림대학교 박물관, 2002,『춘천 하중도 제방공사구간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예맥문화재연구원, 2014,「춘천 중도 LEGOLAND KOREA Project C구역 내 유적 정밀발굴조사 부분완료(1차) 약식보고서」.
고려문화재연구원, 2014,「춘천 중도 LEGOLAND KOREA Project D구역(고려A · B) 문화재 발굴조사 부분완료 약식보고서」.
한얼문화유산연구원, 2014,「춘천 중도 LEGOLAND KOREA Project A~E구역 내 문화재 발굴조사 부분완료 약식보고서」.
한백문화재연구원, 2014,「춘천 중도 LEGOLAND KOREA Project B구역 내 문화재 발굴조사 부분완료 약식보고서」.
江原文化財硏究所, 2017,「춘천 중도 순혼도로부지 내 발굴(정밀)조사 약식보고서」.
권민석, 2017,「춘천 중도 LEGOLAND KOREA Project H구역(H1, H4유적)」,『2017년 중부고고학회 유적조사 발표회 -중부지역 문화유적 발굴조사-』, 중부고고학회.
정세영, 2017,「춘천 중도 LEGOLAND KOREA Project H구역(H2유적)」,『2017년 중부고고학회 유적조사 발표회 -중부지역 문화유적 발굴조사-』, 중부고고학회.



도면 1. 조사대상지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1:25,000)

지석묘가 산재한다.[49] 그리고 천전리유적에서 주구석관묘[50]가 확인되어 주목을 받았으며, 산천리 · 지내리 · 금산리 · 온의동 · 석사동 등에서도 유물산포지가 확인되었다.

철기시대 유적은 중도[51] · 신매리[52] · 율문리[53] · 천전리[54] · 우두동[55] · 근화동[56] · 삼천동[57] · 거두리 · 장학리[58] · 지내리[59] · 군자리[60] 등에서 주거유적이 발굴조사되었으며, 일부 유적에서는 중국 군현과의 교류의 흔적을 보여주는 유물이 출토되었다. 또한 지내리 679-4번지 유적에서는 부뚜막시설

박중국, 2017,「춘천 중도 LEGOLAND KOREA Project A구역 내 유적」,『2017년 중부고고학회 유적조사 발표회 -중부지역 문화유적 발굴조사-』, 중부고고힉회.
박동선, 2017,「춘천 중도 LEGOLAND KOREA Project A~E구역 내 유적(D구역)」,『2017년 중부고고학회 유적조사발표회 -중부지역 문화유적 발굴조사-』, 중부고고힉회.

40) 翰林大學校博物館, 2002,『춘천 삼천동 순환도로구간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연세대학교 원주박물관, 2006,『춘천 삼천동 37-12번지 주택건축부지 내 문화유적 시굴조사 보고서』.

41) 예맥문화재연구원, 2010,『춘천 송암동유적-춘천 의암 레저스포츠타운 조성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42) 江原文化財硏究所, 2003,『擧頭里遺蹟 발굴조사 보고서』.
翰林大學校博物館, 2004,『춘천 거두지구 문화재 시굴조사 보고서』.
江原文化財硏究所, 2008,『春川 擧頭2地區 遺蹟 -춘천 거두2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江原文化財硏究所, 2009,『春川 擧頭里 779-1番地 遺蹟』.

43) 한병삼 외, 1974,「소양강 수몰지구 유적 발굴조사」,『팔당 · 소양댐수몰지구유적 발굴종합조사보고』,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44) 江原文化財硏究所, 2004,「춘천 발산리 지석묘군 발굴조사 보고서」,『춘천지역 지석묘군 발굴조사 보고서』.

45) 國立博物館, 1967,『韓國支石墓硏究』.
江原文化財硏究所, 2004,「춘천 천전리 지석묘군 발굴조사 보고서」,『춘천지역 지석묘군 발굴조사 보고서』.

46) 江原文化財硏究所, 2004,「춘천 천전리 지석묘군 발굴조사 보고서」,『춘천지역 지석묘군 발굴조사 보고서』.
江原文化財硏究所, 2011,『春川 牛頭洞 遺蹟Ⅰ-직업훈련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구간 유적 발굴조 사 보고서』.

47) 翰林大學校博物館, 1986,『신매리 지석묘 주거지 발굴보고서』.
國立中央博物館, 1982,『中島』진전보고Ⅴ.

48) 노혁진 · 최은주, 1982,「제2장 중도 지석묘 발굴보고」,『중도발굴조사보고서』, 중도선사유적 발굴조사단.
國立中央博物館, 1982,『中島』진전보고Ⅴ.
江原文化財硏究所, 2013,『춘천 중도동유적 -4대강 살리기사업 춘천 중도동 하중도 D-E지구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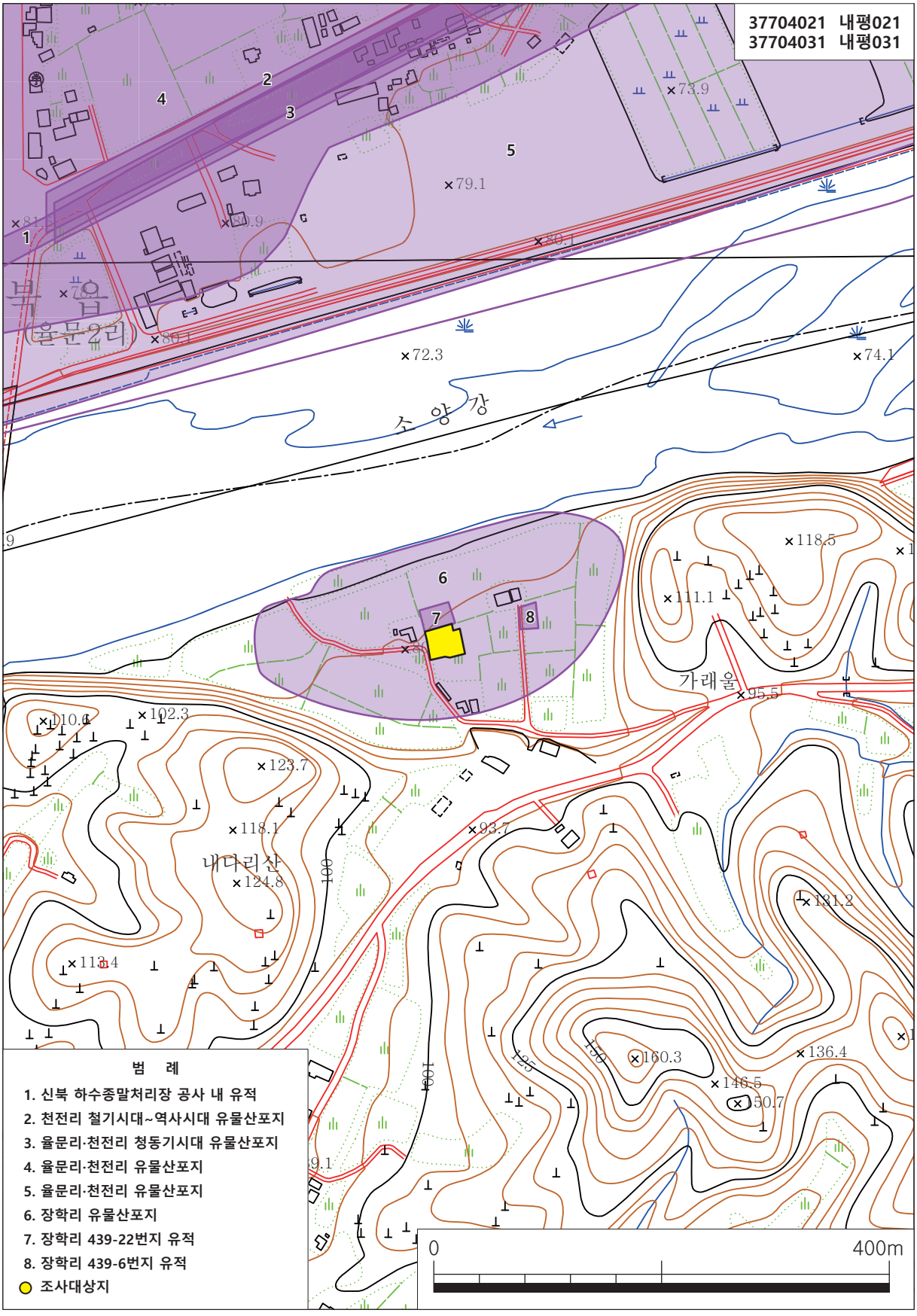
49) 한림대학아시아문화연구소, 1986,「강원도 유적 유물분포 총람」,『강원도의 선사문화』.
노혁진 · 장미영 · 심재연, 1994,『춘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한림대학교박물관.
노혁진 · 심재연, 1997,「춘천의 선사유적」,『춘천의 역사와 문화유적』, 한림대학교박물관.
정연우, 2001,「북한강유역 지석묘 연구」,『사학지』제34집, 단국사학회.

50) 江原文化財硏究所, 2008,『泉田里』.

51) 國立中央博物館, 1980,『中島』진전보고Ⅰ;1981,『중도』진전보고Ⅲ.
한백문화재연구원, 2012,『춘천 중도 유적 -4대강 살리기사업 춘천 하중도A지구』.
한강문화재연구원, 2013,『춘천 중도동 취락 -4대강 살리기사업 춘천 중도동 하중도 B지구 발굴조사 보고서-』.
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14,『춘천 중도동 취락 -4대강 살리기사업 춘천 중도동 하중도 C지구 발굴조사 보고서-』.

52) 翰林大學校博物館, 2003, 2003,『춘천 신매대교부지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江原文化財硏究所, 2005,『新梅里 54-4番地 遺蹟 -주택신축예정부지 내 유적 시굴조사 보고서』.
江原文化財硏究所, 2007,『新梅里 10 · 47-1番地 遺蹟 -주택신축예정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53) 江原文化財硏究所, 2008,『春川 栗文里 335-4番地 遺蹟 -춘천 율문리 생물산업단지 조성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예맥문화재연구원, 2008,『춘천 율문리유적Ⅰ-춘천 율문리 75-2번지 창고신축부지 내 유적 시굴조사보고서』.



도면 2. 조사대상지 지형도(1:5,000)

이 확인되어 춘천지역의 취사 · 난방시설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제공되었다. 분묘유적으로는 중도와 신매리에 적석총[61]이 분포한다.

춘천지역에는 소위 '맥국(貊國)'이라는 국가적 성격을 띤 정치체가 존재했다고 하나 현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미약하다[62]. 춘천지역이 객관적으로 문헌기록에 언급되기 시작하는 것은 삼국시대가 형성되면서부터이다. 삼국사기의 온조왕조의 '주양(走壤)'이라는 기록[63]을 근거로 하여 백제의 영역으로 일찍 포함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한성백제의 영향은 춘천 거두리 유적과 홍천 하화계리유적 출토유물로 보면 적어도 기원후 3세기 후엽 경에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화천 원천리 유적을 볼 때, 기원후 4세기경에 백제의 직접지배 영역으로 편입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고구려의 남진과 더불어 5~6세기 전반까지 고구려의 영역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춘천지역은 '오근내(烏根乃)[64]'라는 고구려식 지명이 남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에 대한 고고학적인 물질 자료는 고구려계 묘제가 반영된 서면 방동리 · 신매리에서 조사된 말각식천장의 석실분과 천전리고분이 있다.

삼국시대 이후의 유적은 고분 및 주거유적이 있는데 고분유적은 고구려 고분의 형식을 취한 신매리 · 방동리 · 천전리고분[65]과 신라 고분[66]으로 봉의산 고분군 · 만천리고분과 발산리고분이 있다. 이

---

54) 江原文化財硏究所, 2008,『泉田里』.

55) 江原文化財硏究所, 2006,『춘천 우두동 707-1, 35번지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江原文化財硏究所, 2007,『春川 牛頭洞 롯데인벤스 우두파크 신축부지내 발굴조사 보고서』.
江原文化財硏究所, 2011,『春川 牛頭洞 遺蹟Ⅰ-직업훈련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구간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江原文化財硏究所, 2012,『春川 牛頭洞 遺蹟Ⅱ-한국폴리텍Ⅲ대학 춘천캠퍼스 건물개축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56) 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11,『춘천 근화동유적 -경춘선 춘천정거장 예정부지 내 A구역 유적 발굴조사』.
江原文化財硏究所, 2011,『춘천 근화동유적 -경춘선 춘천정거장 예정부지 내 B구역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예맥문화재연구원, 2011,『춘천 근화동유적 -경춘선 춘천정거장 예정부지 내 C구역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57) 翰林大學校博物館, 2002,『춘천 삼천동 37-12버너지 주택건축부지 내 문화유적 시굴조사 보고서』.

58) 江原文化財硏究所, 2011,『춘천 장학리 Ⅰ유적 -소양 5교~국도56호선간 도로 확 · 포장공사 구간 내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한국문화재재단, 2018,「3. 춘천 장학리 439-6 · 22번지 유적」,『2016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Ⅳ -강원2-』.

59) 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13,「7. 춘천 지내리 689-3번지 유적」,『2011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Ⅱ-경기2 · 강원-』.
한국문화재재단, 2019,「73. 춘천 지내리 679-4번지 유적」,『2017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XII -73~79-』.

60) 예맥문화재연구원, 2009,『춘천 군자리유적 -서울-춘천고속도로 8공구 N · O지구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61) 박한설 · 최복규, 1982,「제1장 중도적석총 발굴보고」,『중도발굴조사보고』, 중도선사유적발굴조사단.
심재연, 2003,「북한강유역 적석총 지표조사보고」,『춘천 신매리 주차장 신축예정부지유적』, 강원문화재연구소.

62) 강원향토문화연구회, 2005,『春川貊國의 歷史的 硏究 -貊國의 역사적 조명을 위한 학술세미나-』.
심재연, 2004,「춘천 맥국설 정립을 위한 제언」,『江原文化史硏究』第9輯, 강원향토문화연구회.
김창석, 2009,「고대의 영서 지역과 춘천 맥국설」,『사회적 네트워크와 공간』, 이태진 교수 정년기념논총간행위원회.

63)『三國史記』卷 第二十三.「百濟本紀」第一, 溫祚王十三年條. '八月 遣使馬韓告遷都 遂畫定疆壤 北至浿河 南限 熊川 西窮大海 東極走壤.' ; '溫祚王三十八年條. 春二月 王巡撫 東至走壤 北至浿河 五旬而返'

64)『三國史記』卷 第三十七.「雜志」第六, 地理四, 高句麗 · 百濟條. '牛首州 首一作頭一云首次 若一云烏根乃'

65) 조유전, 1987,「춘성군 신매리 고구려식 석실분 일례」,『삼불김원룡교수정년퇴임기념논총Ⅰ(고고학편)』.
翰林大學校博物館, 1995,『정비보존을 위한 방동리고분 발굴보고서』.
江原文化財硏究所, 2008,『泉田里』.

외에도 후평동 · 삼천동 · 우두동 · 신매리 · 중리 · 원창리 · 봉명리 등에서 통일신라시대의 유물이 발견매장문화재로 신고되었다.

주거유적으로는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시대까지의 주거지가 우두동 · 송암동 · 근화동 · 현암리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통일신라~고려시대의 주거지가 천전리 · 우두동 · 근화동 등에서 확인되었다. 특히 우두동 일대에서 확인되는 주거유적은 소양강이 회절하며 형성된 강안 충적대지상에서 최소한 통일신라시대 이후에 형성된 경작유구가 집중적으로 확인되고 있어서 향후 주거공간과 생산유적 간의 공간분석에 있어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근화동유적과 송암동유적에서 확인되는 통일신라 취락의 존재는 우수주의 설치와 더불어 형성된 통일신라기 취락구조 형성 분석에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소양로 와요지는 이러한 취락의 형성과 기와의 수급관계를 밝혀줄 것으로 기대된다.

신라 진흥왕의 한강유역 진출 시기에 북한강유역도 신라의 영역에 편입된 것으로보인다. 선덕여왕 6년(637)에 이르면 우두주를 설치하고 군주를 파견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군사적 행정적인 체제가 완비된 것으로 보인다.

신라말에 광해주로 한때 바뀌었으나 고려 태조 23년(940) 춘주라는 지명이 붙여진다. 이후 성종 14년(995) 전국을 10개도로 나누었을 때, 춘천지역은 교주(회양) · 동주(철원) · 창주(연천) · 등주(안변) · 명주(강릉) · 보주(삼척) 등과 함께 삭방도에 편제되어 화주(영흥)에 설치된 안변 도호부에 소속되었고, 이후 교주도에 속하였다.

조선시대 주거지 및 건물지 유적은 천전리 · 발산리 · 우두동 · 장학리 · 근화동 · 현암리 · 금산리에서 일부 확인되고 있으며, 주거유적과 관련된 생산공간인 밭 등의 경작유구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군현 이름의 개편과 더불어 춘주에서 춘천으로 지명이 변경되었고, 현재까지 동일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고종 32년(1895)에는 종전 8도를 폐지하고 23개부를 설치하였으나 다음해인 1896년 23부제가 다시 13도제로 개정되면서 관찰부를 도청으로 개편하였고, 춘천군이 되어 1읍, 10면, 108리를 관할하였다.

1946년 미군정 하에서 춘천읍이 춘천부로 승격되고 1995년 1월 1일 33개 도 · 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 · 농 복합형태의 춘천시가 되었다.

조사대상지 주변유적의 분포현황은 다음【표 1】과 같다.

---

66) 翰林大學校博物館, 1985,『한림대학 박물관보』창간호.
翰林大學校博物館, 2000,『춘천시 동면 만천리 고분 발굴보고서』.
江原文化財硏究所, 2010,『춘천 발산리 유적 -춘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신북-용산) 건설공사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표 1】 조사대상지 주변유적 분포현황

연번	유적명	이격 거리	유적시기 및 성격	참고문헌	비고
1	춘천 율문리 79-3, 6번지 유적	북동쪽 905m	청동기~철기시대, 시대미상 생활유적	韓國文化財財團, 2015, 「34 춘천 율문리 79-3 · 6번지 유적」, 『2012년도 소규모발굴조사보고서 Ⅲ -강원3-』	
2	천전리 지석묘군	북동쪽 2,000m	청동기시대 분묘	강원문화재연구소, 2003, 『문화유적 분포지도 -춘천시-』	
3	동면 지내리 유적	동쪽 1,700m	청동기~역사시대 생활유적	강원문화재연구소, 2003, 『문화유적 분포지도 -춘천시-』	
4	장학리 439-6번지 유적	동쪽 70m	철기시대 생활유적	한국문화재재단, 2018, 「3. 춘천 장학리 439-6 · 22번지 유적」, 『2016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Ⅳ -강원 2-』	
5	장학리 439-22번지 유적	북쪽 인근	철기시대 생활유적	한국문화재재단, 2018, 「3. 춘천 장학리 439-6 · 22번지 유적」, 『2016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Ⅳ -강원 2-』	



도면 3. 조사대상지 지적도(1:1,000)

Ⅲ. 조사내용

발굴조사 대상지는 소양강 남쪽에 동-서로 넓게 형성된 충적대지 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밭 경작지와 비닐하우스가 분포하고 소수의 가옥이 들어서 있다. 조사대상지 역시 밭 경작지로 활용되었던 지역이다.

조사대상지의 평면형태는 북동 모서리 쪽이 'ㄴ'자로 만입되었으나 전체적으로 방형에 가까운 형태이다. 설계도상에 건물은 조사대상지 북쪽에 치우쳐 건축될 예정이다. 사업대상지의 전체 대지면적은 855㎡이고 이 중 792㎡에 대해서만 단독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며, 향후 건축이 완료되면 이 부분에 대해 토지를 분할할 예정이다. 발굴조사는 건축 · 대수선 · 용도 변경 신청서를 기준으로 792㎡에 대해서 실시하였다.

발굴조사는 주변 유적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조사구역 전면을 굴삭기를 사용하여 제토한 후 수작업으로 유구확인 작업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지의 토층양상을 조사구역 동벽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표토 및 복토층(1층: 암갈색사질점토) - 자연퇴적층(2층 : 황갈색사질점토, 3층 : 황백색사질토) - 원삼국~고려시대 문화층(4층 : 회백색사질토) - 자연퇴적층(5층 : 회갈색사질점토, 6층 : 황갈색사질토, 7층 : 명황색사질토, 8층 : 회흑색사질토) - 청동기시대 문화층(9층 : 흑갈색점질토)의 순으로 퇴적되었다.

1층은 표토 및 복토층인 암갈색사질점토로, 조사대상지 전체에서 확인되었다. 최근까지 밭 경작이 이루어졌으며, 층의 두께는 20㎝ 정도이다.

2층과 3층은 원삼국~고려시대 유구가 폐기된 후에 퇴적된 자연퇴적층이다. 2층은 황갈색사질점토로, 사질의 입자가 비교적 굵어 조직이 치밀하지 못하다. 수평퇴적 양상을 보이며, 지표 하 20㎝에서 확인되었으며, 약 20㎝ 두께로 퇴적되었다.

3층은 황백색사질토로 소양강의 범람으로 퇴적된 것으로 보인다. 지표 하 40㎝에서 확인되었으며, 35㎝ 정도 두께로 퇴적되었다.

4층은 원삼국~고려시대 유구가 확인된 문화층으로 회백색사질토이다. 층 내에는 범람과 지하수 흐름 등으로 침전되어 형성된 암갈색 점토띠가 수평 또는 파상으로 무질서하게 형성되어 있다. 지표 하 75㎝에서 노출되었으며, 층의 두께는 20㎝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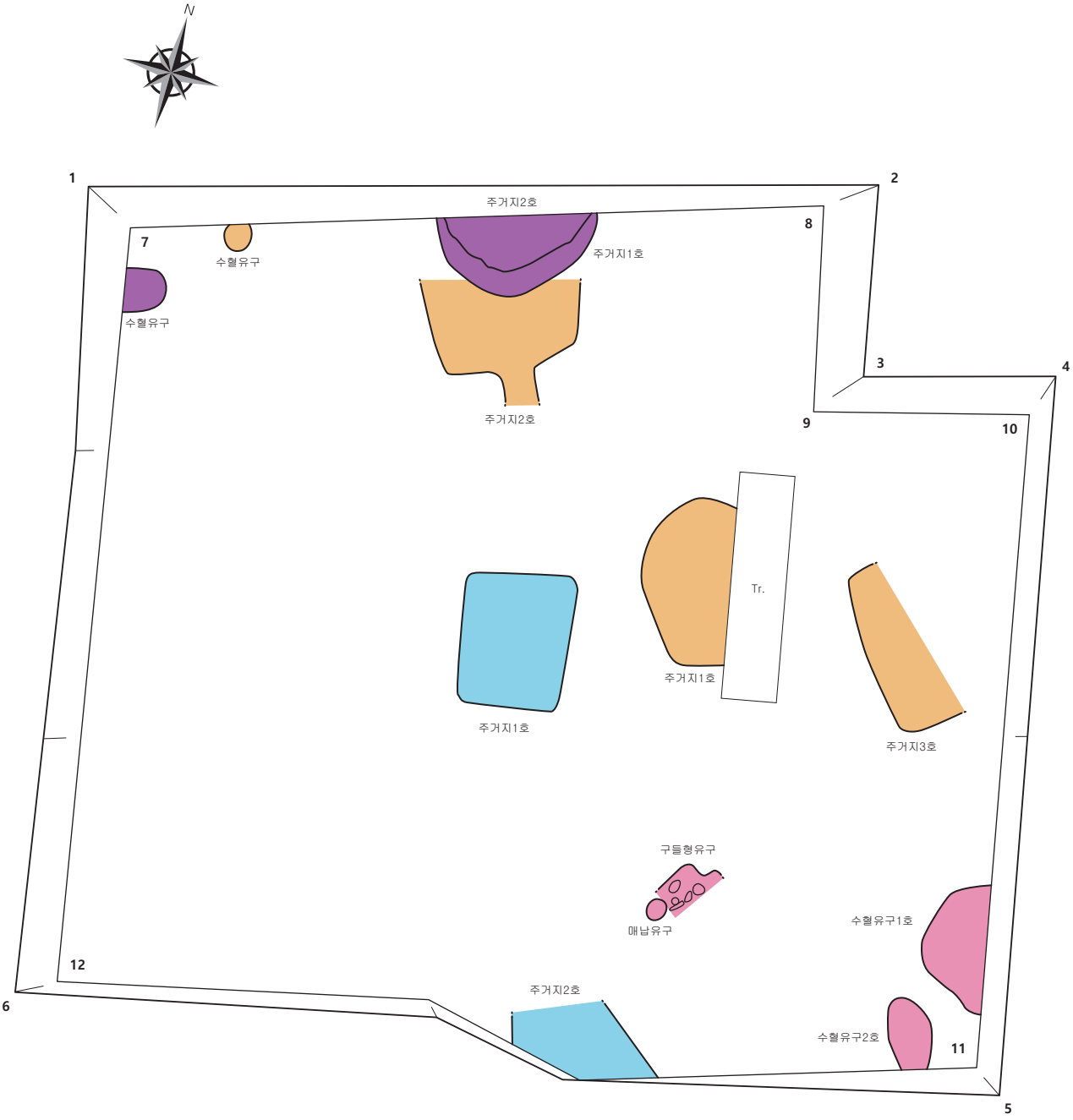
5~8층은 청동기시대 유구가 폐기된 이후에 퇴적된 자연퇴적층으로 수평퇴적양상을 보인다. 5층은 회갈색사질점토이며, 지표 하 95㎝에서 확인되었고 15㎝정도 두께로 퇴적되었다.

6층은 황갈색사질토이며, 지표 하 110㎝에서 확인되었고 20㎝정도 두께로 퇴적되었다.

7층은 명황색사질토이며, 지표 하 130㎝에서 확인되었으며, 20㎝정도 두께로 퇴적되었다.

8층은 회흑색사질토이며, 지표 하 150㎝에서 확인되었으며, 10㎝정도 두께로 퇴적되었다.

9층은 청동기시대 문화층인 흑갈색점질토로 청동기시대 유구가 확인되었다. 지표 하 160㎝에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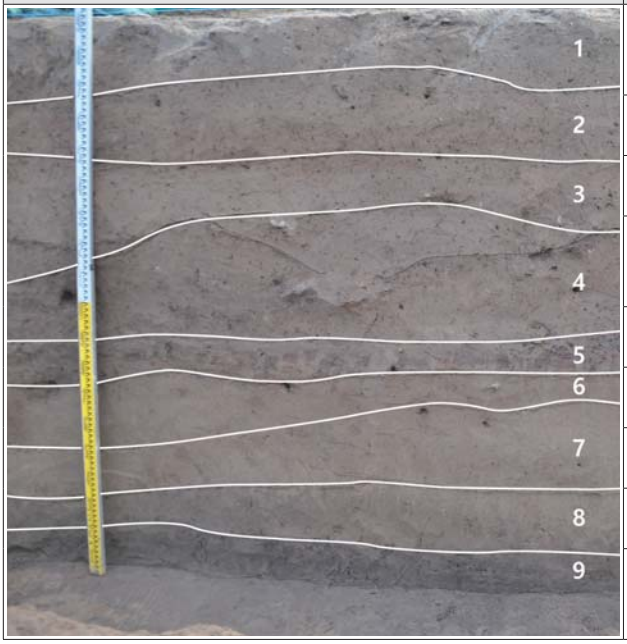
GPS 측점 제원표

측점	TM 좌표		측점	TM 좌표		측점	TM 좌표		측점	TM 좌표	
GPS1	X	591617.810m	GPS4	X	591620.410m	GPS7	X	591617.150m	GPS10	X	591616.080m
	Y	266449.770m		Y	266480.730m		Y	266450.770m		Y	266480.580m
	Z	80.328m		Z	80.787m		Z	79.168m		Z	79.285m
GPS2	X	591624.600m	GPS5	X	591598.130m	GPS8	X	591621.310m	GPS11	X	591599.040m
	Y	266473.36m		Y	266484.710m		Y	266469.800m		Y	266483.560m
	Z	81.098m		Z	80.730m		Z	79.366m		Z	79.077m
GPS3	X	591619.410m	GPS6	X	591593.050m	GPS9	X	591615.970m	GPS12	X	591594.970m
	Y	266474.500m		Y	266454.480m		Y	266473.670m		Y	266455.670m
	Z	80.977m		Z	80.614m		Z	79.358m		Z	79.180m

범 례
- 조사대상범위
- 조사범위
- 청동기시대
- 원삼국시대
- 삼국시대
- 고려시대

도면 4. 발굴조사 유구배치도

【표 2】 조사대상지 기준토층(동벽)

토층	내용	
	1층 : 암갈색사질점토	표토 및 복토층 (두께 20㎝)
	2층 : 황갈색사질점토	자연퇴적층 (지표 하 20~75㎝)
	3층 : 황백색사질토	
	4층 : 회백색사질토	원삼국~고려시대 문화층 (지표 하 75~95㎝)
	5층 : 회갈색사질점토	자연퇴적층 (지표 하 95~160㎝)
	6층 : 황갈색사질토	
	7층 : 명황색사질토	
	8층 : 회흑색사질토	
	9층 : 흑갈색점질토	청동기시대 문화층 (지표 하 160㎝ 이상)

발굴조사 결과, 2개의 문화층에서 총 13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원삼국~고려시대 문화층의 유구는 남서쪽을 제외한 지역에서 확인되었는데, 원삼국시대 주거지 3동 · 수혈유구 1기, 삼국시대 주거지 2동 · 고려시대 구들형 유구 1기 · 수혈유구 2기 · 매납유구 1기가 조사되었다. 청동기시대 문화층의 유구는 조사대상지 북쪽 경계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 2동이 중복된 상태였고, 북서쪽 모서리에서는 수혈유구 1기가 확인되었다.

〈청동기시대 문화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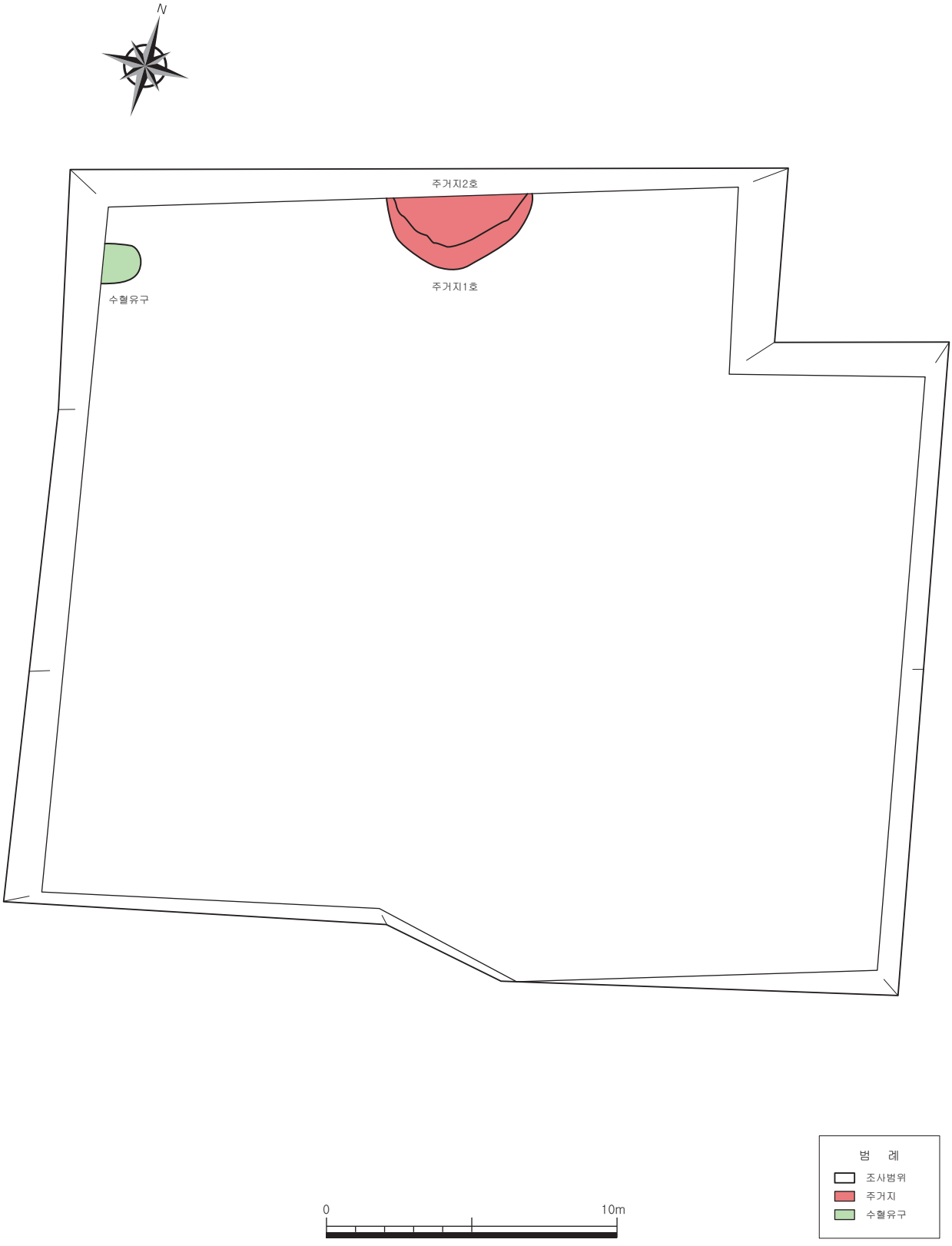
1) 주거지

(1) 주거지 1호

가. 유구(도면 6, 도판 3~4-②)

조사구역 북쪽 경계의 중앙부에 접한 해발 78.5m에 위치한다. 남벽과 서벽 일부만 확인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조사경계 외곽으로 연장되었다. 원삼국시대 주거지 2호가 축조되면서 상면 일부가 유실되었다.

흑갈색점질토 상면을 굴착하고 축조하였으며, 잔존 양상으로 보아 평면형태는 (타)원형 또는 말각(장)방형으로 추정된다. 벽면은 비교적 완만하고 바닥면에는 별도의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내부에는 황갈색사질토 – 황갈색사질점토 – 암갈색사질점토의 순으로 퇴적되었다. 잔존 규모는 동-서 길



도면 5. 청동기시대 문화층 유구배치도

이 508㎝ · 남-북 길이 388㎝ · 깊이 21㎝이며, 장축방향은 동-서(N-70°-E)향이다.

잔존 양상이 불량하여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유물은 서벽에 인접하여 무문토기 저부 1점, 내부 조사과정에서 무문토기 저부 2점 등 총 3점이 수습되었다.

나. 유물

1. 무문토기 저부(도면 6-1, 도판 4-1)

무문토기 저부로 일부만 잔존하여 도상복원하였다. 태토는 석립 및 세석립이 포함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색조는 갈색(7.5YR 4/4)이고 내면에 그을음이 잔존한다. 바닥면은 편평하고 가장자리는 둥글게 처리하였다. 내 · 외면에는 지두압흔이 확인되며 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11.7㎝, 복원저경 12.9㎝, 두께 1.0㎝

2. 무문토기 저부(도면 6-2, 도판 4-2)

무문토기 저부로 일부만 잔존하여 도상복원하였다. 태토는 석립 및 세석립이 포함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색조는 황적색(5YR 4/6)이다. 바닥면은 편평한 편이고 가장자리는 둥글게 처리하였다. 내 · 외면에는 지두압흔이 확인되며 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4.0㎝, 복원저경 9.8㎝, 두께 1.1㎝

3. 무문토기 저부(도면 6-3, 도판 4-3)

무문토기 저부로 일부만 잔존하여 도상복원하였다. 태토는 석립 및 세석립이 포함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색조는 적갈색(5YR 4/4)이다. 바닥면은 편평하고 가장자리를 둥글게 처리하였으며, 저부는 축약시켰다. 내 · 외면에는 지두압흔이 확인되며 물손질 정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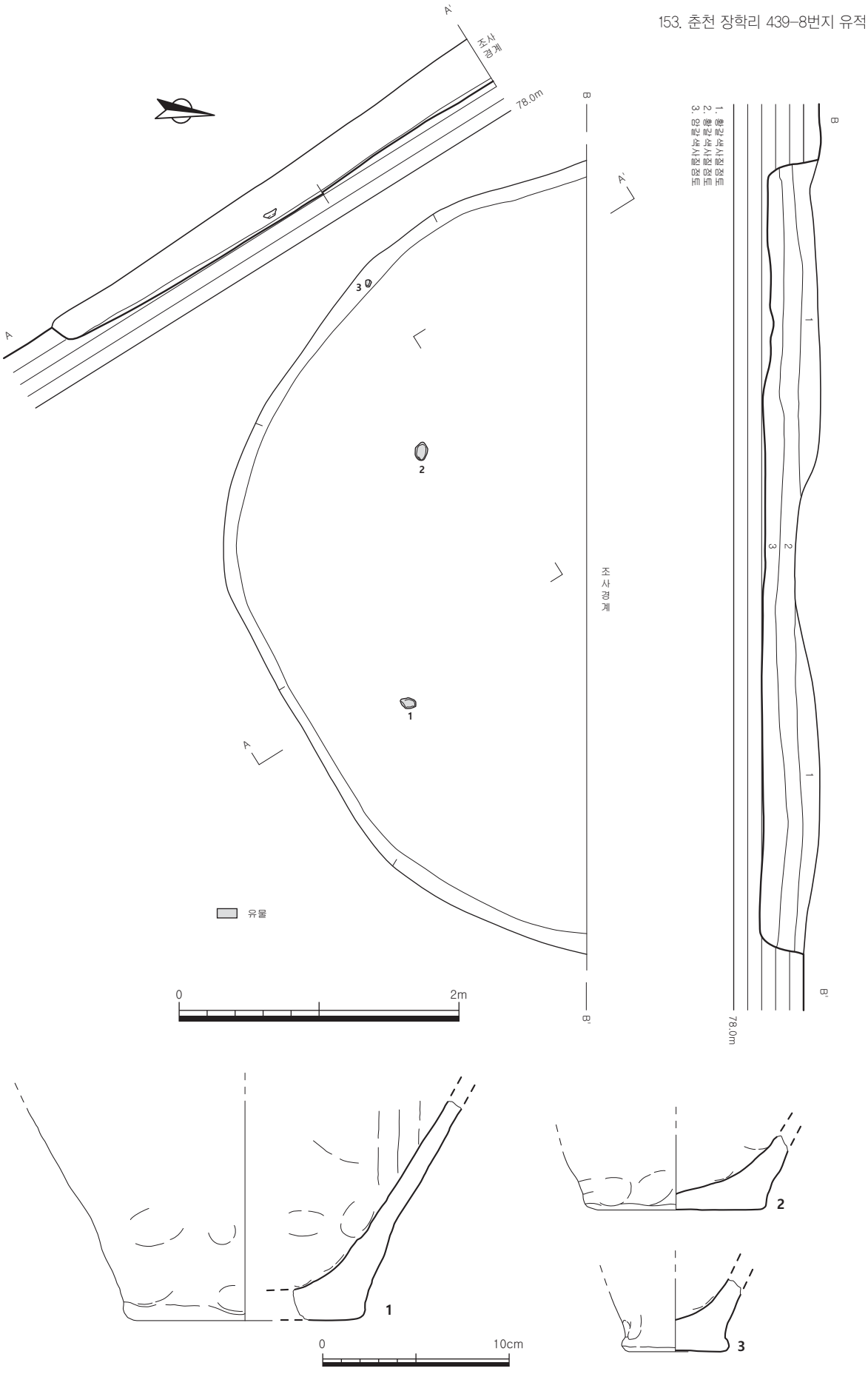
잔존기고 4.0㎝, 복원저경 5.8㎝, 두께 0.8㎝

(2) 주거지 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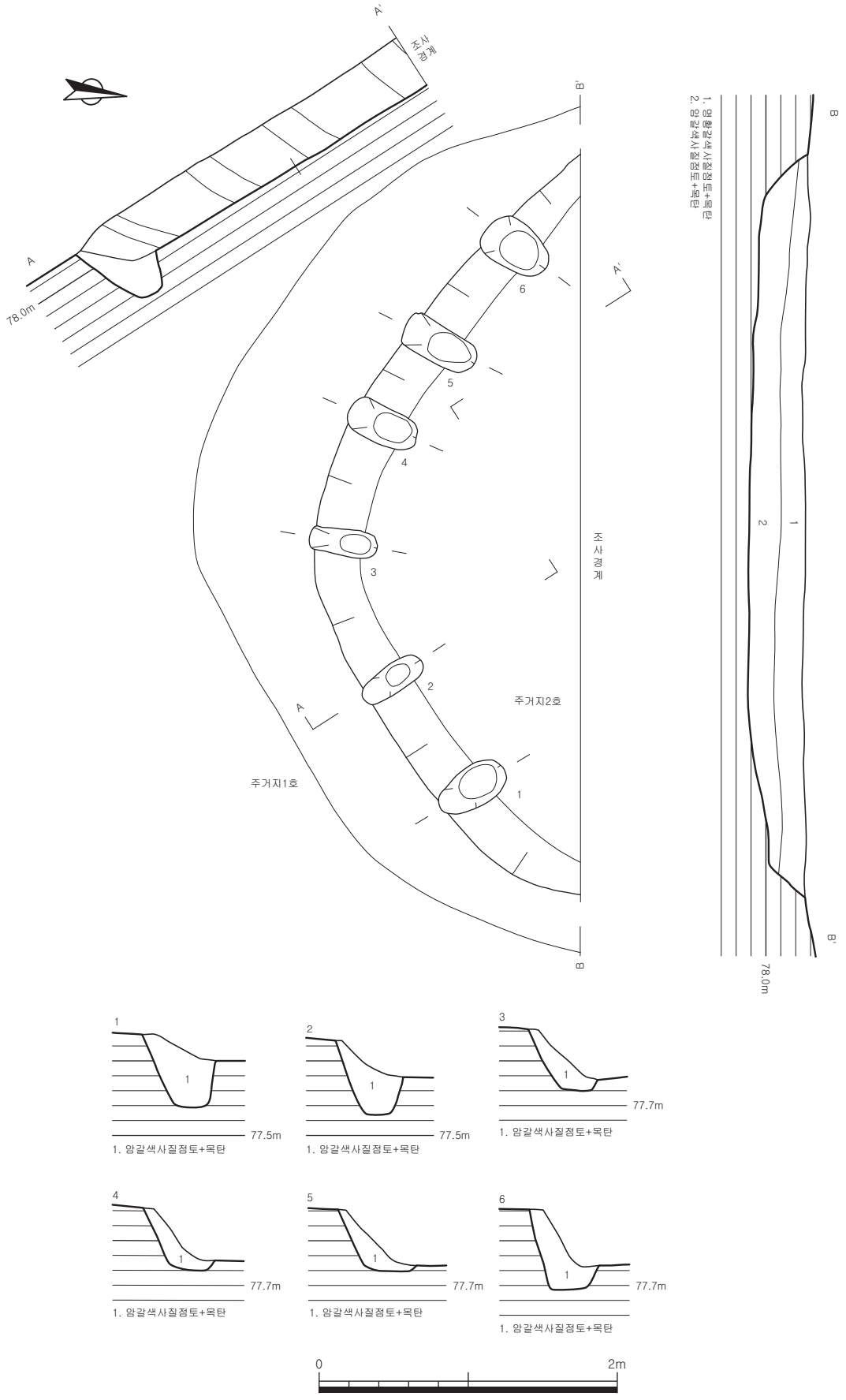
가. 유구(도면 7, 도판 5~7-⑨)

조사구역 북쪽 경계의 중앙부에 접한 해발 78.3m에 위치한다. 남벽과 서벽 일부만 확인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조사경계 외곽으로 연장되었다. 청동기시대 주거지 1호 폐기 이후 주거지 2호가 후축되었다.

흑갈색점질토와 청동기시대 주거지 1호의 내부토인 황갈색사질토 상면을 굴착하고 축조하였으며, 잔존 양상으로 보아 평면형태는 (타)원형 또는 말각(장)방형으로 추정된다. 벽면은 비교적 완만하고 바닥면에서는 별도의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내부에는 명황갈색사질점토+목탄 - 암갈색사질점토+



도면 6. 청동기시대 주거지 1호 및 출토유물



도면 7. 청동기시대 주거지 2호

목탄이 퇴적되었다. 잔존 규모는 동-서 길이 418㎝ · 남-북 길이 314㎝ · 깊이 30㎝이며, 장축방향은 북동-남서(N-50°-E)향이다.

내부시설은 벽면을 따라 주혈 6개가 확인되었다. 주혈은 주거지의 굴광선과 내부 바닥면을 평면 타원형으로 굴착하고 시설하였으며, 단면형태는 'U'자형이다. 내부에는 암갈색사질점토가 퇴적되었다. 주혈의 규모는 지름 54~60㎝ · 깊이 24㎝이고, 주혈간의 간격은 60~70㎝ 내외이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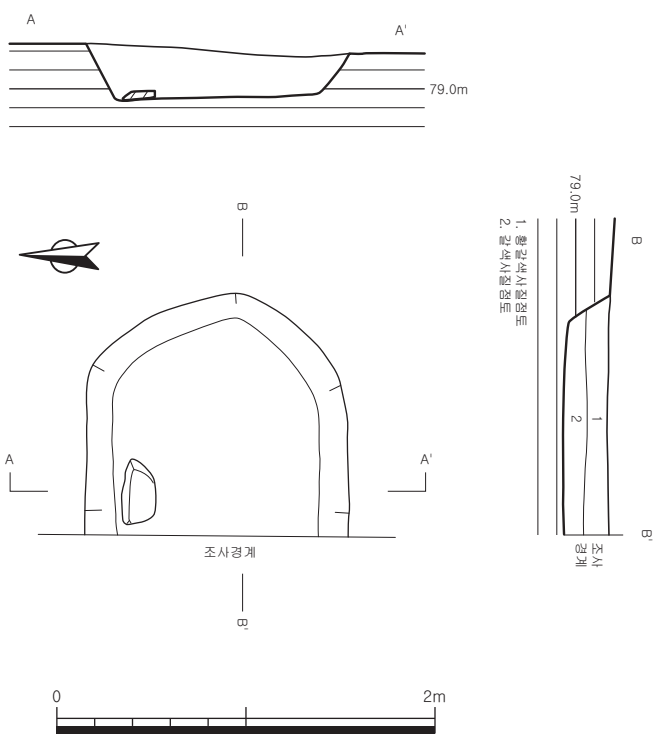
2) 수혈유구

가. 유구(도면 8, 도판 7-⑩~⑬)

조사구역 서쪽 경계에서 북서쪽 모서리에 치우친 해발 79.2m에 위치한다. 동벽과 남 · 북벽 일부만 확인되었고 나머지는 조사경계 외곽으로 연장된다. 북동쪽으로 2m 떨어져 원삼국시대 수혈유구 1호가 있다.

흑갈색점질토 상면을 굴착하고 축조하였으며, 잔존 양상으로 보아 평면형태는 타원형으로 판단된다. 벽면은 완만하고 바닥면에서는 별도의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내부에는 황갈색사질점토 - 갈색사질점토의 순으로 퇴적되었다. 규모는 확인된 길이 126㎝ · 너비 138㎝ · 깊이 24㎝이며, 장축방향은 동-서(N-87°-E)향이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도면 8. 청동기시대 수혈유구

〈원삼국~고려시대문화층〉



도면 9. 원삼국~고려시대 문화층 유구배치도

1. 원삼국시대

1) 주거지

(1) 주거지 1호

가. 유구(도면 10, 도판 8 · 9)

조사구역의 중앙부에서 동쪽으로 약간 치우친 해발 79m에 위치한다. 주거공간의 동 · 서벽과 남벽 일부만 확인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하부 문화층의 유구 부존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치한 트렌치에 의해 파괴되었다. 동쪽으로 4m 떨어져 원삼국시대 주거지 3호가 있고 서쪽으로 2.5m 정도 떨어져서는 삼국시대 주거지 1호가 위치한다.

회백색사질토 상면을 굴착하고 조성되었다. 잔존 양상으로 보아 전체 평면형태는 남쪽에 출입시설을 배치한 '凸'자형으로 보이고 주거공간의 평면형태는 전벽과 후벽이 돌출된 육각형으로 판단된다. 벽면은 비교적 완만하고, 바닥면은 얇은 목탄 띠가 부분적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초본류 등을 이용하여 바닥면에 깔았던 것으로 보인다. 내부에는 황갈색사질점토 - 갈색사질점토 - 적갈색점토 순으로 퇴적되었다. 유구의 규모는 잔존 길이 505㎝ · 잔존 너비 405㎝ · 깊이 33㎝이고 장축방향은 북서-남동(N-58°-W)향이다.

내부시설은 주축선상의 중앙부에서 후벽 쪽으로 치우친 곳에서 노지 1기가 확인되었다. 노지는 바닥면을 평면 타원형으로 굴착한 후 벽면과 바닥에 폭 6~10㎝ 정도 점토를 깔고 상면에 15㎝ 내외의 자갈돌을 한 벌 깔아 축조한 점토띠식이다. 점토는 소결되어 적갈색을 띠고 있다. 노지의 크기는 길이 131㎝ · 너비 94㎝ · 깊이 10㎝이다. 노지 북쪽에서 52㎝ 크기의 불막음돌 1매가 확인되었다.

유물은 노지 주변에서 경질무문토기 외반구연호 · 개 등이 출토되었으며, 전벽에 인접한 곳에서 경질무문토기편 등 총 10점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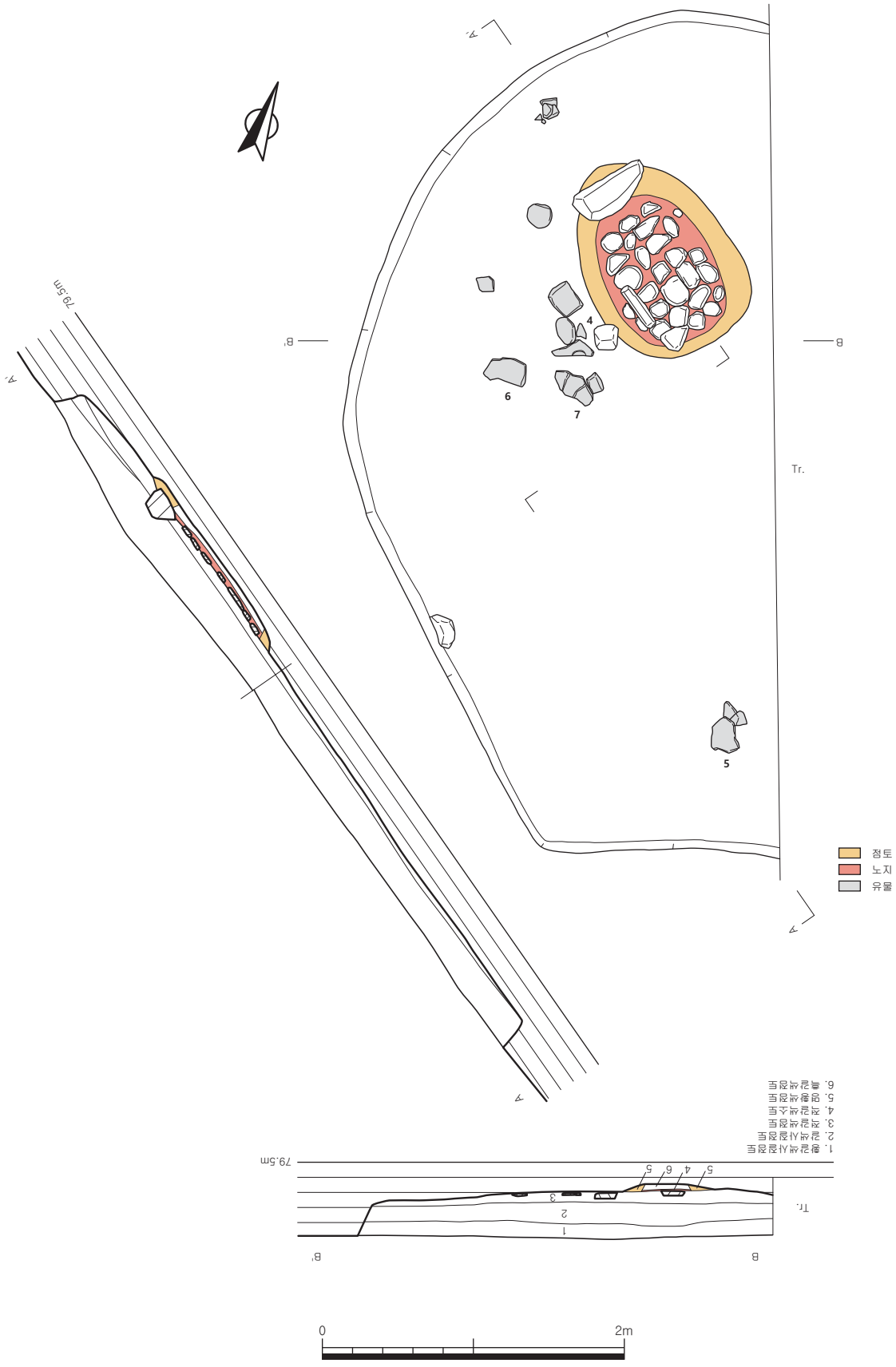
4. 경질무문토기 개(도면 11-4, 도판 10-4)

신부가 부분적으로 결실된 경질무문토기 개이다. 태토는 사립이 함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색조는 적갈색(5YR 4/4)이다. 파부 중앙은 오목하고 가장자리에는 지두압흔이 남아있다. 신부는 사선방향으로 벌어지며, 드림단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내 · 외면에는 지두압흔이 남아있고, 물손질 정면하였다.

기고 5.9㎝, 드림부경 16.0㎝, 두께 1.5㎝

5. 경질무문토기 외반구연호(도면 11-5, 도판 10-5)

경질무문토기 외반구연호로 일부만 잔존하여 도상복원하였다. 태토는 석립 및 세석립이 포함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색조는 황적색(5YR 4/6)이다. 동체부는 완만하게 벌어지



도면 10. 원삼국시대 주거지 1호

고 동중위에서 최대경을 이룬다. 구연부는 짧게 외반하고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내 · 외면은 종 · 횡방향 지두압흔이 확인되며, 점토접합흔이 남아있으며 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26.5㎝, 복원구경 22.6㎝, 두께 1.0㎝

6. 타날문토기 동체부편(도면 11-6, 도판 10-6)

타날문토기 동체부편이다. 태토는 세석립 및 사립이 함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색조는 회색(2.5Y 6/1)이다. 동체부에는 승문이 타날되었다. 내 · 외면에는 부분적으로 물손질 정면 흔적이 남아 있다.

잔존기고 8.5㎝, 두께 0.5㎝

7. 타날문토기 동체부편(도면 11-7, 도판 10-7)

타날문토기 동체부편이다. 태토는 세석립 및 사립이 함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색조는 회색(2.5Y 6/1)이다. 동체부에는 승문이 교차 타날되었다. 내면에는 지두압흔이 확인되고 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11.5㎝, 두께 0.7㎝

8. 원형토제품(도면 11-8, 도판 10-8)

원형토제품으로 완형이며, 토기편을 재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태토는 사립이 포함된 점토로 표면은 암회색(N 3/0)이고 속심은 회색(2.5Y 6/1)이다. 평면형태는 원형이고 단면형태는 장방형이다. 전면에는 격자문 타날이 확인되고, 후면에는 물손질 정면 흔적이 남아있다.

지름 6.0㎝, 두께 1.4㎝

9. 지석(도면 12-9, 도판 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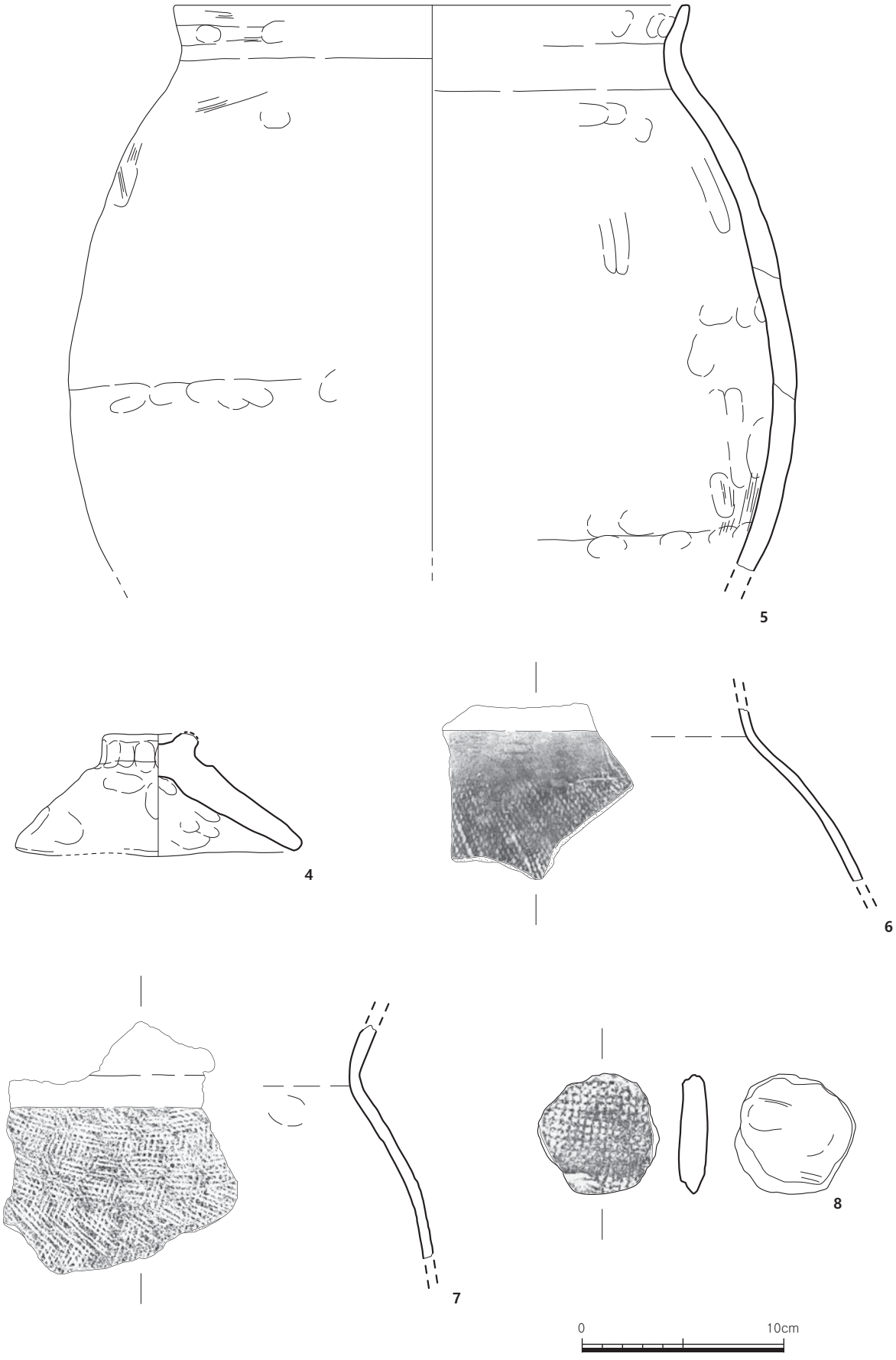
편마암제 지석으로 완형이다. 평면형태는 장타원형이다. 전후면에 사용흔이 확인된다. 가로 단면형태는 말각제형에 가깝고 세로 단면형태는 장타원형이다.

잔존길이 32.8㎝, 너비 9.8㎝, 두께 7.6~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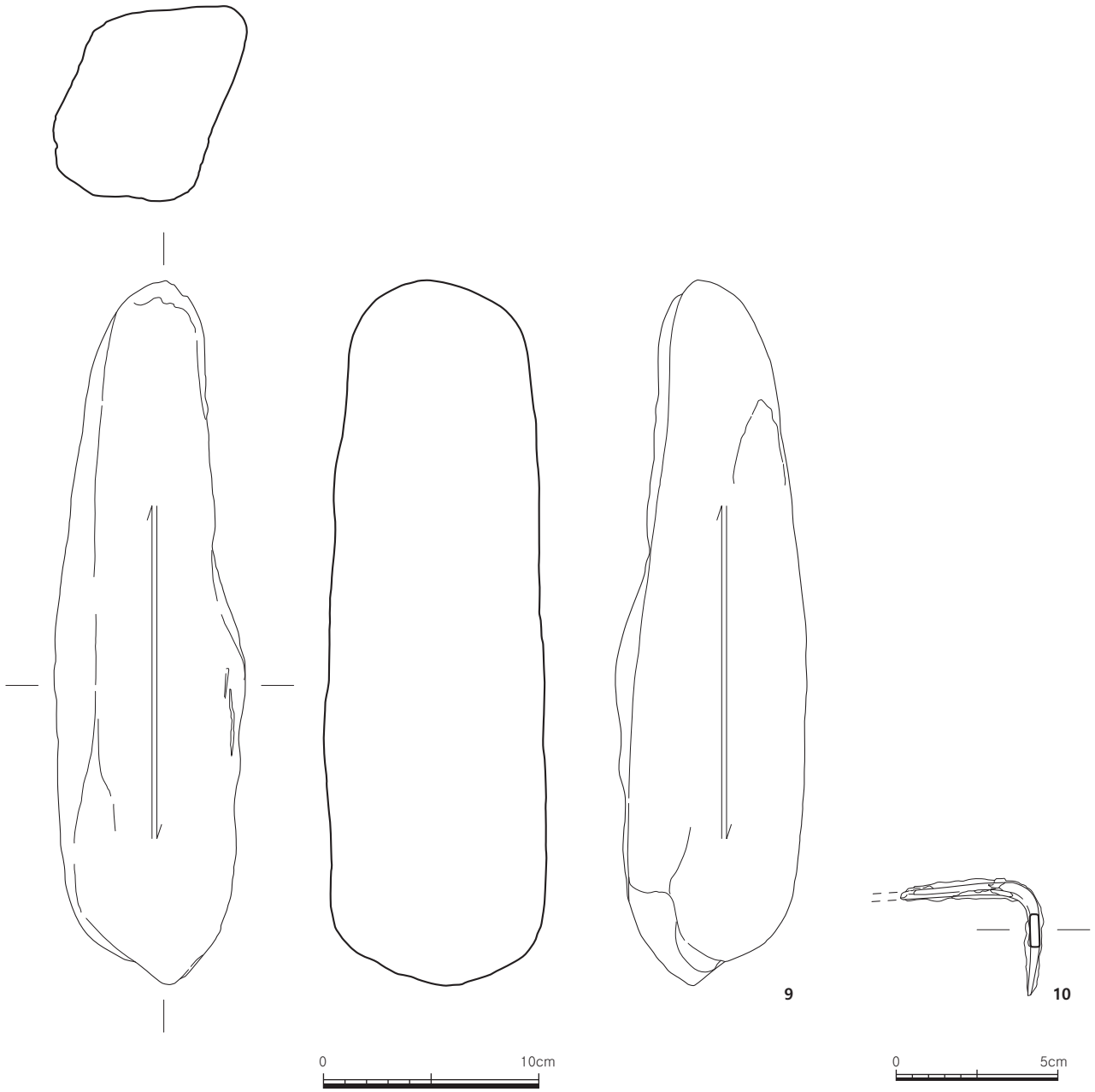
10. 꺾쇠편(도면 12-10, 도판 10-10)

철제 꺾쇠편이다. 형태는 'ㄷ'자형의 원형 중 한쪽 모서리 일부만 남아 있으며, 편평하다가 둥글게 꺾여 끝으로 내려갈수록 뾰족하다. 단면형태는 장방형이다.

잔존길이 3.5㎝, 너비 4.5㎝, 두께 0.3㎝



도면 11. 원삼국시대 주거지 1호 출토유물1



도면 12. 원삼국시대 주거지 1호 출토유물2

(2) 주거지 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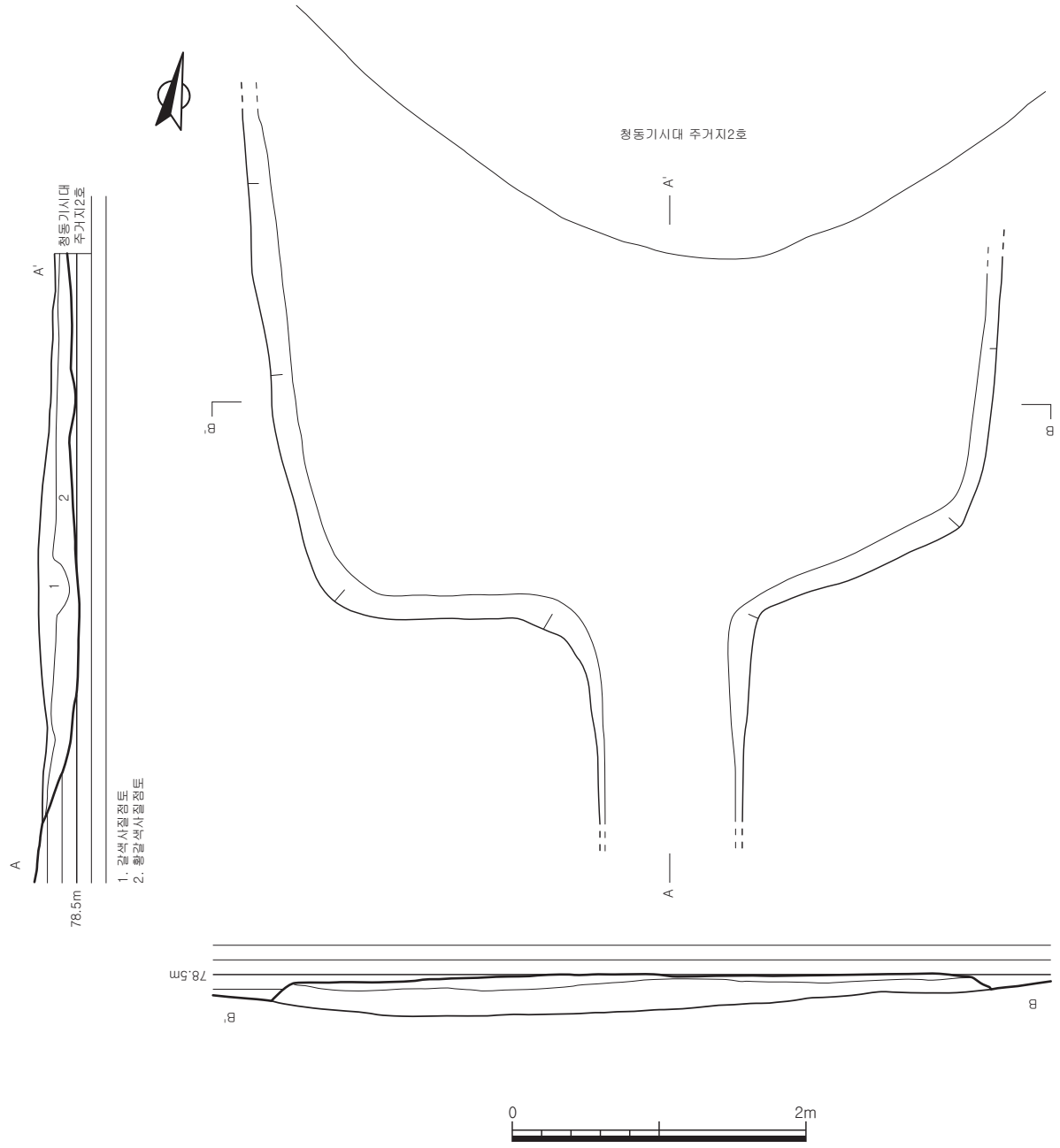
가. 유구(도면 13, 도판 10-①~11-③)

조사구역의 북쪽 경계 중앙에 인접한 해발 78.8m에서 확인되었다. 출입구시설을 포함한 전면과 양 측벽 일부만 확인되었으며, 나머지 뒤쪽 부분은 하부문화층 유구 확인을 위하여 설치한 트렌치에 의해 파괴되었다. 북쪽은 하부문화층의 청동기시대 주거지 1호의 상면 일부를 파괴하고 축조되었고, 서

쪽으로 6m 떨어져서는 원삼국시대 수혈유구가 위치한다.

회백색사질토 상면을 굴착하고 축조하였으며, 잔존양상으로 보아 평면형태는 '凸'자형으로 판단된다.

주거공간의 평면형태는 전벽이 돌출된 것으로 보아 오각형 또는 육각형으로 추정된다. 벽면은 비교적 완만하고, 바닥면은 다짐흔적 등 별다른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고, 내부에는 갈색사질점토와 황갈색사질점토가 퇴적되었다. 규모는 잔존길이 490㎝ · 너비 520㎝ · 깊이 27㎝이며, 장축방향은 남-북(N-12°-W)향이다.



도면 13. 원삼국시대 주거지 2호

출입구시설은 전면인 남벽의 중앙부에 돌출된 형태로 배치하였다. 규모는 잔존길이 200㎝ · 너비 108㎝이며, 벽면과 바닥면에서 별도의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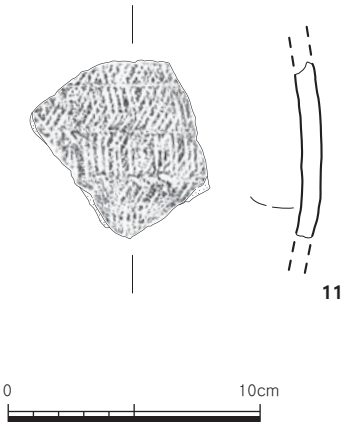
내부조사 과정에서 타날문토기 동체부편 1점이 수습되었다.

나. 유물

11. 타날문토기 동체부편(도면 14-11, 도판 11-11)

타날문토기 동체부편이다. 태토는 세석립 및 사립이 함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색조는 회색(2.5Y 5/1)이다. 외면에는 평행선문이 교차 타날되었고 2.0㎝ 간격으로 횡침선이 돌려져 있다. 내면에는 지두압흔이 확인되며, 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7.0㎝, 두께 0.8㎝



도면 14. 원삼국시대 주거지 2호 출토유물

(3) 주거지 3호

가. 유구(도면 15, 도판 12~13-①)

조사구역의 서쪽 경계 중앙부에 인접한 해발 78.8m에서 확인되었다. 서벽과 남 · 북벽 일부만 잔존하며, 나머지는 모두 유실되었다. 동쪽으로 4m 떨어져 원삼국시대 주거지 1호가 위치한다.

회백색사질토 상면을 굴착하고 축조하였으며,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추정된다. 벽면은 비교적 완만하고, 바닥은 굴착면을 평탄하게 정지하여 사용하였다. 내부에는 굵은 석립이 혼합된 암갈색사질점토가 퇴적되었다. 규모는 길이 534㎝ · 잔존 너비 232㎝ · 깊이 14㎝이며, 장축방향은 북서-남동(N-41°-W)향이다. 바닥은 별다른 시설없이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유물은 서벽에 인접해 경질무문토기 저부 5점이 일렬로 정치되어 출토되었고 내부조사 과정에서 경질무문토기 저부 3점이 수습되는 등 총 8점이 확인되었다.

나. 유물

12. 경질무문토기 저부(도면 16-12, 도판 13-12)

경질무문토기 저부로 일부만 잔존하여 도상복원하였다. 태토는 석립 및 세석립이 포함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색조는 황적색(5YR 4/6)이고 내면에 그을음이 잔존한다. 바닥면은 편평하고 가장자리를 둥글게 처리하였으며, 저부는 약하게 축약시켰다. 내 · 외면에는 지두압흔이 확인되며 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6.0㎝, 복원저경 13.6㎝, 두께 1.2㎝

13. 경질무문토기 저부(도면 16-13, 도판 13-13)

경질무문토기 저부로 일부만 잔존하여 도상복원하였다. 태토는 석립 및 세석립이 포함된 점토를 사

용하였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색조는 적갈색(5YR 4/3)이고 내면에는 흑반이 잔존한다. 바닥면은 편평하고 가장자리는 둥글게 처리하였다. 저부는 약하게 축약되었으며, 지두압흔이 남아있다. 내 · 외면은 물손질 정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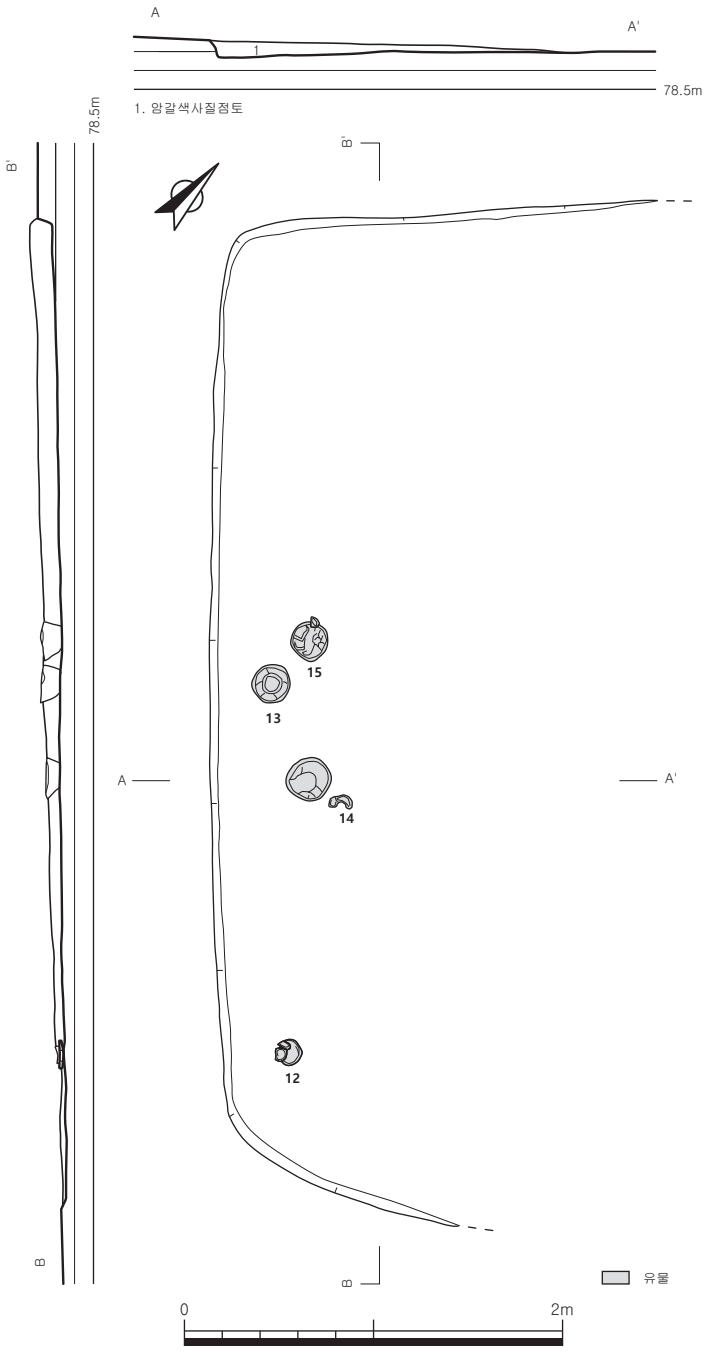
잔존기고 5.1㎝, 복원저경 11.2㎝, 두께 1.0㎝

14. 경질무문토기 저부(도면 16-14, 도판 13-14)

경질무문토기 저부로 일부만 잔존하여 도상복원하였다. 태토는 석립 및 세석립이 포함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색조는 갈색(7.5Y 5/4)이고 외저면에 흑반이 잔존하며, 내면에는 그을음이 남아있다. 바닥면은 편평하고 저부는 약하게 축약되었으며, 지두압흔이 남아있다. 내면에도 지두압흔이 확인되며, 내 · 외면은 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6.5㎝, 복원저경 9.6㎝, 두께 0.8㎝

15. 경질무문토기 저부(도면 16-15, 도판 13-15)



도면 15. 원삼국시대 주거지 3호

경질무문토기 저부로 일부만 잔존하여 도상복원하였다. 태토는 석립 및 세석립이 포함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색조는 갈색(7.5YR 4/3)이고 외저면에 흑반이 잔존한다. 바닥면은 편평하며, 가장자리는 둥글게 처리하였다. 내면에는 지두압흔이 남아있고 내 · 외면은 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3.7㎝, 복원저경 9.4㎝, 두께 1.0㎝

16. 경질무문토기 저부(도면 16-16, 도판 13-16)

경질무문토기 저부로 일부만 잔존하여 도상복원하였다. 태토는 석립 및 세석립이 포함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색조는 적갈색(5YR 4/4)이고 외저면에 흑반이 잔존한다. 바닥면은 편평한 편이고 가장자리가 약간 들려있다. 내·외면에는 지두압흔이 확인되며, 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3.9㎝, 복원저경 8.7㎝, 두께 0.8㎝

17. 경질무문토기 저부(도면 16-17, 도판 13-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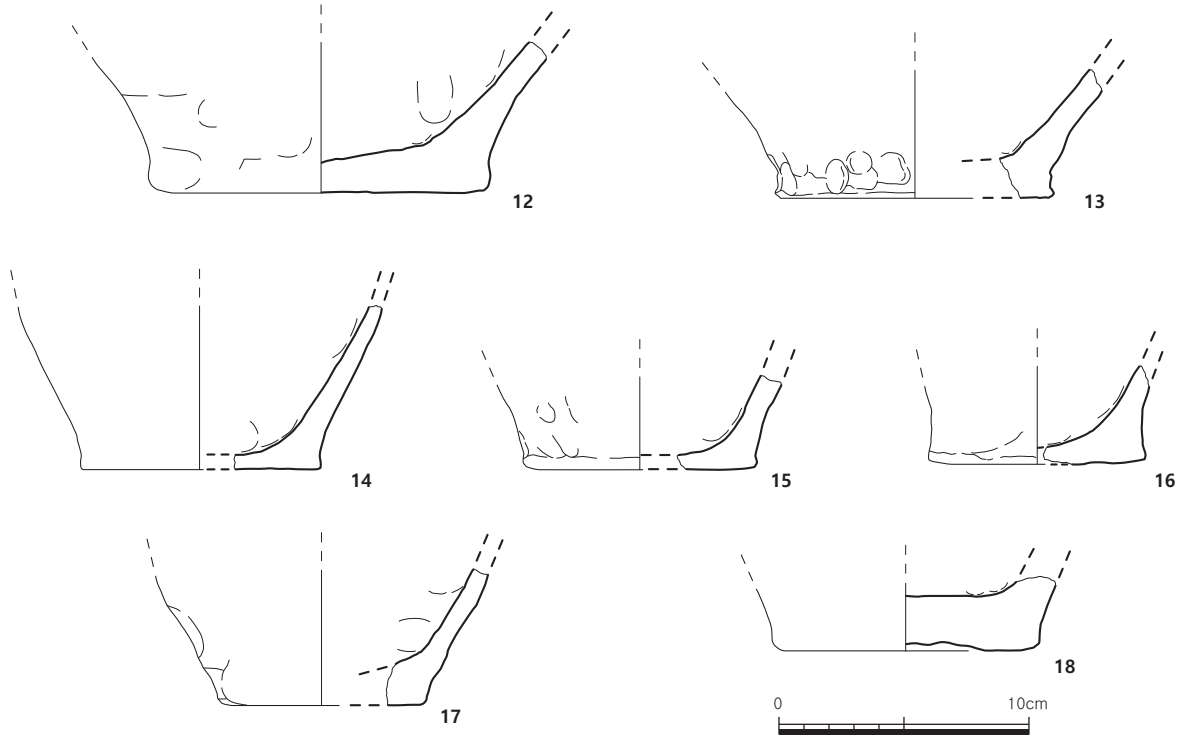
경질무문토기 저부로 일부만 잔존하여 도상복원하였다. 태토는 석립 및 세석립이 포함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색조는 적갈색(5YR 4/3)이다. 바닥면은 편평하다. 내·외면에는 지두압흔이 확인되며, 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5.4㎝, 복원저경 11.2㎝, 두께 0.7㎝

18. 경질무문토기 저부(도면 16-18, 도판 13-18)

경질무문토기 저부로 일부만 잔존한다. 태토는 석립 및 세석립이 포함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색조는 적갈색(5YR 4/3)이다. 바닥면은 중앙이 오목하고 가장자리를 둥글게 처리하였다. 내·외면에는 지두압흔이 확인되며 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3.0㎝, 복원저경 10.8㎝, 두께 2.0㎝



도면 16. 원삼국시대 주거지 3호 출토유물

2) 수혈유구

가. 유구(도면 17, 도판 13-②~⑤)

조사구역 북서쪽 경계의 모서리에 인접한 해발 79.3m에 위치한다. 북벽 일부는 조사경계 밖으로 연장되었으며, 동쪽으로 6m 떨어져 원삼국시대 주거지 2호가 위치한다.

회백색사질토 상면을 굴착하고 축조하였으며, 평면형태는 타원형에 가까운 원형이다. 벽면은 비스듬하고 바닥면에는 별도의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내부에는 황적색점질토와 황갈색사질점토가 퇴적되었다. 규모는 길이 96㎝ · 너비 84㎝ · 깊이 15㎝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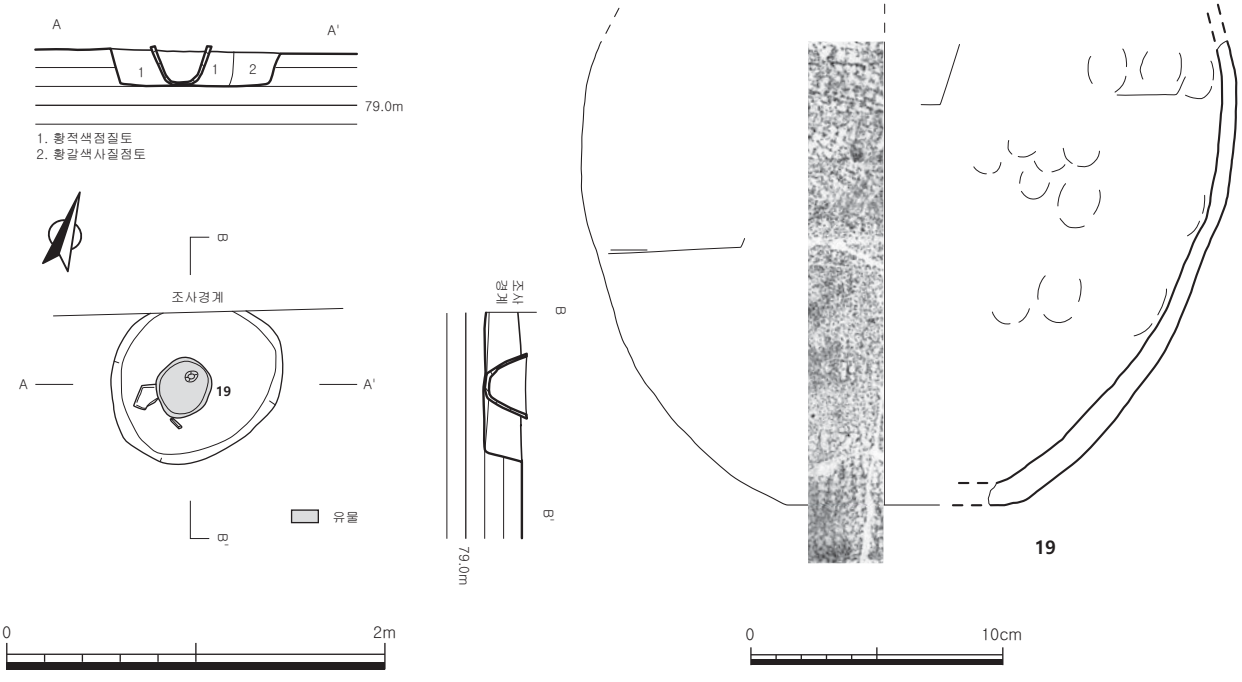
유물은 중앙부에서 구연부가 유실된 타날문토기 호가 직치된 상태로 출토되었다.

나. 유물

19. 타날문토기 호(도면 17-19, 도판 13-19)

타날문토기 호로 일부만 잔존하여 도상복원하였다. 태토는 세석립 및 사립이 함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색조는 적갈색(5YR 4/4)이고 외면에 흑반이 잔존한다. 저부는 말각평저이고 동체부의 형태는 장동형으로 동중상위에 최대경이 위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외면에는 동중상위에 격자문이 타날되었고 동하위는 격자문이 교차 타날되었다. 동중하위 부분은 물손질 정면하였으며, 내면은 지두압흔이 확인되고 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18.3㎝, 저경 9.8㎝, 두께 0.5~1.0㎝



도면 17. 원삼국시대 문화층 수혈유구 및 출토유물

2. 삼국시대

1) 주거지

(1) 주거지 1호

가. 유구(도면 18, 도판 14~16-⑧)

조사구역의 중앙부에서 확인되었으며, 해발 80.1m에 위치한다. 동쪽으로 2.5m 떨어져 원삼국시대 주거지 1호가 위치한다.

회백색사질토 상면을 굴착하고 축조하였으며,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벽면은 완만하고, 바닥은 생토면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내부에는 갈색사질점토+목탄 - 흑갈색사질점토+목탄 - 황갈색사질토 - 명갈색사질점토+목탄 - 암갈색사질점토가 퇴적되어 있다. 규모는 길이 438㎝ · 너비 380㎝ · 깊이 32㎝이며, 장축방향은 남-북(N-5°-W)향이다.

내부시설은 주축선상의 중앙부에서 북벽에 치우쳐 노지 1기가 확인되었다. 노지는 바닥면을 평면 원형으로 굴착한 수혈식이고 북쪽에는 불막음용으로 판단되는 45㎝ 크기의 할석 1매가 노출되었다. 내부에는 적갈색 소토가 퇴적되었고 크기는 지름 68㎝ · 깊이 12㎝이다.

유물은 남벽 중앙부에서 경질무문토기 저부 1점과 노지 주변에서 경질무문토기 외반구연호 1점 · 타날문토기 호 구연부 3점 등 5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20. 경질무문토기 외반구연호(도면 19-20, 도판 16-20)

경질무문토기 외반구연호로 일부만 잔존하여 도상복원하였다. 태토는 세석립이 함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색조는 명갈색(7.5YR 6/4)이다. 구연부는 외반하고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내면에는 종방향 목리흔이 확인되고, 내 · 외면에는 지두압흔이 남아있으며, 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13.0㎝, 복원구경 14.4㎝, 두께 0.7~1.1㎝

21. 경질무문토기 저부(도면 19-21, 도판 16-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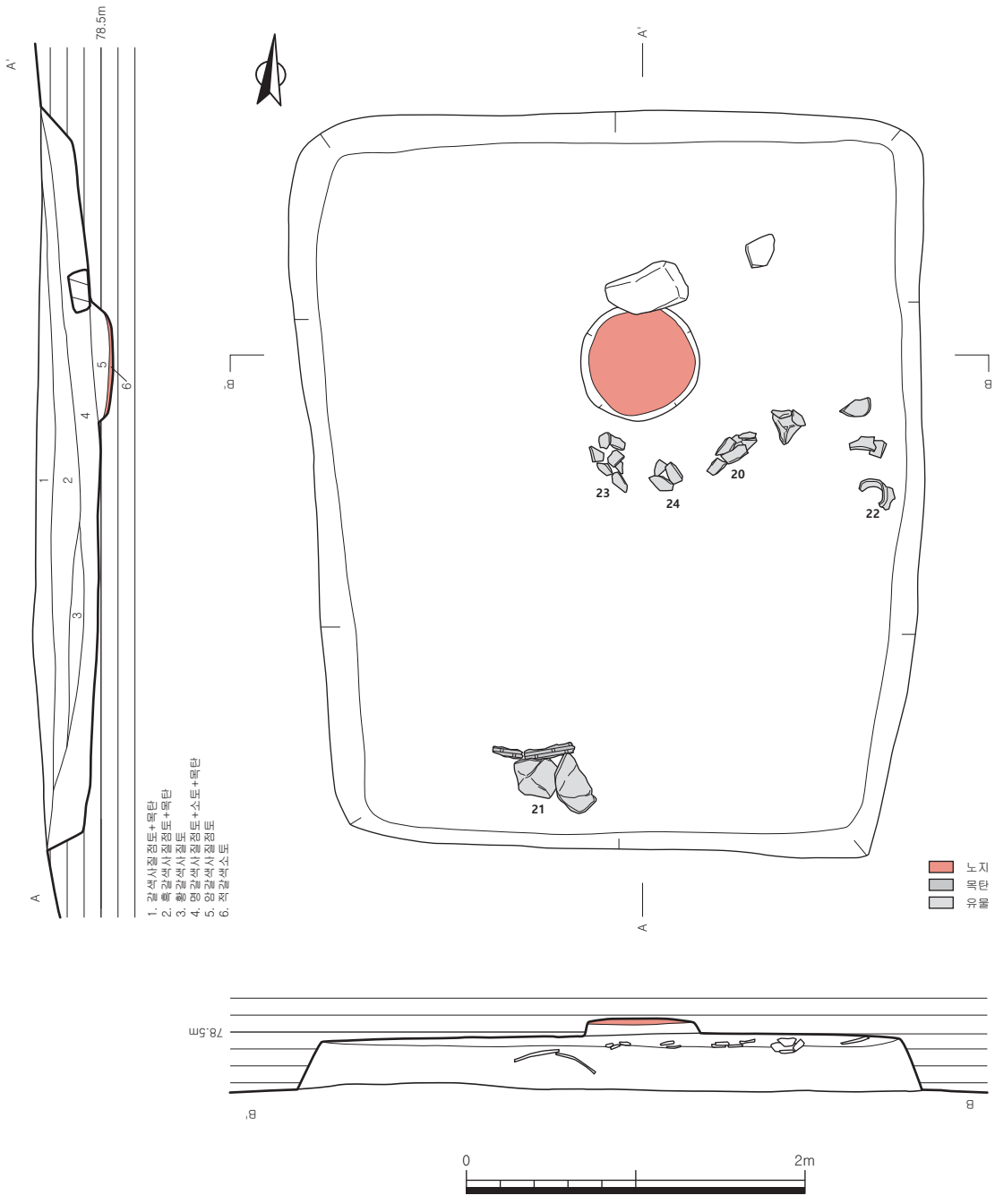
경질무문토기 저부로 일부만 잔존하여 도상복원하였다. 태토는 세석립이 함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색조는 황적색(5YR 4/6)이다. 바닥면은 편평하고 저부와 동체부 접합 시 누른 지두압흔에 의해 가장자리가 약간 오목하다. 동체부는 급한 경사로 올라간다. 내 · 외면에에 지두압흔이 확인되고 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13.0㎝, 복원저경 9.8㎝, 두께 0.6~1.1㎝

22. 타날문토기 호 구연부(도면 19-22, 도판 16-22)

연질 소성의 타날문토기 호 구연부로 구연 일부만 잔존하여 도상복원하였다. 태토는 세석립 및 사립이 함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색조는 연황색(2.5Y 7/3)이고 흑반이 잔존한다. 구연부는 외반하고 구연단은 평탄하게 처리하였다. 동체부에는 승문이 교차 타날되었다. 내·외면에는 부분적으로 물손질 정면 흔적이 남아 있다.

잔존기고 6.4㎝, 복원구경 16.2㎝, 두께 0.4~1.0㎝



도면 18. 삼국시대 주거지 1호

23. 타날문토기 호 구연부(도면 19-23, 도판 16-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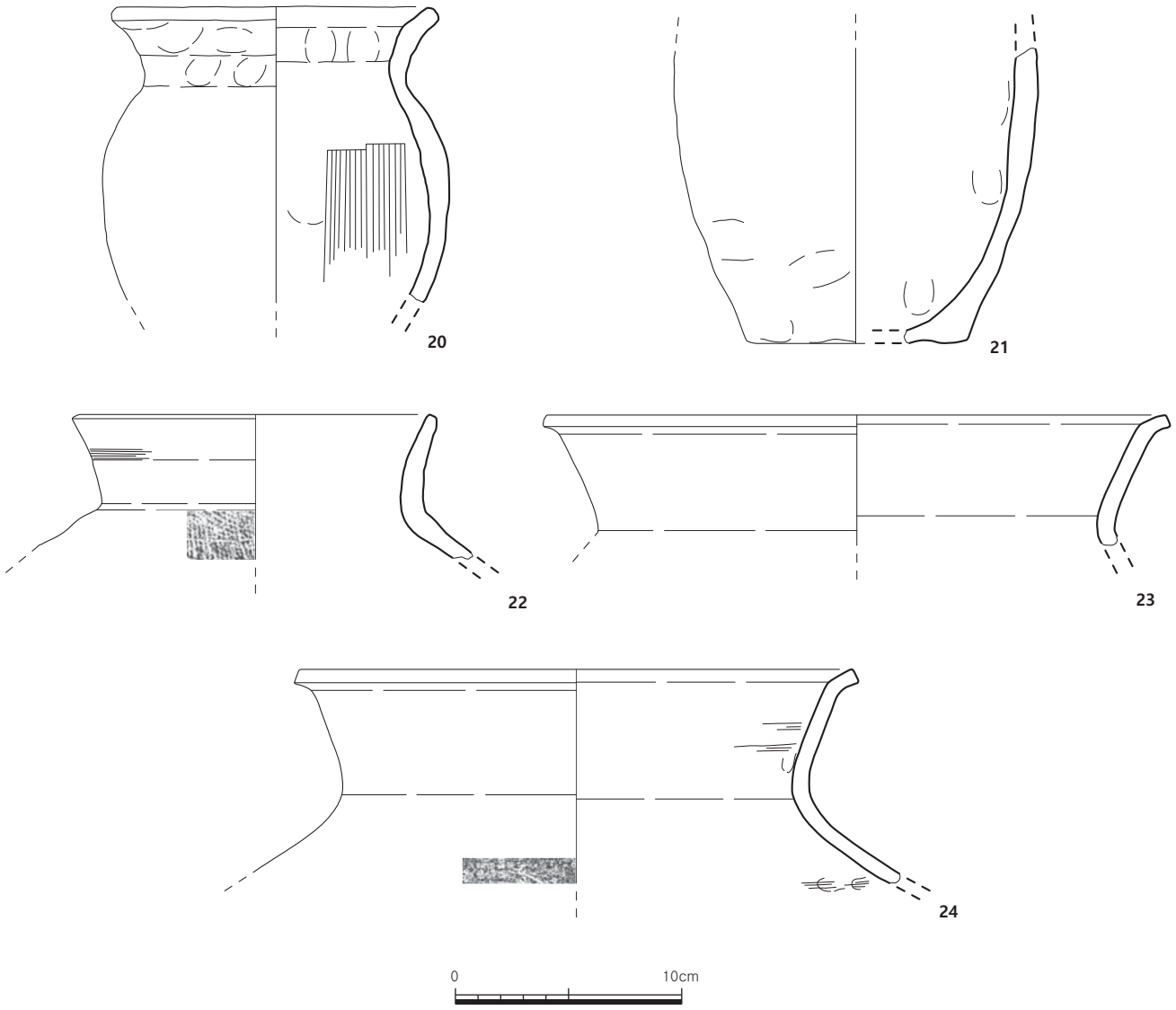
연질 소성의 타날문토기 호 구연부로 구연 일부만 잔존하여 도상복원하였다. 태토는 세석립 및 사립이 함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색조는 연황색(2.5Y 7/3)이고 흑반이 잔존한다. 구연부는 외반하고 단부가 꺾여 있으며, 구연단은 평탄하게 처리하였다. 내 · 외면은 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5.8㎝, 복원구경 27.6㎝, 두께 0.5~0.8㎝

24. 타날문토기 호 구연부(도면 19-24, 도판 16-24)

연질 소성의 타날문토기 호 구연부로 구연 일부만 잔존하여 도상복원하였다. 태토는 세석립 및 사립이 함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색조는 연황색(2.5Y 7/3)이고 흑반이 잔존한다. 구연부는 외반하고 단부가 꺾여 있으며, 견부에는 격자문이 타날되었다. 내 · 외면은 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8.0㎝, 복원구경 25.6㎝, 두께 0.4~0.8㎝



도면 19. 삼국시대 주거지 1호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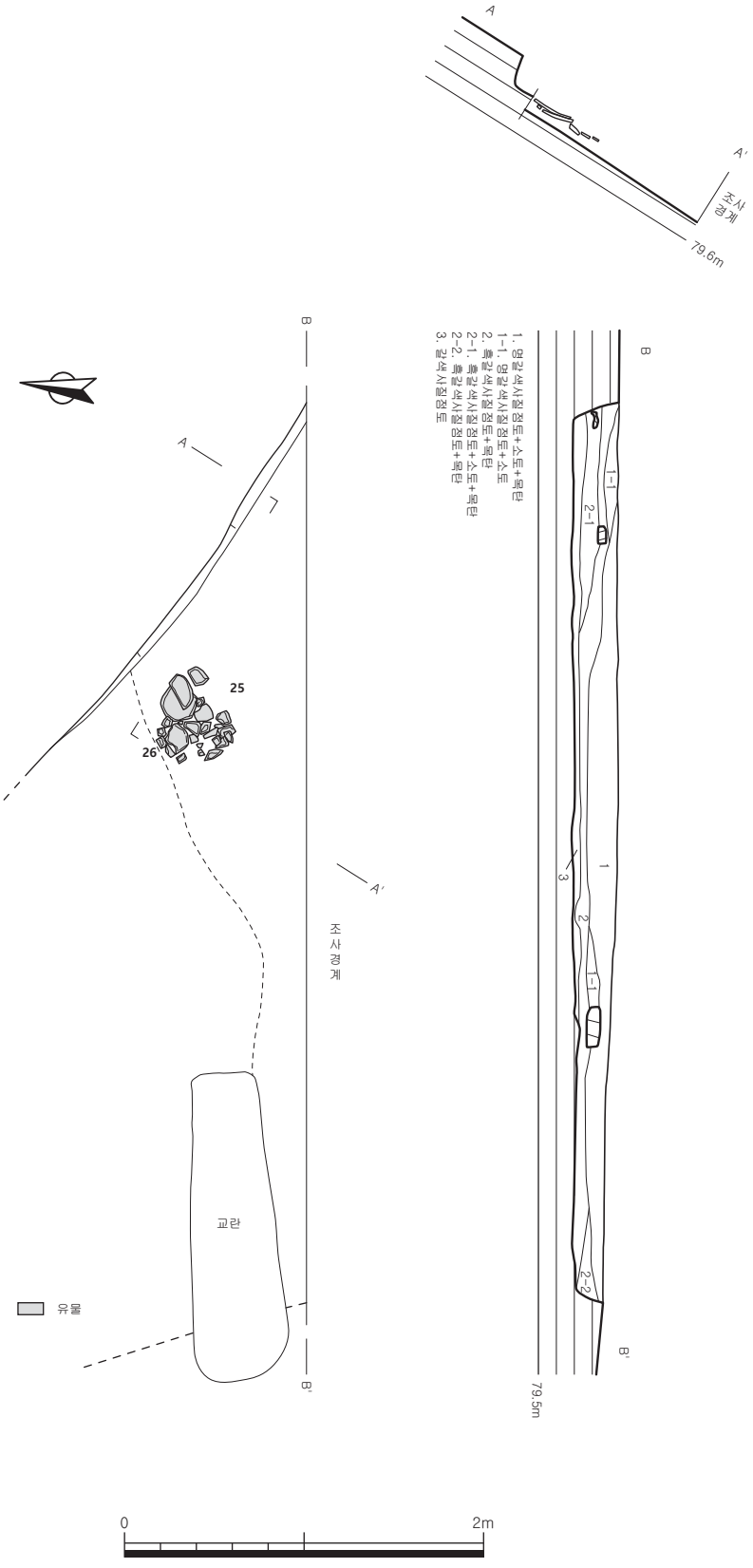
(2) 주거지 2호

가. 유구(도면 20, 도판 17~18-①)

조사구역 남쪽 경계의 중앙부에서 확인되었으며, 해발 80m 지점에 위치한다. 조사구역 내에서 동벽과 서벽 일부만 확인되었고 북벽은 자연훼손으로 유실되었다. 남쪽 대부분은 조사 경계 밖으로 연장된다. 북동쪽으로 3m 떨어져 고려시대 구들형 유구와 매납유구가 위치한다.

회백색사질토 상면을 굴착하고 축조하였으며, 일부만 확인되어 정확한 형태 파악은 불가능하다. 벽면은 경사가 급하게 처리되었고 바닥에서 별도의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내부시설도 없었다. 내부에는 넓게 보아 명갈색사질점토 - 흑갈색사질점토 - 갈색사질점토의 순으로 퇴적되었으며, 내부에 소토와 목탄 등이 함유되어 있어 함유량에 따라 세분되는 토층 퇴적양상을 보인다. 확인된 규모는 동-서 길이 420㎝ · 남-북 길이 350㎝ · 깊이 29㎝이며, 장축방향은 북동-남서(N-50°-E)향이다.

유물은 동벽에 인접하여 저부편 1점과 단경호 1점이 완파된 상태로 출토되었다.



도면 20. 삼국시대 주거지 2호

나. 유물

25. 단경호(도면 21-25, 도판 18-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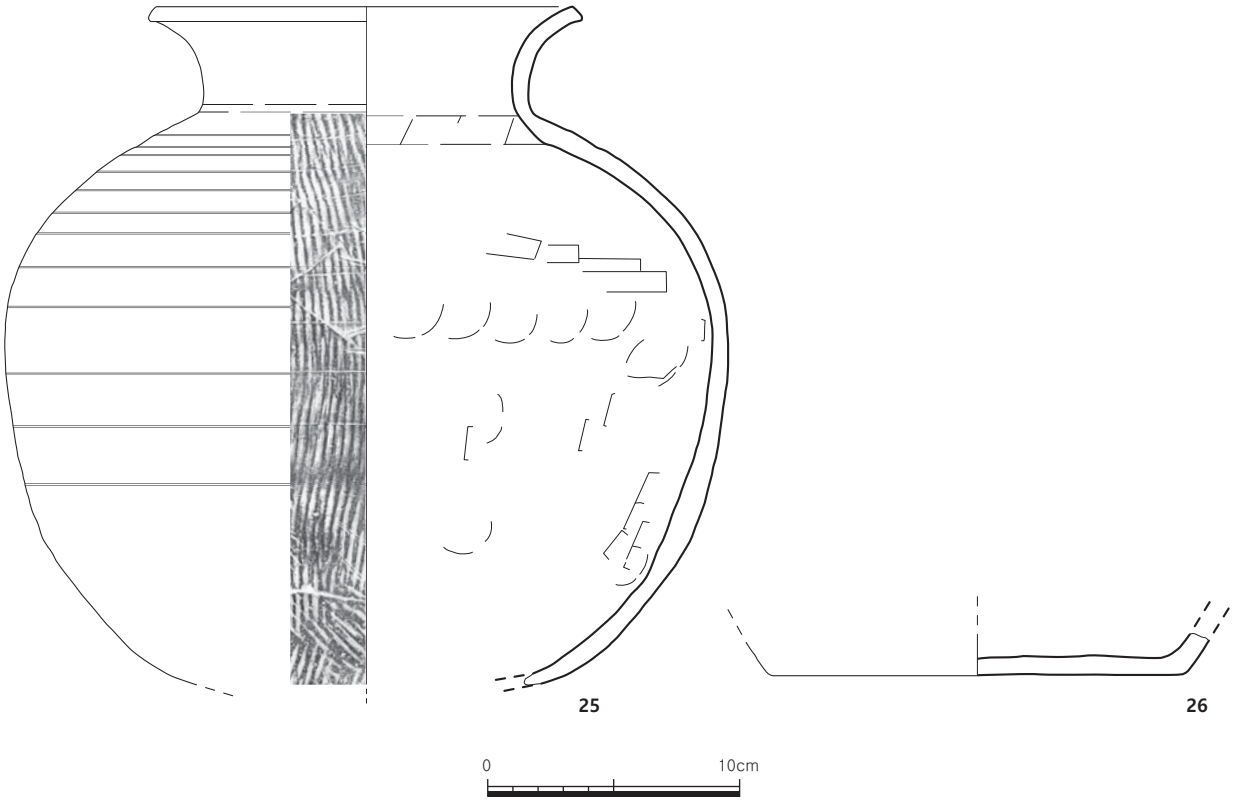
경질 소성의 단경호로 부분적으로 결실되어 도상복원하였다. 태토는 세석립 및 사립이 함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색조는 회색색(10YR 6/1)이다. 형태는 구형으로 동중위에서 최대경을 이룬다. 구연부는 외반하고 구연단은 평탄하게 처리하였으며, 횡방향으로 물손질 정면하였다. 동체부는 구형으로 외면에는 동중하위까지 종방향의 집선문을 평행 타날한 후 12열의 횡침선을 0.5~2.5㎝ 간격으로 돌렸고 저부에는 집선문이 교차 타날되었다. 내면에는 지두압흔이 확인되고 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26.8㎝, 구경 17.2㎝, 두께 0.6㎝

26. 저부(도면 21-26, 도판 18-26)

연질 소성의 저부로 일부만 잔존하여 도상복원하였다. 태토는 사립이 포함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색조는 연황색(2.5Y 7/3)이다. 바닥면은 편평하다. 내면에 희미하게 물손질 정면 흔적이 남아 있다.

잔존기고 6.4㎝, 복원저경 16.2㎝, 두께 0.6~1.0㎝



도면 21. 삼국시대 주거지 2호 출토유물

3. 고려시대

1) 구들형 유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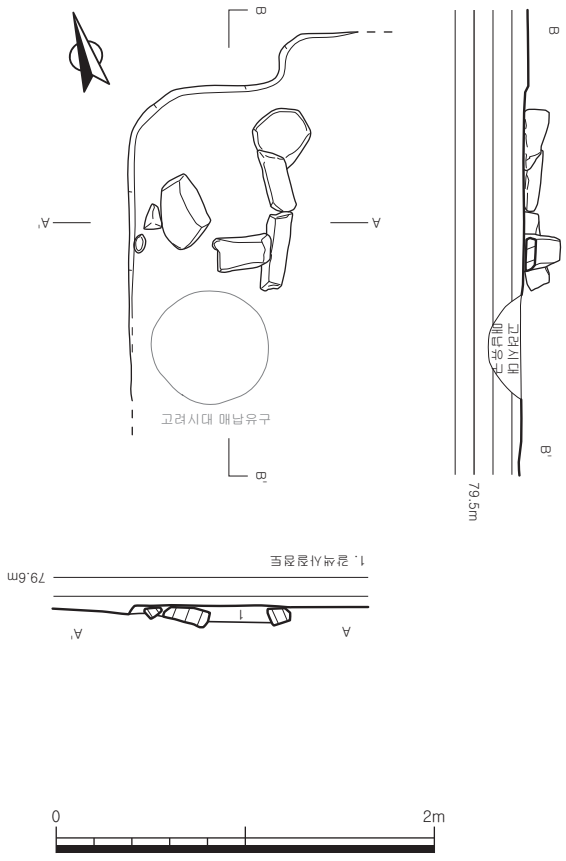
가. 유구(도면 22, 도판 18-②~19-②)

조사구역 중앙에서 남동쪽으로 약간 치우친 해발 79.8m에 위치한다. 유구는 북벽과 서벽만 일부 잔존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유실되었으며, 잔존양상으로 보아 구들이 시설된 주거지의 일부로 추정된다. 남쪽 부분은 후축된 고려시대 매납유구로 인하여 석렬이 유실되었다. 남동쪽으로 6.5m 떨어져 고려시대 수혈유구 2호가 위치한다.

회백색사질토 상면을 굴착하고 축조하였으며, 잔존양상으로 보아 평면형태는 방형계로 추정된다. 벽면은 비교적 완만하고 바닥면은 별도의 시설 없이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잔존 규모는 길이 200㎝ · 너비 122㎝ · 깊이 9㎝이며, 장축방향은 남-북(N-18°-E)향에 가깝다.

내부에는 서벽에 인접해 2열의 할석렬이 확인되었는데 구들로 추정된다. 구들은 세장한 할석과 방형의 할석을 이용하여 남-북 방향으로 설치하였고 규모는 잔존 길이 100㎝ · 너비 30㎝ · 높이 15㎝이다. 내부에는 갈색사질점토가 퇴적되었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도면 22. 고려시대 구들형 유구

2) 수혈유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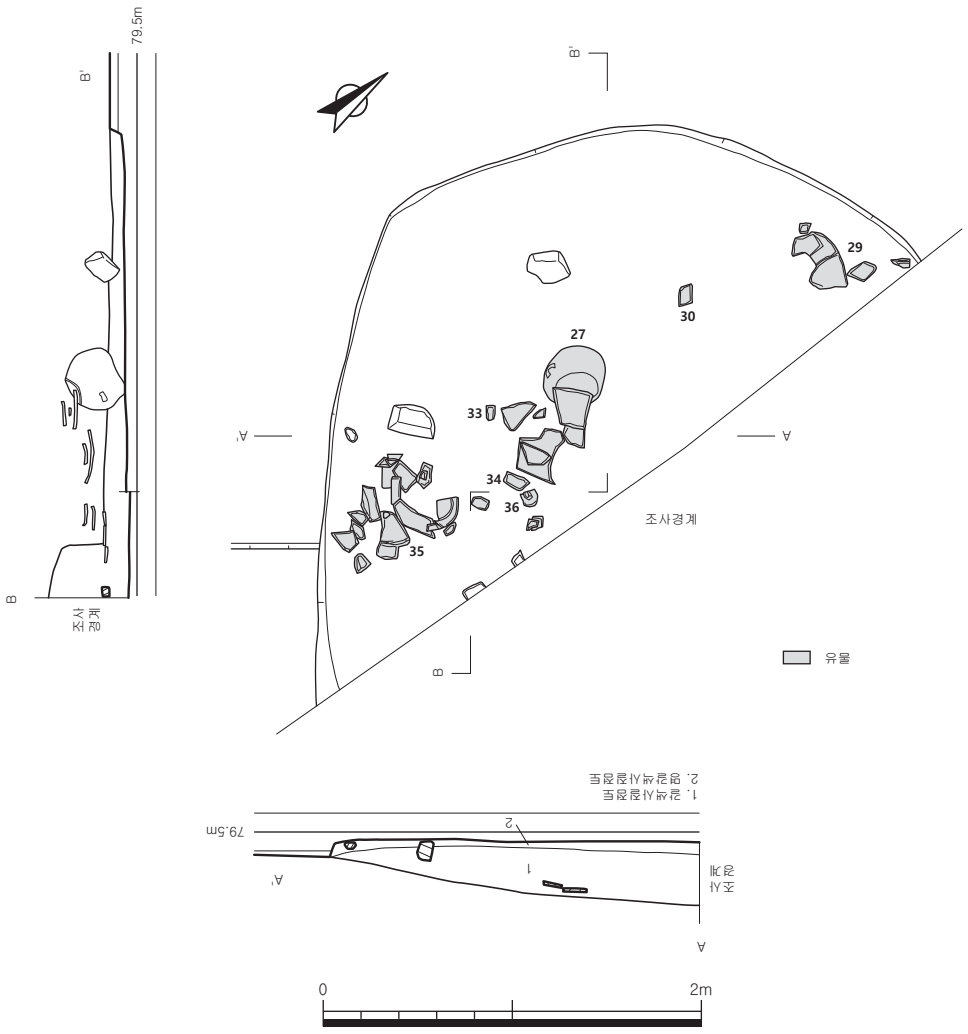
(1) 수혈유구 1호

가. 유구(도면 23, 도판 19-③~21-⑤)

조사구역 남동쪽 모서리에 치우친 해발 79.9m에서 확인되었다. 서벽과 남벽 일부만 확인되었고 나머지는 조사경계 외곽으로 연장된다. 남서쪽으로 1m 떨어져 고려시대 수혈유구 2호가 있다.

회백색사질토 상면을 굴착하고 축조하였으며, 평면형태는 육각형 또는 말각(장)방형에 가깝다. 벽면은 완만하고 바닥면에서는 별도의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내부에는 갈색사질점토 - 명갈색사질점토의 순으로 퇴적되었다. 장축방향은 북서-남동(N-50°-W)향이고, 확인된 규모는 길이 308㎝ · 너비 320㎝ · 깊이 40㎝이다.

유물은 바닥 전면에 걸쳐 동이 2점 · 시루 저부편 1점 · 경질토기 구연부편 4점 · 저부편 2점 · 청자 저부편 1점 등 10점이 출토되었다.



도면 23. 고려시대 수혈유구 1호

나. 유물

27. 동이(도면 24-27, 도판 21-27)

경질 소성의 동이로 구연부와 동체 일부가 결실되었다. 태토는 세석립과 사립이 포함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표면은 암회색(10YR 3/1)이고 속심은 회갈색(10YR 5/2)이다. 바닥면은 중앙이 들려 있고 외면에는 대상파수가 부착되었으며, 파수 부착 후 물손질 정면하였다. 부분적으로 횡방향 긁기흔이 남아있다. 내 · 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21.6㎝, 저경 21.0㎝, 두께 0.3~1.0㎝

28. 동이 동체부편(도면 24-28, 도판 21-28)

경질 소성의 동이 동체부편이다. 태토는 세석립과 사립이 포함된 점토를 사용하였고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색조는 명회색(10YR 7/2)이며, 흑반이 잔존한다. 외면에는 대상파수가 부착되었고 파수 부착 후 물손질 정면하였다. 내 · 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12.3㎝, 두께 0.9㎝

29. 시루 저부(도면 24-29, 도판 21-29)

경질 소성의 저부로 일부만 잔존하여 도상복원하였다. 태토는 세석립 및 사립이 포함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표면은 암회색(10YR 4/1)이고 속심은 명갈회색(10YR 6/2)이다. 바닥면에는 원형으로 추정되는 증기공 흔적이 2개 관찰된다. 내 · 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13.0㎝, 복원저경 19.6㎝, 두께 0.8㎝

30. 구연부편(도면 25-30, 도판 22-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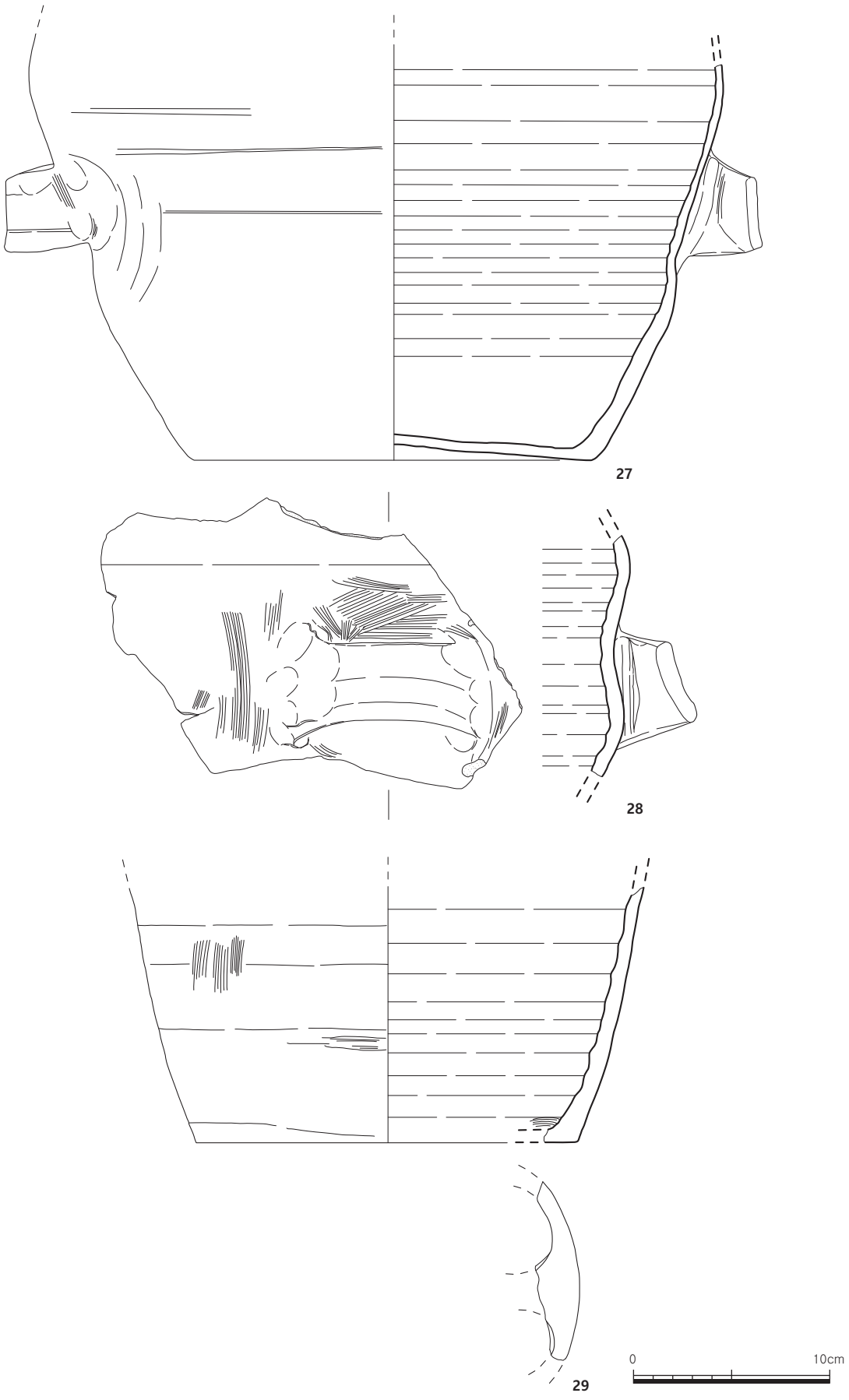
경질 소성의 구연부로 일부만 잔존하여 도상복원하였다. 태토는 세석립 및 사립이 함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표면은 회색(2.5Y 5/1)이고 속심은 명회색(10YR 7/1)이다. 구연부는 외반하다가 끝을 상부로 반전시킨 후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내 · 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7.8㎝, 복원구경 32.8㎝, 두께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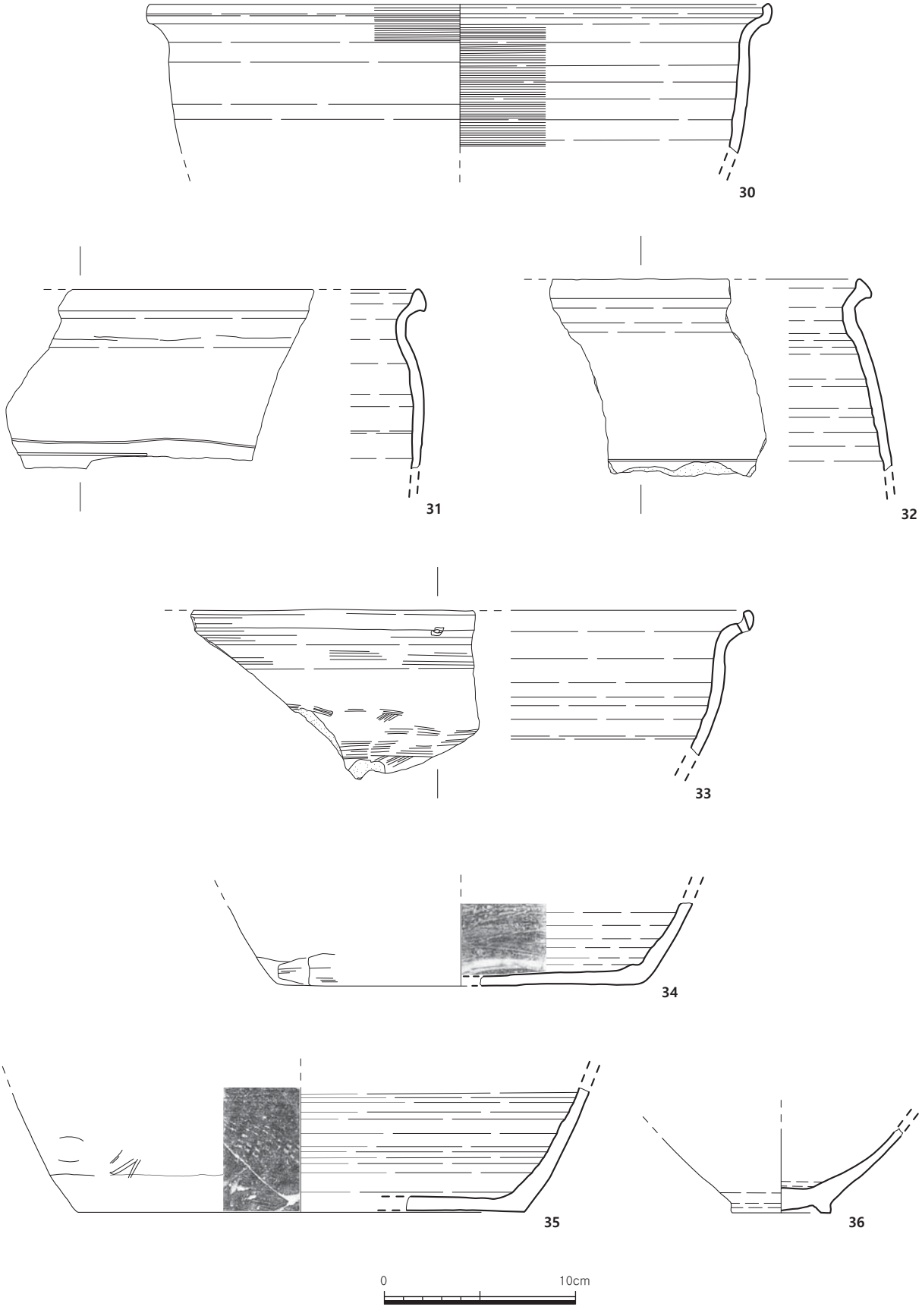
31. 구연부편(도면 25-31, 도판 22-31)

경질 소성의 구연부편이다. 태토는 세석립 및 사립이 함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색조는 명황갈색(10YR 6/4)이고 흑반이 잔존한다. 구연부는 외반하고 구연단은 양단이 돌출되고 중앙부는 둥근편이다. 외면에는 2열 횡침선이 돌려져 있다. 내 · 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9.3㎝, 두께 0.4~0.8㎝



도면 24. 고려시대 수혈유구 1호 출토유물1



도면 25. 고려시대 수혈유구 1호 출토유물2

32. 구연부편(도면 25-32, 도판 22-32)

경질 소성의 구연부편이다. 태토는 세석립 및 사립이 함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색조는 명황갈색(10YR 6/4)이고 흑반이 잔존한다. 구연부는 외반하며, 구연단은 양단이 짧게 돌출하였고 중앙부는 둥근편이다. 외면에는 1열 횡침선이 돌려져 있다. 내 · 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10.4㎝, 두께 0.7㎝

33. 구연부편(도면 25-33, 도판 22-33)

경질 소성의 구연부편이다. 태토는 세석립 및 사립이 함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표면은 회색(2.5Y 4/1)이고 속심은 명회색(2.5Y 6/1)이다. 구연부는 외반하다가 끝을 위로 반전시킨 후 구연단을 둥글게 처리하였고 지름 0.4㎝ 정도 크기의 구멍이 1개 뚫려 있다. 내 · 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7.0㎝, 두께 0.8㎝

34. 저부(도면 25-34, 도판 22-34)

경질 소성의 저부로 일부만 잔존하여 도상복원하였다. 태토는 사립이 포함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색조는 회갈색(7.5YR 5/2)이고 흑반이 잔존한다. 바닥면은 편평하고 가장자리는 둥글게 처리하였다. 저부와 동체 접합부는 깎기 정면하였다. 내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4.3㎝, 복원저경 19.6㎝, 두께 0.7㎝

35. 저부(도면 25-35, 도판 22-35)

경질 소성의 저부로 일부만 잔존하여 도상복원하였다. 태토는 사립이 포함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색조는 회색(2.5Y 5/1)이다. 바닥면은 편평하다. 외면에는 사격자문이 타날 후 물손질 정면하였다. 저부와 동체 접합부는 깎기 정면하였다. 내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6.5㎝, 복원저경 23.6㎝, 두께 0.7~1.2㎝

36. 청자 저부(도면 25-36, 도판 22-36)

청자 저부로 저부 일부만 잔존하여 도상복원하였다. 태토는 세사립이 포함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유약은 굽을 제외하고 시유하였고 시유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색조는 명올리브갈색(2.5Y 5/3)이다. 동체는 사방향으로 벌어지고 굽은 다리굽이며, 굽 안쪽 중앙은 약간 볼록하게 돌려 깎아 처리하였다. 굽에는 가는 모래받침이 남아있다.

잔조기고 4.4㎝, 복원저경 5.2㎝, 두께 0.3~1.1㎝

(2) 수혈유구 2호

가. 유구(도면 26, 도판 22-①~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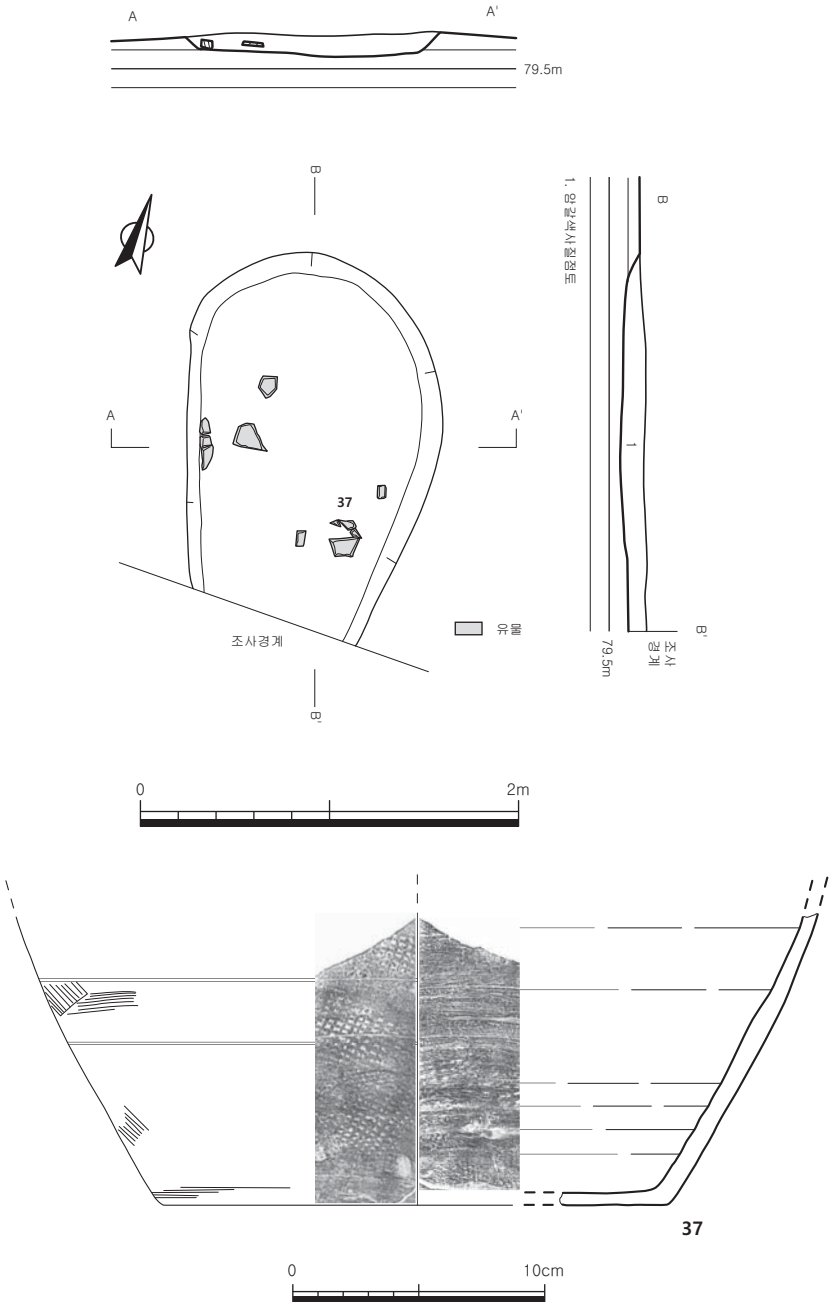
조사구역의 남쪽 경계에서 남동쪽 모서리에 치우친 해발 79.7m에서 확인되었다. 북벽과 동 · 서벽

일부만 확인되었고 나머지는 조사경계 외곽으로 연장된다. 북동쪽으로 1m 떨어져 고려시대 수혈유구 1호가 있다.

회백색사질토 상면을 굴착하고 축조하였으며,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다. 벽면은 완만하고 바닥면에는 별도의 시설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내부에는 소량의 목탄이 혼입된 암갈색사질점토가 퇴적되었다. 확인된 규모는 길이 202㎝ · 너비 135㎝ · 깊이 12㎝이며, 장축방향은 남-북(N-18°-W)향이다.

벽면은 비스듬하게 굴착하였으며, 바닥면에는 별도의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유물은 경질토기 저부편 1점이 출토되었다.



도면 26. 고려시대 수혈유구 2호 및 출토유물

나. 유물

37. 저부(도면 26-37, 도판 22-37)

경질 소성의 저부로 일부만 잔존하여 도상복원하였다. 태토는 세석립 및 사립이 포함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표면은 암회색(10YR 3/1)이고 속심은 갈색(10YR 5/3)이다. 저부는 평저이며, 동체부는 완만하게 벌어져 올라간다. 외면에는 사격자문 타날 후 물손질 정면하였고 2열 횡침선이 돌려져 있으며, 저부와 동체 접합부는 횡방향으로 깎기 및 매끈하게 정면한 흔적이 남아있다. 내면은 격자문 내박자흔이 확인되고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6.5㎝, 복원저경 20.2㎝, 두께 0.5㎝

3) 매납유구

가. 유구(도면 27, 도판 23-①~③)

조사구역 중앙부에서 남동쪽으로 약간 치우쳐 해발 79.8m에 위치한다. 선축된 고려시대 구들형 유구 일부를 파괴하고 축조되었으며, 남동쪽으로 6.5m 떨어져 고려시대 수혈유구 2호가 있다.

회백색사질토와 구들형 유구의 내부인 갈색사질토를 평면 원형으로 굴착하여 수혈을 만든 후 내부에 대호를 직치하였다. 수혈의 벽면은 완만하고 바닥면에는 별도의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규모는 지름 60㎝ · 깊이 20㎝이다.

유물은 대호 1점이 직치된 상태로 출토되었다.

나. 유물

38. 대호(도면 27-38, 도판 23-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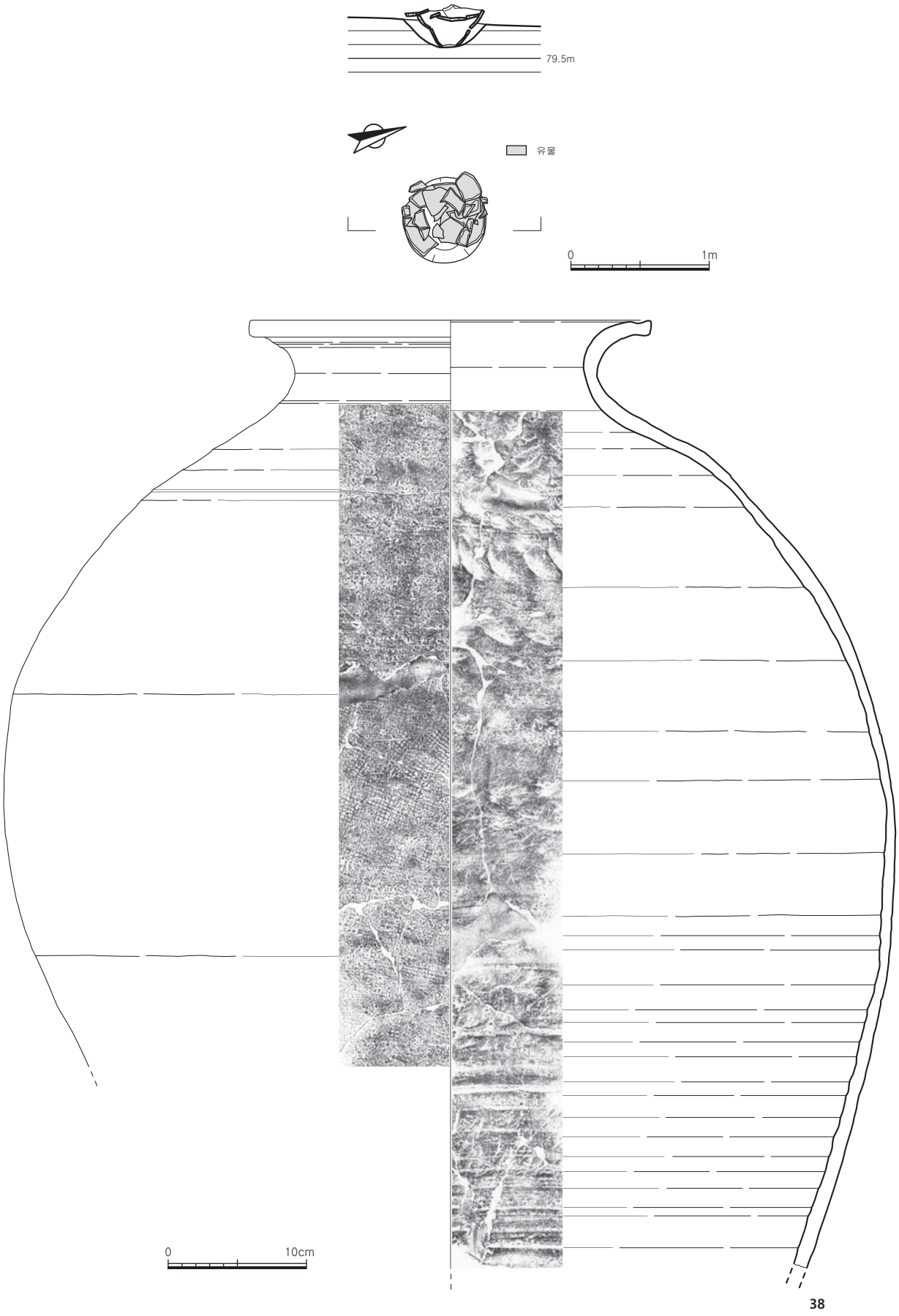
경질 소성의 대호로 저부와 구연 일부가 결실되었고 약간 찌그러져 있다. 태토는 세석립 및 사립이 포함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표면은 암회색(10YR 4/1)이다. 둥글게 벌어져 올라오며 동중위에서 최대경을 이룬다. 구연부는 외반하고 구연단은 평탄하게 처리하였다. 외면에는 사격자문 타날 후 물손질 정면하였고 동상위에 1열 횡침선이 돌려져 있다. 내면에는 내박자흔이 확인되고 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68.5㎝, 구경 29.0㎝, 두께 0.7~1.1㎝

〈수습유물〉

39. 경질무문토기 외반구연호(도면 28-39, 도판 23-39)

경질무문토기 외반구연호로 1/2정도 잔존하여 도상복원하였다. 태토는 석립 및 세석립이 포함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색조는 적갈색(5YR 4/4)이고 외면에 흑반이 잔존한다. 바닥면은 편평하고 저부와 동체부 접합시 지두압흔에 의해 가장자리가 약간 오목하다. 동체부는 급한 경사로 올라가다가 동중상위에서 최대경을 이룬 후 오므라든다. 구연부는 외반하고 구연단은 둥글게



도면 27. 고려시대 매납유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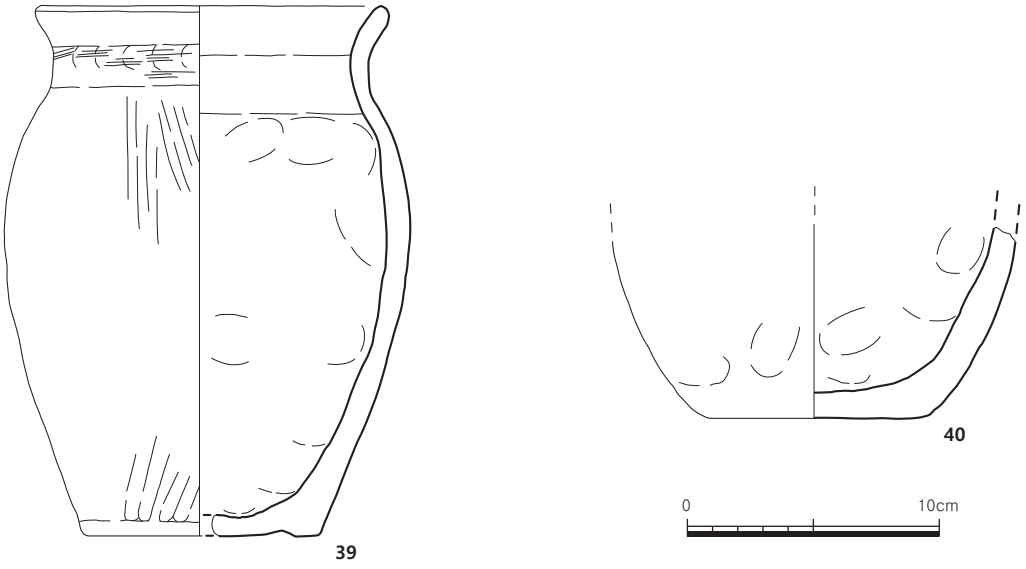
처리하였다. 외면에는 구연 아래에 지두압흔이 확인되고 횡방향 물손질 정면하였으며, 동체부는 종방향 물손질정면하였다. 내면에는 지두압흔이 확인되며, 물손질 정면하였다.

기고 21.0㎝, 복원구경 14.0㎝, 복원저경 9.5㎝, 두께 0.8㎝

40. 경질무문토기 저부(도면 28-40, 도판 23-40)

경질무문토기 저부로 일부만 잔존하여 도상복원하였다. 태토는 석립 및 세석립이 포함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색조는 갈색(7.5YR 4/4)이다. 바닥면은 편평하고 가장자리를 둥글게 처리하였다. 내 · 외면에는 지두압흔이 확인되며, 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7.3㎝, 저경 9.2㎝, 두께 1.0㎝



도면 28. 수습유물

Ⅳ. 조사성과

본 유적은 강원도 춘천시 동면 장학리 439-8번지(사업시행자:오순옥) 단독주택 신축부지에 대한 국비지원 발굴조사이다. 조사면적은 792㎡이며, 현장조사는 2017년 10월 26일에 착수하였고 2017년 12월 8일에 완료하여 실조사일수 29.5일이 소요되었다.

조사대상지는 장학리 유물산포지의 중앙에서 남쪽으로 약간 치우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장학리 439-6번지 유적, 장학리 439-22번지 유적, 지내리 689-3번지 유적, 지내리 679-4번지 유적 등의 선 · 역사시대 유적이 분포한다.

발굴조사 결과, 2개의 문화층에서 총 13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청동기시대 문화층은 지표 하 160㎝에서 노출되었으며, 확인된 유구는 주거지 2동, 수혈유구 1기 등 3기가 조사되었다. 주거지 2동은 조사구역의 북쪽 경계부분에 접하고 있어 일부만 확인되었다. 전체 규모와 내부시설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지만 잔존 양상으로 보아 평면 원형에 가까운 말각(장)방형으로 추정된다. 내부시설은 주거지 1호에서는 확인되지 않았고 주거지 2호에서 벽면을 따라 60~70㎝ 간격으로 6개의 주혈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주거지 1호에서 무문토기 저부편이 출토되었다.

축조시기는 북한강변에 형성된 충적대지 상에 분포하는 청동기시대 유적이 대체로 B.C. 12~10세기 경으로 편년되고 있어 본 유적도 이와 유사한 시기로 추정된다.

원삼국~고려시대 문화층은 지표 하 75㎝에서 확인되었으며, 확인된 유구는 원삼국시대 주거지 3동 · 수혈유구 1기, 삼국시대 주거지 2동, 고려시대 구들형 유구 1기 · 수혈유구 2기 · 매납유구 1기 등 10기의 조사되었고 유물은 원삼국시대 경질무문토기 외반구연호 · 개, 타날문토기 호 · 삼국시대 단경호, 고려시대 대호 · 동이 · 청자편 등이 출토되었다.

원삼국시대 주거지는 3동이 조사되었으며, 대부분 유실되어 일부만 확인되었다. 잔존 양상으로 보아 '凸'자형으로 판단되고 주거공간의 형태는 1 · 2호는 오각형으로 보이며, 3호는 육각형으로 판단된다. 장축방향은 조사대상지 북쪽에 인접하는 있는 소양강과 직교한다. 내부시설은 주거지 1호에서만 노지가 확인되었다. 확인된 노지는 생활면을 평면 타원형으로 굴착한 후 벽면에 점토를 돌렸으며, 그 내부에 소형의 천석을 1겹 깔고 그 위에 다시 점토를 얇게 발라 사용면을 조성한 점토띠식이다. 노지의 안쪽 북벽 중앙부에는 불막음돌이 확인되었다. 주변에서 점토띠식 노지는 장학리 439-6번지 유적 주거지 5호 · 지내리 689-3번지 유적 주거지 3호 · 지내리 679-4번지 유적 주거지 2호 등에서 조사된 바 있다. 유물은 주거지 1호에서 경질무문토기 저부편 5점, 주거지 2호에서는 타날문토기 동체부편 1점이 출토되었으며, 주거지 3호에서는 경질무문 외반구연호 · 개 등을 비롯하여 타날문토기 동체부편들이 출토되었다.

유물이 소량 출토되어 정확한 축조시기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원삼국시대 주거지 3동의 축조순서는 타날문토기를 공반하지 않는 주거지 3호가 가장 이른 3세기 전반경으로 추정된다. 가장 늦은 시기에 축조된 것은 주거공간의 평면형태가 육각형이고 내부에 점토띠식 노지를 갖추고 있으며, 경질무문토

기와 타날문토기를 공반하는 주거지 1호로 판단된다. 주거지 1호의 축조시기는 출토유물로 보아 인근의 장학리 I 유적[67] 철기시대 주거지 및 우두동유적 III[68] A群 주거지들과 유사하며, 하한은 3세기 중반 경으로 보인다[69].

삼국시대 주거지의 경우 조사대상지가 포함된 장학리 유물산포지와 동쪽에 인접한 지내리 유물산포지 내 분포범위에서 처음 확인되었다. 주거지들은 평면 장방형로 판단되며, 장축방향은 원삼국시대 주거지와 동일한 소양강의 흐름과 직교한다. 내부시설은 주거지 1호에서 수혈식 노지 1기가 확인되었다. 유물은 주거지 1호에서 경질무문토기 외반구연호와 타날문토기 구연부편이 출토되었으며, 주거지 2호에서는 경질 소성의 단경호와 연질 소성의 저부편이 출토되었다.

출토유물로 보아 주거지 1호는 삼국시대(백제 한성기)인 4세기 전반 경으로 보이며, 주거지 2호는 경질 소성의 단경호가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4세기 후반 경으로 추정된다.

이 외에도 고려시대 구들형 유구, 수혈유구, 매납유구 등이 조사되었다.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 청동기시대부터 고려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유구들이 조사되었다.

조사지역은 북한강의 남안에 형성된 충적대지 상에 위치하고 있으나 다른 지역에 비해 폭이 좁게 형성된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접한 장학리 439-6번지 유적과 장학리 439-22번지 유적[70] 등과 더불어 장기간에 걸쳐 생활의 터전이 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

67) 江原文化財硏究所, 2011,『春川 獐鶴里 I 遺蹟 -소양5교~국도56호선간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68) 江原文化財硏究所, 2015,『春川 牛頭洞遺蹟III -춘천 우두동 82번지 유치원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69) 江原文化財硏究所, 2011,『春川 獐鶴里 I 遺蹟 -소양5교~국도56호선간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江原文化財硏究所, 2015,『春川 牛頭洞遺蹟III -춘천 우두동 82번지 유치원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한국문화재재단, 2016,「7. 춘천 율문리 75-4번지 유적」,『2014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VI -강원 2-』.
한국문화재재단, 2017,「7. 춘천 우두동 119-5번지 유적」,『2015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III -경기2·강원1-』.
한국문화재재단, 2018,「3. 춘천 장학리 439-6·22번지 유적」,『2016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IV -강원2-』.
송만영, 2010,「육각형주거지와 한성기 백제취락」,『한국고고학보』74, 한국고고학회.
박경신, 2012,「중부지방 원삼국시대 취락구조」,『고고학』11-2호, 중부고고학회.
한지선, 2013,「한성백제기 취락과 토기유물군의 변천양상」,『중앙고고연구』제12호.

70) 한국문화재재단, 2018,「3. 춘천 장학리 439-6·22번지 유적」,『2016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IV -강원2-』.

도 판



도판 1. 발굴조사 대상지(①조사전, ②청동기시대 문화층 및 원삼국~고려시대 문화층 원삼국시대 조사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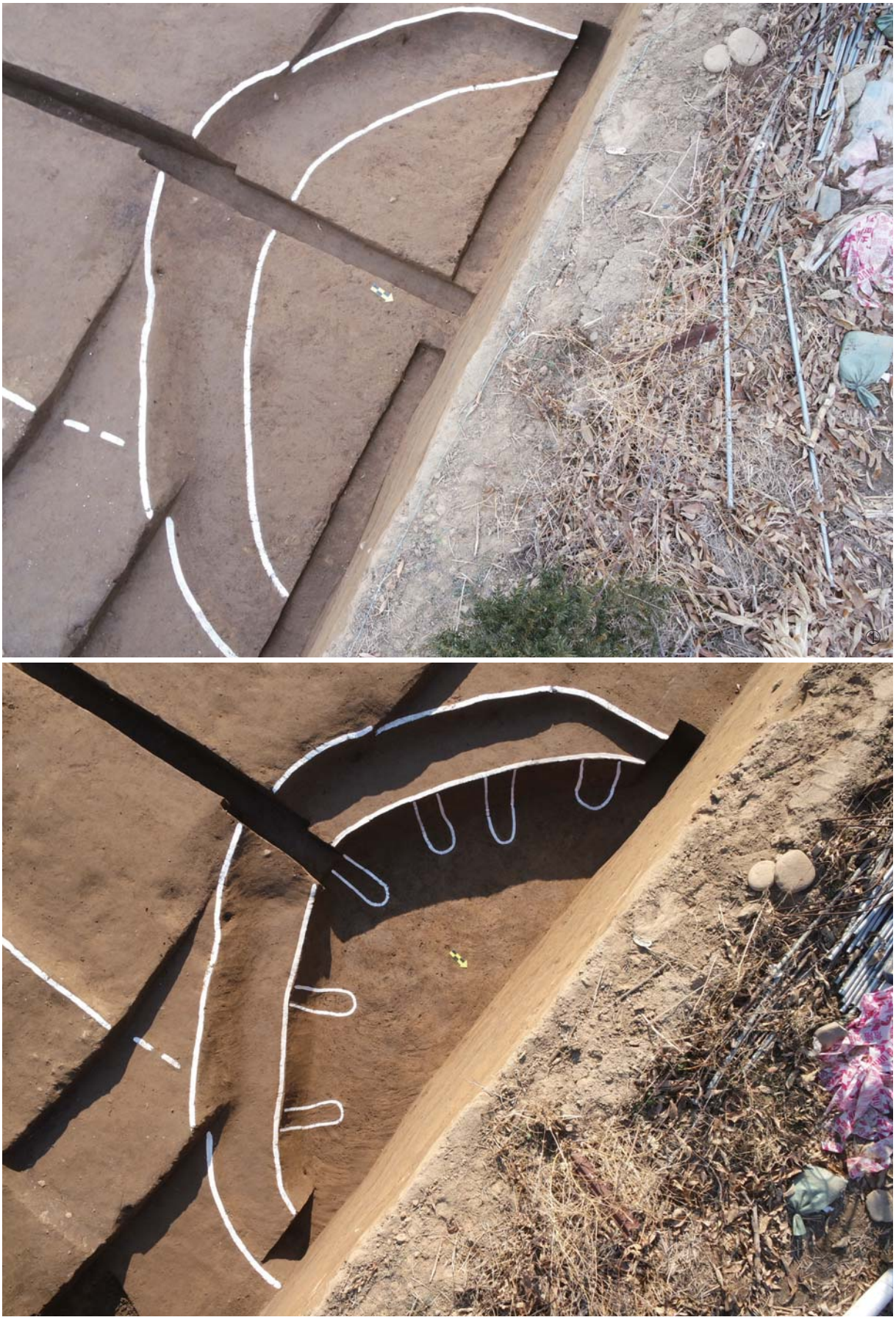
도판 2. 발굴조사 대상지 원삼국~고려시대 문화층 삼국 · 고려시대(①조사중, ②조사후)



도판 3. 청동기시대 문화층 주거지 1호(①조사전, ②조사중)



도판 4. 청동기시대 문화층 주거지 1호(①조사후, ②토층, 1~3:출토유물)



도판 5. 청동기시대 문화층 주거지 2호(①조사전, ②조사중)



도판 6. 청동기시대 문화층 주거지 2호(①조사후, ②토층, ③④내부주혈1, ⑤⑥내부주혈2, ⑦⑧내부주혈3)



도판 7. 청동기시대 문화층 주거지2호(①~③내부주혈4, ④~⑥내부주혈5, ⑦~⑨내부주혈6) 및 수혈유구(⑩조사전, ⑪조사중, ⑫조사후, ⑬토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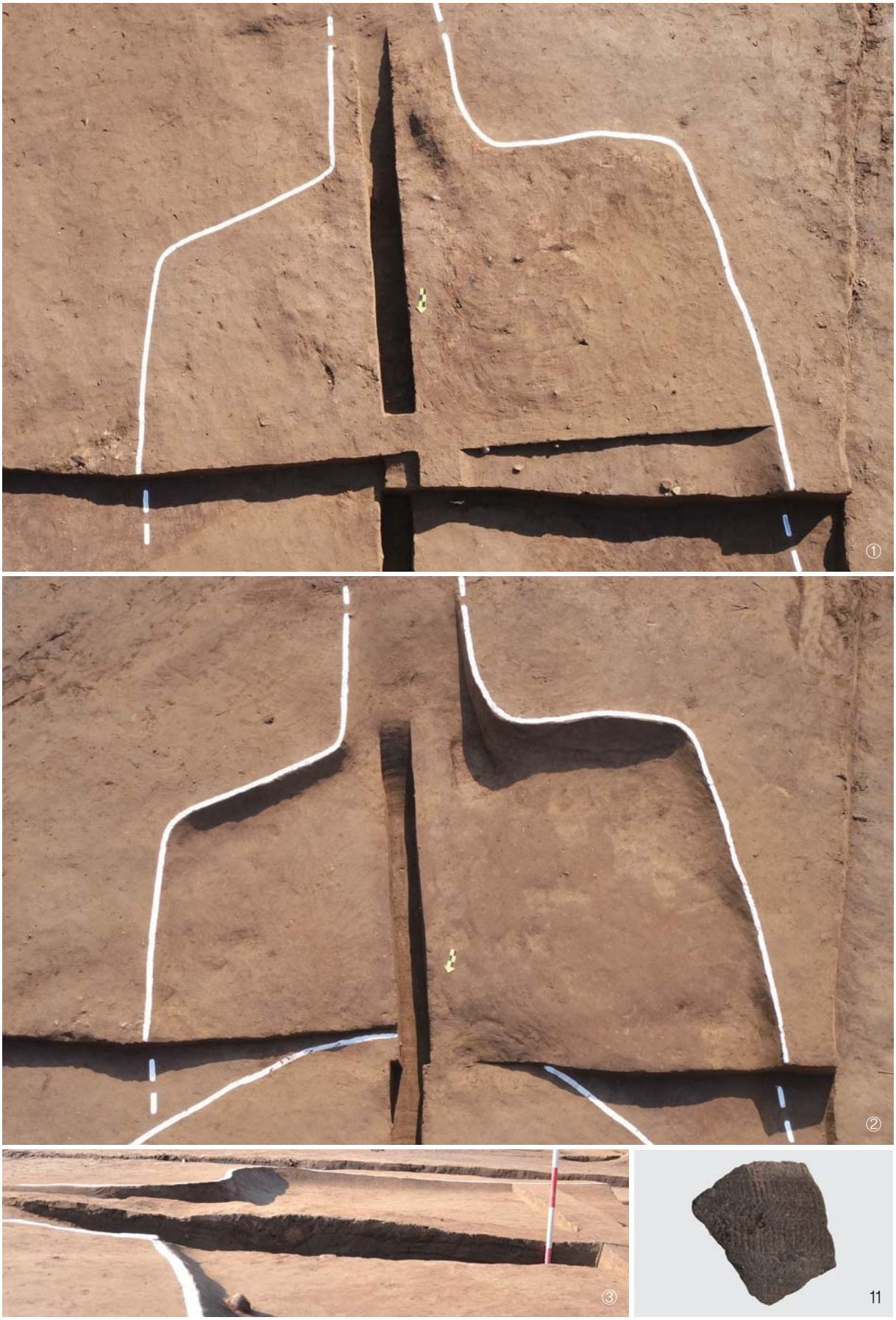
도판 8. 원삼국~고려시대 문화층 원삼국시대 주거지 1호(①조사전, ②조사중)



도판 9. 원삼국~고려시대 문화층 원삼국시대 주거지 1호(①조사후, ②토층, ③~⑤노지 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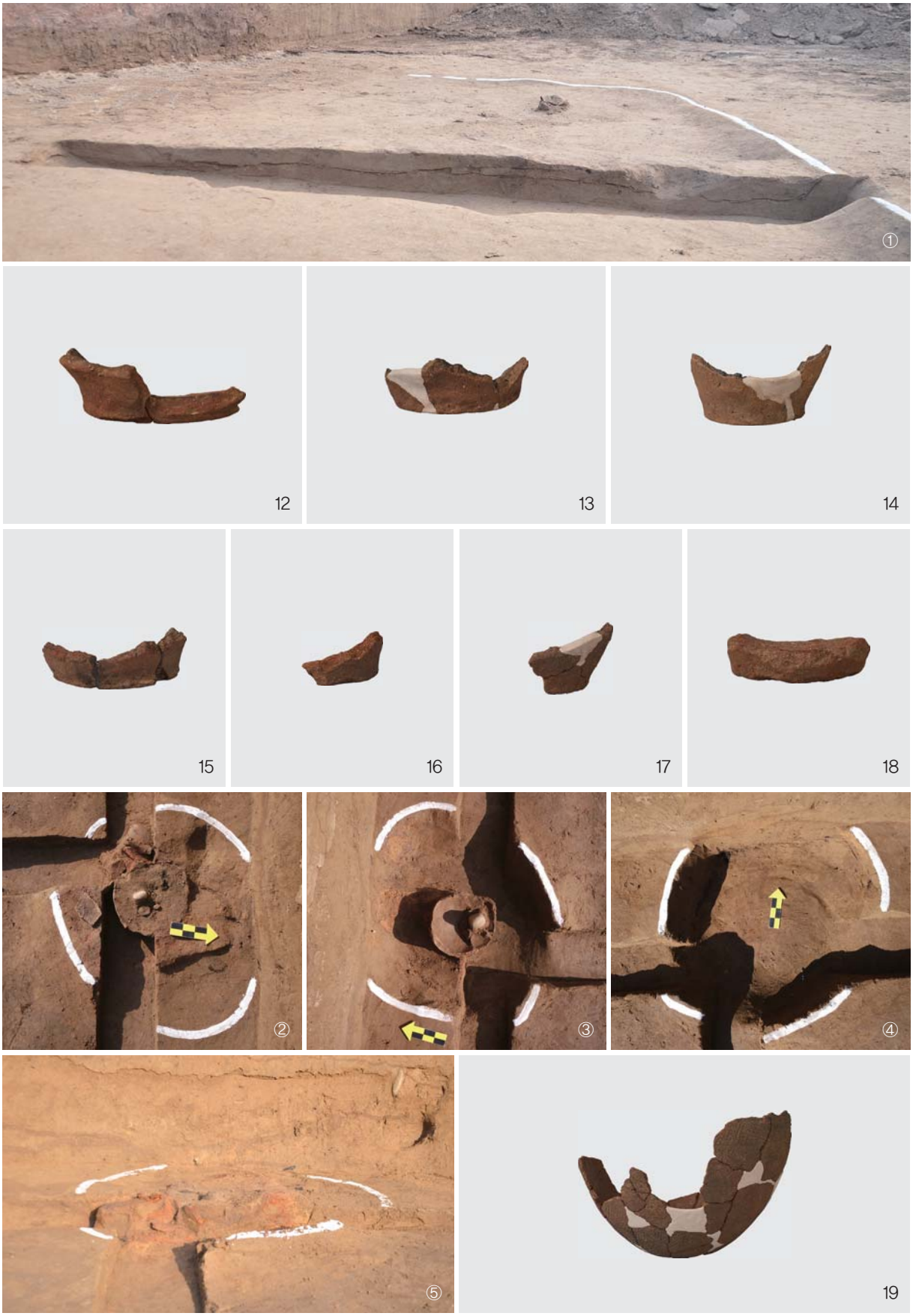
도판 10. 원삼국~고려시대 문화층 원삼국시대 주거지 1호 출토유물(4~10) 및 주거지 2호(①조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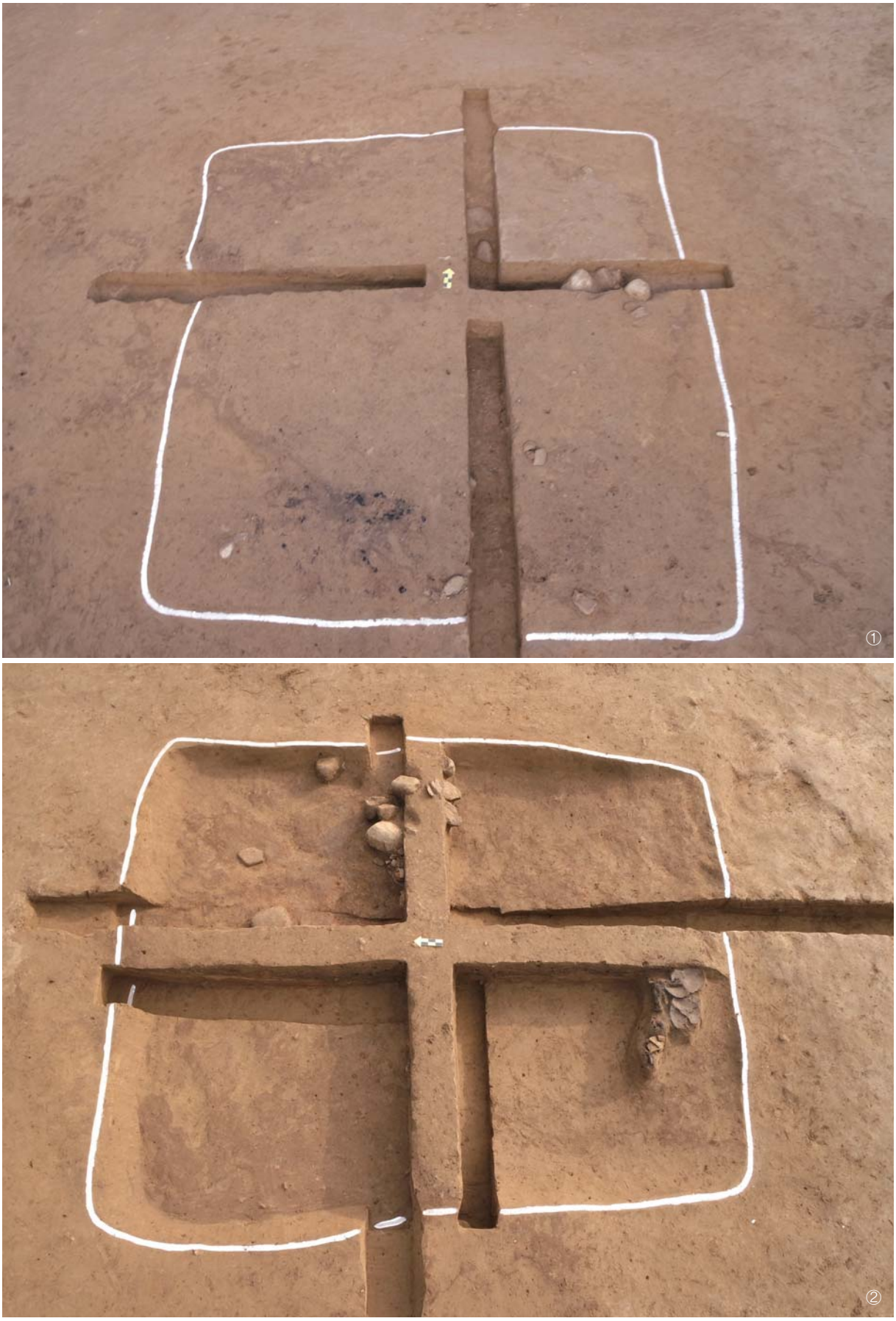
도판 11. 원삼국~고려시대 문화층 원삼국시대 주거지 2호(①조사중, ②조사후, ③토층, 11:출토유물)



도판 12. 원삼국~고려시대 문화층 원삼국시대 주거지 3호(①조사전, ②조사중, ③조사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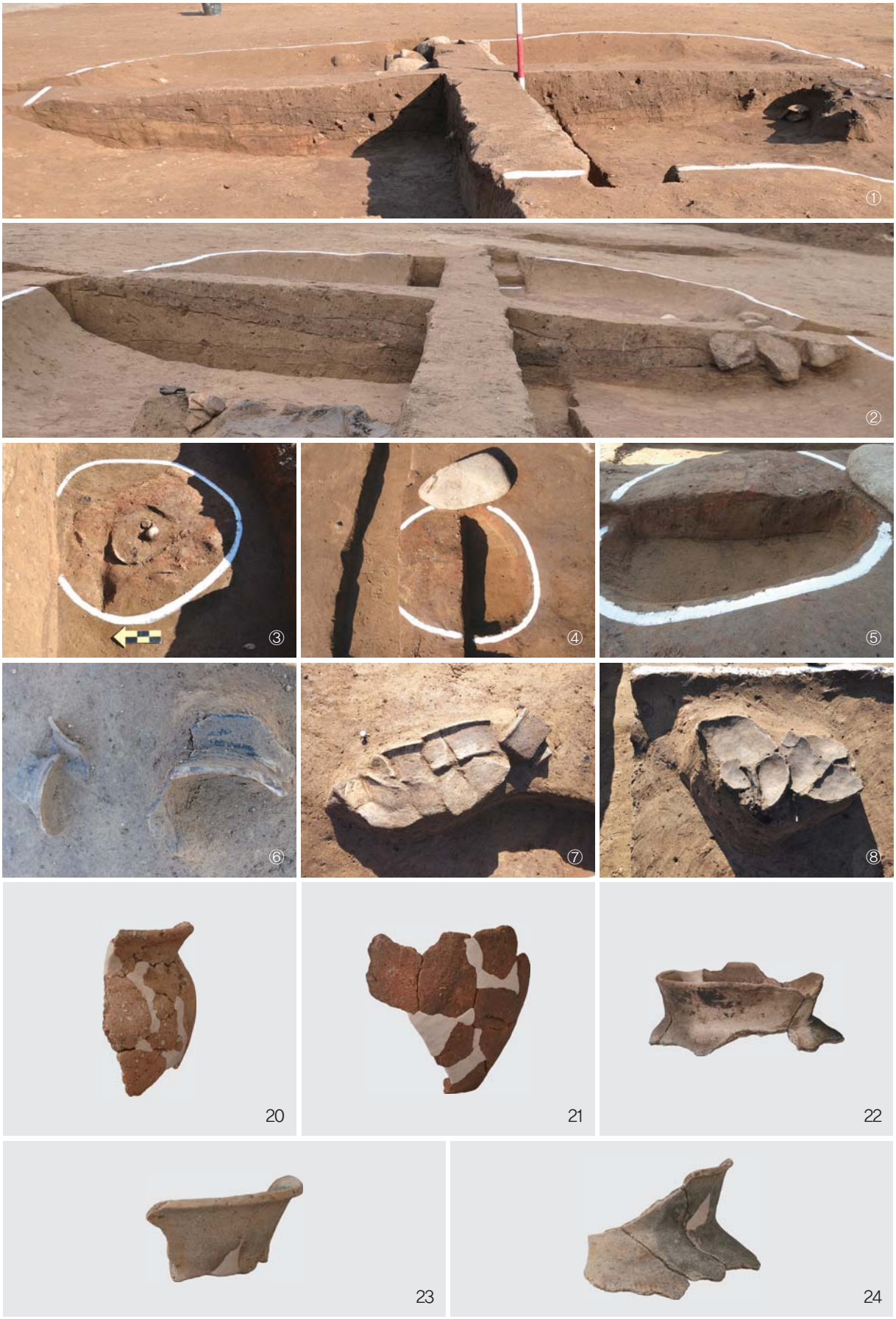
도판 13. 원삼국~고려시대 문화층 원삼국시대 주거지 3호(①토층, 12~18:출토유물) 및 수혈유구(②조사전, ③조사중, ④조사후, ⑤토층, 19: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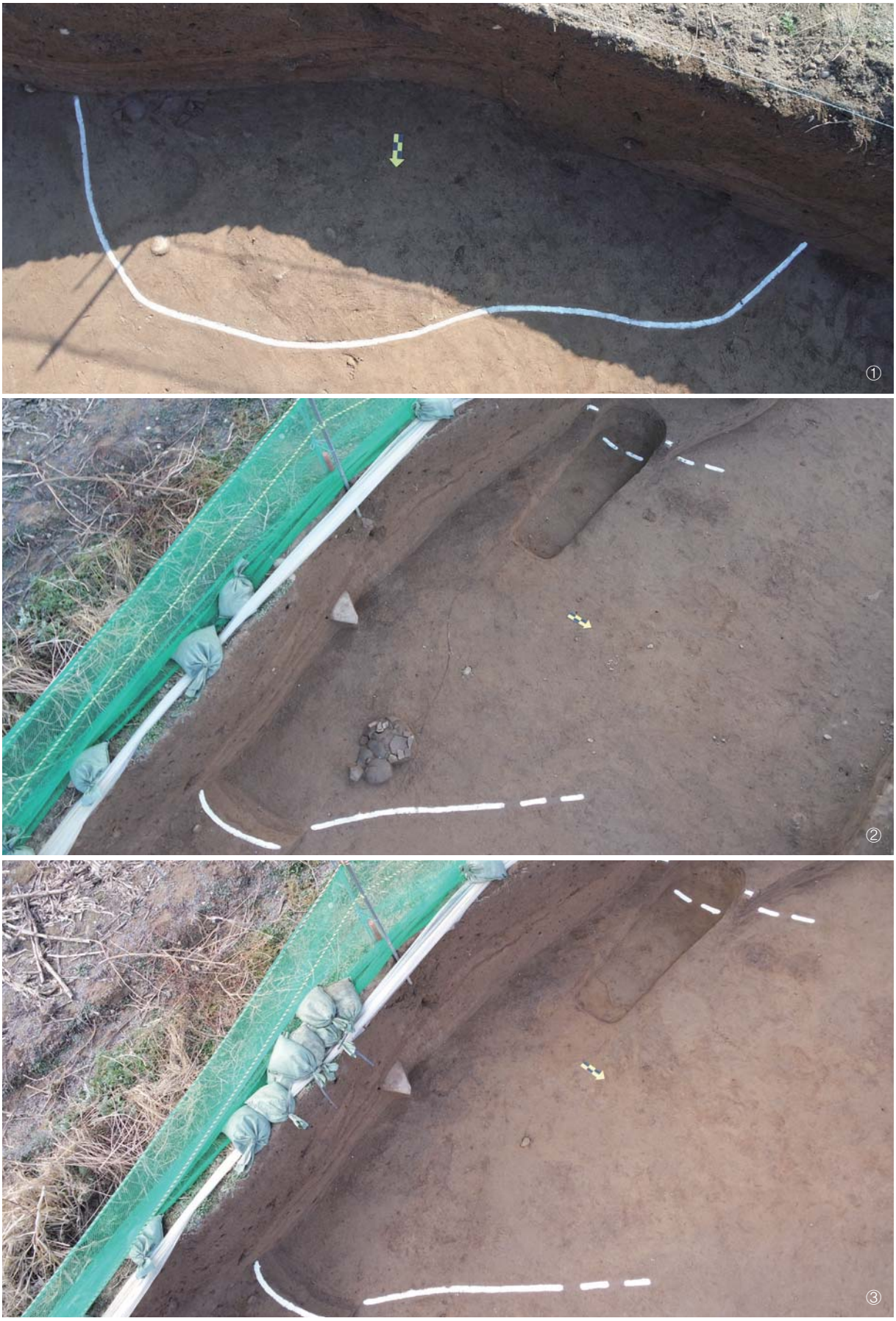
도판 14. 원삼국~고려시대 문화층 삼국시대 주거지 1호(①조사전, ②조사중1)



도판 15. 원삼국~고려시대 문화층 삼국시대 주거지 1호(①조사중2, ②조사후)



도판 16. 원삼국~고려시대 문화층 삼국시대 주거지 1호(①②토층, ③~⑤노지, ⑥~⑧유물출토상태, 20~24:출토유물)



도판 17. 원삼국~고려시대 문화층 삼국시대 주거지 2호(①조사전, ②조사중, ③조사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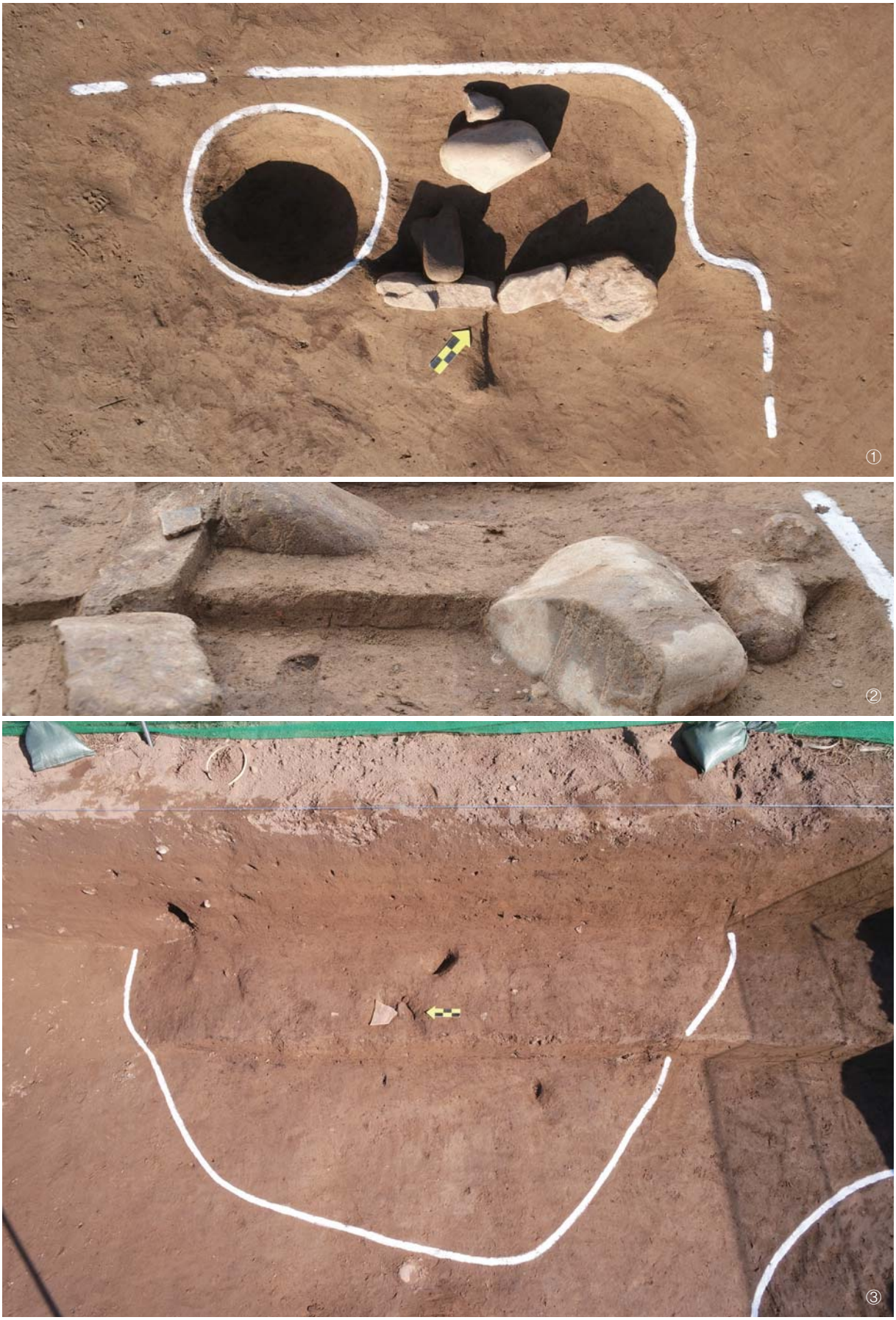








도판 18. 원삼국~고려시대 문화층 삼국시대 주거지 2호(①유물출토상태, 25 · 26:출토유물) 및 고려시대 구들형 유구(②조사전, ③조사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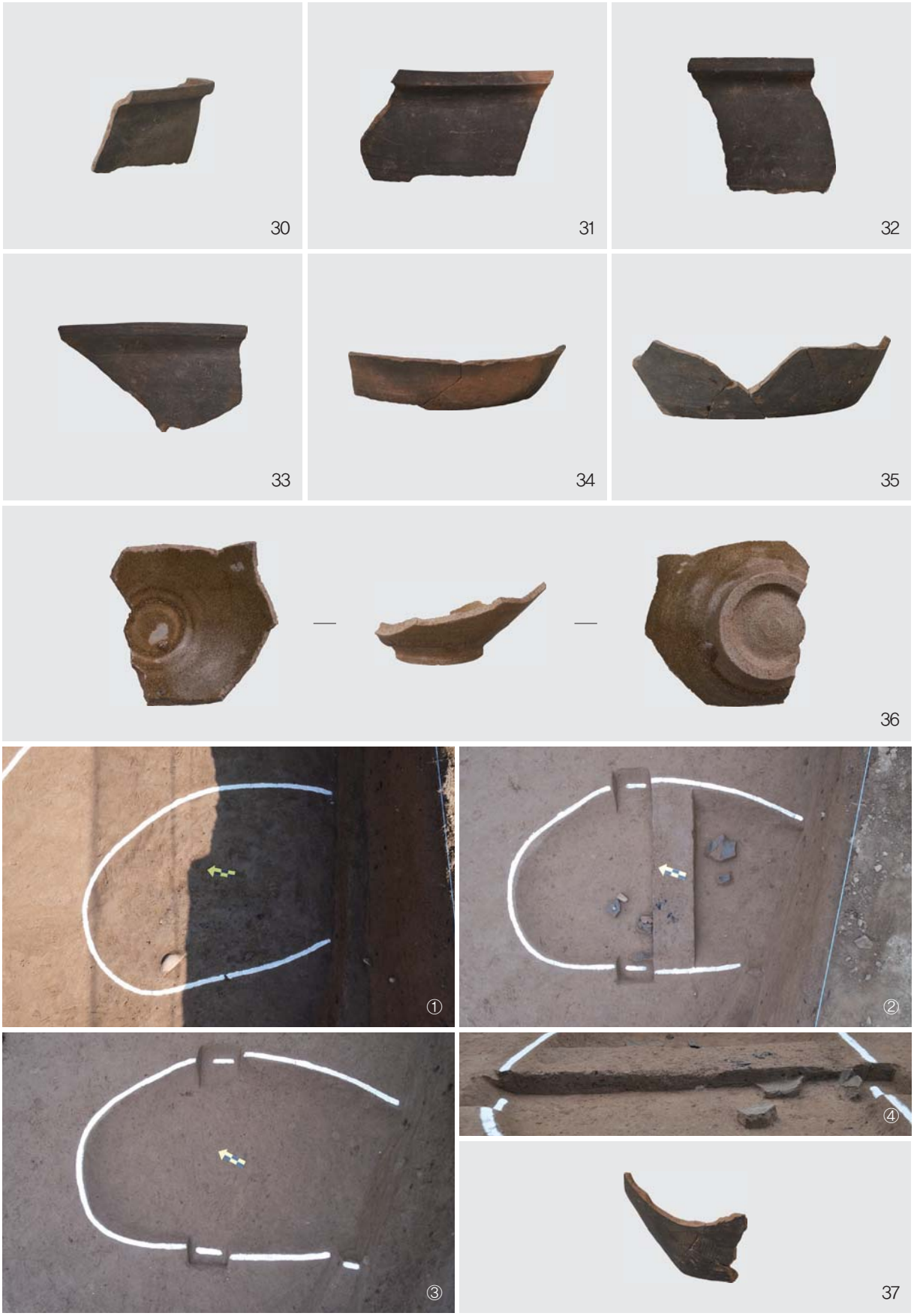
도판 19. 원삼국~고려시대 문화층 고려시대 구들형 유구(①조사후,②토층) 및 수혈유구 1호(③조사전)



도판 20. 원삼국~고려시대 문화층 고려시대 수혈유구 1호(①조사중, ②조사후)



도판 21. 원삼국~고려시대 문화층 고려시대 수혈유구 1호(①토층, ②~⑤유물출토상태, 27~29:출토유물1)



도판 22. 원삼국~고려시대 문화층 고려시대 수혈유구 1호 출토유물2(30~36) 및 2호(①조사전, ②조사중, ③조사후, ④토층, 37:출토유물)



도판 23. 원삼국~고려시대 문화층 고려시대 매납유구(①조사전, ②조사중, ③조사후, 38:출토유물), 수습유물(39 · 40), 학술자문회의(④)

춘천 장학리 439-8번지 유적 유물목록

유물번호	유물명	수량(점)	출토유구	분류		크기(㎝)			도면번호 도판번호	선별결과
				재질	시대	기고(길이)	구경(폭)	저경(두께)		
2017-0852-0001	무문토기 저부	1	주거지1호	토도	청동기	(11.7)	-	12.9	6-1 4-1	Y
2017-0852-0002	무문토기 저부	1	주거지1호	토도	청동기	(4.0)	-	9.8	6-2 4-2	Y
2017-0852-0003	무문토기 저부	1	주거지1호	토도	청동기	(4.0)	-	5.8	6-3 4-3	Y
2017-0852-0004	경질무문토기 개	1	주거지1호	토도	원삼국	5.9	드림부경: 16.0	1.5	11-4 10-4	Y
2017-0852-0005	경질무문토기 외반구연호	1	주거지1호	토도	원삼국	(26.5)	22.6	1.0	11-5 10-5	Y
2017-0852-0006	타날문토기 동체부편	1	주거지1호	토도	원삼국	(8.5)	-	0.5	11-6 10-6	Y
2017-0852-0007	타날문토기 동체부편	1	주거지1호	토도	원삼국	(11.5)	-	0.7	11-7 10-7	Y
2017-0852-0008	원형토제품	1	주거지1호	토도	원삼국	지름: 6.0	-	1.4	11-8 10-8	Y
2017-0852-0009	지석	1	주거지1호	토도	원삼국	32.8	9.8	7.6~9.0	12-9 10-9	Y
2017-0852-0010	꺾쇠편	1	주거지1호	금속	원삼국	(3.5)	4.5	0.3	12-10 10-10	Y
2017-0852-0011	타날문토기 동체부편	1	주거지2호	토도	원삼국	(7.0)	-	0.8	14-11 11-11	Y
2017-0852-0012	경질무문토기 저부	1	주거지3호	토도	원삼국	(6.0)	-	13.6	16-12 13-12	Y
2017-0852-0013	경질무문토기 저부	1	주거지3호	토도	원삼국	(5.1)	-	11.2	16-13 13-13	Y
2017-0852-0014	경질무문토기 저부	1	주거지3호	토도	원삼국	(6.5)	-	9.6	16-14 13-14	Y
2017-0852-0015	경질무문토기 저부	1	주거지3호	토도	원삼국	(3.7)	-	9.4	16-15 13-15	Y
2017-0852-0016	경질무문토기 저부	1	주거지3호	토도	원삼국	(3.9)	-	8.7	16-16 13-16	Y
2017-0852-0017	경질무문토기 저부	1	주거지3호	토도	원삼국	(5.4)	-	11.2	16-17 13-17	Y

유물번호	유물명	수량(점)	출토유구	분류		크기(㎝)			도면번호 도판번호	선별결과
				재질	시대	기고(길이)	구경(폭)	저경(두께)		
2017-0852-0018	경질무문토기 저부	1	주거지3호	토도	원삼국	(3.0)	-	10.8	16-18 13-18	Y
2017-0852-0019	타날문토기 호	1	수혈유구	토도	원삼국	(18.3)	-	9.8	17-19 13-19	Y
2017-0852-0020	경질무문토기 외반구연호	1	주거지1호	토도	삼국	(13.0)	14.4	0.7~1.1	19-20 16-20	Y
2017-0852-0021	경질무문토기 저부	1	주거지1호	토도	삼국	(13.0)	-	9.8	19-21 16-21	Y
2017-0852-0022	타날문토기 호 구연부	1	주거지1호	토도	삼국	(6.4)	16.2	0.4~1.0	19-22 16-22	Y
2017-0852-0023	타날문토기 호 구연부	1	주거지1호	토도	삼국	(5.8)	27.6	0.5~0.8	19-23 16-23	Y
2017-0852-0024	타날문토기 호 구연부	1	주거지1호	토도	삼국	(8.0)	25.6	0.4~0.8	19-24 16-24	Y
2017-0852-0025	단경호	1	주거지2호	토도	삼국	(26.8)	17.2	0.6	21-25 18-25	Y
2017-0852-0026	저부	1	주거지2호	토도	삼국	(6.4)	-	16.2	21-26 18-26	Y
2017-0852-0027	동이	1	수혈유구1호	토도	고려	(21.6)	-	21.0	24-27 21-27	Y
2017-0852-0028	동이 동체부편	1	수혈유구1호	토도	고려	(12.3)	-	0.9	24-28 21-28	Y
2017-0852-0029	시루 저부	1	수혈유구1호	토도	고려	(13.0)	-	19.6	24-29 21-29	Y
2017-0852-0030	구연부편	1	수혈유구1호	토도	고려	(7.8)	32.8	0.7	25-30 22-30	Y
2017-0852-0031	구연부편	1	수혈유구1호	토도	고려	(9.3)	-	0.4~0.8	25-31 22-31	Y
2017-0852-0032	구연부편	1	수혈유구1호	토도	고려	(10.4)	-	0.7	25-32 22-32	Y
2017-0852-0033	구연부편	1	수혈유구1호	토도	고려	(7.0)	-	0.8	25-33 22-33	Y
2017-0852-0034	저부	1	수혈유구1호	토도	고려	(4.3)	-	19.6	25-34 22-34	Y
2017-0852-0035	저부	1	수혈유구1호	토도	고려	(6.5)	-	(23.6)	25-35 22-35	Y

유물번호	유물명	수량(점)	출토유구	분류		크기(㎝)			도면번호 도판번호	선별결과
				재질	시대	기고(길이)	구경(폭)	저경(두께)		
2017-0852-0036	청자 저부	1	수혈유구1호	토도	고려	(4.4)	-	5.2	25-36 22-36	Y
2017-0852-0037	저부	1	수혈유구2호	토도	고려	(6.5)	-	20.2	26-37 22-37	Y
2017-0852-0038	대호	1	매납유구	토도	고려	(68.5)	29.0	0.7~1.1	27-38 23-38	Y
2017-0852-0039	경질무문토기 외반구연호	1	수습	토도	철기	21.0	14.0	9.5	28-39 23-39	Y
2017-0852-0040	경질무문토기 저부	1	수습	토도	철기	(7.3)	-	9.2	28-40 23-40	Y

掘調査報告書 抄錄

報告書名	춘천 장학리 439-8번지 유적		發行日	2019年 12月 23日
發行機關	名稱	한국문화재재단		
	住所	(06153)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06		
	TEL	(02)3011-2173	FAX	(02)566-5954
執筆 · 編輯者	정훈진 · 이건충 · 조은이 · 정홍선 · 김현진			
調査 緣由	단독주택 신축에 따른 구제조사			
發掘調査者	박종섭 · 이창욱 · 이건충 · 조은이 · 양현승			
遺蹟調査地番	강원도 춘천시 동면 장학리 439-8번지			
調査面積	792㎡			

遺構種別	時代 및 年代	類型 및 基數	重要遺物	特記事項
주거지	청동기시대	2동	무문토기 저부	
	원삼국시대	3동	경질무문토기, 타날문토기	
	삼국시대	2동	단경호	
수혈유구	청동기시대	1기	·	
	원삼국시대	1기	경질무문토기	
	고려시대	2기	동이, 시루 저부, 구연부편, 청자 저부	
구들형 유구	고려시대	1기	·	
매납유구	고려시대	1기	대호	

2017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권별 유적 목록

권	연번	유적명	권	연번	유적명
Ⅰ	1	경주 황남동 95-1번지 유적	Ⅶ	45	경주 황남동 231번지 유적
	2	무안 양장리 1117-3번지 유적		46	합천 구원리 506 · 507번지 유적
	3	경주 신서리 208-12번지 외 1필지 유적		47	제주 건입동 1378-1번지 유적
	4	영광 녹사리 89-35번지 유적		48	경주 인왕동 696-1번지 유적
	5	하남 미사동 411번지 외 1필지 유적		49	경주 인왕동 696-9번지 유적
	6	경주 구황동 657번지 유적	Ⅷ	50	경주 인동리 696-2번지 유적
	7	강릉 방동리 63-20번지 유적		51	경주 교동 145번지, 146번지 유적
	8	경주 율동 산3-14번지 유적		52	춘천 천전리 97-8번지 외 2필지 유적
Ⅱ	9	청주 송절동 447번지 유적		53	함안 가야리 133-8번지 유적
	10	서울 가회동 31-6번지 유적		54	춘천 우두동 118번지 외 2필지 유적
	11	경주 배동 181번지 유적		55	창원 진동리 246-3번지 유적
	12	양평 양수리 769-8번지 유적	Ⅸ	56	경주 율동 산2-6번지 유적
	13	부여 쌍북리 343번지 유적		57	경주 망성리 382-3, 383-3번지 유적
	14	청양 왕진리 599번지 유적		58	제주 광령리 1815-3번지 유적
	15	김해 대성동 145-1번지 유적		59	제주 외도1동 34-5번지 유적
	16	서울 권농동 171-12번지 유적		60	가평 청평리 714-4번지 유적
	17	서울 암사동 115번지 유적		61	대구 비산동 265-9번지 유적
	18	제주 광령리 1622-1번지 유적	Ⅹ	62	제주 삼양1동 1662-11번지 유적
Ⅲ	19	가평 청평리 709-5번지 유적		63	춘천 신매리 70-6번지 일원 유적
	20	김해 봉황동 303-5번지 유적		64	양평 앙덕리 50-2번지 유적
	21	용인 마북동 502-398번지 유적		65	울산 상안동 411-2번지 유적
	22	공주 중동 49-6번지 유적		66	창녕 교리 384-10번지 유적
	23	춘천 신매리 786번지 유적		67	부여 구아리 89-5번지 유적
	24	김해 대성동 123번지 유적		68	부여 구아리 89-4번지 유적
Ⅳ	25	경산 조영동 251-7번지 유적		69	부여 구아리 89-10번지 유적
	26	대구 욱수동 115번지 유적	Ⅺ	70	김해 봉황동 223-13번지 유적
	27	하남 춘궁동 303-1번지 유적		71	경주 밀구1길 158-34 유적
	28	강화 관청리 697번지 유적		72	제주 용담2동 2704-5번지 유적
	29	구미 신기리 70-23번지 유적	Ⅻ	73	김해 서상동 222-2번지 유적
	30	성주 성산리 979-2번지 유적		74	울산 동동 505-2번지 유적
	31	서울 누하동 224번지 유적		75	춘천 지내리 679-4번지 유적
Ⅴ	32	경주 용강동 1175-18번지 유적		76	하남 항동 142번지 유적
	33	강릉 초당동 316번지 유적		77	경주 황남동 229-19번지 유적
	34	춘천 신매리 393-1번지 유적		78	경주 탑동 514-4번지 외 1필지 유적
	35	강화 신문리 627-2번지 유적		79	제주 곽지리 2017-2번지 유적
	36	울산 서동 200번지 유적	ⅩⅢ	80	공주 중동 54번지 유적
	37	춘천 천전리 64-11번지 유적		81	경주 황오동 42-4번지 유적
Ⅵ	38	경주 탑동 56-8 · 14번지 유적		82	경주 배동 545-4번지 유적
	39	경주 소현리 109번지 유적		83	대전 읍내동 306-6번지 유적
	40	경주 황남동 189-2번지 외 1필지 유적		84	제주 감산리 1500-1번지 유적
	41	부여 쌍북리 389-2번지 유적		85	공주 중동 50-5번지 유적
	42	산청 강누리 451-2번지 유적		86	고령 고곡리 940번지 유적
	43	광주 신창동 552-23번지 유적		87	경산 부적리 286-1, 268-2번지 유적
Ⅶ	44	경주 황남동 232번지 유적			

권	연번	유적명	권	연번	유적명
XIV	88	경주 남산동 222-9번지 유적	XX	130	김해 동상동 722-13번지 유적
	89	서울 체부동 111-2번지 유적		131	하남 미사동 409-8번지 유적
	90	고령 고아리 20-2번지 유적		132	울진 화성리 402번지 유적
	91	경주 아화리 140-4번지 유적		133	양평 상자포리 414-2번지 유적
	92	부여 관북리 147-2번지 유적		134	서울 누하동 176번지 유적
	93	강릉 초당동 248-2번지 유적	XXI	135	광주 상번천리 526-1번지 유적
	94	경주 아화리 140-1번지 유적		136	옥천 금산리 157번지 유적
	95	경주 아화리 140-3번지 유적		137	안성 중복리 605-4번지 유적
	96	경주 개곡리 836번지 유적		138	양평 하자포리 244-2번지 유적
XV	97	경주 인왕동 814-3번지 유적		139	사천 선진리 1055번지 유적
	98	경주 인왕동 814-4번지 유적		140	서울 효자동 33-1번지 유적
XVI	99	경주 방어리 39, 39-4번지 유적		141	대전 읍내동 338-1번지 유적
	100	제주 용담2동 2623-11번지 유적		142	춘천 신매리 210-2번지 외 1필지 유적
	101	제주 화순리 757-2, 757-5번지 유적		143	울주 석천리 250-4번지 외 1필지 유적
	102	경주 조전리 601-8번지 유적		144	제주 광령리 1607-5번지 유적
	103	경주 괘릉리 산37-1번지 유적	XXII	145	춘천 신매리 111-29번지 외 1필지 유적
	104	김해 동상동 841번지 유적		146	김해 내삼리 794-2번지 유적
XVII	105	제주 용담2동 652-33번지 유적		147	강릉 초당동 330번지 유적
	106	제주 삼양2동 2101-18번지 유적		148	김해 동상동 538-6번지 유적
	107	보은 병원리 246-3번지 유적		149	군위 화북리 632번지 유적
	108	울주 대대리 541번지 유적		150	경주 동부동 37번지 유적
	109	영양 청기리 243-4번지 유적		151	제주 삼양2동 2140-6번지 유적
	110	고령 연조리 594-4번지 유적		152	대구 불로동 30-14, 30-15번지 유적
	111	포항 구만리 328번지 유적		153	춘천 장학리 439-8번지 유적
	112	경주 성건동 326-4번지 유적	XXIII	154	경산 조영동 251-22번지 외 1필지 유적
XVIII	113	가평 청평리 721-5번지 외 1필지 유적		155	홍천 신장대리 63-15번지 유적
	114	경주 동부동 32-1번지 유적		156	경주 구황동 875-3번지
	115	경주 황남동 150-3번지 유적		157	창녕 초곡리 1002번지 유적
	116	강릉 초당동 124-3번지 유적		158	상주 무양동 202-1번지 유적
	117	부산 월내리 237-14번지 유적	XXIV	159	울산 중산동 684-2, 532-20번지 유적
	118	경산 소월리 907, 907-1번지 유적		160	제주 함덕리 3363번지 유적
	119	공주 반죽동 288번지 유적		161	경주 화곡리 22번지 유적
	120	서울 누하동 175-3번지 유적		162	정선 덕천리 29-3번지 유적
	121	하남 미사동 254-1번지 유적		163	춘천 신매리 67-8번지 유적
	122	함안 묘사리 산134번지 유적		164	제주 화순리 695-4번지 유적
XIX	123	경주 아화리 136-4번지 외 1필지 유적	XXV	165	제주 함덕리 3366-1번지 유적
	124	경주 아화리 136-6번지 유적		166	부여 쌍북리 615-5번지 유적
	125	경주 화산리 314번지 유적		167	상주 외답동 45-2, 45-3번지 유적
	126	공주 반죽동 281-5번지 유적		168	부여 가탑리 94-7번지 유적
	127	경주 소현리 115번지 유적		169	부여 동남리 235번지 유적
	128	춘천 금산리 446-2번지 유적		170	창녕 교리 523-1번지 유적
	129	춘천 지내리 680-2번지 외 1필지 유적		171	경주 황오동 42-2번지 유적
				172	경산 조영동 239-26번지 유적

학술조사보고 제394책

2017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XXII

| 145~153 |

2019년 12월 20일 印刷
2019년 12월 23일 發行

編 輯 : 한국문화재재단 문화재조사연구단
(http://www.cprc.or.kr)

發 行 : 한국문화재재단(http://www.chf.or.kr)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06
Tel.02)3011-2173 Fax.02)566-5954
ISBN 978-89-6433-272-6
978-89-6433-018-0 (세트)

印 刷 : 창조사
Tel.062)234-0904 Fax.062)222-8558